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Ⅰ
애월읍 편 (2013)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Ⅱ
조천읍 편 (2014)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
구좌읍 편 (2015)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Ⅳ
안덕면 편 (2016)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Ⅴ
한경면 편 (2017)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Ⅵ
성산읍 편 (2018)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Ⅶ
대정읍 편 (2019)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Ⅷ
남원읍 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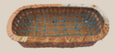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Ⅸ
표선면 편 (2021)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Ⅹ
한림읍 편 (2022)

* 2023년 추자면·우도면 편 발간예정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Ⅹ

한림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비매품/무료
93380
9 791187 075189
ISBN 979-11-87075-18-9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Ⅹ
한림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발간등록번호
79-6500450-000046-01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Ⅹ

한림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X

한림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발간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인의 일상과 관련된 생활도구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제주시 한림읍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림읍은 15개의 법정리, 21개의 행정리로 구성된 지역으로, 전체 면적 91.21㎢에 10,641세대 21,428명이 거주(2021년 12월 기준)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토지, 풍부한 어장, 체계화된 목장 운영으로 농·수·축산업이 고루 발달해 있으며, 제주시 서부 지역 상권과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용암동굴과 해수욕장, 비양도 등 자연 자원과 명월성지, 한림공원, 이시돌목장 등 각종 관광 자원이 있어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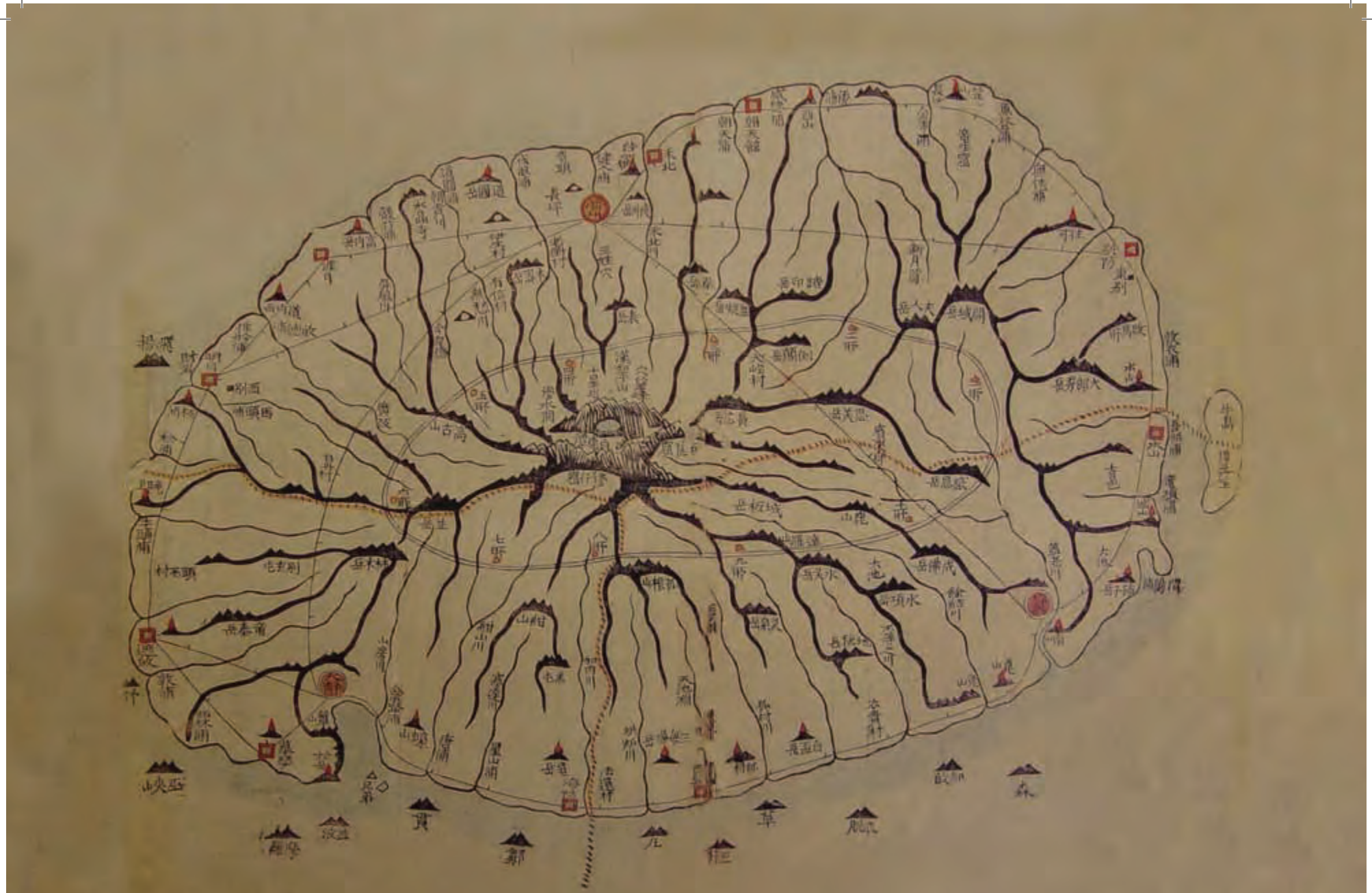
한림읍은 과거부터 많은 인구가 거주해 온 지역이자 내륙에서 제주로 통하는 주요 관문이었습니다. 고려 희종 7년(1211) 지금의 한림읍 귀덕1리에 설치된 귀덕현은 탐라현(주현) 다음으로 가장 먼저 속현이 되었고, 명월포(지금의 옹포리 포구)는 고려시대 삼별초 항쟁과 목호 난 진압군이 들어왔던 당시 제주 최대 항구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 한림 지역은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 거점으로 발전하는데, 명월진은 명월진성을 중심으로 2봉수 7연대를 관할하는 제주 서부지역 대표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한림 지역의 원활한 교통과 인프라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적극 활용되어 식품공장, 술공장, 전분공장 등이 있는 제주의 주요 공업단지로 성장하게 되고, 해방 이후 금악리 일대에 이시돌 목장이 개척되면서 제주 대표 근대 축산 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산업구조가 고르게 발전해 온 한림읍 지역을 대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민속 현지조사에 나섰습니다. 비양도를 제외한 각 마을을 방문하여 총 52분의 제보자를 만나 소장하고 있는 옛 생활 도구에 대한 구술을 듣고 촬영하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서에서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목축 관련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한림읍의 생활문화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사에 임해주신 김보향, 박진향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서가 한림읍을 비롯한 제주 지역의 생활문화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 12.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 찬 식**




귀덕1리
귀덕리
대림리
비양도
한림리
한림3리
상대리
동명리
협재리
명월리
한림읍
상명리
금악리
한라산

Ⅰ. 조사 개요 ····· 11

1. 조사 개요 ····· 12
2. 조사단 구성 ····· 13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 13
4. 조사 마을 개관 ····· 16

Ⅱ. 조사 내용 ····· 31

1. 의생활 ····· 32
1.1. 바느질 도구 ····· 32
1.2. 손질 도구 ····· 46
1.3. 세탁 도구 ····· 51
1.4. 옷과 신발 ····· 57

2. 식생활 ····· 68
2.1. 식기류 ····· 68
2.2. 조리 도구 ····· 84
2.3. 저장 도구 ····· 97
2.4. 제기 ····· 112
2.5. 기타 도구 ····· 119

3. 주생활 ····· 128
3.1. 집 ····· 128
3.2. 집 구조 ····· 135
3.3. 가재도구 ····· 153
3.4. 조명 도구 ····· 160
3.5. 난방 도구 ····· 164
3.6. 연장류 ····· 165
3.7. 기타 도구 ····· 177

4. 농업 관련 ····· 193
4.1. 파종 관련 ····· 193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 214
4.3. 건조와 손질 관련 ····· 225
4.4. 운반 도구 ····· 243
4.5. 계량 도구 ····· 252
4.6. 저장 도구 ····· 255
4.7. 기타 도구 ····· 262

5. 어업 관련 ····· 268
5.1. 바닷일 ····· 268
5.2. 물옷 ····· 273
5.3. 테왁과 망사리 ····· 282
5.4. 채취 도구 ····· 289
5.5. 기타 도구 ····· 295
5.6. 어업 관련 근대 산업 시설 ····· 307

6. 목축 관련 ····· 317
6.1. 마소 관련 ····· 317
6.2. 돼지 관련 ····· 337

III. 마무리 ····· 343

부록 ····· 351

1. 금악리 양원석 · 강정자 씨의 목축 도구 이야기 ····· 352
2. 수원리 고기순 씨의 식생활 도구 이야기 ····· 443


DRESS





I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제주 고유의 민속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산업화와 세계화로 빠르게 소실되어 가는 과거 생활문화 자료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속자료의 연구·조사·수집·활용 등을 담당하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2013년부터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한림읍 일원을 대상으로 20회의 현지조사를 추진하였다. 제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생활 도구의 명칭과 정의, 재료, 쓰임새, 특징 등을 정리하였다. 코로나 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방역 수칙 준수와 마을 주민 분들의 협조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세부 조사 대상은 의·식·주생활 도구 및 농업·어업·목축업 관련 도구로, 기록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찍은 도구 사진과 제보자의 구술도 함께 꼼꼼히 정리했다. 제주의 과거 생활문화에 이름과 나이, 성격을 찾고 정리한 이번 사업이 훗날 제주도 민속 연구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조 사 명: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X - 한림읍편
- 조사지역: 제주시 한림읍 일원
- 조사기간: 2022. 5. 2. ~ 10. 29.(20회)
- 조사내용: 의·식·주생활 도구 및 농업·어업·목축업 관련 도구 전반
- 조사방법: 선행 연구 검토, 문헌 조사, 현지 조사 등

2.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박찬식(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 조 사 책 임: 박용범(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과장)
- 조　사　원: 황이새(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외부조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박진향(제주대학교 언어교육원)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3.1. 조사 대상지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10』은 제주시 한림읍을 조사 대상지로 한다. 한림읍은 15개의 법정리 , 21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양도를 제외한 한림읍의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3.2. 조사 방법과 제보자

한림읍 지역의 생활 도구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한림읍의 각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을 제보자로 만나 조사하였다. 마을의 경로당이나 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해 협조를 구하고 노인회장님, 리장님, 사무장님 등에게 제보자를 추천받았다. 또 마을을 돌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제보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주민들을 만나 소장하고 있는 옛 생활 도구에 대한 구술을 듣고 실물을 촬영하며 조사하였다. 제보자의 구술은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한 후, 이를 전사하여 제보자들의 발화 내용을 그대로 살려 도구 사진과 함께 책에 실었다.

이번 한림읍 조사에서 만난 제보자는 강구리 3명, 귀덕리 3명, 금능리 2명, 금악리 4명, 대림리 4명, 동명리 2명, 명월리 3명, 상대리 2명, 상명리 3명, 수원리 2명, 옹포리 6명, 월령리 3명, 월림리 3명, 한림리 7명, 한수리 3명, 협재리 2명으로 총 52명이다. 마을별 제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1> 마을별 제보자

마을	제보자	성별	출생년도
강구리	강술생	여	1942
	고년희	여	1944
	양인희	여	1924
귀덕리	고옥자	여	1945
	현경생	여	1938
	홍관매	여	1939
금능리	김진현	여	1936
	양의운	여	1927
금악리	강정자	여	1940
	박순원	남	1942
	양원석	남	1939
	장화순	여	1946
대림리	신태상	남	1947
	이연옥	여	1938
	정연희	여	70대
	홍춘화	여	1948
동명리	고유연	여	1933
	문영춘	여	1953
명월리	강병출	여	1926
	김묘생	여	1951
	오명봉	남	1949
상대리	강재후	남	1952
	양승훈	남	1942
상명리	변춘산	여	1933
	장창일	남	1953
	홍영하	남	1936

마을	제보자	성별	출생년도
수원리	김종선	여	1933
	임익종	남	1956
옹포리	고순여	여	1939
	고운중	남	1948
	김인선	여	1949
	백창홍	남	1947
	장인자	여	1947
	정일봉	남	1939
월령리	고옥생	여	1940
	신창윤	여	1934
	이종홍	남	1939
월림리	고갑년	여	1934
	박영자	여	1930
	양명부	여	1944
한림리	고연옥	여	1943
	김영자	여	80대
	김중관	남	1936
	문순선	여	1945
	오진숙	여	1948
	이옥여	여	1934
	장길자	여	1945
한수리	고기순	여	1939
	양정아	여	1938
	현성매	여	1936
협재리	강명순	여	1943
	장순삼	남	1939

3.3. 정리 방법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10, 한림읍 편』은 한림읍의 각 마을을 방문하여 옛 생활 도구에 관하여 조사한 것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목축 관련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책에 제시한 내용은 현장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문헌 자료를 확인해 가며 정리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의생활에서는 바느질 도구와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옷과 신발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식기류와 조리 도구, 저장 도구, 제기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주생활에서는 가재도구와 조명 도구, 난방 도구, 연장류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관련 도구, 건조와 손질 관련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 저장 도구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어업과 관련해서 조사된 자료는 물옷, 테왁과 망사리, 채취 도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근대 어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다. 목축 관련해서는 마소 관련 도구와 돼지 관련 도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생활 도구에 대한 기술은 그 도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도구의 명칭과 그것에 정의를 내리고 도구의 재료, 쓰임새, 각각의 특징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에 제시하고 있는 도구들은 모두 이번 한림읍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것으로 분야별로 구분한 후 현장에서 직접 찍은 실물 사진과 구술을 함께 실었다. 제보자의 구술은 채록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한 후 그것을 엮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준어 대역을 함께 실었다. 도구에 대한 실물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구술을 토대로 도구의 쓰임새 등에 대한 설명을 실었다. 현장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도구는 제외하였다.

4. 조사 마을 개관

4.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은 제주도 북서부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 제주시 애월읍, 서쪽으로 제주시 한경면, 남쪽으로 정물오름(466.1m) 인근을 경계로 한 서귀포시 안덕면, 북쪽으로 바다(제주해협)와 접하고 있다.[1)]

한림읍 지역은 고려시대 귀덕현(歸德縣)과 명월현(明月縣)에 속했다. 귀덕현은 1211년(희종 7) 석천촌(石淺村, 지금의 귀덕1리)을 귀덕현으로 삼으면서 설치되었다.[2)] 탐라현(주현) 이외에 가장 먼저 승인받은 속현으로 당시 많은 인구가 거주했을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명월현은 1300년(충렬왕 26) 제주목에 속했던 촌 가운데서 14개 촌을 동·서방향으로 나누어 군현으로 개편하면서 생겨났다.[3)]

조선 초인 1416년(태종 16)이 되면서 고려시대 행정조직이었던 동·서도현(東·西道縣) 제도가 폐지되고 3읍 행정조직이 도입(제주목, 대정현, 정의현)된다. 이에 한림읍 지역은 제주목에 예속되었고, 1609년(광해군 1) 3읍 8면 체제가 되면서 제주목 우면(右面)에 속하게 된다.

1879년 면 분리에 따라 애월읍 지역이 신우면(新右面), 한림읍 지역이 구우면(舊右面, 한경면 지역 포함)으로 분리·개칭되었으며, 1935년 구우면이 한림면(翰林面)으로 개칭되었다. 1956년 한림면은 한림읍으로 승격되고 한경면이 분리되어 나갔으며,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림읍의 전체 면적은 91.21㎢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4.92%, 제주시 전체 면적의 9.32%를 차지한다. 한림리(읍 소재지), 귀덕리, 수원리, 대림리, 한수리, 상대리, 금능리, 동명리, 명월리, 상명리, 월림리, 월령리, 협재리, 금악리, 옹포리 등 15개 법정리와 21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57개 자연마을과 350개 반이 있다. 부속 섬으로는 비양도(0.59㎢)가 있다.

---

1) 두디피아(한림읍),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11694

2) 高麗史 권 57, 地理 2, 耽羅縣조

3) 김일우(2005), 「고려시대 탐라 주민들의 생업활동과 그 유형」, 『국사관논총』 제106집, 국사편찬위원회.

<표 1> 한림읍 행정구역과 면적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면적(㎢)
한림리	한림1리	북동, 사가동, 한성동, 문화동 한근동, 문교동	44	2.82
	한림2리	내동, 연동, 명랑동, 남동	25	
	한림3리		5	
	강구리		5	
귀덕리	귀덕1리	사동, 하동, 중동, 성로동,신서동	35	5.54
	귀덕2리	장흥동, 장라동, 라신동	15	
	귀덕3리		9	
수원리	수원리	상동, 중동, 하동, 대수동, 전동, 신성동, 수전동, 용운동	26	1.15
대림리	대림리	입전동, 중동, 서광이동, 동하동, 서동	31	3
한수리	한수리	모살동, 비석동	13	0.14
상대리	상대리	본동, 서동, 하동	4	11.29
금능리	금능리	근로동, 자조동, 자립동, 협동동	20	5.53
동명리	동명리	진근동, 남문동, 한천동, 문수동	11	3.76
명월리	명월리	상동, 중동, 하동	15	5.51
상명리	상명리	동동, 서동, 조성동	12	5.28
월림리	월림리		11	4.44
월령리	월령리		6	3.06
협재리	협재리	재천동, 금산동, 중앙동, 해안동	21	7.31
	비양리		2	0.59
금악리	금악리		18	30.53
옹포리	옹포리	대화동, 중화동, 서화동	22	1.23
15개리	**21개리**	**57개동**	**350반**	**91.21㎢**

※출처: 2021 제주시 통계연보 및 한림읍사무소 홈페이지

4.2. 자연환경

(1) 지질과 지형

한림읍 지역은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질 및 조면현무암질 용암이 낮은 지형 고도 방향인 북서쪽으로 길게 쌓여서 형성되었다. 용암의 분출구인 다수의 분석구도 함께 존재한다. 그 아래에는 약 180만 년 전부터 100만 년 동안의 화산 활동 및 해수면의 변동으로 쌓인 서귀포층이 평균 지하 50m에 분포하고 있다.

한림읍은 해발 500m 이내에 위치하여 산간지대(해발 600m 이상)가 없는 지역으로, 내륙에서부터 해안까지 완만한 경사가 이어져 층위별 저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다. 화산지형의 특색으로 16개의 오름이 분포하는데 모두 분석구에 해당하며, 형태적으로는 말굽형 분화구가 9개, 원추형이 2개, 원형이 2개, 복합형이 3개가 있다. 금오름(427.5m), 정물오름(466.1m), 도너리오름(439.6m) 등 8개의 오름이 중산간 지역인 금악리에 집중되어 있다.

한림읍에서 용암 동굴은 19개가 확인되고 있다. 협재리 일대의 협재굴, 쌍용굴, 황금굴 및 해안 주변에 분포하는 용암 동굴의 내부에는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종유석이나 석순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굴 위의 지표면을 덮고 있는 사구층의 패사를 용식한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다양한 용암동굴 중 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쌍용굴은 화산동굴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고, 동굴 내에 석회성분이 녹아 2차 생성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등 지질학적 연구가치가 매우 커서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란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1971년)되었다.

한림읍 내 하천으로는 옹포천(연장 6.4㎞), 한림천(연장 6.4㎞), 문수천(연장 2.9㎞)이 있다. 이 중 옹포천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누운오름 남사면에서 발원하여 읍의 중앙을 가로질러 바다로 흐르는 하천으로, 제주도 북서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시 물이 흐르며 최대의 용천수를 자랑한다. 용천수 뿐 아니라 지표수가 풍부한 옹포천은 연중 용출하는 하천으로 한림정수장이 위치해 있어 한림읍·애월읍·한경면 등 제주시 서부 지역의 상수원이 되고 있다.[4] 이는 또한 과거 전분공장과 양조공장(현재 한라산 소주 공장)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한림읍 옹포리 해안에서 3㎞ 지점에는 섬 전체가 원형을 이루고 있는 화산섬 비양도가 있다. 비양도의 섬 중앙부 비양봉 정상은 높이 114m이고 정상부 남쪽과 서쪽에 2개의

4) 디지털제주문화대전(옹포천), http://jeju.grandculture.net/jeju/toc/GC00710222

분화구가 자리한다. 비양도에는 호니토(hornito)와 거대한 화산탄, 스코리아, 집괴암, 아아용암 등을 볼 수 있어 '화산박물관'으로 불린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서산(瑞山)은 고려 목종 5년(1002년) 6월에 산이 바다 가운데에 솟아나왔다. 산에 네 구멍이 뚫리고 용암이 솟아나와 닷새 만에 그쳤는데, 그 물이 모두 엉기어 기왓돌[瓦石]이 되었다. 10년에 상서스러운 산이 바다 가운데에 솟아나왔다.'라는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이 이를 비양도의 분화로 인식하여 오랜 기간 전해졌으나, 비양도 화산암의 연대측정결과 약 2~3만 년 전의 연대가 도출되고 비양도 내에 약 4,500년 전인 신식기시대의 압날점렬문 토기가 출토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5)]

(2) 토양

제주도의 토양은 화산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화산회·화산사·화산력을 모재(母材)로 하는 화산회토가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토색에 따라 암갈색토, 농암갈색토, 흑색토, 갈색삼림토로 구분된다. 이 중 암갈색토만 비화산회토에 속하고, 나머지 3개 토양이 화산회토로 취급된다.

한림읍 지역의 토양은 해안지대는 암갈색토, 중산간지대는 농암갈색토로 구성되어 있다. 비화산회토인 암갈색토는 토양산도, 유기물함량, 염기치환용량, 염기포화도, 인산함량의 조건 등으로 판단할 때 제주도 내에서 가장 좋은 1급 토양에 속하며, 제주도 농경지의 40.5%가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한림읍 해안지역의 농경지는 타 지역에 비해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어 물이 잘 빠져버리는 특성상 밭농사를 중심으로 농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상대리, 동명리, 명월리, 옹포리에서는 적은 양이지만 밭벼(산듸)를 일부 생산하고 있다.[6)]

(3) 동식물

한림읍의 주요 식생으로 팽나무, 푸조나무, 멀구슬나무, 감나무,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비양도의 비양나무, 월령리의 선인장, 협재·금능해수욕장 사구에 자라고 있는 순비기나무 등이 있다. 이 중 명월리 중동마을에 하천을 따라 위치한 100여 그루의 팽나무와 푸조나무 노거수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1974년, 명월 팽나무 군락지)되었으며, 비양도

5)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1), 『옹포천 주변 마을의 자연과 생활문화』,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6)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14), 『한림읍 역사문화지』, 선진인쇄사.

북쪽 분화구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비양나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1995년, 비양도의 비양나무자생지) 되어 보호받고 있다. 또한 월령리 해안선을 따라 바위틈과 마을 돌담에 자라는 선인장은 국내 유일의 선인장 야생군락으로 분포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2001년,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되었다.

한림읍 내 야생동물들은 오름, 곶자왈, 하천, 습지, 섬, 사구, 동굴 등지에서 종별로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한국고유종 생물, 제주도 고유종, 국내 제주 한정 분포종 등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매를 비롯하여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두점박이사슴벌레, 물장군, 기수갈고둥이 발견되었으며 고유종인 섬서구메뚜기도 확인되었다.

4.3. 인문환경

(1) 인구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한림읍 마을별 인구현황은 <표 2>와 같다. 총 10,641세대 21,428명(한국인 기준)이 거주 중이며 제주시 인구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고령자 인구는 4,611명이고 평균 연령은 46.9세이다.[7)]

지역별로 보면 한림1리(1,420명), 대림리(1,203명), 협재리(1,060명), 한림2리(1,054명) 순으로 인구가 많다. 반면 한림3리(79명)와 비양리(80명)는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 한림읍 행정리별 세대수 및 인구 현황(한국인 기준)

(2021. 12. 31. 기준)

구 분	세대수(호)	인구(명)		
		계	남	여
계	10,641	21,248	10,908	10,340
귀덕1리	581	1,155	591	564
귀덕2리	337	593	301	292
귀덕3리	149	289	143	146
수원리	509	1,027	505	522
한수리	250	495	275	220
대림리	1,203	2,448	1,222	1,226
한림1리	1,420	2,808	1,469	1,339
한림2리	1,054	2,139	1,112	1,027
한림3리	79	161	80	81
강구리	111	226	120	106
상대리	212	387	214	173
동명리	714	1,503	766	737
명월리	437	806	411	395
금악리	502	1,056	556	500
상명리	232	472	245	227
월림리	194	392	218	174
옹포리	794	1,589	823	766
협재리	1,060	2,097	1,042	1,055
금능리	545	1,092	561	531
월령리	178	353	174	179
비양리	80	160	80	80

※출처: 한림읍사무소 내부자료(2022년 한림읍 주요 현황)

7) 제주시 2021 통계연보(인구).

한림읍은 제주시 내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2021년 12월 기준 3,043명으로 제주시 전체 외국인(13,747명)의 2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원으로 활동하는 등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3> 한림읍 외국인 인구 현황

(2021. 12. 기준)

구분			타이완	미국	일본	필리핀	중국	기타
제주시	계	13,747	270	247	216	364	5,170	7,480
	남자	7,480	145	135	64	115	2,044	4,977
	여자	6,267	125	112	152	249	3,126	2,503
한림읍	계	3,043	8	20	3	39	1,580	1,393
	남자	2,009	4	11	0	24	742	1,228
	여자	1,034	4	9	3	15	838	165

※출처: 2021년 12월 제주시 주민등록인구 현황(2021. 12. 외국인 인구)

(2) 생산과 산업

2021년 제주시 통계연보를 통해 한림읍의 토지 지목별 현황을 살펴본다. 총 91.21㎢ 중 경작지(전·답·과수원)가 34.55㎢로 전체의 37.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 27.29㎢, 목장용지 10.88㎢, 대지 4.05㎢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비중에 걸맞게 한림읍 내 농업인 수가 9,190명(농가 3,150호)으로 한림읍 전체 인구 대비 43.25%에 달한다. 한림1리의 규모가 가장 크며(농가 366호, 농업인 1,136명), 마을 인구대비 농업인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한림3리(104.97%)이다.

<표 4> 한림읍 내 농가 및 농업인 현황

(2022. 4. 기준)

마을별	농가수(호)	농업인 수(명)			한림읍 인구(명)	
		계	남	여	인구	농업인 비율
계	3,150	9,190	4,748	4,442	21,248	43.25
귀덕1리	291	762	392	370	1,155	65.97
귀덕2리	70	220	112	108	593	37.10
귀덕3리	56	171	85	86	289	59.17
수원리	183	553	279	274	1,027	53.85
대림리	239	671	346	325	2,448	27.41
한림1리	366	1,136	583	553	2,808	40.46
한림2리	155	528	280	248	2,139	24.68
한림3리	60	169	84	85	161	104.97
강구리	29	97	47	50	226	42.92
금악리	228	704	369	335	1,056	66.67
동명리	183	571	294	277	1,503	37.99
명월리	161	458	249	209	806	56.82
옹포리	161	468	240	228	1,589	29.45
상대리	89	232	131	101	387	59.95
상명리	132	367	201	166	472	77.75
협재리	267	648	323	325	2,097	30.90
월령리	73	207	101	106	353	58.64
금능리	217	653	332	321	1,092	59.80
월림리	120	335	174	161	392	85.46
한수리	53	180	92	88	495	36.36
비양리	17	60	34	26	160	37.50

※출처: 한림읍사무소 내부자료(2022년 한림읍 주요 현황)

<표 5>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림읍 내 농가 중 약 80%가 채소 농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브로콜리(700호, 250ha)와 양배추(523호, 499ha)의 규모가 가장 크다. 다음으로 많은 수의 농가가 참여하는 감귤 농사에서는 노지온주감귤(506호, 405ha)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각종 곡물류와 과수류, 화훼류 등에 대한 농업도 전개되고 있다.

<표 5> 2021년 한림읍 농업 재배 현황

구 분			농가(호)	면적(ha)	구 분			농가(호)	면적(ha)
채소류	합계		2,494	1,166	감귤류	합계		757	537.3
	마늘	(소계)	265	53		노지온주	(소계)	506	405
		잎마늘	20	3			극조생	145	104
		구마늘	245	50			조생	361	301
	양파	(소계)	162	62		하우스	(소계)	69	50
		조 생	140	50			가온	6	2.5
		만 생	22	12			무가온	90	46.5
	쪽파	(소계)	323	74		만감류	(소계)	182	82.3
		잎쪽파	294	69			시설	159	75.3
		구쪽파	26	5			노지	23	7
	양배추	(소계)	523	499	곡물류	합계		439	519.5
		양배추	496	493		밭벼		1	0.2
		방울양배추	27	6		콩		132	148
	브로콜리		700	290		녹두		3	2.3
	콜 라 비		161	57		메밀		27	71
	비 트		150	44		기장		174	264
	적 채		190	68		옥수수		32	16
	(월동)무		12	9		고구마		42	5
	(월동)배추		8	10		가을감자		28	13
과수류	합계		47	26.3	기타	화훼류(백합)		1	15.8
	키위		28	16.9					
	단감		6	3.6					
	블루베리		10	5.2					
	용과		3	0.6					

※출처: 한림읍사무소 내부자료(2022년 한림읍 주요 현황)

2022년 4월 기준 한림읍 내 어업가구는 805호, 어업인구는 1,617명, 해녀 676명이 있으며, 11개의 어촌계에 732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업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옹포리(285명)

이며 해녀는 금능리(158명)에 가장 많다. 11개 어촌계 소속 어선은 281척이 있는데 한림리(90척 1395.75톤)가 가장 규모가 크다. 기타 한림읍 양식장으로 귀덕리, 수원리, 금능리 일대에 37소(해수양식 19, 종묘생산 18)가 있다.

<표 6> 한림읍 어촌계별 어업가구 및 인구 현황

(2022. 4. 기준)

구분	어업가구(호)	어업인구(명)	어촌계원(명)	해녀(명)	어선	
					척수	톤수
계	805	1,617	732	676	281	3,441.2
귀덕1	71	143	66	55	17	65
귀덕2	77	154	73	81	12	74.80
용운	33	66	41	17	14	68.40
수원	58	117	45	53	13	265.52
한수	64	128	69	48	55	1045.53
한림	45	91	21	39	90	1395.75
옹포	142	285	145	88	25	271.5
협재	69	139	65	51	14	37.06
금능	130	261	97	158	7	44.24
월령	37	75	32	40	4	22.35
비양도	79	158	78	46	30	151.05

※출처: 한림읍사무소 내부자료(2022년 한림읍 주요 현황)

한림읍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산물은 어류, 패류, 해조류 등 다양하며 2021년 12월 기준 총 22,936.11톤 167,409,861천원이 한림수협을 통해 위탁판매(한경면 포함)되었다. 어류에서는 참조기와 갈치, 고등어의 생산 및 판매량이 많았고 패류에서는 소라, 해조류에서는 천초, 기타 수산물로는 새우류가 많았다.

<표 7> 한림수협 수산물 위탁판매 현황

(2021. 12. 기준)

구분		수량(톤)	금액(천원)	구분		수량(톤)	금액(천원)
어류	소계	20,379.74	147,617,277	패류	소계	220.96	662,904
	참돔	79.65	421,062		소라	220.96	662,904
	옥돔	399.87	9,509,595		전복	0.00	0
	기타돔	712.00	2,597,002		기타패류	0.00	0
	참조기	6,459.20	44,587,470	해조류	소계	29.77	184,308
	기타조기	597.99	5,118,524		톳	0.00	0
	갈치	5,644.36	66,481,438		천초	29.77	184,302
	능성어	0.84	7,181		감태	0.00	0
	붕장어류	165.34	1,188,529		기타해초	0.00	0
	참복	45.97	456,842	기타 수산물	소계	0	0
	기타복어	6.52	23,062		오징어	119.09	626,055
	멸치	5.71	14,250		갑오징어	154.53	1,574,321
	방어	4.13	5,262		문어	43.19	459,431
	고등어	1,726.83	4,352,942		꽃게	15.24	48,451
	전갱이	600.81	569,064		닭새우	0.00	0
	삼치	222.04	558,185		기타새우	1,717.10	14,417,089
	기타	3,788.13	12,147,931		기타	176.84	1,398,969

※출처: 한림수산업협동조합, 2021년 월별 수산물 위탁판매 현황(12월)

한림읍 내 축산업으로는 2022년 4월 기준 소 사육농가가 110호, 양돈농가 127호, 닭 사육농가 30호, 말 사육농가 62호 등이 있다. 소, 돼지, 말 모두 금악리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닭은 상대리와 명월리, 상명리의 규모가 크다. 금악리에는 제주도 최초 기업형 목장인 이시돌 목장과 금악리 마을공동목장이 입지해 있어 소, 돼지, 말이 집단화되어 체계적으로 길러지고 있다.

<표 8> 한림읍 가축 사육 현황

(2022. 4. 기준 / 단위: 두, 수, 군)

구분	총계	소			돼지	닭	말	꿀벌	사슴
		계	한육우	젖소					
계	1,293,489 (349)	6,929 (110)	5,780 (101)	1,149 (9)	279,205 (127)	1,003,797 (30)	2,066 (62)	1,482 (18)	10 (2)
귀덕리	3 (1)	-	-	-	-	-	3 (1)	-	-
대림리	7 (1)	-	-	-	-	-	7 (1)	-	-
한림리	286 (8)	16 (1)	16 (1)	-	-	-	10 (1)	260 (6)	-
상대리	298,690 (44)	935 (14)	935 (14)	-	52,678 (13)	244,550 (5)	165 (9)	362 (3)	-
동명리	62,098 (7)	38 (4)	38 (4)	-	-	62,000 (2)	-	60 (1)	-
명월리	262,514 (44)	620 (11)	326 (9)	294 (3)	30,111 (17)	231,700 (11)	33 (3)	50 (2)	-
금악리	283,667 (171)	4,799 (70)	3,944 (64)	855 (6)	113,237 (56)	163,747 (5)	1,576 (38)	300 (1)	8 (1)
상명리	267,955 (39)	360 (6)	360 (6)	-	42,135 (25)	225,200 (5)	60 (2)	200 (1)	-
월림리	24,862 (9)	82 (1)	82 (1)	-	3,552 (2)	21,000 (1)	126 (3)	100 (1)	2 (1)
협재리	292 (7)	79 (2)	79 (2)	-	-	-	83 (3)	130 (2)	-
금능리	93,115 (18)	-	-	-	37,492 (14)	55,600 (2)	3 (1)	20 (1)	-

※비고: ( )는 농가수(호) / 출처: 한림읍사무소 내부자료(2022년 한림읍 주요 현황)

(3) 각종 시설

한림읍 내 주요 기관으로는 관공서로 한림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서부소방서(119센터 포함), 제주경찰서 한림파출소,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항파출소, 한림우체국 등이 있다. 관내 학교로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있다. 이밖에 공공시설로 한림종합운동장, 한림체육관, 제주청소년수련원, 한수풀도서관 등이 있으며, 금융기관 10개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32개소, 병·의원 26개소가 있다.

한림읍 내 대표 산업 시설로는 제주도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연안항구인 한림항이 있다. 당초 한림항은 어업전진기지 어항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지방관리 무역항인 제주항의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건설자재 등 제주항의 보조역할을 하는 서부 지역의 기점 연안항으로 발전 개발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한림항은 연근해 어업의 중심지이자 지역의 연안 화물을 처리하는 복합항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한림읍에는 제주도 대표 향토기업인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다. 1950년 제주시 삼도2동에서 탁주·제제주 생산업체인 호남양조장으로 시작된 ㈜한라산의 역사는 여러 변화를 거치며 소주 전문회사로 성장하게 되고, 1985년 본사와 공장의 위치를 현재의 위치인 한림읍 옹포리로 이전하면서 회사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한림읍 이전 이후 희석식 소주 '한라산'과 증류식 소주 '허벅술'이 1993년과 1995년에 각각 출시되고, 1999년에는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한라산'으로 상호명이 변경된다. 이후 국내 주요 행사의 건배주로 선정되고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각지에 수출하는 등 제주도를 알리며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 한림읍 내 관광시설로는 10여만 평의 황무지 모래밭을 개척하여 1971년 조성된 한림공원을 비롯하여 그리스신화박물관, 금능석물원, 제주돌마을공원, 더마파크를 비롯해 켄싱턴 리조트, 블랙스톤 리조트, 라온 호텔 앤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한림민속오일시장과 한림매일시장 등 상업시설이 있다.

(4) 문화재

한림읍 내 문화재로는 국가지정으로 천연기념물 3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으로 유형문화재 1건, 무형문화재 1건, 기념물 7건 및 향토유형유산 2건이 있다. 자연 분야에서는 지질 자원으로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와 '제주 비양도 호니토'가 있으며,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명월 팽나무군락지', '비양도의 비양나무자생지'와 같은 식생자원들도 있다.

문화유산으로는 옛 명월진과 관련한 유적들이 주를 이룬다. 조선시대에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제주도 방어체제를 '3성 9진 25봉수 38연대'로 편성하였는데, 명월진은 제주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요충지였다. 명월진성을 중심으로 봉수와 연대가 분포하고 있었고, 현존하는 유적지들이 <표 9>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외에 '정동벌립장'과 '고수동 거욱대'와 같은 생활민속 문화유산도 한림읍에 위치하고 있다.

<표 9> 한림읍 내 옛 명월진 관련 문화재 목록

문화재명	문화재 종목	소재지
명월성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만조봉수터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배령연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우지연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귀덕연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한림읍은 근현대 시기 제주도 내에서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룬 지역 중 하나로, 당시 건축물 중 2건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국가등록문화재)과 '옛 한림성당 종탑'(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재)으로, 제주 현대사에 있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임피제(맥그린치) 신부의 주도 아래 건립된 것들이다. 독특한 건축방식과 조형적 형태로 향후 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더욱 크게 인정받을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17-5



Ⅱ

조사 내용

1. 의생활

사람은 평생을 옷을 입고 생활하다 옷과 함께 묻힌다. 인간의 삶에서 옷, 그와 관련한 도구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금처럼 기성복이 풍족하지 않던 시절 선조들은 직접 옷감을 짜고 손수 옷을 만들어 입었다. 세탁 또한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움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흰 옷감에 물을 들여 입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다. 옷이 귀했기 때문에 의복이 닳거나 구멍이 생기면 수선해서 다시 입었다.

이처럼 옷감을 장만하는 일에서부터 옷을만들고 세탁, 수선하고, 또 다양하게 재활용하기까지 의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생활 도구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한림읍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 사람들의 의생활 도구를 바느질 도구,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의복과 신발, 그 외의 것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1.1. 바느질 도구

(1) 미싱

'미싱'은 바느질을 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기계(Machine)'의 일본어 표현이다. 재봉틀이 표준어지만 한림읍 제보자들은 '미싱(ミシン)'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제주에 재봉틀이 들어온 것은 1920년경으로, 손으로 옷을 장만해서 입던 시절 '미싱'은 바느질을 쉽고 빠르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였다.

"막 옛날 미싱. 이거 진짜 골동품, 막 옛날에 거. 이거 막 오랜 거. 거 나가 산 거. 모른 사름신디, 써난 거 산 거. 나 막 젊은 때, 애기덜 옷 허영 입지고 허젠 산 거. 미싱 잘허진 못 헤도 헌 옷도 줍곡게 그때는. 양말도 난 영 터지면은, 여기 터지면은 좍 긋앙 저 뒈집엉 이디 바닥, 이디만 대영 줘낭 또시 뒤집엉 바락 주엉 그냥 신엇어. 경허멍 살아사주." [1]

(아주 옛날 재봉틀. 이거 진짜 골동품, 아주 옛날 거. 이거 막 오래된 것. 그거 내가 산 거. 모르는 사람한테, 쓰던 거 산 거. 나 막 젊었을 때, 아기들 옷 해서 입히고 하려고 산 거. 미싱 잘하지는 못 해도 헌 옷도 기우고 그때는. 양말도 나는 이렇게 터지면, 여기 터지면 좍 잘라서 저 뒤집어서 여기 바닥, 여기만 대고 기워서 다시 뒤집어서 확 기워서 그냥 신었어. 그러면서 살아야지.)



<사진 1> 김진현 소장 '미싱'



<사진 2> '미싱'을 내려놓은 모습

<사진 1>은 금능리 김진현 씨(1936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미싱'이다. <사진 2>은 '미싱' 본체를 나무함에서 내려놓고 찍은 것이다. 나무함은 '미싱'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높이다. 김 씨는 사진의 '미싱'을 중고로 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미싱'으로 아이들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고, 낡은 의복을 직접 수선해 입었다. 양말에 구멍이 났을 때도 '미싱'으로 기운 후 다시 신었다. 기성복이 풍족하지 않던 시절, '미싱'은 옷을 만들어 입거나 이를 재활용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였다. 이제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미싱'이지만 김 씨는 이를 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었다.

"저거 나 시집올 때 헹 온 거. 시집온 지가 내가 오십일 년 뒛거든. 이 미싱 나 지금 써. 나 시집올 때 헌 건디, 그때 미싱 못 사서 시집간 사람도 많았어." [2]

(저거 나 시집올 때 해서 온 거. 시집온 지가 내가 오십일 년 됐거든. 이 재봉틀 내가 지금 써. 내가 시집올 때 한 건데, 그때 재봉틀 못 사서 시집간 사람도 많았어.)

1) 금능리 김진현 씨 구술.
2) 명월리 김묘생 씨 구술.

"건 미싱게. (다리 미싱) 그거 허엿단에 이젠 귀찮연 앚앙 허는 미싱으로 바꽝 이 발 떼 불엇주기게. 미싱은 나 결혼헐 때 가젼완에 이 발만 무시거 헷주게. 나냥으로 산. 나 회사에 강 팔 년 살아세게. 저 광목덜 허는 공장, 큰 공장. 전남방직." [3]

(그건 재봉틀이야. (다리가 있는 재봉틀) 그거 했다가 이제는 귀찮아서 앉아서 하는 재봉틀로 바꿔서 이 발 떼어 버렸지. 재봉틀은 내가 결혼할 때 가져와서 이 발만 뭐 했지. 나대로 샀어. 나 회사에 가서 팔 년 살았잖아. 저 광목들 하는 공장, 큰 공장. 전남방직.)



<사진 3> 김묘생 씨 소장 '미싱'



<사진 4> 홍관매 씨 소장 '미싱'의 다리 부분

<사진 3>은 명월리 김묘생 씨(195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미싱'이다. 다리 부분의 'DRESS(드레스)'라는 영어가 보인다. 김 씨가 혼수품으로 장만했던 것으로 오십일 년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김 씨 말에 따르면 당시 넉넉지 못한 살림으로 결혼할 때 혼수로 '미싱'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사진 4>는 귀덕리 홍관매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미싱'의 다리 부분이다. 현재 '미싱'의 본체는 없다. <사진 3>과 비교해 보면 '미싱'의 다리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홍 씨는 결혼 전 방직공장에 팔 년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사진 4>의 '미싱'을 혼수품으로 장만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다리 부분을 떼어내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미싱'으로 바꿔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3>과 <사진 4>의 '발미싱'은 넓적한 페달에 발을 올려놓은 후, 발뒤꿈치 그리고 발바닥의 힘으로 페달을 눌렀다 놓았다 한다. 그 힘으로 '미싱' 오른쪽의 휠을 돌려 '미싱'의 본체를 작동시키는 원리였다.

3)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나 시집올 때 가젼 온 거. 시집올 때 가정 온 발미싱이라나신디 이젠 전기로 허는 걸로 고쳔. 건디 이젠 고장나 부난 못 써. 발미싱으로 가져완 요디 놧주게. 몸뻬 나냥으로 만들안 입고 조끼도 만들고." [4]

(나 시집올 때 가지고 온 거야. 시집올 때 가지고 온 발재봉틀이었는데 이젠 전기로 하는 것으로 고쳤어. 그런데 이젠 고장나 버려서 못 써. 발재봉틀로 가져와서 여기 놨지. '몸뻬' 나 스스로 만들어서 입고 조끼도 만들고.)

"이제도 사용허멍 말멍." [5]

(이제도 사용하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고.)



<사진 5> 고기순 씨 소장 '미싱'



<사진 6> 고갑년 씨 소장 '미싱'

<사진 5>는 한수리 고기순 씨(1939년생)의 '미싱'으로 고 씨가 시집올 때 혼수품으로 마련한 '미싱'이다. 원래는 '발미싱'이었는데 다리 부분을 떼어내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미싱'으로 바꿔 사용했다고 한다. 전기가 들어온 이후에는 전기로 작동할 수 있게 고안하여 '미싱'을 활용하기도 했었다. 고 씨는 <사진 5>의 '미싱'을 일할 때 입는 '몸뻬'나 '조끼' 등의 옷을 만들 때 사용했다. 고장 나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보관만하고 있다. <사진 6>은 월림리 고갑년 씨(1934년생)의 '미싱'으로, 예전처럼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재도 쓰고 있다고 한다.

<사진 5>와 <사진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싱'의 바늘이 녹슬지 않도록 천조각을 끼어놓은 후, '미싱' 본체에 묶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에서 '미싱'의 오른쪽에는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미승지름'을 담은 용기가 보인다.

4)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5)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그것도 혼 ᄉᆞ십에 산 거주. 미싱으로 갈옷도 멘들고."[6]
(그것도 한 사십에 산 거지. 재봉틀로 갈옷도 만들고.)



<사진 7> 양명부 씨 소장 '미싱'


<사진 8> 양명부 씨 소장 '미싱'을 보관함에 넣은 모습

<사진 7>은 월림리 양명부 씨(1944년생)가 사십 대에 장만한 '미싱'이다. 혼수품으로 '미싱'을 장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 씨처럼 살림을 살던 도중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싱'이 없어 손바느질로 의생활을 꾸려갔던 양 씨는 '미싱' 구입 후 '갈옷'도 직접 만들어 입으며 생활했다고 한다. '미싱' 본체에 새겨진 'KUMSUNG(금성)'이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미싱' 바늘이 녹슬거나 부러지는 일 없도록 헝겊이 끼워 두었다. <사진 8>은 <사진 7>의 '미싱'을 보관함에 넣은 모습을 찍은 것이다. '미싱' 본체를 보관함으로 집어넣은 후, 덮개로 '미싱'을 덮는다. 보관함에 넣어두면 '미싱'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쓸모가 있을 때에는 '미싱'을 잡아 올려 손쉽게 꺼낼 수 있다.

"(미싱) 배움은 누게신디 배와? 친정어멍이 시집올 때 허여 주난. 친정어멍이 시집올 때 다 헤 주주게. 저 미싱도 헤 주고. 미싱허고 이불, 궤도 다 헐언. 이디 셔. 시집올 때 궤. 화장대, 화장댄 다 헐언 데껴 불고 그릇, 먹는 그릇 조금. 요강도 헤 주고게.[7]
((재봉틀) 배우기는 누구에게 배워? 친정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 주니까. 친청어머니가 시집올 때 다 해 주지. 저 재봉틀도 해 주고. 재봉틀하고 이불, 궤도 다 헐었어. 여기 있어. 시집올 때 궤. 화장대, 화장대는 다 헐어서 던져 버리고 그릇, 먹는 그릇 조금. 요강도 해 주고.)

6)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7)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나 시집올 때 헌 거. 옛날에 몸뻬 안 나믄 몸뻬도 멘들고, 아이덜 헌 옷도 줍고 경헨 살앗주. 이젠 안 써져. 이젠 옷, 이런 옷 돈 주민 상 입는디 뭐 허레 옷 멘들아? 몸뻬 멘들젠 헤도 기지 사 오고 그거 앚앙 멘드느니? 옛날엔 영 나오는 게 엇언, 엇어. 경허난 기지 떠다근에 집이 왕 멘들아. 갈중의 멘들아, 갈옷. 갈옷 저디 셔." [8]

(나 시집올 때 한 거. 옛날에 '몸뻬' 안 나면 '몸뻬'도 만들고, 아이들 헌 옷도 깁고 그렇게 살았지. 이젠 안 쓰게 돼. 이젠 옷, 이런 옷 돈 주면 사서 입는데 뭐 하러 옷을 만들어? '몸뻬' 만들려고 해도 옷감 사 오고 그거 앉아서 만드니? 옛날엔 이렇게 나오는 게 없었어, 없어. 그러니까 옷감 떠다가 집에 와서 만들어. '갈중의' 만들어 '갈옷'. '갈옷' 저기 있어.)



<사진 9> 홍춘화 씨 소장 '미싱'



<사진 10> 홍춘화 씨 소장 '미싱'

<사진 9>과 <사진 10>은 대림리 홍춘화 씨(194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미싱' 두 개다. <사진 9>에서 왼쪽 '미싱'은 이웃에게 받은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홍 씨의 친정 어머니가 혼수품으로 장만해 준 것이다. 홍 씨는 결혼 당시 '이불'과 '궤', '화장대', '그릇', '요강' 그리고 <사진 10>의 '미싱'을 준비했다고 한다. '미싱'을 따로 배운 적이 없지만 작동법을 스스로 터득하며 옷을 만들었다. 홍 씨 역시 '미싱'으로 '몸뻬'를 직접 만들어 입거나 아이들 옷을 만들어 입혔다. 기성복이 충분하지 않던 시절 옷감을 재단해 온 후, 직접 옷을 만들어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홍 씨는 말한다. 물자가 부족해 양말 한 켤레도 수선하며 다시 신었던 선대들에게 '미싱'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값만 지불하면 기성복을 바로 구입할 수 있으니 '미싱'을 잘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손바느질보다 훨씬 빠른 '미싱'은 매우 편리한 생활 도구였다. '미싱'은 자녀들의 옷을 직접 만드는 데에서부터 '몸뻬', '갈중의', '적삼' 등은 물론 '조끼', '모자' 등 다양한 일상생활 물품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쓰였다.

8)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한편 '미싱'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미싱' 기계가 맞닿는 부분의 마찰을 완화시켜 주는 윤활유를 칠해 주기도 하는데 제보자들은 이것을 '미승지름'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제보자에 따라 '미싱 기름', '미승 기름' 등 다양하게 부른다.

"미싱에 지름 놔사 뒈는 거."[9]
(재봉틀에 기름 놔야 되는 거.)

"미싱 잘 돌아가렌 지름 놓는 거."[10]
(재봉틀 잘 돌아가라고 기름 놓는 거.)



<사진 11> 홍춘화 씨 소장 '미싱 지름'



<사진 12> 양명부 씨 소장 '미싱 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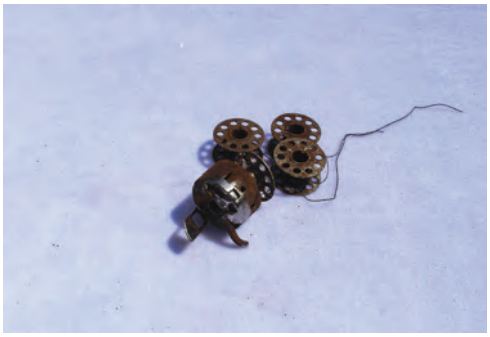
<사진 11>은 대림리 홍춘화 씨가 소장하고 있는 '미싱 지름'이다. 홍 씨는 오른쪽 용기에 있는 기름을 주둥이가 뾰족한 왼쪽 용기에 조금씩 덜어 사용했다. 기계가 회전할 때 마찰이 생기는 부분에 기름을 조금 흘려 넣어 '미싱'이 잘 돌아가도록 했다. <사진 12>는 월림리 양명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미싱 지름'이다. 양 씨가 보관하고 있는 '미승 지름'은 플라스틱 용기인 <사진 11>과 달리 쇠로 만든 것이다.

<사진 11>과 <사진 12>는 모두 마찰이 생기는 부분에 정확하게 기름을 소량 흘려 넣을 수 있도록 기름이 흘러나오는 주둥이 부분이 뾰족하다. <사진 12>는 주둥이가 살짝 휘어 있어 '미싱' 내부의 좁은 부분에도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승 지름'은 '미싱'이 잘 돌아가도록 조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역시 기계가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했기 때문에 '미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다.

9)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10)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한편, '미싱' 부속품 중 하나인 '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은 '미싱'의 밑실을 감은 실톳을 넣어두는 쇠로 만든 통을 말한다.

"미싱에 실 담는 거."[11)]
(재봉틀에 실 담는 거.)



<사진 13> 홍춘화 씨 소장 '북'

<사진 13>은 대림리 홍춘화 씨가 소장하고 있는 '북'이다. 홍 씨는 사진의 '북'을 '미싱'에 실을 담는 도구로 설명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녹슬었다.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검은색 실이 감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바농

'바농'은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데 쓰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쇠로 된 도구로 '바늘'을 말한다. '바농'은 옷감의 종류, 옷감의 두께에 따라 '바농'의 길이와 두께 또한 달리 선택하며 사용했다. 일상복이나 양말과 같은 얇고 부드러운 옷감에는 얇고 작은 바늘을, 이불과 같은 두꺼운 직물을 꿰맬 때는 굵고 긴 큰 바늘을 사용했다.

"(바농도) ᄋᆞ라 종류, 큰 거 작은 거 잇이민 뒈. 큰 거는 이불, 이불 꾸밀 때. 이불 저 뜯어근에, 내완 뜯어근에 빨아. 허믄 그 큰 걸로 영 헹 허곡. 그 양말 ᄀᆞ튼 우린 어린 때 양말 다 꾸미멍 신어낫주게. 양말 꾸밀 때 영 작은 걸로 꾸미고. 양말 주어. 양말 터진 거 주웡 신어난. 옛날 말로는 저 양말 터진 거 고망 난 거 주원 신어난."[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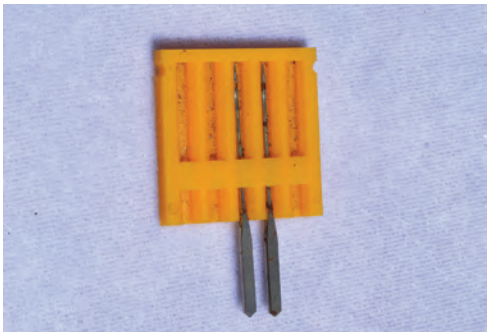
((바늘도) 여러 종류, 큰 거 작은 거 있으면 돼. 큰 거는 이불, 이불 꿰맬 때. 이불 저 뜯어서, 내놓아서 뜯어서 빨아. 그러면 그 큰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양말 같은 우리 어릴 때는 양말 다 꿰매면서 신었었거든. 양말 꿰맬 때 이렇게 작은 걸로 꿰매고. 양말 기워. 양말 터진 거 기워서 신었었어. 옛날 말로는 저 양말 터진 거 구멍 난 거 기워서 신었었어.)

11)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12)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한수리 고기순 씨(1939년생)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바농' 종류와 그 용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바농'은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비해 놓고, 큰 '바농'은 이불과 같은 두껍고 큰 직물을 기울 때 썼다. 반면 양말과 같이 부드럽고 얇은 옷감에는 얇고 작은 '바농'을 사용한다. 작업해야 할 옷감의 두께와 직물의 강도에 맞춰 적절한 굵기와 길이의 '바농'을 골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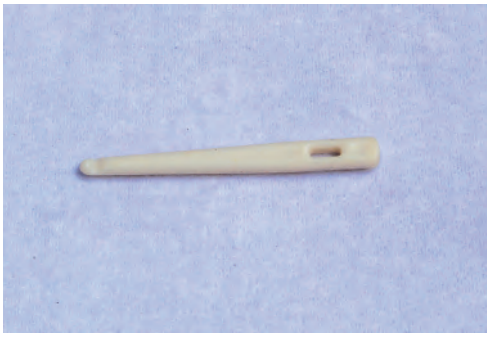
<사진 14> 홍춘화 씨 소장 '바농'


<사진 15> 홍춘화 씨 소장 '미싱 바농'

<사진 14>는 대림리 홍춘화 씨가 소장하고 있는 '바농'이다. 홍 씨는 손바느질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가위', '바농', '실패' 이 세 가지뿐이라고 말한다. <사진 14>의 '바농'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성품 '바농'이다. 작은 종이봉투 안에 '바농'이 가지런히 포장되어 있다. 사용하지 않아 녹이 슬었지만, '바농'의 굵기와 길이가 조금씩 다르다. 이 '바농'들은 양말이나 옷 수선 등 비교적 간단한 손바느질에 사용한 것들이다. <사진 15>는 '미싱 바농'이다. 손바느질 때 사용하는 '바농'과는 다르게 '미싱 바농'에는 실을 꿰는 구멍이 없다. 박음질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사진 15>의 '미싱 바농'을 꽉 끼워 고정시킨 후, 작업하기 때문에 '바농'의 대가리 부분이 납작하게 눌려 있다. '미싱' 작업을 하지 않고 보관할 때는 '바농'에 찔리거나 '바농' 끝이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용기에 보관했다. 간혹 두꺼운 직물을 재봉질하다 '미싱 바농'이 부러지기도 하는데 홍 씨는 다섯 개 중 세 개는 사용했고, 온전한 나머지 두 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바농귀 뀌는 거." [13]
(바늘귀 꿰는 거.)

13)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사진 16> 홍춘화 씨 소장 '바농 귀 뀌는 거'

<사진 16>은 홍 씨가 바늘귀에 실을 꿸 때 사용하는 도구다. 바늘처럼 생긴 플라스틱 모형에 바늘을 넣어 실을 정확하게 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다. 홍 씨는 <사진 16>을 '바농 귀 뀌는 거'로 소개했다. 작고 얇은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 넣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때문에 고안된 것이 사진의 실을 꿰는 것을 돕는 도구다.

(3) 속돌

'속돌'은 바늘이 무디어져 잘 들지 않을 때 바늘을 다시 뾰족하게 갈아 잘 들도록 하는 돌을 말한다. '속돌'은 구멍이 송송하게 난 무른 재질의 돌로 바다에서 난다. 단단하지 않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바농이 잘 안 들어가민) 머리에도 허주만은 것고라 뭐옌 허코? 나 어디 저기 싯긴 헐 거라, 그거. 그것에 영영 밀어근에, 속돌. 어디 찾음 몰라. 속돌에 골아. 골아근에 헤낫주게. 바농 안 들믄." [14]

((바늘이 잘 들어가면) 머리에도 하지만 그것보고 뭐라고 하지? 나 어디 저기 있기는 할 거야, 그거. 그것에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속돌. 어디 찾으면 몰라. 속돌아 갈아. 갈아서 했었지. 바늘 안 들면.)

한수리 고기순 씨는 바느질을 할 때, '바농'이 무디어져 잘 안 들면 '바농'을 갈아 뾰족하게 만드는 도구인 '속돌'을 사용했다. 옛 어르신들은 손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이 잘 들지 않으면 머리카락에 문질러 머릿기름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이었다. 바늘 끝을 예리하게 갈 수 있는 도구 '속돌'을 마련해 두면 바느질이 편했다.

"바농 녹실민 ᄀᆞ는 거, 갈메기똥. 이거 무신거 그거 바당에 나는 멩마구리. 곧기 좋게게. 촌에 할망덜 곧기 좋게 곧는 거주게. 이거 멩마구리에 저 거세기에 신 거게. 오주메 닮은 거 뭉탁뭉탁헌 거 그런 것에 소곱에 그런 거 셔. 바농 녹실민 그것에 영 영 허민 빈직빈직허여. 바농에 신돌 같은 역할하는 거. 이건 멩마구리, 오징어 닮은 거, 발 짧은 거 그것에 거. 거기서 나오는 거." [15]

14)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15)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바늘 녹슬면 가는 거. '갈메기똥'. 이거 무슨 그거 바다에서 나는 갑오징어. 말하기 좋게. 시골에 할머니들 말하기 좋게 하는 말인 거지. 이거 갑오징어 저 거기에 있는 거야. '오주메' 닮은 거 뭉툭뭉툭한 거 그런 것에 안에 그런 것이 있어. 바늘 녹슬면 그것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해져. 바늘에 신돌 같은 역할 하는 거. 이건 갑오징어, 오징어 닮은 거. 발 짧은 거 그것의 거. 거기서 나오는 거.)



<사진 17> 양명부 씨 소장 '갈메기똥' 아랫면



<사진 18> 양명부 씨 소장 '갈메기똥' 윗면

한편 월림리 양명부 씨는 갑오징어의 뼈를 '속돌' 대신 사용했다. 양 씨는 이것을 '갈메기똥'이라고 불렀다. <사진 17>과 <사진 18>은 양 씨가 소장하고 있는 '갈메기똥'이다. 바늘에 녹이 슬거나 바늘이 무뎌지면 옷감을 뚫는 데 힘이 들어가고 손가락과 손목이 아파 바느질이 어렵다. 양 씨는 바늘이 무뎌졌을 때 바늘을 갑오징어의 연한 뼈, 즉 사진의 '갈메기똥'에 갈아 뾰족하게 만들어 사용했다.

(4) 실패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할 때는 '바농'과 함께 '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느질을 신속히 하고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엉키기 쉬운 실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실이 엉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을 감아두는 '실패'가 구비되어 있으면 좋다.

한림읍 제보자들은 '실패'를 직접 만들어 그것에 실을 감아 보관하고 있었다. 실이 많이 모일수록 뭉툭해지므로 '실패' 가운데를 오목하게 만들었다. 또 가운데를 오목하게 만들어야 실이 한꺼번에 빠져버리는 일이 없었다.

"저 실 감는 건 우리 시어멍 허여난 거고. 이거 시어멍 물린 거." [16]
(저 실 감는 건 우리 시어머니 했었던 거고. 이거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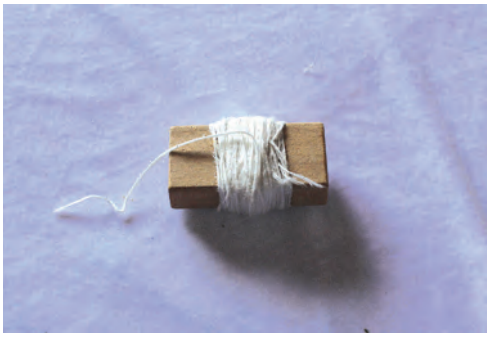
16) 강구리 양인희 씨 구술.

"이불 튿엉 뽈면게, 나무테기 봐지난. 이불 실. 또 이불 꼬멜 때 쓸 거." [17]
(이불 뜯어서 빨면, 나무조각 보이니까. 이불 실. 또 이불 꿰맬 때 쓸 거.)

"실패. 거 이불 꼬메는 실 감아 놓는 거." [18]
(실패. 그거 이불 꿰매는 실 감아 놓는 거.)



<사진 19> 양인희 씨 소장 '실패'



<사진 20> 양명부 씨 소장 '실패'

<사진 19>는 강구리 양인희 씨(192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실패'다.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았다. <사진 19>에서는 실이 위아래 방향으로만 감겨 있지만, 상하좌우 열십 자 모양으로 실을 감을 수 있다. 시어머니에게서 양 씨로 이어 내려오며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을 탄만큼 사용감이 느껴지는 '실패'다. <사진 20>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실패'다. 양 씨의 구술에 따르면 이불 꿰매는 실을 감아 놓는 '실패'라고 한다. 이불을 꿰맸던 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고 있고, '실패' 또한 주변에 흔히 보이는 나무토막을 재사용했다.

"(바느질 허려면) 구세게. 바농에 실패 허영 바농 허영 허고. 그거, 그거뿐 아니?" [19]
((바늘질 하려면) 가위지. 바늘에 실패 해서 바늘 해서 하고. 그거, 그거뿐 아니?)

17)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18)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19)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사진 21> 양명부 씨 소장 '실패'



<사진 22> 홍춘화 씨 소장 '실패'

<사진 21> 또한 월림리 양명부 씨가 소장하고 있는 '실패'다. 이것 역시 실이 빠져 버리지 않고 가운데로 모여들도록 가운데 부분을 오목한 모양으로 만들었다. 실이 감겨 있었던 부분은 손때가 묻지 않아 다른 부분보다 색이 밝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나무토막을 '실패'로 재사용하는 지혜와 작은 물건이라도 귀하게 여겼던 선조들의 삶의 태도가 엿보인다. <사진 22>은 대림리 홍춘화 씨의 재봉틀에 사용하는 '실패'다. 실을 기계로 감았기 때문에 실이 가지런히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성품 '실패'가 보급되자 제보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실패'와 기성품 '실패'를 함께 소장하고 있다.

(5) 바농상지

'바농상지'는 바늘, 실, 가위,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아두는 그릇으로, 표준어의 '반짇고리'에 해당하는 말이다. 보통은 크기가 작은 대바구니를 '바농 상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에서는 처음부터 바느질 도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바농상지'를 마련하기보다는 사용하던 대바구니 중에서 낡은 것에 종이나 헝겊을 덧발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플라스틱 그릇이나 천 바구니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저것에 떡 헤근에 소상 집이 가고 헤낫주게. 저거 떡돌렝이. 소상 먹으레 가민 저것에 떡 사근에 경 헤낫주기게." [20]

(저것에 떡 해서 소상 집에 가고 했었지. 저거 '떡돌렝이'. 소상 먹으러 가면 저것에 떡 사서 그렇게 했었지.)

20) 강구리 양인희 씨 구술.

"나가 시집완 산 거. 시집완 그 해에 이거 삿주게. 이천 원 줜. 오십오 년이 넘어실 건디. 정동으로 만든 거, 금능서." [21)]

(내가 시집와서 산 거. 시집와서 그 해에 이거 샀지. 이천 원 줜. 오십오 년이 넘었을 건데. 댕댕이덩굴로 만든 거, 금능에서)



<사진 23> 양인희 씨 소장 '바농상지'



<사진 24> 장인자 씨 소장 '바농상지'

<사진 23>은 강구리 양인희 씨가 사용하는 '바농상지'다. 양 씨의 구술에 따르면, 사진의 '바농상지'는 원래 떡을 담는 '떡돌렝이'였다고 한다. 이것에 떡을 담아 마을 대소사에 참석했는데, '떡돌렝이'가 헐자 이를 버리지 않고 천을 발라 '바농 상지'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 더 낡아 헤지지 않도록 헝겊을 곱게 덧바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농상지' 안에는 손바느질 도구 외에도 보자기, 헝겊 조각들을 넣어 두고 쓸모가 생길 때 쓰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 <사진 24>의 '바농상지'는 옹포리 장인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 씨의 '바농상지'는 금능리에서 댕댕이덩굴로 엮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장 씨가 시집온 해에 이천 원을 주고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살림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오십오 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바농 상지'다. '바농 상지' 안에 보관된 '가위'와 '실패'가 보인다. '바늘'이나 '단추' 등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물건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통도 함께 보인다.

(6) 단추

'단추'는 옷 따위의 두 폭이나 두 짝을 한데 이었다가 분리했다가 하는 물건이다. 모든 물품이 귀했던 시절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아껴 썼던 어른들은 옷이 낡아 버리게 되더라도 단추는 떼어내어 따로 모아두었다가 요긴하게 재활용했다.

21) 옹포리 장인자 씨 구술.



<사진 25> 양인희 씨 소장 '단추'

<사진 25>는 강구리 양인희 씨가 모아 보관하고 있는 '단추'다. 양 씨는 자투리 옷감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 안에 여러 종류의 단추를 모아 보관하고 있다.

1.2. 손질 도구

(1) 안반

'안반'은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기 위해 만든 네모난 나무판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안반'은 '떡을 칠 때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떡을 칠 때뿐만 아니라, 잔치 등 큰일에 고기 따위를 썰 때도 사용하고 다듬이질할 때도 '안반'을 사용했다. 나무로 만들면 '낭안반', 돌로 만들면 '돌안반'으로 구별하여 불렀다. '안반'을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돔베'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건게 안반이엔 헤낫저, 안반. 그 전에 옛날은 풀허영 왕상허민 이것에 도닥도닥도닥 헤여근에. 풀허영 헤낫저게. 엿날은 우리 미녕덜, 저 멘네 헤여근에 실로 영 영 영 허멍 풀허여근에 짜근에 옷덜 허영 만들아근에 우리덜대로 물들여근에 버작허믄 마께로 영 영 도독도독 두드려근에 허고. 이거 물린 거, 친정어무니 거. 낭이 좋은 셍이라. 저 삭진 안헷어." [22]

(이건 안반이라고 했었지, 안반. 그 전에 옛날은 풀해서 빳빳하면 이것에 도닥도닥도닥 해서. 풀해서 했었어. 옛날은 우리 무명들, 저 목화 해서 실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풀해서 짜서 옷들 해서 만들어서 우리들대로 물들여서 뻣뻣하면 방망이로 이렇게 이렇게 도독도독 두드려서 하고. 이거 물려받은 거, 친정어머니 거. 나무가 좋은 모양이야. 저 삭지는 않았어.)

22)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사진 26> 홍관매 씨 소장 '안반' 위



<사진 27> 홍관매 씨 소상 '안반' 아래

<사진 26>과 <사진 27>은 귀덕리 홍관매 씨가 보관하고 있는 '안반'이다. <사진 26>은 안반'의 윗면, <사진 27>은 그 아랫면이다. 위 사진의 '안반'은 홍 씨의 친정 어머니가 쓰던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다. 상판 군데군데 칼자국들이 보인다. 다리는 수평을 맞춘 후 동그랗게 깎았다. 다리미가 없던 시절 이 '안반'에서 풀 먹인 옷을 두드려 다듬이질을 했다.

"돌로 된 것이 아니고 낭으로 된 거. 도마ᄀᆞ치 생긴 거. 안반허고 영 ᄆᆞᆯ앙 허는 건 홍짓대. 저 나무로 된 방멩이 닮은 거 영 똥글랑 헌 거. 마께렌 헤낫주. 써낫지, 방멩이. 빨래 그땐 옛날엔 풀헤영 그걸로 막 떼려낫주. 풀허믄 광목 이불 ᄀᆞ튼 거 구부러지난 영 영 다듬이 딱딱 두드리민 페와지주기. (나도) 헤낫주기." [23]

(돌로 된 것이 아니고 나무로 된 거. 도마같이 생긴 거. 안반하고 이렇게 말아서 하는 건 홍두깨. 저 나무로 된 방망이 닮은 거 이렇게 동그란 거. '마께'라고 했었지. 썼었지, 방망이. 빨래 그때는 옛날에는 풀해서 그걸로 막 때렸었지. 풀하면 광목 이불 같은 거 구부러지니깐 이렇게 이렇게 다듬이 딱딱 두드리면 펴지지. (나도) 했었지.)

한림리 고연옥 씨(1943년생)는 '안반'과 함께 다듬이질할 때 옷감을 말아두는 '홍짓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풀을 먹여 뻣뻣해진 옷감을 '홍짓대'에 감아 '안반' 위에 올려놓은 후 '마께'로 두드려 구김을 폈다고 한다.

23) 한림리 고연옥 씨 구술.

"돌에도 헤나고 나무로 만든 거에도 헤여나신디 나무로 만든 거, 안반은 고물장시 뎅기멍 오꼿 가져가 불언." [24]

(돌에도 했었고 나무로 만든 거에도 했었는데 나무로 만든 거, '안반'은 고물장수 다니면서 그만 가져가 버렸어.)

"광목 ᄀᆞ튼 거 풀허곡 홍짓대로 영 무껑 닥닥 두드리는 건 시집오라도 헤낫주게. 엿날에 광목 이불 헤여근에게 풀헤영. (방멩이도) 두 개 셔사주게. 독독독독 두드령. 경 헹 또 페왕 널엉 경 헹 이불 꼬메곡 헤낫주기." [25]

(광목 같은 거 풀하고 홍두깨로 이렇게 묶어서 닥닥 두드리는 거는 시집와서도 했었지. 옛날에 광목 이불 해서 풀해서. (방망이도) 두 개 있어야지. 독독독독 두드려서. 그렇게 해서 또 펴서 널어서 그렇게 해서 이불 꿰매고 했었지.)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듬이질에 쓰는 '안반'은 돌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것이 있었다. 한림리 고연옥 씨는 시집 오고 나서 풀 먹인 광목을 두드릴 때 '안반'을 썼다고 한다. 풀 먹인 광목을 '안반'에서 두드려 구김을 편 후 다시 널어 말렸다. 그 작업을 마친 후에야 이불을 기울 수 있었다.

한편, '안반'을 돼지고기를 썰거나 떡반죽을 미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이거는 우리 동쪽에는 상웨떡 헐 때이 그거 많이 헤야 뒈잖아. 경허난이 부잣집이니까 이것이 두어 개씩 잇주, 이거 아무나 엇어. 게난 시루떡도 헷주만은 모든 거, 큰 대소사 시에는 전부 이걸 썻주게. 빌어당. 동네 돌림빵을 허는 거주. 어느 집이 잇덴 허면. 이거는 비자나무고 저거는 무슨 나문지 몰라. 경헹 뒈지라도 잡앙 뒈지 뭇젠 허민 이거 어퍼 놔. 어퍼 놩 그디서 뒈지 뻬들을이. 이거는 우리 할머니, 쓰시던 분이. 백 설 낭 돌아가신 지가 이거 굉장히 오래뒌 거." [26]

(이거는 우리 동쪽에는 '상웨떡' 할 때 그거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잣집이니까 이것이 두어 개씩 있지, 이거 아무나 없어. 그러니까 시리떡도 했지만 모든 거, 큰 대소사 시에는 전부 이걸 썼지. 빌려다가. 동네 돌림을 하는 거지. 어느 집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비자나무고 저거는 무슨 나무인지 몰라. 그래서 돼지라도 잡아서 돼지 부수려고 하면 이거 엎어 놔. 엎어 놔서 거기서 돼지 뼈들을. 이거는 우리 할머니, 쓰시던 분이. 백 살 돼서 돌아가신 지가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

24)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25) 한림리 고연옥 씨 구술.
26) 한림리 오진숙 씨 구술.

"빨레 두드릴 때도 그 그것에서. 영 다까 둰게. 빨레 두드릴 때 빨레 두드리곡. 이제 일 년에 한 번이나 쓰젠 허믄 그거 따까낭. 그것에 밀곡 경 허엿주기." [27]

(빨래 두드릴 때도 그것에서. 이렇게 닦아 둬서. 빨래 두드릴 때 빨래 두드리고. 이제 일 년에 한 번이나 쓰려고 하면 그거 닦고 난 다음에. 그것에 밀고 그렇게 했었지.)



<사진 28> 오진숙 씨 소장 '안반'



<사진 29> 오진숙 씨 소장 '안반'

<사진 28>과 <사진 29>는 한림리 오진숙 씨(1948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안반'으로 할머니의 것을 물려받았다. 오 씨의 구술에 따르면 '상웨떡'을 할 때 반죽을 미는 용도로 이 '안반'을 썼다고 한다. '안반'이 없는 집에서는 큰일을 치를 때 빌려다 쓰기도 했다고 한다. 한수리의 고기순 씨는 빨래 두드릴 때도 '안반'을 썼지만 잘 닦은 후 떡 반죽을 밀 때도 '안반'을 사용했다고 한다.

"안반엔 풀헤영 다듬이질. 떡 물 때도, 옛날에 기지떡, 보리떡. 보리빵 허듯이 그것에 영 영 밀어 근에게 영 떠끈에게 그 세미, 인절미 쉬 놩 영 오그리고. 멩질 땐 순 그런 거로 헤서 그 안반. 저 큰일헐 때, 잔치헐 때, 소상헐 때 그런 때 그것에 놩 그것에서 고기 썰언. 자꾸 안 허는 거난. 매집마다 엇엇지. 빌엉 빌엉. 경허연 허당 나중엔 고기 써는 건 도마덜 만들안. 떡하고 큰일 허는 디 고기 썰고 경헤난디 ᄎᄎᄎᄎ 이젠 해가 뒈여 가곡 발전이 뒈어가난 그건 안 혀고 이젠 고기 써는 건 잔치 허는 디 소상허는 디 허젠 허믄 도마 만들앙 영 크게 경허영 허당 이젠 안 허주기." [28]

(안반이라고 풀해서 다듬이질. 떡 반죽할 때도, 옛날에 증편, 보리떡. 보리빵 하듯이 그것에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떠서 그 '세미', 인절미 소 넣고 이렇게 오그리고. 명절 때는 순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안반. 저 큰일할 때, 잔치할 때, 소상할 때 그런 때 그것에 놔서 그것에서 고기 썰었어. 자꾸 안 하는 거니까. 매집마다 없었지. 빌려서 빌려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고기 써는 건 도마들 만들어서. 떡하고 큰일 하는 데 고기 썰고 그랬었는데 차차차차 이젠 해가 되어 가고 발전이 되어 가니까 그건 안 하고 이젠 고기 써는 건 잔치하는 데 소상하는 데 하려고 하면 도마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그래서 하다가 이젠 안 하지.)

27)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28) 한림리 고연옥 씨 구술.

한림리의 고연옥 씨 역시 옷감을 다듬이질 할 때 뿐만 아니라, 큰일을 치를 때 고기를 써는 용도 또는 떡 반죽을 미는 용도로도 '안반'을 사용했다.

(2) 윤디

'윤디'는 바느질할 때 불에 달구어 천의 구김살을 눌러 펴거나 솔기를 꺾어 누르는 데 쓰는 기구다. 쇠로 만들며 화살표 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들어 평평한 바닥 부분을 주름을 펴고자 하는 곳에 댄다. 보통 한복을 지을 때 '깃'이나 '섶' 부분을 다릴 때 쓴다. '윤디'는 보통 화로의 숯불에 묻어 두어 달군 후 다리고자 하는 곳에 '윤디'를 가져다 댄다. 때문에 긴 손잡이가 달려 있다.

"윤디. 옷 영 동정 ᄀᆞ튼 거 영 뭣 허젠 허민 걸로 영 영. 쫄락허고 영 헤연 영 여기 ᄌᆞ룩 싯고. 화리불에 숫불 살랑. 그레 영 놧당 뜨뜻허믄. 또 풀 부쪙도 영 허영 그걸로 꼭꼭 누르면 부뜨곡. 난 그런 거 한복 멘들아나주 안 헷주게. 어머니네 허는 거 봔. 화리에 영 놩 뜨뜻하게 허민 이레 영 꼭꼭 눌럿주기. 또 손으로 옷 허난 그런 실밥도 영 허영 눌르곡. 뜨지 말렌. 걸로 헷주기. 건 우리 어린 때." [29]

(윤디. 옷 이렇게 동정 같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손잡이 있고. 화롯불에 숯불 피워서. 거기 이렇게 놨다가 따뜻하면. 또 풀 붙여서 이렇게 해서 그걸로 꼭꼭 누르면 붙고. 난 그런 거 한복 만들어 보지는 안 했거든. 어머니네 하는 거 봤어. 화로에 이렇게 놔서 따뜻하게 하면 여기 이렇게 꼭꼭 눌렀지. 또 손으로 옷 하니까 그런 실밥도 이렇게 해서 누르고. 뜨지 말라고. 그거로 했지. 그건 우리 어렸을 때.)

"다림질헐 땐 그냥 맨바닥에 헷주. 담요 ᄀᆞᆯ안. 옛날 군인 담요. 그런 거 ᄀᆞᆯ안." [30]

(다림질할 땐 그냥 맨바닥에 했지. 담요 깔아서. 옛날 군인 담요. 그런 거 깔아서.)

한림리 고연옥 씨는 한복을 직접 만들거나, '윤디'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친정어머니가 '윤디'를 사용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수 만든 한복의 '동정' 등을 납작하게 할 때 화로에 넣어 뜨꺼워진 '윤디'를 원하는 부위에 갖다 대었다. 옷감의 주름을 펴거나 들뜬 실밥을 누르는 용도로도 '윤디'를 썼다고 한다. '윤디'로 다림질을 할 때는 바닥에 군인 담요를 깔아 다리미판으로 이용했다.

29) 한림리 고연옥 씨 구술.
30) 한림리 고연옥 씨 구술.

(3) 다듬이마께

'다듬이마께'는 옷을 다듬이질할 때 사용하는 방망이를 말한다. 옷감을 잘 건조한 후 '다듬이마께'로 수차례 두드려 주름을 곱게 폈다.

"마께. 우린 긴 거 엇어. 영 동글락혜근에 자룩, 손잡이만 영 잇인 거. 영 둥글락 헨." [31)]
('마께'. 우리 긴 것 없어. 이렇게 동그래서 손잡이, 손잡이만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둥그랬어.)



<사진 30> 양명부 씨 소장 '다듬이마께'

<사진 30>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다듬이마께'다. 나무로 만든 것인데다가 오랜 시간 사용한 탓에 몸체 군데군데 흠집이 있다. 손잡이 부분은 손때를 타 까맣다. 옷감을 무게감을 가진 방망이로 평평히 두드릴 수 있도록 길게 만들었다.

1.3. 세탁 도구

(1) 빨래팡

'빨래팡'은 빨래할 때 사용할 용도로 바닥에 깔아둔 돌을 말한다. 더러움을 빼기 위해 빨래터에 마련된 '빨래팡'에 빨랫감을 놓고 방망이로 때려 옷을 빨거나, '빨래팡'에 문질러 때를 뺀다. 수도 시설이 각 가정에 보급되기 전에는 물가에 빨랫감을 직접 들고 가서 빨래를 해야 했다. 수도가 보급된 후에는 집에서 빨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대의 변화로 쓰임이 없어진 맷돌을 '빨래팡'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선대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넓적한 나무 널판에 울퉁불퉁한 홈을 만들어 더러움을 뺄 수 있도록 한 빨래판을 사용하기도 했다.

31)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빨래팡으로 이용하는 ᄀᆞ레착"[32]
(빨래판으로 이용하는 맷돌)


<사진 31> 김인선 씨 소장 '빨래팡'


<사진 32> 이옥여 씨 소장 '빨래팡'


<사진 33> 강명순 씨 소장 '빨래팡'


<사진 34> 장창일 씨 소장 '빨래팡'

<사진 31>은 옹포리 김인선 씨(1949년생) 집에 설치된 '빨래팡'이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닥에 맷돌 한쪽을 박아 놓고 빨래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맷돌 위에 물에 젖은 옷감을 올려놓고 맷돌 옆에 놓인 '빨래마께'로 수차례 두드려 더러움을 뺐다. <사진 32>은 한림리 이옥여(1934년생) 씨 집 수돗가에 설치된 '빨래팡'이고, <사진 33>은 협재리 강명순 씨(1943년생) 집 수돗가에 설치된 '빨래팡'이다. 시멘트 바닥에 맷돌을 묻은 후 사용하고 있는 김인선 씨의 '빨래팡'과는 달리, 맷돌이 돌출된 채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이옥여 씨와 강명순 씨 역시 현재까지도 맷돌을 빨래판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34>은 상명리 장창일 씨(1953년생) 집 수돗가에 설치된 '빨래팡'이다. 장 씨는 맷돌 윗면을 시멘트를 칠해 평평하게 만든 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멘트를 전면에 바르지 않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맷돌 구멍은 피해 발랐다. 빨랫감을 울퉁불퉁한 부분에 문질

32) 옹포리 김인선 씨 구술.

러 때를 빼거나, 맷돌 위에 빨랫감을 올려놓고 '빨래마께'로 수차례 두드려 더러움을 뺐다.

한편, 가볍고 이동이 간편한 나무 빨래판이 보급되자 이를 사용하는 이들도 늘었다. 기성품 빨래판은 나무에 홈을 내어 울퉁불퉁한 면에 빨랫감을 비벼 때를 뺄 수 있도록 했다. 제보자들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빨래판과 함께 집에서 직접 만든 '마께'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거 나오기 전인 돌에서 영 밀엇주게. 돌 납작헌 거 영 앗다 놩." [33]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돌에서 이렇게 밀었었지. 돌 납작한 거 이렇게 가져다 놓고.)


<사진 35> 양명부 씨 소장 '빨래판'과 '마께'

<사진 35>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빨래판과 빨랫방망이다. 양 씨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빨랫감을 물가까지 직접 들고 간 후, 납작한 돌 위에 빨랫감을 올려놓고 문지르거나 때려 빨며 더러움을 뺐다. 수도가 각 가정에 보급되어 집에서도 빨래가 가능해지자 <사진 35>와 같은 나무 빨래판을 구입하여 세탁에 사용했다. 양 씨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 >의 '빨래팡'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오랜 시간 사용하여 요철 모양의 골 부분이 평평하게 닳았다. 빨래판 옆에 놓인 것이 빨랫감을 두드려 때를 뺄 때 쓰는 빨랫방망이 '빨래마께'다.

(2) 빨래마께

'빨래마께'는 빨래할 때 옷의 때를 빼기 위해 빨랫감을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물마께', '세답마께', '서답마께'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33)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겨고 집이서 옛날에사 빨래헤낫어게? 이젠 집이 수도 나난 막 허여신디 옛날에 물가에 강 그 담에 놩 착착 마께로 두드리멍 뽈앗주게." [34]

(그리고 집에서 옛날에야 빨래했었어? 이젠 집에 수도 생기니까 막 하지만 옛날에 물가에 가서 그 담에 놓고 착착 '마께'로 두드리면서 빨았지.)

월림리 양명부 씨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가정에 수도 시설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집에서 빨래를 하는 일은 없었다. 더러워진 빨랫감과 함께 '빨래마께'를 들고 물가까지 간 후, 그곳에서 빨랫감을 두드리며 빨래를 했다.

"이건게 빨래헐 때 탕탕 두드리는 거지." [35]

(이거는 빨래할 때 탕탕 두드리는 거지.)

"그거는 마께. 하르방이 멘든 걸 거라. 또 하나 멘든 거 셔." [36]

(그거는 '마께', 할아버지가 만든 걸 거야. 또 하나 만든 거 있어.)



<사진 36> 홍관매 씨 소장 '빨래마께'



<사진 37> 박영자 씨 소장 '빨래마께'

<사진 36>은 귀덕리 홍관매 씨가 사용하고 있는 '빨래마께'다. 홍 씨는 이를 '빨래헐 때 탕탕 두두리는 거'로 그 용도를 설명했다. 오랜 시간 사용했기 때문에 빨랫감을 두드리는 머리 부분이 깨져 있다. 손잡이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을 탄 터라 닳아 얇아졌다. <사진 37>은 월림리 박영자 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께'다. 박 씨는 이 '마께'를 남편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시간 사용했기 때문에 '마께'의 거친 바닥면이 매끈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두드리는 힘으로 인해 '마께'가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35)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36)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마께. 빨래허는 마께. 빨래, 빨래도 허곡 무신 거 다듬이헐 때도 쓰곡. (두 개 잇어사 뒈는 거 아니꽈?) 아니, 하나, 하나. 다듬이헐 때 저거보다 솔지고 ᄒᆞ꼼 크주. 든든허주기. 하도 오레 써 노난 다이언 영 족아진 거 아니." [37]

('마께'. 빨래하는 '마께'. 빨래, 빨래도 하고 뭐 다듬이할 때도 쓰고. (두 개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 하나. 다듬이할 때 저거보다 두껍고 조금 크지. 든든하지. 하도 오래 써 노니까 닳아서 이렇게 작아진 거 아니.)



<사진 38> 강정자 씨 소장 '빨래마께'



<사진 39> 고기순 씨 소장 '빨래마께'



<사진 40> 홍춘화 씨 소장 '빨래마께'



<사진 41> 이연옥 씨 소장 '빨래마께'

<사진 38>은 금악리 강정자 씨(1940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빨래마께'다. <사진 39>는 한수리 고기순 씨, <사진 40>은 대림리 홍춘화 씨, <사진 41>은 한림리 이연옥 씨가 보관하고 있는 '빨래마께'다. 사진의 '빨래마께' 모두 제보자들이 손빨래를 할 때 사용하고 있다. <사진 38>, <사진 39>, <사진 4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빨래마께'의 등을 버선코처럼 살짝 올려 깎았다. '빨래마께'의 측면을 크게 깎아내어 손에 들고 내리쳐야 할 때의 무게감을 줄였다. <사진 41>은 앞서 제시한 '빨래마께'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이연옥 씨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사진 41>은 '다듬이마께'로 썼던 것이라고 한다. 더 이상

37) 한림리 이연옥 씨 구술.

다듬이질할 일이 없어지자 이를 '빨래마께'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몸체가 더 두꺼웠으나 오랜 시간 사용하는 동안 닳아 없어져 지금의 모양이 되었다고 한다.

(3) 빨랫줄과 빨랫줄 작대기

빨래를 널어 말리려고 다는 줄을 '빨랫줄' 또는 '서답줄', '세답줄'이라고 한다. 지금은 '빨랫줄'과 '빨랫대' 등이 흔히 사용되지만 '빨랫줄'을 쉽게 구할 수 없던 시절에는 대나무를 잘라 '빨랫대', '빨랫줄'을 만들어 그것에 옷감을 널어 말렸다.



<사진 42> 고기순 씨 집의 '빨랫줄'과 '빨랫줄 작대기'

<사진 42>는 한수리 고기순 씨 집 마당에 설치된 '빨랫줄'과 '빨랫줄 작대기'다. 고기순 씨는 집의 외벽 한쪽과 맞은편에 긴 줄을 연결하여 '빨랫줄'로 이용하고 있었다. 물에 젖은 빨랫감을 널면 '빨랫줄'이 아래로 늘어지게 된다. 때문에 '빨랫줄'이 아래로 축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곳에 '빨랫줄 작대기'를 대어, 그 무게를 받치면서 들어 올리도록 했다. 고 씨 집의 '빨랫줄 작대기'는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 만든 것으로 <사진 42>에서 보듯이 한쪽 끝은 지면에, 다른 한쪽은 빨랫줄을 떠받치고 있다.

1.4. 옷과 신발

(1) 봇디창옷

'봇디창옷'은 깃과 섶을 달지 않은 갓난아기의 옷으로 '배냇저고리'를 말한다. 간편하게 입히고 벗길 수 있도록 한 베옷이다. '봇뎃창옷', '봇뎃옷'이라고도 한다. 제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사흘째 되는 날에 목욕을 시키고 '봇디창옷'을 입혔다. 옷감은 계절과 관계없이 '베'로 만들었다. 옷의 소매를 길게 하여 아기가 자신의 얼굴을 할퀴지 못하게 하고, 옷고름은 실을 꼬아서 한쪽을 길게 하여 달았다. '봇디창옷'은 보통 할머니가 만들어 입혔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기를 잘 키운 집에 가서 빌려다가 입히기도 했다.

"베로. 그 아기가 몸을 근지로우카 부덴. 원래 그걸 자극시기젠 아메도 그런 걸 헹 입혀난 셍이라. 아이덜이 술이 물르난 그걸 자극시키젠 헤신가?" [38]

(베로. 그 아기가 몸 가려울까 봐. 원래 그걸 자극시키려고 아마도 그런 걸 해서 입혔던 모양이야. 아이들이 살이 무르니까 그걸 자극시키려고 했나?)

"봇디창옷 입져난. 등뗑이 ᄀᆞᄅᆞ우카 부덴. 그거 뱃속에서 나오면 그거 베로 이렇게 이렇게 막 두루메기 ᄀᆞ치 소미 질게 허영 손도 나왕 얼굴 할퀴카 부덴 ᄀᆞᆨ줍지 말렌 허고 경헨 입히는 거. 경헤영 ᄒᆞᆫ 멧 번 입혀근에 또 일반 저고리를 상 입히는 거주게. 그거 난 막 오래 입현. 아기덜 옷 사지 못허난 돈 엇엉 못 사난 그거 ᄒᆞᆫ ᄒᆞᆫ 덜 넘어 입혀서. 그 베로 뒌 거. 할망이 그걸 멘들아줫주게, 베로. 손자난. 그거 하나로 다섯 오누이 다 입혓주게." [39]

(배냇저고리 입혔었어. 등 가려울까 봐. 그거 뱃속에서 나오면 그거 베로 이렇게 이렇게 막 두루마기 같이 소매 길게 해서 손도 나와서 얼굴 할퀼까 봐 꼬집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입히는 거. 그렇게 해서 한 몇 번 입혀서 또 일반 저고리 사서 입히는 거지. 그거 난 막 오래 입혔어. 아기들 옷 사지 못하니까 돈 없어서 못 사니까 그거 한 한 달은 넘어 입혔어. 그 베로 된 거. 할머니가 그걸 만들어 줬거든, 베로. 손자니까. 그거 하나로 다섯 오누이 다 입혔지.)

위의 한수리 양정아 씨(1938년생)와 월림리 양명부 씨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봇디창옷'은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살피고 헤아리는 옷이다. 양명부 씨는 시어머니가 베로 만들어 준 '봇디창옷'을 입혔다. 소매를 길게 만든 옷이었다고 한다. 무의식적으로 팔을 휘두르는 갓난아기들은 자신의 움직임에 놀라기도 하고, 또 손에 잡히는 것을 꼭 쥐는 습성이 있어 스스로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때문에 '봇디창옷'은 소매를 길게 만든

38)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39)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후 팔을 묶어 아기가 놀라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지 못하도록 고안한 의복이었다. 양명부 씨는 첫째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만들어 준 '봇디창옷'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후에 태어난 네 명의 자식 모두에게 입혔다. 아기들 입힐 옷 역시 귀했던 시절, 양 씨는 이 '봇디창옷'을 한 달 넘게 입혔다고 한다.

한편, 한림읍 조사에서 태어난 아기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할망상'에 대한 구술과 함께 '할망상'에 올렸던 물품을 조사할 수 있었다. '할망상'은 아이의 출산과 산육을 관장하는 신(神)인 '삼승할망'을 위한 상으로, 산신에게 아이의 무탈과 건강을 기원하거나 그간의 보호에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차려 올렸다. '할망상'은 굿을 할 때 '궤' 위에 차려 올리는 경우와 아기를 낳은 지 삼 일, 칠 일에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 옛날 할망상 놔난 거. 돈이영 다 놔둬신게게. 이거 할망상에 놩, 이거 애기 기저귀 허는 거. 옛날은 아기 나근에 뭣 허민 요거 종이에 깔아근에 상 놩, 신방덜 빌어낫주게. 그냥 상 허여근에 돈을 영 헹 생일날에 올려난 거 그대로 놔 뒌." [40]

(이거 옛날 '할망상' 놨던 거. 돈이랑 다 놔 두었구나. 이거 '할망상'에 놔서, 이거 아기 기저귀 하는 거. 옛날은 아기 낳아서 뭐 하면 요거 종이에 깔아 가지고 상 놔서, 무당들 불렀었거든. 그냥 상 해서 돈을 이렇게 해서 생일날에 올렸던 거 그대로 나 뒀어.)

"초사흘 초일뤠 열사흘 열일뤠 스무일뤠 경 허여근에 할망상을 놧주게. 쏠밥 헤영 메 허영 그냥 이런 상방에나, 구들에라도 에염에. 아침이 헤영 신방 빌어당, 신방 빌어다근에 빌어. 겨민 아기덜이 잘 커. 경허영 아기 ᄋᆞ섯 개 키왓주게. 경허영 ᄀᆞ만히 저디 놩 내불어 뒌." [41]

(초사흘 초이레 열사흘 열일뤠 스무일뤠 그렇게 해서 '할망상'을 놨지. 쌀밥 해서 메 해서 그냥 이런 마루에나 방에라도 옆에. 아침에 해서 무당 불러다가, 무당 불러다가 빌어. 그러면 아기들이 잘 커. 그렇게 해서 아기 여섯 명 키웠거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저기 놔서 내버려 뒀어.)

"아기 어련 헌디 또 손지도 오난에 이디서 저 할망상 놔줘낫주게. 손지덜도. 이제 손지덜 시집간에 아기 난 살아 부난 그 아기 낭 오지도 안허여." [42]

(아기 어려서 했는데 또 손자도 오니까 여기서 저 '할망상' 놔줬었거든. 손자들도. 이제 손주들 시집가서 아기 낳아서 살아 버리니까 그 아기 낳고 오지도 않아.)

40) 동명리 문영춘 씨 구술.
41) 동명리 문영춘 씨 구술.
42) 동명리 문영춘 씨 구술.



<사진 43> 문영춘 씨 소장 '할망상에 올리는 거'



<사진 44> '할망상'에 올렸던 기저귀

<사진 43>과 <사진 44>은 동명리 문영춘 씨(1953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할망상'에 놓았던 물품들이다. <사진 43>을 보면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는 '명주실'과 재복을 기원하는 '지폐', 그리고 '나침반'이 보인다. <사진 44>는 <사진 43>과 함께 '할망상'에 올렸던 아기 기저귀다. 문 씨는 여섯 명의 자녀 모두 '할망상'을 차려 건강과 무탈을 기원했다고 한다. 아기를 낳은 지 삼 일이나 일곱째 되는 날 흰 쌀밥을 차린 후 마루나 방 한쪽 구석에 차려놓고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 또 자식들이 손자를 낳았을 때도 '할망상'을 차려 아기의 건강과 무탈을 기원했다.

"저거 종이영 상에 끌아. 종이에 끌앙 저 돈 올리곡 실. 상에 저 상 페와근에. 쏠이영. 과일은 안 허여, 생성도 안 허고. 메역, 메역 아니민 미나리나. (메역은) 뿔아근에 영 헹 놓고, 또 미나리 소금이나 ᄒᆞ꼼 영 버물여 놓고. 곤밥 헹 세 개. 것도 애기 기저귀 엿날은, 이젠 종이로 기저귀 나왐주만은 엿날은 저런 시마지 뿔앙. 아래 놔. 경허여근에 허는 거주. 저건 저 기저귀 허는 거주." [43]

(저거 종이랑 상에 깔아. 종이에 깔아서 저 돈 올리고 실. 상에 저 상 펴 가지고. 쌀이랑. 과일은 안 해, 생선도 안 하고. 미역, 미역 아니면 미나리나. (미역은) 빨아서 이렇게 해서 놓고, 또 미나리나 소금이나 조금 이렇게 버무려 놓고. 흰밥 해서 세 개. 그것도 아기 기저귀 옛날은, 이젠 종이로 기저귀 나오지만 옛날은 저런 '시마지' 빨아서. 아래 놔. 그렇게 하는 거지. 저건 저 기저귀 하는 거야.)

43) 동명리 문영춘 씨 구술.

"아기 펜안히 크렌. 옛날은 저 아기 나민 막 정기허주게. 경허민 할망상 허영 빌어주민 좋아. 옛날은. 밤이 좀도 잘자고. 빌어줘. 경허민 초사흘, 초일뤠, 스무사흘, 열사흘 신방 빌어다근에 할망상 노민 저 하얀, 나 하얀 속치메라도 뽈민 이추룩헌 거. 겨민 할망이 막 아기 좋게 헤 줍센 경허영 빌어. 게난 그 할망상에 뭔 미역이나 뽈앙 놓고 밥이나 ᄒᆞ쏠 허영 저 보시에 세 개 놔. 내불민 저거, 깐 거 그레 개영 놔두곡 밥은 먹곡 치와 뒁. 게민 종이에 돈이영, 돈도 싯고 쏠이영. 경허영 빌민 좋아. 아기덜이 펜안히 잘 커. 이제덜은 할망상도 아무것도 안 놔. 뭐 헌 집은 백일에 뭐 허긴 헤도." [44]

(아기 편안히 크라고. 옛날은 저 아기 낳으면 막 경기하거든. 그러면 '할망상' 해서 빌어주면 좋아. 옛날은. 밤에 잠도 잘 자고. 빌어줘. 그렇게 하면 초사흘, 초이레, 스무사흘, 열사흘 무당 불러다가 '할망상' 놓으면 저 하얀, 나 하얀 속치마라도 빨면 이런 거. 그러면 '할망'이 막 아기 좋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빌어. 그러니까 그 '할망상'에 무슨 미역이나 빨아서 놓고 밥이나 조금 해서 저 보시기에 세 개 놔. 내 버려두면 저거, 깐 거 거기에 개어서 놔두고 밥은 먹고 치워 두고. 그럼 종이에 돈이랑, 돈도 있고 쌀이랑. 그렇게 해서 빌면 좋아. 아기들이 편안히 잘 커. 이제는 '할망상'도 아무것도 안 놔. 뭐 한 집은 백일에 뭐 하긴 해도.)

문영춘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할망상'에는 <사진 43>의 물건을 그대로 싸서 상 위에 올린다. <사진 43>에서 '쌀'은 보이지 않지만 '쌀'도 함께 올린다고 한다. 또 '할망상'을 차릴 때에는 과일이나 생선, 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소금으로 간을 한 미역 또는 미나리 무침, 그리고 흰 쌀밥 세 그릇을 올린다. 이때 국은 올리지 않는다. 문 씨는 이와 같이 '할망상'을 차려 정성으로 기원하면 아기가 밤에 잠을 잘 자는 등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과거 '할망상'과 관련한 의례는 아기의 무탈한 성장과 건강을 기원함과 동시에 산육의 어려움을 겪는 산모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기원이 반영된 문화였다. 그러나 문 씨의 구술처럼 '할망상'을 차리는 의례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문화 중 하나이기도 하다.

(2) 감옷

'감옷'은 감물을 들인 옷을 말한다. 옷감에 감물을 들일 때는 제주 토종 감인 '풋감'을 이용하는데, 감물을 들인 '감옷'은 통기성이 좋고 땀이 쉽게 차지 않는다. 또 땀이 나더라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빨리 건조된다는 장점이 있어 여름철에 적삼에 감물을 들여 '감옷'을 만들어 입었다. 감물을 들인 바지를 '갈중의', 적삼을 '갈적삼'이라고 불렀다. '감옷'의 또 다른 장점은 쉽게 더러움을 타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노동복으로 제격이다. 때문에 일할 때 입는 작업용 바지에 감물을 들여 입는 사람이 많았다.

44) 동명리 문영춘 씨 구술.

"이런 몸뻬 멘들안 감 들연. 감 들엿젠 허여, 저런 것ᄀᆞ라. 이거 감 들엿주게. 옷이 엇이난 저런 광목은 집이도 잇고 싸난 저런 거 허영 멘들안. 다른 거 허믄 버물고 저건 감 들이면은 여름에 시원허주게. 몸에 안 부텅. 경허난 저거 감 들영 입엄주게." [45]

(이런 몸뻬 만들어서 감물 들였어. 감 들었다고 해. 저런 거 보고. 이거 감 들였지. 옷이 없으니까 저런 광목은 집에도 있고 싸니까 저런 거 많이 만들었어. 다른 거 하면 더러워지고 저건 감물 들이면 여름에 시원하거든. 몸에 안 붙어. 그러니까 저거 감물 들여서 입고 있어.)



<사진 45> 홍춘화 씨가 만든 '몸뻬'

<사진 45>는 대림리 홍춘화 씨가 직접 감물을 들여 만든 '몸뻬'로 현재도 입고 있는 작업용 일바지다. '몸뻬'는 일할 때 입는 일바지로 통이 넓어 일할 때 움직임이 자유롭다. 홍 씨는 광목에 감물을 들여 '몸뻬'를 많이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광목에 감물을 들이면 통풍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땀이 나도 몸에 달라붙지 않아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다. 또 잘 더러워지지 않아 오염에 신경 쓰거나, 자주 세탁해 입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었다. <사진 45>의 작업복 역시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어 입고 벗기 편하고, 엉덩이와 다리 부분의 통이 넓어 일을 할 때의 큰 움직임에도 제약이 없어 보인다.

(3) 적삼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홑저고리를 말한다.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적삼'은 여름에는 주로 '베'로 만들고, 겨울에는 '미녕'으로 만들어 입었다.

"(저 갈옷) 적삼거치룩 만들안에." [46]
((저 갈옷) 적삼처럼 만들어 가지고.)

"멘들안. 우리냥으로 멘들아. 우이 적삼허고 속곳허고." [47]
(만들었어. 우리대로 만들어. 위에 적삼하고 '속곳'하고.)

45)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46)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47)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사진 46> 고기순 씨가 만든 '적삼'



<사진 47> 고기순 씨가 감물을 들인 '베'

<사진 46>은 한수리 고기순 씨가 만든 '적삼'이다. 베에 감물을 들인 후, 직접 만든 것으로 매해 여름이 되면 즐겨 입는다고 한다.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인 베에 팔 길이를 짧게 하여 더운 계절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46>을 자세히 보면 감물이 잘 베어든 부분은 짙은 갈색이지만 한쪽 어깨는 연한 갈색이다. 화학 염료를 사용하여 단색을 오래 유지하는 현재의 직물들과는 달리, 자연의 색감을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옷감 염색에서 제작까지 자급자족하는 선대들의 의생활을 엿볼 수 있다. <사진 47>은 감물을 들인 베다. 고 씨는 곱게 감물을 들인 베 여러 장을 감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를 이용해 옷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4) 조끼

'조끼'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소매 없는 옷이다. 저고리나 적삼 위에, 또는 일상복이나 셔츠 위에 덧입는다.

"나 이거 감물 들인 거. 쪼끼 만든 거 나냥으로 만든 건 잇어." [48]
(내가 이거 감물 들인 거야. 조끼 만든 거 나대로 만든 건 있어.)

"몸뻬도 만들안 입고 이제 우에 걸치는 거 쪼끼. 그거 만들안 입어 봔." [49]
(몸뻬도 만들어서 입고 이제 위에 걸치는 거 조끼. 그거 만들어서 입어 봤어.)

48)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49)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사진 48> 감물 들인 '베'로 만든 '조끼'


<사진 49> 감물 들인 '베'로 만든 '조끼'

<사진 48>과 <사진 49>는 한수리 고기순 씨가 만든 여름용 '조끼'다. 감물을 들인 베로 만들었다. 단추를 달아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조끼'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소매가 없다. 적삼이나 일상복 위에 걸쳐 입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고기순 씨는 땀이 나더라도 몸에 달라붙지 않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용 속옷을 직접 만들어 입기도 했다. 이것 역시 감물을 들인 베로 만들었다. 통기성이 좋고,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감옷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했다.

"이거 부라자. 여름에 허믄 완전 시원헹 좋아. 그거 만든 거 봔 다 웃어."[50]
(이거 브래지어. 여름에 하면 완전 시원해서 좋아. 그거 만든 거 보고는 다 웃어.)


<사진 50> 감물 들인 '베'로 만든 속옷

<사진 50>은 한수리 고기순 씨가 직접 만든 여성용 속옷이다. 고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이 속옷을 '부라자'로 소개했다. 감물을 들인 후, 베를 재단하고 직접 손바느질하여 만들었다. 어깨의 줄과 속옷의 이음 부분은 흰색 고무줄로 연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적삼'과 '조끼'와 함께 입으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다.

50)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5) 고무신

탄성 고무로 만든 '고무신'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후 1970년대까지 일상생활에서 즐겨 신는 신발이었다. 내구성이 강한 고무 특성상 오래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방수가 잘 되고 젖더라도 잘 마른다. 신는 사람의 발 모양에 맞게 늘어나는 탄성 때문에 일상생활에 즐겨 신는 신발로 애용되었다.

"아방 신어난 거. 미련이 잇언 데껴 불지 못허연. 줄어들어 불어신게."[51]
((아이들) 아버지가 신었던 거. 미련이 있어서 던져 버리지 못했어. 줄어들어 버렸네.)



<사진 51> 홍춘화 씨 소장 '고무신'



<사진 52> 홍춘화 씨 소장 '고무신'

<사진 51>과 <사진 52>는 대림리 홍춘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고무신'으로 그 용도가 각기 다르다. 위 사진의 '고무신'은 모두 홍춘화 씨의 남편이 신던 것이다. <사진 51>은 일반적인 '고무신'이고, <사진 52>는 여름용 '고무신'으로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다. 젖더라도 빨리 건조되며 여름에 땀이 차는 것을 막고 통풍이 잘 되어 발이 시원하다.

"남편이 신었던 거."[52]
(남편이 신었던 거.)

51)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52)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사진 53> 홍춘화 씨 소장 '털고무신'



<사진 54> 홍춘화 씨 소장 '고무신'

여름에 신는 <사진 52>의 '고무신'과 달리 <사진 53>의 '고무신'은 겨울에 신는 것이다. 추운 겨울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신발 안에는 안감이 덧대어져 있다. '고무신' 테두리 부분 역시 털로 둘러져 있어 겨울철 바람이 들어 발이 어는 것을 막았다. <사진 54>는 홍춘화 씨가 지금도 신고 있는 고무 슬리퍼다.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뒤가 트여 있다.

(6) 고무장화

'고무장화'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형태로 발이 물에 젖지 않도록 고안된 신발이다. 주로 물과 가까이 하는 작업장에서 '고무장화'를 애용하는데, 한림읍에서는 선인장을 경작하는 곳에서 신고 있었다. 이는 작업할 때 선인장 가시에 발이 찔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선인장 탈 때 신는 거."[53]
(선인장 딸 때 신는 거.)



<사진 55> 고옥생 씨 소장 '고무장화'

<사진 55>는 월령리 고옥생 씨(1940년생)가 현재 신고 있는 '고무장화'로 선인장 작업을 할 때 신는 것이라고 한다. 강하고 날카로운 선인장 가시에 찔리는 일 없도록 정강이 전체를 덮는다.

53)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7) 페렝이

'페렝이'는 여름철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쓰는 모자다. 보통 밀집이나 보릿짚을 엮어 만든다. 만든 재료에 따라 밀집으로 만들면 '밀낭페렝이', 대로 만들면 '대페렝이'라고 불렀다.

"저 모저 나가 만든 거. 감물 들연에." [54]
(저 모자 내가 만든 거. 감물 들여서.)



<사진 56> 감물 들인 천을 덧댄 '페렝이'

<사진 56>은 한수리 고기순 씨가 소장하고 있는 '페렝이'다. 시중에 파는 '페렝이'에 감물 들인 천을 덧대었다 고 씨가 직접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특히 챙 부분에 커튼과 같은 가림막을 만들어 얼굴이 그을리는 것을 막았다.



<사진 57> 박영자 씨 소장 '페렝이'



<사진 58> 고기순 씨 소장 '페렝이'

<사진 57>은 월림리 박영자 씨가 쓰는 '페렝이'다. 오랜 시간 사용한 탓에 정수리 부분의 이음 부분이 터지고 챙이 군데군데 뜯어졌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페렝이'다. '페렝이'는 더운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고, 머리에 쓰더라도 열기를 잡아두는 일 없이 통풍이 잘 되었다. <사진 58>은 한수리 고기순 씨가 소장하고 있는 기성품 '페

54)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렝이'다. 뜯어지거나 풀리는 일 없이 오래 쓸 수 있도록 챙의 마감 처리를 했다.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머리통 주위를 두른 파란색 띠와 붉은색 띠 꾸밈 등 단순해 보이지만 멋까지 신경을 썼다. 더운 계절을 보다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페렝이'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도구였다.

2. 식생활

생활환경의 변화는 식생활 도구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 재료와 모습에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과거에는 나무나 흙, 돌 등의 재료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면 지금은 플라스틱, 유리, 스테인리스 등 만드는 재료나 종류, 모양 또한 다양해졌다. 무엇보다 공산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적인 나무 그릇이나 옹기 그릇 등이 점차 사라져 가는 변화를 불러왔다. 한림읍 식생활 도구 조사에서 대나무로 만든 채롱이나 바구니, 항아리, 스테인리스 식기류 등의 도구는 여러 가정에 많이 남아 있었지만, 사기나 옹기 그릇 등은 접하기 어려웠다. 이 장에서는 식생활 도구를 식기류,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기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1. 식기류

2.1.1. 그릇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밥과 국을 담는 그릇을 '밥그릇', '국그릇'으로 칭하는데 이를 '사발'이라고 하여 '밥사발', '국사발'로 부르기도 한다. 또 그릇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놋그릇', '사기그릇', '알루미늄그릇', '스테인리스그릇' 등으로 구분한다.

시대에 따라 그릇의 주재료가 달라지는 변화가 확인되기도 한다. 대량생산이 많지 않았던 1970년대까지는 주로 '사기그릇'을 사용하다가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이후에는 가볍고 단단한 '알루미늄그릇'과 '스테인리스그릇'이 보급되면서 이를 주로 사용했다.

(1) 밥사발과 국사발

'밥사발'은 밥을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한다. 놋으로 만든 밥사발은 '놋밥사발'이라고 하고 자기로 만든 것은 '사기 밥사발'이라고 한다. '사발' 가운데 통이 깊고 큰 것은 '통사발'이라고 한다. '국사발'은 국을 뜰 때 사용하는 그릇으로 '국사발' 가운데 큰 것은 '대접'이라고 불렀다. 또 그릇을 만든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놋그릇', '사기그릇', '알루미늄그릇', '스테인리스그릇'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저거 사발은 그자, 그전인 다 저런 것에 밥 먹고, 이제 먼 테와 불엇구나만은 낭푼이 그것에 보리밥 헤영 거령."[1]

(저거 사발은 그저, 그전에는 다 저런 것에 밥 먹고, 이제 다 태워 버렸지만 양푼 그것에 보리밥 해서 떠서.)

"시어머니가 써단 거. 우리도 이거 썻는데 안 쓴 지 십오 년 됐나? 된장 같은 거 거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손때 묻은 거여서 다 없애는 게 너무 아쉬워 가지고 놔둔 거지."[2]

(시어머니가 쓰던 거. 우리도 이거 썼는데 안 쓴 지 십오 년 됐나? 된장 같은 거 뜨고. 어머니가 쓰시던 손때 묻은 거여서 다 없애는 게 너무 아쉬어 가지고 놔둔 거지.)



<사진 1> 고옥자 씨 소장 '밥사발'



<사진 2> 양인희 씨 소장 '밥사발'과 '국사발'



<사진 3> 양인희 씨 소장 '밥사발'



<사진 4> 강병출 씨 소장 '국사발'

1) 명월리 강병출 씨 구술.
2) 대림리 정연희 씨 구술.



<사진 5> 정연희 씨 소장 '밥사발'



<사진 6> 정연희 씨 소장 '국사발'

<사진 1>은 귀덕리 고옥자 씨(1945년생)의 '밥사발', <사진 2>는 강구리 양인희 씨(192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밥사발'과 '국사발'이다. <사진 3>은 양인희 씨의 '밥사발', <사진 4>는 강병출 씨(1926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국사발'이다. 모두 '사기 사발'로 사기는 떨어트렸을 경우 깨지기도 한다. 가볍고 잘 깨지지 않는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그릇이 보급되자 사기그릇은 점차 그 사용이 줄었다. 사진의 '사기 사발' 모두 현재는 쓰이지 않는 것이다. <사진 5>과 <사진 6>은 대림리 정연희 씨가 소장하고 있는 '밥사발'과 '국사발'로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았다. <사진 6>의 '국사발'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으나, '국사발'이 아닌 항아리에 담근 된장을 퍼 담아 오는 용도로 쓰고 있다.

한편, 쓰지 않게 된 사기그릇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사진 7> 정연희 씨 소장 '국사발'

<사진 7> 역시 정연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국사발'로 화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저거 제사 때 써난 사발. 이젠 저런 거 안 쓰고 스덴 쓰난, 아레미 사발 저추룩 하간 거 허연 내불엄주게. 저거 스물다섯에, 스물넷에 결혼헤영 스물다섯, 스물여섯에 사져실 거라. 저 제사 물려받젠 허난, 제사허젠 허난 그릇 엇엉 저거 산 거. 그때 권당덜 하부난 저거 서른 개, 국그릇도 삼십 개 경 사져실 거라. 다른 거 접시 거튼 거 그런 거는 시어멍 씨단 거 물려주난 그걸로 허고. 한림장에 뎅기멍 사단, 이번 저번 사단 썻주. 혼꺼번에 돈 엇엉, 어떵 엿날은 헷어게. 저런 걸로 멘든 다라도 이번 저번 허고, 이웃서 그릇 엇이난 빌어당도 쓰고 경헤낫주게. (저거 전이는 어떤 그릇?) 밥 먹을 때 사기사발. 막 엿날 사기사발. 그거 이제 엇어."[3]

(저거 제사 때 썼던 사발. 이젠 저런 거 안 쓰고 스테인리스 쓰니까, 알루미늄 사발 저렇게 온갖 거 해서 내버렸지. 저거 스물다섯에, 스물넷에 결혼해서 스물다섯, 스물여섯에 샀을 거야. 저 제사 물려받으려고 하니까, 제사하려고 하니까 그릇 없어서 저거 산 거. 그때 친척들 많으니까 저거 서른 개, 국그릇도 삼십 개 그렇게 샀을 거야. 다른 거 접시 같은 거 그런 거는 시어머니 쓰던 거 물려주니까 그걸로 하고. 한림장에 다니면서 사다가, 이번에 저번에 사다가 썼지. 한꺼번에 돈 없어서, 어떻게 옛날은 했겠어. 저런 것으로 만든 대야도 이번에 저번에 하고, 이웃에서 그릇 없으니까 빌려다가도 쓰고 그랬었지. (저거 전에는 어떤 그릇?) 밥 먹을 때 사기사발. 아주 옛날 사기사발. 그거 이제 없어.)



<사진 8> 양명부 씨 소장 '아레미 사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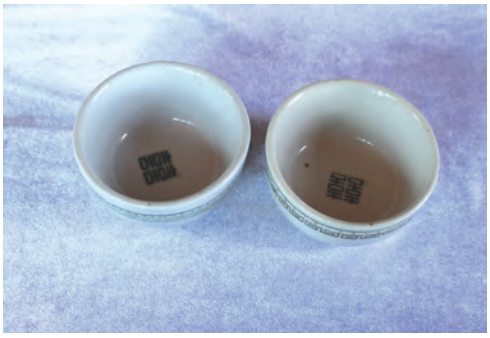
<사진 8>은 월림리 양명부 씨(194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알루미늄' 그릇으로, 양 씨는 이를 '아레미 사발'이라고 소개했다. 시집온 이후 스물다섯 무렵에 산 것이다. 제사 때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게 되자 조금씩 사서 모은 것이라고 한다. 살림이 어려워 한 번에 구입하지 못하고 빌려 쓰기도 하며 조금씩 사 모았던 그릇이다. <사진 8>의 '아레미 사발'을 제사에 사용했으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다. 양 씨는 이 '아레미 그릇'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기 사발'을 사용했었다고 한다.

양명부 씨의 구술을 통해 '사기'에서 '알류미늄'으로,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제품들이 나무그릇이나 옹기그릇 또는 사기그릇의 역할을 대체해 갔음을 양 씨의 구술을 통해 알 수 있다.

3)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2) 보시와 젭시

'보시'는 김치 따위의 반찬 등을 떠 놓는 그릇으로, 표준어의 '보시기'에 해당한다. '젭시'는 반찬이나 음식을 떠 놓을 때 쓰는 높이가 낮고 납작한 그릇으로, 표준어의 '접시'를 말한다.



<사진 9> 장인자 씨 소장 '보시'



<사진 10> 장인자 씨 소장 '젭시'



<사진 11> 정연희 씨 소장 '젭시'



<사진 12> 양명부 씨 소장 '젭시'

<사진 9>과 <사진 10>은 옹포리 장인자 씨(1947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보시'와 '젭시'다. '보시'는 김치 등의 반찬을 담아 놓기 좋게 오목하고, '젭시'는 납작하여 국물이 많지 않은 반찬을 담기에 적합하다. <사진 11>은 대림리 정연희 씨, <사진 12>는 월림리 양명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젭시'다. '젭시' 바닥에 꽃무늬를 그려 그릇을 장식하거나, 복(福)이라는 글자로 꾸몄다. 식사하는 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그릇에 담았다.

(3) 종지

'종지'는 간장, 된장 따위를 담는 작은 그릇이다. 흔히 '장종지'라고 하는데, '종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종지'는 형편에 따라 술잔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진 13> 장순삼 씨 소장 '젭시'와 '종지'



<사진 14> 양인희 씨 소장 '종지'

<사진 13>은 협재리 장순삼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젭시'와 '종지', <사진 14>는 강구리 양인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종지'다. '종지'는 오목하여 적은 양의 음식이나 액체를 담기에 적합하다. 때문에 '종지'는 간장을 담거나 술잔으로 쓰인다.

한편, 제주에서는 윷놀이를 할 때도 '종지'를 이용했다. '종지'를 이용하는 윷놀이 혹은 윷을 '종지윳'이라 불렀다.

"윳 헐 때 헤난 거. 원래 걸로 술도 먹어나고, 그 윳 데끼는 거, 잔치집이 가민 윳 데끼는 거." [4]
(윷 할 때 했던 거야. 원래 그거로 술도 마시고, 그 윷 던지는 거, 잔치집에 가면 윷 던지는 거.)



<사진 15> 장화순 씨 소장 '종지'

<사진 15>은 금악리 장화순 씨(1946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종지'다. 장 씨는 술잔으로 사용했던 것을 윷놀이에도 썼다고 한다. 나무를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잘라 만든 윷을 종지 안에 넣고 흔들다가 쏟듯이 던지는 형식이 '종지윳'으로 장 씨는 사진의 '종지'에 윷을 담아 던졌다.

4) 금악리 장화순 씨 구술.

(4) 낭푼

'낭푼'은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 쓰는 그릇으로, 표준어의 '양푼'을 말한다. '낭푼'은 보통 그릇의 높이가 낮고 아가리가 넓다. 재료에 따라 놋으로 된 것은 '놋낭푼', 알루미늄은 '아르미 낭푼', 주물로 뜬 것은 '이모노 낭푼'이라고 불렀다. '이모노(いもの)'는 '주물(鋳物)'에 해당하는 일본어이다. 제주에서는 '낭푼'에 밥을 가득 뜬 후, 밥상 한가운데 놓고 온 식구가 함께 먹었다.

"옛날은 지들커 헤당 불 솜앙 솟디 영 헹 거령, 낭푼이에 거려당 밥 먹엇어."[5]
(옛날은 장작 해다가 불 때서 솥에 이렇게 해서 떠서, 양푼에 떠다가 밥 먹었어.)

"이거 밥 펑 먹어난 거. 이것에 밥 거령 영 모다졍."[6]
(이거 밥 퍼서 먹었던 거. 이것에 밥 떠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쌀은) 낭푼이에. 낭푼이에 씻어근에, 낭푼이채 씻어근에 솟에 놔야주게."[7]
((쌀은) 양푼에. 양푼에 씻어서, 양푼째 씻어서 솥에 놔야지.)



<사진 16> 신창윤 씨 소장 '낭푼'



<사진 17> 고기순 씨 소장 '낭푼'

<사진 16>는 월령리 신창윤 씨(1934년생)가 쓰던 '낭푼'이다. 신창윤 씨는 사진의 '낭푼'에 밥을 푼 후, 이를 밥상 가운데 올려놓고 다 함께 먹었다. <사진 17>은 한수리 고기순 씨(1939년생)가 사용하는 '낭푼'이다. 고 씨는 쌀을 '낭푼'에서 씻은 후 솥에 옮겨 넣는 용도로 썼다.

별다른 용기가 없었던 시절, 무엇이든 담기 용이한 '낭푼'은 가족 전체의 밥그릇 역할

5) 명월리 강병출 씨 구술.
6)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7)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을 했을 뿐만 아니라, 쌀을 씻거나 식재료를 담아두는 등 다양하게 쓰였다.

2.1.2. 차롱과 구덕

(1) 동고량

'동고량'은 '대로 만든 도시락용 그릇'을 뜻하는 제주어다. 대나무를 얇게 가늘게 쪼갠 후 옷감을 직조하듯이 엮어 짠 것이다. 음식을 담는 네모난 모양의 대나무 그릇과 이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진 뚜껑이 있다.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동고령', '밥당석'이라고도 불렀다.

"밧디 가믄이 이런 나일롱 그릇에 노믄 물이, 물이 허니까 이것에 밥 놩, 이것에 끌지 아녀고 판찍 씻엉 이레 밥 놔근에 반찬이 이 욮이 놓고 영 허영 ᄀᆞ정 강 점심 먹는 거주게. 아침도 먹고. 큰 것도 셔. 차롱이라도 밧디 다니는 거 잇주만은 난 이 족은 거, 이거믄 밧디 다닐 때 이것에 허믄 쉬지도 아녀고 서느룽허영 좋아. 난 안 써난. 나 시대에는 안 허연. 우리 어무니네 헐 때. 이거 영 허영 밥 거령 가믄 막 맛 좋안덜, 저 이런 디 무시거 허난에 물 돌지 안헹 존덴 이거 허여낫주." [8]

(밭에 가면 이런 나일론 그릇에 넣으면 물이, 물이 생기니까 이것에 밥 놓고, 이것에 깔지 않고 잘 씻어서 여기 밥 놔서 반찬은 이 옆에 놓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점심 먹는 거지. 아침도 먹고. 큰 것도 있어. 채롱이라도 밭에 다니는 거 있지만 난 이 작은 거. 이거면 밭에 다닐 때 이것에 하면 쉬지도 않고 서늘해서 좋아. 난 안 썼었어. 내 시대에는 안 했어. 우리 어머니네 할 때. 이거 이렇게 해서 밥 떠서 가면 아주 맛 좋아서들, 저 이런 데 뭐 하니까 물 돌지 않아서 좋다고 이거 했었지.)



<사진 18> 홍관매 씨 소장 '동고량'

<사진 18>은 귀덕리 홍관매 씨(1939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동고량'이다. 가로 18.5cm, 세로 15cm, 높이 6cm의 크기로 자그마하다. '동고량'은 밭일을 가거나 목동이 마소를 돌보러 갈 때 들에서 먹을 간식이나 점심을 담아가는 그릇이다. 사진의 '동고량'은 홍 씨의 친정어머니가 쓰던 것이다.

양은 도시락이나 플라스틱 도시락의 경우 밥이 식으면서 습기가 찬다. 그러나 통기성이 좋은 '동고량'은 습기가 차는 일이 없

8)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었다. 때문에 실온에서도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았다.

(2) 차롱

'차롱'은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가지고 납작하고 네모난 모양으로 짠 대그릇으로 표준어로는 '채롱'이라고 한다. 주로 음식 등을 담아 보관할 때 이용하는데 제주에서는 제사나 명절 등 큰일을 치를 때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다. '차롱'은 본체와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차롱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착'은 두 개가 쌍을 이루는 물건의 한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차롱'에 담아 놓은 떡이나 음식이 마르거나 먼지가 들어가는 일 없도록 뚜껑을 덮어서 사용했다. 용도에 따라 '적차롱', '떡차롱'으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했다.

"요거는 오십 년 뒛어, 차롱. 식게헐 때 써난 거. 이건 내가 온 후에 장만했어. 이거 수방이 아부지가 헤 줘거든. 동네 어르신인데 부탁헤 가지고 만들어 준 거. 얼마 준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은 줬어."[9]

(요거는 오십 년 됐어, 차롱. 제사할 때 썼던 거. 이건 내가 (시집)온 후에 장만했어. 이거 수방이 아버지가 해 줬거든. 동네 어르신인데 부탁해 가지고 만들어 준 거. 얼마 준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은 줬어.)

"지금도 전 지져서 이런 데 널면은 습기 안 차지만 뭐 쟁반에 노면은 아래 뭐 종이를 깔든 아무튼 경 헤야 습기가 안 생기거든게. 이게 알고 보민 잘도 좋은 그릇이야. 근데 최근에 쓰지 안허니까. 제사 명절 많이 옛날 거치 안 차리잖아."[10]

(지금도 전 지져서 이런 데 널면 습기 안 차지만 뭐 쟁반에 놓으면 아래 뭐 종이를 깔든 아무튼 그렇게 해야 습기가 안 생기거든. 이게 알고 보면 아주 좋은 그릇이야. 그런데 최근에 쓰지 않으니까. 제사 명절 많이 옛날 같이 안 차리잖아.)



<사진 19> 김묘생 씨 소장 '차롱'

<사진 19>는 명월리 김묘생 씨(1951년생)의 '차롱'이다. 김 씨가 시집오고 난 후에 장만한 것으로 구입한 지 오십 년이 넘었다. 동네 어르신이 직접 결은 것으로 김 씨는 제사 음식을 준비에 사진의 '차롱'을 썼다. 사용한 지 오십 년이 넘는 '차롱'이지만 온전한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9) 명월리 김묘생 씨 구술.
10) 명월리 김묘생 씨 구술.

쟁반이나 접시 등에 뜨거운 음식을 놓으면 식으면서 물기가 생긴다. 그러나 통기성이 좋은 '차롱'은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그러한 일이 없다. 김 씨는 '차롱'이 매우 편리한 그릇이지만 제사나 명절이 간소화되면서 그 필요도 또한 감소하여 자주 쓰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 떡, 제사 때 지물. 저것도 물린 거. 우리가 장만헌 거 없어." [11)]
(저 떡, 제사 때 제물. 저것도 물려받은 거. 우리가 장만한 거 없어.)

"떡 내여 놓는 거." [12)]
(떡 내어 놓는 거.)


<사진 20> 장순삼 씨 소장 '차롱'


<사진 21> 양명부 씨 소장 '차롱'

<사진 20>은 협재리 장순삼 씨가 보관하고 있는 '차롱'이다. 물려받은 것으로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떡이나 '지물'을 담아 두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21>은 월림리 양명부 씨(194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차롱'이다. 양 씨 역시 떡 담는 용도로 사용했다. '차롱'의 테두리 부분이 풀어지자 초록색 노끈으로 둘러 묶어 더이상 풀리지 않도록 조치해 놓았다. <사진 21>을 보면 '차롱'의 바닥을 짜는 데 쓰인 대나무가 '차롱'의 골조를 이루고, 가늘게 쪼갠 여러 개의 대나무가 가로로 꿰어지면서 그릇 모양으로 결어진 것을 볼 수 있다.

11) 협재리 장순삼 씨 구술.
12)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엿날에 무신 거 엇이난 여기 전지 지졍 놓고, 이디 상에 올릴 거 떡 허영 지물, 지물 허영 영 더껑 놔두고. 나 시어멍안티 물린 거. 이거 오십 년도 더 뒌 거주게. 이거 나 시집온 것만 헤도 오십 년이라. 스물하나에 (시집완). 이제 견디 일흔다섯." [13]

(옛날에 뭐 없으니까 여기 전 지져서 놓고, 여기 상에 올릴 거 떡 해서 제물, 제물 해서 이렇게 덮어서 놔두고. 나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이거 오십 년도 더 된 거지. 이거 내가 시집온 것만 해도 오십 년이야. 스물하나에 (시집왔어.) 이제 그런데 일흔다섯.)

"우리 집 아방이 웨아들이라부난 시집오는 날부터, 떡 헐 중 몰란. 떡 헐 줄 몰르난 떡 허젠 허믄 안 헤나 부난 떡 헐 중 몰란 잘도 애먹언. 이젠 떡 안 헤도 사단 허민 뒈는디 옛날엔 다 집이서 만들안. 세미, 인절미, 송편. 또 침떡. 겨민 제사에 침떡, 세미, 인절미, 곤떡 저 경허믄에 식게, 멩질 헷주게. 차롱은 이거 시어멍 허단에 물려 준 거난." [14]

(우리 집 남편이 외아들이어서 시집오는 날부터, 떡 할 줄 몰랐어. 떡 할 줄 모르니까 떡 하려고 했는데 안 했었으니까 떡 할 줄 몰라서 정말 애먹었어. 이젠 떡 안 해도 사다가 하면 되는데 옛날엔 다 집에서 만들었어. 세미, 인절미, 송편. 또 백설기. 그러면 제사에 백설기, 세미, 인절미, 흰떡 저 그렇게 하면 제사, 명절 했지. 채롱은 이거 시어머니 하다가 물려 준 거니까.)



<사진 22> 홍춘화 씨 소장 '떡 차롱'



<사진 23> 홍춘화 씨 소장 '떡 차롱'

<사진 22>와 <사진 23>은 대림리 홍춘화 씨(194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떡 차롱'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홍 씨가 스물하나에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의 '차롱'을 물려받은 것으로, 오십여 년이 넘는 '차롱'이다. 사진의 '차롱'에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할 때 전이나 제물, 떡을 담아 덮개를 덮어 보관했다고 한다. <사진 23>은 '차롱'의 덮개를 열어놓은 모습을 찍은 것이다.

13)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14)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옛날에 시어멍, (시집)완 보난 이거 씨염고, 나 결혼헐 때 저디, 저디도 두 개 이실 거여." [15]
(옛날에 시어머니, (시집)와서 보니까 이거 쓰고 있고, 나 결혼할 때 저기, 저기도 두 개 있을 거야.)

월령리 고옥생 씨(1940년생)도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차롱'을 물려받았다. 대나무로 결은 '차롱'은 매듭이 풀리거나 부서지는 일만 없다면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로 만든 그릇은 썩거나 삭아 못쓰게 되기도 하지만 대나무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 때문에 선대가 쓰던 것을 물려받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수십 년 전에 결은 '차롱'이라 하더라도 색이나 모양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ᄀᆞ는대구덕

'ᄀᆞ는대구덕'은 대오리를 아주 가늘게 쪼개서 촘촘하게 짠 바구니를 말한다. 'ᄀᆞ는+대+구덕'의 구성으로 된 말로 'ᄀᆞ는'은 '가늘다'의 의미하고, '대'는 '대나무', '구덕'은 '바구니'를 의미한다. 제사 제물을 넣어서 지고 가거나, 친척이나 동네 큰일이 있을 때 쌀이나 떡 등의 부조를 넣어 가지고 갈 때 사용했다. 제보자에 따라 'ᄀᆞᆫ대구덕', 'ᄀᆞᆫ대바구리'라 하기도 한다.

"ᄀᆞ는대구덕. 이거는 이렇게 들여 놩 사돈칩이나 갈 때 이렇게, 곱게 이추룩 헤여근에 졍 가고. 물린 게 ᄒᆞ나토 없어, 난. 이녘으로 사멍 헷주." [16]
('ᄀᆞ는대구덕'. 이거는 이렇게 들여 놔서 사돈집이나 갈 때 이렇게, 곱게 이처럼 해 가지고 져서 가고.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 나. 스스로 사면서 했지.)

월림리 고갑년 씨 말에 따르면, 사돈집 등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을 방문할 때는 'ᄀᆞ는대구덕'을 지고 갔다고 한다.

"이거 오십 년 뒛어, 오십 년. 버리기 아까와 가지고. 이거 어디 저 사돈칩에나 갈 때. 사돈칩이 떡 헹 갈 때 이거 막 예쁜 구덕으로 헤근에, 그때는 돈 많이 주고 샀거든. 이거 봐 이거, 이것도 잊어먹지 말라고 영 표시했어. 이거 말고 요만헌 것도 잇엇는디 그거는 어디 갓는지 몰르겠어. 이거는 진짜 그때는 고급으로 생각헤 가지고 명품 가방이야, 이거. 아무 데나 들고 가지도 안헤, 이건. 어디 사돈집이나 아니면 어디 막 예쁘게 갈 때 그럴 때 이거는 하고 갓지. 당에 갈 때도 쓰고, 당에. 그때 뭐 쌀도 담고 돈도 담고 떡도 담고." [17]

15)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16)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17) 명월리 김묘생 씨 구술.

(이거 오십 년 됐어, 오십 년. 버리기 아까워 가지고. 이거 어디 저 사돈집에나 갈 때. 사돈집에 떡 해서 갈 때 이거 아주 예쁜 바구니으로 해서, 그때는 돈 많이 주고 샀거든. 이거 봐 이거, 이것도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했어. 이거 말고 요만한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 그때는 고급으로 생각해 가지고 명품 가방이야, 이거. 아무 데나 들고 가지도 않아, 이건. 어디 사돈집에나 아니면 어디 아주 예쁘게 갈 때 그럴 때 이거는 하고 갔지. 당에 갈 때도 쓰고, 당에 그때 뭐 쌀도 담고 돈도 담고 떡도 담고.)



<사진 24> 김묘생 씨 소장 '구는대구덕'

<사진 24>는 명월리 김묘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구는대구덕'으로 오십 년이 넘은 것이다. 김묘생 씨는 <사진 24>의 '구는대구덕'을 명품 가방에 비유했다. 사돈집이나 당에 갈 때 등 격식을 차려야 할 장소를 방문할 때는 이 '구는대구덕'에 떡을 담고서 지고 갔다고 한다. 타인의 것과 혼동하여 바뀌는 일 없도록 '구는대구덕' 우측에 흰색 칠을 해 둔 것이 보인다. 오십 년이 넘었지만 잘 관리되어 색이 곱고 뒤틀림 또한 없다.

한편, '구는대구덕'을 친척이나 이웃의 큰일에 쌀이나 떡을 넣고 가서 부조할 때 사용하는 바구니라고 해서 '부주구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조할 떡을 넣는다고 하여 '떡돌렝이', '떡돌랑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는 그냥 '돌렝이'라고 하기도 한다. 보통 '떡돌렝이'는 크기가 작은 것으로, 이 떡을 넣은 '떡돌렝이'를 크기가 조금 큰 '구는대구덕'에 넣어서 지고 갔다.

"이거는 전이 고에 가젠 허민 이걸로 떡 하나 허영 부주허레 고에 가고 경 헤난 거. 사름 죽으민. 대소상 집에 갈 때는 그땐 돈도 엇고 허난 산디 떡을 헹 저걸로 하나씩 헤영 가져가낫주게. 구져가민 그 사름은 받아 놩 간 사름을 멧 개썩 주는 거라. 고에 가는 거. 대소상 헐 때. 이거는 저거를 들여놩 경 다니는 거. 저거를 이 쏙에 들여 놩. 떡돌렝이." [18]

(이거는 전에 조문 가려고 하면 이걸로 떡 하나 해서 부조하러 조문 가고 그렇게 했던 거. 사람 죽으면 대소상 집에 갈 때는 그땐 돈도 없고 하니까 밭볏쌀로 떡을 해서 저걸로 하나씩 해서 가져갔었거든. 가져가면 그 사람은 받아 놓고 간 사람을 몇 개씩 주는 거야. 조문 가는 거. 대소상 할 때. 이거는 저거를 들여놔서 지고 다니는 거. 저거를 이 속에 들여 놔서. '떡돌렝이'.)

18)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저거, 저것에 제사 때에 부모 제사에 어디 큰집이나 경헌 때에, 어디 방상에 영장난 때나 경헌 때 떡 헹 가는 거. 저거 하나 빵떡 모록이 놩. 밀가루로 만든 거, 찐빵 같은 거 그런 거 사다 놔근에. 저 돌렝이 쏠 부주허는 돌렝이." [19]

(저거, 저것에 제사 때에 부모 제사에 어디 큰집이나 그럴 때에, 어디 친척에 장 났을 때나 그런 때 떡 해서 가는 거. 저거 하나 빵떡 가득하게 놔서. 밀가루로 만든 거, 찐빵 같은 거 그런 거 사다 놔서. 저 '돌렝이' 쌀 부조하는 '돌렝이'.)

"저 엿날은 잔치 때 어디 저 뭐 헌 때에 저런 것에 부주 허영 갓주게. 옛날은 뒛박으로 두 개도 허영 가는 디 싯고 네 개도 허영 가는 디 싯고. 가까운 디 막 가까운 디는 네 개 헹 가고, 혼 말. 혼꼼 먼 디는 두 뒈. 경헹 가난. 보리썰도 좋고 곤썰도 좋고 팟도 좋고 그런 거." [20]

(저 옛날은 잔치 때 어디 저 뭐 했을 때에 저런 것에 부조 해서 갔지. 옛날은 됫박으로 두 개도 해서 이렇게 가는 데 있고 네 개도 해서 가는 데 있고. 가까운 데 아주 가까운 데는 네 개 해서 가고, 한 말. 조금 먼 데는 두 되. 그렇게 갔었어. 보리쌀도 좋고 흰쌀도 좋고 팥도 좋고 그런 거.)



<사진 25>고갑년 씨 소장 '떡돌렝이'



<사진 26> '떡돌렝이'를 '고는대구덕'에 담은 모습



<사진 27> 양명부 씨 소장 '돌렝이'



<사진 28> '돌렝이'를 '고는대구덕'에 담은 모습

19)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20)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사진 25>는 월림리 고갑년 씨(1934년생)의 '떡돌렝이'다. <사진 26>은 'ᄀᆞ는대구덕'에 '떡돌렝이'를 담은 모습이다. 고갑년 씨는 조문을 갈 때 <사진 25>의 '떡돌렝이'를 이용했다. <사진 26>처럼 'ᄀᆞ는대구덕'에 '떡돌렝이' 담아 초상집을 방문했다. 돈이 넉넉지 않던 시절 돈 대신 떡으로 부조를 했는데, 고 씨는 밭볏쌀로 만든 떡을 '떡돌렝이'에 담고 갔다고 한다. <사진 25>를 보면 '떡돌렝이'의 테두리 부분이 풀어지자 더 풀리는 일 없도록 나일론 줄을 감아놓은 것이 보인다.

<사진 27>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돌렝이'다. <사진 28>은 'ᄀᆞ는대구덕'에 '돌렝이'를 넣은 모습이다. 양명부 씨 역시 제사 집에 가거나 초상집에 조문을 갈 때 <사진 27>의 '돌렝이'에 빵떡이나 찐빵을 넣어 부조 대신 전했다고 한다. 또 쌀로 부조를 대신하기도 하는데, 부조하는 쌀의 양은 가까운 친척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방문하는 집이 아주 가까운 친척의 경우는 보리쌀이나 쌀을 넉 되, 그렇지 않으면 두 되를 넣었다고 한다. 팥을 부조하기도 했다. <사진 2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바구니 테두리에 실을 묶어 표시했다.

"옛날에 상 난 디 가젠 허믄 이레 영 떡 놩. 이거 떡돌랑지, 이거 막 비싼 거, 이거. 부주 어디 영장 난 디 가젠 허믄 여기 떡 싸근에 들렁 가는 거주. 이거 큰 거에 놩, ᄀᆞ는대구덕에 영 놩 저 베로 헤영 정 가는 거주. 이거 오십 년 전이. 비싼 거 막 곤 거 사신디 떡 허영 가정 가난 누게 확 바꽈 가불언. 곱지 안헌게, 이거. 게난 그 사름은 폐적 헌 거라."[21]

(옛날에 초상 난 데 가려고 하면 여기 이렇게 떡 넣어서. 이거 '떡돌랑지'. 이거 아주 비싼 거, 이거. 부조 어디 초상 난 데 가려고 하면 여기 떡 싸서 들고 가는 거지. 이거 큰 거에 놔서, 'ᄀᆞ는대구덕'에 이렇게 놔서 저 바로 해서 지고 가는 거지. 이거 오십 년 전에. 비싼 거. 아주 고운 거 샀는데 떡 해서 가지고 가니까 누가 확 바꾸어 가 버렸어. 곱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표시 한 거야.)



<사진 29> 홍춘화 씨 소장 '떡돌랑지'

<사진 29>는 대림리 홍춘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떡돌랑지'로, 가로 29cm, 세로 28cm, 높이 15cm 정도의 크기다. <사진 29>의 '떡돌랑지'는 원래 홍 씨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오십 년 전에 많은 돈을 주고 '떡돌랑지'를 구입했는데 그만 다른 사람이 바꿔 들고 가버렸다고 한다. '떡돌랑지'의 테두리에 묶인 실은 원

21)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래 주인이 묶어 놓은 '페적(표시)'이다. 홍 씨는 초상 난 곳을 방문할 때, 떡을 담은 '떡돌랑지'를 'ᄀᆞ는대구덕'에 넣어서 지고 갔다고 한다.

(4) 소쿠리

'소쿠리'는 대나 싸리로 엮어 만든 것으로 위가 트이게 둥근 테를 둘러 만든 그릇을 말한다. 음식의 뜨거운 증기를 빼거나, 물에 씻은 쌀이나 채소 등을 건질 때 사용하였다.

"저것덜은 엿날 떡덜도 헤영 막 삼메떡덜. 삼메떡 집이서덜 푸꽈근에 영장 때, 영장 때 막 떡덜헹 져근에 그레 이것에 막 담고 쏠도 씻어근에 이걸로 물 빠지웁고 그런 것덜 헤난 거."[22]

(저것들은 옛날 떡들도 해서 막 '삼메떡'들. '삼메떡' 집에서들 반죽하여 발효시켜서 초상났을 때, 초상났을 때 막 떡들 해서 져서, 거기에 이것에 마구 담고 쌀도 씻어서 이걸로 물 빼고 그런 것들 했던 거.)



<사진 30> 신창윤 씨 소장 '소쿠리'



<사진 31> '소쿠리'를 창고 안에 걸어 놓은 모습

<사진 30>은 월령리 신창윤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소쿠리'다. 잘 사용하지 않게 되자 창고 천정에 걸어 보관하고 있다. 초상집에 부조할 '삼메떡'을 찔 때뿐만 아니라, 쌀을 씻을 때도 썼다. '소쿠리'는 통기성이 좋아 뜨거운 것을 식히는데 유용하다. 물 빠짐 또한 좋아 씻은 식재료의 물기를 빼는데도 유용하다.

22)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2.2. 조리 도구

(1) 솟

'솟'은 밥을 짓거나 국 따위를 끓이는 데 쓰는 그릇을 말한다. '솟'을 만든 재료에 따라 쇠로 만든 것은 '쒜솟', '이모노'로 만든 것은 '이모노 솟',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은 '아르미 솟' 또는 '아레미 솟'으로 구별하여 불렀다. 각 가정에서는 보통 서너 개의 '솟'을 두고 만드는 음식의 양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사진 32> 강구리 양인희 씨 댁의 '솟'

<사진 32>는 강구리 양인희 씨 집 '정지', 즉 부엌에 놓여 있는 '솟'이다. '솟'은 보통 부엌을 의미하는 '정지' 또는 '정제' 안에 3~5개를 걸었다. 사진에서 보듯이 '솟'을 크기 순서로 배치하여 사용했다. '솟' 뒤의 벽면이 연기에 검게 그을려 있다. 재가 날리지 않도록 나무판자로 아궁이 입구를 막아두었다.

"(큰솟은) 장 담을 때 메주 숢을 때도 허고. 이제도 메주 숢을 때도 싯고, 안 숢을 때도 싯고. 올핸 안 헤연. 산 거. 올해는 콩 아이 갈아부난. 이거 나 사십에 산 거. 무사 이거 사신고 허민 옛날 제사 허젠 허민 온 동네 다 떡을 헹 멕이난 떡을 헹 소쿠리에 놩 강 멕이난 그런 거 허젠 허난 솟이 엇이난 이거 삿주게. 떡 밀가루로, 빵집이 가민 하얀 빵 싯잖아. 그거 곳사 저런 다라에 놩 막걸리 놩 막 쪙 놔두면 이만이 올라와. 경허민 ᄒᆞ꼼씩 끈치멍 멘들아근에 이 솟에 징 놔근에 쳥, 경헤여근에. (여기에 밥 국은 안 헤 봔?) 잔치 때 헷지. 큰뚤 풀 때랑 큰아덜 풀 때랑." [23]

((큰솥은) 장 담글 때 메주 삶을 때도 하고. 메주 삶을 때도 있고, 안 삶은 때도 있고. 올해는 안 했어. 산 거. 올해는 콩 재배 안 하니까. 이거 나 사십에 산 거. 왜 이거 샀느냐 하면 옛날 제사하려고 하면 온 동네 다 떡을 해서 먹이니까 떡을 해서 소쿠리에 놓고 가서 먹이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솥이 없으니까 이거 샀지. 떡 밀가루로, 빵집에 가면 하얀 빵 있잖아. 그거 아까 저런 대야에 놔서 막걸리 넣어서 막 쪄서 놔두면 이만큼 올라와. 그러면 조금씩 끊으면서 만들어서 이 솥에 겅그레 놔서 쪄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밥 국은 안 해 봤어?) 잔치 때 했지. 큰딸 시집보낼 때랑 큰아들 장가보낼 때랑.)

23)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작년이도 이것에 뭐 오갈피여 하간 거 놩 딸령 엿 헹 먹어난. 이거 메주도 숢곡 이거 도야지덜 잡앙 이런 것에 숢곡 경 허여낫주. 이거 큰솟으로 우린 큰솟, 큰솟만 헤여난. 이거 오랫어. 나광 ᄀᆞ치 늑는 솟이라. 나 시집완 산 거." [24]

(작년에도 이것에 뭐 오가피며 온갖 거 넣어서 달여서 엿 해서 먹었었어. 이거 메주도 삶고 이거 돼지들 잡아서 이런 것에 삶고 그렇게 했었지. 이거 큰솥으로 우린 큰솥, 큰솥만 했었어. 이거 오래됐어. 나와 같이 늙는 솥이야. 내가 시집와서 산 거.)



<사진 33> 양명부 씨 소장 '솟'



<사진 34> 고갑년 씨 소장 '솟'

<사진 33>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현재 쓰고 있는 '솟'으로, 메주콩을 삶을 때 쓰는 것이다. 양 씨가 마흔 살에 산 것으로 동네 제사에 부조로 가지고 갈 떡을 찔 때도 썼다. 또 식솔들이 많았던 과거에는 콩 다섯 말씩 삶아 장을 담가야 했기 때문에 '큰솟'이 필요했다고 한다. 장녀와 장남이 결혼할 때에는 집에서 잔치를 치렀는데 손님을 대접할 밥과 국을 하는 용도로도 사용했다. <사진 34>는 월림리 고갑년 씨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솟'이다. 고 씨를 이 '솟'을 '큰솟'이라 소개했다. 이 '큰솟'은 고 씨가 시집온 후에 장만한 것이다. 올해 구십 세인 고 씨는 사진의 '큰솟'을 칠십 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에는 이 '솟'에서 오가피 등 여러 가지를 달여 엿을 고았다고 한다. 또 메주를 삶거나, 돼지고기를 삶을 때도 사용하고 있다. 제보자들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거나, 오랜 시간 끓여 졸일 때 주로 큰 '쒜솟'을 사용하고 있다.

'쒜솟'은 단단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우 무겁다. 때문에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식기가 보급되자, 이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늘었다.

24)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시집완 보난) 아르미솟. 쒜솟은 엇어난."[25]
((시집와서 보니까) '아르미솟'. '쒜솟'은 없었어.)

"(큰 거는) 석 뒈쯤 들어가긴 헐 거라. (중간 거는) 두 뒈나. 족은 거는 반찬도 헹 먹곡 허난에 벨로, 저 한 뒈나. 밥허믄 한 뒈나. 우리 씨어머니 아프는 따문에 거기서 죽 끓영 먹고."[26]
((큰 거는) 석 되쯤 들어가기는 할 거야. (중간 거는) 두 되나. 족은 거는 반찬도 해서 먹고 하니까 별로, 저 한 되나. 밥하면 한 되나. 우리 시어머니 아팠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 끓여서 먹고.)

고기순 씨는 스물다섯 살에 시집왔을 때 시가에서 이미 '쒜솟'이 아닌 '아르미솟'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림읍 해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새로운 식생활 도구들이 빠르게 도입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진 35> 고년희 씨 소장 '아르미 솟'


<사진 36> 홍춘화 씨 소장 '양은 솟'

<사진 35>는 강구리 고년희 씨(194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아르미 솟'이다. <사진 35>의 '솟'은 아궁이에 올려놓기 적합하도록 '솟' 바닥이 둥글다. 불에 직접 닿았던 둥근 바닥은 검게 그을렸다. <사진 36>은 대림리 홍춘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양은 솟'이다. 가스레인지에 올려 사용했던 것으로 '솟' 아래 부분이 평평하다. 또 옮기기 편하도록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려 있다.

"이 솟은 고사리도 꺼꺼당 숢곡. 경 허고 빨래 같은 것도 때 안 간 거 숢으민 때 지고."[27]
(이 솥은 고사리도 꺾어다가 삶고. 그렇게 하고 빨래 같은 것도 때 안 간 거 삶으면 때 지고.)

25)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26)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27)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고구마 숢아 먹는 솟. 가스 안 헹 이디서 낭불에 숢아 먹어. 저거 (고구마) 메 논 거. 메 놧다근에 밧디다 심엉 가을 들어 가민, 콩 장만헐 때에 허여당 쪄 먹는 거주게. 고구마 저거 메 논 거주게. 음력으로 오월덜이면은 밧 갈아근에 그디 강 웨로 졸졸졸졸 싱것당 가을 들민, 흔 구월 나민 그거 파근에 쪄 먹는 거." [28]

(고구마 삶아 먹는 솥. 가스 안 하고 여기서 나무로 불을 때서 삶아 먹어. 저거 (고구마) 모종 놓은 거. 모종 놨다가 밭에다가 심어서 가을 들어 가면, 콩 장만할 때 해다가 쪄서 먹는 거지. 고구마 저거 모종 놓은 거지. 음력으로 오월이면 밭 갈아서 거기 가서 외로 졸졸졸졸 심었다가 가을 들면, 한 구월 되면 그거 파서 쪄 먹는 거.)

"그때 그때 ᄉᆞ만 원인가? 엿날에 콩 숢안, 메주콩. 된장 그런 거 헐 때. 경 허고 잔치 때영 뒈지고기 그런 거 큰일 때 숢곡 경 헷주기." [29]

(그때 사만 원인가? 옛날에 콩 삶았어, 메주콩. 된장 그런 거 할 때. 그리고 잔치 때랑 돼지고기 그런 거 큰일 때 삶고 그랬지.)



<사진 37> 양명부 씨 소장 '솟'



<사진 38> 양명부 씨 소장 '솟'



<사진 39> 강정자 씨 소장 '솟'



<사진 40> 현성매 씨 소장 '솟'

<사진 37>, <사진 38>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솟'이다. <사진

28)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29) 금악리 강정자 씨 구술.

37>은 고구마를 삶을 때 쓰고, <사진 38>의 '솟'은 고사리를 삶거나 빨래를 삶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사리, 빨랫감, 고구마 등 오래 삶아야 하거나 많은 양을 삶아야 할 때는 가스를 쓰지 않고 장작불을 때고 있다고 한다. <사진 37>을 보면 아궁이 안 종이상자에 나무 장작을 모아둔 것이 보인다. 고구마 모종을 심어 둔 양 씨는 이후에도 이 '솟'에 고구마를 삶을 것이라고 한다. <사진 39>는 금악리 강정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강 씨는 이 '솟'을 사만 원에 구입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강 씨는 이 '솟'을 장 담글 콩을 삶거나 집안 큰일을 치를 때 돼지고기를 삶는 용도로 썼다. '도루무깡'을 잘라 아궁이를 만든 후, 그 위에 '솟'을 올렸다. <사진 40>은 한수리 현성매 씨가 사용하던 '솟'이다. 지금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2) 시리

'시리'는 떡을 찔 때 쓰는 도구인 '시루'를 말한다. 제사나 명절 등 의례를 중시했던 과거에는 떡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다.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시리'를 구비해 두고 사용했다. 예전에는 기와를 만드는 검은 질흙으로 만든 '지세시리'를 주로 사용했다. '지세'는 '기와'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이후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보급되자 사용기 편한 새로 나온 '시리'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었다.

"그 전에 어무니 계실 때는 막 술 걸엉 놔두고 막 경 헤나신디. 이런 것도 술도 담고 했거든마씨."[30]
(그 전에 어머니 계실 때는 막 술 걸어서 놔두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도 술도 담고 했거든요.)


<사진 41> 정연희 씨 소장 '시리'


<사진 42> 강정자 씨 소장 '양은 시리'

<사진 41>은 대림리 정연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시리'다. 정연희 씨의 시어머니가 사

30) 대림리 정연희 씨 구술.

용하던 것으로, 질흙을 구워 만든 것이다. 한편 <사진 42>는 금악리 강정자 씨가 사용하던 '양은 시리'다. <사진 41>과 <사진 42>는 떡을 찌는 용도로 쓰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리'를 만든 재료가 다르다. <사진 42>에서 보는 것처럼 '시리'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를 '시릿고망'이라 한다. 이 '시릿고망'을 통해 뜨거운 열기가 음식에 전달되어 음식을 익힌다. 용도에 따라 '시리'의 크기가 달랐고, '시릿고망' 역시 '시리'마다 조금씩 달랐다. <사진 42>의 '시리'는 '시릿고망'이 여섯 개다.

(3) 우금

'우금'은 밥을 푸는 데 쓰는 '밥주걱'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밥우금', '밥죽', '오곰'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예전에는 주로 나무로 만들어 사용했다. 뜨거운 솥밥의 열기에 부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단단한 쇠나 놋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놋쇠로 만든 것을 따로 '놋우금', '놋오곰', '놋주걱', '놋밥자'로, '쒜'로 만든 것은 '쒜우금'으로 불렀다.

"시하르방, 구십삼 세에 돌아가신 시하르부지 거난. 이거 나가 간직허멍 이추룩 만들앙 놔뒁주게."[31]
(시할아버지, 구십삼 세에 돌아가신 시할아버지 거니까. 이거 내가 간직하면서 이처럼 만들어 놔뒀지.)

"시어멍 써난 거. 그거 준 거. 그때사 그걸로 밥 퍼낫주기. 처음에야 걸로 밥 거령 먹엇주. 이젠 필요 엇이난 ᄀᆞ만이 내불엇주."[32]
(시어머니 썼던 거. 그거 준 거. 그때야 그걸로 밥 펐었지. 처음에게 그걸로 밥 떠서 먹었지. 이젠 필요 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렸지.)


<사진 43> 장인자 씨 소장 '놋밥자'


<사진 44> 박영자 씨 소장 '우금'

31) 옹포리 장인자 씨 구술.
32)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사진 45> 정연희 씨 소장 '놋밥자'



<사진 46> 오진숙 씨 소장 '놋밥자'

<사진 43>은 옹포리 장인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우금'이다. 장인자 씨의 시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놋'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닦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검게 변색되는데 여전히 고운 빛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44>는 월림리 박영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우금'이다.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박 씨가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사진 45>는 대림리 정연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우금'으로 시어머니가 쓰던 것이다. <사진 46>은 한림리 오진숙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역시 물려받았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작은 크기의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이 아닌, 아궁이에 올려놓은 솥에서 밥을 지었다. 갓 지은 밥을 젓거나 그릇에 옮겨 담을 때 '우금'과 같이 긴 자루의 뜰 것이 필요했다. 현재는 숟가락정도 길이의 밥주걱이 '우금' 역할을 하고 있다.

(4) 남국자

'국자'는 국이나 국물을 뜨는 자루가 긴 도구를 말한다. 액체를 잘 담을 수 있도록 바닥이 옴폭하게 패어 있고, 국물을 떠내기에 편리하도록 수직으로 긴 자루가 달려 있다. '남국자'는 나무로 만들어진 국자를 말한다.

"남국자. (뭐 거려난?) 국게, 국. 물린 걸 거라. 씨어멍안테." [33]
(남국자. (뭐 떴었어?) 국이지, 국. 물려받은 걸 거야. 시어머니한테.)

33)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사진 47> 이옥여 씨 소장 '남국자'

<사진 47>은 한림리 이옥여 씨(193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남국자'다.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았다. 국을 뜰 때 사용했다고 한다. 국을 뜨는 머리 부분이 군데군데 뜯어져 있다. 뜨거운 국 등을 뜰 때 국자를 쥔 손이 뜨겁지 않도록 자루가 길다.

(5) 베수기

'베수기'는 죽 따위를 젓는 데 쓰는 것으로, 표준어의 '죽젓개'를 말한다. '베술기'라고도 하는데, 표선면이나 남원읍 등 제주의 동쪽 지역에서는 '남죽'이라고 부른다. '베수기'는 음식물을 잘 젓을 수 있도록 긴 막대기 형태이다.

"베수기도 싯저, 나무로 영 젓는 거. 것도 뭐 묵 쑬 때도 걸로 젓고. 쪼그만헌 거. 묵 쑬 때는 완전 좋아. (묵은) 일년에 혼두 번 쒓주. 정월멩질에. ᄆᆞ물ᄀᆞ를묵."[34]

(죽젓개도 있어. 나무로 이렇게 젓는 거. 그것도 뭐 묵 쑬 때도 그걸로 젓고. 작은 거. 묵 쑬 때는 완전 좋아. (묵은) 일 년에 한두 번 쑤었지. 정월명절에. 메밀가루묵.)



<사진 48> 박영자 씨 소장 '베수기'

<사진 48>은 월림리 박영자 씨(1930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베수기'다. 박 씨는 '베수기'를 묵을 쑬 때 사용했다고 한다.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차례 상에 올릴 메밀묵을 쑬 때 사용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뜨거운 음식을 잘 저을 수 있도록 갸름하고 긴 모양이다.

(6) 방에톡과 방엣귀

음식을 만들 때는 음식 재료를 썰기도 하지만 갈거나 빻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방에

34)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톡’은 쌀 등의 곡식을 빻을 때 사용하는 돌절구로, 표준어 ‘방아확’에 대응한다.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방에톡’, ‘방에혹’, ‘돌혹’이라고도 한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방에톡’은 보통 ‘남방아’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형태였으나 지금은 ‘방에톡’만 남아 돌절구로 쓰이고 있다.

“저 엿날에 무신 기구 엇이난 낭으로 만들앙 요거 영. 방에톡이엔 헤낫주. 나무로 헤여근에 이것에 벨걸 다 헤여. 기계덜이 엇으난 이걸로 그냥 막 서로 뿟앙덜 이걸로 밥덜 헹 먹어낫에게. 이젠 가운디 이 돌만 남앙. 바깟딜로 헌 거 방에, 남방에 허영 이건 가운디 허여근에 나무 영 영 찍는 걸로 헨덜 살앗주, 옛날. 이것이 췌고 좋아난 거.” [35]

(저 옛날에 무슨 기구 없으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요거 이렇게. ‘방에톡’이라고 했었지. 나무로 해서 이것에 별거를 다 해. 기계들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막 서로 빻아서 이걸로 밥들 해서 먹었었어. 이젠 가운데 이 돌만 남아서. 바깥으로 한 거 방아, ‘남방에’ 해서 이건 가운데 해서 나무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로 해서들 살았지, 옛날. 이것이 최고 좋았던 거.)

“이거 방에톡게. 이디 무시거 놔 영 뿟는 거. 이거 꿰도 놔 뿟곡게 이거 그 무시거 헐 때 마농 ᄀᆞ튼 것도 놔 뿟앙. 이젠 믹서기 그런 것덜 시난 헤도. 이걸로 주장 썻주기.” [36]

(이거 ‘방에톡’이야. 여기 뭐 놔서 이렇게 빻는 거. 이거 깨도 놔서 빻고 이거 그 뭐 할 때 마늘 같은 것도 놔서 빻아서. 이젠 믹서기 그런 것들 있으니까 해도. 이걸로 계속 썼었지.)



<사진 49> 홍관매 씨 소장 ‘방에톡’



<사진 50> 이옥여 씨 소장 ‘방에톡’

<사진 49>는 귀덕리 홍관매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음식 재료를 빻을 때 사진의 ‘방에톡’을 사용했다고 한다. ‘남방에’의 가운데 꽂아 사용하던 것이었으나 나무는 사라지고 ‘방에톡’만 남았다. 홍 씨가 열한 살 무렵까지는 ‘남방에’를 사용했으나, 이후 기계

35)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36)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가 생기자 '남방에'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사진 50>은 한림리 이옥여 씨가 소장하고 있는 '방에톡'이다. 이옥여 씨는 이것으로 깨, 마늘 등을 빻았다고 한다. 믹서기를 쓰기 전까지는 계속 사진의 '방에혹'을 썼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집밖에 보관하고 있는데 빗물이 고여 있다.

"옛날에 그는 거 엇이니까 것에. 또 저 짐치헐 때도 마늘 까 가지고 뿟앙도 허고. 꿰도 볶아서 뿟고 헤난 거." [37]

(옛날에 가는 거 없으니까 그것에. 또 저 김치할 때도 마늘 까 가지고 빻아서도 하고. 깨도 볶아서 빻고 했던 거.)

"우리 할머님, 어머님 쓰단 거. 나무 있는 건디 나문 다 썩어 버리고 저것만 남은 거. 소까이 전이만 허고 소까이 갓다 왕은 그런 거 잘 안 헷어." [38]

(우리 할머님, 어머님 쓰던 거. 나무 있는 건데 나무는 다 썩어 버리고 저것만 남은 거. 소개(疏開) 전에만 하고 소개 갔다 와서는 그런 거 잘 안 했어.)

"저거 뿟는 거게. 마늘 거튼 것도 뿟고. 저건 방에톡이 아니라. 저거는 그냥 만든 거. 방에톡은 요만허영 알 쪼라졍 방에에 쏙 들어가는 건디 저거는. 막 풀렌 헤도 안 풀안." [39]

(저거 빻는 거야. 마늘 같은 것도 빻고. 저건 방아확이 아니야. 저거는 그냥 만든 거. 방아확은 요만해서 아래 좁아서 방아에 쏙 들어가는 건데 저거는. 막 팔라고 해도 안 팔았어.)



<사진 51> 홍영하 씨 소장 '방에톡'



<사진 52> 박영자 씨 소장 '돌절구'

<사진 51>은 상명리 홍영하(1936년생) 씨 집 마당에 놓인 '방에톡'으로 홍 씨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쓰던 것이다. 원래는 '남방에' 가운데 끼워서 쓰는 것이었는데 나무는 썩

37)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38) 상명리 홍영하 씨 구술.
39)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고 '방에혹'만 남았다. <사진 52>는 월림리 박영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방에톡'이다. 박 씨는 마늘 따위를 빻을 때 쓰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이를 '방에톡'이 아닌 돌절구라고 말한다. '남방에'의 가운데 끼워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빻는 용도로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다. 다른 '방에톡'과 비교해 보면 박 씨의 '방에톡'은 전체적으로 높고 두툼하다.

"저거 감 뿟앙 감 뿟아근에 갈옷 들영 입어낫주게, 옛날 농사질 때." [40]
(저거 감 빻아서 감 빻아서 '갈옷' 들여서 입었었어. 옛날 농사지을 때.)

"어무니 쓰시던 거.".
(어머니 쓰시던 거.)


<사진 53> 강술생 씨 소장' 방에톡'


<사진 54> 정연희 씨 소장 '방에톡'

<사진 53>은 강구리 강술생 씨(194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방에톡'이다. 강 씨는 다른 제보자들과는 달리 풋감을 빻는 데 '방에톡'을 썼다고 한다. 풋감을 빻아 천에 감물을 들인 후 '갈옷'을 만들어 입었다. <사진 54>는 대림리 정연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방에톡'이다. 정 씨의 시어머니가 쓰던 것으로 현재는 돌 화분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방에톡'에 음식 재료를 넣고 이를 찧을 때는 '방엣귀'를 이용한다. '방엣귀'는 방아를 찧을 때 쓰는 길쭉한 방망이로 표준어로는 '방앗공이'라고 한다. 방아를 찧을 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하기도 하는데 방아를 찧을 때 두 사람이 찧는 것을 '두콜방에', 세 사람이 찧는 것은 '세콜방에', 네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것을 '네콜방에'라고 한다.

40) 강구리 강술생 씨 구술.

"(남방에) 봣주게. 그디 뼛아도 낫주게. 큰일 때에 이제 ᄀᆞ레 거치 ᄀᆞ는 거 엇일 때 쏠 ᄀᆞ튼 거 놩 밀, 쏠을 뼛앗지. ᄒᆞᆫ 세네 사름이 그 방엣귀로." [41]

((남방아) 봤지. 거기 빻기도 했었지. 큰일 때에 이제 맷돌처럼 가는 거 없을 때 쌀 같은 거 넣어서 밀, 쌀을 빻았지. 한 서너 사람이 그 방앗공이로.)

"만든 거. 그거 족은 것에 헐 거난 족게. (남방에 허는) 그거 막 이만큼. 경허민 ᄒᆞᆫ 네 사름썩 헤영 그 쏠을, 쌀을 물 커근에 뼛앙 걸로 떡을 멘들안. 네 사름이 ᄀᆞ치 찍언. 네 사름이 막 그거를 뼛는 거라. 경허민 못 허는 사름은 막 나무림 받고 잘못 허당은 탁 놈의 거 강 두드려 불고 경헷지. 경허난 그것을 탁 맞추왕. 네 사름이 네콜방에엔 헤영. 둘도 허곡 ᄒᆞᆫ자도 허곡 허는디 ᄋᆞ라이 허민 빨리 헤지주게." [42]

(만든 거. 그거 작은 거에서 할 거니까 작게. (남방아 하는) 그거 아주 이만큼. 그러면 한 네 사람씩 해서 그 쌀을, 쌀을 물 담가서 빻아서 그걸로 떡을 만들었어. 네 사람이 같이 찍었어. 네 사람이 마구 그것을 빻는 거야. 그러면 못 하는 사람은 마구 나무람을 받고 잘못하다가는 탁 남의 거 가서 두드려 버리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것을 딱 맞춰서. 네 사람이 '네콜방에'라고 하고. 둘도 하고 혼자도 하고 하는데 여럿이 하면 빨리 하지.)

"(세 사름이 허민) 세콜방에, 네 사람이 허민 네콜방에. 우린 경 ᄋᆞ라인 안 헤 봣어. 우리 경 안 헤 보고 이녁만이나, 혼자나 ᄒᆞ꼼 헤 보고 우리 시대에. 하여튼 우리 커 갈 때꺼지도 네 사름, 막 ᄋᆞ라이 허멍. 경 ᄀᆞ루 내우민 체로, 아까 저 집이서 헌 그 체로 치곡 또 우이 거는 또 뼛고 또 치고 그렇게 허면서 떡을 만들엇지." [43]

((세 사람이 하면) '세콜방에', 네 사람이 하면 '네콜방에'. 우리 그렇게 여럿이서는 안 해 봤어. 우리 그렇게 안 해 보고 자기만이나, 혼자나 조금 해 보고 우리 시대에. 하여튼 우리 커 갈 때까지도 네 사람, 아주 여럿이 하면서. 그렇게 가루 내면 체로, 아까 저 집에서 한 그 체로 치고 또 위의 거는 또 빻고 또 치고 그렇게 하면서 떡을 만들었지.)



<사진 55> 양인희 씨 소장 '방엣귀'



<사진 56> 박영자 씨 소장 '방엣귀'

41)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42)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43)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사진 55>는 강구리 양인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방엣귀'다. 실제 사이즈의 '방엣귀'로 절구의 바닥까지 잘 닿을 수 있도록 길다. <사진 56>은 월림리 박영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방엣귀'다. 사진의 '방엣귀'는 박 씨의 남편이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다. 실제 '방엣귀'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손에 쥐어 사용하기 편하게 짧다. '방엣귀'의 돌에 부딪혔던 머리 부분이 둥글게 뭉개져 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방아를 찧는 참석자 수에 따라, 두 사람은 '두콜방에', 세 사람은 '세콜방에', 네 사람은 '네콜방에'로 구분해 불렀다고 한다. 방아 찧는 것이 서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방엣귀'를 치기도 하여 나무람을 듣기 했다.

물에 담가 불린 쌀을 '방에혹'에서 곱게 빻은 후, 체에 걸러 굵은 것은 다시 빻는 등 떡을 만드는 것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곱게 가루로 빻은 후에야 비로소 떡 반죽을 빚을 수 있었다. 제사 때나 큰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떡을 제사상에 올리거나 부조로 떡을 돌렸던 과거에 '방에혹'과 '방엣귀'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다.

(7) 떡 트는 거

'떡 트는 거'는 떡의 모양을 뜰 때 사용하는 틀로, 떡 반죽을 눌러 찍어 내거나 도려내는 도구를 말한다.

"요거 떡 트는 거. 그걸로 떡 하나 떠근에 영 오그려근에, 이거 동글락허게 떠근에 동글락헌 디다 무시거 꿰나 팟이나 놔근에 영 오그리면은 삼메떡 뒈는 거. (그거 삼메떡? 만뒤 아니?) 흰쏠 ᄀᆞ루로도 뒈고 밀ᄀᆞ루로도 쪄근에 이걸로 뜨면은 그레 풋이나 꿰나 놓면은 영 접으면은 만두추룩 뒈근에."[44]

(이거 떡 뜨는 거. 그걸로 떡 하나 떠서 이렇게 오그려서, 이거 동그랗게 떠서 동그란 데에 뭐 깨나 팥이나 놔서 이렇게 오그리면 '삼메떡' 되는 거. (그거 '삼메떡'? 만두 아니?) 흰쌀 가루로도 되고 밀가루로도 쪄서 이걸로 뜨면은 거기에 팥이나 깨나 넣으면 이렇게 접으면은 만두처럼 돼서.)


<사진 57> 양명부 씨 소장 '떡 트는 거'


<사진 58> '떡 트는 거'의 안쪽

44)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사진 57>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떡을 만들 때 사용했던 도구다. 양 씨는 이것을 '떡 트는 거'로 소개했다. 양 씨는 반죽을 사진의 '떡 트는 거'로 찍어 눌러 모양을 뜬 후, 그 안에 깨나 팥을 담고 오므려서 떡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떡을 '삼메떡'이라고 했는데 떡 이름을 잘못 말한 듯하다. <사진 57>에서 보면 주전자 뚜껑을 '떡 트는 거'로 활용하고 있다. 두 개의 크기가 다른데 다른 떡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58> 왼쪽의 '떡 트는 거'를 뒤집어 안쪽을 찍은 것이다. 떡 반죽을 찍어 동그랗게 도려낼 수 있도록 오목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다.

2.3. 저장 도구

(1) 항

'항'은 '항아리'를 뜻하는 말로, 주둥이와 바닥 부분은 좁고 가운데 부분은 불룩한 질그릇이다. '항'은 식기가 많지 않았던 시절의 대표적인 저장 도구였다.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 불렀다. 물을 받아 두는 '항'은 '물항', 된장이나 간장 등의 장류를 보관하는 것은 '장항', 곡식류를 보관하는 것은 '쏠항'으로 구분하여 불렀다.

"항 세 개가 이신디 두 개는 나가 산 거고 나머지는 우리 어머니. 큰 거는 내가 산 거. 저거 어머니 거. 저 장 담앗지. 저 큰 거로 가득 장 담았어, 저거. 콩 너 말씩 담았는데, 거민 저걸로 가득해. 그거 해서 간장 빼고 메주 허고 뭐 헤도 그 간장만 먹고 살았어. 반찬이 없으니까." [45]

(항아리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내가 산 거고 나머지는 우리 어머니. 큰 거는 내가 산 거. 저거 어머니 거. 저 장 담았지. 저 큰 거로 가득 장 담았어, 저거. 콩 네 말씩 담았는데, 그러면 저걸로 가득해. 그거 해서 간장 빼고 메주 하고 뭐 해도 그 간장만 먹고 살았어. 반찬이 없으니까.)

"옛날 이거 장 담아난 항이랏어. 다 사 온 거. 이게 한 삼십 년, 사십 년 전에. 물린 거 아니, 내가 장 담을려고 샀어요. 내가 저게, 우리 아덜이 지금 쉰다섯이니까 젖 먹을 때 샀어요. 손잡이 있는 거 자리젓 담았던 거." [46]

(옛날 이거 장 담았던 항아리였어. 다 사 온 거. 이게 한 삼십 년, 사십 년 전에. 물려받은 거 아니, 내가 장 담으려고 샀어요. 내가 저게, 우리 아들이 지금 쉰다섯이니까 젖 먹을 때 샀어요. 손잡이 있는 거 '자리젓' 담았던 거.)

45) 명월리 김묘생 씨 구술.
46) 강구리 고년희 씨 구술.

"친정어멍신디 물린 거." [47]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사진 59> 김묘생 씨 소장 '항'


<사진 60> 고년희 씨 소장 '항'


<사진 61> 홍관매 씨 소장 '항'


<사진 62> 홍관매 씨 소장 '항'

<사진 59>는 명월리 김묘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항'이다. 모두 거꾸로 엎어 놓은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는 '항'인 듯하다. 김 씨의 구술에 따르면 <사진 59>에서 가장 큰 항과 가장 좌측의 '항'은 직접 장만한 것이고, 가장 오른쪽의 '항'은 시어머니가 쓰시던 '항'이라고 한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김 씨가 장만한 것과 시어머니가 쓰시던 '항' 색깔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김 씨가 장만한 검은색 '항'은 육지에서 제주로 들어온 것이고, 시어머니의 '항'은 제주에서 만든 것이다. 김 씨는 자신이 장만한 큰 항아리에 장을 담갔다. 콩 네 말 정도 장을 담그면 특별한 반찬이 없던 시절 주요 반찬이 되었다고 한다. <사진 60>은 강구리 고년희 씨의 집 마당에 놓여 있는 '항'들이다. 고 씨가 직접 장에 가서 장만한 것으로 장을 담아 두었던 '항'이다. 현재 쉰다섯 살인 아들이 젖먹이일 때 산 것으로 오십 년이 넘었다. 손잡이가 달린 '항'은 '자리젓'을 담았던 것이다. 고 씨 역시 사용

47)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하지 않는 '항'을 모두 엎어 보관하고 있다. <사진 61>과 <사진 62>는 귀덕리 홍관매 씨가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항'이다. 홍 씨도 '항'을 엎어 놓았다.

"큰 것들은 저기 내가 산 거고, 이런 건 물린 거. 여기 된장 작년에 거. 된장 담아 먹어요. 이거 된장, 고추장."[48]

(큰 것들은 저기 내가 산 거고, 이런 건 물려받은 거. 여기 된장 작년에 거. 된장 담아 먹어요. 이거 된장, 고추장.)

"ᄉᆞ삼 사건 땐게 다 깨져 불어도 느나 엇이게 ᄆᆞᆫ딱게 저 한림더레 피난 가멍. 나 아홉설 때에 ᄉᆞ삼사건 뒛지. 나 아홉 설 때 하르방은 열 설에. 그때 ᄆᆞᆫ 부서져 불엇지. 그루후제 나가 열아홉에 시집간 후제에 이거 산 거난."[49]

(4·3사건 때는 다 깨져 버려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저 한림으로 피난 가면서. 나 아홉 살에 4·3사건 됐지. 아홉 살 때. 할아버지(남편)은 열 살에. 그때 전부 부서져 버렸지. 그 후에 내가 열아홉에 시집간 후에 이거 산 거니까.)



<사진 63> 정연희 씨 소장 '항'들



<사진 64> 강정자 씨 소장 '항'

<사진 63>은 대림리 정연희 씨 댁의 마당 한 구석에 마련된 장독대의 '항'들이다. 검은색의 큰 '항'은 정연희 씨가 구매한 것이고, 앞에 놓인 작은 '항'은 시어머니가 쓰던 것을 물려받았다. 정 씨는 작년에 담근 된장을 현재도 먹고 있다고 한다. '항'을 덮어둔 '장테'가 강풍에 날리지 않도록 벽돌을 올려두었다. <사진 64>는 금악리 강정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항'이다. 4·3사건으로 선대가 쓰던 '항'이 모두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 '항'은 모두 직접 구입해 썼다고 한다.

48) 대림리 정연희 씨 구술.
49) 금악리 강정자 씨 구술.

"항 다 물린 거. 항 하낫주게. 저거 가져가단 남은 거 저디 잇주게. 항 만 원씩 헹 풀안. 항은게 장도 담곡 하간 거, 쏠도 놩 놔두고 그런 거주게. 짐치도 담곡 엿날에. 플라스틱 엇인 땐 그추룩 헷주게." [50]

(항아리 다 물려받은 거. 항아리 많았었지. 저거 가져가다 남은 거 저기 있거든. 항아리 만 원씩 해서 팔았어. 항아리는 장도 담고 온갖 거, 쌀도 넣어 두고 그런 거지. 김치도 담고 옛날에. 플라스틱 없을 땐 그렇게 했지.)

"뒌장 담앙 먹언. 그 옛날엔 뒌장이 반찬이주게. 무신 반찬 셔? 반찬 엇어. 뒌장이 그것이 양식이라. 게난 그거 담앗단, 이제 생각허민 잘도 좋아. 이젠 뒌장도 거려 오믄 양념 놓고, 마늘 놓고 꿰 놓고 참지름 놓고 막 먹음직이 무쳥 먹는디 옛날에 그런 것도 엇고. 저 그냥 항에 헤근에 간장 이신 디 강 거려당 그냥 찍엉 먹어." [51]

(된장 담가서 먹었어. 그 옛날엔 된장이 반찬이지. 무슨 반찬이 있어? 반찬 없어. 된장이 그것이 양식이야. 그러니까 그거 담갔다가, 이제 생각하면 정말 좋아. 이젠 된장도 떠 오면 양념 넣고, 마늘 넣고, 깨 넣고 참기름 넣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무쳐서 먹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고. 저 그냥 항아리에 해서 간장 있는데 가서 떠다가 그냥 찍어서 먹어.)

"옛날엔 혼 식구에 장 혼 말 담아낫어. 혼 식구에 혼 말. 다섯 식구믄 다섯 말. 우리 다섯 식구. 아덜 세 개, 아방허고 나허고 그자. 기준이 혼 사람이 혼 말. (다섯 말 담으민 항이 몇 개 셔야 뒈여?) 하나게, 큰 거 하나. (뒌장, 장물) 그거 혼디 담앗단 장물은 또 뚜로 항에 놔야 뒈주게. 거 거령 메주 찌고. 거 삼 개월만 이시믄 거려. 콩 시월, 십일월덜에 콩 숢앙 십이월덜, 저 새해 나기 전이 장 담아. 경헹 담아근에 혼 이월, 삼월에는 쪄. 쩡 놔둬. 처음 담을 땐 뒌장 항 하나, 또 갈르게 뒈믄 뒌장 항, 장물 항 두 개." [52]

(옛날에 한 식구에 장 한 말 담갔었어. 한 식구에 한 말. 다섯 식구면 다섯 말. 우리 다섯 식구. 아들 세 명, 아버지(남편)하고 나하고 그저. 기준이 한 사람이 한 말. (다섯 말 담그면 항아리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지, 큰 거 하나. (된장, 간장) 그거 같이 담았다가 간장은 또 따로 항아리에 놔야 되지. 그거 떠서 메주 찌고. 그거 저 삼 개월만 있으면 떠. 콩 시월, 십일월에 콩 삶아서 십이월, 저 새해 나기 전에 장 담가. 그렇게 담가서 한 이월, 삼월에는 쪄. 쪄서 놔둬. 처음 담을 땐 된장 항아리 하나, 또 가르게 되면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두 개."

"장 담아난 거죠, 간장 뒌장. 또 고팡에 놩 쏠도 담앗고예. 보리쏠도 담아나고 조도 담아나고. 물항도 잇고." [53]

(장 담갔던 거죠, 간장 된장. 또 고방에 놔서 쌀도 담았고요. 보리쌀도 담았었고 조도 담았었고. 물독도 있고.)

50)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51)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52)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53) 협재리 장순삼 씨 구술.



<사진 65> 홍춘화 씨 소장 '항'들



<사진 66> 장순삼 씨 소장 '항'들

<사진 65>는 대림리 홍춘화 씨 집 뒤편에 있는 장독대에 놓인 '항'으로 모두 물려받은 것이다. 과거에는 '항'이 더 많았었는데 플라스틱 등의 용기가 보급되면서 쓸모가 없어지자 대부분 팔고 남은 것이 <사진 65>의 '항'이다. 홍 씨는 콩 다섯 말을 담갔었다고 한다. 홍 씨 부부와 자식 셋, 다섯 가족의 먹거리를 꾸렸던 홍 씨는 한 사람이 대략 한 말을 소비하기 때문에 일 년 장으로 총 다섯 말이 적당했다고 한다. <사진 66>은 협재리 장순삼 씨 집 옥상에 보관하고 있는 '항'이다. 장 씨의 말에 따르면 '항'은 고방에 두어 쌀이나 보리, 조 등 곡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물을 담아두는 물독으로도 썼다고 한다.

과거에 '항'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 도구였다. 냉장고가 보편화되고 플라스틱 등 다양한 용기가 보급되면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보자들은 예전에 사용했던 '항'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다.

"산 거주게. 옛날은 간장도 저거 보라, 큰 항으로 저디 것도 간장 담아난 거. 옛날에 산 먹어 봐사게? 게나제나 일 년 먹을 걸 헤야지. 닷 말." [54]

(산 거지. 옛날은 간장도 저거 봐, 큰 항아리로 저기 것도 간장 담았던 거. 옛날에 사서 먹어 봤니? 그러나 저러나 일 년 먹을 걸 해야지. 다섯 말.)

54)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사진 67> 고옥생 씨 소장 '항'



<사진 68> 고옥생 씨 소장 '큰항'

<사진 67>과 <사진 68>은 월령리 고옥생 씨(1940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항'이다. 별다른 보관 용기가 없기에 집집마다 크기나 모양이 다른 여러 개의 '항'을 갖춰 놓고 생활하였다. <사진 67>의 '항'은 전부 고옥생 씨가 장만한 것으로 <사진 68>의 가장 큰 '항'에는 가족이 일 년 동안 먹을 장을 담갔다. 고 씨 역시 '항'을 이용하지 않게 되자 엎어 보관하고 있다.

"새로 나온 거. 한림서 새로 산 거. 장항은 비싸. 옛날 돈으로 오만 원. 오만 원이민 큰돈이라. 한림장에서 저거 상 지영 오랏주게. 태풍 불언 벌러져 부난 그때 장항이영 줘신디 태풍 불언에 저 문 씨러젼에, 옛날은 나무문덜 헹 둘앗주게. 이추룩헌 샤시문덜 안 허영. 경헤부난 그 나무문 태풍 부난 탁 털어젼에 그거 벌러져부난 저거 항 사단에 장 담앗주게. 저거 비싸, 저 항은." [55]

(새로 나온 거. 한림에서 새로 산 거. 장독은 비싸. 옛날 돈으로 오만 원. 오만 원이면 큰돈이야. 한림장에서 저거 사서 지고 왔지. 태풍 불어서 깨져 버리니까 그때 장독이랑 줬는데 태풍 불어서 저 문 쓰러져서, 옛날은 나무문들 해서 달았지. 이런 샤시문들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나무문 태풍 부니까 탁 털어져서 그거 깨져 버려서 저거 항아리 사다가 장 담갔지. 저거 비싸, 저 항아리는.)

"(물항에 허벅) 우리 다섯 개 더 들어가. 경헤도 물이 작아. 식구 많아 노니까. 매일 매일 물 길어 와야 뒈어. 나하고 씨누이 하나 잇이난 씨누이허고 나가 물 길어 완. 둘이 고치도 아니. 요디 바닷가에 물 쌀 때. 썰물에만 갓주. 강 길어 와야 뒈주게." [56]

((물독에 허벅) 우리 다섯 개 더 들어가. 그렇게 해도 물이 적어. 식구 많으니까. 매일 매일 물 길어 와야 돼. 나하고 시누이 하나 있으니까 시누이하고 내가 물 길어 왔어. 둘이 같이도 아니. 요기 바닷가 물 빠질 때. 썰물에만 갔지. 가서 길어 와야 되지.)

55)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56)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사진 69> 양명부 씨 소장 '항'



<사진 70> 고기순 씨 소장 '항'

<사진 69>는 월림리 양명부 씨가 보관하고 있는 '항'이다. 태풍에 문짝이 떨어지면서 전에 사용하던 '항'이 깨져 버리자 오만 원을 주고 새로 사 온 것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뒤집어 두었다. <사진 70>은 한수리 고기순 씨 집 뒤편 장독대의 '항'을 찍은 것이다. 식구가 많은 집에 시집을 간 고 씨는 시누이와 함께 번갈아 가며 물을 긷고 와서 '물항'을 채웠다. 그 '물항'은 허벅 다섯들이 '항'이었는데 가득 채워도 물이 늘 부족했다고 한다. <사진 70>에서 보는 것처럼 '항' 대부분 '큰항'으로 식솔이 많았던 살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 소금 논 거. 소곰 봔. 나 물린 거 없어. 저 사삼 사건 때에 다 이제 부수데경덜 내려가 부난 물린 거 하나토 없어. 산 거. 이 금악에 장시 엿날 뎅겨낫어. 거자 ᄉᆞ십 년 뒛지." [57]

(그거 소금 넣은 거. 소금 놨어. 나 물려받은 거 없어. 저 4·3 사건 때에 다 이제 부스러뜨리고 내려가 버리니까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어. 산 거. 이 금악에 장수 옛날 다녔었어. 거의 사십 년 됐지.)

"시어멍이 물려준 걸 거라, 그건." [58]

(시어머니가 물려준 걸 거야, 그건.)

"뭐 놀 거 엇이난 이젠 소곰, 소곰 놧주게. 엿날엔 안 헤난. 경 항에 놀 소금도 엇고. 돈 엇으민 사지 못허고, 요새엔 저 소곰 농협에서 하나씩 줘주게. 훈 포씩 주민 먹어지지 안 허난, 나 식구 엇이난 먹어지지 안허난 그디 놧당." [59]

(뭐 넣을 거 없으니까 이젠 소금, 소금 놨지. 옛날에는 안 했어. 그렇게 항에 놓을 소금도 없고. 돈 없으면 사지 못하고, 요새에는 저 소금 농협에서 하나씩 주거든. 한 포씩 주면 먹지 않으니까, 나 식구 없으니까 먹지 않으니까 거기 놨다가.)

57) 금악리 강정자 씨 구술.
58)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59)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사진 71> 강정자 씨 소장 '소금항'



<사진 72> 양명부 씨 소장 '소금항'



<사진 73> 장순삼 씨 소장 '소금항'



<사진 74> 홍춘화 씨 소장 '소금항'

<사진 71>은 금악리 강정자 씨(1940년생)가 소금을 보관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항'이다. 4·3 사건으로 인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항'이 없는 강 씨는 마을을 도는 항아리 장수에게 사진의 '항'을 구입했다. <사진 72>은 월림리 양명부 씨의 소금항이다. 양 씨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항'에 소금을 보관하고 있다. <사진 73>은 협재리 장순삼 씨, <사진 74>는 대림리 홍춘화 씨의 소금항이다.

홍춘화 씨의 설명처럼 다양한 용기가 보급된 오늘날에는 항아리의 쓸모가 크게 줄었다. '항'에 특별히 보관할 것이 없자 제보자들은 소금을 보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2) 망데기와 단지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한다. '망데기'는 주로 장

이나 김치, 또는 젓갈을 많이 담았을 때 보관하는 용기로 쓰였다. '단지'는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를 말한다. 보통 젓갈이나 장아찌 등을 담아 보관할 때 '단지'를 이용했다. 또 장독에 담아 둔 된장이나 간장을 뜨고 와서 부엌에 놓아두고 음식을 만들 때 이용하거나 양념장을 만들어 담아 두기도 했다.

"그런 거는 멜첫 같은 거, 식혜도 담앙 먹고."[60]
(그런 거는 '멜첫' 같은 거, 식혜도 담아서 먹고.)


<사진 75> 고옥생 씨 소장 '망데기'와 '단지'


<사진 76> 정연희 씨 소장 '망데기'와 '단지'

<사진 75>는 월령리 고옥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망데기'다. 고 씨는 사진의 '망데기'를 '멜첫' 뿐만 아니라, 식혜를 담는 용기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76>은 대림리 정연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망데기'와 '단지'를 찍은 것이다.

"고치장 담는 건 쩨끌락헌 거. 큰 항, 족은 항, 망데기도 싯고 족은 건 단지. 단지에도게, 단지에 고추장 거튼 거 헤끔. 거난 거 담암주게. 요만이헌 거에 멜첫 담고, 자리젓 담고. 멜첫 ᄒᆞᆫ 말이믄, ᄒᆞ꼼 ᄒᆞᆫ 뒈 놔근에 허민 오래 먹어. 자리젓은 두어 뒈, 두어 뒈만 담으믄."[61]
(고추장 담는 건 조그마한 거.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망데기'도 있고, 작은 건 단지. 단지에도, 단지에 고추장 같은 거 조금. 그러니까 그거 담지. 요만한 거에 '멜첫' 담고, '자리젓' 담고. '멜첫' 한 말이면, 조금 한 되 놔서 하면 오래 먹어. '자리젓'은 두어 되, 두어 되만 담그면.)

대림리 홍춘화 씨는 '항'을 크기 순서로 '큰항', '작은항', 그리고 '망데기', 마지막으로 '단지'를 설명하고 있다. '단지'는 고추장, '멜첫', '자리젓' 등을 담아 두는 용도로 사용했다.

60)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61)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단지 뭐 저 마농지 헐 때영게. 엿날이사 마농지도 담곡 그것에 무신 벨거 다 놔낫주." [62]
(단지 뭐 저 마늘장아찌 할 때랑. 옛날에야 마늘장아찌도 담고 그것에 뭐 별거 다 놨었지.)

"젓이 젤 좋아게. 멜첫, 자리젓 담앙 먹는 거주게." [63]
(젓이 제일 좋아. '멜첫', '자리젓' 담아서 먹는 거지.)

"멜첫 담아난 거. 이건 장만한 거. 촐레 담아난 거. 촐레 우리 지금 말로 허면 반찬, 젓갈." [64]
('멜첫' 담았던 거. 이건 장만한 거. '촐레' 담았던 거. '촐레'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반찬, 젓갈.)


<사진 77> 현경생 씨 소장 '단지'


<사진 78> 고옥생 씨 소장 '단지'


<사진 79> 장순삼 씨 소장 '멜첫 단지'


<사진 80> 장순삼 씨 소장 '촐레 단지'

<사진 77>은 귀덕리 현경생 씨(1938년생)가 사용했던 '단지'다. 현경생 씨는 사진의 '단지'에 '마농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담아 보관했다. <사진 78>은 월령리 고옥생 씨가 사용했던 것이다. 고 씨는 이 '단지'에 '멜첫'이나 '자리젓'을 담았다고 한다. <사

62) 귀덕리 현경생 씨 구술.
63)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64) 협재리 장순삼 씨 구술.

진 79>와 <사진 80>은 협재리 장순삼 씨가 사용했던 '단지'다. 장순삼 씨는 사진의 '단지'에 '촐레', 즉 젓갈 종류의 반찬을 담아 보관했다. 음식을 담는 용기로써의 쓰임이 없어진 '단지'는 현재 화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금에 절여 장기간 실온 보관이 가능한 '멜첫', '자리젓' 등이 주요 반찬이었다. 이를 '단지'에 보관한 후 조금씩 덜어내 먹으며 생활했다.

(3) 장테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음식을 버무리는 등의 요리를 할 때는 그릇으로, 물을 받아 그릇을 씻을 때 대야로 쓰기도 했다. 또 항아리를 덮는 뚜껑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장테, 이것이 장테주." [65]
(장태, 이것이 장태지.)



<사진 81> 홍춘화 씨 소장 '장테'



<사진 82> 고운중 씨 소장 '장테'

<사진 81>은 대림리 홍춘화 씨, <사진 82>는 옹포리 고운중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장테'다. 고운중 씨는 '장테'가 깨지자 시멘트로 붙인 후 '항' 뚜껑으로 쓰고 있다.

(4) 허벅

'허벅'은 아가리는 좁고 배는 불룩한 동이로, 물을 길어 나르거나 곡식 또는 술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쓰임에 따라, 물을 길어 나를 때 쓰는 것은 '물허벅', 술을 담아 나르거나 보관하는 것은 '술허벅', 죽을 나르는 것은 '죽허벅', 씨를 담아두면 '씨허벅'이

65)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라 구분하여 불렀다. '허벅'은 질흙으로 만들어 쓰다가 '양철허벅', '플라스틱허벅'도 보급되었다. 1960년대 후반 70년대 이후에는 각 가정에 수도가 보급되면서 물을 길러 나갈 필요가 없어지자 점차 그 쓰임이 줄었다.

"그거 금이 강 세멘도 헷어, 옛날 할망이."[66]
(그거 금이 가서 시멘트도 했어, 옛날 할머니가.)

"허벅 나도 지어 봔. 나가 진 거는 이렇게 부리가 넓은 것이 아니고 좁아이. 좁은 디 대베기. 부리가. 경허난 요거는 물 긷는 용도가 아니고 아마도 씨앗 같은 거를 저장헷던 거 같애. 씨앗 저장. 그렇게 허거나 아니면 귀중헌 꿰라든지. 저게 헐기는 헷지만 용도가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용도라."[67]
('허벅' 나도 져 봤어. 내가 진 거는 이렇게 부리가 넓은 것이 아니고 좁아. 좁은데 '대베기'. 부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물 긷는 용도가 아니고 아마도 씨앗 같은 것을 저장했던 거 같아. 씨앗 저장.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귀중한 깨라든지. 저게 헐기는 했지만 용도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용도야.)


<사진 83> 고옥자 씨 소장 '허벅'


<사진 84> 오진숙 씨 소장 '허벅'

<사진 83>은 귀덕리 고옥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허벅'으로, 고 씨의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았다. 주둥이 부분이 좁고 잘록하다. <사진 84>는 한림리 오진숙 씨(194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오 씨는 사진의 '허벅'이 씨앗 등을 보관하는 용도였던 듯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83>과 <사진 84>를 비교해 보면 '허벅' 주둥이의 모양이 다르다. <사진 83>은 주둥이가 좁은 반면 <사진 84>는 비교적 넓다. 물을 담고 지고 오는 동안 물을 흘리는 일 없도록 주둥이를 좁게 만드는 일반 '허벅'과 달리, <사진 84>의 '허벅'은 씨앗 등을 담

66) 한림리 오진숙 씨 구술.
67) 한림리 오진숙 씨 구술.

기 쉽게 주둥이가 넓다.

한편, '허벅'에 물을 긷고 그것을 나르려면 바구니가 필요했다. 바구니에 '허벅'을 넣고 바를 이용해서 바구니를 지고 날랐는데 그때 사용하는 대바구니를 '물구덕'이라고 불렀다.

"저 엿날에 바구니 없으난 하간 거 마당에 널언에 담안. 고사리도 영 허리에 찬 고사리도 꺼꺼나고. 물구덕 허젠 이거 사단 써지지 안허난 그냥 놔뒁주. 허벅 놩 정 뎅기젠 헤난 거. 나 스물셋에 완에 물 질레 저 정물 간에 물 질어당 비우멍 먹엇어."[68]

(저 옛날에 바구니 없으니까 온갖 거 마당에 널어서 담았어. 고사리도 이렇게 허리에 차서 고사리도 꺾었었고. 그거 '물구덕' 하려고 이거 사다가 쓰지 않게 되니까 그냥 놔뒀지. '허벅' 놓고 지고 다니려고 했던 거. 나 스물셋에 와서 물 길러 저 '정물' 가서 물 길어다가 비우면서 먹었어.)



<사진 85> 장화순 씨 소장 '구덕'

<사진 85>는 금악리 장화순 씨(1946년생)의 '구덕'이다. 장 씨가 '허벅'에 물을 길어 나를 때 '물구덕'으로 사용하려고 장만했던 것이다. 현재는 고사리 등 온갖 것을 넣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허벅 허여근에 물 져 오는 것도 대구덕으로 허여근에 이 물허벅 놔근에 졍 뎅기고. 물도 뭐 저 거시기 헌디, 이제 거트민 수도물이 난다만은 통 영 물통 파근에 물 긑른 물 져당 먹엇주. 그것이 허벅, 옛날 허벅. 주둥이 요만이허고 헌 거. 그거로 ᄒᆞ루에 멧 번씩. 어린 때는 쪼끄만헌 거, 요만인 헌 걸로 허여당. 건 것ᄀᆞ라 대베기. 대베기에 졍 오당 오꼿 무신거에, 잘못허민 오꼿 털어져근에 벌려져 불고. ᄯᅳ시 이제 지영 영 지는 것더레 놓당도 벌러지곡 헤낫주, 엿날은."[69]

(이제 '허벅' 해서 물 지고 오는 것도 대바구니로 해서 이 '물허벅'에 놔서 지고 다니고. 물도 뭐 저 거시기 한데. 이제 같으면 수돗물이 나지만은 통 이렇게 물통 파서 물 고인 물 져다가 먹었지. 그것이 '허벅', 옛날 '허벅'. 주둥이 요만하고 한 거. 그것으로 하루에 몇 번씩. 어렸을 때는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걸로 해다가. 그건 그거보고 '대베기'. '대베기'에 지고 오다가 그만 무엇에, 잘못하면 그만 떨어져서 깨져 버리고. 다시 이제 지고 이렇게 지는 것에 놓다가도 깨지고 했었지, 옛날은.)

68) 금악리 장화순 씨 구술.
69)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한편, 신창윤 씨의 구술에 따르면 '물허벅'을 대구덕에 담아 하루 몇 번을 왕복하여 물을 길어 왔다고 한다. 지금은 수도 시설 덕분에 손쉽게 물을 쓰고 마시지만, 당시는 물을 직접 길어 와야 했다. 물이 귀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손까지 빌어 물을 길었는데, 체구가 작은 아이들이 물 긷는 용기는 따로 있었다. 이것을 '대베기'라고 불렀다. 어른들이 쓰는 '허벅'에 비해 조금 작았다.

"우리 어렸을 적 여자덜 물 질어난 거. 저거 두 병들이 병." [70]
(우리 어렸을 적 여자들 물 길었던 거. 저거 두 병들이 병.)


<사진 86> 홍영하 씨 소장 '두 병들이 병'

<사진 86>은 상명리 홍영하 씨(1936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두 병들이 병'이다. 홍 씨는 이것을 물을 긷는 용도로 썼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어린아이들의 손까지 빌어 물을 융통하는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추니

'추니'는 술 따위를 담는 항아리로, 표준어 '준(樽)'에 대응하는 말이다. 가운데는 둥그스름하여 위와 아래는 점점 가늘어지는데 위 아가리는 아주 좁고 밑은 평평한 모양이다. 예전에는 잔치 등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직접 '고소리술'을 고았는데 술을 증류하는 것을 제주에서는 '술 다끄다'라고 했다. '고소리'는 표준어 '소줏고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소주를 내리는 데 쓰는 재래식 증류기를 가리킨다. 질흙으로 구워 위아래를 겹쳐 하나의 통으로 만든다. 제주에서는 이 '고소리'로 만든 술을 '고소리술'이라 부르는데 이는 발효된 '오메기술' 등을 솥에 넣어 끓이면 솥 위에 올려진 '고소리'를 통해 증류된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술을 '고소리술'이라 하고, 이를 보관하는 그릇을 '추니'라고 했다. 이러한 '추니'에는 술뿐만 아니라, 간장 등을 보관하는 용기로 쓰기도 했다.

70) 상명리 홍영하 씨 구술.

"건 엿날 술덜 뭐 헹 따끄지 못허게, 그냥 솔쩨기덜 허영 먹단에, 법에서 이제 조사헤연 걸어져 가난 이젠 공장에서 허영 저거 추니로 사다근에 이 장시허는 사람은 저걸로 헤다근에 병에덜 ᄒᆞ꼼썩 지르멍 물 탕덜 헤낫주게. 저거 술이 저거 원료로 들어와낫주게. 이제 경허고 집안에서, 엿날은 무사 것고 허믄 술덜 허멍 이젠 어려운 때난 이녁 곡식으로 허영 먹곡 경허단 이젠 저것에 법으로 막 걸령 집으로 돌아다니멍 그런 거 허영 조사허영 ᄉᆞ뭇. 막안게, 법에서. 경허난 저거 이제 허가 맡은 공장으로 허연 술을 이제 허난 우리 장사허는 사름은 이제 추니, 저거 추니렌 허주게. 저 속에 술 허여 오민게 우린 ᄒᆞ꼼 어린 때고 허난에 술덜 그 원료난 ᄒᆞ꼼 병에 놘 탄덜 풀아낫주." [71]

(그건 옛날 술들 뭐 해서 만들지 못하게, 그냥 조용히 해서 먹다가, 법에서 이제 조사해서 걸려 가니까 이젠 공장에서 해서 저거 '추니'로 사다가 이 장사하는 사람은 저걸로 해다가 병에들 조금씩 길면서 물을 타서 했었지. 저거 술이 저거 원료로 들어왔었지. 이제 그렇고 집안에서, 옛날은 왜 그러냐 하면 술들 하면서 이젠 어려운 때니까 자기 곡식으로 해서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젠 저것에 법으로 마구 걸려서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해서 조사해서 사뭇. 막았지, 법에서. 그러니까 저거 이제 허가 받은 공장으로 해서 술을 이제 하니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은 이제 '추니', 저거 '추니'라고 하지. 저 속에 술 해서 오면 우리 조금 어릴 때고 하니까 술들 그 원료니까 조금 병에 놔서 타서 팔았었지.)

"공장에서 주문허믄 이레, 우리 상점 허는 더레 가져다 줘. 저것이 원료, 들어오면은 우린 이제 꿰로 ᄒᆞ꼼썩 그걸 이제 타근에 ᄒᆞᆫ 잔씩 줘낫주게. 저런 것에 가져오면은, 추니에 가져오면 ᄒᆞ꼼썩 병에 허연 풀안. 항 닮은 것덜이라도 저런 술 허는 건 추니엔 헌 건 저건 틀린 거주게. 그것이 저 알콜 들어가난 항에서는 막 부꺼근에 안 뒈여. 저건 원체 막 좋은 항아리주게." [72]

(공장에서 주문하면 여기, 우리 상점 하는 데로 가져다 줘. 저것이 원료, 들어오면 우린 이제 꾀로 조금씩 그걸 이제 타서 한 잔씩 줬었지. 저런 것에 가져오면, '추니'에 가져오면 조금씩 병에 해서 팔았어. 항아리 닮은 것들이라도 저런 술 하는 건 '추니'라고 하는 건 저건 다른 거지. 그것이 저 알콜 들어가니까 항아리에서는 마구 부풀어 올라서 안 돼. 저건 원체 아주 좋은 항아리지.)

"옛날에 거 장물 ᄀᆞ튼 것도 거령 놧당 먹곡 헷주." [73]

(옛날에 그거 간장 같은 것도 떠 놨다가 먹고 했지.)

71)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72)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73)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사진 87> 홍관매 씨 소장 '추니'



<사진 88> 박영자 씨 소장 '추니'

<사진 87>은 귀덕리 홍관매 씨가 보관하고 있는 '추니'다. 과거 상점을 운영했던 홍 씨가 공장에서 주조한 술을 판매할 때 '추니'에 술 원료를 받아 왔었다. 허가받은 곳에서만 술을 제조할 수 있게 되자 홍 씨는 <사진 87>의 '추니'에 받아온 술 원료에 물을 섞은 후, 병에 담아 팔거나 한 잔씩 판매했다. 일반 항아리 술을 담으면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며 넘치는데 '추니'에 담은 술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88>은 월림리 박영자 씨의 '추니'다. 박 씨는 이것에 술이 아닌, 간장을 담갔다.

2.4. 제기

'제기'는 제례에 사용하는 그릇을 총칭한다. 각 가정에서는 제기는 따로 보관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식기류와 구분하여 썼다. 제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반 그릇에 음식을 담아 제사상을 차리기도 했다.

(1) 놋그릇

'놋그릇'은 놋으로 만든 그릇이다. 놋밥사발, 놋국사발, 놋잔, 놋접시, 놋수저 등 다양한 제품을 놋으로 만든다.

"제사사 허주기. 옛날엔게 사기 사발에 거려놧주게. 부젯집덜은 스뎅이여 아니 스뎅이 아니고 거 노랑헌 거. 놋그릇에 허곡 경 안헌 사름은 사기 사발에 그냥. (놋그릇은) 잘사는 사름이주." [74]

74) 한림리 고연옥 씨 구술.

(제사야 하지. 옛날에는 사기 사발에 떠 놨어. 부잣집들은 스테인리스나 아니 스테인리스 아니고 저 노란 거. 놋그릇에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기 사발에 그냥. (놋그릇은) 잘사는 사람이지.)



<사진 89> 문영춘 씨 소장 '놋그릇'



<사진 90> 문영춘 씨 소장 '놋그릇'

<사진 89>와 <사진 90>은 동명리 문영춘 씨(1953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놋그릇'이다. <사진 89>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놋밥사발', 오른쪽은 '놋국사발'이다. <사진 90>은 여러 벌의 '놋밥사발'과 '놋국사발'로 문 씨는 이를 '뒤주'에 보관하고 있었다. 놋이 산패되어 군데군데 검게 변색되었다. 한림리 고연옥 씨에 따르면 '놋그릇'은 잘 사는 사람들이 쓰는 그릇이었다고 한다.

한편, 동명리 문영춘 씨는 놋으로 된 '반상기'도 보관하고 있었다. '반상기'는 격식을 갖추어 밥상 하나를 차리도록 만든 한 벌의 그릇을 말한다. 쟁첩의 수에 따라 3첩, 5첩, 7첩, 9첩 등으로 구별한다. '반상기'는 전통적인 혼수 예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거 엿날 반상기덜 이거. 이거 영 허영 상 출령. 새각시 새서방 오랑 허민 이거 이런 거 문딱 밥헹 올리주게. 이거 영 헤영 상에, 상에. 이건 간장 종지. 이거 영 헤영 이거 반찬, 거기다가 이제 무시거 놔. 반상기는 잔치 때 새각시, 새서방 잔치 때 출려 줘난 거. 저거 엿날 우리 시아버지가 저 놋그릇 장서헌디, (시집) 완 보난 신디 만딱 서른 멧 개 엇언. 경헤부난 저추룩 놘." [75]

(이거 옛날 반상기들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상 차려. 새신부 새신랑 오면 이거 이런 거 전부 밥해서 올리지. 이거 이렇게 해서 상에, 상에. 이건 간장 종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반찬, 거기다가 이제 뭐 놔. 반상기는 잔치 때 새신부, 새신랑 잔치 때 차려 줬던 거. 저거 옛날 우리 시아버지가 저 놋그릇 장사했는데, (시집) 와서 보니까 있는데 모두 서른 몇 개 없었어. 그러니까 저렇게 놨어.)

75) 동명리 문영춘 씨 구술.

"차판, 술 차판. 술 노는 거. 술 노는 차판." [76]
(쟁반, 술 쟁반, 술 놓는 거. 술 놓는 쟁반.)



<사진 91> 문영춘 씨 소장 '반상기'



<사진 92> 문영춘 씨 소장 '반상기'의 '술 놓는 차판'

<사진 91>은 동명리 문영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반상기'다. 놋그릇 장사를 하던 시아버지 것을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더 많은 구성품이 있었는데 대부분 잃어버리고 지금의 것만 남았다. 결혼 등의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쓰였던 '반상기'에는 그릇마다 뚜껑이 있다. <사진 92>의 '반상기'에 내어가는 숭늉이나 차를 내어가는 '차판'이다. 문영춘 씨는 이를 '술 놓는 차판'으로 소개했다.

(2) 놋숟가락

'놋숟가락'은 놋으로 만들어진 숟가락으로 밥이나 국물 등을 떠먹을 때 사용한다. 보통 제기인 경우는 제사나 명절에만 꺼내어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놋숟가락의 경우는 평상시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거는 더 오랜, 이거는 멧 년 뒈신고 허민 백, 이거 손으로 만든 거야. (손으로 만든 거 어떵 알아집니까?) 경 골아라. 이거는 이것보다 말쩨 나온 거. 이거 세 개가 나 쓰고 우리 메누리덜 다 세 개씩 줜. 겐디 이거는 보물이라부난 못 줜. 이거는 손으로 헷덴 헌 거고, 이디 거멍헨에, 이거는 그게 엇더라고. 다 물린 거. 이거는 백 년이 넘은 거고 이건 백 년 안쪽에 거고." [77]

(이거는 더 오랜, 이거는 몇 년 됐느냐 하면 백, 이거 손으로 만든 거야. (손으로 만든 거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는 이것보다 나중에 나온 거. 이거 세 개가 내가 쓰고, 우리 며느리들 다 세 개씩 줬어. 그런데 이거는 보물이라서 못 줬어. 이것은 손으로 했다고 하는 거고, 여기 까매서, 이거는 그게 없더라고. 다 물려받은 거. 이거는 백 년이 넘은 거고 이건 백 년 안쪽의 거고.)

76) 동명리 문영춘 씨 구술.
77) 옹포리 장인자 씨 구술.



<사진 93> 장인자 씨 소장 '놋숟가락'



<사진 94> 신태상 씨 소장 '놋숟가락'

<사진 93>은 옹포리 장인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숟가락'으로 모두 물려받은 것이다. 장 씨의 설명으로는 <사진 93>의 왼쪽에 놓인 '놋숟가락'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백 년이 넘는다고 한다. 자세히 보면 수저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산패되는 놋의 특성상 더 오래된 사진의 왼쪽 숟가락이 더 검게 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에 놓여 있는 것은 아직 백 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며느리들에게 물려주고 남은 것을 장 씨가 보관하고 있다. <사진 94>는 대림리 신태상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숟가락'으로 어머니가 쓰던 것을 물려받은 후 보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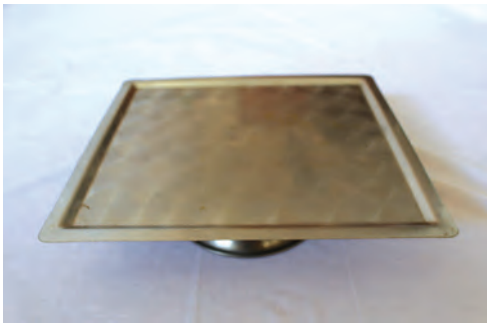
(3) 정반

'정반'은 넓고 큰 그릇으로, 표준어의 '쟁반'을 말한다. 표준어에서 '쟁반'은 그릇을 받쳐 들고 갈 때 쓰는 운반용 그릇을 가리키는데, 제보자들은 제사상을 차릴 때 제사 음식을 괴어 올리는 그릇을 가리켜 '정반'이라고 불렀다.

"다 이거 정반이주. 문딱 정반, 이거. (넓은 건) 이건 침떡 두 빗. 요건 혼 빗. 영 올리주게. 큰 상에는이 할머니 하르부지 두 빗. 요건 문전, 문전에." [78]

(다 이건 쟁반이지. 전부 쟁반, 이거. (넓은 건) 이건 시루떡 두 줄. 요건 한 줄. 이렇게 올리거든. 큰 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줄. 요건 '문전', '문전'에.)

78)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사진 95> 정일봉 씨 소장 '정반'



<사진 96> 정일봉 씨 소장 '정반'

<사진 95>과 <사진 96>은 옹포리 정일봉 씨(1939년생)가 지금도 제사에 쓰고 있는 '정반'이다. <사진 95>의 '정반'은 시루떡 두 줄을 괴어 올릴 때 쓴다. <사진 96>의 '정반'은 앞서 제시한 것보다 조금 작은데 이것에는 시루떡 한 줄을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문전제'에 쓰는 '정반'이다.

"요건 지숙 올리는 거, 제숙. 적갈이, 적갈도 올리고 생성도 올리고. 세 가지 하믄 세 가지 올리고. 포적 올리고. (포적은) 저 묵ᄀᆞ치 헤영 꿰엉 두부 사다 꿰엉 썰엉 이추룩 넓게 헤영 적꼬지 똑 너 개썩 꿰어, 넉 점씩. 포적. 엿날은 저 밀ᄏᆞ룰하고 ᄆᆞ믈ᄏᆞ룰 지정 영 썰엉. 그거 허주만은 이제는 두부 사당 허주기. 이젠 허는 딘 엇나, 포적. 묵적 아니. 묵적은 아니여. 이것에 제사 때는 포적으로 올라가는 거." [79]

(이것은 '제숙' 올리는 거, '제숙'. 적, 적도 올리고 생선도 올리고. 세 가지 하면 세 가지 올리고. '포적' 올리고. ('포적'은) 적, 묵같이 해서 꿰어서 두부 사다가 꿰어서 썰어서 이처럼 넓게 해서 적꼬치 꼭 네 개씩 꿰어, 넉 점씩. '포적'. 옛날은 저 밀가루하고 메밀가루를 지져서 이렇게 썰어서. 그거 했지만 이제는 두부 사다가 하지. 이제는 하는 데 없어, '포적'. '묵적' 아니. '묵적'은 아니야. 이것에 제사 때는 '포적'으로 올라가는 거.)



<사진 97> 정일봉 씨 소장 '정반'



<사진 98> 정일봉 씨 소장 '정반'

79)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사진 97>과 <사진 98>은 모두 옹포리 정일봉 씨가 쓰고 있는 '정반'이다. 형태가 비슷하지만 쓰임에는 구분이 있다. <사진 97>은 '적'을 올릴 때 쓰는 것이다. 다양하게 준비한 '적'을 여러 층 괴어 올릴 수 있도록 넓다. <사진 98>의 '정반'에는 과일을 올린다. 사과나 배 등 둥근 모양의 과일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정반' 가운데가 오목하다.

제사상에 음식을 올릴 때는 '정반'뿐만 아니라 '접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건 적갈, 적갈 올리는 거." [80]
(이건 적, 적 올리는 거.)



<사진 99> 정일봉 씨 소장 '접시'



<사진 100> 양인희 씨 소장 '접시'

<사진 99>는 옹포리 정일봉 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접시'로 여기에 적을 올린다. <사진 100>은 강구리 양인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접시'다.

(4) 술잔과 잔대

'술잔'은 술을 따라서 제사상에 올리는 데 쓰는 잔이고, '잔대'는 술잔을 받치는 접시 모양의 그릇을 말한다.

"이거 제사에 술잔 올리는 거. 우린 이걸로." [81]
(이거 제사에 술잔 올리는 거. 우린 이걸로.)

80)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81) 옹포리 장인자 씨 구술.



<사진 101> 장인자 씨 소장 '술잔'과 '술잔대'

<사진 101>은 옹포리 장인자 씨가 현재 제사에 사용하고 있는 '술잔'과 '술잔대'다. '종지'처럼 보이지만 장 씨는 이것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술잔'과 '술잔대'라고 소개했다.

"요건 술잔이고 이건 술대지, 대. 술잔대가 맞주기."[82]
(요건 술잔이고 이건 술대지, 대. 술잔대가 맞지.)



<사진 102> 정일봉 씨 소장 '술잔'과 '술잔대'



<사진 103> 양인희 씨 소장 '술잔'과 '술잔대'

<사진 102>는 옹포리 정일봉 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앞서 소개한 사기 '술잔'과 달리 스테인리스 제품이다. 강구리 양인희 씨의 '술잔'과 '술잔대'인 <사진 103> 역시 스테인리스 제품이다.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제기가 보급되자, 사기나 나무로 만든 제품들은 점차 사라지고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대체되어 갔다.

(5) 상합과 촛대

'상합'은 제사를 지낼 때 피우는 향을 넣어 보관하는 함으로 표준어의 '향합'을 말한다. '촛대'는 제사를 지낼 때 초를 꽂아 불을 밝힐 수 있게 만든 도구다.

82)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사진 104> 양인희 씨 소장 '상합'



<사진 105> 양인희 씨 소장 '촛대'

<사진 104>는 강구리 양인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상합'과 '촛대'다. '상합' 안에는 제사 지낼 때 피우는 향나무 가지 조각이 보관되어 있다. <사진 105>는 제사 때 쓰는 '촛대'로, 오른쪽에 놓인 촛대는 초를 꽂는 부분이 검게 그을려 있고 녹아내린 촛농이 보인다.

2.5. 기타 도구

(1) 뒈왁세기

'뒈왁세기'는 쌀이나 보리 등의 곡식을 뜨는 도구로 '식되'를 말한다. 독 안에 넣어 두고 사용한다.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뒛박', '뒈약세기'라고 칭하기도 한다.

"밥헐 때 걸로 쏠 거려 놩 밥허는 거."[83]
(밥할 때 그거로 쌀 떠 놓고 밥하는 거.)

"이거 막 오래뒌 거. 시어멍이 이거 하나 물려 줜. 이것에 쏠, 혼 뒈 허민 얼마 그 솟에 맞게 두 뒈민 두 뒈 이걸로 마련헨 먹엇주게. 그거에 우리도 이제 밥 먹을 때 이거 하나 노민 혼 사흘 먹어진다."[84]
(이거 막 오래된 거. 시어머니가 이거 하나 물려 줬어. 이것에 쌀, 한 되 하면 얼마 그 솥에 맞게 두 되면 두 되 이걸로 마련해서 먹었거든. 그거에 우리도 이제 밥 먹을 때 이거 하나 넣으면 한 사흘 먹을 수 있어.)

83)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84)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시어머니안테 물린 건데, 이거 쌀 뒛박. 이게 밥 지을 때 지금은 뭐로 이렇게, 뭘로 떠 먹지만 이걸로 이렇게 보리쌀도 떠 놓고 좁쌀도 떠 놓고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쓰다, 나안티 이거 어머니 살림을 내가 고스란히 물려받앗거든. 건데 없어, 요거밖에. 이거 우리 어머니 쓰단 거." [85]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건데, 이거 쌀 됫박. 이게 밥 지을 때 지금은 뭐로 이렇게, 뭘로 떠서 먹지만 이걸로 이렇게 보리쌀도 떠 놓고 좁쌀도 떠 놓고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쓰다, 나한테 이거 어머니 살림을 내가 고스란히 물려받았거든. 그런데 없어, 요거밖에. 이거 우리 어머니 쓰단 거.)



<사진 106> 양명부 씨 소장 '쏠 거령 밥 허는 거'



<사진 107> 홍관매 씨 소장 '뒈왁세기'

<사진 106>은 월림리 양명부 씨, <사진 107>은 귀덕리 홍관매 씨가 사용하고 있는 '뒈왁세기'다. 양명부 씨는 사진의 '뒈왁세기'를 '쏠 거령 밥 허는 거'로 설명했다. <사진 107>의 '뒈왁세기'는 홍 씨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것이다. 화재로 시가가 모두 불타 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사진의 '뒈왁세기'라고 한다.



<사진 108> 장인자 씨 소장 '뒈왁세기'



<사진 109> 김묘생 씨 소장 '뒛박'

85) 명월리 김묘생 씨 구술.

<사진 108>은 옹포리 장인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뒈왁세기'다. 손에 쥐는 부분은 일직선으로 깎은 반면 쌀을 퍼 담는 부분은 둥글게 깎았다. <사진 109>는 명월리 김묘생 씨가 사용하고 있는 '뒛박'이다. 김묘생 씨는 '뒈왁세기'를 '뒛박'이라 불렀다. 사진의 '뒛박'은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 오랜 시간 사용한 탓에 쌀을 긁어 퍼내는 부분이 닳았다.

(2) 클락박세기

'클락박세기'는 박을 반으로 쪼개서 만든 '바가지'를 말한다. 쓰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적당한 크기의 박을 골라 쪼갠 후 잘 건조시켜 만들었다. 물을 뜰 때 사용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퍼 올리는 그릇으로도 사용한다. 지역이나 사용자에 따라 '큭박세기' 또는 '박세기' 등으로 부른다.



<사진 110> 고기순 씨 소장 '클락박세기'

<사진 110>은 한수리 고기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클락박세기'다. 박을 쪼게 씨를 파낸 후, 건조하여 무엇을 뜨거나 담는 그릇으로 이용했다. 별다른 가공 없이 자연물을 그대로 생활에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도구다.

(3) 상

'상'은 밥, 국, 반찬 등 음식을 차려 낼 때 사용하는 '밥상'을 말한다. 과거에 '상'은 보통 나무로 만들었지만, 근래에는 보관과 관리가 용이한 스테인리스 상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네모난 거. 나무로 만든 거. (밥상에) 밥 낭푼이, 국 거린 국사발. 막상 헷자 김치. 여긴 바다에 다니난 고기반찬이나 혼 땐 고기반찬 생선 ᄀᆞ뜬 거."[86]

(네모난 거. 나무로 만든 거. (밥상에) 밥 양푼. 국 뜬 국사발. 막상 하더라도 김치. 여긴 바다에 다니니까 고기반찬이나 했을 때는 고기반찬 생선 같은 거.)

86)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사진 111> 고기순 씨 소장 '밥상'



<사진 112> 양인희 씨 소장 '밥상'

<사진 111>은 한수리 고기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밥상이다. 고기순 씨는 젊었을 때 네모난 상을 사용했다고 한다. '상' 한가운데에 밥을 뜬 '낭푼'을 놓고 각자의 국사발을 두었다. 반찬으로는 김치가 전부였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생선 반찬도 올랐다고 한다. <사진 112>은 강구리 양인희 씨가 소장하고 있는 양은 밥상이다. 가볍고 상다리를 접어 보관할 수 있어 나무로 만든 상을 대신하여 많이 이용되었다.

(4) 차판

'차판'은 음식을 담은 그릇을 위에 올려놓고 이를 운반하는 도구다. 표준어 '쟁반'에 대응하는 말이다. 크기별로 여러 종류의 쟁반이 있는데, 작은 것은 접시 대신 음식을 놓는 그릇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사진 113> 양인희 씨 소장 '차판'



<사진 114> 강명순 씨 소장 '차판'

<사진 113>은 강구리 양인희 씨, <사진 114>은 협재리 강명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차판'이다. 음식을 담은 그릇을 올려놓고 이동해야 하는 만큼 양은과 같은 가벼운 소재

로 '차판'을 만든다. 가벼운 만큼 단단하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테두리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다라

'다라'는 물을 담아 무엇을 씻을 때 쓰는 둥그렇고 주둥이가 넓은 그릇이다. 이는 '대야'의 일본어식 표현인 '다라이(タライ)'에서 온 말이다. 과거에는 '남도고리'나 <사진 81>과 <사진 82>처럼 양푼 모양의 질그릇 '장테'를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기를 씻는 데 사용했다. 이후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양은'으로 만든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다라'가 시중에 나오자 이로 대체하여 사용했다. 이러한 '다라'들은 그것을 만든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불렀다. 스테인리스로 만들면 '스뎅다라', 알루미늄은 '아레미다라' 또는 '아르미다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고무다라'로 불렀다.

"이것도 그릇 살 때 산 거. 그거 터젼 부찐 거. 그런 거 사단 딱 부찐 거. 그건 공장에 거는 거게." [87]

(이것도 그릇 살 때 산 거. 그거 터져서 붙인 거. 그런 거 사다가 딱 붙인 거. 그건 벽걸이에 거는 거지.)

"저것도 ᄒᆞᆫ 오십 년 넘은 거라. 시집완 보난 옛날에는 저 떡은 저 집이서만 허난. 밀가루, 밀가루 두 포 사다근에 저 다라에서 영 허영 쪄. 경허영 부각허게 부끄민 멘들앙 쪄근에 먹어낫주게. (무슨 떡을 거기서 헤난?) 밀ᄀᆞ루떡게. 밀ᄀᆞ루 헤근에, 쏠이 그땐 막 귀헤낫주게. 밀ᄀᆞ루 밀엉 이만이허게 멘들앙 솟디 놩 쪄." [88]

(저것도 한 오십 년 넘은 거야. 시집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저 떡은 저 집에서만 하니까. 밀가루, 밀가루 두 포 사다가 저 대야에서 이렇게 해서 쪄. 그렇게 해서 봉긋하게 부풀면 만들어서 쪄서 먹었거든. (무슨 떡을 거기서 했었어?) 밀가루떡이지. 밀가루 해서, 쌀이 그때는 아주 귀했었거든. 밀가루 밀어서 이만하게 만들어서 솥에 놔서 쪄.)

"다라이. 콩 ᄉᆞᆲ앙 메주 헐 때 헤낫주게." [89]

(대야. 콩 삶아서 메주 할 때 했었지.)

87)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88)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89)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사진 115> 양명부 씨 소장 '다라'



<사진 116> 홍춘화 씨 소장 '다라'



<사진 117> 홍관매 씨 소장 '다라'



<사진 118> 고옥생 씨 소장 '다라이'

<사진 115>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다라'다. 구멍이 나자 '다라'와 비슷한 재료를 구해 붙인 후 틈새를 막았다. '다라' 바깥에 붙여진 사각형 조각이 수리한 흔적이다. <사진 116>은 홍춘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다라'로 이것에서 밀가루를 반죽해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사진 117>은 귀덕리 홍관매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우뭇가사리'를 말리는 용도로 쓰고 있다. <사진 118>은 월령리 고옥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다라이'다. 고옥생 씨는 이를 '다라이'라고 소개했다. 콩을 삶아 메주를 빚을 때 썼다고 한다. 바닥 부분에 금이 가자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고 있다.

(6) 생선 말리는 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숙'을 마련해야 한다. 생물 생선의 배를 갈라 넓게 펼쳐 손질한 후,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잘 말려야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저거 생선 몰릴 때. 식게 때도 허고 그냥 사 와근에 먹젠 헤도 저거에 널엉 몰류왕."[90]
(저거 생선 말릴 때. 제사 때도 하고 그냥 사 와서 먹으려고 해도 저것에 널어서 말려서.)

"저디에 엿날은게 그 볼락, 우럭 그런 거. 제사 때에 쓸 때 허젠. 몰려근에 우럭덜, 뭐 엿날은 바당에 거 에려우난 코생이도 다 무시거 헤나고 다 헤낫어. 고생이도 나까단. 이젠 마딱 생성. 전이 우럭도 허고 볼락도 허고 막 ᄋᆞ라 가지. 바당에 건 다. 볼락이나 우럭이나 ᄀᆞ튼 거. 색만 뚠나주."[91]
(저기에 옛날은 그 볼락, 우럭 그런 거. 제사 때에 쓸 때 하려고. 말려서 우럭들, 뭐 옛날은 바다의 거 어려우니까 고생놀래기도 다 뭐 했었고 다 했었어. 고생놀래기도 낚아다가. 이젠 모두 이젠 옥돔. 전에 우럭도 하고 볼락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바다의 거는 다. 볼락이나 우럭이나 같은 거. 색만 다르지.)


<사진 119> 신창윤 씨 소장 '생선 몰리는 거'


<사진 120> 문순선 씨가 말리고 있는 생선

<사진 119>는 생선을 말릴 때 쓰는 도구다. 월령리 신창윤 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플라스틱 소쿠리를 생선 말리는 용도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소쿠리에 줄을 묶어 빨랫줄에 매달 수 있도록 했다. 사방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생선을 건조시키기에 알맞다. <사진 120>은 한림리 문순선 씨가 판매하기 위해 말리고 있는 생선이다. 여러 마리의 생선을 말리기 위해서 대형 구조물에 그물망을 깔아 건조대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7) 고기 건지는 거

'큰솟'과 같이 큰 용기에서 삶은 음식 매우 뜨겁기 때문에 손으로 건져 올릴 수 없다. 뜨거운 열기를 피해 삶은 고기를 찍어 올릴 수 있도록 '고기 건지는 거'를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건을 고리에 걸어 당길 수 있도록 끝이 살짝 구부러진 갈고리 형태다.

90)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91)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옛날에 뒈지고기, 큰일 헐 때에 뒈지고기 숢으면 이걸로 영 뒤집고 이걸로 영 건져 내고 경 헤난 거. 일름은 몰라. 고기 건질 때 이거 찍어근에." [92]

(옛날에 돼지고기, 큰일 할 때에 돼지고기 삶으면 이걸로 이렇게 뒤집고 이걸로 이렇게 건져 내고 그렇게 했던 거. 이름은 몰라. 고기 건질 때 이거 찍어 가지고.)



<사진 121> 박영자 씨 소장 '고기 건지는 거'

<사진 121>은 월림리 박영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고기 건지는 거'다. 제주에서는 큰일을 치를 때는 반드시 삶은 돼지고기 먹거리로 올린다. 사진의 '고기 건지는 거'로 삶은 돼지고기를 뒤집거나 건져 올릴 때 쓴다. 갈고리 부분에 물건을 건 후 끌어당긴다.

(8) 막자사발

'막자사발'은 약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데 쓰는, 사기나 유리 등으로 만든 그릇을 말한다.

"우리 할아버지가 침 놓고이, 마을 일도 대소사를 전부이 그 뭐 헌. 그것도 약을 잴 때 허는 거 같애." [93]

(우리 할아버지가 침 놓고, 마을 일도 대소사를 전부 그 뭐 했어. 그것도 약을 잴 때 하는 거 같아.)



<사진 122> 오진숙 씨 소장 '막자사발'과 '잔'

<사진 122>은 한림리 오진숙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막자사발'과 약의 양을 잴 때 쓰는 '잔'이다. 할아버지가 쓰던 것을 오 씨가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사진 122>를 보면 약이 곱게 갈리도록 '막자사발' 안에는 일정한 방향의 골이 파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2)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93) 한림리 오진숙 씨 구술.

(9) 벵풍

'벵풍'은 주로 바람을 막거나 무엇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병풍'을 말한다. 장식용으로 방 안에 치기도 하지만 주로 제사 등 의례 때 병풍을 사용한다.

"제서헐 때만 허는 거 아니가. 경헌디 저런 집 속에 모셩 놔두지 안헹 우리 조카 이디 왕 살켄 허멍 그디 놔둬신게."[94]

(제사할 때만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저런 집 속에 모셔서 놔두지 않고 우리 조카 여기 와서 살겠다고 하면서 거기 놔뒀네.)

"저거 완 보난 우리 시어머님 저거 씨엄선게. 이거 막 오랜 거, 잘도 오랜 거. 우리 완에 우리도 ᄋᆞ라 해 썻지. 경헌디 이제사 새로 나옴 시작허난 저거 안 씨엇주. 혼 설남은 넘엉 안 써졌을 거라. 저거 오래연."[95]

(저거 와서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 저거 쓰고 있더라고. 이거 아주 오랜 거, 정말 오랜 거. 우리 와서 우리도 여러 해 썼지.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거 안 썼지. 한 서른은 넘어서 안 썼을 거야. 저거 오래됐어.)



<사진 123> 홍관매 소장 '벵풍'



<사진 124> 신창윤 씨 소장 '벵풍'

<사진 123>은 귀덕리 홍관매 씨의 친정어머니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벵풍'이다. <사진 124>는 월령리 신창윤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벵풍'으로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 현재 팔십구 세의 신 씨가 서른 무렵 새 것을 구입하면서 그 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랜 기간 쓰지 않고 있지만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94)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95)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3. 주생활

주생활은 사람이 살 수 있게 지은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형태, 공간 배치 및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전반을 말한다. 주생활은 사람들이 머물고 쉬며 수면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집 안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주생활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거주 지역의 지형과 기후 등의 자연조건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맞춰 고유한 문화적 특색을 보여준다.

제주의 가옥의 형태는 전통 초가에서 1970년대 이후 빠른 변화를 보인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마을 안길이 확장되고 지붕과 부엌 등의 가옥 구조가 개량되었다. 이러한 주거 양식의 변화는 주거 도구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장에서는 주생활 관련 도구를 집의 구조, 가재 도구, 조명 도구, 난방 도구, 연장류, 기타 도구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3.1. 집

(1) 초집

제주의 전통 가옥인 '초집'은 표준어 '초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제주에서는 '새'라고 칭하는 '띠'를 이용해서 '초집'을 지었다. 1970년대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의 읍, 면 지역의 가옥 형태는 대부분 '초집'이었다. 현재는 몇몇 마을에 민속 가옥으로 지정되어 있는 '초집'이 있지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가옥의 형태가 되었다.

"나 시집오난 짓으난 오십오 년 더 뒌 거. 초집 방 하나에 부엌 하나만 이신 집, 옛날에. 겨난 요 쪽엔 방, 요건 마루, 이 뒤엔 부엌이라낫주게. 싹 틀언 새로 짓언. 오십 년은 뒈연." [1)]

1)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나 시집오니까 지었으니까 오십오 년 더 된 거. 초가 방 하나에 부엌 하나만 있는 집, 옛날에. 그러니까 요 쪽엔 방, 요건 마루, 이 뒤엔 부엌이었었지. 싹 뜯어서 새로 지었어. 오십 년은 되었어.)

대림리 홍춘화 씨의 구술에 따르면 오십여 년 전 시집왔을 때의 집은 '초집'이었다고 한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가운데는 마루인 구조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당시의 '초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집이다.

(2) 기와집

'기와집'은 기와로 지붕을 만든 집을 말한다. 보통 질흙으로 만드는 검은색 기와를 많이 썼다. 이 기와를 제주에서는 '지세'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기와집'을 '지세집'이라고 했다. 일반 농민들이 기와집을 짓고 살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마을마다 드물게 있을 뿐이었다.

"우리 씨할머니부떠. 이 집은 다른 사람 집이라나신디. 옛날은 아주 이거 집터가 좋덴 헤 가지고 지금 말허믄 뭐옌 허코, 지금 마을 유지가 이제 저 수원 동산에 내려오는디 이디 집터가 막 좋으니까 그 사름이 여기 완에 이제 종덜 데리고 완 이 기둥 나무나 이 무슨 마리널 거튼 거 그 사름덜이 다 허여오렌 짓이난에 여기 처음에는 쫌 교회 헷던 거 같에마씨. 경허단에 우리 씨할머니가 이걸 산 거라예. 산 이제 우리 씨아버지 앞에 물려주곡 그다음 우리 앞에 물려주곡 그렇게." [2]

(우리 시할머니부터. 이 집은 다른 사람 집이었는데. 옛날은 아주 이거 집터가 좋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말하면 뭐라고 하지, 지금 마을 유지가 이제 저 수원 동산에 내려오는데 여기 집터가 아주 좋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종들 데리고 와서 이 기둥 나무나 이 무슨 마룻널 같은 거 그 사람들이 다 해 오라고 지으니까 여기 처음에는 좀 교회 했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시할머니가 이걸 산 거지요. 사서 이제 우리 시아버지에게 물려주고 그다음 우리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이거는 백 년 넘은 거지. 이제 나 오건 디도 이제 육십 년이 다 뒈 가는데. 스물 다섯 설에 여기 완 시집완 살앗주. 여기 살다가 이제 우리 집은 바로 요 옆에 잇인디 우리 아덜네가 멧 년 줘어예. 우리 아덜네 멧 년 주니까 아덜네가 살다가 아덜네 사업허게 뒈니까 이제 여기 차 그튼 거 드나들기 힘드니까 우리허고 또 바꾼 거라. 겐 또 우리가 완 살게 된 거. 게난 원래는 사 대째 산 거지. 게난 이건 우리 씨아주버니네 명의로 잇주만은 이제 나 죽을 때꺼지는 그냥 살 거주게. 우리 씨아주버니가 건설사업 허주게. 경허난 기와도 강원도에 직접 간 강원도에 간 막 이거 주문헤단 새로 막 허고 헌 거주게." [3]

2)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3)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이거는 백 년 넘은 거지. 이제 나 온 지도 이제 육십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스물다섯 살에 여기 와서 시집와서 살았지. 여기 살다가 이제 우리 집은 바로 요기 옆에 있는데 우리 아들네가 몇 년 줬어요. 우리 아들네 몇 년 주니까 아들네가 살다가 아들네 사업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 차 같은 거 드나들기 힘드니까 우리하고 또 바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와서 살게 된 거. 그러니까 원래는 사대 째 사는 거지. 그러니깐 이건 우리 시아주버니네 명의로 있지만 이제 나 죽을 때까지는 그냥 살 거지. 우리 시아주버니가 건설사업 하거든. 그러니까 기와도 강원도에 직접 가서 강원도에 가서 막 이거 주문해다가 새로 막 하고 한 거지.



<사진 1> 고기순 씨가 거주하는 '기와집' 앞모습



<사진 2> 고기순 씨가 거주하는 '기와집' 뒷모습

<사진 1>은 한수리 고기순 씨(1939년생)의 기와집을 '올레'에서 찍은 것이다. 나무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과 그 아래 '잇돌'이 보인다. <사진 2>는 고기순 씨의 집 뒤편에서 찍은 것이다. 열려 있는 뒷문으로 '마루'가 조금 보인다.

현재 이 기와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기순 씨의 구술에 따르면, 지은 지 백 년이 넘었다고 한다. 고 씨의 시할머니가 지금의 기와집을 구입해 살기 시작한 이래, 고 씨의 아들까지 4대째 이어지고 있다. 곳곳을 수리했지만 전체적인 집의 구조나 기와 지붕의 형태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원래는 우리 집이라나신디 이것이 막 오래 뒈난에 이 집이 기와도 다 떨어지고 집이 막 허물어지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씨동생 앞에 준 거라예. 게난 그 씨동생이 이거 문딱 기와도 새로 허고 이 안에 내부 수리도 만딱 새로 헌 거우다, 이거.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뜨시고."[4]

(원래는 우리 집이었는데 이것이 아주 오래되니까 이 집의 기와도 다 떨어지고 집이 마구 허물어지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시동생 앞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동생이 이거 전부 기와도 새로 하고 이 안에 내부 수리도 모두 새로 한 거예요, 이거.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4)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팔십구 년에 새로 헤신게.) 집 수리헐 때 이거 이런 서래 거튼 거 다 그때 나무." [5]
((팔십구 년에 새로 했네.) 집 수리할 때 이거 이런 서래 같은 거 다 그때 나무.)


<사진 3> 고기순 씨가 거주하는 '기와집'의 용마루

<사진 3>은 한수리 고기순 씨가 거주하는 기와집의 용마루 부분을 찍은 것이다. 지붕을 새로 올린 '1989년 12월 9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다. 집을 수리할 때의 날짜라고 한다.

"이거는 다 새로 기와 다 새로 헌 거. 다 새로 헌 거주게. 이거나 저거나 다 마찬가지 이거 다 새로 헌 거. (이런 돌들은 그냥 다 그대로 아니?) 이거 다시 헌 거. 이 집 고칠 때 새로 다 한 거. 이거랑 이거. 옛날엔 이거 없어낫주게." [6]
(이거는 다 새로 기와 다 새로 한 거. 다 새로 한 거야. 이거나 저거나 다 마찬가지 이거 다 새로 한 거. (이런 돌들은 그냥 다 그대로 아니?) 이거 다시 한 거. 이 집 고칠 때 새로 다 한 거. 이거랑 이거. 옛날엔 이거 없었거든.)

"화재 나 부난 이거 나왓주게. 저디 막 하난. 우리 큰아덜 시 설이고 큰뚤 곳 난에 보름 만이 화재 나 불언. 큰아덜 이제 오십여덥인가?" [7]
(화재 나 버리니까 이거 나왔어. 저기 막 많았어. 우리 큰아들 세 살이고 큰딸 금방 낳고 보름 만에 화재 나 버렸어. 큰아들 이제 오십여덟인가?)


<사진 4> 고기순 씨 집의 '기와'


<사진 5> 홍관매 씨 소장 옛 '기와'

5)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6)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7)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사진 4>는 한수리 고기순 씨 집 한쪽에 쌓여 있는 '기와'다. 1989년 집을 수리하면서 '기와'를 다시 씌웠는데 그때 쓰다 남은 '기와'라고 한다. 삼십 년 넘게 실외에 방치된 '기와'지만 색과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사진 5>는 귀덕리 홍관매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옛집의 '기와'다. 홍 씨의 말에 따르면 현재 쉰여덟 살인 큰아들이 세 살이 되던 해 시가에 불이 났다고 한다. 당시 기와집은 전소되었고 그 집터에서 나온 것이 <사진 5>의 '기와'다. 화재 이후 오십오 년이 넘는 '기와'지만 색과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3) 근대가옥 [8)]

한국 건축사에서 '근대'는 외래 문물의 유입으로 초가나 기와집이 근대 건축물로 바뀌는 1890년대 이후 1950년까지 시기를 일컫는다. 반면 제주 지역에서는 외래 문물의 유입이 본토보다는 늦어 1910년대부터 1960, 70년까지 건축물의 외형 변화가 두드러지는 때를 근대로 설정하고 있다.[9)] 때문에 제주에서의 '근대가옥'은 일제강점기에 나무로 지어진 일본식 가옥, 또는 1930년 이후 일본과 서양식을 결합한 '일양 절충식' 가옥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근대가옥'의 형태는 제주 전통 가옥인 초가와 그 공간 형태와 기능면에 매우 다른 양식을 띤다. 이러한 '근대가옥'은 항구가 인접해 있어 비교적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된 한림 지역에서 밀집해 있는데, 학교 등의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주거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보였다.

한림읍 지역의 변화는 1920년대부터 항을 끼고 있는 한림리가 발전하면서 한림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에 한림항 주변의 공장들과 함께 한림리 일대에 근대가옥이 들어섰다. 일본을 오고 가는 연락선이 한림항을 통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한림을 왕래했다. 때문에 숙박 시설 필요했는데 당시 지어졌던 시설이 '한림여관'이다. '한림여관'은 1930년대 중반 지어져 1970년대까지 운영되었다.

8) 여기에서 정리한 근대 가옥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제주 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2013)에서 제시한 가옥 중 현존하는 것을 조사한 것이다.

9)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제주 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2013)의 용어 정의를 참고하였다.

"저쪽에 가면은 신창여관. 신창여관은 저쪽 한길로 쭉 내려가면은 일주도로로 쭉 가다 보면은 옛날, 옛날 읍사무소 허던 데가 잇는데 거기 건너서, 국민학교레 거자 가는 딘디 영 가면은 국민학교가 이만쯤 잇고 국민학교 거자 간 데 이만쯤 일주도로로 쭉 가다 보면은, 어디엔 골앙 좋으코? 그디 옆이가 길이 바다로 나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이. 대게 중학교 있었던 데, 읍사무소 있었던 데엔 골으면 알주. 게난 그 맞은편 신창여관. 신창여관이엔 허믄 이제도 그디 사람덜이 알 거야. 게난 요 집이 이층집이야. 이층집인데 이것이 일제시대 잇던 집이고." [10]

(저쪽에 가면 신창여관. 신창여관은 저쪽 큰길로 쭉 내려가면 일주도로로 쭉 가다 보면 옛날, 옛날 읍사무소 하던 데가 있는데 거기 건너서, 국민학교로 거의 가는 데인데 이렇게 가면 국민학교가 이만쯤 있고 국민학교 거의 간 이만쯤 일주도로로 쭉 가다 보면, 어디라고 말하면 좋을까? 거기 옆이 길이 바다로 나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 대개 중학교 있었던 데, 읍사무소 있었던 데라고 말하면 알지. 그러니까 그 맞은편 신창여관. 신창여관이라고 하면 이제도 거기 사람들은 알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이 이층집이야. 이층집인데 이것이 일제강점기 있던 집이고.)



<사진 6> '한림여관' 전경



<사진 7> '한림여관' 건물 측면과 출입구

<사진 6>은 '한림여관'의 정면, <사진 7>은 '한림여관'의 집 마당과 현관을 찍은 것이다. 한림리 김중관 씨(1936년생)는 이곳을 '신창여관'이라 했으나 '한림여관'을 잘못 말한 듯하다. '한림여관'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2층 구조의 목조 기와집이다. 과거에는 전통식 기와를 씌운 구조였으나 지금은 함석 기와로 바꿔 씌운 상태다. <사진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관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건물 외벽 전체를 널판을 덧대어 올리는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의 특징을 보여준다. 건물은 많이 낡았지만 일본식 '근대가옥'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한편, 1920년대 들어서는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 각지에 일본식 개인 가옥을 짓기 시작했다. 부산이나 포항, 목포 등 항구가 있는 근처에는 이러한 근대 일본식 가

10)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옥들이 남아있는데 한림리에도 이러한 가옥을 확인할 수 있다.

"저디가 더 오렛덴. 수리 안 헤 보고. 안에 다 튿어 불언 엇수다. 고쳥 살아보카 허난 너미 헐어 버리니깐 허다가 그냥 중단헨. 저 흑으로 영 대막뗑이로 영 영 여껑 잇잖아. 엿날 집. 속에 전부 그거라낫덴." [11]

(저기가 더 오래됐대. 수리 안 해 보고. 안에 다 뜯어 버려서 없어요. 고쳐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헐어 버리니까 하다 그냥 중단했어. 저 흙으로 이렇게 대막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엮어 있잖아. 옛날 집. 속에 전부 그거였대.)



<사진 8> 한림읍 사가길 12 전경



<사진 9> 한림읍 사가길 12 전경 (대문)

<사진 8>은 한림읍 사가길 12번지의 '근대가옥'을 길가에서 찍은 것이다. 현재는 빈집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집 외벽과 담을 돌과 함께 시멘트를 사용해 지었다. 이웃집에 거주하는 김영자 씨의 구술에서처럼, 집 내부는 대나무를 엮어 벽에 대고 흙을 바른 외(椳)가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한림읍 사가길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오른편에 또 다른 형식의 근대가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옥 역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인 가옥으로 일본식 가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집이 이제도, 그 일본놈덜이 옆이 나무로 이렇게 부찌지 안허여, 벽에. 거 이제도 그렇게 뒈 있을 거야, 이 집이. 우에는 이렇게 쓰레트 집이난에. 이거 일제시대 고씨가 살아난 집인데 그 후손덜이 다 없어. 지금은 누게 사는지 몰라. 딸이 살아낫는데 딸도 돌아가 부니까." [12]

11) 한림리 김영자 씨 구술.
12)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집이 이제도, 그 일본놈들이 옆에 나무로 이렇게 붙이지 않니, 벽에. 그거 이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 집이. 위에는 이렇게 슬레이트 집이니까. 이거 일제강점기에 고씨가 살았던 집인데 그 후손들이 다 없어. 지금은 누구 사는지 몰라. 딸이 살았었는데 딸도 돌아가 버리니까.)



<사진 10> 한림읍 사가길 7-2 전경



<사진 11> 한림읍 사가길 7-2 전경 (측면)

<사진 10>과 <사진 11>은 한림읍 사가길 7-2번지의 가옥을 길가에서 찍은 것이다.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흰색 페인트를 칠했지만 나무 널판을 덧대어 외벽을 지었다. 이는 한림리 김중관 씨가 언급했듯이, 나무판을 횡으로 덧대어 올려붙이는 일본의 특징적인 건축 형태다.

3.2. 집 구조

(1) 올레

'올레'는 거리에서 집 입구까지 통하는 좁은 골목을 일컫는다. 집으로 들어가려면 보통 '마을길-어귀-올레길-올레목-마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거치게 된다. '올레'는 폭이 좁고 그 형태가 구불구불한 것이 특징이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올레길'을 따라 양쪽에는 돌담이 쌓여 있다. '올레'가 마당으로 이어지기 직전까지 부드러운 곡선을 보이다가 막바지에 이르러 급격하게 구부러진 곳이 '올레목'이다. '올레목'을 지나면 시야가 넓어지며 집 전체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 시아방 살 때 완 베려보난 이디 초가집 다섯 거릴 짓엉 시난. 다섯 거리 엿날 그자 창고로 씨는 식으로 목거리, 안거리, 밧거리 헹 졸망졸망 셔난디, 나 시집완 튿어 뒨 저거 안팟거리 짓엇주. 질은 이거 세멘허멍 널룬 거." [13]

(우리 시아버지 살 때 와서 보니까 여기 초가집 다섯 거리를 지어 있었으니까. 다섯 거리 옛날 그저 창고로 쓰는 식으로 '목거리', '안거리', '밧거리' 해서 졸망졸망 있었는데, 나 시집와서 뜯어 두고 저거 '안팟거리' 지었지. 길은 이거 시멘트 바르면서 넓힌 거.)



<사진 12> 박순원·장화순 씨 집 '올레'

<사진 12>는 금악리 박순원 씨(1942년생)·장화순 씨(1946년생) 집의 '올레'를 집 안에서 바깥쪽을 향해 찍은 것이다. 장 씨의 설명에 따르면 장 씨가 막 시집 왔을 때, 지금의 집터에 초가 다섯 거리의 집채가 모여 있었다고 한다. 이후 집을 '안팟거리'로 고쳐 지을 때, '올레'를 넓히며 시멘트를 발랐다. 집 입구 양쪽에 마주 선 '정주석'이 보이고, 그 너머로 집 입구를 향해 이어지는 구부러진 형태의 '올레'와 '올레담'이 보인다. 집 안에서는 '올레'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통 초가에서 '올레'의 폭은 소 한 마리가 드나들기 넉넉하게 너비 2m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재는 경운기나 자동차가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올레'를 넓히는 경우가 많다. <사진 12>의 '올레' 역시 너비 3~4m 정로도 널찍하게 확장한 것이다.

(2) 정주석

'정주석'은 집으로 들어오는 '올레목'에 '정낭'을 가로로 걸쳐 놓을 수 있게 구멍을 뚫어 양쪽에 세운 기둥을 말한다. '정주석'은 집 입구의 표시이자 동시에 대문 역할을 했다. '정주석'에 '정낭'을 걸쳐 놓아 소와 말 등의 동물이 집 안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 집주인의 외출을 표시하는 역할도 했다. 보통 돌로 만든 것을 '정주석', 나무로 만든 것을 '정주목'이라고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부르기도 한다. '정주석'은 보통 '정낭' 세 개를 걸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데, 한림읍에서 조사된 '정주석'에는 구멍이 네 개인 것도 있었다.

13) 금악리 장화순 씨 구술.



<사진 13> 변춘산 씨 집 앞 '정주석'

<사진 13>은 상명리 변춘산 씨(1933년생) 집 입구에 설치된 '정주석'을 멀리서 촬영한 것이다. 시멘트 바닥에 세워진 '정주석'이 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13>의 오른쪽을 보면 '정주석'에 걸쳐져 있는 '정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악리의 박순원·장화순 씨는 이것을 '정주목'으로 설명한다.

"이거 정주목."[14]
(이거 정주목.)

"옛날 사삼사건 전에, 사삼사건 전에 있던 걸, 우리가 이제 사삼사건 남과 동시에 밑에 해변가로 이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혜영 올 적에 옛날 집터에 이신 걸 가져단 여기 왓주마씨. 그걸 이레 가져단 헌 겁주게. (그 집터에 언제 이거 만들어졌는지?) 모릅주게. 이거 우리 증조하르방 때부터, 멧 백 년 전이 건디."[15]
(옛날 4·3사건 전에, 4·3사건 전에 있던 걸, 우리가 이제 4·3사건 일어남과 동시에 밑에 해변가로 이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해서 올 적에 옛날 집터에 있는 걸 가져다가 여기 왔거든요. 그걸 여기 가져다가 한 거지요. (그 집터에 언제 이거 만들어졌는지?) 모릅지요. 이거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몇 백 년 전에 건데.)

"질 널르게 허난 이 정주먹도 이디 셔난 거 이레 앗아 분 거주. 이디 꺼꺼젼에. (원래 정주먹에 구멍이 네 개?) 예, 네 개. 저거영."[16]
(길 넓게 하니까 이 '정주먹'도 여기 있던 거 여기로 치워 버린 거지. 여기 꺾어져서. (원래 정주먹에 구멍이 네 개?) 예, 네 개. 저거랑.)

14)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15)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16) 금악리 장화순 씨 구술.



<사진 14> 박순원·장화순 씨 집 입구의 '정주목'



<사진 15> 박순원·장화순 씨 집 입구의 맞은편 '정주목'

<사진 14>와 <사진 15>는 금악리 박순원·장화순 씨 집 입구에 마주 서 있는 한 쌍의 '정주목'이다. 일반 '정주석'과 다른 점은 '정낭'을 걸치는 구멍이 네 개라는 점이다. <사진 15>에서 '정주목' 아랫부분이 꺾어지자 이를 밑에 깔아놓은 후 그 위에 '정주목'을 세웠다.

"이디 영 세와근에 사름 이신 거 엇인 거 이디서 표시헴시녜. 경허영 낭 허영 사름 신 때 영 내류고, 사름 엇인 때는 이 고냥에 허영 영 걸치고. 경 헤낫저." [17]

(여기 이렇게 세워서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여기서 표시해. 그렇게 해서 나무 해서 사람 있을 때 이렇게 내리고, 사람 없을 때는 이 구멍에 해서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했었지.)



<사진 16> 홍관매 씨 소장 '정주석'

<사진 16>은 귀덕리 홍관매 씨(1939년생) 친정어머니 집 '올레' 한쪽에 놓여 있는 '정주석'이다. 부러졌지만 여전히 집 입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17)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3) 이문간

'이문간'은 안마당으로 드나드는 대문이 달려 있는 집채로, 표준어의 '문간채'에 해당한다. 제주에서는 '올레'에 들어서면 마당에 들어서기 직전에 크게 꺾이는데 이를 '올레목'이라 부른다. 이러한 '올레목' 부분에 '이문간'을 두기도 했다. 공간이 협소하여 '올레'를 만들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도 '이문간'을 두었다. 때문에 '이문간'이 있는 '올레'는 그 길이가 짧으며, 직선형이 보통이다. '이문간'에는 '광'과 유사한 공간이 있다.

"안거레, 밧거레. 이거 안거레, 이건 이문간. 이건 원래가 이렇게 이문간, 이문간이고 이거는 저 무시거. 이거 초가집인 때 나 이 집이 완." [18]

(안채, 바깥채, 이거 안채, 이건 문간채. 이건 원래가 이렇게 문간채, 문간채이고 이거는 저 뭐. 이거 초가집일 때 나 이 집에 왔어.)

"이문간. 지금은 창고같이 헨에. 옛날에는 쉐막, 소 길루는 소막 그디. 게난 이거 고찔 대 저거 다 새로 헌 거지. 저거는. 저기 소 길러난 소막." [19]

(문간채. 지금은 창고처럼 해서. 옛날에는 외양간, 소 기르는 외양간 거기. 그러니까 고칠 때 저거 다 새로 한 거지. 저거는, 저기 소 길렀던 외양간.)



<사진 17> 강술생 씨 집 '이문간' 밖에서



<사진 18> 강술생 씨 집 '이문간' 안에서

<사진 17>과 <사진 18>은 강구리 강술생 씨(1942년생) '이문간'이다. <사진 17>은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기 전 밖에서 찍은 것이고, <사진 18>은 집 안으로 들어간 후의 모습이다. <사진 18>에서 좌측에 보이는 공간은 과거 외양간이었다. 현재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18) 강구리 강술생 씨 구술.
19)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4) 문

‘문’은 집의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거나, 물건은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해 틔워 놓은 곳에 여닫을 수 있도록 달아 놓은 것을 말한다. ‘문’이 달린 위치, ‘문’을 설치한 이유와 목적, ‘문’의 재료, ‘문’을 여닫는 방법 등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 방에 설치하면 ‘방문’, 창에 설치하면 ‘창문’이며, 앞에 설치되어 있으면 ‘앞문’, 뒤에 설치되어 있으면 ‘뒷문’ 등의 형식이다.

먼저, 집의 안과 밖을 경계 짓는 출입구 역할의 ‘문’이다.



<사진 19> 홍관매 씨 친정어머니 집 입구의 '문'


<사진 20> 고기순 씨 집 입구의 '문'

<사진 19>와 <사진 20>은 집 입구의 대문을 찍은 것이다. 대문은 ‘큰 문’이라는 뜻으로 출입문을 말한다. <사진 19>는 귀덕리 홍관매 씨 친정어머니가 살던 집의 입구다. <사진 20>은 한수리 고기순 씨가 살고 있는 집 입구를 찍은 것이다.

“(마리에 들어가는 이 문을 뭐렌 골읍니까?) 대문. 나무가 썩지 안헌 거 보난 나무가 좋은 나무 같에.” [20]

((마루에 들어가는 이 문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문’. 나무가 썩지 않은 거 보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 같아.)

20)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사진 21> 고기순 씨 집 '대문'

<사진 21>은 한수리 고기순 씨는 난간에서 '마루'로 들어가게 되는 '마루문'을 '대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씨의 설명처럼 제주에서는 마루문을 '대문'이라고 한다. 사진에서 보듯이 나무를 '널'로 오려 만든 여닫이문의 형태가 '대문'이다.

"(집 안에 문은?) 오십 년이 넘언." [21]
((집 안에 문은?) 오십 년이 넘었어.)

"저 큰방에 돌아져난 문. 초집이란 거 새로 다 헌 거주게. 문덜 초집 헐 때 허여난 거." [22]
(저 큰방에 달려 있었던 문. 초가였던 거 새로 다 한 거지. 문들 초가 할 때 했던 거.)


<사진 22> 홍춘화 씨 집 '방문'


<사진 23> 신창윤 씨 집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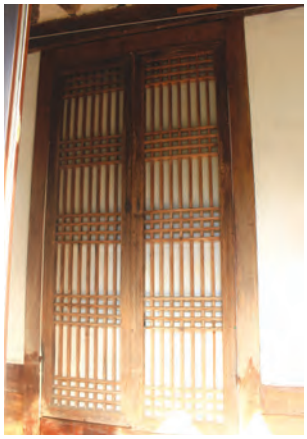

<사진 24> 양인희 씨 집 '방문'

21)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22)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사진 22>는 대림리 홍춘화 씨(1948년생) 집의 '방문'이다. 초가를 고칠 때 다시 한 것으로 오십 년이 넘었다. <사진 23>은 월령리 신창윤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방문'이다. 초가를 개조할 때 뜯어낸 것으로 당시 큰방의 문이었다고 한다. <사진 24>는 강구리 양인희 씨 집 마루에서 방문을 찍은 것이다.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문이다. 창호지를 바른 문이다.



<사진 25> 양명부 씨 집 방문



<사진 26> 고기순 씨 집 방문



<사진 27> 강정자 씨 집 방문

<사진 25>는 월림리 양명부 씨(1944년생) 집의 '방문', <사진 26>은 한수리 고기순 씨 집의 '방문', <사진 27>은 금악리 강정자 씨(1940년생) 집의 '방문'이다.



<사진 28> 양인희 씨 집의 '내부 정지문'



<사진 29> 양인희 씨 집의 '정지문'



<사진 30> 양명부 씨 집의 '창고문'

<사진 28>은 강구리 양인희 씨(1924년생) 집 내부에 설치된 '정지문'이다. 열린 문틈으로 마루와 부엌 사이의 공간인 '청방'이 보인다. '청방'에서 사진의 '정지문'을 열면 부엌인 '정지'로의 출입이 가능했다. '정지문'이 연기에 그을려 있다. <사진 29>은 집 외부에서 '정지'로 들어가는 '정지문'이다. 사진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솥을 앉혀둔 아궁이를 마주하게 된다. <사진 31>은 월림리 양명부 씨 집 외부에 있는 창고 문이다.

(5) 마리과 난간

'마리'는 방과 방 사이의 넓은 공간으로 표준어 '마루'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난간'은 대청이나 구들방 바깥 옆으로 좁다랗게 마루같이 널을 깔아 놓은 곳을 말한다.

"우리 큰뚤이 중학교 삼학년 때 이 집이 완. 큰뚤이 이제 오십멧 설고? 준나비띠난 가이 몇 살고? 혼 사십 년은 채 못 뒌. 소나무 널"[23]

(우리 큰딸이 중학교 삼학년 때 이 집에 왔어. 큰딸이 이제 오십 몇 살이지? 원숭이띠니까 그 애 몇 살이지? 한 사십 년은 채 못 됐어. 소나무 널.)

"이런 마리 이런 거는 원래 거. 이건 원래. 이것도 아주 옛날 거라."[24]

(이런 마루 이런 거는 원래 거. 이건 원래. 이것도 아주 옛날 거야.)



<사진 31> 양명부 씨 집의 '마리'



<사진 32> 고기순 씨 집의 '마리'



<사진 33> 고기순 씨 집의 '난간'

<사진 31>은 월림리 양명부 씨 집의 '마리'다. 소나무로 만든 마룻널이라고 한다. 현재

23)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24)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쉰이 넘은 큰딸이 중학생 때 이사를 온 집으로 사십여 년 된 '마리'다. <사진 32>는 한수리 고기순 씨 집의 '마리'로 '대문' 너머로 '마리'가 보인다. <사진 33> 역시 한수리 고기순 씨의 집으로 '난간'의 모습이다.

(6) 안방

'안방'은 쌀독이나 살림살이를 넣어두는 공간으로 '고방'을 말한다. 달리 '고팡', '궤팡', '암팡'이라고도 한다. '안방'에는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 놓는데 조명 시설이 없던 과거에 빛이 들고 또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구멍을 '창곰'이라고 한다. 표준어로는 '창 구멍'을 말하는데 눈비가 들이치거나 쥐가 드나들지 못하게 막아두기도 한다.

"엿날에 곡석 골아오민 이레 다 놔. 안방. 창곰 다 막아 불어시녜. 중이 제완. 창곰 영 고냥 난 거 잇나. 경헌 거 다 막아셰. 막아 불어 뒁 그레 어지러운 것덜 놤셰. 도비헤영 그릇덜 나 그디 담안. 옛날은 흑이라낫주게, 완전."[25]

(옛날에 곡식 갈아오면 이리 다 놔. 고방. '창곰' 다 막아 버렸잖아. 쥐가 많아서. '창곰' 이렇게 구멍 난 거 있어. 그런 거 다 막았어. 막아 버리고 거기 어지러운 것들 놨어. 도배해서 그릇들 나 거기 담았어. 옛날은 흙이었었지. 완전.)

"안이니까 안방이렌 허는 셍이라. 질 안 쪽에."[26]

(안이니까 '안방'이라고 하는 모양이야. 제일 안 쪽에.)



<사진 34> 고갑년 씨 집 '안방'(마루에서)



<사진 35> 고갑년 씨 집의 '안방'('안방' 안에서)

25)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26) 월림리 고갑순 씨 구술.

<사진 34>과 <사진 35>는 월림리 고갑년 씨(1934년생) 집 '안방'의 문이다. <사진 34>는 마루에서 <사진 35>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찍은 것이다. <사진 3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이는 쪽의 문은 벽과 같은 흰색 도배지를 발랐다. 안쪽 문은 도배 대신 파란색 페인트를 칠했다. <사진 35>을 자세히 보면 나무 널을 이어 붙여 만든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방' 안은 전부 흙벽이었으나 신문으로 도배를 했다.

"여기 원래 이 방은 이대로 허고 여기는 이제 쪼꼬만 방, 욜로 이레가 방이라낫어. 방인데 요짝에는 옛날에 말허믄 고팡. 일로 문 달안에 일로 영 다니고. 이건 고팡이고, 이건 또 방이고. 고팡이엔 헨." [27]

(여기 원래 이 방은 이대로 하고 여기는 이제 조그만한 방, 요리로 이리가 방이었었어. 방인데 요쪽에는 옛날에 말하면 고방. 이리로 문 달아서 이리로 이렇게 다니고. 이건 고방이고, 이건 또 방이고. '고팡'이라고 했어.)

"겨곡 이디도 고팡이 잇어낫주만은 이제 생각에는 부엌 솟 앚진 바로 옆에 또 하나 잇어낫어, 고팡이. 이디도 잇주만은 이딘 그자 중요헌 것덜 놔난지 몰르지만은 저기는 또 고팡 하난 잇언. 이런 문 다 이런 문 달안에. 그디 항아리 놩 그 쌀 나둠서 그디서 퍼당 씻엉 밥헤낫주게." [28]

(그리고 여기도 고방이 있었지만 이제 생각에는 부엌 솥 앉힌 바로 옆에 또 하나 있었어, 고방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그저 중요한 것들 놨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또 고방 하나 있었어. 이런 문 다 이런 문 달아서. 거기 항아리 놔서 그 쌀 놔두면서 거기서 퍼다가 씻어서 밥했었지.)

"궤팡에, 궤팡이라고 잇어낫어. 저 부엌 뒤에 항 놓는 디라고 궤팡, 궤팡. 그디 놘에 그레 쏠 다덜 담앙 먹어낫주. 이제 궤팡 엇어." [29]

(고방에. 고방이라고 있었어. 저 부엌 뒤에 항아리 놓는 데라고 고방, 고방. 거기에 놔서 거기에 쌀 다들 담아서 먹었었지. 이제 고방 없어.)

같은 공간을 두고도 월림리 고갑년 씨는 '안방', 한수리 고기순 씨는 '고팡', 대림리 홍춘화 씨는 '궤팡'이라 불렀다. '안방', '고팡', '궤팡' 모두 같은 공간 '고방'을 가리키고 있다. 곡식을 갈아오면 '항'에 담은 후, 이곳에 보관했다. 한수리 고기순 씨는 부엌 옆에 '고팡'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한다. 마루 옆에 마련된 '고팡'에는 중요한 물품들을 보관하고, 부엌 근처에 마련된 '고팡'에는 쌀을 담은 '항'을 보관했다고 한다.

27)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28)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29)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7) 청방

'청방'은 마루와 부엌 사이에 있는 작은 마루방을 말한다. 이곳에 음식이나 그릇을 넣어 두는 찬장을 두기도 하고 식사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제보자나 지역에 따라 '청방'을 '청방마리', '찻방'이라 부르기도 한다.

"(저거) 청방. 저쪽 건 부엌. 마리방, 안방." [30]
((저거) '청방'. 저쪽 건 부엌. 마루방, 고방)

"이거 엿날 그릇 놔난 디. 그건 족은방, 이건 큰방, 이건 청방마리, 정지. 엿날 구조덜 다 엿날 구조. 작은 마루방 경헌 거고, 청방. 여기가 고팡, 엿날은 안방." [31]
(이거 옛날 그릇 놨던 데. 그건 작은방, 이건 큰방, 이건 '청방마리', 부엌. 옛날 구조들 다 옛날 구조. 작은 마루방 그렇게 한 거고, '청방'. 여기가 '고팡', 옛날에는 '안방'.)

"여기 나무 놩 찻방허고 그다음에는 신발 신엉 부엌에 들어가근에 밥허곡 경헤낫주기. (원래 찻방도 영 넓엇수과?) 으, 괜찬헷주." [32]
(여기 나무 놔서 '찻방'하고 그다음에는 신발 신어서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그렇게 했지. (원래 '찻방'도 이렇게 넓었습니까?) 으, 괜찮았지.)


<사진 36> 고갑년 씨 집 '청방'


<사진 37> 양명부 씨 집 '청방마리'

30)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31)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32)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사진 36>은 월림리 고갑년 씨의 '안방' 안에서 '청방'을 찍은 것이다. '안방' 밖으로 나오면 '마루'와 '청방'을 지나 가장 안쪽에 '정지'가 있다. <사진 37>은 월림리 양명부 씨 집 '마루'에서 '청방마리'와 '정지'를 찍은 것이다. '청방마리'을 지나 가장 안쪽에 놓인 부엌 찬장이 보인다. 동일한 공간이지만 월림리 고갑년 씨는 '청방', 같은 월림리에 사는 양명부 씨는 '청방마리', 한수리 고기순 씨는 '찻방'으로 소개했다.

(8) 주칫돌과 잇돌

'주칫돌'은 집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로, 표준어의 '주춧돌'을 말한다. '주툿돌, 지줏돌'이라고도 한다.

"이거 헐 때 ᄀᆞ치 돌은 헌 거. 기둥이 다 썩어가니까." [33]
(이거 할 때 같이 돌은 한 거. 기둥이 다 썩어가니까.)


<사진 38> 고기순 씨 집 '주칫돌'

<사진 38>은 한수리 고기순 씨 기와집의 '주칫돌'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집을 지탱하는 나무 기둥이 '추칫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는 사진에서 보는 돌보다 낮을 돌을 '주칫돌'로 놓았었는데 집을 수리할 때 기둥의 썩은 부분을 잘라내며 더 높은 '주칫돌'로 바꾸었다고 한다.

한편, '잇돌'은 집채 앞에 놓여 있는 툇마루나 마루로 오르내릴 때 디디는 돌을 말한다. 보통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잇돌' 위에 신발을 벗어 놓는다. 제보자에 따라 '이잇돌', '엿돌'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로는 '댓돌', '섬돌', '디딤돌'이라고 한다.

33) 한수리 고기술 씨 구술.



<사진 39> 고기순 씨 집 '잇돌'



<사진 40> 고기순 씨 집 '잇돌' 전체

<사진 39>는 한수리 고기순 씨 기와집 주변에 둘러놓은 '잇돌'을 가까이서 찍은 것이다. <사진 40>은 집 입구에 일렬로 놓인 '잇돌'을 찍은 것이다. 과거에는 '잇돌' 위에 신발을 벗어 두었으나 지금은 집 안으로 들어가 '난간' 아래에 신발을 벗어 놓는다.



<사진 41> 신태상 씨 집의 '엿돌'



<사진 42> 홍관매 씨 집의 '잇돌'

<사진 41>은 대림리 신태상 씨(1947년생) 집 마당의 '엿돌'을 찍은 것이다. 신태상 씨는 이 돌을 '잇돌'이 아닌 '엿돌'이라고 불렀다. <사진 42>는 귀덕리 홍관매 씨 집 입구에 '잇돌'이다. 제보자들은 마당 한쪽에 '잇돌'을 가지런히 깔아 조경으로 이용하거나 계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9) 물팡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물허벅'을 올려두는 돌로 만든 선반을 말한다. '물팡'은 '물+팡'의 구성으로, '팡'은 넓적한 큰 돌을 의미한다. 제주에 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까운 하천이나 빗물 등이 고이는 물통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방법으로 생활용수를 구했다. 물을 길어 나르기 위해서는 '허벅'과 '물구덕'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부릴 때 올려둘 곳 또한 필요했다. 그래서 부엌 앞에 나부죽한 돌을 'ㅠ'자 모양으로 세워 '물팡'으로 이용했다.

"물팡. 옛날에는 이거 집집마다 다 잇어낫수다. 물허벅 물구덕 헤영 이디 부련 놔둬난 거. 엿날엔 이디 영 부엌이라낫수다. 이거 부엌이 말뿐이주. 이건 엇어낫어. 나 시집올 땐 엇어난 거." [34]

('물팡'. 옛날에는 이거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물허벅' '물구덕' 해서 여기 부려 놨었던 거.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부엌이었어요. 이거 부엌이 말뿐이지. 이건 없었어. 나 시집올 땐 없었던 거.)



<사진 43> 고기순 씨 집의 '물팡'

<사진 43>은 한수리 고기순 씨 집 '정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마련된 '물팡'이다. 사진의 평평한 부분에 '물허벅'을 두었다. 과거 물을 길어오는 것은 여성의 일이었다. '허벅'에 물을 길어와 '물항'에 채워 놓은 후, '물허벅'은 '물팡'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면 '물허벅'을 지고 다시 물을 길러 갔다. <사진 43>의 '물팡'은 원래는 없었는데 집을 수리하면서 설치했다고 한다.

한편, 지금처럼 각 가정에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땅을 깊이 파 물이 고이도록 하거나 빗물을 모아두는 등의 '물통'을 마련했다. 여기서의 '물통'은 물을 받아 두어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마련한 시설을 말한다.

34)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옛날에 수도 엇인 때 이 집이서 물받이 헹 그 물통더레 다 내려가민 이 동네 사름덜 다 먹엇어. (게민 저 물통을 언제 멘들앗수꽈?) 몰라, 우리가 이 집 상 오기 전에, 주인, 주인이 만든 거. 우리 산 이 집이 오건 디가 오십이 년 뒛엇어. 오십삼 년. 여기 완 난 아덜이 이제 오십세 살이라. 이디 온 후에 난 아덜이. 게난에 하여튼 이 집이 물을 다 그레 내려가게. 수도 엇이난. 쓰레뜨 더꺼 놩 이거 우에 또 더껀. 그때 옛날엔 양철집이라난디, 도당인디 막 삭안. 헐언에 비 새곡 헤 가난 그거 튿어 데껴뒌 쓰레트 더껏단 이거 우터레 또 더픈 거. 하여튼 이 지붕에서 비 오면 물받이를 그레 돌련. 다 그레 내려가게끔 허민 비 와나민 이빠이. 이젠 다 헐언. 아멩 큰 비 와도 안 골라. 다 벌러젼 내부니까. 그때는 곱닥허고 먹을 때는 하영 골랏는디. 견 수도 만약에 안 나는 날에는 이 동네 사름덜이 막 (물을) 빌레 완 질어 갓어." [35]

(옛날에 수도 없을 때 이 집에서 물받이 해서 그 물통으로 다 내려가면 이 동네 사람들 다 먹었어. (그럼 저 물통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몰라, 우리가 이 집 사서 오기 전에, 주인, 주인이 만든 거. 우리 사서 이 집에 온 지가 오십이 년 되었어. 오십삼 년. 여기 와서 난 아들이 이제 오십세 살이야. 여기 온 후에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집 물을 다 거기 내려가게. 수도 없으니까. 슬레이트 덮어 놓고 이거 위에 또 덮었어. 그때 옛날에 양철집이었는데, 함석인데 다 삭았어. 헐어서 비 새고 해 가니까 그거 뜯어 버리고 슬레이트 덮었다가 이거 위에 또 덮은 거. 하여튼 이 지붕에서 비 오면 물받이를 그리로 돌렸어. 다 거기로 내려가게끔 하면 비 오고 나면 가득. 이젠 다 헐었어. 아무리 큰 비 와도 안 차. 다 깨져서 내 버려두니까. 그때는 곱고 먹을 때는 많이 찼었는데. 그래서 수도 만약에 안 나는 날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물을) 빌리러 와서 긷고 갔어.)

"공동수도도 엇엇어. 나 결혼헐 때꺼지도. 여기는 물 잘도 어려운 동네. 물이 없어. 난 금악인디 금악에는 물이 엄청 좋아, 하. 오롬 발에 전부 물통이라. 멧 갠지 몰라. 판 물. 물통 판 건디 땅이 물이 잘 앚아. 빠지지 아녀. 게난 물은 하나도 귀천 엇이 살앗는디 여긴 완 보니까 그렇게 물이 어려운 동네라. 잘도 물 엇엇어. 게민 막 상명 물도 질어당 먹고, 저 물도 강 질어오고. 겨물 때는 금악도 강 질어당 먹고." [36]

(공동수도도 없었어. 나 결혼할 때까지도. 여기는 물 정말 어려운 동네. 물이 없어. 난 금악인데 금악에는 물이 엄청 좋아, 많아. 오름 발치에 전부 물통이야. 몇 갠지 몰라. 판 물. 물통 판 건데 땅에 물이 잘 고여.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물은 하나도 분수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물이 어려운 동네야. 정말 물이 없었어. 그럼 막 상명 물도 길어다가 먹고, 저 물도 가서 길어오고. 가물었을 때는 금악도 가서 길어다가 먹고.)

각 집에 수도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 안에 '물통'을 만들어 두고 '물통'에 고인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지붕에 물받이를 설치해 빗물이 '물통'으로 흘러가게 하여 물을 모으는 방식이다. 월림리 박영자 씨 집에도 빗물을 모았던 '물통'이 있는데 단수로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러 박 씨 집을 찾았다고 한다. 현재는 물

35)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36)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길이 깨진 탓에 큰비가 내려도 '물통'이 가득 차는 일은 없다고 한다. 물이 귀한 월림리로 시집온 박 씨는 물을 긷기 위해 월림리에서 상명리까지 가기도 하고, 그마저 어려우면 금악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다고 한다.



<사진 44> 박영자 씨 집 '물통' 바깥 전체



<사진 45> 박영자 씨 집 '물통' 내부

<사진 44>와 <사진 45> 모두 월림리 박영자 씨(1930년생) 집에 있는 '물통'을 찍은 것이다. <사진 44>는 '물통' 전체를 담은 것이다. <사진 45>는 '물통' 내부를 찍은 것으로 아직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물통'은 박 씨가 오십 년 전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것으로 전 주인 마련해 놓은 것이다.

한편, 1970년대 들어서면서 각 가정에 수도시설이 보급되기 시작하자 '물통'을 마련해 두었던 공간은 사라지고 <사진 46>과 같은 수돗가 시설이 마련되었다.



<사진 46> 장창일 씨 집의 '수돗가'

<사진 46>은 상명리 장창일 씨(1953년생) 집 마당 한쪽의 수돗가를 찍은 것이다. 담을 둘러싼 공간 안으로 수도시설이 보인다. 앞서 제시한 월림리 박영자 씨 집의 '물통'과 장창일 씨 집의 수돗가인 <사진 46>을 비교해 보면 물과 관련한 주생활의 변모를 살펴볼 수 있다.

(10) 쉼팡

'쉼팡'은 '쉬다'의 의미의 '쉼'과 넓적한 큰 돌을 의미하는 '팡'이 합쳐진 말로 앉아 쉴 때 사용하는 돌을 가리킨다.

"겨난 이건 이렇게양, 앚앙 쉬는 거. 여름철이 덥고 허면은 어른덜이 이런 올레 오면 시원헐 거 아니꽈예? 그러면 이런 디 앉앙 쉬는 거. 이거나 이거나(정주목과 쉼팡) 다 옛날 집터에 걸 이제 우리가, 이디 사람이 안 살아난 디우다게." [37]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요, 앉아서 쉬는 거. 여름철이 덥고 하면은 어른들이 이런 '올레' 오면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 앉아서 쉬는 거. 이거나 이거나 다 옛날 집터에 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사람이 안 살았던 곳입니다.)



<사진 47> 박순원 씨 집 정주석 옆 '쉼팡'

<사진 47>은 금악리 박순원 씨 집 '정주석' 옆에 높여 있는 '쉼팡'이다. 박순원 씨의 말에 따르면 집안으로 들어선 후 잠시 쉴 쉬 있도록 마련한 것이고 한다. 박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4·3사건 이후에 자리 잡은 곳으로 이전 집에 있었던 '정주석'과 '쉼팡'을 가지고 와서 놓아두었다고 한다.

37)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3.3. 가재도구

(1) 궤

'궤'는 옷, 곡식, 제사 도구, 책 등 다양한 물건을 수납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가구를 말한다. 크기도 30cm 정도로 작은 것부터 2, 3m 정도의 큰 것까지 다양하다. 장롱이나 옷장 등 별다른 수납 시설이 없었던 시절에는 가정마다 '궤'를 두어 옷이나 물건 등을 보관하였다. 여성들은 결혼 혼수품으로 '이불', '요강'과 함께 '궤'를 준비했다. '궤'는 문짝의 좌우에 달린 손잡이를 앞으로 잡아당겨 아래로 내려 여는 형태이다.

한림읍 지역 조사에서도 한두 개의 '궤'를 보관하고 있는 제보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자신의 혼수품 외에도 시어머니 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궤'를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경우들이었다.

"시집올 때 헤 온 거. 친정어멍이 사 줘주게. 궤영 이불 서너 채 헹 왓지."[38]
(시집올 때 해 온 거. 친정어머니가 사 줬거든. '궤'하고 이불 서너 채 하고 왔지.)

"이거는 친정에 우리 할머니 거 닮아. 꼭 우리 할머니가 나를 준 거 닮아. 우리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우리 아덜이 이제 마흔아홉인데 마흔일곱 해 뒌 거 닮다. 돌아가신 지가."[39]
(이거는 친정에 우리 할머니 거 같아. 꼭 우리 할머니가 나를 준 거 같아.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우리 아들이 이제 마흔아홉인데 마흔일곱 해 된 거 같아. 돌아가신 지가.)

"옛날엔 궤 하나 미싱 하나 살레 찻장. 그거 허영 궤 하나. 경 허영 오믄 막 잘 출령 와낫젠 헷주게."[40]
(옛날에 궤 하나 재봉틀 하나, 살레 찬장. 그거 하고 궤 하나. 그렇게 하고 오면 막 잘 차리고 왔다고 했지.)


<사진 48> 양명부 씨 소장 '궤'


<사진 49> 김묘생 씨 소장 '궤'

38)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39) 명월리 김묘생 씨 구술.
40)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사진 48>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양 씨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혼수품으로 장만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 양 씨는 '궤'를 방 안에 두고, 그 위에는 혼수로 가져 온 '이불'을 올려두었다. <사진 49>는 명월리 김묘생 씨(195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사진의 '궤'는 친정할머니가 쓰던 것을 김 씨가 물려받았다고 한다. 가로 76cm, 세로 37.5cm, 높이 46.5cm의 크기다. '궷문'에 '통쒜' 대신 볼펜을 끼워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한수리 고기순 씨의 말에 따르면 혼수품으로 궤, 재봉틀, 찬장 등을 준비해 오면 잘 준비해서 온 편에 속했다고 한다.

"미싱허고 이불, 궤도 다 헐언. 이디 셔. 시집올 때 궤, 화장대, 화장댄 다 헐언 데껴 불고. 그릇, 먹는 그릇 조금, 조금. 요강도 헤 주고게." [41]

(재봉틀하고 이불, 궤도 다 헐었어. 여기 있어. 시집올 때 궤. 화장대, 화장댄 다 헐어서 던져 버리고. 그릇, 먹는 그릇 조금, 조금. 요강도 해 주고.)



<사진 50> 홍춘화 씨 소장 '궤'



<사진 51> 오진숙 씨 소장 '궤'

<사진 50>은 대림리 홍춘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친정어머니가 이불, 화장대, 그릇, 요강과 함께 혼수품으로 장만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 <사진 51>은 한림리 오진숙 씨(194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열쇠 없이는 '궤' 문을 열 수 없도록 '통쒜'가 걸려 있다.

"저거 굴무기라도 엿날 굴무기. 젤 좋은 거. 누게가 만든 건 몰라. 나가 결혼헐 때 가젼 온 거난. 친정에서 물린 거난게. (크기는) 원래 이거. 이거 굴무기낭. 막 풀렌 헤도 안 풀안. 이거 하나 싯주게, 이거 하나. (시집올 때) 이불 하나 요 하나, 옛날에사 뭣 헹 와서게? 요강은 놋요강도 아니고 그냥, 그냥 요강 쓰단 거." [42]

41)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42) 대림리 이연옥 씨 구술.

(저거 '굴무기'라도 옛날 '굴무기'. 제일 좋은 거. 누구가 만든 건지는 몰라. 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거니까. 친정에서 물려받은 거니까. (크기는) 원래 이거. 이거 '굴무기나무'. 막 팔라고 해도 안 팔았어. 이거 하나 있거든. 이거 하나. (시집올 때) 이불 하나 요 하나, 옛날에야 뭐 해서 왔겠어? 요강은 놋요강도 아니고 그냥, 그냥 요강 쓰던 거.)

"궤도 만딱 친정에 거. 그자 살젠 허난 저 옷덜도 놔야 뒈고. 공젱이 안 헤근에 그 옛날은 이런 뭣 안 헤근에 그 궤에 놔낫에게. 개멍 궤에. 이제추룩 걸지 아녀난. 경허고 걸엉도 안 뒈여. 웨냐허면 저 불 때여근에 허여 노난 막 그실여근에 못 허여, 연기로. 궤 안에 문 신문지로 문딱 도비허여근에 옷덜 톡톡 놔근에 살아낫주게. 그 연기 때문에 걸지 못허여. 기실여 불어, 기실여 불어." [43]

(궤도 모두 친정에 거. 그저 살려고 하니까 저 옷들도 놔야 되고. 걸이 안 해서 그 옛날은 이런 뭐 안 해서 그 궤에 놨었어. 개면서 궤에. 지금처럼 걸지 않았어. 그리고 걸어서도 안 돼. 왜냐하면 저 불 때고 하니까 막 그을려서 못 해, 연기로. 궤 안에 전부 신문지로 모두 도배해서 옷들 톡톡 놓아서 살았었지. 그 연기 때문에 걸지 못해. 그을려 버려, 그을려 버려.)



<사진 52> 이연옥 씨 소장 '궤'



<사진 53> 홍관매 씨 소장 '궤'

<사진 52>는 대림리 이연옥 씨(193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으로 이 씨는 '요'와 친정에서 쓰던 '요강' 그리고 사진의 '궤'를 혼수품으로 준비해서 가져왔다고 한다. 사진의 '궤'는 '굴무기낭'으로 만든 것으로 다른 '궤'들에 비해 작다. 쇠를 자물쇠 부분에 끼워 넣어 '걸쒜'로 이용하고 있다. <사진 53>은 귀덕리 홍관매 씨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이 '궤' 역시 친정어머니의 '궤'를 물려받았다. 홍 씨는 옷을 잘 개어 '궤' 안에 차곡차곡 넣어 보관했다고 한다. 들어 옮기기 편하도록 '궤' 옆면에 손잡이가 달려 있다.

43)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시어머니 썻던 거." [44]
(시어머니 썼던 거.)

"시어머니 써난 거." [45]
(시어머니 썼던 거.)



<사진 54> 고옥생 씨 소장 '궤'



<사진 55> 고옥자 씨 소장 '궤'

<사진 54>, <사진 55>는 모두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궤'로 <사진 54> 월령리 고옥생 씨가, <사진 55>는 귀덕리 고옥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고옥생 씨와 고옥자 씨 모두 자신의 '궤'와 시어머니가 쓰시던 '궤'를 보관하고 있었다.

"엿날 이 집에 살던 할머니가 썻던 거." [46]
(옛날 이 집에 살던 할머니가 썼던 거.)



<사진 56> 현성매 씨 소장 '궤'



<사진 57> 양인희 씨 소장 '궤'

44)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45) 귀덕리 고옥자 씨 구술.
46) 한수리 현성매 씨 구술.

<사진 56>은 한수리 현성매 씨(1936년생)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궤'다. 현 씨는 오십칠 년 전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당시 그곳에 살았던 할머니의 '궤'라고 한다. <사진 57>은 강구리 양인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작은 크기의 '궤'다. 오랜 시간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위, 아래 널판을 잇는 쇠가 떨어져 나갔다.

한편, '궤'는 벽장에 올려놓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벽장은 제주어로는 '벡장'이라고 하는데 '벡장'에 한쪽에 '궤'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이불 따위를 개어 수납장처럼 활용하는 공간이다.

"((벡장은) 문 신 집도 잇고, 엇은 집도 잇곡. 엇은 집이 주로 많아. 영 헤근에 이불 게엉 우이 놔 뒀당 어둑으민 내려왕 더끄곡. (벡장 우이) 궤도 올려놓고. 한쪽에 이불 게여 놓고." [47]

((벽장은) 문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없는 집이 주로 많아. 이렇게 해서 이불 개어서 위에 놔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내려서 덮고. (벽장 위에) 궤도 올려놓고. 한쪽에 이불 개어 놓고.)



<사진 58> 고갑년 씨 소장 '궤'



<사진 59> 고기순 씨 집 '벡장'

<사진 58>은 월림리 고갑년 씨가 '벡장'에 보관하고 있는 '궤'다. '궤' 옆에는 이불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인다. <사진 59>는 한수리 고기순 씨 집의 '벡장'이다. 젖혀진 커튼 뒤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벡장'이 보인다. 과거에는 주로 '궤'와 이불을 이곳에 올려두고 보관했다. 고 씨는 '벡장'에 간이 수납장과 이불 외에도 다양한 물품을 넣어 보관하고 있다.

47)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2) 살레

'살레'는 그릇이나 반찬 따위를 넣어 보관하는 '찬장'을 말한다. '살레' 안에는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엮은 발을 평평하게 깔안 둔 후, 젖은 접시를 엎어 두었다. 물이 아래로 빠져 그릇이 빨리 마르도록 한 것이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던 시절 '살레'는 그릇뿐만 아니라, 반찬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쓰였다.

"살레. 그냥 무신 널짝으로 만드나 또 무신 대 왕대 영 꿰여근에 놔두나 경헤. 엿날엔 경 헹 만들아근에 그레 씻엉 어프곡. 밥 먹단 것도 그레 놩 더펑 놔두곡. 반찬 ᄀᆞ튼 것도 그레 놔뒁주기. 이젠 냉장고 잇주만은 그땐 거 엇이난 주로 그냥 그런 살레에덜 보관헷단 내놩 먹곡." [48]

(찬장. 그냥 무슨 널빤지로 만들거나 또 무슨 대, 왕대 이렇게 엮어서 놓아두거나 그래.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씻어서 엎고. 밥 먹던 것도 거기에 놓아 덮어 두고. 반찬 같은 것도 거기에 놔뒀지. 이젠 냉장고 있지만 그때 그거 없으니까 주로 그냥 그런 찬장에들 보관했다가 내놓아서 먹고.)

한림리 이옥여 씨는 '살레'는 널빤지나 왕대를 엮어 만들었다고 한다. 물이 잘 빠지도록 왕대를 엮은 것 위에 그릇을 엎어 두었다. 이 씨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 먹다 남은 밥이나 반찬 등을 '살레'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 먹었다고 한다.

"이제 그 찬장ᄀᆞ추룩 이레 만들아졍 그디 낭푼이 ᄀᆞ뜬 거 영. 그릇 ᄀᆞ튼 거 놓는 거 그자 그런 거. 맞아. 살레, 살레. 나무로 영 짜진 살레. 나무로 만들아져 잇언디 이런 나무로. 지끔 신발장 ᄀᆞ추룩 칸 영 헤진 거. 옛날에는 저 뭐옌 허나? 그 우굼. 밥허는 우굼. 또 국 거리는 그 나무로 만든 거 그거. 이제 수제 ᄀᆞ튼 거 이제 그런 거주게. 사발 ᄀᆞ튼 것도 영 어펑 놔두고." [49]

(이제 그 찬장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거기 양푼 같은 거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놓는 거 그저 그런 거. 맞아, '살레', 찬장. 나무로 이렇게 짜진 찬장.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나무로. 지금 신발장처럼 칸 이렇게 된 거. 옛날에는 저 뭐라고 하지? 그 밥자. 밥하는 밥자. 또 국 뜨는 그 나무로 만든 거 그거. 이제 수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지. 사발 같은 것도 이렇게 엎어 놔두고.)

한수리의 고기순 씨는 '살레'를 신발장처럼 칸을 나누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살레'는 씻은 그릇뿐만 아니라 밥자, 국자, 그리고 수저, 사발 등도 보관했다. 수납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과거, 선대들은 직접 가재도구를 만들어 쓰는 삶을 살았다.

48)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49)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거 엿날에 써난 건디 그건 어드레 나가 가졍 가지 못헹 그냥." [50]
(그거 옛날에 썼던 건데 그건 어디 나가 가지고 가지 못해서 그냥.)


<사진 60> 강병출 씨 소장 '찬장'

<사진 60>은 명월리 강병출 씨(1926년생)가 사용했던 '찬장'이다. '살레'를 대신해 쓰인 것이다. 사진의 '찬장'은 강 씨가 예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지금은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 나무 널빤지를 이용해 다섯 칸 정도로 만든 '찬장'이다. 그릇이나 음식에 먼지가 쌓이거나 쥐, 벌레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유리문이 달려 있다.

(3) 책상

'책상'은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앞에 놓고 쓰는 상을 말한다. 결혼할 때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혼수품으로 '궤'와 함께 '책상'을 준비하기도 했다.

"시어머니네 쓰단 또 나안티 물려준 거. 어무니 시집올 때 전에 있었던 건가 봐. 그 전에 시아버지네 썼던 거지." [51]
(시어머니네 쓰다가 또 나에게 물려준 거. 어머니 시집올 때 전에 있었던 건가 봐. 그 전에 시아버지네 썼던 거지.)


<사진 61> 고옥자 씨 소장 '책상'


<사진 62> 박영자 씨 소장 '책상'

50) 명월리 강병출 씨 구술.
51) 귀덕리 고옥자 씨 구술.

<사진 61>은 귀덕리 고옥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책상'이다. 앉은뱅이 '책상'으로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쓰도록 만들어진 '책상'이다. 고 씨는 이를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시어머니 역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책상'이라고 한다. 작은 서랍 두 개로 단출한 '책상'이지만 오랜 시간에도 뒤틀림이 없다. 지금은 거실에 두고 텔레비전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62>는 월림리 박영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책상'으로 <사진 61>과 달리 의자에 앉아 사용하는 '책상'이다.

3.4. 조명 도구

1970년대 이후 각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자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깃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두운 밤 불을 밝히기 위해 접시에 기름을 넣고 그 안에 심지를 걸쳐 불을 켜 생활했다. 이러한 '접시불' 또는 '젭시불'을 이용하다가 '각지'에 기름과 심지를 넣어 불을 켜는 '각지불', '각지불' 이후에는 '등핏불'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후 제주에 전기가 보급되면서 일반 백열등, 형광등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전기 보급으로 한순간에 편리해진 것이다.

한림읍 조사에서는 조명 도구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초창기 전선 시설과 백열등, 형광등, 전기를 넣고 차단하는 등의 두꺼비집과 스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각짓불

'각지'는 기름을 담아 등불을 켜는 데에 쓰는 그릇으로 그 '각지'에 기름과 심지를 넣어서 불을 켠 것을 '각짓불', 표준어로는 '등잔불'이다.

"처음은 모도리 지름 헤서 각지불도 쌋주. 각지불덜, 전기 안 올 때는 그런 걸로도 헷주게. 허지만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안허고 각지불덜도. 그때 석유로덜 헤시난. (삼춘도 모도리 지름 각지불 허는 거 봐난마씨?) 으, 그런 거 기억은 잇어." [52]

(처음은 상어 기름 해서 등잔불도 켰지. 등잔불들, 전기 안 올 때는 그런 것으로도 했거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등잔불들도. 그때 석유로들 했으니까. (삼촌도 상어 기름 각지불 하는 거 봤었습니까?) 으, 그런 거 기억은 있어.)

52)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한림리 김중관 씨(1936년생)의 구술에 따르면 '모도리', 즉 '상어' 기름도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과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에는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얻은 기름 또는 석유로 어둠을 밝히는 생활을 했다.

(2) 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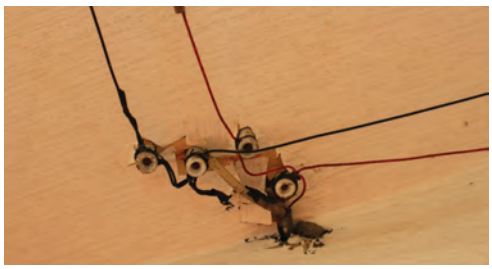
'전등'은 전기의 힘으로 밝은 빛을 내는 등으로 백열전기등을 말한다. 각 가정에 전등이 설치된 것은 전기가 보급되면서이다. 제주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가정에 전기시설이 들어서면서 전등을 이용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각 가정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는 '두꺼비집'을 지나게 된다. 누전 등으로 제한치 이상의 전류가 흘러들면 회로 보호를 위해 '두꺼비집' 안의 전력용 퓨즈가 녹아 내려서 집 안의 전력 공급을 막는다.

한림읍 조사에서는 전기가 각 가정에 처음 보급되던 당시의 '두꺼비집'과 초창기 전기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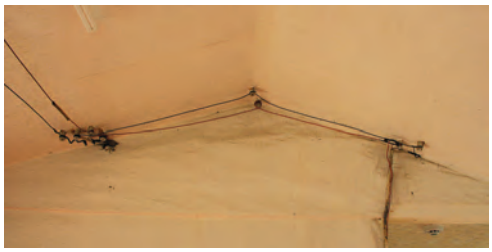
"이거 첫 번으로 들어와난 전기줄. 전기 나난." [53]
(이거 첫 번째로 들어왔던 전기줄. 전기 들어오니까.)



<사진 63> 양명부 씨 집 내부에 설치된 '두꺼비집'



<사진 64> 양명부 씨 집 내부에 설치된 '전선'



<사진 65> 양명부 씨 집 내부에 설치된 '전선'

53)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사진 63>, <사진 64>, <사진 65>는 월림리 양명부 씨 집 안에 설치된 '두꺼비집'과 그 '전선'을 찍은 것이다. 양 씨에 말에 따르면 월림리에서 가장 처음으로 양 씨의 집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사진 64>와 <사진 65>가 당시 설치한 전기 시설이다.



<사진 66> 양인희 씨 집 '정지'의 '전동'



<사진 67> 고갑년 씨 집 창고의 '전등'



<사진 68> 신창윤 씨 집 창고의 '전등'



<사진 69> 홍춘화 씨 집 창고의 '전등'

<사진 66>은 강구리 양인희 씨 집 '정지'의 백열등, <사진 67>은 월림리 고갑년 씨 창고의 백열등이다. 또 <사진 68>은 월령리 신창윤 씨 집 창고, <사진 69>은 대림리 홍춘화 씨 창고에 설치된 백열등이다.

백열등은 전구 내부의 필라멘트를 가열해 빛을 내는 조명 장치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전선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천정에 매다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백열등을 설치하여 어두운 공간의 불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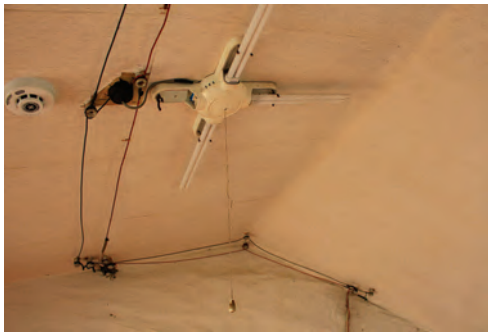
<사진 70> 고기순 씨 집 내부의 '스위치'

<사진 70>은 한수리 고기순 씨 집 내부에 설치된 스위치다. 스위치의 가운데 돌출된 부분을 올리거나 내려 불을 켜거나 끈다. 스위치 본체 위로 굵은 전선이 연결된 것이 보인다.

전기가 처음 보급되었을 때는 <사진 66>에서 <사진 69>처럼 백열등을 먼저 사용하였다. 그 이후에는 밝기가 더 강한 형광등, 다시 엘이디(LED)등으로 변모해 갔다.



<사진 71> 양원석, 강정자 씨 집 형광등



<사진 72> 양명부 씨 내부 엘이디(LED)등

<사진 71>은 금악리 양원석 씨(1939년생)·강정자 씨(1940년생) 집에 설치된 형광등이다. 형광등은 백열등 이후에 보급된 것으로 백열등보다 더 밝은 조명 도구였다. 형광등 아래로 전선을 길게 뺀 후 그 끝에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작고 동그란 스위치가 달려 있다. <사진 71>은 월림리 양명부 씨 집 안방에 설치된 엘이디(LED)등이다. 제주의 각 가정에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당시의 1960년대 전선 시설과 가장 최근의 전등 형태인 엘이디(LED)등이 공존하는 모습을 <사진 7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 난방 도구

(1) 화리

'화리'는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인 '화로'를 말한다.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 목적으로 사용했다. '화리'는 그것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정동화리', '돌화리', '옹기화리', '양은화리', '사기화리', '쒜화리' 등으로 구분해 불렀다.

"시집완 보난 션게. 옛날 놋화리, 아리미 화리 그런 거. (화리 뭐 헐 때 써난?) 불살르는 거게. 방안에 불살르는 거. 저 엿날은 화리 허여근에, 저 보일라도 엇곡 허민 숫 허영 방안에 후꾼후꾼허게 불살롱 방안에 뜨시게. 뎅기단 오랑 불 초고 저것에. 이제는 전기보일라 하간 거 잇주만은 옛날은 화리로 주장. 저것에 불살라근에, 불 헤여근에 숫 헤영 영 허영 놔근에, 하시영 놩 허는 거."[54]

(시집와서 보니까 있었어. 옛날 놋화로, 알루미늄 화로 그런 거. (화로 뭐 할 때 썼어?) 불 피우는 거지. 방안에 불 피우는 거. 저 옛날은 화로 해서, 저 보일러도 없으면 숯 해서 방안에 후끈후끈하게 불 피우는 방안에 따뜻하게. 다니다가 와서 불 쬐고 저것에. 이제는 전기보일러 온갖 거 있지만 옛날은 화로로 계속. 저것에 불 피워서, 불 해서 숯 해서 이렇게 해서 놔서, 부젓가락이랑 놓고 하는 거.)



<사진 73> 문영춘 씨 소장 '화리'

<사진 73>는 동명리 문영춘 씨(1953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화리'다. <사진 73>의 '화리'는 시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이를 물려받았다고 한다.

'화리'는 주로 겨울철 불잉걸을 담아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덥히는 난방기구로 이용되었다. 또 '화리'는 난방뿐만 아니라, 옷감을 손질할 때도 필요했다. 인두의 끝 부분 '화리' 깊숙이 묻어두었다가 뜨거워지면 그것을 옷감에 대어 다림질을 했다.

(2) 굴묵

'굴묵'은 온돌방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불을 때는 아궁이를 말한다. '굴묵'을 때는 일을 제주어로는 '굴묵 짇다'라고 한다. 제주의 옛날 가옥의 경우 추운 계절의 '난방'을 위해 '굴묵'을 설치하여 불을 땠다.

54) 동명리 문영춘 씨 구술.

"방 떼는 딘 따로. 옛날엔 굴묵 헤여근에 따로따로 불." [55]
(방 때는 데는 따로. 옛날엔 '굴묵' 해서 따로따로 불.)


<사진 74> 고기순 씨 집 외벽에 설치된 '굴묵'

<사진 74>은 한수리 고기순 씨 집 외벽에 설치된 '굴묵'이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굴묵'은 반드시 필요한 난방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일러 등 다양한 난방 시설이 마련되면서 '굴묵'은 그 역할을 완전히 소실했다. 고기순 씨는 '굴묵'을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3.6. 연장류

연장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소소한 물건을 조립하고 손보는 데 사용하는 간단한 도구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통 농촌 사회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농기구를 만들고 수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기구뿐만 아니라 집이나 농작물을 손보고 관리하는 데에도 연장이 필요했다.

"농촌에 살젠 허믄 저런 거 다 잇어야 허여. 목시, 제라헌 목시 빌어당 허젠 허믄 이제 힘들주게. 이제 빌기도 힘들고. 그런 사름이 많지 안허난. 게난 족족헌 건 헐 때 목시 아니 빌엉 이녁 냥으로 족족헌 거 헐 때, 이녁 냥으로 헤야주. 목시가 빌어 오젠 허민 힘들주게. 집 짓는 디 가 불고, 소소헌 거 왕 헤 주젠도 안 허고." [56]
(농촌에 살려고 하면 저런 거 다 있어야 해. 목수, 온전한 목수 빌려다가 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지. 이제 빌리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때 목수 안 빌리고 자기 대로 이것저것 할 때, 자기 대로 해야지. 목수 빌려 오려고 하면 힘들지. 집 짓는 데 가 버리고, 소소한 거 와서 해 주려고도 안 하고.)

55)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56)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사진 75> 양정아 소장 '연장통'

<사진 75>는 한수리 양정아 씨(1938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연장을 보관하는 통이다. 플라스틱으로 된 통은 창고 안 벽에 걸려 있었는데, 통 안에는 망치나 자귀 등의 연장과 여러 개의 낫을 보관하고 있다.

(1) 톱

'톱'은 나무나 쇠붙이 따위를 자르거나 켜는 데에 쓰이는 연장이다. 용도에 따라 크기나 모양이 다양한데, 대개는 강철로 된 얇은 판에 한쪽 또는 양쪽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이로 되어 있다.

"아방 쓰는 거주게. 무신 낭이라도 ᄒᆞ나 쫄를 거 이시민 걸로 쫄르고."[57]
(아버지(남편) 쓰는 거지. 무슨 나무라도 하나 자를 거 있으면 그것으로 자르고.)



<사진 76> 양명부 씨 소장 '톱'

<사진 76>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보관하고 있는 톱이다. 양 씨의 남편이 사용했던 것으로 톱은 특별히 목수가 아니더라도 소소한 것을 자를 때 사용하기 위해 농가에서 필수적으로 갖춰 놓는 연장의 하나다.

57)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2) 도치

'도치'는 나무를 찍거나 패는 데 쓰는 연장으로 '도끼'를 말한다. 쐐기 모양의 큰 쇠 날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단단한 나무 자루를 박아 사용한다.

"낭 허레 미호미 허고 톱 허고 가졍 가주게. 도친 집이 완에 도치로 놉 빌언 낭 깨고. (낭 깨는 것도 놉 빌엉 헤난마씨?) 으, 우리 집이 아방 허지 못헤 부난. 아방 그거 깰 줄 몰라, 동공아덜로 커부난." [58]

(나무 하러 '미호미' 하고 톱 하고 가지고 하지. 도끼는 집에 와서 도끼로 놉 빌려서 나무 끼고. (나무 깨는 것도 놉 빌려서 했었어요?) 으, 우리 집의 아버지(남편) 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그거 깰 줄 몰라, 귀한 아들로 크니까.)

금악리 장화순 씨는 '도치'는 주로 나무를 깰 때 사용하는 것으로, 땔감을 하러 산에 갈 때 톱이나 '미호미'를 챙기고 가면 된다고 한다. '도치'는 장만해 온 나무를 집에서 깰 때 사용한다.

(3) 망치와 못뻬기

'망치'는 못을 박거나 두드릴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못뻬기'는 나무 따위에 박힌 못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못뽑이'를 말한다. '망치'와 '못뻬기'만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못뻬기'는 '망치'와 붙어 있다.

"때리는 망치. 작은 건 다 망치. 큰 건 메주만은, 큰 건 이만이 크주게." [59]
(때리는 망치. 작은 건 다 망치. 큰 건 메지만, 큰 건 이만큼 크지.)

"요건 못 박는 거. 못 박고, 못 요런 거 이시민 닥닥 두드려근에." [60]
(요건 못 박는 거. 못 박고, 못 요런 거 있으면 닥닥 두드려서.)

"이거는 뭐 두드릴 때게." [61]
(이거는 뭐 두드릴 때.)

58) 금악리 장화순 씨 구술.
59)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60)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61)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사진 77> 양정아 씨 소장 '망치'



<사진 78> 홍춘화 씨 소장 '망치'



<사진 79> 신창윤 씨 소장 '망치'



<사진 80> 박영자 씨 소장 '망치'

<사진 77>은 한수리 양정아 씨, <사진 78>은 대림리 홍춘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망치'다. <사진 79>은 월령리 신창윤 씨, <사진 80>는 대림리 박영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망치'다. 못을 박을 때 등 두드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망치 머리의 테두리 모양으로 보아 돌을 다듬을 때 사용했던 것들인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망치라고 부르고 있다.

"나무에 닥닥 박아낭 그 나무 쓰젠 허믄 이거 못 빼 놩 씀도 허는 거, 이거 못뻬기."[62]
(나무에 닥닥 박아 놓고 그 나무 쓰려고 하면 이거 못 빼 놓고 쓰기도 하는 거. 이거 못뽑이.)

62)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사진 81> 홍춘화 씨 소장 '못뻬기'



<사진 82> 신창윤 씨 소장 '못뻬기'



<사진 83> 양정아 씨 소장 '못뻬기'



<사진 84> 박순원 씨 소장 '망치'

<사진 81>은 대림리 홍춘화 씨, <사진 82>은 월령리 신창윤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못뻬기'다. <사진 83>은 한수리 양정아 씨의 '못뻬기'는 손잡이가 부러진 채로 보관하고 있다. <사진 84>는 금악리 박순원 씨의 망치는 자루가 빠진 채 망치 머리만 남아 있다.

(4) 메

'메'는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연장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밭담을 쌓을 때 돌을 사용하는데 이 돌을 깰 때 사용한다.

"것이 메. 돌 깰 때덜 헤낫주. 옛날 자기대로덜 다 돌 깨멍 담우멍." [63]
(그것이 메. 돌 깰 때들 했었지. 옛날 자기대로들 다 돌 깨면서 쌓으면서.)

63)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사진 85> 양정아 씨 소장 '메'



<사진 86> 이연옥 씨 소장 '메'

<사진 85>는 한수리 양정아 씨 남편이 사용했던 '메'다. 양 씨 남편이 이 '메'를 이용하여 돌을 깨면서 직접 밭담 등을 쌓았다고 한다. <사진 86>은 대림리 이연옥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메'다.

위 사진을 보면 두 개의 '메'의 손잡이가 다른데 예전에는 쇠로 된 '메'의 머리 부분만 대장간에서 만든 것을 구입하고 손잡이는 스스로 나무를 구해 바꾸면서 사용했다. '메'의 머리는 오래 쓸 수 있어서 대를 물리면서 손잡이만 바꿔 끼우며 사용했다. 이후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사진 86>과 같이 손잡이도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

(5) 징과 끌

'징'은 돌에 구멍을 뚫거나 돌을 쪼아서 다듬는 연장으로 표준어로는 '정'이다. '끌'은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돌이나 나무의 구멍을 뚫거나 겉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는 연장이다.

"이건 돌 깰 때. 징, 징. 돌 깨는 징. 영 놔근에 두드리민 돌이 깨도지고 고망도 뚤르고 허는 거, 이거." [64]

(이건 돌 깰 때. 정, 정. 돌 깨는 정. 이렇게 놔서 두드리면 돌이 깰 수도 있고 구멍도 뚫고 하는 거, 이거.)

64)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사진 87> 양정아 씨 소장 '징'



<사진 88> 양정아 씨 소장 '끌'

<사진 87>과 <사진 88>은 한수리 양정아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징'과 '끌'이다. 돌을 깨거나 다듬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양 씨의 남편이 썼던 것이다.

"나무 허믄 나무 똑똑 두드리멍 나무 허는 거. 아방, 우리 집의 아방 목수난 써난 거. 나도 아방 조름에 데모도로 가고. 목수 일 안 헐 때 밧디 가고. 데모도로 가고 이런 거 세울 때도 ᄀᆞ치 심엉 허고. 이 아래 세멘 헐 때도 ᄀᆞ치 세멘 카근에 세멘 허고. 천장 놀 때도 이렇게 심어 줘야 헐 거 아니?" [65]

(나무 하면 나무 똑똑 두드리면서 나무 하는 거. 아버지(남편), 우리 집의 아버지 목수니까 썼던 거. 나도 아버지 꽁무니에 조수로 가고. 목수 일 안 할 때는 밭에 가고. 조수로 가고 이런 것 세울 때도 같이 잡고 하고. 그 아래 시멘트질 할 때도 같이 시멘트 타서 시멘트질 하고. 천장 놓을 때도 이렇게 잡아 줘야 할 거 아니?)



<사진 89> 홍춘화 씨 소장 '끌'



<사진 90> 양정아 씨 소장 '끌'

<사진 89>는 대림리 홍춘화 씨, <사진 90>은 한수리 양정아 씨가 보관하고 있는 '끌'이다. 무언가의 표면을 깎을 수 있도록 끝이 일직선이다. 홍춘화 씨의 남편은 목수 일을 했다고 한다. 홍 씨도 남편을 도와 목수 일을 거들었는데 사진의 '끌' 뿐만 아니라 남편

65)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이 사용했던 여러 종류의 연장들을 보관하고 있다.

(6) 자귀

'자귀'는 나무를 깎아 다듬거나 나무를 깰 때 쓰는 연장을 말한다. 한쪽을 넓적하게 하고 끝을 날카롭게 하여 자루와 직각을 이룬다.

"낭 찍는 거. 낭 거튼 거, 무신거 끈젠 허믄 탁탁 찍어근에 허고." [66]
(나무 찍는 거. 나무 같은 거, 무엇 끊으려고 하면 탁탁 찍어서 하고.)



<사진 91> 이연옥 씨 소장 '자귀'



<사진 92> 양정아 씨 소장 '자귀'



<사진 93> 박영자 씨 소장 '자귀'



<사진 94> 신창윤 소장 '자구'

<사진 91>은 대림리 이연옥 씨, <사진 92>는 한수리 양정아 씨, <사진 93>은 월림리 박영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자귀'다. <사진 94>는 월령리 신창윤 씨 집에서 사용했던 것인데 손잡이가 조금 휘어 있다. 신 씨는 '자구'라고 불렀다. 네 개의 자귀의 모양이 비슷하면서도 손잡이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66)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자귀야 다 필요헌 거난. 진짜 좋은 자귀가 잇어신디, 저 하르방 누게 빌려줜 촞아오지 못허연. 자귀가 ᄋᆞ라 가지주. ᄋᆞ라 가진디 목수 허는 사람은 다 곡뒤자귀라고 헤 가지고 저 자귀를 썻는데, 저게 이제 쓰는 사름이 멧 엇어. (어떤 걸 곡뒤자귀라고?) 우이 영 얄룹게 허영 쭉 뽈아지게 헹 올라오지 안허여? 그 나머지는 그냥. 그냥 자귀는 이디 영 몸뗑이 영 뭉클락허고, 곡뒤자귀라고 헹 이디 영 뽈아지게 올라오게. 자귀가 이만이 이디가 크는 거라. 크는 건디 이거 다 다연. 이건 까끄는 용이 주게. (그냥 자귀는?) 낭 깨멍, 낭 그치멍 쓰는 거고 이거는 낭 까끄는 디만 쓰는 거. (그럼 어쨋든 멍에나 뭐 만들젠 허민 이거 잇어야?) 으, 있어야 뒈는 거." [67]

(자귀야 다 필요한 거니까. 진짜 좋은 자귀가 있었는데, 저 할아버지(남편) 누구 빌려줘서 찾아오지 못했어. 자귀가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인데 목수 하는 사람은 다 '곡뒤자귀'라고 해 가지고 저 자귀를 썼는데, 저게 이제 쓰는 사람이 몇 없어. (어떤 것을 '곡뒤자귀'라고?) 위가 이렇게 얇게 해서 쭉 가늘어지게 해서 올라오지 않아? 그 나머지는 그냥. 그냥 자귀는 여기 이렇게 몸뚱이 이렇게 뭉툭하고, '곡뒤자귀'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가늘어지게 올라오지. 자귀가 이만큼 여기가 큰 거야. 큰 건데 이거 다 다였어. 이거 깎는 용이지. (그냥 자귀는?) 나무 깨면서, 나무 끊으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나무 깎는 데만 쓰는 거. (그럼 어쨌든 멍에나 뭐 만들려고 하면 이거 있어야?) 으, 있어야 되는 거.)



<사진 95> 양원석 씨 소장 '곡뒤자귀'

<사진 95>는 금악리 양원석 씨가 사용했던 '곡뒤자귀'다. 일반 자귀는 머리 부분의 뒤가 뭉툭한데, '곡뒤자귀'는 전체적으로 납작한 편이다. 뒤쪽은 너비가 앞쪽의 날이 있는 날카로운 부분보다 훨씬 좁다. 양 씨는 일반 자귀가 나무를 깨고 자르는 데 쓰는 것이라면 '곡뒤자귀'는 나무를 깎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뒈지고기 뻬 사 올 때는 허고 또 바다에 고기도 큰 거는 머리빡 자를 때 써." [68]

(돼지고기 뼈 사 올 때는 하고 또 바다에 고기도 큰 거는 머리빡 자를 때 써.)

67) 금악리 양원석, 강정자 씨 구술.

68)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사진 96> 고옥생 씨 소장 '자귀'



<사진 97> '자귀'의 날 부분

<사진 96>은 월령리 고옥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자귀'다. 고 씨는 바다에서 낚은 큰 생선이나 돼지 뼈를 자를 때 사용했다. <사진 97>에서 보듯이 자귀 날 부분의 모양이 <사진 95>의 '곡뒤자귀'와 비슷하다.

(7) 나대

'나대'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연장으로 일본어의 '나다(なた)'에서 온 말이다.

"낭 찍을 때게."[69]
(나무 찍을 때.)

"나무 거시릴 때, 가지 영 착착 내릴 때 이거 짤라내는 거. 막 가지가 너무 많이 허믄 나무가 자라지 못허난게. 옆에 거 이렇게 쳐 줘야 화목도 허고 올라가지. 키가 크게, 소나무들. 그거 다 데명 놔두민 몰르믄 다 허는 거. (이디 표적은?) 이건 만드는 불미공장에서 찍은 거. 우리는 사다근에 그냥 씀만 헷지. 이거는 그 만드는 디서 그냥, 그 자기네 불미항에서 이거 만들엇덴 헌 거주."[70]
(나무 거스를 때, 가지 이렇게 착착 내릴 때 이거 잘라내는 거. 아주 가지가 너무 많이 하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옆의 거 이렇게 쳐 줘야 화목도 하고 올라가지. 키가 크게, 소나무들. 그거 다 쌓아서 놔두면 마르면 다 하는 거. (여기 표시는?) 이건 만드는 대장간에서 찍은 거. 우리는 사다가 그냥 쓰기만 했지. 이거는 그 만드는 데서 그냥, 그 자기네 대장간에서 이거 만들었다고 하는 거지.)

69)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70)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사진 98> 김종선 씨 소장 '나대'



<사진 99> 박영자 씨 소장 '나대'



<사진 100> 양정아 씨 소장 '나다'



<사진 101> 박순원 씨 소장 '나대'

<사진 98>은 수원리 김종선 씨(1933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나대'다. '나대'는 보통 손잡이 부분에 헝겊 등을 감아 사용한다. <사진 98>은 쇠로 되어 있는 원 상태로 녹이 슨 모습이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99>은 월림리 박영자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대'다. 두 개의 '나대' 끝에 끈을 매달아 사용하고 있다. <사진 100>는 한수리 양정아 씨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양 씨는 이를 '나다'라고 불렀다. '나다' 날의 한쪽 끝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대장간에서 만들 때 새긴 것이라고 한다. <사진 101>은 금악리 박순원 씨가 사용했던 '나대'다.

(8) 대패

'대패'는 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연장이다. 나무를 매끄럽게 깎아 다듬는 용도로도 쓰고 나무의 골을 파는 데도 사용한다.

"이거 깨끗이 다듬을 때, 이거 목시덜 써난 거주게. (우리 집 아방이) 목신 아닌디 집안에서도 뭐 하나 만들젠 허믄, 깨끗이 만들젠 허믄 저런 거 잇어야 다." [71]

(이거 깨끗이 다듬을 때, 이거 목수들 썼던 거지. (우리 집의 아버지가) 목수는 아니지만 집안에서도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깨끗이 만들려고 하면 저런 것이 있어야 다.)



<사진 102> 양정아 씨 소장 '대패'



<사진 103> '대패'의 아래쪽 날 부분

<사진 102>은 한수리 양정아 씨 남편이 사용했던 '대패'다. 보통 전문적으로 나무를 다루는 목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지만, 일반 농가에서도 집의 수리나 농기구를 손질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대패'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9) 철궤

'철궤'는 땅에 박힌 돌 따위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도구로, 쇠로 된 긴 철 막대기인 '지렛대'를 말한다.



<사진 104> 박영자 씨 소장 '철궤'

<사진 104>는 월림리 박영자 씨 남편이 사용했던 '철궤'다. '철궤'는 보통 '돌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밭을 일굴 때 땅에 박힌 돌을 파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다. 돌이 묻혀 있는 가장자리에 '철궤'의 뾰족한 부분을 찔러 넣고 '철궤' 아래쪽에 지지대가 되는 돌을 놓는다. 그리고 한쪽 끝에서 힘을 주어 눌러 주면 지렛대의 원리로 돌을 캘 수 있게 된다.

71)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3.7. 기타 도구

(1) 통쒜와 열쒜, 걸쒜

'통쒜'는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인 자물쇠의 제주어다. '열쒜'는 표준어 열쇠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다. '걸쒜'는 표준어의 걸쇠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대문이나 방의 여닫이문을 잠그기 위하여 빗장으로 쓰는 다양한 모양의 쇠를 말한다.



<사진 105> 오진숙 씨 소장 '궤'의 '통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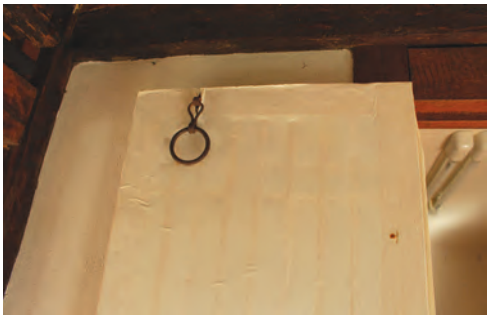
<사진 106> 오진숙 씨 소장 뒤주 '통쒜'

<사진 105>와 <사진 106>은 모두 한림리 오진숙 씨가 사용하고 있는 '통쒜'를 찍은 것이다. <사진 105>는 '궤'의 윗면에 고정된 'ㄱ'자의 고리와 문짝에 달린 고리에 '통쒜'를 통과시켜 잠갔다. <사진 106>은 '뒤주'에 달린 '통쒜'다. '통쒜'의 몸체 밖으로 '열쒜'가 끼워진 것이 보인다.

한편, '걸쒜'는 출입구의 문에 매달아 두고 이를 잠그기 위한 빗장으로 사용한다.



<사진 107> 고갑년 씨 집 '안방' 문의 '걸쒜'



<사진108> 고기순 씨 집 '마루문'의 '걸쒜'



<사진 109> 고기순 씨 집 '대문'의 '걸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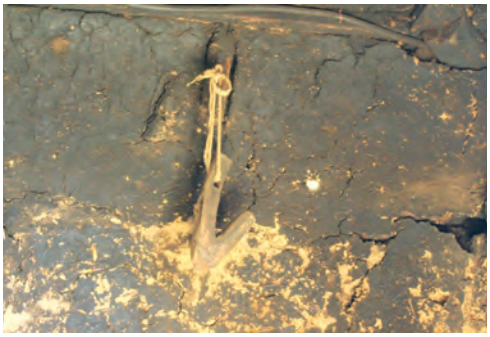
<사진 110> 양명부 씨 집 창고문의 '걸쒜'

<사진 107>은 월림리 고갑년 씨 집 '안방' 문의 '걸쒜'다. <사진 108>과 <사진 109>는 한수리 고기순 씨 집의 '걸쒜'로 <사진 108>는 마루문, <사진 109>는 '대문'에 달린 것이다. 마지막 <사진 110>은 월림리 양명부 씨 집 창고문의 '걸쒜'다. 대부분 한쪽 문에 못을 박아 고정하고 여기에 둥근 고리를 연결한 후 다른 쪽 문의 돌출된 부분에 고리를 걸어 두는 형식의 잠금 방법이다.

(2) 공젱이

'공젱이'은 나뭇가지나 대, 못 따위를 벽에 박아서 옷이나 물건을 걸 수 있게 만든 물건을 말한다.

"(이 고리는 뭐렌 부르는 거꽈?) 공젱이주게, 공젱이." [72]
((이 고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공젱이'이지, '공젱이')



<사진 111> 양인희 씨 집 '공젱이'



<사진 112> 양인희 씨 집 '공장'

72)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사진 111>은 강구리 양인희 씨 벽에 걸려 있는 '공젱이'고, <사진 112>는 양인희 씨 집 '정지'의 한쪽 벽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다.

(3) 덩드렁과 덩드렁마께

'덩드렁'은 짚이나 대 따위를 납작하게 두드릴 때 밑에 받치는 둥글넓적한 돌을 가리키는 제주어다. '던드렁'이라고도 한다. '덩드렁마께'는 '덩드렁' 위에 짚이나 대를 올려놓고 이를 두드릴 때 쓰는 방망이를 말한다. 제주에서는 억새, 띠, '신사라(뉴질랜드삼)', 칡 등의 풀을 이용하여 생활 도구를 많이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때 '덩드렁' 위에 올려놓고 '덩드렁마께'로 두드려 재료들을 부드럽게 했다. 이삭을 두드려 알곡을 털어 내거나 감물을 들이려고 풋감을 빻을 때에도 '덩드렁마께'를 사용했다.

"거 뭐 영 때릴 때. 바구리 줄멍 그 대 두드릴 때 써난 거. 물린 거." [73]
(그거 뭐 이렇게 때릴 때. 바구니 엮으면서 그 대나무 두드릴 때 썼던 거. 물려받은 거.)

상대리 강재후 씨는 바구니를 엮을 대나무를 두드릴 때 '덩드렁'을 사용했다. 단단하고 곧은 성질의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단하면서도 잘 휘어야 한다. 이러한 대나무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차례 두드려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덩드렁' 위에 대나무를 올려놓고 여러 번 두드렸다.

"찍 놔근에 두드려근에 경 허는 거. 신도, 초신도 삼곡 조리도 저 삼아근에 신엉 다니고. 엿날은 이 쓰레빠 대력. 경허고 저 망텡이, 엿날은 바구니가 없어. 망텡이 줄앙 곡석 담곡. 또 멍석 줄곡. 찍 저것에 두드령 벨거 다 멘들앗주게." [74]
(짚 놔서 두드려서 그렇게 하는 거. 신도, 짚신도 삼고 '조리'도 저 삼아서 신고 다니고. 옛날은 이 슬리퍼 대부분. 그리고 저 망태기, 옛날은 바구니가 없어. 망태기 결어서 곡식 담고. 또 멍석 겯고. 짚 저거에 두드려서 별것 다 만들었지.)

"가마니 짤 때 노 꼬젠 허면은 찍덜 부드럽게 허기 위해서. 마께, 덩드렁마께가 그 잇는디 그걸로 두드려마씨." [75]
(가마니 짤 때 노 꼬려고 하면 짚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방망이, '덩드렁마께'가 그 있는데 그걸로 두드립니다.)

73) 상대리 강재후 씨 구술.
74) 대림리 이연옥 씨 구술.
75) 대림리 신태상 씨 구술.



<사진 113> 이연옥 씨 소장 '덩드렁'



<사진 114> '덩드렁' 사용방법을 시현 중인 이연옥 씨



<사진 115> 신태상 씨 소장 '덩드렁'



<사진 116> 고유연 씨 소장 '덩드렁'

<사진 113>은 대림리 이연옥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이다. 앞쪽에 놓인 '덩드렁'은 표면이 비교적 매끄러운 반면 다른 하나는 거칠다. 자주 쓰는 도구였기 때문에 두 개를 마련해 두고 용도에 맞는 '덩드렁'을 골라 쓴 듯하다. 이연옥 씨는 사진의 '덩드렁'에서 짚을 부드럽게 한 후 짚신이나 일본식 슬리퍼인 '조리' 등을 삼아 신었다. 뿐만 아니라 '망태기'나 '멍석'도 사진의 '덩드렁'에서 작업을 한 후 결었다. <사진 114>는 이 씨가 '덩드렁마께'로 두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115>는 대림리 신태상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으로 가장 아래 있는 것이다. <사진 116>은 동명리 고유연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이다. 사진의 '덩드렁' 모두 무언가를 올려놓고 두드리기 편하게 넓적하고 묵직한 돌을 골라 사용하고 있다.

"이거 저기 멍석, 망텡이 줄을 때 두드려난 거. 찍 두드리는 거. 찍을 덩드렁 우이 올려놩 두드리는 거. 돌 맨딱헌 거 놔근에 그 우에. 이거 우리도 써낫주게. 우리는 감도 뿟고 저런 걸로, 감물 들이젠 허민 감도 뿟고 겐 멘들앗주게. 멍석은 안 졸아도. 우리 집이 아방 멘든 거. 이런 것도 멘들고게." [76]

(이거 저기 멍석, 망태기 결을 때 두드렸던 거야. 짚 두드리는 거. 짚을 덩드렁 위에 올려놔서 두드리는 거. 돌 평평한 거 놔서 그 위에. 이거 우리도 썼었어. 우리는 감도 빻고 저런 것으로. 감물 들이려고 하면 감도 빻고 그래서 만들었지. 멍석은 안 결어도. 우리 집의 아버지(남편)이 만든 거. 이런 것도 만들고.)

"우리가 써난 거. 아버지도 쓰고 우리도 쓰곡. 우리 대에꺼지 썻주게. 우리가 이제 팔십다섯. 시아버지안티 물린 거주게. 우리 대엔 저거 얼만 안 썻주게. 저 시하르방, 시아부지 거. 대대에 시하르방부터 내려온 거주게." [77]

(우리가 썼던 거야. 아버지도 쓰고 우리도 쓰고. 우리 대에까지 썼지. 우리가 이제 팔십다섯.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지. 우리 대엔 저거 얼마 안 썼거든. 저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거. 대대로 시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거지.)



<사진 117> 양명부 씨 소장 '덩드렁마께'



<사진 118> 이연옥 씨 소장 '덩드렁마께'

<사진 117>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마께'로 양 씨의 남편이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다. 양 씨는 이것을 멍석이나 망태기를 짤 때, 짚을 '덩드렁'에 올려놓고 '덩드렁마께'로 두드렸다고 한다. 감물을 들일 풋감도 사진의 '덩드렁마께'로 빻았다. <사진 118>은 대림리 이연옥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마께'로 시할아버지가 쓰던 것을 물려받았다. 부딪힐 때마다 '덩드렁'과 부딪혔던 부분의 나뭇결이 뜯어져 나가 거칠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6)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77) 대림리 이연옥 씨 구술.

(4) 애기구덕

'애기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사용하는 '요람'을 말한다. 주로 대오리나 쇠로 그 틀을 만들었다. 아기를 '애기구덕'에 눕힌 후, 손 또는 발로 '애기구덕'을 흔들어 아기를 재웠다. '애기구덕' 안에는 그물망이 걸쳐져 있는데 그 위에 보릿대나 요를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눕혔다.

"이거 우리 뚤이영 아덜이영 이걸로 키운 거. 사 남매. (다 이걸로 헷수꽈?) 아니 마지막덜 저런 것도. 이거 모녀고 말고 저거 안 난 때 사름이 손으로 만들앙 쓴 거, 대로. 옛날엔 보릿대. 보릿대 꼴앗어. 옛날은 보리 비어난 대 꼴앗주만은 그 우에 또 영. 이거는 웨 이렇게 박앗냐 허면 헐지 말렌 박은 거주. 이것만 허면 막 밧에 가서 허면 잘 굴러도 지고, 잘도 흥글어도 지고 헐지 말라고. 빨리 닳지 말라고. 이거 삼동나무. 삼동낭. 굴룬거 박으면 잘 흔들어지고 이것이 좀 오래가지. 이거 밋창 빼짝헌 디 강 노민, 밧에 강 노민 흥글도 못허고 다 빨리 닳아져. 경허니까 이거 허면 좀 들러지니까 헐지도 안 허고 잘 흔들어지고."[78]

(이거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이걸로 키운 거야. 사 남매. (다 이걸로 했습니까?) 아니 마지막들 저런 것도. 이거 먼저고 말고 저거 안 생길 때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쓴 거, 대나무로. 옛날엔 보릿대. 보릿대 깔았어. 옛날은 보리 베었던 대 깔았지만 그 위에 또 이렇게. 이거는 왜 이렇게 박았는가 하면 헐지 말라고 박은 거지. 이것만 하면 막 밭에 가서 하면 잘 구르기도 하고, 잘 흔들어지고, 헐지 말라고. 빨리 닳지 말라고. 이거 삼동나무, 삼동나무. 군것 박으면 잘 흔들어지고 이것이 좀 오래가지. 이거 밑바닥 납작한 데 가서 놓으면, 밭에 가서 놓으면 흔들지도 못하고 다 빨리 닳아져. 그러니까 이거 하면 좀 들리니까 헐지도 않고 잘 흔들어지고.)



<사진 119> 고갑년 씨 소장 '애기구덕'



<사진 120> 고갑년 씨 소장 '애기구덕' 아래

<사진 119>와 <사진 120>은 월림리 고갑년 씨의 '애기구덕'이다. 대오리를 엮어 만든 것으로 고 씨는 사진의 '구덕'으로 사남매를 키웠다. '구덕' 안에 보이는 파란색 망 위

78) 월림리 고갑년 · 박영자 씨 구술.

에 보릿짚을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눕힌 후 '구덕'을 흔들어 아기를 재웠다. <사진 120>은 '애기구덕'을 뒤집어 그 바닥을 찍은 것이다. 바닥을 감싸고 있는 나뭇가지는 '삼동나무'다. 이는 '구덕'이 밀리는 일 없이 잘 흔들리고 또 '구덕' 바닥이 빨리 닳지 않게 박아 둔 것이라고 한다.

"우리 아덜도 키우고 손지도 키우고. 아덜은 대구덕도 헤난. 저건 뚤도 키우고 아덜도 키우고 여라 개 키왓지. 육 남매난 경허단 나중엔 손지꺼지 키왓어." [79]

(우리 아들도 키우고 손자도 키우고. 아들은 '대구덕'도 했었어. 저건 딸도 키우고 아들도 키우고 여러 명 키웠지. 육 남매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손자까지 키웠어.)



<사진 121> 고갑년 씨 소장 '애기구덕'



<사진 122> 강정자 씨 소장 '애기구덕'

<사진 121> 또한 월림리 고갑년 씨가 보관하고 있는 구덕으로 쇠로 된 것이다. 이것은 대오리로 만든 '애기구덕' 보다 후에 나온 것이다. '애기구덕'을 만든 재료가 대오리에서 쇠로 바뀌었을 뿐 '구덕' 안에 아기를 눕혀 흔들어 재우는 원리는 같다. <사진 122>는 금악리 강정자 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썼던 '애기구덕'이다. 이 '애기구덕'으로 육 남매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키웠다고 한다. <사진 121>과 <사진 122> 모두 '애기구덕'을 흔들 때 '구덕'이 밀리지 않도록 다리 부분에 천을 감아놓았다.

(5) 요강

'요강'은 실내에 두고 오줌을 누는 용기를 말한다. 사기나 놋, 쇠 등의 다양한 재료로 단지 모양으로 만든다. 실내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오늘날과 달리 용변 처리가 불편했던 과거에는 '요강'을 방 안 한쪽 구석에 두고 이를 요긴하게 썼다. 때문에 여성들이

79) 금악리 강정자 씨 구술.

‘이불’, ‘요’, ‘베개’와 함께 혼수품으로 장만해 갔던 것이 ‘요강’이다.

“요강 단지 저거 우리 시어머니가 써난 거. 저걸 그자 할망은 그자 벳기 못 나가믄 문 열어근에 그자 소변 받아나고 헷주게. 겐디 판찍헤가지고 아방 좀 아파 가지고 저걸 좀 씨여 볼려고 가져온 거.” [80]

(요강 단지 저거 우리 시어머니가 썼던 거. 저걸 그저 할머니는 그저 밖에 못 나가면 문 열고 그저 소변 받고 했지. 그런데 헐지 않아서 남편 좀 아파 가지고 저걸 좀 써 보려고 가져온 거.)

“이거 뚤 시집갈 때 해 주난 집이 가져와 불언. 아덜이 스무 살이니까 한 이십오 년 뒛지. 그때 저것에 쌀 놓고 헤연 간덴 허멍 샀어. (요강에 쌀을 놩 가마씨?) 응, 경헌덴 허대. 그릇 집에 가난 허렌 허난 헤져실 테주.)” [81]

(이거 딸 시집갈 때 해 주니까 집에 가져와 버렸어. 아들이 스무 살이니까 한 이십오 년 됐지. 그때 저것에 쌀 놓고 해서 간다고 하면서 샀어. (요강에 쌀을 놔서 갑니까?) 응, 그렇게 한다고 하대. 그릇 집에 가니까 하라고 하니까 해졌을 테지.)



<사진 123> 고옥생 씨 소장 ‘요강’



<사진 124> 김묘생 씨 소장 ‘요강’



<사진 125> 김종선 씨 소장 ‘요강’



<사진 126> 양인희 씨 소장 ‘요강’

80)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81) 명월리 오명봉 · 김묘생 씨 구술.

<사진 123>은 월령리 고옥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요강'으로 시어머니가 쓰던 것이다.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된 어머니의 소변을 받았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124>는 명월리 김묘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십오 년 정도 된 '요강'이다. 김 씨가 사용했던 '요강'은 아니다. 딸의 혼수품으로 준비해서 보낸 것을 딸이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한다. 당시 요강 안에 쌀을 넣고 시집을 가면 좋다고 하여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 <사진 125>는 수원리 김종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요강'이다. <사진 126>은 강구리 양인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요강'과 달리 스테인리스 제품이다.

(6) 방석

'방석'은 바닥에 앉을 때 엉덩이 밑에 두고 깔아서 앉는 깔개를 말한다. 실외에서 일할 때 깔고 앉는 용도로 나무나 새끼줄 따위로 만들어 사용했다. 나무로 만든 것은 '낭방석', 짚을 둥글게 모아 만든 줄로 만든 것은 '줄방석'이라 불렀다.



<사진 127> 양인희 씨 소장 '낭방석'

<사진 127>은 강구리 양인희 씨가 사용하고 있는 '낭방석'이다. '정지'에 있던 것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128> 박영자 씨 소장 '방석'



<사진 129> 홍춘화 씨 소장 고무 '방석'

<사진 128>은 월림리 박영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방석이다. 직접 만든 것으로 방석을 허리에 매달고 다닐 수 있도록 고무줄이 달려 있다. <사진 129>는 대림리 홍춘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방석이다. 스폰지가 들어 있는 것을 망으로 감싼 후 직접 기웠다. 바지를 입는 것처럼 양다리를 끼워 넣은 후 엉덩이 아래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7) 비치락

'비치락'은 표준어 '빗자루'에 해당하는 제주어로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도구다. '비치락'은 그것은 쓰이는 공간에 따라 '마당 비치락', '방 비치락' 등으로 구분하며 짚, 띠 등으로 만든다.

"그건 나 맨 거. 이거 무뚱에 씨 털어졍 난 거. 작년에 싱건 나나난 또 나신게게. 무뚱 쓸 때 쓰는 거." [82]

(그건 나 맨 거야. 이거 문 앞에 씨 떨어져서 난 거. 작년에 심어서 나더니 또 났네. 문 앞 쓸 때 쓰는 거.)



<사진 130> 강정자 씨 소장 '비치락'



<사진 131> 강정자 씨 소장 '비치락'



<사진 132> 고갑년 씨 소장 '비치락'



<사진 133> 강병출 씨 소장 '비치락'

82) 금악리 강정자 씨 구술.

<사진 130>과 <사진 131>은 모두 금악리 강정자 씨가 직접 만든 '비치락'이다. 용도에 맞게 골라 쓰기 위해 <사진 130>의 것은 짧게 만들고 <사진 131>은 길게 만들었다. 만든 재료도 다른데 <사진 130>은 집 앞 화단에 자란 식물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앞마당을 쓸 때 사용하고 있다. '비치락'은 마른 식물의 줄기를 하나하나 모아 만들었는데 그것이 빠지는 일 없도록 노끈으로 여러 차례 단단히 묶었다. <사진 131>는 대나무 '비치락'으로 이 또한 강 씨가 직접 만든 것이다. 대의 단단한 부분은 손잡이로, 잎이 무성했던 잔가지 부분은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 모으는 부분으로 활용했다. <사진 132>는 월림리 고갑년 씨가 보관하고 있는 '비치락'으로 이 역시 직접 만든 것이다. <사진 133>은 명월리 강병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대비치락'으로 상당히 길다. 이 역시 강 씨가 직접 만든 것이다.



<사진 134> 고기순 씨 소장 '비치락'

<사진 134>는 한수리 고기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비치락'이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손수 만든 것과는 달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치락'이다. 주로 방을 청소하는 용도로 쓰는데 고 씨는 집 밖을 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비치락'으로 쓸어 낸 먼지나 쓰레기를 받아내기 위한 도구 또한 필요하다. 이것을 '쓰레받기'라고 한다.



<사진 135> 이연옥 씨 소장 '쓰레받기'



<사진 136> 고기순 씨 소장 '쓰레받기'

<사진 135>는 대림리 이연옥 씨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받기'고, <사진 136>은 한수리

고기순 씨의 것이다. ‘비치락’이 쓸어 모아온 쓰레기나 먼지 등을 받아 치우는 데 사용했던 것이다. 먼지를 쉽게 받아낼 수 있게 네모 모양이며 먼지가 ‘쓰레받기’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이 평평하다.

(8) 뽐뿌

‘뽐뿌’는 자전거 타이어 따위에 공기를 넣는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펌프(pump)'의 일본어 표현(‘ポンプ’)에서 온 것이다.

“자전거 빵꾸 나면 빵꾸 막는 거.” [83]
(자전거 펑크 나면 펑크 막는 거야.)

“그거 나 자전거 탕 뎅길 때 바람 넣는 거.” [84]
(그거 나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바람 넣는 거.)



<사진 137> 고옥생 씨 소장 ‘뽐뿌’



<사진 138> 현성매 씨 소장 ‘뽐뿌’

<사진 137>은 월령리 고옥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뽐뿌’고, <사진 138>은 한수리 현성매 씨가 보관하고 있는 ‘뽐뿌’다. T자형 손잡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펌프질을 하면 공기가 긴 관을 통해 자전거 타이어에 주입되는 방식이다. 지금처럼 교통 시설이 편리하지 않던 시절, 우리 생활에 자전거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가정에서 직접 공기를 주입한 후 다시 타고 다녔다.

83)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84) 한수리 현성매 씨 구술.

(9) 성냥

'성냥'은 작은 나뭇개비의 한쪽 끝에 황 따위의 연소성 물질을 입혀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물건이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등잔불을 밝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데 사용되었던 중요한 생필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라이터가 보급되고 등잔불을 켜거나 아궁이에 불을 지필 필요가 없어지며 보기 어려운 물건이 되었다.



<사진 139> 고갑년 씨 소장 '성냥'

<사진 139>는 월림리 고갑년 씨가 사용하던 '성냥'이다. '성냥'을 담은 종이상자가 헐고 색이 바랬지만 '신흥'이라는 상품명은 명확히 보인다.

(10) 벼루

'벼루'는 먹을 가는 데 사용하는 문방구를 말한다. 각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지방문을 쓰기 위해 갖추어 두는 필수품 중 하나였다.

"나가 옛날에 쓰단 내분 거." [85]
(내가 옛날에 쓰다가 내버려 둔 거.)


<사진 140> 박순원 씨 소장 '벼루'

<사진 140>은 금악리 박순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벼루'다. '벼루'의 평평한 부분에 물을 조금 흘린 후 먹을 갈면 오른쪽 오목하게 파인 부분으로 먹물이 모여든다.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쓰는데 이때 벼루를 사용했다.

85)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11) 바둑판

'바둑판'은 바둑을 둘 때 사용하는 사각형 모양의 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19줄이 격자 무늬로 그어져 있다. '바둑판'은 주로 나무로 만든다.

"나가 헤난 거. 저거 혼 사십 년은 넘은 거라." [86]
(내가 했던 거야. 저거 한 사십 년 넘은 거야.)



<사진 141> 박순원 씨 소장 '바둑판'

<사진 141>은 금악리 박순원 씨가 사십 년 넘게 보관하고 있는 바둑판이다. 박 씨가 바둑을 두었던 것이다.

(12) 저금통

'저금통'은 동전을 모아둘 수 있게 만든 통을 말한다.

"아이덜 저금통 헤난 거." [87]
(아이들 저금통 했던 거.)



<사진 142> 양정아 씨 소장 '저금통'

<사진 142>는 한수리 양정아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나무 '저금통'이다. 자식들이 썼던 것을 보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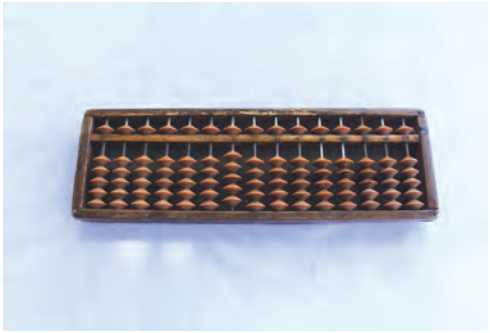
86)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87)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13) 주판

'주판'은 셈을 할 때는 쓰는 계산 기구다. 장방형으로 틀에 칸을 막은 뒤 세로로 철사나 대오리 스무여 개를 내리꿰어서 위 칸에는 보통 한 개, 아래 칸에는 다섯 개의 구슬을 꿰어 넣은 것이다.

"저거 흔 오십 년 뒈실 거여. 가게 허멍 쓰기 시작헌 거난. 처음엔, 그 육십 년대는 장서 안 헷주게. 칠십 년대 후에. 이거 집은 놈이 짓은 거라. 다른 사람이 짓은 걸 나가 샀어."[88]

(저거 한 오십 년 됐을 거야. 가게 하면서 쓰기 시작한 거니까. 처음엔, 그 육십 년대는 장사 안 했거든. 칠십 년대 후에. 이거 집은 남이 지은 거야. 다른 사람이 지은 걸 내가 샀어.)



<사진 143> 김중관 씨 소장 '주판'

<사진 143>은 한림리 김중관 씨가 지금도 쓰고 있는 '주판'으로 사용한 지 오십 년이 된 것이다. 어업 관련 물품을 파는 일을 시작한 칠십 년 대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14) 수평 측정하는 도구

측정하고자 하는 면이 평평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재거나 기울기를 조사하는 데 쓰는 기구다. 양 끝을 막고 큰 원호(圓弧)의 일부를 이룬 유리관 속에 일정한 기포를 남겨 두고 알코올을 넣어 만든다. 기계를 수평으로 놓았을 때의 기포의 위치를 0점으로 하는 눈금이 새겨져 있다.

"그건 수평. 옛날에 그걸로 수평 재낫주게. (옛날에 뭐 헐 때 수평 재는 게 필요허꽈?) 집 거튼 거 뭐 고칠 때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89]

(그건 수평. 옛날에 그걸로 수평 쟀었거든. (옛날에 뭐 할 때 수평 재는 게 필요합니까?) 집 같은 거 뭐 고칠 때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88)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89)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사진 144> 김중관 씨 소장 수평 측정하는 도구



<사진 145> 눈금 부분을 확대 촬영한 것

<사진 144>는 한림리 김중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수평을 측정하는 도구다. <사진 145>는 수평의 정도가 표시되는 원호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다. 김 씨는 이 도구로 수평을 측정하며 집을 수리했다고 한다.

4. 농업 관련

한림읍 사람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왔다. 자급자족의 농경사회에서는 보리, 조, 메밀, 고구마 등 식량이 되는 작물을 주로 재배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곡물 중심의 농업 구조가 각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요건에 맞추어 다양화하고 있다. 한림읍 지역에서는 감귤,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등 과실과 채소류, 특용작물의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산업의 발달은 한림읍을 비롯한 제주의 각 지역의 농업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전통 방식의 농업 방법은 점차 잊혀 가고 있고 농업 도구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장에서는 농업 관련 도구를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도구, 건조와 손질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 기타 도구로 나눠 정리하였다.

4.1. 파종 관련

4.1.1. 밭갈이 도구

(1) 쟁기

'쟁기'는 논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다. 멍에와 한 쌍을 이루어 소나 말에 매어 밭을 간다. '쟁기'를 제주에서는 '잠대'라고 하는데 제보자에 따라 '장기', '장게'라고 한다.

"쟁기 저건 나가 보관헐랴고 놔둔 거. 우리 아부지가 써난 거주게. 결혼허건 디 사십 년이 넘어시난, 우리 아부지 저거 허건디, 옛날 아부지 어린 때부터 농서일 헤시난 지금 아부지가 살아시민 백 열넷가, 그 정도 됏주게. 쟁기로 칠십 년 이상 밧 갈앗주게. 저거 두 번째 쓰단 거. 처음 멘든 건 다 헐언. 저건 새로 멘든 거." [1)]

1) 상대리 강재후 씨 구술.

(쟁기 저건 내가 보관하려고 놔둔 거. 우리 아버지가 썼던 거지. 결혼한 지 사십 년 넘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저거 한 지, 옛날 아부지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 했으니까 지금 아버지가 살았으면 백열넷인가, 그 정도 됐지. 쟁기로 칠십 년 이상 밭 갈았지. 저거 두 번째 쓰던 거. 처음 만든 건 다 헐었어. 저건 새로 만든 거.)



<사진 1> 강재후 씨 소장 '쟁기'



<사진 2> 박영자 씨 소장 '잠대'

<사진 1>은 상대리 강재후 씨(1952년생)의 '쟁기'다. 아버지가 사용했던 것을 창고 천장에 걸어 보관하고 있다. 사진의 '쟁기'는 아버지가 두 번째로 만든 '쟁기'다. 첫 번째 것이 헐어서 못쓰게 되자 다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강 씨의 아버지는 칠십 년 이상 '쟁기'로 밭을 갈며 농사를 지었다. <사진 2>는 월림리 박영자 씨(1930년생) 남편이 사용했던 '잠대'다.

"(밧 갈젠 허민) 뭐 쟁기도 잇어야 뒈곡 멍에도 잇어야 뒈곡." [2]
((밭 갈려고 하면) 뭐 쟁기도 있어야 되고 멍에도 있어야 되고.)

경운기 등의 기계가 보급되기 전 농경사회에서 쟁기는 밭갈이를 위해 꼭 필요한 도구였다. 소의 등에 멍에를 얹고 줄을 연결하여 쟁기를 이었다. 밭을 갈려고 하면 꼭 쟁기와 멍에가 있어야 했다.

"이 하르방 그런 거 다 멩그는 하르방. 엿날에 산에 강 나무 헤당 다 멩그랑 잠대 다 멩그랑 밧 갈앗네. 이 집도 다 하르방 짓은 거." [3]
(이 할아버지(남편) 그런 거 다 만드는 할아버지.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다 만들어서 쟁기 다 만들어서 밭 갈았어. 이 집도 다 할아버지 지은 거.)

2)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3) 금악리 강정자 씨 구술.

금악리 양원석 씨(1939년생)는 쟁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자신의 쟁기만이 아니라 이웃의 쟁기까지 만들었었다고 한다. 양 씨에게 쟁기 만드는 과정이나 쟁기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삼춘 잠대는 무슨 낭으로 멩글아수꽈?) 들어봐신가, 솔피낭이엔 헌 거 잇어, 솔피낭. 한라산 가사 잇어. 질겨, 솔피낭이. 그게 이제 ᄃᆞᆼ이는 힘에도 질기고, 비에도 질기고."[4]

((삼촌 쟁기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들어봤는가, 솔비나무라고 하는 거 있어, 솔비나무. 한라산 가야 있어. 질겨, 솔비나무가. 그게 이제 당기는 힘에도 질기고, 비에도 질기고.)

"성에도 솔피낭, 뭉클도 솔피낭, 설칫도 솔피낭. 근데 양주머리는 아무것도 뒈여. 건 소낭도 뒈곡, 아무것도 뒈곡."[5]

(성에도 솔비나무, 쟁깃술도 솔비나무, 한마루도 솔비나무. 그런데 양지머리는 아무것이라도 돼. 그건 소나무도 되고, 아무것이라도 되고.)

아무 나무나 쟁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 씨는 쟁기는 솔비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솔비나무는 질겨서 당겨도 잘 부서지지 않고 비에도 강하다. 솔비나무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라산에 올라 나무를 구해 왔다. 쟁기의 성에, 한마루, 쟁깃술 모두 솔비나무로 만들었다. 다만 손잡이 부분인 양지머리는 아무 나무라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 나무는 귀한 나무라, 이건. 우리가 이거 이제 허레 한라산 올라강, 이제는 못도 뎅기게 허고 허주만은, 한라산 올라가도 이게 이 솔피낭이렌 헌 게 이렇게 구짝 곧은 놈이, 이 지럭시 나오는 게 경 쉽질 안혜. 경허면은 이제 산에서 이게 자귀 ᄀᆞ졍 강 전부 가까, 어느 정도. 그 졍 내려옴에 가붑게 오젱 허민 산에서 밤 자멍, 하나 봉그민 거기서 가까, 어느 정도. 집에 강 약간 다듬앙 쓸 수 잇게끔 다듬앙 걸머져야 내려오지. 이거 통채로 이걸 헤영, 한라산에서 졍 내려오질 못헤여."[6]

(이 나무는 귀한 나무야, 이건. 우리가 이거 이제 하러 한라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못 다니게 하고 하지만, 한라산 올라가도 이게 이 솔비나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똑바르게 곧은 놈이, 이 길이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산에서 이게 자귀 가지고 가서 전부 깎아, 어느 정도. 그 지고 내려오기에 가볍게 오려고 하면 산에서 밤 자면서, 하나 구하면 거기서 깎아, 어느 정도. 집에 가서 약간 다듬고 쓸 수 있게끔 다듬어서 걸머져야 내려오지. 이걸 통째로 이걸 해서, 한라산에서 지고 내려오지 못해.)

4)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5)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6)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보통 우리가 어디ᄁᆡ지 갓느냐면 저 천백고지 아래 큰 오름. 보통 천백고지 밑에 그 큰 오름 거기ᄁᆡ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여기 이거 짐 졍 내려오는 거 장난 아니. 게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다 다듬아 둬 집이 오라근에 대패질허곡 허는 그런 정도 나무대만 허영 ᄂᆞ려오지."[7]

(보통 우리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저 천백고지 아래 큰 오름. 보통 천백고지 밑에 그 큰 오름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여기 이거 짐 지고 내려오는 거 장난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다 다듬어 두고 집에 와서 대패질하고 하는 그런 정도 나무만 해서 내려오지.)

쟁기를 만드는 일은 나무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한라산 천백고지 아래쪽까지 가면 쟁기를 만들 만한 나무를 구할 수 있다. 적당한 나무를 발견하면 그것을 베어 다듬는다. 나무를 통째 지고 산을 내려오기 힘들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 쟁기의 모양을 갖추는 일은 모두 산속에서 이루어졌다. 집에 돌아와서는 대패질만 하면 쟁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산속에서 밤을 보내며 나무를 손질했다.

"(쟁기 만들 때) 공이 더 가는 건 뭉클. 이거는 그냥 쫙 곧은 거 ᄀᆞ졍 이쪽으로 훌트곡 이쪽으로 훌트곡 허는 것만 허주만은 이거는 여기서 꾸부리는 각도ᄁᆡ지 거의 다 맞춰야 뒈니까. 경헹 이 멍에에도 구멍 내고, 여기 몽클에도 구멍 냉 설칫을 끼우는 거라. 견디 구멍이 하나토, 이 구멍이 바른 구멍이 아니라. 이 구멍도 바른 구멍 아니고. 이기도 굳작허곡 이기도 굳작허믄 허민 이거 끼우지 못헤여. 각도가 다 틀리니까. 구멍이 똑바로 그냥 일직선으로 두 개 다 뚤름을 허민 이거 각도 안 맞앙 이거 끼우지 못헤여."[8]

(쟁기 만들 때 공이 더 가는 건 쟁깃술. 이것(성에)은 그냥 쫙 곧은 거 가지고 이쪽으로 훑고 이쪽으로 훑고 하는 것만 하지만 이것(쟁깃술)은 여기서 구부리는 각도까지 거의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멍에에도 구멍 내고, 여기 쟁깃술에도 구멍 내서 한마루를 끼우는 거야. 그런데 구멍이 하나도, 이 구멍이 바른 구멍이 아니야. 이 구멍도 바른 구멍 아니고. 여기도 곧고 여기도 곧으면 이거 끼우지 못해. 각도가 다 다르니까. 구멍이 똑바로 그냥 일직선으로 두 개 다 뚫으면 이거 각도 안 맞아서 이거 끼우지 못해.)

쟁기를 만들 때 제일 공이 드는 건 쟁깃술 부분이다. 성에는 곧게 쭉 뻗은 부분이기에 대패 등으로 훑어 내면 되지만, 쟁깃술은 각도를 맞추면서 구부려야 하기에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 성에와 쟁깃술 사이에 곧은 나무를 꽂는데 그것을 한마루라고 한다. 이 한마루를 바르게 꽂기 위해 성에와 쟁깃술의 구멍 또한 기울기를 맞추어 뚫어야 한다. 쟁깃술이나 성에에 구멍을 일직선으로 바르게 뚫으면 한마루를 끼우지 못하게 된다.

7)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8)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설칫에 구멍이 잇지. 들어가는 게 잇거든. 경허면은, 이게 조금 더 내려와 이레, 내려올 수 잇어. 쭉 올라갈 수도 잇곡. 뜸이라, 이게. 일정한 간격 내에서 저 구멍 하나 뚤르면은 거기서 뜸을 하나 더 놓고, 하나 덜 놓고 허는, 뜸만 이제 두 갤 놓느냐 하날 놓느냐 허멍 쓰는 거지. 저 구멍은 일단 하나 뚤르면 더 안 뚤버. 근데 이게(설칫), 이게 약헌 거라. 낭이 질긴 낭으로 허니까 그렇지. 두께가 나 손가락 두께벳긴 안 만들어야 뒈여. 이게 두껍다 허면은 성에 이게 약해지거든." [9]

(한마루에 구멍이 있지. 들어가는 게 있거든.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내려와 이리, 내려올 수 있어. 쭉 올라갈 수도 있고. '뜸'이야, 이게. 일정한 간격 내에서 저 구멍 하나 뚫으면 거기서 '뜸'을 하나 더 놓고, 하나 덜 놓고 하는, '뜸'만 이제 두 개를 놓느냐 하나를 놓느냐 하면서 쓰는 거지. 저 구멍은 일단 하나 뚫으면 더 안 뚫어. 그런데 이게(한마루), 이게 약한 거야. 나무가 질긴 나무로 하니까 그렇게. 두께가 내 손가락 두께밖에 안 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두껍다 하면 성에 이게 약해지거든.)

"이제 땅에 잘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허젱 허면은 요 설칫 요 우이서, 성에 사이에서 이제 뜸이라고 헤 가지고 이걸 영 더 놔불민 이게 좀 덜 들어가. 아가리가 좁아질 거 아니? 좁아지지. 경헹 덜 들어가고 걸 앗아 불민 더 들어가고." [10]

(이제 땅에 잘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요 한마루 요 위에서, 성에 사이에서 이제 '뜸'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더 놓으면 이게 조금 덜 들어가. 입이 좁아질 거 아니? 좁아지지. 그래서 덜 들어가고 그걸 가져 버리면 더 들어가고.)

한편, 쟁기로 밭을 갈 때 땅속에 들어가는 각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다. 성에와 한마루가 연결된 윗부분에 끼우는 이것을 '뜸'이라고 한다. '뜸'을 더 놓으면 성에와 쟁깃술 사이가 좁아진다. 그러면 쟁깃술 끝에 꽂혀 있는 보습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경사가 낮아진다. 즉, 땅이 얕게 갈린다.

"이거 돌벵이뿔. 그거는 이제 멍에에서, 쉐 이제 멍에 헤영. 쉐 ᄃᆞᆼ여 주젱 허면은 이디 오랑 이 성에에 걸령 이디 무꺼 줘야. 쉐가 ᄃᆞᆼ이민 쟁기가 쫓아갈 거 아니?" [11]

(이거 물추리막대. 그거는 이제 멍에에서, 소 이제 멍에 해서. 소 당겨 주려고 하면 여기 와서 이 성에에 걸려서 여기 묶어 줘야. 소가 당기면 쟁기가 쫓아갈 거 아니?)

"(돌벵이뿔은 무슨 낭으로 헙니까?) 건 아무거나 헤도 뒈고 어쨌든 질긴 낭이니까 뭐 윤누리낭이나 그런 거 헹 끼와도 뒈고." [12]

(물추리막대는 무슨 나무로 합니까?) 그건 아무거나 해도 되고 어쨌든 질긴 나무니까 뭐 윤노리나무나 그런 거 해서 끼워도 되고.)

9)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10)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11)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12)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돌벵이뿔’은 쟁기의 성에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로 표준어로는 ‘물추리막대’라고 한다. 소가 쟁기를 끌며 밭을 갈기 위해서는 소와 쟁기를 연결시켜야 하는데, 소 등에 멍에를 씌우고 멍에에서 뻗은 줄을 쟁기 끝 물추리막대에 묶어 연결한다. 물추리막대도 질긴 나무면 어떤 나무라고 괜찮다. 대표적으로 윤노리나무를 많이 사용한다.

“이게 멍에고, 이거 이제 솜비줄. 이거 양쪽으로 간 게 솜비줄.”[13]
(이게 멍에고, 이거 이제 봇줄. 이거 양쪽으로 간 게 봇줄.)

“가린석이엔 헌 거는, 육진 하나를 잡앙 이라이라 자라자라 허는데 제주도는 양쪽에 무꺼. 겡 이레 뗑기고 싶으민 이짝으로 뗑기곡, 이짝으로 뗑기곡 허는 거 이게 가린석이렌 헌 게 잇어.”[14]
(‘가린석’이라고 하는 거는, 육지는 하나를 잡고 이라이라 자라자라 허는데 제주도는 양쪽에 묶어. 그래서 이리 당기고 싶으면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고 하는 거 이게 ‘가린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소에 멍에를 매고 쟁기를 연결하는 봇줄을 제주어로는 ‘솜비줄’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의 양쪽 뿔이나 굴레에 잡아매어 소가 움직이는 방향을 조절하는 고삐를 쓰는 줄을 ‘가린석’이라고 한다. 이 ‘가린석’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소를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싶으면 오른쪽 줄을 당기고 왼쪽으로 돌고 싶으면 왼쪽 줄을 당긴다. 금악리 양원석 씨는 밭을 갈 때 소를 부리는 양쪽 줄 모두를 ‘가린석’이라고 했다. 양 씨는 쟁기뿐만 아니라 ‘솜비줄’이나 ‘가린석’에 사용하는 줄도 모두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

“줄은 옛날에는 뭣으로 멘들어신곤 허믄 이제, 저 푸슴이엔 헌 거 잇어. 풀 이름, 줄기. 그거 허영 이제. 만들기도 허엿고, 또 글후제는 뭘로 만들어신고 허면은 소리낭. 도토리낭 비스름헌 건디 소리낭이라고 잇어. 그거를 이제, 얼마 늙지 아닌 거, 요 둘렌 헌 거. 이걸 중간으로 찍으멍 이제 납작허게 톡 찍엉 영 ᄃᆞ이곡 헤영. 껍데기 말고 낭 술이라 그게. 그거를 베껴근에 그걸로 꼬아 밸.”[15]
(줄은 옛날에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이제, 저 남오미자라고 하는 거 있어. 풀 이름, 줄기. 그거 해서 이제. 만들기도 했고, 또 그 후에는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 소리나무. 도토리나무 비슷한 건데 소리나무라고 있어. 그것을 이제, 얼마 늙지 않은 거, 요 둘레는 하는 거. 이걸 중간으로 찍으면서 이제 납작하게 톡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당기고 해서. 껍데기 말고 나무 살이야 그게. 그것을 벗겨서 그것으로 꼬아 바를.)

13)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14)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15)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이제 낭 산 채로 그거 그냥 헤영 오면은. 그거 벌러 내지 못헤여. 낭 산 채에서. 심거진, 낭 크는 디서 존동으로 허영 베껴 그걸. 경허영 이제 실 사리만썩 그걸 전부 다 찢어. 찢엉 그걸로 꼬와. 그걸 영 이 손가락 세 개 합친 것만썩 헤영 꼬아. 꽈 놩 이제 그걸 다시 세 곱으로 또 줄을 또 만들어. 경허면은 이마니 솔지게 나와 그게." [16]

(이제 나무 살아 있는 채로 그거 그냥 해서 오면은. 그거 쪼개 내지 못해. 나무 살아 있는 채에서. 심어진, 나무 크는 데서 굵은 줄기로 해서 벗겨 그걸. 그래서 이제 실 사리만큼씩 그걸 전부 다 찢어. 찢어서 그걸로 꼬아. 그걸 이렇게 이 손가락 세 개 합친 것만큼씩 해서 꼬아. 꼬아 놓고 이제 그걸 다시 세 곱으로 또 줄을 또 만들어. 그러면 이만큼 굵게 나와 그게.)

양원석 씨는 줄을 만들 때 제주어로 '푸슴'이라고 하는 덩굴식물인 남오미자나 소리나무 줄기를 이용했다. 나무를 자르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나무껍질을 벗겨 내고 속 줄기를 떼어낸다. 줄기를 실처럼 찢어 그것을 꼬아서 바를 만든다.

"(그거 줄 꼬울 때 그거 물 멕영 몰리고 하는 작업 안 헤?) 건 그냥 저 그거 헤다근에 바로 허면은 저기 허곡 몰렷당 허젠 허민은 물을 좀 축축허게 쳐 줘야 이제 꼬아지거든. 경헤영 이제 이 줄 멘들 때에는 이제 사람 손으로 안 뒈어. 뭐 낭, 뭐 이런 차세라도 영 부쪄 놩 이걸로 데와사 그거 데와지지. 사람 힘으로 못 데와." [17]

((그거 줄 꼴 때 그거 물 먹여서 말리고 하는 작업 안 해?) 그건 그냥 저 그거 해다가 바로 하면 저기 하고 말렸다가 하려고 하면 물을 좀 축축하게 쳐 줘야 이제 꼬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이 줄 만들 때에는 이제 사람 손으로 안 돼. 뭐 나무, 뭐 이런 '차세'라도 이렇게 붙여 놓고 이걸로 꼬아야 그거 꼴 수 있지. 사람 힘으로 못 꼬아.)

"(솜비줄 멘들 때는) 호롱이 필요 엇이 그냥 막대기 요만이 진 거 허영. 이레 꼽아서. 영 영 사람 손으로 힘들게 헤야 뒈어. 게믄 이게, 바짝 이거 헤지민 세 가닥을 합쳥 배 하날 또 만드는 거라. 경헹 이거 솜비줄 뜨는 거." [18]

((봇줄 만들 때는) '호롱이' 필요 없이 그냥 막대기 요만큼 긴 거 해서. 이리 꽂아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 손으로 힘들게 해야 돼. 그럼 이게, 바짝 이거 하면 세 가닥을 합쳐서 배 하나를 또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봇줄 뜨는 거.)

사람의 손으로 줄을 꼬기는 힘들다. 그래서 줄을 꼬는 도구가 필요했다. 이때 지붕을 이는 '집줄'을 꼴 때 사용하는 '호롱이'는 필요 없이 짧은 막대를 줄 사이에 넣어 돌리면 된다. 이 나무 막대를 '차세'라고 부른다. 봇줄 따위를 만들 때 한 번 줄을 꼬고 나서 '차

16)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17)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18)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세’에 끼워 드린다. 세 가닥을 하나로 드리면 튼튼한 줄이 만들어진다.

“글후제는 이제 보니까는 이 나일론 줄들이 나오기 시작허잖아서게. 게난 이제 글후제는 이제 나일론 줄 ᄀᆞ정 그냥. 뭐 그거 못 견디게 무사 헤여. 나일론 줄 그거 이신디게.” [19]

(그 후에는 이제 보니까 이 나일론 줄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나일론 줄 가져서 그냥 뭐 그거 못 견디게 왜 해. 나일론 줄 그거 있으니까.)

나무의 줄기나 덩굴식물의 줄기를 이용하여 바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나일론 줄이 나오면서는 더이상 힘들게 줄을 꼬아 만들지 않아도 됐다.

(2) 멍에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한다. 소나 말을 수레에 연결하여 수레를 끌게 하거나 쟁기에 연결하여 밭을 갈게 할 때 쓰는 도구다.

“멍에는 어쨋든 저 몰에 멍에 필요할 거는 마차 끗을 때 쓰는 거여. 몰에 이제 그 마차 끗을 때에는 질메도 틀려. 이거 하나에다가 이제 그 이 차경이, 저 마차에 차경이라고 잇어. 영 쭉 끈 거. 거기 다 고리 잇어. 경허면은 그 질메에다가 그 고리 탁 걸어. 고리 탁 걸엉 아까 준등 메면은 이제 이걸 끗어 줘야 뒐 거 아니라. 끗어 주젠 험을 허면은 이 몰에도 멍에가 잇어야 끗는 거라.” [20]

(멍에는 어쨌든 저 말에 멍에 필요할 거는 마차 끌 때 쓰는 거야. 말에 이제 그 마차 끌 때에는 길마도 달라. 이거 하나에다가 이제 이 채가, 저 마차에 채라고 있어. 이렇게 쭉 끄는 거. 거기에 고리 있어. 그러면 그 길마에다가 그 고리를 탁 걸어. 고리 탁 걸고 아까 등을 매면 이제 이걸 끌어 줘야 될 거 아니야. 끌어 주려고 하면 이 말에도 멍에가 있어야 끄는 거야.)

멍에는 밭갈이 소에게 쟁기를 연결할 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말에게 마차를 끌게 할 때도 필요하다. 멍에에 길마를 연결하고 그 길마의 고리에 마차의 채(마차 앞쪽 양옆으로 댄 긴 나무)를 끼워 연결하면 말이 마차를 끌 수 있게 된다.

“멍에 요 가운디서 고망이 이렇게 뚧아져 잇어. 영 뚧아졍 쉐에 강 영 씌움을 허면은 이제 좁게엔 헤 가지고 옛날 윤누리낭, 윤누리낭 말 들어봐신가? 윤누리낭이 잇어. 그게 아주 질긴 낭이라. 그게 이 쉐 좁게도 허곡, 또 저 뭐냐 도께, 도리께 멘드는 데 써.” [21]

19)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0)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1)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멍에 요 가운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이렇게 뚫려서 소에 가서 이렇게 씌우기만 하면 이제 '줍게'라고 해 가지고 옛날 윤노리나무, 윤노리나무라고 말 들어봤는가? 윤노리나무 있어. 그게 아주 질긴 나무야. 그게 이 소 '줍게'도 하고, 또 저 뭐냐 도리깨, 도리깨 만드는 데 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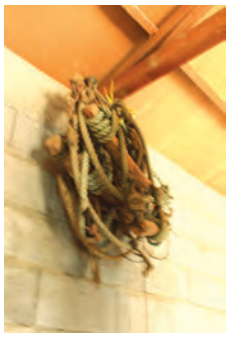
"그 윤누리낭 허영 이거 이제 줍게를 두 개 영 허민. 영 내려왕 허민 요디 오랑 톡 줄로 무꺼. 경 허민 이 모가지 이제 이 멍에를 지탱허영 당이민 나가는 거라."[22]
(그 윤노리나무 해서 이거 이제 '줍게'를 두 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하면 여기 와서 톡 줄로 묶어. 그러면 이 모가지 이제 이 멍에를 지탱해서 당기면 나가는 거야.)

밭을 갈기 위해 소에 쟁기를 연결할 때 소의 목에는 멍에를 씌운다. 이때 멍에의 가운데 부분에는 간격을 두고 두 개의 가는 막대가 끼워져 있다. '줍게'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소의 목덜미에 멍에를 대면 소의 목을 양쪽으로 감싼다. 이 '줍게'를 소의 목에 매어 묶어주면 멍에를 지탱하면서 소가 쟁기를 끌 수 있게 된다.

"(등에만 등테걸이 줄 하나 잇어, 배에는 엇어. 등에만 잡아 줭 있으면은 배로는 관계가 없어."[23]
(등에만 '등테걸이' 줄 하나 있어. 배에는 없어. 등에만 잡아 주고 있으면은 배로는 관계가 없어.)

또, 소의 등 부분에는 '등테걸이' 줄이 있는데 이것은 쟁기로 이어지는 봇줄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사진 3> 신태상 씨 소장 '멍에'


<사진 4> 박영자 씨 소장 '멍에'

<사진 3>은 대림리 신태상 씨(194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멍에'다. 가운데에 '줍게'를 끼웠던 구멍이 보인다. 간격을 달리하여 두 쌍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의 크기

22)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3)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에 따라 '줍게'를 맞춰 끼우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4>는 월림리 박영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멍에'다. 박 씨의 남편이 사용했던 것으로, 박 씨의 농장 창고에는 두 개의 쟁기와 두 개의 멍에가 걸려 있었다.

"(멍에는) 낭 자체를 그런 걸 구해 와야 뒈여. 굳작헌 낭이 아니라, 원래 멍에 멘드는 낭은 영 휘아진 낭이라. 이렇게 영헌 걸로 헤야 뒈여." [24]

(멍에는 나무 자체를 그런 걸 구해 와야 돼. 곧은 나무가 아니라, 원래 멍에 만드는 나무는 이렇게 휘어진 나무야. 이렇게 이런 걸로 해야 돼.)

"멍에는 보통 뭔 낭으로 만드느냐면 머구낭. 머구낭이 가벼워. 저거 그냥 저기 할 때 툭 치민 잘 부러지는 거 닮아도 저거 몰름을 허면은 꽤 돈돈한 낭이라. 근디 그 대신에 게벼와. 게민 이제 머구낭으로 많이 만들어." [25]

(멍에는 보통 무슨 나무로 만드느냐 하면 머귀나무. 머귀나무가 가벼워. 저거 그냥 저기 할 때 툭 치면 잘 부러지는 거 같아도 저거 마르기만 하면 꽤 단단한 나무야. 그런데 그 대신에 가벼워. 그럼 이제 머귀나무로 많이 만들어.)

멍에는 소의 목덜미에 대는 나무로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휘어 있다. 금악리 양원석 씨는 멍에는 보통 가볍고 단단한 머귀나무가 좋은데 처음부터 휘어 있는 나무를 잘 골라야 한다고 한다. 또 소 목덜미에 올리는 만큼 가벼운나무면 더 좋았다. 머귀나무는 마르면 단단하면서도 가벼워 멍에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멍에도 여자 쉐랑 남자 쉐랑 크기가 ᄐᆞ납니까?) 틀리지. 그게 틀리는 게, 아까도 얘기헷지만, 줍게 이 고망이 멀어. 부룽이는 모가지가 이만허잖아? 게민 그거 맞추젠 허면은 이게 영헤영, 영 헤여도 안 뒈는 거고, 부룽이는 구멍도 ᄒᆞ꼼 이 벳낏쪽더레 내치주만은. 이 옆더레 비끼는 게 더 빗겨. 암쉐는 이만이만 헤도 뒈는데 부룽이는 이렇게 (각도가) 벌어져야 뒈여. 구멍 내는 각도가 아주 더 누워야 뒈여. 이 기럭시도 다르고. 두께는 다를 필요엇고." [26]

((멍에도 여자 소와 남자 소와 크기가 다릅니까?) 다르지. 그게 다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줍게' 이 구멍이 멀어. 부룩소는 모가지가 이만하잖아? 그럼 그거 맞추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부룩소는 구멍도 조금 이 바깥쪽으로 내치지만. 이 옆으로 비키는 게 더 비켜. 암소는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부룩소는 이렇게 각도가 벌어져야 돼. 구멍 내는 각도가 아주 더 누워야 돼. 이 길이도 다르고. 두께는 다를 필요 없고.)

24)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5)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6)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멍에는 수소인지 암소인지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부룩소는 목덜미가 굵기 때문에 '좁게'를 끼우는 구멍의 간격을 암소의 것보다 넓게 하고 구멍을 더 기울어지게 내야 한다. 앞의 <사진 3>의 멍에에 간격을 달리하여 두 쌍의 구멍이 나 있는 것은 밭을 가는 소가 암소인지 수소인지에 '좁게'를 꽂는 구멍을 달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윤누리낭 이 곡지 부튼 걸 짤라 와야 뒈여. 원래 낭 몸뗑이에서 그걸 짤를 때에 곡지를 부트게 만들어 와야 뒈여. 경허고 윤노리낭 좁게도 이렇게 휘와야 뒈여. 불에 구웡. 게난 불에 구웡, 아예 젖은 때 불에 궝 딱 휘아근에 그 형태 만들엉 딱 놔둬 몰려야 뒈여. 경헤야 딱 갖다 놓으민 이거 모가지가 딱 맞아." [27]

(윤노리나무 이 꼭지 붙은 걸 잘라 와야 돼. 원래 나무 몸통에서 그것을 자를 때 꼭지를 붙게 만들어 와야 돼. 그리고 윤노리나무 '좁게'도 이렇게 휘게 해야 돼. 불에 구워서. 그러니까 불에 구워서, 아예 젖었을 때 불에 구워서 딱 휘어서 그 형태를 만들어서 딱 놔두고 말려야 돼. 그래야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모가지가 딱 맞아.)

멍에의 '좁게'는 보통 윤노리나무로 만든다. 멍에에 뚫은 구멍으로 '좁게'가 빠지지 않고 걸리도록 윤노리나무의 한쪽 끝은 나뭇가지의 밑부분인 옹이를 살려 나무를 준비한다. 그리고 소의 목을 감싸기 좋게 나무를 휘어 놓는다. 젖은 윤노리나무를 불에 구워 가면서 휘어 놓고 잘 말리면 그 모양이 유지된다고 한다.

(3) 보섭과 벳

'보섭'과 '벳'은 쟁기에 끼워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다. '보섭'은 표준어 '보습'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쟁기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쇳조각이다. '벳'은 표준어 '볏'의 제주어로, '보섭' 위에 비스듬하게 덧대는 것이다. '벳'은 '보섭'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보섭은) 땅 파는 거. 요 끗 틈에, 몽클 맨 끝에 끼울 거." [28]
((보습은) 땅 파는 거. 요 끝 틈에, 쟁깃술 맨 끝에 끼울 거.)

27)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8)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벳은 한 번 허민 거의 평생 써도 남고 보섭은 농사 많이 지는 사람은 일 년에 혼 번썩 교환헤야 뒈고. 혼 일 년 갈아 불믄, 이거 딱 다여 불엉 뭉클락허민 땅속에 안 들어가잖아. 경헹 쉐도 힘들고. 겡 이거는 일 년에 하나 써야 뒈고 벳은 이거 ᄒᆞ나민 나 쓰당 우리 아덜꺼지 줘도 뒈고." [29]

(볏은 한 번 하면 거의 평생 써도 남고 보습은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일 년에 한 번씩 교환해야 되고. 한 일 년 갈아 버리면 이거, 이거 딱 다여 버려서 뭉툭하면 땅속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소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일 년에 하나 써야 되고 볏은 이거 하나면 내가 쓰다가 우리 아들까지 줘도 되고.)

보습은 쟁기로 밭을 갈 때 땅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사용할수록 닳게 된다. 돌이 많은 밭은 더 빨리 닳는다. 그래서 '보섭'은 자주 교체해야 한다. 반면 '벳'은 대를 물리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건 부시대경 영 몽글앗주게." [30]

(이건 마구 부딪게 해서 이렇게 닳았지.)



<사진 5> 박영자 씨 소장 '보섭'



<사진 6> 양인희 씨 소장 '보섭'

<사진 5>는 월림리 박영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보섭'이다. '보섭'의 끝이나 쟁기에 끼우는 부분이 닳아 떨어져 나갔다. <사진 6>은 강구리 양인희 씨(192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보섭'이다. <사진 5>보다는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거 쓰지 안헤 부난 녹슬언. 거 무쉐, 무쉐. 쒜가 무쉐." [31]

(그거 쓰지 않으니까 녹슬었어. 그거 무쇠, 무쇠. 쇠가 무쇠.)

29)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30)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31) 상대리 강재후 씨 구술.



<사진 7> 강재후 씨 소장 '벳'



<사진 8> 강재후 씨 소장 '벳'

<사진 7>과 <사진 8>은 상대리 강재후 씨가 사용했던 '벳'이다. 무쇠로 만든 '벳'이 사용하지 않아 녹이 슨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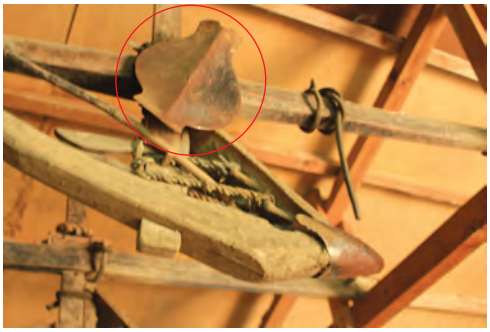
"벳은 요 옆에, 이거 영 뒤집은 상태에서 요거 요 설칫더레 강 부치면은 딱 부뜨게 뒈 잇어. 이거 그냥 이 보섭 이레 꽂은 냥 이게 벳디 설칫에 강 딱 댐을 허면은 요기가 딱 요디허고 딱 맞아." [32]
(벼은 요 옆에, 이거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요거 요 한마루로 가서 붙이면 딱 붙게 돼 있어. 이거 그냥 이 보습 이리 꽂은 채 이게 벼에 한마루에 가서 딱 대면 여기가 딱 여기하고 딱 맞아.)

'벳'은 <사진 8>과 같이 편편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고리가 있는 면을 쟁기의 한마루와 쟁깃술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어 묶는다. <사진 7>의 보이는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여 쟁기쪽에 닿는 부분이다.

한편, '벳'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골벳'과 '중경벳'으로 구분한다. '골벳'은 고랑을 만들어 가는 벼이다. <사진 7>, <사진 8>의 벼이 '골벳'에 해당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벳'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경벳'은 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고랑을 갈아 두둑으로 흙을 올리는 사이갈이를 할 때 쓰는 벼이다.

"요 돌아멘 납작헌 건 중경 헐 때 쓰는 거." [33]
(요 달아맨 납작한 건 중경 할 때 쓰는 거.)

32)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33)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사진 9> 박영자 씨 소장 '중경벳'

<사진 9>는 월림리 박영자 씨의 창고에 걸어둔 쟁기의 앞부분 모습이다. 쟁기 끝에는 보습이 꽂혀 있고 위쪽으로 납작한 것이 보이는데(동그라미 안), 농작물에 흙을 올려 주는 중경을 할 때 사용하는 '중경벳'이다.

"이거 중경허는 거. 이거는 저 보통 장게에도 안 메왓고, 경운기 나온 후제. 옛날 이거 중경벳 엇엇어." [34]

(이거 중경하는 거. 이것은 저 보통 쟁기에도 안 메웠고, 경운기 나온 후에. 옛날 이거 '중경벳' 없었어.)

금악리 양원석 씨는 경운기가 보급되기 전, 쟁기로 밭을 갈던 시기에는 '중경벳'이 없었다고 한다.

"이거는(중경벳을 가리킴) 저 주물 무쉐로 멘든 거 아니. 이 뭐 스뎅이나 뭐. 이런 거 허여 가지고 두드려 패연에 그냥 아무나 이거 만들엉 쓸 수 잇는 거고, 이거는 주물인디 본 헤여 가지고 주물 헤영 비왕 이거 본 헤영 만들어 내는 거. 솟 멘들 듯. 게니까 이게 어디서 만들엇나면 제주도서는 저 어디고, 세당. 세당 말 들어봣어? 덕수, 덕수서 만든 거라, 이거. 세당에서 거의 이거 만든 거, 나가 알기로는." [35]

(이것은 저 주물 무쇠로 만든 거 아니. 이 뭐 스테인리스나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두드려 패서 그냥 아무나 이거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물인데 본 해서 주물 해서 부어서 이거 본 해서 만들어 내는 거. 솥 만들 듯.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제주도에서는 저 어디지, '세당'(덕수의 옛 지명). '세당' 말 들어봤어? 덕수, 덕수에서 만든 거야, 이거. '세당'에서 거의 이거 만든 거, 내가 알기로는.)

'벳'과 '중경벳'은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쟁기에 사용했던 '벳'이나 '보섭'은 주로 주물이다. 무쇠솥 따위를 만들듯이 쇠붙이를 녹여 '벳'을 만드는 거푸집에 부은 다음, 그것을 굳혀서 만든다. 반면, '중경벳'은 쇠를 두드려 휘게 하여 만든 것이다. 금악리 양원석 씨는 제주에서 쓰였던 '보섭'은 대부분 '세당'(지금의 안덕면 덕수리)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보섭'도 마찬가지다.

34)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35)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4.1.2. 땅 파는 도구

(1) 따비

'따비'는 풀뿌리를 뽑거나 땅을 일굴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보습이 양 갈래로 되어 있고 사람이 직접 손과 발을 이용하여 판다. 쟁기로 갈 수 없는 밭이나 돌이 많은 밭을 일굴 때 또는 약초 따위의 풀뿌리를 파낼 때 사용한다.

"저거 뭐 헐 때 써, 뭐 팔 때 쓰는 거주. 팔 때 쓰곡, 돌 일를 때 쓰고. 저 약초 같은 거 그런 거 팔 때에. (누가 만든 거?) 따비 저거 불미항에 강 만들어단 ᄌᆞ룩만 나가 헌 거. 주문헤영 만들어 온 거 저거. 저거 ᄒᆞᆫ ᄉᆞ십 년 뒛주. 불미항 한림. (금악에는 불미가 엇어낫우꽈?) 옛날에 잇어낫어. 어린 때, 소개 전에. 소개 전에 이제 저 신협, 신협 자리가 이제 불미 헤난 자리라. (따비는 무슨 낭이꽈?) 쿳낭. 굿가시낭." [36]

(저거 뭐 할 때 써, 뭐 팔 때 쓰는 거지. 팔 때 쓰고, 돌 일으킬 때 쓰고. 저 약초 같은 거 그런 거 팔 때에. (누가 만든 거?) 따비 저거 대장간에 가서 만들어다가 자루만 내가 한 거. 주문해서 만들어 온 거 저거. 저거 한 사십 년 됐지. 대장간 한림. (금악에는 대장간이 없었습니까?) 옛날에 있었어. 어렸을 때, 소개(疏開) 전에. 소개 전에 이제 저 신협, 신협 자리가 이제 대장간 했던 자리야. (따비는 무슨 나무입니까?) 꾸지뽕나무. 꾸지뽕나무.)

"일를 때게, 밧 일를 때. 테역밧 같은 거 저걸로 일렁 허엿지. 이 손잡인 잡기 조렌 만든 거지." [37]

(일굴 때, 밭 일굴 때. 꼴밭 같은 거 저걸로 일궈서 했지. 이 손잡이는 잡기 좋게 만든 거지.)



<사진 10> 양원석 씨 소장 '따비'



<사진 11> 박영자 씨 소장 '따비'

36)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37)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사진 12> '따비'의 보습 부분



<사진 13> '따비'의 몸통과 손잡이를 연결한 부분

<사진 10>은 금악리 양원석 씨가 만들어 사용했던 '따비'다. 따비의 보습 부분은 대장간에서 만들어 오고 몸통과 손잡이는 직접 꾸지뽕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사진 11>은 월림리 박영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따비'로 <사진 12>는 따비의 보습 부분이고 <사진 13>은 따비의 몸통에 손잡이를 연결한 부분을 가까이서 찍은 것이다.

(2) 삽

'삽'은 땅을 파고 흙을 뜨는 데 쓰는 도구다. 표준어의 '가래'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갈레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대부분 '삽'으로 불리고 있다.

"삽은 이거 막 씨기 좋아, 저 고치 심을 때."[38]
(삽은 이거 아주 쓰기 좋아, 저 고추 심을 때.)



<사진 14> 고옥생 씨 소장 '삽'



<사진 15> 박영자 씨 소장 '삽'

38)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사진 16> 강병출 씨 소장 '삽'



<사진 17> 박순원 씨 소장 '삽'

<사진 16>은 월령리 고옥생 씨(1940년생)가 고추 심는 일 등 텃밭을 가꿀 때 사용하고 있는 '삽'이다. <사진 15>는 월림리 박영자 씨, <사진 16>은 명월리 강병출 씨(1926년생), <사진 17>은 금악리 박순원 씨(1942년생)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삽'이다. 땅을 팔 때는 '삽'의 양날 중 한 곳에 발을 올려놓고 체중을 실어 박아넣은 후 퍼 올린다. 흙이나 모래 등을 옮길 때는 떠 올리듯 퍼 올린다.

(3) 궹이와 곡궹이

'궹이'는 밭을 새로 일구거나 땅을 팔 때, 그리고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밧디 헉 에염더레 구뎅이 팔 때, 저거는 밧 갈아 가지고 이제 펜펜허게 밧 골릴 때."[39]
(밭에 흙 옆으로 구덩이 팔 때, 저거는 밭 갈아 가지고 이제 편편하게 밭 고를 때.)



<사진 18> 박영자 씨 소장 '궹이'



<사진 19> 고옥생 씨 소장 '궹이'

39)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사진 18>은 월림리 박영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궹이', <사진 19>는 월령리 고옥생 씨가 사용하고 있는 '궹이'다. 두 개 '궹이'의 머리 부분 모양이 다른데 <사진 19>는 끝이 조금 더 뾰족하다. 고옥생 씨는 구덩이를 판 흙을 고루 덮어 밭을 고를 때 사용한다고 한다.

'곡궹이'는 땅에 묻힌 돌이나 나무뿌리 따위를 파낼 때 쓰는 농기구다. 다음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새의 부리처럼 양쪽으로 길게 날을 내고 가운데 구멍에 긴 자루를 박은 형태다.



<사진 20> 양원석 씨 소장 '곡궹이'



<사진 21> 박순원 씨 소장 '곡궹이'



<사진 22> 박영자 씨 소장 '곡궹이'



<사진 23> 박영자 씨 소장 '곡궹이'

<사진 20>은 금악리 양원석 씨, <사진 21>은 금악리 박순원 씨가 사용했던 '곡궹이'다. 괭이 머리의 한쪽은 뾰족하게 한쪽은 일자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찍어낼 때는 뾰족한 부분으로 파내거나 긁어낼 때는 넓적한 부분을 쓴다. <사진 22>와 <사진 23>은 월림리 박영자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곡궹이'인데, 손잡이의 길이가 다르다. 길이가 짧은 <사진 23>의 '곡궹이'는 앉아서 작업할 때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4) 쉐스랑

'쉐스랑'은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 풀 무덤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갈퀴 모양의 농기구다. 쇠로 서너 개의 발을 만들고 긴 나무를 자루로 끼워 사용한다.



<사진 24> 고옥생 씨 소장 '쉐스랑'



<사진 25> 박영자 씨 소장 '쉐스랑'

<사진 24>는 월령리 고옥생 씨, <사진 25>는 월림리 박영자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쉐스랑'이다.

"영 영 쫏아근에 뭐 싱그젠 허민 허는 거주. 저거 쉐스랑. 옛날 큰 것도 있지만 저건 그냥 앚아둠서 허는 거난, 앚아둠서 간단허게."[40]

(이렇게 이렇게 쪼아서 뭐 심으려고 하면 하는 거지. 저거 쇠스랑. 옛날 큰 것도 있지만 저건 그냥 앉아서 하는 거니까, 앉아서 간단하게.)

"땅 팔 때 요런 밧 조그만 헐 때, 우영밧디 허는 거. 이걸로 허는 게 많이 헤지주. 골겡이 대신 허는 거. 이거 팍 찍엉 탕탕 허민 어인간헌 건 다 갈아지주게. 저런 디 헐 때 이거 좋아. 저런 디 물웨, 가지, 고추 다 싱겅 먹어."[41]

(땅 팔 때 요런 밭 조그만 할 때, 텃밭에 하는 거. 이걸로 하는 게 많이 할 수 있지. 호미 대신 하는 거. 이거 팍 찍고 탕탕 하면 어연간한 건 다 갈 수 있지. 저런 데 할 때 이거 좋아. 저런 데 '물웨', 가지, 고추 다 심어서 먹어.)

40) 동명리 고유연 씨 구술.
41)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사진 26> 고유연 씨 소장 '쉐스랑'



<사진 27> 양정아 씨 소장 '쉐스랑'

<사진 26>은 동명리 고유연 씨(1933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쉐스랑'이다. 앉아서 땅을 일굴 때 사용하기 편하다고 한다. <사진 27>은 한수리 양정아 씨(1938년생)가 텃밭에 고추나 가지 모종을 심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각종 먹거리를 텃밭에 직접 재배해 먹는데 소규모 텃밭을 꾸려나갈 때 앉아서 땅을 일구기에 적합한 농기구다.

"마늘 심을 때 흑 복삭 갈아 놔근에 영 고랑 이렇게 긋으믄 마늘을 저거 간격으로 곧작 싱글 거주. 옛날에 경허멍 줄 잡앙 고짝허게 저 찍어진 대로만 쭉 심어가주." [42]

(마늘을 심을 때 흙을 부드럽게 잘 갈아 놓고 이렇게 고랑 이렇게 그으면 마늘을 저거 간격으로 곧게 심을 거지. 옛날에 그러면서 줄 잡고 곧게 저 찍힌 대로만 쭉 심지.)



<사진 28> 양정아 씨 소장 '궹이'

<사진 28>은 한수리 양정아 씨가 사용했던 '궹이'다.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것인데, 한 씨는 마늘을 파종할 때 이것으로 골을 긋고 그어진 골을 따라 마늘을 심었다고 한다. <사진 28>의 '궹이'는 한 번 그을 때마다 일곱 개의 골이 그어지도록 만들어졌다. '궹이'를 서서 끌고 가며 골을 만들 수 있도록 자루가 길다. 부러진 자루 중간에 막대를 다시 이어 붙였다.

42)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5) 곰베

'곰베'는 밭을 갈 때 나온 흙덩어리를 깨뜨릴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어로는 '곰방메'라고 한다.

"밧디 강 밧 갈민 벙뎅이 일어나지 안허여? 이걸로 영 헹 두드려. 이거 곰베. 이거 빠졍 헤 가난 무껏주게." [43]

(밭에 가서 밭 갈면 덩어리 일어나지 않니? 이걸로 이렇게 해서 두드려. 이거 곰방메. 이거 빠져 가니까 묶었지.)



<사진 29> 고갑년 씨 소장 '곰베'



<사진 30> 고갑년 씨 소장 '곰베'

<사진 29>는 월림리 고갑년 씨(1934년생)가 사용했던 '곰베'다. <사진 30>은 '곰베'의 머리 부분을 철사로 묶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곰베'이 머리 부분이 깨져 손잡이가 빠지니까 묶었다고 한다. 나무의 좀먹은 부분에서 '곰베'의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수십 차례 흙덩어리를 내리쳤던 충격인지 자루에는 금이 갔다. 하지만 질긴 성질의 나무를 자루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러지는 일이 없이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었다. 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생활 도구를 만들어 쓴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인다.

(6) 섬피

'섬피'는 보통 밭이랑을 고르거나 뿌린 씨를 묻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여러 개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43)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섬피는 이제 밧 골르는 거." [44]
('섬피'는 이제 밭 고르는 거.)

"섬피는 이제 꿰 ᄀᆞ튼 거, 꿰 씨 거튼 거 밧 갈앙 우터레 뿌려 놩 섬피로 쏵 끗으민 씨 묻어지는, 씨 묻는 거거든. 씨 묻는 거 그건." [45]
('섬피'는 이제 깨 같은 거, 깨 씨 같은 거 밭 갈아서 위로 뿌려 놓고 '섬피'로 싹 끌면 씨가 묻히는, 씨를 묻는 거거든. 씨 묻는 거 그건.)

금악리 양원석 씨의 구술에서처럼 '섬피'는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그 씨앗이 흙에 잘 묻히도록 흙을 덮어줄 때 사용한다. 양원석 씨는 깨를 파종한 후 '섬피'로 흙을 골라 씨가 잘 묻히도록 하였다.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4.2.1. 호미류

(1) 골겡이

'골겡이'는 김을 매거나 고구마 따위의 농작물을 캘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로 '호미'인데, 제주에서는 이 '골겡이'를 '골각지', '골게기'라고도 한다. '골겡이'는 사용 용도나 밭의 환경에 따라 날이나 손잡이의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그거 부루꾸루 싱그는 거난 ᄒᆞ꼼 넓어." [46]
(그거 브로콜리 심는 거니까 조금 넓어.)

"넓은 건 비니루 칠 때 쓰는 거. 작은 건 검질멜 때 쓰는 거. 비니루 씨우젠 허민 넓은 것이 흑을 잘 올라오주게." [47]
(넓은 건 비닐 칠 때 쓰는 거. 작은 건 김맬 때 쓰는 거. 비닐 씌우려고 하면 넓은 것이 흙이 잘 올라오지.)

44) 금악리 강정자 씨 구술.
45)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46) 금악리 장화순 씨 구술.
47) 대림리 이연옥 씨 구술.



<사진 31> 장화순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2> 이연옥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1>은 금악리 장화순 씨(1946년생)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겡이'다. 위아래의 호미가 모양이 조금 다른데 아래쪽의 섭이 넓은 호미는 브로콜리 등을 심을 때 흙을 파낼 용도로 쓰는 것이다. <사진 32>는 대림리 이연옥 씨(1938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골겡이'다. 위 두 개의 호미도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 씨는 작은 호미는 김을 맬 때 사용하고 섭이 넓은 것은 모종에 비닐을 씌울 때 흙을 덮는 데에 사용했다고 한다. 손잡이에 천 또는 고무를 대 있다.

"이것도 다 다여 불언. 것도 밧디, 밧디 써난 거." [48]
(이것도 다 닳아 버렸어. 그것도 밭에, 밭에 썼던 거.)

"이거 우영에 마농 뭐 헐 때 그자. 풀 멜 때게." [49]
(이거 텃밭에 마늘 뭐 할 때 그자. 풀 맬 때.)



<사진 33> 홍춘화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4> 김종선 씨 소장 '골겡이'

48)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49) 금악리 강정자 씨 구술.



<사진 35> 신창윤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6> 강정자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3>은 대림리 홍춘화 씨(1948년생)의 '골겡이'로 갈고리 부분이 닳아 짧아졌다. <사진 34>는 수원리 김종선 씨(1933년생)가 사용했던 '골겡이'다. 녹이 슬고 빛에 바랬다. <사진 35>는 월령리 신창윤 씨(1934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골겡이'고 <사진 36>은 금악리 강정자 씨(1940년생)가 텃밭에 마늘을 심거나 풀 맬 때 사용하고 있는 '골겡이'다. <사진 35>와 <사진 36>의 '골겡이'는 섶이 넓은 모양이다. '골겡이'의 섶이나 손잡이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다.

"이거 그냥 골겡이가 아니고 마농 저 그 콥데사니 싱거근에 비니루 소곱에서 영 꺼내는 거." [50]
(이거 그냥 호미가 아니고 마늘 저 그 마늘 심어서 비닐 속에서 이렇게 꺼내는 거.)



<사진 37> 박순원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7>은 금악리 박순원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겡이'로 마늘 씨앗을 심고 싹이 잘 나도록 비닐을 씌웠을 때, 싹이 나면 비닐 구멍을 뜯어 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골겡이'와 비교했을 때 갈고리 부분이 다르다. 비닐에 살짝 구멍을 내기 알맞게 갈고리가 짧다.

50)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2) 호미

‘호미’는 곡식이나 풀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어로는 ‘낫’을 말한다.

“건 보리 빌 때, 보리 빌 때 허고 저건 곳세 다마네기 끈는 거 엇을 땐 저거 써낫주. 곳세 저거 짤르는 거 그거 나오난 안 썸주. (보리도 농사 하영 헤낫수꽈?) 아니고 옛날엔 그걸로 살앗주게. 먹을 거 엇어근에 보리 그걸로 살앗주게. 이젠 완전 호강이주, 보리도 안 갈고 쏠 받아단 먹고.” [51]

(그건 보리 벨 때, 보리 벨 때 하고 저건 아까 양파 끊는 거 없을 때는 저거 썼었지. 아까 저거 자르는 거 그거 나오니까 안 쓰고 있지. (보리도 농사 많이 했었습니까?) 아니고 옛날에는 그걸로 살았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 그걸로 살았지. 이제는 완전 호강이지, 보리도 안 갈고 쌀 받아다가 먹고.)

“작업헐 때 밧디 ᄋᆞ정 가근에 쓰는 거.” [52]

(작업할 때 밭에 가지고 가서 쓰는 거.)



<사진 38> 홍춘화 씨 소장 ‘호미’



<사진 39> 이연옥 씨 소장 ‘호미’



<사진 40> 김진현 씨 소장 ‘호미’



<사진 41> 박순원 씨 소장 ‘호미’

<사진 40>은 대림리 홍춘화 씨가 보리를 베거나 양파의 줄기를 자를 때 사용했던 ‘호

51)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52) 대림리 이연옥 씨 구술.

미’다. 농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도구로 집마다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다. <사진 39>는 대림리 이연옥 씨의 ‘호미’다. 이연옥 씨 역시 밭일을 할 때 사진의 호미를 사용했다. <사진 40>은 금능리 김진현 씨(1936년생), <사진 41>은 금악리 박순원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미’다. ‘호미’는 보리 등의 곡식을 수확할 때도 쓰지만 잡초나 넝쿨을 베어 낼 때도 유용하게 쓰였다.

‘호미’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나뭇가지나 가시덤불 등을 정리하는 작업용으로 나온 ‘호미’는 날이 두껍고 단단하다. 또 날이 톱날처럼 되어 있는 것도 ‘호미’도 있다.



<사진 42> 박순원 씨 소장 ‘호미’



<사진 43> 양인희 씨 소장 ‘호미’

<사진 42>는 금악리 박순원 씨, <사진 43>은 강구리 양인희 씨가 사용했던 ‘호미’다. 앞의 사진에서 본 ‘호미’와 날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인희 씨는 ‘호미’의 손잡이가 빠지자 손잡이용으로 알맞은 나무를 귀해 고쳐 사용하고 있다.

“이건 톱호미엔 허고 저건 낫이엔 허고. 톱처럼 생기난. 것도 보리 빌 때도 쓰고. 막 가볍고 좋아. 많이 이렇게 확확 허지 못헤도, 많이 줴지 못헤도 이것도 좋아. 보리 빌 때 써난.” [53]

(이건 톱낫이라고 하고 저건 낫이라고 하고. 톱처럼 생기니까 그것도 보리 벨 때도 쓰고. 아주 가볍고 좋아. 많이 이렇게 확확 하지 못해도, 많이 죄지 못해도 이것도 좋아. 보리 벨 때 썼었어.)

“이것도 우리 ᄋᆞ져 뎅길 때 허는 호미가 아니야. 이제사 난 거. 이건 밧디 씨는 거, 이건.” [54]

(이것도 우리 가지고 다닐 때 하는 낫이 아니야. 이제야 난 거. 이건 밭에 쓰는 거, 이건.)

53)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54)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사진 44> 양정아 씨 소장 '호미'와 '톱호미'



<사진 45> 신창윤 씨 소장 '톱호미'

<사진 44>는 한수리 양정아 씨가 썼던 '호미'다. 두 개의 '호미'의 모양이 다른데 사진에서 위쪽의 것은 일반 호미이고 아래쪽의 것은 '톱호미'다. 날이 톱 모양처럼 되어 있어 '톱호미'라고 불렀는데, 보리 따위를 벨 때 손에 많이 쥘 수 없어서 빨리 작업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벼워서 쓰기 좋다고 한다. <사진 45>는 월령리 신창윤 씨의 '톱호미'다. '톱호미'는 일반 '호미'처럼 베어 내는 용도와 '톱'처럼 끊어내는 용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사진 44>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호미'는 직각에 가깝게 날이 굽어 있는 데 반해, '톱호미' 날의 기울기는 살짝 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양파나 마늘 재배를 많이 하는 한림 지역에서는 이를 수확할 때, 대와 뿌리를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호미'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거 다마네기 짤를 때. 다마네기 짤를 때 영 헷주게. 마농도 짜르고. 영헹 앚앙 이렇게 이렇게 짤라. 이런 거 나온 지 얼마 안 뒛어." [55]

(이거 양파 자를 때. 양파 자를 때 이렇게 했지. 마늘도 자르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이런 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55)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사진 46> 홍춘화 씨가 '호미'



<사진 47> '호미' 사용 방법 시현

<사진 46>은 대림리 홍춘화 씨가 양파 뿌리를 자를 때 사용하는 '호미'다. 홍 씨가 <사진 47>와 같이 '호미' 사용 방법을 시현해 보이고 있다. 평평한 판 위에 한쪽 발을 올려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후, '호미'의 날을 90도로 올려세운다. 바깥쪽 날 부분에 자르고자 하는 물체를 갖다 대고 안쪽으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예리한 날에 부딪히며 당기는 힘에 의해 물체가 잘린다. '호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직각으로 서 있는 날을 180도 회전하여 널판 뒤로 접은 후 보관한다.

"저 호미는 작업 갈 때에 작업 가서 그 다마네기 그거 쫄르는 거. 이젠 일 아이 뎅겨난 저디 그냥. 다마네기도 끈곡 마농도, 마늘도 영 ᄌᆞ르고."[56]

(저 낫은 작업 갈 때에 작업 가서 그 양파 그거 자르는 거. 이제는 일 안 다니니까 저기 그냥. 양파도 끊고 마늘도, 마늘도 이렇게 자르고.)

"마농 허믄 앚아근에 끈는 거".[57]

(마늘 하면 앉아서 끊는 거.)

"건 마늘 톧을 때 허는 거."[58]

(그건 마늘 뜯을 때 하는 거.)

56) 명월리 강병출 씨 구술.
57)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58) 금능리 김진현 씨 구술.



<사진 48> 강병출 씨 소장 '호미'



<사진 49> 신창윤 씨 소장 '호미'



<사진 50> 이연옥 씨 소장 '호미'



<사진 51> 김진현 씨 소장 '호미'

<사진 48>은 명월리 강병출 씨가 사용했던 '호미'로, 강 씨는 양파나 마늘을 수확하는 밭에 일꾼으로 작업 나갈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49>는 월령리 신창윤 씨, <사진 50>은 대림리 이연옥 씨, <사진 51>은 금능리 김진현 씨가 사용했던 도구다. 수확한 농작물을 출하하기 전에 뿌리 등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어 손질하는 용도로 사진의 '호미'가 쓰였다. 마늘, 양파, 파 등 밭작물을 주로 경작하는 한림읍에서는 이러한 '호미'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아무거라도 허는 거. 우리 창고에서 쪽파 다듬아근에 한 단씩 무껑 농협에 보내고. 이거 마늘도 짤르고 아무거나 헤난 거."[59]

(아무것이라도 하는 거. 우리 창고에서 쪽파 다듬어서 한 단씩 묶어서 농협에 보내고. 이거 마늘도 자르고 아무거나 했던 거.)

59)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사진 52> 양정아 씨 소장 '칼'

<사진 52>는 한수리 양정아 씨가 사용했던 칼이다. 양 씨는 쪽파를 수확하여 그것을 직접 손질하여 농협에 판매했었다고 한다. 땅에서 뽑은 쪽파의 뿌리를 자를 때 위의 칼을 사용했다. 오랜 시간 날을 갈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칼날이 매우 짧아졌다.

4.2.2. 타작 도구

(1) 도께

'도께'는 곡식의 낟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다. 표준어로는 '도리깨'를 말하는데 긴 막대기의 한쪽 끝에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두세 개를 달아서 막대기를 휘두르면 매달린 나뭇가지가 돌아가면서 곡식을 두드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르방이 만든 거. 이젠 다 헐언. 이거 뭐 두드리는 거게, 팟이고 콩이고. 경헌디 이젠 안 뒈여. 이걸로 콩도 두드리고 팟도 두드리고. 보린 벨로 안 두드련. 옛날에 보리도 두드렷지, 우리 아인 때 정도." [60]

(할아버지(남편)가 만든 거. 이젠 다 헐었어. 이거 뭐 두드리는 거, 팥이고 콩이고. 그런데 이젠 안 돼. 이것으로 콩도 두드리고 팥도 두드리고. 보리는 별로 안 두드렸어. 옛날에 보리도 두드렸지, 우리 아이였을 때 정도.)



<사진 53> 박영자 씨 소장 '도께'



<사진 54> 신태상 씨 소장 '도께'

60)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사진 55> 박영자 씨 '도께'의 '도께톨레'



<사진 56> 신태상 씨 '도께'의 '도께톨레'

<사진 53>은 월림리 박영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도께'로, 박 씨의 남편이 만든 것이다. 박 씨는 콩이나 팥을 수확하여 타작할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전 세대에는 보리를 타작할 때도 '도께'를 이용했다. 박 씨의 '도께'는 사람이 쥐고 휘두르는 자루의 길이보다 곡식을 타작하는 부분을 더 길게 되어 있다. <사진 54>는 대림리 신태상 씨 부모님이 사용했던 '도께'다. 멍에나 체 등 옛 농기구와 함께 창고에 걸어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55>와 <사진 56>은 각각 <사진 53>과 <사진54> '도께'의 도리깨꼭지 부분을 가까이서 찍은 것이다.

'도께'를 휘두를 때는 무엇보다 부드럽게 회전하며 곡식을 내리치는 게 중요하다. 회전하는 힘을 받고 제대로 내리쳐야 알곡이 껍질에서 잘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사진 55>와 <사진 56>에서 보는 것처럼 '도께'를 내리쳤을 때 곡식을 두드리는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2) 보리 홀트는 클

보리나 밭벼 등은 줄기에 달려있는 낟알을 뜯어내야 한다. 이때 빗살처럼 날이 촘촘한 쇠로 된 틀에 끼워 잡아당겨 낟알을 턴다. 이 낟알 터는 것을 '홀태'라고 하는데, 한림읍에서는 '보리 홀트는 클(보리 훑는 틀)'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보리) 비엉 홀탕 이제 엿날은 저 도깨로 떼렷지. 보리 홀트는 거 잇어낫어. 그 후에 저 기계 헹 홀타 노믄 집집마다 뎅기멍 이제 영 영 손으로 메겨낫주." [61]

((보리) 베고 훑아서 이제 옛날은 저 도리깨로 때렸지. 보리 훑는 거 있었어. 그 후에 저 기계 해서 훑아 놓으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먹였었어.)

61)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보리 수확은 베고 타작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지금은 곡식을 베고 타작하는 일이 기계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다. 사람이 '낫'으로 베고, '홀태'로 훑고, '도께'로 두드리는 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보리 홀트는 거 뭐렌 헤?) 클, 보리 홀트는 클. 영 낭 세왕, 낭 두 개 세왕 가운디는 뭐냐면 그레착이, 움직이지 안혀게. 그레착 딱 돌아메영 가운디 무겁게. 거믄 낭이 움직이지 안허여. 이걸로 홀터. 홀타진 건 놧당 기계 오믄, 엿날은 도께로만 막 떼렷주만은 그 후엔 탈곡기가 나왓잔아. 이젠 밧디 강 비믄 낭째 허주만은 그때는 홀타, 집집마다." [62]

((보리 훑는 거 뭐라고 해?) 틀, 보리 훑는 틀. 이렇게 나무 세워서, 나무 두 개 세워서 가운데는 뭐냐 하면 맷돌, 움직이지 않게. 맷돌 딱 달아매서 가운데 무겁게. 그럼 나무가 움직이지 않아. 이걸로 훑어. 훑은 건 놨다가 기계 오면, 옛날은 도리깨로 마구 때렸지만은 그 후에는 탈곡기가 나왔잖아. 이젠 밭에 가서 베면 나무째 하지만 그때는 훑아, 집집마다.)

옹포리 정일봉 씨(1939년생)의 구술에서처럼 과거에는 손에 보릿단의 보리를 조금씩 쥐고 '보리 훑으는 클'에 넣어 이를 앞으로 당기면서 훑어 냈다. 이를 반복하며 곡식을 얻었다.

(3) 탈곡기

'탈곡기'는 보리나 밭벼 따위의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농기계를 말한다. 탈곡기가 나오기 전에는, 납작하고 길쭉한 쇠못을 나무판에 촘촘히 박아 빗 모양으로 만든 '홀태'나 두 개의 나무를 연결하여 두드리는 '도리깨'를 이용하여 타작했다. 이러한 재래식 기구를 이용한 탈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점차 농기구가 발달하면서 동력을 이용한 탈곡기 등의 농기구가 나온다.

"경허단 이젠 버치난 이제 기계 시대가 나오난 이제 개발뒌 것이 탈곡기라이. 이젠 보리 비엉 무끔만 허민 데미민, 날랑 이레 놔근에 좍좍좍좍 허민 보리는 보리대로 나오곡 요물은 요물대로 나오곡." [63]

(그러다가 이젠 힘에 부치니까 이제 기계 시대가 나오니까 이제 개발된 것이 탈곡기야. 이젠 보리 베어서 묶기만 하면 쌓으면, 날라서 이리 놔서 좍좍좍좍 하면 보리는 보리대로 나오고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나오고.)

62)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63)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탈곡기가 나온 이후에는 기계에 넣기만 하면 곡식이 분리되었다. '클'에서 훑은 후, 다시 '도리께'로 때려야만 곡식을 얻는 모든 과정이 탈곡기 하나로 해결되었다.

4.3. 건조와 손질 관련

4.3.1. 건조 도구

(1) 멍석

'멍석'은 곡식을 널어 말릴 때 사용하는, 짚을 엮어 만든 깔개다. 멍석에 말릴 곡식을 '날레'라고 하는데, '멍석'은 주로 이 '날레'를 널 때, 혹은 곡식을 손질할 때 사용했다.

"멍석 집이 씨난 거. 옛날사 저거 멍석으로 날레도 널고 또 큰일 때 페와근에 마당에서 사람덜 앚앙도 허고 헤나지 안헤사게. 이제는 필요 엇이난에 저 구석에 그냥 내불엇주. 옛날사 전부 멍석 잇는 디덜은, 이제덜은 멍석 안 헤근에 저 나이롱 가빠 그것에 널지 안허여게. 멍석은 저것이 저 습기 안 차난 아무래도 좋주게. 조, 보리 농사허멍 날레 널엇어."[64]

(멍석 집에 썼던 거. 옛날에다 저거 멍석으로 곡식도 널고 또 큰일 때 펴서 마당에서 사람들 앉아서도 하고 했었지 않았니.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저 구석에 그냥 내버렸지. 옛날에야 전부 멍석 있는 데들은, 이제는 멍석 안 하고 저 나일론 카파 그것에 널지 않니. 멍석은 저것이 저 습기 안 차니까 아무래도 좋지. 조, 보리 농사하면서 곡식 널었어.)



<사진 57> 박영자 씨 소장 '멍석'을 펼친 모습



<사진 58> 오명봉 씨 소장 '멍석'



<사진 59> 김중관 씨 소장 '멍석'

64)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사진 57>은 월림리 박영자 씨, <사진 58>은 명월리 오명봉 씨(194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멍석'이다. <사진 59>는 한림리 김중관 씨(1936년생)가 부모님께 물려받아 사용했던 '멍석'이다. 멍석은 곡식을 널 때도 사용했지만,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마당에 펼쳐서 앉아 식사도 하고 놀 때도 사용했다. 멍석에 곡식을 말리면 습기가 차지 않아서 좋았다고 한다. 손질한 짚을 한 줄 한 줄 엮어서 대형 깔개를 만드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었다. '멍석'을 대신하는 나일론 소재의 얇고 가벼운 '카파'가 보급되자, '멍석'을 직접 만들어 쓰는 일은 점차 줄어갔다.

(2) 좀팍

'좀팍'은 나무를 갸름하면서도 납작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역할을 하는 도구다. '좀팍'은 주로 곡식을 떠서 담거나 곡식의 쭉정이 등을 없애기 위해 곡식을 바람에 드릴 때 사용했다. '좀팍'은 지역에 따라 '솔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곡식 담곡, 불리곡. 이 소곱에 꿰 들엇저이. 이거 작년이 꿰 농사헤난 거." [65]
(곡식 담고, 불리고. 이 속에 깨 들었네. 이거 작년에 깨 농사했던 거.)


<사진 60> 박영자 씨 소장 '좀팍'


<사진 61> 오명봉 씨 소장 '좀팍'


<사진 62> 양명부 씨 소장 '좀팍'


<사진 63> 장인자 씨 소장 '좀팍'

65)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사진 60>은 월림리 박영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좀팍'이다. 박 씨는 지난해에도 참깨 농사를 지을 때 이 '좀팍'을 사용했는데, 곡식을 담고 바람에 불릴 때 꼭 필요한 도구다. <사진 61>은 명월리 오명봉 씨, <사진 62>는 월림이 양명부 씨(1944년생), <사진 63>은 옹포리 장인자 씨(194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좀팍'이다.

바람에 곡식을 드릴 때는 '멍석' 위에 앉아 '좀팍'을 높이 들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조금씩 떨어트린다. 그러면 잘 여문 알곡은 수직으로 떨어져 쌓이고, 가벼운 쭉정이나 껍질은 바람에 날려 멀찍이 떨어진다. 그렇게 알곡과 알곡이 아닌 것을 나눌 때 '좀팍'을 썼다.

"이거 영 영 불려. 거 벌러젼, 오랜 거난. 새 건 이 뒷밧디 일허단 내불언. (누가 영 메와 줍디가?) 아이고, 경 메와 줘낫저, 하르방이." [66]

(이거 이렇게 이렇게 드려. 그거 깨졌어, 오랜 거니까. 새 건 이 이 뒷밭에 일하다가 내버렸어. (누가 이렇게 메워 줬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메워 줬었어, 할아버지(남편)가.)

"이딘 좀팍이렌 허고 저 서귀포렌 솔박이엔 헨게. 날레 널어근에 영 담을 때. 그 구덕더레 담아 놀 때. 지금도 콩 갈앙 불림질헐 때 씨곡, 하간 거 담아근에 헐 때랑 씨곡." [67]

(여기는 '좀팍'이라고 하고 저 서귀포로는 '솔박'이라고 하더라. '날레' 널어서 이렇게 담을 때. 그 바구니로 담아 넣을 때. 지금도 콩 갈아서 드릴 때 쓰고, 온갖 거 담아서 할 때는 쓰고.)



<사진 64> 고순여 씨 소장 '좀팍'



<사진 65> 장화순 씨 소장 '좀팍'

<사진 64>는 옹포리 고순여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좀팍'이다. 철사로 꿰맨 흔적이 보이는데, 깨진 것을 남편이 수리해 주어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65>는 금악리

66) 옹포리 고순여 씨 구술.
67) 금악리 장화순 씨 구술.

장화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좀팍'이다. '좀팍'을 부르는 이름이 지역마다 다른데,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솔박'이라고 한다. 장 씨는 곡식을 널었다가 담을 때, 콩 따위를 드릴 때 사용했다. 앞서 제시한 '좀팍'은 나무를 깎아 만든 것들이고, 이후에 나온 것이 <사진 64>와 <사진 65>의 플라스틱 '좀팍'이다. 배 모양의 '좀팍'은 곡식을 퍼담기 좋도록 가운데 부분을 오목하게 만들었다.

(3) 당그네

'당그네'는 곡식을 그러모으고 펴거나 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도 사용한다. 네모난 널조각에 긴 자루가 달린 모양으로, 표준어로는 '고무래'라고 한다. '당그네'는 지역에 따라 달리 부르는데, 대정, 한경, 안덕, 한림 등 제주시 서쪽 지역에서는 '당그네'라고 부르는 것을 구좌읍이나 성산읍 지역에서는 보통 '군데'라고 한다.

"곡석 허여당 마당에 널어서 영 젓는 거. 당그네."[68]
(곡식 해다가 마당에 널어서 이렇게 젓는 거. 고무래.)

월림리 고갑년 씨의 구술에서처럼 '당그네'는 주로 곡식을 널어 말릴 때 곡식을 휘저으며 너는 용도로 사용했다.


<사진 66> 박순원 씨 소장 '당그네'


<사진 67> 홍영하 씨 소장 '당그네'

<사진 66>은 금악리 박순원 씨가 사용했던 '당그네'고, <사진 67>은 상명리 홍영하 씨(1936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당그네'다. 곡식을 햇빛에 잘 말려야 곰팡이가 생기는

68)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일이 없었다. 해가 좋은 날에는 '멍석'을 깔고 그 위에서 곡식을 널어 말렸는데, 그때 '당그네'로 곡식이 덩어리지는 곳이 없도록 했다. '당그네'로 곡식을 고루 펼치듯 긁으면 여러 개의 골이 생기면서 평평하게 펼쳐졌다. 고르게 펼칠 수 있도록 '당그네'의 아랫부분이 머리빗과 같이 만들어졌다. 선 채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자루가 길다.

4.3.2. 체류

(1) 얼멩이

'얼멩이'는 쳇불을 굵게 만들어 곡식을 손질할 대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어로는 '어레미'를 말한다. 주로 타작한 곡식을 손질하면서 껍질이나 줄기 부스러기 등을 거를 때 사용한다.

"얼멩인 대로 헌 거. 이만이 큰 거 영 영."[69]
(어레미는 대로 하는 거. 이만큼 큰 거 이렇게 이렇게.)



<사진 68> 고갑년 씨 소장 '얼멩이'

<사진 68>은 월림리 고갑년 씨가 사용했던 '얼멩이'다. 대나무를 격자로 짜 넣은 사이사이 굵은 구멍이 보인다. <사진 68>의 '얼멩이' 안에 곡식을 넣고 좌우로 흔들어 털면 알곡은 아래로 떨어지고, 껍질이나 줄기 등은 체 안에 남았다. 그런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알곡을 정제했다.

(2) 체

'체'는 곡식을 깨끗하게 손질하거나 가루를 곱게 칠 때, 또는 액체를 밭거나 거르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한다. 주로 곡류나 가루를 장만할 때 사용했던 '체'는 쳇불 구멍의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보통 쳇불의 구멍이 큰 것부터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고는 체'라고 부른다.

69)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체에 대체, 중체, 거름체, 총체 영 싯주. (총체는 뭐 헐 때 쓰는 거?) 거 떡ᄀᆞ루 헤여근에, 떡 헐 거 골아근에 ᄀᆞ룰 멘들 때 쓰주." [70]

(체에 '대체', '중체', '거름체', '총체' 이렇게 있지. ('총체'는 뭐 할 때 쓰는 거?) 그거 떡가루 해서, 떡 할 거 갈아서 가루 만들 때 쓰지.)

"거름체는 중간에. 밥헹 먹는 거 곧 아래. 밥헹 먹는 거, 우에 껀 이제 밥헹 먹고 아레에 좀쏠이엔 헌 건 또 그것대로 헹 먹곡." [71]

('거름체'는 중간에. 밥해서 거 곧 아래. 밥해서 먹는 거, 위의 것을 이제 밥해서 먹고 아래에 '좀쌀'이라고 하는 건 또 그것대로 해서 먹고.)

한림리 이옥여 씨(1934년생)는 쳇불의 구멍이 크기에 따라 체를 '대체, 중체, 거름체, 총체'로 구분했다. '총체'가 구멍이 가장 작은 체인데, 보통 떡을 만들기 위해 쌀을 빻을 때 그 가루를 치는 용도이다. '거름체'는 보리쌀을 맷돌에 갈아 쪼개어 그것을 굵기에 따라 가르는 역할을 했다.

"이거 오래엇주게. 나 열아홉 설에 시집완에 이거 시어멍 아파 부난 시어멍 헤난 것덜. 이것덜 나 장만헌 건 아니." [72]

(이거 오랬지. 나 열아홉 살에 시집와서 이거 시어머니가 아파 버리니까 시어머니가 했던 것들. 이것들 내가 장만한 건 아니.)

"보리 거튼 거 치고 영 영 허믄. 이건 얼멩이. 얼멩이 그 버금 건 대체, 그 버금 건 대거름체, 무신 거름체, 좀진 거 ᄀᆞ루 치는 건 ᄀᆞ는체." [73]

(보리 같은 거 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건 어레미. 어레미 그 다음 거는 대체, 그 다음 거는 '대거름체', 무슨 '거름체', 자잘한 거 가루 치는 건 '가는체'.)

70)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71)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72)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73)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사진 69> 신창윤 씨 소장 '체'



<사진 70> 신창윤 씨 소장 '체'

<사진 69>와 <사진 70>은 월령리 신창윤 씨가 보관하고 있는 '체'들이다. 신 씨는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을 물려받아 사용했다. 보리 따위를 타작했을 때 짚 따위를 걸러 내는 어레미가 있고, 쳇불의 굵기에 따라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ᄀᆞ는체'로 나뉜다고 한다.

"이거는 대체, 이거는 거름첸가, 거름체." [74]
(이것은 '대체', 이것은 '거름체'인가, '거름체'.)

"거는 옛날에 유채, 유채 심어 가지고 유채 이렇게 칠 때 거로 쳐낫어." [75]
(그것은 옛날에 유채, 유채 심어 가지고 유채 이렇게 칠 때 그것으로 쳤었어.)

"이거 막 오랜 거, 이거. 이거 오십 년도 넘언. 시어멍이 쓰단 거. 이것이 대체. 중체, 거름체, 대거름체 다 셔. 이거 문딱 삭아신게. 이거 오십 년도 넘어. 난 사 보진 안허연. 이거 시어멍 물려준 거." [76]
(이거 아주 오랜 거, 이거. 이거 오십 년도 넘었어. 시어머니가 쓰던 거. 이것이 '대체'. '중체', '거름체', '대거름체' 다 있어. 이거 모두 삭았네. 이거 오십 년도 넘어. 나는 사 보지는 않았어. 이거 시어머니가 물려준 거.)

"헐믄 이것만 갈아지주게, 헐믄. 이것도 오래 써 가믄 다 터져 불언. 이거 꿰 치는 거, 체. 이건 ᄒᆞ꼼 좀진 거." [77]
(헐면 이것만 갈 수 있지, 헐면. 이것도 오래 써 가면 다 터져 버려. 깨 치는 거, 체. 이건 조금 자잘한 거.)

74) 명월리 김묘생 씨 구술.
75) 명월리 김묘생 씨 구술.
76)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77)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사진 71> 김묘생 씨 소장 '체'



<사진 72> 홍춘화 씨 소장 '체'

<사진 71>은 명월리 김묘생 씨(195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체'들이다.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으로 쳇불 굵기가 다른 여러 개의 체를 갖춰 두고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 사진 앞쪽의 가장 큰 체가 '대체'로 유채를 수확한 후 장만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72>는 대림리 홍춘화 씨 사용했던 '체'들이다. 홍 씨도 시어머니에게 체를 물려받아 사용해 왔는데, 쳇불이 헐면 그것만 교체하면서 사용했다고 한다.

"이건 가루 치는 체, 막 좀진 거. 밀가루 거튼 거 치는 거. 저거는 시어멍안테 물려받은 거, 두 개. 이거는 나가 완 산 거. 대체는 무신거 막뎅이로 털어근에 대강 영 엿날 얼멩이 대신 쓰는 거. 훍은 거 걸러 부는 거. 그다음은 요거는 이거 밑에 거 치는 거. 또 이거 밑에는 또 이거 치는 거." [78]

(이건 가루 치는 체, 아주 자잘한 거. 밀가루 같은 거 치는 거. 저것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두 개. 이것은 내가 와서 산 거. '대체'는 무엇 막대기로 떨어서 대강 이렇게 옛날 어레미 대신 쓰는 거. 굵은 거 걸려 버리는 거. 그다음은 요것은 이거 밑의 거 치는 거. 또 이거 밑에는 또 이거 치는 것.)

"이거 좀진 거 치는 체난에. 나 일름은 불러나지 안현." [79]

(이거 자잘한 거 치는 체니까. 나 이름은 부르지 않았었어.)

78)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79) 금악리 장화순 씨 구술.



<사진 73> 양명부 씨 소장 '체'



<사진 74> 장화순 씨 소장 '체'

<사진 73>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사용했던 '체'들로,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도 있고 양 씨가 구입해서 사용했던 것도 있다. 쳇불이 굵은 '대체'는 어레미 대신 사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74>는 금악리 장화순 씨의 '체'다. 장 씨를 체를 구분하여 따로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다고 한다.

"이거는 훍은 거, 이제 콩 장만헤 나민, 콩 장만허는 거 알아져? 콩 장만헤나민 이거 영 영 치민 검질, 검질 나와. (야이는 무슨 체?) 훍은 체. 이거 체라도 중간 치는 거. 이거보다 더 좀진 것도 잇어, 저디. 이거 대체." [80]

(이것은 굵은 것, 이제 콩 장만하고 나면, 콩 장만하는 거 알아? 콩 장만하고 나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치면 검불, 검불 나와. (얘는 무슨 체?) 굵은 체. 이것 체라도 중간 치는 거. 이것보다 더 자잘한 것도 있어, 저디. 이것 '대체'.)



<사진 75> 고갑년 씨 소장 '대체'



<사진 76> 고갑년 씨 소장 '체'

<사진 75>와 <사진 76>은 월림리 고갑년 씨의 '체'다. 두 개의 '체'의 쳇불 구멍이 다

80)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른 것을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진 75>의 '대체'는 콩을 타작한 후 장만할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사진에서 보듯이 얇은 나무 널판을 휘어 동그랗게 만든 후 이를 쇠로 묶어 고정했다. 오랜 시간 사용해 '체' 테두리가 울퉁불퉁하다.

"얼멩이 대력 쓰는 건디, 보리도 치곡 헤난디. 요건 유채 치는 거. 이것가 대체엔 허는 거. 이거는 대거름체, 요거는 좀진체. 요거는 꿰 젠젠헌 방울 내리는 거." [81]
(어레미 대신 쓰는 건데, 보리도 치고 했었는데. 요건 유채 치는 거. 이것이 '대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대거름체', 요것은 '좀진체'. 요것은 깨 자잘한 방울 내리는 거.)

"(이거 무사 영 ᄐᆞ라져신고?) 하도 씨여 노난 것도 못 젼뎐. 하도 씨여 노난, 막 삭음에." [82]
(이거 왜 이렇게 비뚤어졌지?) 하도 쓰니까 그것도 못 견뎌서. 하도 쓰니까, 아주 삭은 것.)


<사진 77> 박영자 씨 소장 '체'


<사진 78> 고순여 씨 소장 '체'

<사진 77>은 월림리 박영자 씨의 '체'들로, 굵기가 같은 것도 여러 개 있었고, 쳇불을 새로 교체한 듯한 '체'들도 들어 있다. 박 씨는 지금도 가끔 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78>은 옹포리 고순여 씨의 체로 테가 휘어 있다. 많이 사용해서 테가 휘었다고 한다.

(3) 푸는체

'푸는체'는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로 표준어로는 '키'라고 한다. '푸는체'는 갈무리할 곡식을 넣어 양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까끄라기 등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곡식을 깨끗하게 장만한다.

81)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82) 옹포리 고순여 씨 구술.

"또 푸는체엔 헤근에 ᄒᆞ낌썩 영 푸는 체. 그건 무신 체 체가 만허믄 이제 거 불려 부는 거." [83]
(또 키라고 해서 조금씩 이렇게 까부르는 체. 그건 무슨 겨, 겨가 많으면 이제 그거 불려 버리는 거.)

한림리 이옥여 씨의 구술처럼 '푸는체'는 곡식을 장만할 때 겨나 티끌이 들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여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이다.

"저 무신 깍 불릴 때 영 치는 거게, 이건." [84]
(저 무슨 쭉정이 드릴 때 이렇게 치는 거, 이건.)

"이거 ᄀᆞ만히 놔둬신디 헐엇저. (푸는체는 뭐로 만듭니까?) 자골, 자골일 거라, 이건." [85]
(이거 가만히 놔뒀는데 헐었어. (키는 뭐로 만듭니까?) 자귀풀, 자귀풀일 거야, 이건.)


<사진 79> 장화순 씨 소장 '푸는체'


<사진 80> 고갑년 씨 소장 '푸는체'


<사진 81> 양명부 씨 소장 '푸는체'


<사진 82> 양명부 씨 소장 '푸는체'(아래쪽)

83)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84) 금악리 장화순 씨 구술.
85)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사진 79>는 금악리 장화순 씨가 사용했던 '푸는체'고, <사진 80>은 월림리 고갑년 씨의 '푸는체'다. <사진 81>과 <사진 82>는 월림리 양명부 씨의 '푸는체'다. 세 개의 모습이 비슷하다 '푸는체'의 몸통은 주로 '자골'을 이용해서 만들고, 손잡이 부분은 왕대를 얇게 쪼개서 만들었다.

"영 영 풀 때. 무신 곡석 허믄 저걸로 다 퍼, 할망덜. 아이고, 이제 삶이사." [86]
(이렇게 이렇게 까부를 때. 무슨 곡식 하면 저것으로 다 까불러, 할머니들. 아이고, 이제 삶이야.)

"이거 헐어 가니까 구멍 나가지고 저 곡식이 바깟으로 새어 나오니까 어무니가 영 헌 거. 물린 거, 이거. 우리 어무니 살아계시주게. 곡식 졸레, 예를 들어 못생긴 곡식을 저레 나부낄 때 허는 거. 지금도 나 잘 못해. 우리 어무니가 잘허지. 지금도 깨 같은 거 헐 때는 써. 한 이 년에 한 번 정도 깨 허거든. 작년까지는 깨를 심었어. 요거 터졌기 때문에 요거 붙인 거야." [87]
(이거 헐어 가니까 구멍 나서 저 곡식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한 거. 물려받은 거, 이거.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지. 곡식 쭉정이, 예를 들어 못생긴 곡식을 저리 나부낄 때 하는 거. 지금도 나 잘 못해. 우리 어머니가 잘하지. 지금도 깨 같은 거 할 때는 써. 한 이 년에 한 번 정도 깨 하거든. 작년까지는 깨를 심었어. 요거 터졌기 때문에 요거 붙인 거야.)


<사진 83> 고순여 씨 소장 '푸는체'


<사진 84> 박영자 씨 소장 '푸는체'

86) 옹포리 고순여 씨 구술.
87) 명월리 김묘생 씨 구술.



<사진 85> 고옥생 씨 소장 '푸는체'



<사진 86> 김묘생 씨 소장 '푸는체'

<사진 83>은 옹포리 고순여 씨, <사진 84>는 월림리 박영자 씨, <사진 85>는 월령리 고옥생 씨의 '푸는체'다. 모두 위에 천이 덧대어 있다. <사진 86>은 명월리 김묘생 씨의 '푸는체'인데, 김 씨의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아 쓰고 있다고 한다. '푸는체'가 헐어 곡식이 새어 나오니까 천을 발라 사용했는데 지금도 참깨 농사를 지을 때는 꺼내 쓰고 있다.

'푸는체'로 곡식을 까부릴 때는 요령이 필요했다. 곡식을 담고 박자를 잘 맞춰 위아래로 쳐야 알곡은 차츰 몸통 안으로 모여들고 쭉정이나 껍질 등은 밖으로 떨어진다. 김묘생 씨는 '푸는체'를 다루는 것이 아직도 서툴다고 한다.

4.3.3. ᄀᆞ레류

(1) 물방에

'물ᄀᆞ레'는 '연자방아'로 둥글고 넓적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세로로 세워서, 이를 말이나 소 따위로 하여금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 도구를 말한다. 일반 맷돌보다 수십 배나 큰 것으로, '물(말)'이 돌리는 'ᄀᆞ레(맷돌)'라고 해서 '물ᄀᆞ레'라고도 한다. 일상에서는 말보다 소를 이용하여 '물방에'를 돌렸는데, 마소가 없을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돌리기도 했다.

"엿날은 탈곡기 나오기 전인 보리 홀탕 도께로 허곡 물방에 이제 쉐 메왕 물방에 돌 영 둥그렁헌 거 헤영 낭 헤영 쉐 메왕. 물방에도 딱, 그거 물방에옌 헤여이. 쉐를 끗엉 빙빙빙빙 돌려근에. 엿날엔 경 헤나서."[88]

(옛날은 탈곡기 나오기 전에는 홅아서 도리깨로 하고 연자방아 이제 소 메워서 연자방아 돌 이렇게 둥그런 거 해서 나무 해서 소 메워서. 연자방아도 딱, 그거 연자방아라고 해. 소를 끌어서 빙빙빙빙 돌려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

"그거게 보리에 물 서껑 방에에 놔근에 영 둥그림 허멍 올리멍 내리우멍 헹 허민 가까지주기. 게어느 정도 뒈믄 이제 끗 헤여근에 이젠 ᄀᆞ레에 놔근에 골아근에 큰 쏠 족은 쏠 구별헤여근에 밥헹 먹곡 헷주기. 혼 번 벳경 오라근에 ᄀᆞ레에서 또 헤사 밥헹 먹을 거. 물 젹셔근에 물ᄀᆞ레에서 헐 땐 물을 조끔 서끄주게. 게난 그거 물르게끔 다 허믄 멍석 페와근에 거 널어근에 ᄒᆞ끔 물류와근에 ᄀᆞ레에 골아근에. 물방에 갓당 오는 거 혼 번 갓다 왕 불령, 불려근에 체로 헤여근에 도새기나 주곡. 쏠은 또 골아근에. 그 골지 않아도 뒈주만은 우리 엿날 할망덜은 무사사 그거 골렌 헤신디. 골아근에 체로 치어근에 우에 쏠 아레 쏠 구별헤여근에 걸로 밥헹 먹곡 경헨."[89]

(그거 보리에 물 섞어서 방아에 놔서 이렇게 굴리면서 올리면서 내리면서 하면 깎아지지.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끝 해서 이젠 맷돌에 놔서 갈아서 큰 쌀 작은 쌀 구별해서 밥해서 먹고 했지. 한 번 벗기고 와서 맷돌에서 또 해야 밥해서 먹을 거. 물 적셔서 연자매에서 할 때는 물을 조금 섞지. 그러니까 그거 마르게끔 다 하면 멍석 펴서 그거 널어서 조금 말려서 맷돌에 갈아서. 연자매 갔다 오는 거 한번 갔다 와서 불려서, 불려서 겨로 해서 돼지 주고. 쌀은 이제 또 갈아서. 그 갈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왜 그거 갈라고 했는지. 갈아서 체로 쳐서 위의 쌀, 아래 쌀 구별해서 그것으로 밥해서 먹고 그랬어.)

보리를 수확하면 홅고 두드려 타작한다. 그리고는 그것을 연자방아에서 껍질을 벗긴다. 옹포리 정일봉 씨나 한림리 이옥여 씨는 어렸을 때는 연자매에서 보리를 갈았다고 한다. 이옥여 씨는 연자매를 '물방에'라고도 하고 '물ᄀᆞ레'라고도 했는데, 보리를 연자매에 갈기 위해서는 물에 적셨다가 연자매에 올려 연자매를 돌리고 아래쪽에서는 쌀을 올리며 모아준다. 그렇게 한 번 갈고 오면 널어 말려서 쌀과 겨를 분리해 낸다. 그리고 그 쌀은 맷돌에서 다시 갈아 쪼개어 밥을 해서 먹었다. 기곗방이 생기기 전까지 '물방에'는 곡식을 깎는 주요 수단었다.

88)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89)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사진 87> 옹포 포구 근처 골목길의 '물방에'



<사진 88> 수원리 마을회관 앞의 '물방에'

<사진 87>은 옹포리 마을 안길에 세워져 있는 '물방에'이고, <사진 88>은 수원리 마을회관 앞에 재현해 놓은 '물방에'다. 옛날 사용했던 연자매를 가져다 재현하여 세워 놓은 것이다.

"저 우리 막 어린 땐 물방에에서 영 헤근에 허여나신디. ᄒᆞ꼼 뭐허난에 기계 나난에 기계에 강 가깐에. (삼촌 멧 살 때쯤에 기곗방이 나수과?) 기곗방? ᄒᆞᆫ 설남은 때." [90]

(저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연자매에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조금 뭐 하니까 기계 나오니까 기계에 가서 깎아서. (삼촌 몇 살 때쯤에 기곗방이 나왔습니까?) 기곗방? 한 서른 남짓에.)



<사진 89> 옹포리 정미소

<사진 89>는 옹포리에 남아 있는 정미소다.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한림리 이옥여 씨는 어렸을 때는 '물방에'에서 곡식을 갈다가 서른 남짓에 소위 '기곗방'이라고 부르는, 기계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방아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이용했다고 한다. 마을마다 골목길 안에 있었던 '물방에'는 기계식 정미소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도정된 곡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요즘은 정미소 또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90)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2) ᄀᆞ레

‘ᄀᆞ레’는 곡식을 가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어의 ‘맷돌’을 말한다. 둥글 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어 윗돌에 나 있는 구멍으로 곡식을 넣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돌리며 곡물을 간다. 쌀 등을 갈아 가루를 만들 때 사용하는 ‘ᄀᆞ레’를, ‘물ᄀᆞ레’나 속껍질을 거피할 때 사용하는 ‘ᄀᆞ레’ 등과 구분하여 ‘정ᄀᆞ레’라 부르기도 한다. 풀이나 두부를 만들기 위해 물에 불린 쌀이나 콩을 갈 때 사용하는 것은 ‘풀ᄀᆞ레’라고 부른다.

“것도 친정에. 콩 놩 ᄀᆞᆯ앙 콩국도 허고 두부, 두부 헤낫주, 그걸로 ᄀᆞᆯ앙. 알착, 우착 셔야 저건 뒈는 거. 문딱 친정 거.”[91]

(그것도 친정에. 콩 놓고 갈아서 콩국도 하고 두부, 두부 했었지, 그것으로 갈아서. 아래짝, 위짝 있어야 저건 되는 거. 모두 친정 거.)

“부모님네가 써난 거 물린 거죠. 콩도 ᄀᆞᆯ도 거세기 보리쌀 반으로 자를 때, 거필 때. 우리 어린 때 저거 써낫죠. 어린 때. 우리 부모덜이 헐 적에 써낫죠.”[92]

(부모님이 썼던 거 물려받은 거죠. 콩도 갈고 거시기 보리쌀 반으로 자를 때, 거피할 때. 우리 어렸을 때 저거 썼었죠.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할 적에 썼었죠.)

“시어머니 써난 ᄀᆞ레. ᄀᆞ레는 물려받안. 이걸로 모든 거 다 ᄀᆞᆯ앗주게. 메밀도 겁졍 먹곡 다 ᄀᆞᆯ앗지, 그때.”[93]

(시어머니 썼던 맷돌. 맷돌은 물려받았어. 이것으로 모든 거 다 갈았지. 메밀도 거피해서 먹고 다 갈았지, 그때.)



<사진 90> 박영자 씨 소장 ‘ᄀᆞ레’



<사진 91> 장순삼 씨 소장 ‘ᄀᆞ레’

91)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92) 협재리 장순삼 씨 구술.
93)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사진 92> 홍관매 씨 소장 '그레'



<사진 93> 홍관매 씨 소장 '그레'

<사진 90>은 월림리 박영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그레'다. 손잡이 부분까지 같이 보관하고 있는데, 위짝과 아래짝의 위치가 바뀌어 놓여 있다. 오른쪽 손잡이를 잡고 빙빙 돌리면 포개진 돌 틈새로 갈린 곡식이 흘러나온다. <사진 91>은 협재리 장순삼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장 씨의 부모님이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92>와 <사진 93>은 귀덕리 홍관매 씨(1939년생)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사용했던 것이다. 메밀의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다른 곡식을 가는 데에도 이용했다.

"저기 땅바닥에 묻엉 놔뒁주게. 그건 콩도 골고 보리썰도 골고 경허는 거. 저거 옛날에 경헤난 거주게. 영 주룩 돋안. 그레 팡돌로, 그레 장항도 올려놓고. 그레 올려0놔근에 장도 담아 놓고 그디 망데기에 담앙 톡톡 올려놓는."[94]

(저기 땅바닥에 묻어 뒀지. 그건 콩도 갈고 보리쌀도 갈고 그러는 거. 저거 옛날에 그러는 거지. 이렇게 자루 돋아서. 그리 '팡돌'로, 그리 장항도 올려놓고. 그리 올려놔서 장도 담아 놓고 거기 망데기에 담아서 톡톡 올려놓는.)



<사진 94> 양명부 씨 소장 '그레'



<사진 95> 임익종 씨 집 마당의 '그레'

94)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사진 96> 양원석 씨 소장 'ᄀᆞ레'


<사진 97> 변춘산 씨 소장 'ᄀᆞ레'

<사진 94>는 월림리 양명부 씨 집의 'ᄀᆞ레'다. 집 뒤쪽 처마 밑의 바닥에 맷돌을 박아 두고 그 위에 장독 등을 놓아두었다. <사진 95>는 수원리 임익종 씨(1956년생) 마당에 깔아 놓은 'ᄀᆞ레'다. 잔디밭에 'ᄀᆞ레'를 줄지어 묻어 디딤돌로 이용하고 있다. <사진 96>은 금악리 양원석 씨의 'ᄀᆞ레'로, 'ᄀᆞ레'의 아래쪽 부분만 남아 있다. <사진 97>은 상명리 변춘산 씨(1933년생) 집에 놓여 있는 것인데 'ᄀᆞ레'의 위쪽에 시멘트를 칠했다.

'풀ᄀᆞ레'는 물에 불린 쌀을 갈 때 사용하는 맷돌로, 표준어로는 '풀매'를 말한다. 'ᄀᆞ레'가 일반적으로 마른 곡물을 알알이 쪼개거나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풀ᄀᆞ레'는 풀을 쑤기 위해 물에 불린 쌀을 갈거나 두부를 만들기 위해 콩을 갈 때 사용한다.

"우리 할망부터 헤난 거."[95]
(우리 할머니부터 했던 거.)


<사진 98> 홍영하 씨 소장 '풀ᄀᆞ레'


<사진 99> 고기순 씨 소장 '풀ᄀᆞ레'

95) 상명리 홍영하 씨 구술.

<사진 98>은 상명리 홍영하 씨의 집에서 사용했던 '풀ᄀᆞ레'다. 홍 씨의 할머니 대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홍 씨는 직접 써 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진 99>은 한림리 고기순 씨(1939년생) 집 마당 한쪽에 놓여 있는 '풀ᄀᆞ레'다.

4.4. 운반 도구

(1) 골체

'골체'는 흙이나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어로는 '삼태기'를 말한다. '골체'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붙여지는데 대나무로 만들면 '대골체', '정동'으로 만들면 '정동골체', 철사로 만들면 '쒜골체'라고 불렀다.

"이거 끅, 끅. 끅 알아져? 골체 이거 ᄒᆞᆫ 삼십 년도 더 썻주. 쉐걸름 허영, 거름 거튼 거 담앙 들러 가고." [96]

(이거 칡, 칡. 칡 알아? 삼태기 이거 한 삼십 년도 더 썼지. 소두엄 해서, 거름 같은 거 담아서 들고 가고.)

"저거 이제 마당 거튼 거 씰고 이 빗자리로 씰엉 비와 불곡게. 밧디서도 씨곡게. (옛날 골체는?) 낭골체. 건 대로, 대로 헤낫주. 이젠 저추룩 나이롱으로 나왐주만은 그때 다 대로." [97]

(저거 이제 마당 같은 거 쓸고 이 빗자루로 쓸어서 부어 버리고. 밭에서도 쓰고. (옛날 삼태기는?) 나무삼태기. 그건 대로, 대로 했었지. 이제는 저처럼 나일론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때 다 대로.)



<사진 100> 고갑년 씨 소장 '골체'



<사진 101> 신창윤 씨 소장 '플라스틱 골체'

96)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97)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사진 100>은 월림리 고갑년 씨의 '골체'다. 고 씨가 소두엄 등의 거름을 나를 때 사용했는데, 칡의 줄기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물건을 담는 몸통 부분은 긴 칡넝쿨로 마치 옷감을 직조하듯 엮어 놓았다. '골체'의 손잡이는 한 칸 아래까지만 엮어 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골체'의 끝을 보면 뜯어진 부분을 나일론 줄로 감아 사용했었는데, 터지고 헤진 부분에서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사진 101>은 월령리 신창윤 씨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골체'다. 지금은 쓰레받기 용으로 사진의 '골체'를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대로 만든 '골체'를 사용했었다고 한다.

(2) 구덕

'구덕'은 대를 가늘게 쪼개어 엮어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구덕'은 사용 용도나 재료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짐을 넣고 등에 지고 다닐 때 사용했던 것을 '질구덕', 상대적으로 크기가 조금 작아서 허리에 차거나 들고 다녔던 것을 '출구덕'이라고 불렀다. 대나무로 만들어 '대구덕' 혹은 '대돌렝이'라고 한다.

"점심 구덕, 엿날에 밧디 뎅기멍 저것에 점심 출려 놩 정 뎅기고. 이거 구덕이렌도 골고 이름이 대로 줄은 거난 대돌렝이, 큰 건 대구덕. 질구덕 허는 말도 썻지. 산 거게. 한림장에, 오일장에 푸는 거 강 사 왓주게. 무사 저거 사신고 허민 엿날은 망텡이 같은 거나벳기 엇이난 저것에 점심 출려 놩 져근에 밧디 가졍 가젠 허민. 밧디 강 낮이 점심 먹젠 허민. 점심구덕으로 써난 거."[98]

(점심 바구니, 옛날에 밭에 다니면서 저것에 점심 차려 놓고 지고 다니고. 이것 '구덕'이라고도 말하고 이름이 대로 결은 거니까 '대돌렝이', 큰 거 대바구니. '질구덕' 하는 말도 썼지. 산 거. 한림장에, 오일장에 파는 거 가서 사 왔지. 왜 저거 샀는가 하면 옛날은 망태기 같은 것이나밖에 없으니까 저것에 점심 차려 넣고 져서 밭에 가지고 가려고 하면. 밭에 가서 낮에 점심 먹으려고 하면. 점심 바구니로 썼던 거.)



<사진 102> 양명부 씨 소장 '구덕'



<사진 103> 고옥생 씨 소장 '구덕'

98)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사진 102>는 월림리 양명부 씨가 점심 바구니로 사용했던 '구덕'이다. 양 씨는 이것을 '구덕'이라고도 하고 '대돌렝이', '대구덕', '질구덕'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양 씨는 '구덕'을 장에서 구입해서 밭일을 갈 때 점심을 넣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했다. <사진 103>은 월령리 고옥생 씨가 사용했던 '구덕'이다.

나일론이나 플라스틱이 보급되기 전에는 물건을 넣어두고 담아 나르고 하는 도구들은 모두 짚이나 식물의 줄기, 나무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 '구덕'은 요긴한 도구로, 물건이 귀했기에 그것이 헐어도 버리지 않고 다른 것을 덧대고 기워 사용했다.

"그건 아무 곡석 헤여 오민 다듬아근에, 장만헤영 놓는 거. 풀ᄇᆞ른구덕. 헐어 가민 풀 불랑. 풀 불르난 풀ᄇᆞ른구덕. 꿰도 허거덜랑 헤영 놓고. 이거 판찍헌게. 꿴 헤여지크라." [99]

(그것은 아무 곡식 해 오면 다듬어서, 장만해서 넣는 거. '풀ᄇᆞ른구덕'. 헐어 가면 풀 발라서. 풀 바르니까 '풀ᄇᆞ른구덕'. 깨도 하면 해서 넣고. 이거 멀쩡하네. 깨는 (넣을) 수 있겠어.)



<사진 104> 고갑년 씨 소장 '풀ᄇᆞ른구덕'



<사진 105> 고갑년 씨 소장 '풀ᄇᆞ른구덕'

<사진 104>와 <사진 105>는 월림리 고갑년 씨가 보관하고 있는 '풀ᄇᆞ른구덕'이다. 대나무로 결은 바구니가 헐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종이나 천을 덧대어 바른 후 다시 이용했다. 이러한 바구니는 쌀이나 가루 따위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99)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이거는 곡석 장만헐 때 놓는 거고, 저건 이런 건디 족은 거난 뭐 족족헌 거 놓고. 무신 꿰 거튼 것도 허영 놓고 족족헌 거 허영 놓는 거. 저런 거 무사 불라신고 허민 알 헐어부니까 곡석 놓젠 허난, 옛날 그릇 어려우난에 불란에 첨 곡석 놓는 거. 나가 불른 거. (언제 풀 불른 거?) 하이고, 몰르크라. 이젠 콘테나영 하간 그릇덜 나난 허주, 옛날 멧 설에사 불라져신디 몰라.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쓰긴 허는디 데껴, 불케와 불젠 허단에 이것도 아쉬운 때 쓰겠다 헹 놔둔 거주. 어지러왕 뚠 사름덜은 대부분 불 다 케와 불언."[100]

(이것은 곡식 장만할 때 넣는 것이고, 저건 이런 것인데 작은 거니까 뭐 이것저것 넣고. 무슨 깨 같은 것도 해서 넣고 이것저것 해서 넣는 거. 저런 거 왜 발랐는가 하면 아래 허니까 곡식 넣으려고 하니까, 옛날 그릇 어려우니까 발라서 첨 곡식 넣는 거. 내가 바른 거. (언제 풀 바른 거?) 하이고, 모르겠어. 아주 이젠 콘테이너와 온갖 그릇들 나니까 하지, 옛날 몇 살에 발랐는지 몰라.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쓰긴 하는데 던져, 불태워 버리려고 하다가 이것도 아쉬울 때 쓰겠다 해서 놔둔 거지. 어지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불 다 태워 버렸어.)



<사진 106> 양명부 씨 소장 '풀ᄇᆞ른구덕'



<사진 107> 양명부 씨 소장 '풀ᄇᆞ른구덕'

<사진 106>과 <사진 107>은 월림리 양명부 씨의 '풀ᄇᆞ른구덕'이다.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기 전에 여러 종류의 '구덕'을 두고 사용했었는데, 온전한 상태의 것만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들은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양 씨는 여전히 사진의 '구덕'을 사용하고 있는 듯 안에는 참깨가 들어있다.

(3) 지게

'지게'는 등에 짐을 질 수 있게끔 나무로 만든 재래식 도구다. 두 개의 가지 돋친 장나무를, 위쪽은 좁고 아래는 벌어지게 나란히 세우고 그 사이에 나무막대기를 가로지르게 맞추어 끼웠다. 줄을 매어 이것을 등에 질 수 있게 만들었다.

100)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사진 108> 고기순 씨 소장 '지게'



<사진 109> 고기순 씨 소장 '지게'의 측면

<사진 108>은 한수리 고기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지게'다. 지게가 등에 닿는 부분은 천을 덧대어 사용했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덧댄 천이 헐어 뜯어져 있다. <사진 109>의 짐을 올려 놓는 부분의 지겟가지를 보면 나무를 이어 붙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로 이어져 나뭇가지를 골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니아카

'니아카'는 사람이 끄는, 바퀴 둘 달린 손수레로 외래어 '리어카'를 일본어식 발음한 말이다. 제보자에 따라 '니아까', '니어커'라고 하기도 한다.



<사진 110> 강재후 씨 소장 '니아카'



<사진 111> 옹포 포구의 '니아카'

<사진 110>은 상대리 강재후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니아카'다. <사진 111>은 옹포 포구에서 해녀들이 채취한 우뭇가사리를 운반하고 있는 '니아카'를 찍은 사진이다.

"이거 거름, 거름 헐 때. 이거 거름 놔근에게 영 밀려다가 나무에 ᄀᆞ튼 디 비왓지. 소걸름, 소 질룰 때. (미깡낭에 거름헐 때 헌 거예?) 으, 아무거에 좋아. 이거 돌돌 밀령 강 탁 비와근에. 저거는 밀감 날를 때게. 저 강오 세 개, 세 개 톡 놩. 저건 이제야 만든 거." [101]

(이거 거름, 거름 할 때. 이거 거름 넣어서 이렇게 밀렸다가 나무에 같은 데 부웠지. 소두엄, 소 기를 때. (감귤나무에 거름할 때 한 거요?) 으, 아무거에 좋아. 이거 돌돌 밀어서 가서 탁 부워서. 저거는 밀감 나를 때. 저 바구니 세 개, 세 개 톡 놓고. 저건 이제야 만든 거.)



<사진 112> 박영자 씨 소장 '수레'

<사진 112>는 월림리 박영자 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레'다. 농가에서 바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작은 수레를 볼 수 있는데, 박영자 씨의 구술에서처럼 과수원에서 거름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5) 경운기

'경운기'는 농작물을 운반하거나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짐을 실어 나를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 이동할 때도 이용하였다.

"두 번째 산 거. 경운기에도 하간 거 시끄지. 콩도 헹 시껑 뎅기고 조도 헹 시껑 뎅기고 고구마도 시껑 뎅기고 것에. 엿날에 경 헤낫주게. 경운기 사난 좋주게. 이렇게 짊어졍 뎅기지 아녀난. 그전인 짊어졍 걸엉만 뎅겻주게. 쉐에 짐 시끄고." [102]

101)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102)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두 번째 산 거. 경운기에도 온갖 거 싣지. 콩도 해서 싣고 다니고 조도 해서 싣고 다니고 고구마도 싣고 다니고 그것에.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 경운기 사니까 좋지.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짊어지고 걸어서만 다녔지. 소에 짐 싣고.)



<사진 113> 양명부 씨 소장 '경운기'

<사진 113>은 월림리 양명부 씨 집에서 사용했던 경운기다. 양 씨의 남편이 두 번째로 구입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보관해 두고 있다. 양 씨는 경운기가 나오니, 등에 지고 다니던 짐을 경운기에 싣고 다니게 되어 상당히 좋았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농촌에 경운기가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이후다. 경운기 등의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촌 사회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농작물이나 짐을 운반하거나 이동하기가 편해졌고, 때문에 농사를 짓는 범위가 달라졌다.

"(몇 살에 경운기를 사수꽈?) 경운기는 그때 나가 육십오 년도에 간 교육 받앙 오난 한 칠십 년도." [103]

(몇 살에 경운기를 샀습니까?) 경운기는 그때 내가 육십오 년에 가서 교육받고 오니까 한 칠십 년도.)

"저 도노리오름이엔 헌 디 간에, 딸딸이 끗언 간에 낭 깨멍 헌 거 그거 막 ᄒᆞ라, ᄒᆞ라 차 헤당 눌멍 헤난. 경헹 땔감으로 불부쪄나고. 불 솜젠 허난. (경운기 난 후제도 경 낭 허레 뎅겨낫수꽈?) 예게, 불 솜을 거 엇언." [104]

(저 '도노리오름'이라고 하는 데 가서, 경운기 끌고 가서 나무 깨면서 하는 거 그거 아주 여러, 여러 차 해다가 가리면서 했었어. 그런데 땔감으로 불붙였었고. 불 때려고 하니까. (경운기가 나온 후에도 그렇게 나무하러 다녔었습니까?) 예, 불 땔 것이 없어서.)

금악리 양원석 씨는 1970년도 경에 경운기를 처음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금악리 장화순 씨는 경운기를 '딸딸이'로 부르고 있다. 장 씨는 마을 근처 오름에 가서 땔감을 장만하고 그것을 경운기로 실어 날랐다고 한다.

103)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104) 금악리 장화순 씨 구술.



<사진 114> 박영자 씨 소장 '경운기'



<사진 115> 강재후 씨 소장 '경운기'

<사진 114>는 월림리 박영자 씨 남편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다. <사진 115>는 상대리 강재후 씨의 경운기다.

(6) 배

'배'는 물건을 묶거나 매는 데에 쓰는 줄로, 표준어로는 '바'라고 한다. 짐을 질 때 사용하는 '배', '질빵' 혹은 '걸렁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전에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 등을 이용하여 '배'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나일론이 등장하면서 대부분 나일론 줄을 이용하고 있다. '배'는 천을 누벼서 만들기도 했다.

"구루마에 뭐 시꺼근에 무꺼근에 뎅겨난 거." [105]
(달구지에 뭐 실어서 묶어서 다녔던 거.)



<사진 116> 고갑년 씨 소장 '배'



<사진 117> 신창윤 씨 소장 '배'

105)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사진 116>은 월림리 고갑년 씨가 창고에 걸어 보관하고 있는 '배'다. 수레에 짐을 싣고 다닐 때 사용했었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117>은 월령리 신창윤 씨가 사용했던 '배'다.

"이거 질빵. 배엔도 허고 질빵이엔도 허고. 밧디 갈 때 밥 구덕도 졍 가고 또 장에 가근에 무신거 헐 때 헤여 오고."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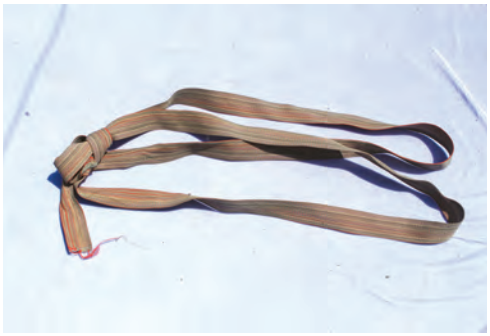
(이거 질빵. '배'라고도 하고 '질빵'이라고도 하고. 밭에 갈 때 밥 바구니도 지고 가고 또 장에 가서 무엇 할 때 해 오고.)

"이걸로 구덕 졍 밧디도 가고." [107]

(이걸로 바구니 져서 밭에도 가고.)

"저 어디 옛날은 시장 멀믄 걸어서 다닐 때, 그 곡식이라도 풀레 가젠 허믄 영 놩 지영 가주. 차 엇인 때. 밧디 갈 때 구덕도 지고." [108]

(저 어디 옛날은 시장 멀면 걸어서 다닐 때, 그 곡식이라도 팔러 가려고 하면 이렇게 놓고 지고 가지. 차 없을 때. 밭에 갈 때 바구니도 지고.)



<사진 118> 홍춘화 씨 소장 '질빵'



<사진 119> 고순여 씨 소장 '질빵'

<사진 118>은 대림리 홍춘화 씨가 사용했던 '질빵'이다. 홍 씨는 이것을 '질빵'이라고도 하고 '배'라고도 하는데, 들에 갈 때에 시장에 갈 때 대바구니에 짐을 넣어 이것으로 지고 다녔다. <사진 119>는 옹포리 고순여 씨의 '질빵'이다.

106)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107) 옹포리 고순여 씨 구술.
108)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사진 120> 양명부 씨 소장 '배'



<사진 121> '배'로 바구니를 진 모습

<사진 120>은 월림리 양명부 씨가 사용했던 '배'다. 지금은 주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짐을 지고 다닐 일이 없지만, 걸어서 밭일하러 다니고 시장에 다닐 때는 배로 짐을 지고 다녔다. <사진 121>은 양명부 씨가 배로 바구니를 진 모습이다.

4.5. 계량 도구

(1) 뒈

'뒈'는 곡식을 담아 그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보통 정사각형 모양의 그릇이다. 표준어의 '되'를 말하는데, 제보자에 따라 '관뒈', '뒛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거 엿날 거게. 그다음에는 이것이 낙인 딱 찍엇주게. 이건 오래연, 오래연. 처음에 난 거. (산 거꽈?) 물린 것덜이주게. 우리 친정어멍 농사지단 허던 것덜 나만 뚤 하나난 문딱." [109]

(이거 옛날 거. 그다음에는 이것이 낙인 딱 찍었지. 이건 오랬어, 오랬어. 처음에 난 거. (산 겁니까?) 물려받은 것들이지. 우리 친정어머니 농사짓다가 하던 것들 나만 딸 하나니까 모두.)

"것도 오래뒌 거주만은 궤양 쓰난." [110]

(그것도 오래된 거지만 곱게 쓰니까.)

109)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110)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사진 122> 홍관매 씨 소장 '뒈'



<사진 123> 양명부 씨 소장 '뒈'

<사진 122>는 귀덕리 홍관매 씨의 '뒈'다. 친정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홍 씨가 물려받아 사용했는데, 관인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것으로 더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사진 123>은 월림리 양명부 씨의 '뒈'다. 앞면에 2L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뒈'는 사면을 이어붙여 만든 것이 아니라, 각 면의 측면을 요철(凹凸) 모양으로 만둔 후 꼭 들어맞게 끼워 넣었다.

"옛날에 뒛박만 썻어. 우리 집의 아저씨가 명봉이거든. 요 어디 가서 바꾸지 말라고 명봉 썼잖아. 상에도 쓰고 저, 밥 먹는 상에도 쓰고, 이 차롱에도 실 묶고 바꾸지 말라고.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사용헷기 때문에 바뀌지 말라고." [111]

(옛날에 되만 썼어. 우리 집의 아저씨가 명봉이거든. 요거 어디 가서 바꾸지 말라고 명봉 썼잖아. 상에도 쓰고 저, 밥 먹는 상에도 쓰고, 이 채롱에도 실 묶고 바꾸지 말라고.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바뀌지 말라고.)



<사진 124> 박영자 씨 소장 '뒛박'



<사진 125> 김묘생 씨 소장 '뒛박'

111) 명월리 김묘생 씨 구술.

<사진 124>는 월림리 박영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뒷박'이고, <사진 125>는 명월리 김묘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뒷박'다. 김 씨의 '뒷박'의 옆쪽 한 면에는 김 씨의 남편 이름이 쓰여 있었다. 되의 모양이 비슷해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일하거나 물건을 빌려 사용하거나 하면서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김 씨는 되나 상에 남편의 이름을 써 넣었다고 한다. 또 채롱에도 실을 묶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었다.

(2) 저울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도구다. 손에 쥐고 물건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손저울'이라고 하고, 받침판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위쪽에 있는 저울에서 추로 무게를 다는 것을 '앉은뱅이저울'이라고 한다.

"거 아즌벵이저울. 저거 십 키로짜리고, 오 키로짜린 요거, 쪽파 들르는 거 일키로썩 넣엉." [112]
(그거 앉은뱅이저울. 저기 십 킬로그램짜리고, 오 킬로그램짜리는 요거, 쪽파 드는 거 일 킬로그램씩 넣어서.)


<사진 126> 고옥자 씨 소장 '손저울'


<사진 127> 정일봉 씨 소장 '앚은뱅이저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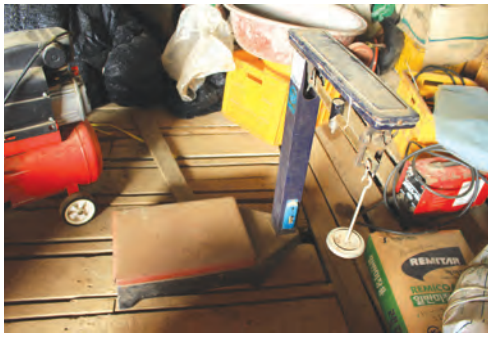
<사진 126>은 귀덕리 고옥자 씨(194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손저울'이다. 기다란 대에 추를 끼워 무게를 다는데 저울추 없이 저울 대만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127>은 옹포리 정일봉 씨의 저울이다. '앚은뱅이저울'로 정 씨는 지금도 쪽파를 수확하여 무게를 달 때 이 저울을 사용하고 있다.

112)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저울, 선인장 풀 때 허는 거. 선인장 뜨멍 풀주게. 선인장 역불로 심언." [113]
(저울, 선인장 팔 때 하는 거. 선인장 뜨면서 팔지. 선인장 역불로 심었어.)

"엿날 농서허는 디 다 이런 거 싯주게. 보리농서, 보리 갈안 보리 가멩이로 뜰 때 이거 헤난 거. 이거 혼 사십 년은 뒈실 건디." [114]
(옛날 농서하는 데 다 이런 거 있지. 보리농사, 보리 갈아서 보리 가마니로 뜰 때 이거 했었던 거. 이거 한 사십 년은 되었을 건데.)


<사진 128> 고옥생 씨 소장 '저울'


<사진 129> 박영자 씨 소장 '저울'

<사진 128>은 월령리 고옥생 씨가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다. 고 씨는 선인장을 재배하여 열매를 따서 판매하고 있는데, 선인장 열매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 129>는 월림리 박영자 씨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저울이다. 박 씨는 예전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되나 저울을 꼭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사진의 저울은 보리농사를 지을 때 보리를 장만하여 공판하기 위해 무게를 달 때 사용했었다.

4.6. 저장 도구

(1) 두지

'두지'는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보관하는 도구로, 표준어의 '뒤주'를 말한다. 나무로 궤짝같이 만드는데 모서리의 네 기둥에 짧은 발이 있으며 뚜껑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된다. 곡식이 습기나 쥐,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나무 널빤지로 짜서

113)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114)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리게 보리덜 담앙 놔둬난 거. 하도 중이 하노난 저런 거 허연에, 매집이 저런 것도 엇어낫어. 저런 것도 부자칩이나벳기 안 놔. (두지는 어디 놩 보관헤수꽈?) 마리에. 저건 커부난에 궤팡, 궤팡 더레 쪼르르허게 영 헤근에 항덜 그자, 영 영 츠츠 허영 쪼르르허게 놓고 저건 마리에, 흐꼼 신 집덜은 마리에덜 놔근에 보리 놓고 자랑헤낫주게. (까끈 보리 보관헤난 거?) 아니. 까끄지 안헌 걸 놔. 웨냐허면 저걸 가냥허지 안헐 때 중이 죽이지 못헹, 중이덜이 하주기게. 경허난 저런 것에 놩 딱 헤노민 중이 못 들어강. (까끈 거는?) 저런 항에. 경허여근에 일 년덜 까끔서 먹엇주. 좀 안 일어." [115]

(보리 보리들 담아서 놔뒀던 거. 너무 쥐가 많으니까 저런 거 해서, 매집에 저런 것도 없었어. 저런 것도 부잣집이나밖에 안 놔. (뒤주는 어디 놔서 보관했습니까?) 마루에. 저건 크니까 고방, 고방에 쪼르르하게 이렇게 해서 항아리들 그저, 이렇게 이렇게 차차 해서 쪼르르하게 놓고 저건 마루에, 조금 있는 집들은 마루에들 놔서 보리 넣고 자랑했었지. (깎은 보리 보관했던 거?) 아니. 깎지 않은 것을 넣어. 왜냐하면 저것을 간수하지 않을 때 쥐 죽이지 못해서, 쥐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런 것에 넣어서 딱 해 놓으면 쥐 못 들어가서. (깎은 것은?) 저런 항아리에. 그래서 일 년들 깎으면서 먹었지. 좀 안 일어.)



<사진 130> 홍관매 씨 소장 '두지'(옆)



<사진 131> 홍관매 씨 소장 '두지'

<사진 130>과 <사진 131>은 귀덕리 홍관매 씨가 보관하고 있는 '두지'를 찍은 것이다. 사용한 지 오래된 것으로 홍 씨는 친정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을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두지'에는 주로 보리를 보관했는데, 깎지 않은 보리를 여기에 넣어 두면 쥐도 들지 않고 좀도 일지 않았다고 한다. 깎은 보리는 고방에 있는 항아리에 보관했다.

115)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엿날 두지 저 쏠도 놓고 이제 하간 곡석 씨 거튼 것도 놔근에 허고 경허는 두지, 저거. 중간에 큰 거 주난에 족게 멘들아 불언. 큰 거 잇어낫주게. 게난 어지러완에. 그거 영 헌 거. 이제야 멘든 거. 지금 놋그릇 보관헷주게만은 옛날은 큰큰헌 거 보리, 조, 나룩 그런 거 데며근에. (이 두지) 엿날 시어멍안티 물린 거. (고친 지) 흔 이십 년, 삼십 년은 뒘서." [116]

(옛날 뒤주 저 살도 넣고 이제 온갖 곡식 씨 같은 것도 넣어서 하고 그러는 뒤주, 저것. 중간에 큰 거 주니까 작게 만들어 버렸어. 큰 거 있었지.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그거 이렇게 한 거. 이제야 만든 거. 지금 놋그릇 보관했지만, 옛날은 크디큰 거 보리, 조, 벼 그런 거 쌓아서. (이 뒤주) 옛날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 (고친 지) 한 이십 년, 삼십 년은 돼.)

"뒤주는 큰 거 작게 만들고, 이런 디 놀 수가 없으니까. 나 손에 왕 작게 헌 건 한 이삼십 년 뒈신가? 이거는 뒤주는 그야말로 쌀 보관허는 거지게, 쌀." [117]

(뒤주는 큰 거 작게 만들고, 이런 데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내 손에 와서 작게 한 건 한 이삼십 년 되나? 이것은, 뒤주는 그야말로 쌀 보관하는 거지, 쌀.)



<사진 132> 문영춘 씨 소장 '두지'



<사진 133> 오진숙 씨 소장 '뒤주'

<사진 132>는 동명리 문영춘 씨(1953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두지'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쌀을 보관했던 큰 뒤주를 작게 만든 것으로 지금은 여기에 놋그릇 등을 보관하고 있다. <사진 133>은 한림리 오진숙 씨(1948년생)의 뒤주로, 친정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을 작게 만들어 장식용 가구로 사용하고 있다.

(2) 항

'항'은 항아리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물이나 간장 등을 담는 용도이지만, 별다른 용기가 없었던 시절 곡식을 보관하는 용으로도 널리 쓰였다.

116) 동명리 문영춘 씨 구술.
117) 한림리 오진숙 씨 구술.

"곡식 담아낫주." [118]
(곡식 담았었지.)

"보리 허고 조 허고 이젠 기계덜 나난 까까다근에 좀 안 일게 저디 놧당 일 년 내낭 허영덜 먹어낫주. (저 항은 어디 보관헤낫수꽈?) 궤팡이엔 헌 디 셔낫저게. 쭐락허게 만들어근에 항만 조르륵허게 놔근에. 저 큰 항 베려 보라. 그런 것에 까까당 보리 노민 좀 안 일주게. 겨난 그거 허영 일 년 내낭 까까당, 그때도 공장덜이 어려와 노난 뭐 허민 메칠 그디 강 까까당 놩. 혼 뻔에 헤다근에 혼 섬씩 저런 항에덜 담앙 놧당 엇인 사름덜 ᄉᆞ못 어떵허영 뭐 헌 사름덜 우리 어무닌 갖다근에 먹으라, 먹으라덜 헹 줘낫지." [119]

(보리 하고 조 하고 이제는 기계들 나오니까 깎아다가 좀 안 일게 저기 놨다가 일 년 내내 해서들 먹었었지. (저 항아리는 어디 보관했었습니까?) 고방이라고 하는 데 있었어. 길게 만들어서 항아리만 조르르하게 놓고. 저 큰 항 봐 봐. 그런 것에 깎아다가 보리 넣으면 좀 안 일지. 그러니까 그거 해서 일 년 내내 깎아다가, 그때도 공장들이 어려우니까 뭐 하면 며칠 거기 가서 깎아다가 놓고. 한 번에 해다가 한 섬씩 저런 항아리들 담아 놨다가 없는 사람들 사뭇 어떡해서 뭐 한 사람들, 우리 어머니는 가져다가 먹어라, 먹어라고 해서 줬었지.)


<사진 134> 박영자 씨 소장 '항'


<사진 135> 홍관매 씨 소장 '항'

<사진 134>는 월림리 박영자 씨의 곡식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항'이다. <사진 135>는 귀덕리 홍관매 씨가 소장하고 있는 '항'이다. 도정한 곡식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쉽게 좀이 인다. 때문에 좀이 일지 않도록 곡식을 '항'에 보관했다. 곡식을 담은 '항'은 고방에 두었다.

118)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119) 귀덕리 홍관매 씨 구술.

"(궤팡에) 항 쭈런히 노난 한 열댓 갠 셔낫어. 경허민 보리 조 허민 풀지도 못허고 또 중이덜 막 들언에 먹는 따문 항상 항에 놔근에 영 더프민 중이가 안 들어. 보리 까끄지 안헌 거. 엿날 방에 공장에 강 까깟주게. 게난 까끄지 안헌 거 그디 놧당 이제 까까근에 먹게 뒈믄 그 퍼다근에 까깡 또 그레 갖다 놓고 경헷주게. 아이고, 이제 삶은 대통령 불럽지 아녀게 살아." [120]

((고방에) 항아리 줄줄이 놓으니까 한 열댓 개는 있었어. 그러면 보리 조 하면 팔지도 못하고 또 쥐들 마구 들어와서 먹기 때문에 항상 항아리에 넣어서 이렇게 덮으면 쥐가 안 들어. 보리 깎지 않은 거. 옛날 방아 공장에 가서 깎았지. 그러니까 깎지 않은 거 거기 놨다가 이제 깎아서 먹게 되면 그 퍼다가 깎아서 또 그리 갖다 넣고 그랬지. 아이고, 이제 삶은 대통령 부럽지 않게 살아.)



<사진 136> 임익종 씨 소장 '항'



<사진 137> 홍춘화 씨 소장 '항'

<사진 136>은 수원리 임익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항'이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사진 137>은 대림리 홍춘자 씨가 사용했던 항으로, 홍 씨는 크기가 다양한 여러 개의 항을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다. 홍춘화 씨 역시 곡식을 보관한 '항'을 고방에 두었다. '항'에 곡식을 보관하면 쥐가 갉아먹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을 '항'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정미소에서 깎아 온 후, 그것은 다른 '항'에 따로 보관했다고 한다.

(3) 멕

'멕'은 짚을 결어서 만든 도구로, 멍석처럼 볏짚을 두드려 부드럽게 하여 그것을 엮어 만들었다. 멍석이 평평하게 짜는 것이라면 '멕'은 큰 바구니와 같은 모양으로 울이 깊다.

120)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곡식을 담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데에 사용한다.

"하르방이 예끈 거. 그 시절엔 멘들앗주게. 멍석은 페왕 날레 너는 거, 멕은 담는 거. 곡식 담는 거게. 보리고 조고, 그 전에 푸대 엇은 때 저것에 곡석 담안." [121]

(할아버지가 엮은 거. 그 시절에는 만들었지. 멍석은 펴서 '날레' 너는 거, 멱서리는 담은 거. 곡식 담는 거. 보리며 조며, 그 전에 부대 없을 때 저것에 곡식 담았어.)



<사진 138> 박영자 씨 소장 '멕'

<사진 138>은 월림리 박영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멕'이다. 박 씨의 남편이 직접 엮어 만든 것으로 창고에 걸어 두고 보관하고 있다. 부대가 나오기 전에 보리나 조 등의 곡식을 넣어 보관할 때 사용했다. '멕'의 한쪽 부분이 터지자 천을 덧대어 막았다.

한편, '멕'의 한 종류로 '걸름착'이 있다. '걸름착'은 거름을 담아서 나르는 멱둥구미다. 주로 짚을 엮어 만드는데 농작물을 담는 멱둥구미와 모양이 같다. 돼지거름인 경우는 물기를 머금고 있어 무겁기 때문에 '걸름착'의 크기가 조금 작고 쇠두엄인 경우는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걸름착'의 크기가 크다.

"게믄 그거 마당더레 끗어 내영 그디 이제 보리 씨 뿌리멍 쉐로 볼령, 경허면은 그거 이제 걸름착이엔 헤 가지고 찍으로 만든 거 요만썩헌 것에 담으멍 쉐에 질메에 시끄멍. 그거 밧에 시꺼다당 그거 요만썩 이제 여자덜은 이제 요만썩 툭 툭 떼멍 밧디 고루고루 뿌려 놓민 갈앙 보리 헤 먹엇거든, 옛날에. 비료 없으니까." [122]

(그럼 그거 마당에 끌어 내서 거기 이제 보리 씨 뿌리면서 소로 밟아서, 그러면은 그거 이제 '걸름착'이라고 해 가지고 짚으로 만든 거 요만한 것에 담으면서 소에 길마에 실으면서. 그거 밭에 실어다가 그거 요만큼씩 이제 여자들은 이제 요만큼씩 툭 툭 떼면서 밭에 골고루 뿌려 놓으면 갈아서 보리 해 먹었거든, 옛날에. 비료 없으니까.)

121)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122)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그 엿날에는 농서짓젠 허민 비료가 엇엇잖우꽈, 게난 통지에 거름 내영 보리 씨, 보리 씨 놩 불롸 막 허민 서꺼질 거 아니꽈? 서꺼지면은 그걸 이제 그 거름착, 거름망텡이에 담앙 실러." [123]

(그 옛날에는 농사지으려고 하면 비료가 없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돼지우리에 거름 내어서 보리 씨, 보리 씨 놓고 밟아서 마구 하면 섞일 거 아닙니까? 섞이면 그걸 이제 그 '거름착', '거름망텡이'에 담아서 실어.)

금악리 양원석, 박순원 씨의 구술에 의하면, 예전에 보리를 파종할 때는 마당에 내어 둔 거름에 보리씨를 먼저 뿌리고 그것을 잘 밟은 후, 그 거름을 '걸름착'이라고 부르는 '멕'에 담아 소에 싣고 밭에 가서 뿌렸다. 거름을 담을 때 쓰는 '멕'을 '거름착', '걸름착', '거름망텡이'라고 불렀다.

(4) 도로무깡

'도로무깡'은 두꺼운 철판으로 만든 원기둥 모양의 큰 통으로 '드럼통'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도루무깡', '도라무통'이라고도 한다. 주로 석유 기름 따위를 담는 데 사용했던 것을 농가에서 곡식 등을 담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다.

"곡식 담을 때. 도로무깡에도 담곡 항에도 담곡 그땐 하영, 곡석 많이 지을 때난. 저런 것에 담아야 쥐도 안 먹곡 헷주게. 쥐가 막 많아낫주, 전이." [124]

(곡식 담을 때. 드럼통에도 담고 항아리에도 담고 그때는 많이, 곡식 많이 지을 때니까. 저런 것에 담아야 쥐도 안 먹고 했지. 쥐가 아주 많았었지, 전에.)

늦은 봄에 보리를 수확하면 그것을 잘 보관해 두면서 다음 해 다시 수확할 때까지 일 년 동안 식량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잘 보관해 두었야 하는데 드럼통이나 항아리는 쥐가 드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긴한 곡식 보관용 도구였다.

"곡석 헤당 장만헹 놔난 거. 보리도 장만헤다 놓고 조도 장만헤다 놓고 콩도 장만헤도 놓고, 이녁 먹을 양석. 이것에 담아두수루 먹엇주. 경 안허민 중이 먹어. 다 곡석 담아난 거. (항보다) 도로무깡이 편허지. 우 널르고 하영 들고." [125]

(곡식 해다가 장만해서 넣었던 거. 보리도 장만해다 넣고 조도 장만해다 넣고 콩도 장만해도 넣고, 자기 먹을 양식. 이것에 담아 놓고서 먹었지. 그렇지 않으면 쥐 먹어. 다 곡식 담았던 거. (항아리보다) 드럼통이 편하지. 위 넓고 많이 들어가고.)

123)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124)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125)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저거 보리 헐 때 저 중이 먹카 부덴 것더레 담안 헤난 거. (보리 가끈 거를 거기 담아수과?) 아니, 안 가끈 거. 거기 보관헤 놧다근데 퍼다근에 가까근에 밥헤 먹곡 헷주." [126]

(저거 보리 할 때 저 쥐 먹을까 봐 그것에 담고 했던 거. (보리 깎은 것을 거기에 담았습니까?) 아니, 안 깎은 거. 거기 보관해 놨다가 퍼다가 깎아서 밥해 먹고 했지.)



<사진 139> 양명부 씨 소장 '도로무깡'



<사진 140> 이옥여 씨 소장 '도로무깡'

<사진 139>는 월림리 양명부 씨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무깡'이다. 보리나 조 등 곡식을 장만하면 보관했던 것으로, 지금은 마대나 카파 등을 넣어 보관하고 있다. 양 씨는 입구가 넓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곡식을 보관할 때 항아리보다 편했다고 한다. <사진 140>은 한림리 이옥여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로무깡'이다. 수확한 보리를 담아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껍질을 깎아다가 밥을 지어 먹었다. 예전에는 쥐가 많았다. 쇠로 만들어진 '도로무깡'은 쥐로부터 안전하게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도구였다.

4.7. 기타 도구

(1) 글겡이

'글겡이'는 검불이나 곡물 따위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도구로, 표준어로는 '갈퀴'라고 한다. 한쪽 끝에 휘어진 갈고리 모양의 철사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든다. 예전에는 땔감으로 사용할 솔가리를 그러모을 때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벌초 때 베어낸 풀을 그러모을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126)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저 소낭밧디 가근에 막 밑에, 밑에 벌겅케 저 털어지믄 이걸로 막 긁어다가 무꺼근에 집이 완에 낭 땟거든." [127]

(저 소나무밭에 가서 아주 밑에, 밑에 벌겋게 저 떨어지면 이걸로 마구 긁어다가 묶어서 집에 와서 나무 땠거든.)

"솔입 근어당 불 숨을 때도 쓰고. 주로 솔입 근엇지. 이제는 벌초 허레 강 기계로 착착 비민 그거 가졍 긁어." [128]

(솔가리 그러모아다가 불 땔 때도 쓰고. 주로 솔가리 그러모았지. 이제는 벌초 하러 가서 기계로 착착 베면 그거 가지고 가서 긁어.)

"이거 영 옛날에 그 검질 같은 거 영 메우민 좋지 안허꽈, 긁어 노면은. 견디 그것도 헤난지 오랫수다. 벌초 허레 가면은 요즘은양 다 신식으로 나옵주. 거 요만이허고 가졍다니기 편허게, 이런 식으로 안 허고양. 이건 완전 오리지날 옛날 거우다." [129]

(이거 이렇게 옛날에 그 검불 같은 거 이렇게 모으면 좋지 않습니까, 긁어 놓으면. 그런데 그것도 했었는지 오랬습니다. 벌초 하러 가면 요즘은 다 신식으로 나오지요. 그거 요만하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이건 완전 오리지널 옛날 겁니다.)

"글겡이사 소분허는 거난 싯주." [130]

(갈퀴야 소분 하는 거니까 있지.)



<사진 141> 신창윤 씨 소장 '글겡이'



<사진 142> 박영자 씨 소장 '글겡이'

127)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128)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129)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130) 귀덕리 현경생 씨 구술.



<사진 143> 박순원 씨 소장 '글겡이'



<사진 144> 현경생 씨 소장 '글겡이'

<사진 141>은 월령리 신창윤 씨의 '글겡이'다. 예전에는 '글겡이'로 솔가리를 그러모아다가 땔감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사진 142>는 월림리 박영자 씨의 '글겡이'로 예전에는 솔가리를 그러모을 때 사용했다. 지금은 주로 벌초할 때 사용하고 있다. <사진 143>은 금악리 박순원 씨의 '글겡이'로 지금도 벌초 때 '글겡이'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144>는 귀덕리 현경생 씨(1938년생) 집에서 벌초할 때 사용하는 '글겡이'다. 손가락 끝을 구부린 모양의 '글겡이'는 나뭇가지 등을 한꺼번에 그러모으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선 채로 긁어모을 수 있도록 자루가 길다. 요즘은 대부분 벌초 때 베어낸 풀을 그러모으는 용도로 쓰고 있다.

"글겡이 큰 것도 잇어. 경헌디 이건 마늘 작업 허여근에 막 밧디 강 널엉 영 영 저을 때. 잘 몰르게 솔솔솔솔. 하르방이 다 만들안."[131]

(갈퀴 큰 것도 있어. 그런데 이건 마늘 작업 해서 마구 밭에 가서 널어서 이렇게 이렇게 저을 때. 잘 마르게 살살살살. 할아버지(남편)가 다 만들었어.)



<사진 145> 양정아 씨 소장 '글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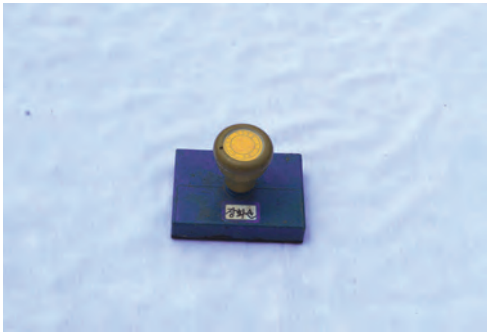
<사진 145>는 한수리 양정아 씨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다. 양 씨는 이것도 '글겡이'라고 하였는데 앞에서 본 '글겡이'의 축소판이다. 이것은 양 씨 남편이 만든 것으로, 마늘을 널어 말릴 때 마늘을 휘젓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31)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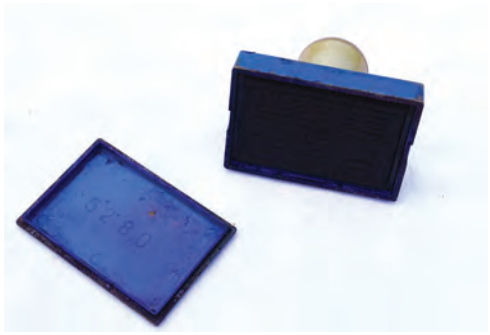
(2) 도장

'도장'은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돌, 수정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을 말한다. 일상에서 주로 개인이 사용하는 도장 외에 농산물을 판매할 때 확인을 위한 용도로도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작목반에 도장이라. 브루콜리 작업헐 때."[132]
(작목반의 도장이야. 브로콜리 작업할 때.)



<사진 146> 장화순 씨 소장 '도장'



<사진 147> 장화순 씨 소장 '도장'(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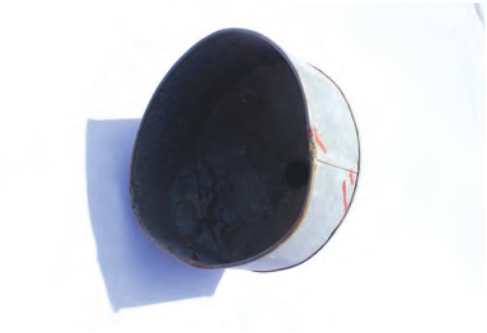
<사진 146>과 <사진 147>은 금악리 장화순 씨의 작업용 '도장'이다. 장화순 씨는 브로콜리 등의 채소를 재배하기도 했는데, 수확한 브로콜리를 상자에 넣고 그 위에 도장을 찍어 누구의 상품인지를 표시할 때 사용했다.

(3) 깔때기

'깔때기'는 병 따위에 꽂아 놓고 액체 따위를 붓는 데 쓰는 나팔 모양의 기구를 말한다. 보통 입구가 좋은 통에 액체나 가루 등을 담을 때 사용한다.

"지름통에 지름 비우는 거, 이디 놩. 아무 지름이라도, 아무 거라도 담을 때 이거 널르게 허난 이거로 영 허믄 알러레 줄 줄 줄 줄. 쏠 담을 때도 이레만 허민 이레 좔 좔 좔 좔 내려가주. 이것도 막 오래연."[133]
(기름통에 기름 부으는 거, 여기 놓고. 아무 기름이라도, 아무 거라도 담을 때 이것 넓게 하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하면 아래로 줄 줄 줄 줄. 쌀 담을 때도 이리만 하면 이리 좔 좔 좔 내려가지. 이것도 아주 오랬어.)

132) 금악리 장화순 씨 구술.
133)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사진 148> 홍춘화 씨 소장 '지름 비우는 거'



<사진 149> 홍춘화 씨 소장 '지름 비우는 거' (옆)

<사진 147>은 대림리 홍춘화 씨의 '깔대기'다. 깔대기는 기름 따위를 덜어 담을 때도 사용하지만 입구가 좁은 통에 쌀 등을 부어 넣을 때도 사용한다. 홍 씨는 기름통에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149>를 보면 함석판을 재단한 후 용접하여 만든 '깔대기'임을 알 수 있다.

(4) 무셍이

'무셍이'는 곡식이나 꼴 등을 뭇이나 단 따위로 묶는 데 쓰는 줄로, 표준어로는 '매끼'라고 한다. 보통 곡식이나 꼴 따위를 묶을 때 띠를 장만했다가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묶으려는 것을 몇 가닥 집어 그것을 엮어 묶기도 한다.

"저거 푸대 잘른 거라. 옛날에 보리, 보리 비여 노면, 저걸로 끈 허연 무껏지. 게난 저것도 버려불 건디 그냥 놔뒀네. (무사 께 안 만들엉 저걸로 끈 만들앙 보리 무꺼난?) 옛날에 나이론 끈도 엇고 헐 때난 저 푸대, 푸대 잘랑 요만씩 잘랑 경헹 저거 보리 무꺼난 거. 손으로 비면, 비엉 이렇게 나란히 놔. 물르면은 저 끈 허영 혼 뭇, 혼 뭇 무꺼당 모아당 놩 탈곡기에 장만헷지. 이건 나이론 끈 엇은 때, ᄒᆞ꼼 옛날이난." [134]

(저거 부대 자른 거야. 옛날에 보리, 보리 베어 놓으면 저것으로 끈 해서 묶었지. 그러니까 저것도 버려버릴 건데 그냥 놔뒀네. (왜 매끼 안 만들고 저것으로 끈 만들어서 보리 묶었었어?) 옛날에는 나일론 끈도 없고 할 때니까 저 부대, 부대 잘라서 요만큼씩 잘라서 그래서 저거 보리 묶었던 거. 손으로 베면, 베어서 이렇게 나란히 놔. 마르면 저 끈 해서 한 뭇, 한 뭇 묶어다가 모아다가 놔서 탈곡기에 장만했지. 이건 나일론 끈 없을 때, 조금 옛날이니까.)

134)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사진 150> 박영자 씨 소장 '무셍이'

<사진 150>은 월림리 박영자 씨가 창고 천장에 매달아 보관하고 있는 '무셍이'다. 보리를 묶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나일론 줄이 나오기 전에 부대를 길게 잘라 만들어 사용하던 것이다.

5. 어업 관련

제주의 여느 해안마을과 마찬가지로 한림읍의 해안 마을은 농업을 중심으로 어업을 겸하는 반농반어 지역이다. 특히 한림읍 지역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림항이 개발되면서 제주 서부권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림항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과의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근대 문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전해졌고 여러 산업 시설들이 들어섰다.

바다 자원의 황폐화로 어업 생산량이 줄고 있지만 귀덕리, 수원리, 한수리, 한림리, 옹포리, 협재리, 금능리 등은 여전히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다.

이 장에서는 바닷일 관련 도구를 해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했던 도구와 고기잡이 도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 바닷일과 관련한 근대 산업 시설을 살펴보았다.

5.1. 바닷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마을에서 바다가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바닷물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헤엄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여자아이들은 물질을 시작했다.

"(몇 살 때부터 물질을 헤수꽈?) 우리 혼 열두 설인가, 멧 설에 헷지." [1)]
((몇 살 때부터 물질을 했습니까?) 우리 한 열두 살인가, 몇 살에 했지.)

"우리 어린 때부터, 열다섯에 베왓주게. 베와 가난 이제 이디서 풍당풍당 허단에 베완에." [2)]
(우리 어릴 때부터, 열다섯에 배웠지. 배워 가니까 이제 여기서 퐁당퐁당 하다가 배워서.)

1)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2)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물질이야 어린 때 요만헌 때부터 영 영 휘멍 물질헷지. 어린 때, 요만이헌 때 바닷가에 강 막 휘멍 허난 멧 설부터 물질 헤져신디 몰라. 어린 때 보말도 잡고 남박 틔왕. 남박 틔왕 수영 허멍 보말도 ᄌᆞ물고. (언제까지 물질 헤수꽈?) 칠십칠 나난 물질 못 허난 그때는 설러 벳지. 물질을 일찍 설럿지. 뒈나마나 밧디만. 그때는 보리 갈곡 콩 갈곡 조 갈곡 그런 것만 헹 살앗지." [3]

(물질이야 어렸을 때 요만한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헤엄치면서 물질했지. 어렸을 때, 요만한 때 바닷가에 가서 마구 헤엄치면서 하니까 몇 살부터 물질했는지 몰라. 어렸을 때 고둥도 잡고 나무바가지 띄워서. 나무바가지 띄워서 수영하면서 고둥도 캐고. (언제까지 물질 했습니까?) 칠십칠 되니까 물질 못 하니까 그때는 그만둬 버렸지. 물질을 일찍 그만뒀지. 되나마나 밭에만. 그때는 보리 갈고 콩 갈고 조 갈고 그런 것만 해서 살았지.)

십 대의 어린 나이에 물질을 시작하여 칠십 대까지, 현재 팔십 대에도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 있다. 월령리 신창윤 씨(1934년생)나 고옥생 씨(1940년생), 금능리 김진현 씨(1936년생)는 지금은 물질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십 대에 물질을 시작하여 오랜 기간 바닷일을 하면 살아왔다. 김진현 씨의 구술에서처럼 처음에는 물가에서 나무바가지를 띄워 놓고 고둥을 잡으며 놀다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게 물질을 시작했다.

"(음력) 이월, 삼월에 (웨방물질) 갓당 칠팔월 나 가믄, 바당물이 칠팔월 나 가믄 서늘허주게. 그때 다 와 불어. 팔월엔 팔월멩질도 먹고 허젠. (거기서 주로 뭐 잡아낫수꽈?) 하이고 메역, 전복, 감태, 또 또 잊어불엇저. 우미, 우미 그추룩. 그땐 돈이 하도 어려운 때난 가믄 나 이제 생각에 ᄒᆞᆫ 육만 원, 칠만 원." [4]

((음력) 이월, 삼월에 (다른 지역에 물질) 갔다가 칠팔월 돼 가면, 바닷물이 칠팔월 돼 가면 서늘하지. 그때 다 와 버려. 팔월에는 팔월명절도 지내고 하려고. (거기서 주로 뭐 잡았었습니까?) 하이고 미역, 전복, 감태 또 또 잊어버렸어.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그처럼. 그때는 돈이 너무 어려운 때니까 가면 나 이제 생각에 한 육만 원, 칠만 원.)

물질은 제주 연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른 봄이 되면 마을마다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다른 지역으로 물질을 갔다. 보통 음력 이삼 월에 나가서 몇 개월 그곳에서 지내다가 음력 칠팔월 즈음 돌아왔다. 거기서는 미역이나 전복뿐만 아니라 감태, 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해서 팔았다. 자급자족 중심이었던 농경사회에서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는데,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은 돈벌이가 되었다.

3) 금능리 김진현 씨 구술.
4) 대림리 홍춘화 씨 구술.

"체참은게 소라게, 구젱기. 겨믄 메역을 주장, 메역을 많이 ᄌᆞ물앗주. 메역은 봄이, 그루후제 여름 물에 전복 잡곡, 구젱기 잡곡, 헤숨 잡곡 그렇게. 톳도 허고." [5]

(처음은 소라, 소라. 그럼 미역을 주로, 미역을 많이 캤지. 미역은 봄에, 그 후에 여름 물에 전복 잡고, 소라 잡고, 해삼 잡고 그렇게. 톳도 하고.)

"(성게) 허여 오는 시간보다 까는 시간이 더 걸려. 이젠 안 나부난 엇어. 옛날에 ᄒᆞᆫ 번 가믄 삼 키로, 못 허여사 이 키로라나신디. 이젠 일 키로 허기가 어려와. (무사 엇엄신고예?) 바당 오염뒈 부난 올리 우미도 엇이고, 천초도 엇인 거 보라. 저 동촌더레도 천초 바당에 천초가 엇덴." [6]

((성게) 해 오는 시간보다 까는 시간이 더 걸려. 이젠 안 나니까 없어. 옛날에 한 번 가면 삼 킬로그램, 못해야 이 킬로그램이었는데. 이젠 일 킬로그램 하기가 어려워. (왜 없나요?) 바다가 오염돼 버리니까 올해 우뭇가사리도 없고, 천초도 없는 거 보라. 저 동쪽으로도 천초 바다에 천초가 없대.)

바다의 해산물도 채취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월령리 신창윤 씨가 한창 물질을 하던 7, 80년대는 소라나 미역 등이 돈벌이가 되었다. 이른 봄부터 미역을 캐기 위해 물에 들었고, 여름이 되면 소라나 전복 등을 잡았다. 지금은 소라, 성게, 우뭇가사리 등을 주로 채취하는데, 바다가 오염되어 가면서 해산물이 크게 줄고 있다. 옹포리 김인선 씨(1949년생)는 올해도 5, 6월에 성게를 채취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번 물질 가면 삼 킬로그램까지 채취했었는데, 이제는 일 킬로그램을 채취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거 바당에 올라온 거 줏어 온 거. ᄌᆞ물민 막 고운디 줏어 온 거난 헤뜩헤뜩." [7]

(그거 바다에 올라온 거 주워 온 거. 캐면 아주 고운데 주워 온 거니까 얼룩얼룩.)



<사진 1> 우뭇가사리 채취 작업을 마치고 옹포항으로 돌아온 해녀들



<사진 2> 옹포항에 우뭇가사리를 널고 있는 모습

5)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6) 옹포리 김인선 씨 구술.
7) 옹포리 고순여 씨 구술.



<사진 3> 옹포항에 우뭇가사리를 널고 있는 모습



<사진 4> 고순여 씨의 말린 우뭇가사리

<사진 1>은 배를 타고 비양도 연안으로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러 갔던 옹포리 해녀들이 옹포항으로 돌아와서 배에서 내리는 모습이다. <사진 2>와 <사진 3>은 채취해 온 우뭇가사리를 널고 있는 모습이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온 해녀들이 잠수복을 입은 채 우뭇가사리를 널고 있다. <사진 4>는 옹포리 고순여 씨의 말린 우뭇가사리다. 바닷가에 떠밀려 온 우뭇가사리를 주워다가 말렸는데, 채취한 것이 아니어서 곱지 않다고 한다.

바닷일은 해녀들에 한한 것만은 아니었다. 물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주로 여성들이었고, 남성들은 '테우'나 풍선 등의 고깃배를 이용해 고기잡이 나섰다.

"그때는 자리 뜨는 배는 이런 배로 잇엇지만은 테, 떼. 우리 동네도 테가 흔 너댓 개 있었어. 겡헤서 누구네 테, 누구네 테 하르방덜이 탕 튼데섬 베낏디 가근에, 이 방파제가 튼데섬이거든."[8]

(그때는 자리돔 뜨는 배는 이런 배로 있었지만 떼, 떼. 우리 동네도 떼가 한 너댓 개 있었어. 그래서 누구네 떼, 누구네 떼 할아버지들이 타서 '튼데섬' 밖으로 가서, 이 방파제가 '튼테섬'이거든.)

"테에 이렇게 사둘이엔 허는디 사둘 이렇게 동글락헌 사둘 가정 가근에, 사둘은 나무로 만들엇어이. 나무로 뒌 거 이렇게 헤근에 그 안에 이렇게 그물을 설치헤 가지고 여에 가 가지고 자리덜 많이 사는 여, 그걸 이렇게 알러레 놔 가지고 수경이라고 유리 헹 보는 거 수경. 영 봉 자리 들어와시민 들르라 헹 걸 삭 올려근에 이제 뜨주게."[9]

(떼에 이렇게 '사둘'이라고 하는데 '사둘' 이렇게 동그란 '사둘' 가지고 가서, '사둘'은 나무로 만들었어. 나무로 된 거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렇게 그물을 설치해서 '여'에 가서 자리돔들 많이 사는 '여', 그걸 이렇게 아래로 놔서 수경이라고 유리해서 보는 거 수경. 이렇게 봐서 자리돔 들어왔으면 들어라 해서 그것을 삭 올려서 이제 뜨지.)

8)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9)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자리돔을 잡을 때는 떼를 이용했다. 한림리 김중관 씨(1936년생)는 어렸을 때 동네에 몇 대의 떼가 있었다고 한다. 한림항 근처 섬 밖으로 나가 '사둘'이라고 부르는, 나무를 휘어 만든 테두리가 있는 그물을 이용해 자리돔을 잡았다. 떼를 타고 바다로 나가 바위들이 있는 '여' 근처에 떼를 세우고 '사둘'이라는 그물을 물속에 내린 다음 자리돔이 그물에 들어오는 것은 수경으로 확인한다. 자리돔이 보이면 '사둘'을 들어 올리는데, 그렇게 하여 자리돔을 낚을 수 있다.

"우리 전에는 풍선덜 타낫는데 풍선덜은 해방뒈 가지고 얼마 안 뒈 가지고 풍선덜은 안 했어이. 저 발동기가 나오기 시작허난 다 발동기덜 헤 가지고. (그믄 그 발동기가 나온 게 해방뒈난 바로 발동기가 나왓수꽈?) 아니, 한참 있었지. 일천구백ᄉᆞ십오 년도에는 우리가 아인 때니까, 우리가 소혹교 뎅길 때난에, 그때는 이런 배가 아니고 그냥 풍선. 그땐 발동기가 잘 없었어. 있었자 간혹 하나 있었지." [10]

(우리 전에는 풍선들 탔었는데 풍선들은 해방돼 가지고 얼마 안 돼서 풍선들은 안 했어. 저 발동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 발동기를 해서. (그럼 그 발동기가 나온 것이 해방되니까 바로 발동기가 나왔습니까?) 아니, 한참 있었지. 일천구백사십오 년도에는 우리가 아이였을 때니까, 우리가 소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는 이런 배가 아니고 그냥 풍선. 그때는 발동기가 잘 없었어. 있어도 간혹 하나 있었지.)

"풍선은 바람으로 뎅기는 거고, 기곗배는 건 기계로 다니는 거고 그 차이주게. (배 모양은) 비슷비슷헌데 풍선은 돗을 혼 세 개쯤 이렇게 달젠 허니까 우에 시설물이 없어, 풍선은. 그냥 펜펜헤 가지고이 앞이 그자 선장 이렇게 보호허기 위헤 간단허게 헌 거뿐이지. 집이 없어, 우에. 풍선은 아무것도 없어. 겐디 기곗배는 젠부, 선장집도 잇고 기관방도 잇고 시설허니까 우이 시설물이 잇지." [11]

(풍선은 바람으로 다니는 거고, 기계배는 그건 기계로 다니는 거고 그 차이지. (배 모양은) 비슷비슷한데 풍선은 돛을 한 세 개쯤 이렇게 달려고 하니까 위에 시설물이 없어, 풍선은. 그냥 평평해 가지고 앞에 그저 선장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 간단하게 한 거뿐이지. 집이 없어, 위에. 풍선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계배는 전부, 선장집도 있고 기관방도 있고 시설하니까 위에 시설물이 있지.)

지금과 같이 전동으로 움직이는 배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돛을 달고 노를 저어 움직이는 풍선을 이용했다. 한림리 김중관 씨는 해방 전에는 고기잡이에 풍선을 이용했는데, 그 이후 발동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풍선은 돛을 달아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기계배는 엔진을 달고 움직이는 배를 말한다. 동력을 이용하는 배들이 보급되면서 전통적인 배인 '테우'와 '풍선'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10)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11)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사진 5> 옹포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



<사진 6> 한림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사진 5>는 옹포항에 세워 있는 배이고, <사진 6>은 한림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의 모습이다.

5.2. 물옷

(1) 속곳

'속곳'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입었던 무명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1970년대 고무옷이 보급되기 전까지 해녀들은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든 물옷을 입고 바닷일을 하였다.

"옛날에 속곳이엔렌 헌 거게. 광목이나 미녕으로 헤근에 그거 뽄떠근에 문 만들안 입엇주기. 그루후엔 고무옷 이제 스뽄지 옷덜 나완 그런 거 입으민 춥지도 안 허곡 물건도 많이 헤여 내곡. (속곳 입엉) 아이고 여러 헤 허단에 고무옷 나난에 고무옷 입언 헷주기." [12]

(옛날에 '속곳'이라고 하는 거. 광목이나 무명으로 해서 그거 본떠서 모두 만들어서 입었지. 그 후에는 '고무옷' 이제 스펀지 옷들 나와서 그런 거 입으면 춥지도 않고 물건도 많이 해 내고. ('속곳' 입고) 아이고 여러 해 하다가 '고무옷' 나오니까 '고무옷' 입고 했지.)

"(속곳) 멘들안. 우리냥으로 멘들아, 만들안. 우이 적삼허고 속곳허고." [13]

(('속곳') 만들었어. 우리대로 만들어, 만들었어. 위에 적삼하고 '속곳'하고.)

12)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13)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먹을거리나 생활용품을 자급자족하던 시절이었기에 물질할 때 입는 '속곳'이나 '속곳' 위에 있는 적삼 등은 해녀들이 직접 만들어 입었다.

"속곳 다 만들앙 입언. 이녁냥으로 만들앙 입지, 돌마구 헤근에 코골이 헤영 그거. 어깨가 한쪽만 어깨 헷어. 것ᄀᆞ라 미친이엔 허는디 그거 하나만 헹 웬쪽에 미친 허영 오른쪽에는 돌마구가 잇어. 돌마구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섯 개 돌아. 오른쪽으로만." [14]

('속곳' 다 만들어서 입었어. 자기대로 만들어서 입지, 매듭단추 해서 고리 해서 그거. 어깨가 한쪽만 어깨했어. 그것보고 '미친'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해서 왼쪽에 '미친' 해서 오른쪽에는 매듭단추가 있어. 매듭단추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섯 개 달아. 오른쪽으로만.)

"(적삼도) 입엇주기게. 속곳 우이. 속곳은 영 헹 입으민게 영 미친 하나 영 돌곡 여긴 이제 벗어진 거 아니. 게믄 적삼 우이 입어, 물적삼." [15]

((적삼도) 입었지. '속곳' 위에. '속곳'은 이렇게 해서 입으면 이렇게 '미친' 하나 이렇게 달고 여긴 이제 벗겨진 거 아니. 그럼 적삼 위에 입어, '물적삼'.)

'속곳'은 한쪽(옷을 입었을 때 왼쪽)에 어깨끈이 달려 있고, 다른 쪽으로는 옆구리가 트여 있다. 트여 있는 쪽에는 거기에 천을 말아서 만든 매듭단추를 달았다. 이 매듭단추를 제보자에 따라 '돌메기', '돌마기', '벌모작' 이라고 한다. 한수리 양정아 씨(1938년생)는 이 단추를 '돌마구', 어깨끈을 '미친'이라고 불렀다. '속곳'은 한쪽 어깨만 끈으로 되어 있을 뿐으로 어깨가 훤히 드러난다. 때문에 '속곳' 위에는 광목이나 무명으로 만든 하얀 적삼을 입었다.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을 '물적삼'이라고 불렀다.

(2) 고무옷

'고무옷'은 해녀들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입는 고무로 된 잠수복이다. 1970년대 이후 '고무옷'이 나오면서, 차츰 해녀들은 '속곳' 대신 '고무옷'을 입고 물질을 하게 된다. '고무옷'을 입고 나서는 물속에서 작업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추위에 떨지 않고 물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4)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15)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사진 7> 고옥생 씨 소장 '고무옷'



<사진 8> 김진현 씨 소장 '고무옷'



<사진 9> 장인자 씨 소장 '고무옷'



<사진 10> 김인선 씨 소장 '고무옷'

<사진 7>은 월령리 고옥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고무옷'이고, <사진 8>은 금능리 김진현 씨의 '고무옷'이다. 고옥생 씨나 김진현 씨는 몇 년 전에 이미 물질을 그만두었지만 사용했던 '고무옷'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사진 9>는 옹포리 장인자 씨(1947년생), <사진 10>은 옹포리 김인선 씨의 '고무옷'으로 조사자들이 방문한 날 물질을 다녀온 후 그날 입었던 '고무옷'을 널어 말리고 있다.



<사진 11> 김진현 씨 소장 '고무모자'



<사진 12> 고옥생 씨 소장 '고무옷'과 '고무모자'

‘고무옷’을 입을 때 머리에는 ‘고무모자’를 함께 착용한다. <사진 11>은 금능리 김진현 씨, <사진 12>는 월령리 고옥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고무모자’다. 사진의 ‘고무모자’를 머리에 눈, 코, 입만 드러나게 뒤집어 쓴다.

“다 그때는 고무옷도 비싸노니까 가인만썩. 글후제사 어촌계에서 여러 사람이 주문헤당 헷주. 그전에는 비싸노니까 입는 사름은 입고 안 입는 사름은 안 입어. (고무옷 입은 사람이 하영 헷지예?) 하영만 허여, 물에 곱 들주게. 속곳 입고 이 우이 거세기 입어도 추우민 나 불거든게. 나 불어도 고무옷 입은 사름은 두 시간은 더 살아. 경허난 많이, 그냥 속곳 입은 사름이랑 천양지간이라.” [16]

(다 그때는 ‘고무옷’도 비싸니까 개인씩. 그후에 어촌계에서 여러 사람이 주문해다가 했지. 그전에는 비싸니까 입는 사람은 입고 안 입는 사람은 안 입어. (‘고무옷’ 입는 사람이 많이 했지요?) 많이만 해, 물에 곱 들지. ‘속곳’ 입고 이 위에 거시기 입어도 추우면 나와 버리거든. 나와 버려도 ‘고무옷’ 입은 사람은 두 시간은 더 살아. 그러니까 많이, 그냥 속곳 입은 사람이랑 천양지간이야.)

월령리 신창윤 씨는 처음 ‘고무옷’이 나왔을 때는 ‘고무옷’의 가격이 비싸서 해녀들 누구나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고무옷’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먼저 입었는데, ‘고무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물질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신 씨는 ‘고무옷’을 입은 해녀가 그냥 ‘속곳’을 입고 물질하는 해녀보다 두 배 정도 물속에 더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해산물을 더 많이 채취할 수 있었다.

(3) 눈

‘눈’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을 말한다. 지금 해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안경은 렌즈가 하나로 되어 있고 테두리가 고무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물안경을 ‘고무눈’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두 개의 작은 렌즈로 된 것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족은눈’이라 불렀다. 처음에는 테두리가 쇠로 되어 있는 ‘족은눈’을 사용하다가 고무로 된 물안경이 나오자 차츰 고무로 된 ‘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족은눈’과 대비하여 큰 렌즈 하나로 되어 있는 물안경을 ‘큰눈’, ‘왕눈’이라고 불렀다.

“전인 요만인헌 거, 그거 족은눈 그걸로 배왓주. 바우는 고무로 뒈고 유리는 이걸로.” [17]

(전에는 요만한 거, 그거 ‘족은눈’ 그걸로 배웠지. 가장자리는 고무로 되고 유리는 이걸로.)

16)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17)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난 지금도 해녀 허여. (삼춘 처음에 물질헐 때는 이런 눈 아니엿지예?) 쪼금만헌 거. 걸로 배왓저. (그거 무슨 눈이엔 불러낫수꽈?) 종지눈. 족은눈이엔도 불르고 종지눈이엔도 불르고. 영 큰 거는 왕눈, 이거 왕눈." [18]

(난 지금도 해녀 해. (삼촌 처음에 물질할 때는 이런 물안경 아니였지요?) 조그마한 거. 걸로 배웠지. (그거 무슨 눈이라고 불렀었습니까?) '종지눈'. '족은눈'이라고도 부르고 '종지눈'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큰 거는 '왕눈', 이거 '왕눈'.)

월령리 신창윤 씨는 '족은눈'을 쓰고 물질을 배웠다. 신 씨는 유리로 된 렌즈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자리가 고무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귀덕리 현경생 씨(1938년생)는 '족은눈'을 '종지눈'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그에 대비되는 큰 렌즈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왕눈'이라고 불렀다.



<사진 13> 현경생 씨 소장 '눈'



<사진 14> 고옥생 씨 소장 '눈'



<사진 15> 신창윤 씨 소장 '눈'



<사진 16> '눈'을 쓰고 있는 신창윤 씨

<사진 13>은 귀덕리 현경생 씨, <사진 14>은 월령리 고옥생 씨, <사진 15>는 월령리 신창윤 씨가 보관하고 있는 '눈'이다. 유리 렌즈에 테두리가 고무로 되어 있고, 거기에

18) 귀덕리 현경생 씨 구술.

고무줄을 묶어 사용하고 있다. <사진 16>은 월령리 신창윤 씨가 물안경을 쓰고 있는데, 물안경은 두 눈뿐만 아니라 코까지도 덮을 수 있는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뇌선. (삼춘도 뇌선도 먹어난?) 예, 물질헐 때 먹어낫주." [19]
(이거 뇌선. (삼촌도 뇌선도 먹었었어?) 예, 물질할 때 먹었었지.)



<사진 17> 김진현 씨 소장 '눈'



<사진 18> 김진현 씨 소장 '눈'

<사진 17>은 금능리 김진현 씨가 보관하고 있는 '눈'이다. <사진 18>에서 보는 것처럼 둥근 플라스틱 통 안에 물안경을 넣어 보관하고 있는데, 통 안에는 두통약이 같이 들어 있다. 해녀들은 물속의 수압이나 통풍이 되지 않는 '고무옷' 등으로 두통에 시달린다. 때문에 '뇌선'이나 '구심', '이지롱' 등의 두통약을 먹는 해녀들이 많았다고 한다.

(4) 뽕돌

'뽕돌'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허리에 차는 납덩이다. 고무옷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몸이 물위로 떠서, 물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해녀들은 묵직한 납을 허리에 차고 물속에 들어간다. 한림리 지역에서는 타원형 모양의 구슬처럼 생긴 납덩이를 연결하여 만든 띠를 허리에 찼는데 이것을 '뽕돌'이라고 불렀다. '연철'이라고도 한다.

19) 금능리 김진현 씨 구술.

"(고무옷 나기 전에는 뭐 입어난?) 속곳, 소중기렌 허는 거 입엇지. (그거 입을 때는 이거?) 이거 필요 엇어. 이건 고무옷 입은 후제." [20]

(('고무옷' 나기 전에는 뭐 입었었어요?) '속곳', '소중기'라고 하는 거 입었지. (그거 입을 때는 이거?) 이거 필요 없어. 이건 '고무옷' 입은 후에.)

"고무옷이 스뽄지라부난 게벼우난 물 웃터러 트주게. 트난 납으로 조정허여. 납 달아메영 조정헤근에. 허리띠주게. 연철로 만든 것이 허리띠주게. 뽕똘이렌도 허곡. 동글동글헌 거 만들안 허리에, 것도 만들안 멧 개 허믄, 것도 물에 들어가는 그 조정을 맞촤사주게. 게벼와도 터. 웃터레 올라와 불고, 또 너미 무거와도 뭐 허곡 허난 영 허여 보멍 이녁 짐작헤근에 이 정도믄 맞다 헌 걸 생각헤근에 경." [21]

('고무옷'이 스펀지여서 가벼우니까 물 위로 뜨지. 뜨니까 납으로 조정해. 납 달아매서 조정해서. 허리띠지. 연철로 만든 것이 허리띠지. 봉돌이라고도 하고. 동글동글한 거 만들어서 허리에, 그것도 만들어서 몇 개 하면, 그것도 물에 들어가는 그 조정을 맞춰야지. 가벼워도 떠. 위로 올라와 버리고, 또 너무 무거워도 뭐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 보면서 자기 짐작해서 이 정도면 맞다 하는 걸 생각해서 그렇게.)

'속곳'을 입고 물질하던 시절에는 봉돌이 따로 필요 없었다. 오로지 해녀의 힘으로, 기량으로 물속에 헤엄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했다. 그런데 '고무옷'을 입으면서는 물에 뜨는 고무의 성질상 무거운 납을 차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해녀들은 자신의 몸무게나 물질 기량에 맞게 무게를 달리하여 납을 허리에 찼다. 이때 납은 둥글고 납작하게 된 것을 연결하여 벨트 형태로 허리에 차는데 한림읍 지역에서는 다음의 <사진 19>와 <사진 20>에서와 같이 작은 봉돌을 꿰어 만든 줄을 허리에 찼다.

"이거 허리에 무끄고. 이거 안 허민 이 옷 입엉 알러레 내려가지 못허니까. 우리 이런 거 칠 키로 썩 졍, 칠 키로썩 졍 물질헤낫어." [22]

(이거 허리에 묶고. 이거 안 하면 이 옷 입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우리 이런 거 칠 킬로그램씩 지고, 칠 킬로그램씩 지고 물질했었어.)

"우리 육 키로 참저, 육 키로. 저건 차는 거 아니. 우린 배에 다 놔 둬. 저런 거 안 차면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배로 비양도 왓다 갓다 허니까 두렁박이든 수경이든 오리발이든 다 배에 놔둬." [23]

(우리 육 킬로그램 차고 있어, 육 킬로그램. 저거는 차는 거 아니. 우린 배에 다 놔 둬. 저런 거 안 차면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배로 비양도 왔다 갔다 하니까 '두렁박'이든 수경이든 오리발이든 다 배에 놔둬.)

20) 금능리 김진현 씨 구술.
21)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22) 금능리 김진현 씨 구술.
23) 옹포리 김인선 씨 구술.



<사진 19> 김인선 씨 소장 '뽕돌'



<사진 20> 김진현 씨 소장 '뽕돌'

<사진 19>는 옹포리 김인선 씨가 사용했던 '뽕돌'이다. 배를 타고 비양도 인근으로 물질을 다니는 김 씨는 '뽕돌'이나 물안경, 오리발 등의 물질 도구는 가지고 다니지 않고 배 안에 보관해 둔다고 한다. 위 사진의 것은 물질할 때 사용하는 것에서 일부 빼낸 것이다. 해녀들은 작은 봉돌 알을 더 넣고 빼면서 자신에게 맞게 허리에 차는 '뽕돌'의 무게를 맞춘다. <사진 20>은 금능리 김진현 씨의 '뽕돌'이다. 김 씨는 물질을 그만두었지만, 물질할 때 사용했던 도구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뽕돌'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른데, 김인선 씨는 육 킬로그램, 김진현 씨는 칠 킬로그램의 '뽕돌'을 차고 물질을 했었다고 한다.

(5) 귀마개

'귀마개'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를 막는 것을 말한다. 요즘에는 합성 고무 등으로 만든 잠수용 귀마개가 시중에 나와 그것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꿀밀로 '귀마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고무찰흙이나 껌을 이용하기도 했다.

"귀마개, 물 아니 들어가게. 엿날 밀로도 허고 그루후엔 껌, 끔 씹어 나근에 그 주셍이, 그거 헤근에 막고. (고무찰흑) 그런 건 안 헤난. 끔으로. 끔 여러 번 써져. 일러불지만 안허믄. 주멘기 요만이헌 거 돌아메, 테왁에. 요만이허게 ᄒᆞ꼬만허게 돌아메영, 테왁에 돌아메영. 게믄 (물에서) 나믄 거영 헤근에. 거 일러불민 그거 막아난 사름은 허지 못헤여. 거 막아야만 허주. 거믄 영 (주멘기를) 베르쌍 그 속에 나뒁당 물에 들레 또 가게 뒈믄 꺼내엉 영영 헤근에 막곡. 나오믄 또 꺼네연에 경헤영 허주." [24]

24)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귀마개, 물 안 들어가게. 옛날 밀로도 하고 그 후엔 껌, 껌 씹고 나서 그 찌꺼기, 그거 해서 막고. (고무찰흙) 그런 건 안 했었어. 껌으로. 껌 여러 번 쓸 수 있어.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주머니 요만한 거 달아매, '테왁'에. 요만하게 자그마하게 달아매서, '테왁'에 달아매서. 그럼 (물에서) 나오면 그거 이렇게 해서. 그거 잃어버리면 그거 막았던 사람은 하지 못해. 그거 막아야만 하지. 그럼 이렇게 (주머니를) 벌려서 그 속에 놔뒀다가 물에 들러 또 가게 되면 꺼내서 이렇게 해서 막고. 나오면 또 꺼내서 그렇게 하지.)

한림리 이옥여 씨(1934년생)는 귀마개로 껌을 사용했었다고 한다. 씹었던 껌으로 귀를 막고 물질을 했다. 한 번 물에 들었다가 나오면 사용했던 것은 버리지 않고 '테왁'에 매달아 놓은 주머니에 넣어 보관했다가 다시 물에 들 때 사용했다.

"물에 소곱에 들어가면은 귀에 물 들면은 그냥 막 어지럽고 게난 고무찰흑, 아이덜 씨는 거. 그거 헤 가지고 몰랑몰랑허게 양착 귀 톡 막아 가지고 허는 거." [25]

(물에 속에 들어가면 귀에 물이 들어가면 그냥 마구 어지럽고 그러니까 고무찰흙, 아이들 쓰는 거. 그거 해 가지고 말랑말랑하게 양쪽 귀 톡 막아 가지고 하는 거.)



<사진 21> 고옥생 씨 테왁에 달려 있는 '귀마개' 주머니

<사진 21>은 월령리 고옥생 씨의 '테왁'이다. '테왁'에 '귀마개'를 넣는 주머니를 묶어 놓고 물질할 때 사용하고 있다. 고 씨는 물질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면 먹먹해져서 아이들이 만들기 할 때 쓰는 고무찰흙 같은 것으로 된 귀마개를 착용했다고 한다. 귀마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테왁'에 '귀마개' 주머니를 매달아 놓고 사용하고 있다.

(6) 오리발

'오리발'은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에 발에 끼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을 말한다. 오리발은 물속에서의 추진력을 증가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 '고무옷'이 보급된 후에 오리발도 함께 신었다. '고무옷'을 입고 물속에서 빨리, 그리고 깊이 헤엄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무발'의 힘을 빌려야 했다.

25)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오리발 신언. 거 허민 빨라. 무슨 물건 허레 돌아뎅기는 물속엘 가나 물 우에나 빠르주게. 행동허는 게 빨라. 깊이도 들어가곡, 빨르게." [26]

(오리발 신었어. 그거 하면 빨라. 무슨 물건 하러 돌아다니는, 물속에를 가거나 물 위나 빠르지. 행동하는 것이 빨라. 깊이도 들어가고 빠르게.)

"오리발도 십오 년 넘엇어." [27]

(오리발도 십오 년 넘었어.)



<사진 22> 김진현 씨 소장 '오리발'

<사진 22>는 금능리 김진현 씨가 소장하고 있는 '오리발'이다. 김 씨는 물질을 그만둔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물질할 때 사용하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다. 착용한 지 오래되어 보이는 오리발의 발을 넣는 부분은 고무가 녹아 내렸다. 한림리 이옥여 씨는 '오리발'을 신어야 물속에서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고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5.3. 테왁과 망사리

(1) 테왁

'테왁'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서 기대어 타거나 해산물 넣는 망사리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물건이다. 지금은 스티로폼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티로폼이 나오기 전에는 씨를 파내고 잘 말린 박을 '테왁'으로 썼다. '테왁'은 물 위에 뜨는 박이나 스티로폼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박이나 스티로폼과 물속에 잠기는 망사리를 아울러 이르기도 한다. '테왁'은 재료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하는데, 박으로 만든 '테왁'을 '큭테왁', '콜락테왁',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이롱테왁', 스폰지테왁'이라 부른다.

26) 한림리 이옥여 씨 구술.
27) 금능리 김진현 씨 구술.

"이거 동골락헌 거, 옛날은 동골락헌 거 헤낫거든. 영 영 이디 무끄고, 이디 무끄고 네 밧디 무꺼 나신디 이젠 이, 흔 멧 년 안 뒛어. 멧 년 안 뒌 때 이 테왁을 낫어. (이거 나기 전에 어떤 테왁이랏수꽈?) 건 동골락헌 테왁, 거 이 콜락, 콜락. 이 호박 닮은 건디 이 동골락헌 거. 그거 몰령, 이디 고냥 뚤랑 씨 다 빠 두고 그걸로 헷주게." [28]

(이거 동그란 거, 옛날은 동그란 거 했었거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묶고, 여기 묶고 네 군데 묶었었는데 이젠 이, 한 몇 년 안 됐어. 몇 년 안 된 때 이 '테왁'이 나왔어. (이거 나오기 전에 어떤 '테왁'이었습니까?) 그건 동그란 '테왁', 그거 이 박, 박. 이 호박 닮은 건데 이 동그란 거. 그거 말려서, 여기 구멍 뚫어서 씨 다 빼 두고 그걸로 했지.)

"우리 낭 보난 그건 나고, 다 나완. 우리보다 전 어른덜, 그 전 어른은 테왁 거튼 것도 다 집이서 허영 씨 싱경 놧당 테왁 이제 크믄 그거 문딱 씨 빵 몰려근에, 그 옛날 할망덜부터." [29]

(우리 태어나서 보니까 그건 나오고, 다 나왔어. 우리보다 전 어른들, 그 전 어른들은 '테왁' 같은 것도 다 집에서 해서 씨 심어 놨다가 '테왁' 이제 크면 그거 모두 씨 빼서 말려서, 그 옛날 할머니들부터.)

월령리 신창윤 씨는 물질을 시작하면서 스티로폼 '테왁', 나일론 망사리를 사용했다. 집에서 박을 키워서 그것으로 '테왁'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전 세대의 일로, 동그란 모양의 박에 구멍을 뚫어서 씨를 다 제거하고 잘 말려서 '테왁'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무사 테왁이 네모나꽈?) 수협에서 저렇게 헤 가지고 빨간 거 수협에서 다. (다른 딘 동골락허잖아?) 으, 동골랑헌 것도 잇은디 다 이제 저런 거야. 비양도도 물질허는 사름이. 예전에 우리 콜락박 세기로 헷지, 이제는 다 저런 거. 게난 빨간 거는 이제 해녀 일러먹으민 찾기 좋게. 수협에서 나오는 거, 다 저거." [30]

((왜 '테왁'이 네모납니까?) 수협에서 저렇게 해 가지고 빨간 것 수협에서 다. (다른 데는 동그랗잖아?) 으, 동그란 것도 있는데 다 이제 저런 거야. 비양도도 물질하는 사람이. 예전에 우리 박으로 했지, 이제는 다 저런 거. 그러니까 빨간 거는 이제 해녀 잃어버리면 찾기 좋게. 수협에서 나오는 거, 다 저거.)

28)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29)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30)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사진 23> 신창윤 씨 소장 '테왁'



<사진 24> 고옥생 씨 소장 '테왁'

<사진 23>은 월령리 신창윤 씨, <사진 24>는 월령리 고옥생 씨가 사용했던 '테왁'이다. 한림읍 여러 마을의 해녀들은 다른 읍면지역과는 다르게 네모난 모양의 '테왁'을 사용하고 있다. '테왁'은 해상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 멀리서도 해녀들이 작업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쉽도록 눈에 잘 띄는 주황색 커버를 씌워 사용하고 있다.


<사진 25> 김진현 씨 소장 '테왁'


<사진 26> 옹포리 해녀 탈의장의 '테왁'

<사진 25>는 금능리 김진현 씨가 보관하고 있는 '테왁'이다. <사진 26>은 옹포리 해녀 탈의장에 걸려 있는 '테왁'들이다. 해녀들이 자신의 '테왁'을 해녀 탈의장에 걸어 두고 사용하고 있다.



<사진 27> 고옥생 씨 소장 '테왁'의 '닷줄'



<사진 28> 고옥생 씨 소장 '테왁'의 '닷'

한편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할 때 '테왁'이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테왁'에 닻돌이나 닻을 매달아 사용하기도 한다. <사진 27>과 <사진 28>은 월령리 고옥생 씨 '테왁'에 달려있는 '닷줄'과 '닷'이다. '닷'은 표준어의 '닻'으로, 줄에 매어 바닷속 바위에 걸리게 하고 줄의 한쪽 끝은 '테왁'에 묶어 사용한다.

(2) 망사리

'망사리'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채취한 해산물을 넣기 위한 그물로 된 자루를 말한다. 지금은 나일론으로 된 그물을 사용하는데, 나일론이 나오기 전에는 식물의 줄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바당에 물질 가젠 허민 구덕에 뭐 뭐 담아 놀 거?) 속곳, 우이 수건, 이제 저고리, 비창, 호멩이 그런 거 놧주. (망사리) 저거 ᄋᆞ져 가근에 이제 ᄀᆞ에, 해녀들 이제 와서 불 초우고, 물에 들엉 나믄 추우믄 불 초와. 영 모도아정. 영 불 초울 때 저거 ᄋᆞ정 가야, 소라 많이 헐 때난 그것에 담앙 바당에 강 ᄃᆞᆼ그지. ᄃᆞᆼ강 놧당 이제 수협에서 와근에 받아 가고." [31]

((바다에 물질 가려고 하면 바구니에 뭐 뭐 담아 놓을 거?) '속곳', 위에 수건, 이제 저고리, '비창', '호멩이' 그런 거 놨지. (망사리) 저거 가지고 가서 이제 가에, 해녀들 이제 와서 불 쬐고, 물에 들었다가 나오면 추우면 불 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불 쬘 때 저거 가지고 가야, 소라 많이 할 때니까 그것에 담아서 바다에 가서 담그지. 담가 놨다가 이제 수협에서 와서 받아 가고.)

"(저 뒤에 있는 건 어음이 엇수다예?) 저거는 허여 와서 바당에 ᄃᆞᆼ그는 거, 큰 거. 작은 것들은 그냥 어지러 뎅기당 하간 무슨 메역도 ᄌᆞ물아 놓고, 무신 하간 거 ᄌᆞ물아 놓고." [32]

31)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32)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저 뒤에 있는 건 '어음'이 없네요?) 저것은 해 와서 바다에 담그는 거, 큰 거. 작은 것들은 그냥 어질러 다니다가 온갖 무슨 미역도 캐서 넣고, 무슨 온갖 거 캐서 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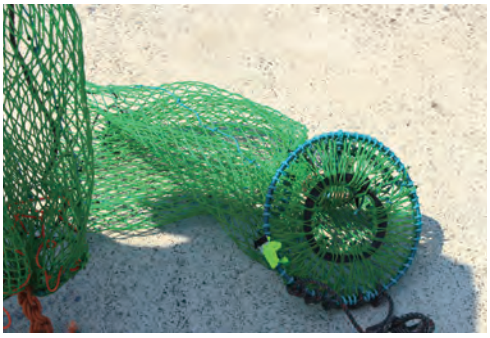


<사진 29> 신창윤 씨 소장 '망사리'



<사진 30> 신창윤 씨 소장 '망사리'

<사진 29>와 <사진 30>은 월령리 신창윤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망사리'다. 앞의 <사진 25>처럼 '테왁'에 달려있는 '망사리'와는 달리 훌라후프 모양의 둥근 테인 '어음'이 없다. 신 씨는 물질할 때 이들 '망사리'도 가지고 가서 잡은 해산물을 넣어 임시로 바닷물에 담가 둘 때 사용했다고 한다. '어음'이 없는 망사리는 해산물이나 해초를 많이 캤을 때 예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진 31> 김인선 씨 소장 '망사리'



<사진 32> 채취한 '우미'를 담아 넣은 '망사리'

<사진 31>은 옹포리 김인선 씨의 '망사리'다. 김 씨가 물질할 때 '테왁' 외에 별도로 가지고 다니는 예비용 망사리로, '어음' 부분을 두꺼운 철사로 둥글게 하여 망사리에 끼워

해산물 등을 넣기 편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사진 32>는 채취한 우뭇가사리가 '망사리'에 들어 있는 모습이다. 우뭇가사리를 채취하고 돌아오는 해녀의 '망사리'를 옹포항에서 찍은 것이다.

"어음은 다른 걸로 못헤. 삼동낭 바다 가도 꺼꺼지지도 안허고 이제 막 물건 많이 허여도 영 들러내여도 꺼꺼지지 안허는 거. 이거 해녀들 엿날은 이걸로만 헷어. 이제는 나일론으로 허주만은."[33)]
('어음'은 다른 것으로는 못해. 상동나무가 바다에 가도 꺾어지지도 않고 이제 아주 물건을 많이 해도 이렇게 들어내도 꺾어지지 않는 거. 이거 해녀들 옛날은 이걸로만 했어. 이제는 나일론으로 하지만.)

'테왁'에서 박 또는 스티로폼과 '망사리'를 연결하는 부위인 '어음'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어음'은 곧은 나무를 둥글게 휘어 사용하는데 상동나무의 줄기를 주로 사용했다. 월령리 신창윤 씨의 설명으로는 상동나무는 바닷물에도 잘 꺾이지 않고 단단하여 '테왁'의 '어음'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3) 조락

'조락'은 작은 그물주머니를 말한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 외에 별도의 '조락'을 가지고 가서 전복이나 문어 따위의 해산물을 다른 해초나 해산물과 구분하여 넣을 때 사용했다. 또 '조락'을 허리에 차고 물속에 들어가서 채취한 해산물을 임시로 넣어 두는 주머니로도 이용했다.

"오분제기도 놓고 문어도 잡아 놓고 큰 테왁엔 소라 놓고 경허는 거, 저거."[34)]
(오분자기도 놓고 문어도 잡아 놓고 큰 '테왁'에는 소라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저거.)


<사진 33> 고옥생 씨 소장 '조락'


<사진 34> 신창윤 씨 소장 '조락'

33)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34)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사진 33>은 월령리 고옥생 씨의 '조락'이다. 소라를 채취할 때 문어나 오분자기를 소라를 넣는 망사리에 함께 넣으면 소라 껍데기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를 따로 보관하기 위해 사진에서와 같이 '테왁'에 '조락'을 매달아 사용했다. <사진 34>는 월령리 신창윤 씨가 보관하고 있는 '조락'이다. 신 씨는 소라를 채취할 때 오분자기나 문어가 보이면 잡아서 '조락'에 넣었다.

"뒈나마나 그자 바다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차지. 이렇게 톡허게시리 창 뎅기다근에 문어도 봐지믄, 이제 테왁 심으레 갈 어간이 엇어. 겨믄 그거 골겡이로 막 심엉 이레 담앙 뎅기고. 이거 하나 또시 테왁에 둘아멘 거 잇고. 테왁에 헌 건 또시 이제 봐지민 줏어 놔. 보멀도 줏어 놓고 뭐 구젱기도 준 거 줏어 놓고 메역도 봐지민 헤 놓고." [35]

(되나마나 그저 바다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차지. 이렇게 톡 차고 다니다가 문어도 보이면, 이제 '테왁' 잡으러 갈 어간이 없어. 그럼 그거 호미로 막 잡아서 이리 담고 다니고. 이거 하나 또 '테왁'에 달아맨 거 있고. '테왁' 한 건 또 이제 뭐 보이면 주워 넣어. 고둥도 주워 넣고 무엇 소라도 잔 거 주워 넣고 미역도 보이면 해 넣고.)

"바당에 강 물에 들엉 요만썩헌 오분자기 요만썩헌 거, 오분자기 트민 담는 거. 경허민 휘영 테왁 신디 가근에 호이호이 헤근에 이젠 버치민, 두렁박을 지퍼야 호이 호이 헤근에 막 숨 셔근에 따시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바닷속에 들어가민 머들 아래, 큰 이 머들덜 잇어, 바당소곱에도. 머들덜 시민 머들 아래도 가근에 이제 구젱기도 허여 오고 전복도 트고 문어도 잡아지민 터 오고. 그때 우리 헐 때는 막 많이 있어. (저거 두 개 다 오분제기 담는 거?) 다 오분제기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이거는 이거 물에 들어서 이제 또시 소라도 헤여 놓고 구살도 허여 놓고. 또시 요거는 또시 굴루이 창 뎅기다가 또시 뭣이 메역 거튼 것도 헤여 놓고 천초도 뜯어 놓고 허는 거." [36]

(바다에 가서 물에 들어서 요만한 오분자기 요만한 거, 오분자기 떼면 담는 거. 그러면 헤엄쳐서 '테왁'에 가서 호이호이 해서 이제는 힘이 들면, '두렁박'을 짚어야 호이호이 해서 마구 숨 쉬고 다시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바닷속에 들어가면 돌 무더기 아래, 큰 이 돌 무더기들이 있어, 바닷속에도. 돌 무더기가 있으면 돌 무더기 아래도 가서 이제 소라도 해 오고 전복도 떼고 문어도 잡으면 떼 오고. 그때 우리 할 때는 아주 많이 있어. (저거 두 개 다 오분자기 담는 거?) 다 오분자기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이거는 물에 들어서 이제 또 소라도 해 놓고 성게도 해 놓고. 또 요거는 또 여분으로 차고 다니다가 또 뭐 미역 같은 것도 해서 넣고 천초도 뜯어서 넣고 하는 거.)

월령리 신창윤 씨는 바다에 들어갈 때는 작은 망사리인 '조락'을 차고 들어갔다. 해산물을 캘 때마다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이 '조락'에 문어 따위를 넣고 다시 무언가를 캤다. 이런 '조락'은 물속에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테왁에 매달아 두고 고둥이나 소

35)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36)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라 따위를 잡으면 담아두기도 했다. 신 씨는 여러 개의 '조락'을 가지고 다니며 요긴하게 사용했다.



<사진 35> 김진현 씨 소장 '조락'



<사진 36> 신창윤 씨 소장 '조락'

<사진 35>는 금능리 김진현 씨가 보관하고 있는 '조락'이고, <사진 36>은 월령리 신창윤 씨가 보관하고 있는 '조락'이다. 신 씨는 앞의 <사진 34>와 같이 굵은 철사 따위로 '어음'을 만든 '조락'도 사용하고 있지만, <사진 36>과 같이 '어음'이 없이 작은 망사리도 이용하고 있다. 망사리의 줄을 잡아당기면 입구가 오므라들어 담아 둔 해산물이 빠지지 않는다.

5.4. 채취 도구

(1) 중게호미와 호멩이

'중게호미'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미역, 톳 등의 해초를 벨 때 사용하는 낫으로, 밭일을 할 때 사용하는 '호미'보다는 작고 가볍다. '호멩이'는 해산물을 채취할 때 쓰는 호미로, 제보자에 따라 '골겡이', '바당골겡이'라고도 한다.

"물에 헐 때 호미 필요 엇수다. 미역 ᄌᆞ물 때나 아니면은. 미역 헐 때는 강 허지. (밧디 헐 때 허는 호미랑 미역 헐 때 허는 호미랑 ᄐᆞ납니까?) ᄐᆞᆫ나지. 물에 헐 때 허는 거는 이것이 일로 가지. 이 쒜를 이거 일로 똘라근에 이거 끗뎅이 오그령 영 박앙 일로 무꺼근에 영 허믄 이거 땅이 대지게. (이 날을 가운데로 꽂는 게 아니고?) 이 밧디는 이런 걸로 영 허고 물에 허는 거는 욜로 부쪄서 중게호미. 중게호미 해녀 호미라고 그거. 옛날에 중게호미주게. 이제는 중게호미가 필요가 엇주만. 건 미역 헐 때만 씨는 거." [37]

37) 금능리 김진현 씨 구술.

(물에 할 때 낫 필요 없습니다. 미역 캘 때나 아니면. 미역 할 때는 가서 하지. (밭에 할 때 하는 낫이랑 미역 할 때 하는 낫이랑 다릅니까?) 다르지. 물에 할 때 하는 거는 이것이 이리로 가지. 이 쇠를 이거 이리로 뚫어서 이거 끝에 오그려서 이렇게 박아서 이리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땅에 대지. (이 날을 가운데로 꽂는 게 아니고?) 이 밭에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물에 하는 거는 요리로 붙여서 '중게호미'. '중게호미' 해녀 '호미'라고 그거. 옛날에 '중게호미'지. 이제는 '중게호미'가 필요가 없지만. 그건 미역을 할 때만 쓰는 거.)

금능리 김진현 씨 설명에 따르면 해초를 캘 때 사용하는 '중게호미'와 밭일을 할 때 쓰는 '호미'는 날을 손잡이에 끼우는 방법이 다르다. '호미'는 손잡이 끝 단면의 가운데 부분에 날을 끼워 사용하는 반면 '중게호미'는 손잡이를 손에 쥐었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 쪽으로 날을 끼워 사용한다고 한다. 미역을 캐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녀들이 물에 들 때 낫을 들고 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바당에 쓰는 호미랑 이디 쓰는 호미랑 ᄐᆞ나?) ᄐᆞ나. 중게호미라고 바당에 씨는 건 녹 안 피는 거. 녹 안 피고 ᄌᆞ룩도 이제 물에 들민 트는 거, 그런 걸로 허고. 게베운 거. 그런 낭이 셔. 그 낭으로 허민 트주게, 터. 물에 가도 골라앚지 안허여. 게난 그 무신 낭인고 몰라. 우리도 큰 낭 셔나신디. 거 끈어 베신디." [38]

(바다에 쓰는 낫이랑 여기 쓰는 낫이랑 달라?) 달라. '중게호미'라고 바다에 쓰는 건 녹이 안 피는 거. 녹 안 피고 자루도 이제 물에 들면 뜨는 거, 그런 걸로 하고. 가벼운 거. 그런 나무가 있어. 그 나무로 하면 뜨지, 떠. 물에 가도 가라앉지 않아. 그러니까 그 무슨 나무인지 몰라. 우리도 큰 나무 있었는데. 그거 끊어 버렸는데.)

월령리 신창윤 씨도 바닷일을 할 때 쓰는 '중게호미'는 일반 낫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낫은 날은 녹이 잘 안 피는 쇠를 이용했고 자루는 물에도 뜨는 가벼운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골겡이는 밧디 가는 게 골겡이고 물에 가는 거는 호멩이. 호멩이 물에 허는 건디 더 긴 것도 쓸 수도 잇고 더 짧은 것도 쓸 수가 잇고. (긴 거는 옛날에) 문어 헐 때. (짧은 건) 이거는 소라도 고망이 이신 거 파내고 오분제기도 트고. 전복 헐 땐 비창. (오분제기도 그냥 호멩이로 헷수꽈?) 으, 오분제기는 이걸로 떠야. 비창으로 못 헤, 오분제긴 이걸로 헤야지. 고냥 영 ᄆᆞᆫ직앙 이시민 이걸로 확. 문어 헐 때 큰 걸로 허고, 성게 헐 때 거 큰 걸로 허고. 소라 헐 때도 이걸(작은 거)로 허고, 오분제기 헐 때도, 오분제기 헐 때 너미 질믄 궂어. (해삼 헐 땐?) 해삼은 뭐 우이 이시니까 강 손으로 줏어 오주 뭐." [39]

38)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39) 금능리 김진현 씨 구술.

('골겡이'는 밭에 가는 것이 '골겡이'고 물에 가는 것은 '호멩이'. '호멩이' 물이 허는 건데 더 긴 것도 쓸 수도 있고. 더 짧은 것도 쓸 수가 있고. (긴 것은 옛날에) 문어 할 때. (짧은 건) 이거는 소라도 구멍에 있는 거 파내고 오분자기도 떼고. 전복할 때는 '비창'. (오분자기도 그냥 '호멩이'로 했습니까?) 으, 오분자기는 이걸로 떼야. 비창으로 못 해, 오분자긴 이걸로 해야지. 구멍 이렇게 만져서 있으면 이러로 확. 문어 할 때 큰 걸로 하고, 성게 할 때 그거 큰 걸로 하고. 소라 할 때도 이걸(작은 거)로 하고, 오분자기 할 때도, 오분자기 할 때 너무 길면 궂어. (해삼 할 때는?) 해삼은 뭐 위에 있으니까 가서 손으로 주워 오지 뭐.)

금능리 김진현 씨는 밭일에 쓰는 것을 '골겡이', 바닷일에 쓰는 것을 '호멩이'로 구분하고 있다. 이 '호멩이'도 바다에서 채취하는 해산물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 문어나 성게 작업을 할 때는 긴 것을 사용하지만, 오분자기나 소라를 캘 때는 길이가 짧은 것을 이용했다.



<사진 37> 고옥생 씨 소장 '호멩이'

<사진 37>은 월령리 고옥생 씨가 '테왁' 끼워 보관하고 있는 '호멩이'다. 물질을 그만둔 지 오래지만 고 씨는 '테왁'이나 '호멩이' 등 물질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한데 모아 보관하고 있다.



<사진 38> 김진현 씨 소장 '호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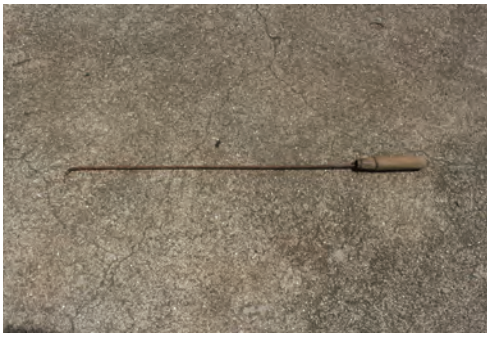
<사진 39> 김인선 씨 소장 '호멩이'

<사진 38>은 금능리 김진현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멩이'다. 두 개의 '호멩이'의 날 모양이 조금 다른데 뒤쪽의 '호멩이'가 날이 조금 더 길고 납작하다. 바위 등에 단단히 붙

어 있는 해산물을 떼어낼 수 있도록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다. <사진 39>는 옹포리 김인선 씨가 최근까지 사용했던 '호멩이'다. '호멩이'의 끝을 손에 걸 수 있도록 고무줄이 달려 있다.

"이거는 우린 안 써 봔. 이거는 남저덜 메꾸럭 잡으레 뎅길 때. 건 밤이 남저덜 훳불 쌍 강, 것이 훳불 싸믄, 물 ᄇᆞ짝 싸믄 남저덜 불 들렁 가 가믄 영. 물꾸럭허곤 뜬 종류게. 그거 잡으레 가근에 봐지믄 이걸로 콱 허게 건졍 잡는 거." [40]

(이거는 우린 안 써 봤어. 이거는 남자들 낙지 잡으러 다닐 때. 그건 밤에 남자들 횃불 켜고 가서, 그것이 횃불 켜면, 물 바짝 싸면 남자들 불 들고 가 가면 이렇게. 문어하고는 다른 종류야. 그거 잡으러 가서 보이면 이걸로 콱 하게 건져서 잡는 거.)



<사진 40> 고옥생 씨 소장 '골겡이'



<사진 41> 신창윤 씨 소장 '골겡이'

<사진 40>은 월령리 고옥생 씨, <사진 41>은 월령이 신창윤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골겡이'다. 사진의 자루가 긴 호미는 주로 남자들이 낙지를 잡으러 다닐 때 사용했던 것이다. 낙지는 주로 썰물인 날 밤에 횃불을 켜고 많이 잡았다. 횃불을 비추며 물이 빠져나간 바닷가 돌 위를 걸어다니면 낙지들이 불빛을 보고 먹을 것을 찾아 기어 나오는데 돌 틈에 있는 낙지를 끄집어 낼 때 사용했다.

한편, 바닷가 돌에 난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한 호미도 있다. 제보자들은 이것을 '톳 검질메는 거'라고 불렀다. 들에 김을 매는 호미는 날이 가늘고 뾰족한 반면, 바닷가 김을 매는 호미는 끝이 납작하다.

40)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그거 바당에 톳 검질메는 거. 톳 나게시리, 잡초덜을 바당에 거 착착착착 그걸로. 톳 나면은 밑에 막 풀이 나거든. 밧데 풀 나듯이. 경허민 그 풀 캐는 거. (옛날에도 그렇게 돌 청소헤나수꽈?) 아마 옛날엔 안 헷어. 우리가 아마 혼 이십 대쯤에 헌 거지. 바당에 톳 허믄, 미역 바당에 강 톹아다근에 먹고 ᄌᆞ물앙 먹고 풀고. 옛날에 물질헤낫주게. 톳도 공동으로 막 허영 막 널엉 다듬앙 일본더레 막 수출헷주게." [41]

(그거 바다에 톳 김매는 거. 톳 나게끔, 잡초들을 바다에 그거 착착착착 그것으로. 톳 나면은 밑에 마구 풀이 나거든. 밭에 풀 나듯이. 그러면 그 풀 캐는 거. (옛날에도 그렇게 돌 청소했었습니까?) 아마 옛날에는 안 했어. 우리가 아마 한 이십 대쯤에 한 거지. 바다에 톳 하면, 미역 바다에 가서 뜯어다가 먹고 캐서 먹고 팔고. 옛날에 물질했었지. 톳도 공동으로 마구 해서 마구 널어서 다듬어서 일본으로 많이 수출했지.)



<사진 42> 김종선 씨 소장 '톳 검질메는 거'



<사진 43> 양정아 씨 소장 '톳 검질메는 거'

<사진 42>는 수원리 김종선 씨(1933년생), <사진 43>은 한수리 양정아 씨가 사용했던 호미다. 양 씨는 이 호미를 '톳 검질 메는 거'로 불렀는데, 톳이 자라는 바다밭에 자란 다른 해초를 제거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2) 비창

'비창'은 해녀들이 전복을 딸 때 사용하는 쇠로 된 기다란 도구를 말한다. 한쪽 끝에는 끈이나 고무줄 따위를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무줄 고리를 만들어 둔다. 물속에서 전복을 캐는 작업을 할 때는 '비창'이 빠지지 않도록 손목에 끼워 사용한다.

41)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사진 44> 신창윤 씨 소장 '비창'

<사진 44>는 월령리 신창윤 씨가 사용했던 '비창'이다. '테왁'의 망사리에 끼워져 있는 '비창'은 사용한 지 오래었는지 이미 녹이 많이 슬어 있다. 돌에 단단히 붙어 있는 전복 한쪽에 '비창'의 끝부분을 집어넣어 지렛대처럼 전복을 들어 올리며 떼어 냈다.

(3) 소살

'소살'은 물속에서 물고기를 쏘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작살'을 말한다. 작대기 끝에 뾰족한 쇠꼬챙이를 박아 만든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소살'도 가지고 가 이것으로 물고기를 찔러 잡기도 했다.

"이디서 이거 소살이엔 헌다. 이디 영 하나가 고기 나끄는 거고, 이거는 아이덜 헤난 거. 이제 이디 날 만들아근에 하나 허믄 갓돔도 쏘고, 감은돔도 쏘고 헤낫주게. 비양도 다닐 때." [42]

(여기서 이거 '소살'이라고 한다. 이거 이렇게 하나가 고기 낚는 거고, 이거는 아이들 했던 거. 이제 여기 날 만들어서 하나 하면 돌돔도 쏘고, 감성돔도 쏘고 했었지. 비양도 다닐 때.)


<사진 45> 고옥생 씨 소장 '소살'

<사진 45>는 월령리 고옥생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소살'이다. 사진의 '소살'은 고 씨의 아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고 씨가 물질 다닐 때는 쇠꼬챙이가 하나로 된 '소살'을 사용했었다고 한다. 월령리 해녀들은 배를 타고 나가 비양도 연안에서도 물질을 했었는데, 고 씨는 '소살'로 돌돔이나 감성돔을 잡기도 했었다고 한다.

42)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5.5. 기타 도구

(1) 촘대와 족바지

'촘대'는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긴 대나무로 만든 '낚시대'이고, '족바지'는 물고기 따위를 건져 올릴 때 쓰는 도구를 말한다. 자리돔이나 멸치 따위를 뜰 때도 사용하지만, 횟집 등에서 생선을 뜰 때도 사용한다.

"궤기덜 나끄레 뎅겨난 거. (아방) 젊은 때 헤난 거주. 글후젠 농서졋거든게." [43]
(고기들 낚으러 다녔던 거. (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거지. 그 이후에 농사지었거든.)



<사진 46> 신창윤 씨 소장 '촘대'



<사진 47> 고옥생 씨 소장 '촘대'

<사진 46>은 월령리 신창윤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촘대'들이다. 창고 천장에 여러 개의 '촘대'들이 꽂혀 있는데, 신 씨의 남편이 젊은 시절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47>은 월령리 고옥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촘대'다.

"이렇게 고기 나끄민 줄 좁아뎅경 이렇게 영 고기 받는 거." [44]
(이렇게 고기 낚으면 줄 잡아뎅겨서 이렇게 이렇게 고기 받는 거.)

43) 월령리 신창윤 씨 구술.
44)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사진 48> 고옥생 씨 소장 '족바지'

<사진 48>은 월령리 고옥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족바지'다. 잡은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망 주머니를 길게 만들었다.

(2) 주낫

'주낫'은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물고기를 잡는 도구로, 표준어로는 '주낙'이라고 한다.

"주낫은 이렇게 줄을 허여근에 그레 낚시덜을 이렇게 중간중간 돌아메 가지고 줄 헤 가지고 니껍끼와 가지고 바다에 가서 쭉 허게시리 뿌리주게. 게면 일로 저까지 멧 메다 쭉 허게 물속으로 가라앚아이. 가라앚어 가지고 이렇게 우에서 표실 허주게. 걸 뗑겨 가지고, 일정한 시간 놔뒀다근에 걸 뗑겨 가지고 이제 보면 고기덜이 막 밋바닥에 있는 생성덜, 생성덜은 이 뻘에 잇거든. 뻘 속에 잇다가 그것이 내려가 가믄 물어근에, 그것이 주낫이주게. 낚싯바늘 메달앙 먹이 메달앙. 옛날에는 주로 생성, 옥돔. 이제는 갈치도 주낫으로 허고." [45]

(주낙은 이렇게 줄을 해서 그리 낚시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달아매 가지고 줄 해 가지고 미끼 끼워서 바다에 가서 쭉 하게 뿌리지. 그럼 이리로 저까지 몇 미터 쭉 하게 물속으로 가라앉아. 가라앉아서 이렇게 위에서 표시를 하지. 그걸 당겨 가지고, 일정한 시간 놔뒀다가 그걸 당겨 가지고 이제 보면 고기들이 아주 밑바닥에 있는 옥돔들, 옥돔들은 이 '뻘바다'에 있거든. 갯벌 속에 있다가 그것이 내려가 가면 물어서, 그것이 주낙이지. 낚싯바늘 매달아서 먹이 매달아서. 옛날에는 주로 '생성', 옥돔. 이제는 갈치도 주낙으로 하고.)

"낚시 많이 달아 있는 것ᄀᆞ라 주낫, 연술이라고 허는데 그걸로 잡아. 옥돔은 연안은 엇고 저 멀리 나가야 뒈. 주낫 배는 잡어들 잡는 거지게. 지금은 잡어 주낫을 허여. (다라 안의 것을) 하나씩 던져, 바다에." [46]

(낚시 많이 달려 있는 것보고 주낙, 연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잡아. 옥돔은 연안은 없고 저 멀리 나가야 돼. 주낙 배는 잡어들 잡는 거지. 지금은 잡어 주낙을 해. (대야 안의 것을) 하나씩 던져, 바다에.)

45)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46) 옹포리 백창홍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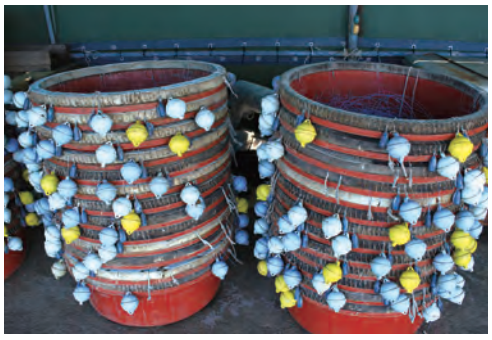
한림리 김중관 씨는 '주낫'을 이용해 옥돔을 많이 잡았다고 한다. 옥돔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속에 갯벌이 깔려 있는 '뻘바다'에 많이 산다.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낚싯줄 중간중간에 매단 낚싯바늘에 먹이를 끼우고, 부표를 달아 바다에 풀어 놓으면 그 낚싯줄이 바닷속 바닥 가까이까지 드리워진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풀어놓은 낚시줄을 거둬들이면 낚싯바늘을 물고 있는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다. 지금은 '주낫'으로 옥돔뿐만 아니라 갈치도 많이 낚는다. 옹포리 백창홍 씨(1947년생)는 낚싯바늘이 많이 달려있는 낚싯줄을 '주낫'이라고 하는데, 이 '주낫'으로 온갖 잡어를 잡는다고 한다.

"저 하간 거, 잡고기가 다 주낫으로 허주게. 생성 거튼 거, 다. 잡고긴 다. 이거 다 고기 둘아메는 거주게. 주낫 허는 거니까. 이거 주낫 헐 때 박세기게 이거 사려 놓는 거주게. 이거 만딱 사려근에 다 정리허고 허는 거. (영 헹 바당에 나강 하나씩 풀어 놓는 거라?) 어, 하나썩 앗아내고 이거 이렇게 허면은 만딱 사려 가지고 낚시 이렇게 꼭 찔러 가지고. 뱅 허게 낚시 둘아메는 거." [47]

(저 온갖 거, 잡고기가 다 주낙으로 하지. 옥돔 같은 거, 다. 잡고기는 다. 이거 다 고기 달아매는 거지. 주낙하는 거니까. 이거 주낙 할 때 바가지 해서 이거 사려 놓는 거지. 이거 모두 사려서 다 정리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바다에 나가서 하나씩 풀어 놓는 거야?) 어, 하나씩 꺼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모두 사려서 낚시 이렇게 꼭 찔러 가지고. 뱅 하게 낚시 달아매는 거.)



<사진 49> 고옥생 씨 소장 '주낫통'



<사진 50> 옹포 포구에 놓여 있는 '주낫통'

<사진 49>는 월령리 고옥생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주낫통'이다. 고 씨의 남편은 농사를 지으면서 뱃일도 했었다. 지금은 아들이 어선의 선주로 갈치 잡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주낫통'은 긴 낚시줄인 '주낫술'을 사려서 넣어 두는 통인데 '주낫' 없이 통만 따로 보관해 두고 있다.

47)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사진 51> '주낫통'에 달려 있는 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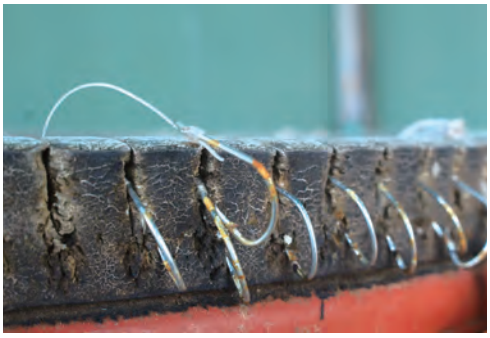


<사진 52> '주낫통' 안에 들어 있는 '주낫술'

<사진 50>에서 <사진 52>는 옹포 포구에 놓여 있는, 물고기잡이를 나가기 위해 준비해 놓은 '주낫통'이다. <사진 50>의 통 안에는 '주낫술'이 사려져 있고 통 밖으로는 작은 부표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51>은 '주낫통'에 달려 있는 공 모양의 부표들이다. 바다가 어두울 때에도 잘 보이도록 노란색이나 흰색의 부표를 쓰고 있다. <사진 52>는 통 안에 '주낫술'이 사려 있는 모습이다.

"이거는 옥돔 잡는 주낫이고, 잡어 주낫은 배에 나가 부니까 여기 없네. 이것이 장어 잡는 주낫인디. (뭐가 틀립니까?) 낙수가 틀려. 바늘."[48]

(이거는 옥돔 잡는 주낙이고, 잡어 주낙은 배에 나가 버리니까 여기 없네. 이것이 장어 잡는 주낙인데. (뭐가 다릅니까?) 낚싯바늘 크기가 달라, 바늘.)



<사진 53> 장어 잡이용 '주낫'



<사진 54> 옥돔 잡이용 '주낫'

48) 옹포리 백창홍 씨 구술.



<사진 55> '주낫'용 낚싯바늘



<사진 56> '주낫'에 끼울 미끼

<사진 53>에서 <사진 56>은 옹포 포구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사진 53>은 장어를 잡는 데에 사용하는 '주낫'이고, <사진 54>는 옥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주낫'이다. 대야 둘레를 빙 둘러 낚싯바늘이 꽂혀 있다. 옹포리 백창홍 씨는 어떤 물고기를 잡는 주낙인지 바늘 크기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사진 55>는 '주낫'용 낚싯바늘이다. <사진 56>은 '주낫'에 이용할 미끼인 오징어를 잘게 썰어 준비해 놓은 것이다.

(3) 그물

'그물'은 노끈이나 실, 쇠줄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얽은 물건을 말한다. 재료에 따라 무명실로 그물을 짜면 '실그물', 나일론으로 짜면 '나일론 그물'이라고 한다.

"나이롱 그물이 오십 년대에는 없엇주. 나이롱 없을 때는, 그때는 나이롱 그물이 아니고 면사실. 그때는 주낫이 면사실이엇주, 옛날은. 경헌디 나이롱 줄 생기기 시작허난 다 나이롱으로, 질기니까 다 나이롱으로 주낫도 구물도 다 허고 헴주. 면사실로, 조기 구물도 원래는 면사실로 헤낫주게. 나이롱 구물이 생기기 전에는. (게민 힘센 물고긴 끈엉 도망가 불쿠다예?) 술졋주, 그 대신. 이제 이렇게 그늘게 헐 걸 그때 막 술지게 헷주. 모도리 주낫쯤은 막 술지게 만들었어. 모도리는 니껍도 고등어 딱딱 끈어근에, 고등어 시 토막으로 끈어근에 낙시도 이만이 허주게. 모도리는 상어니까 소소헌 걸론 안 뒈거든."[49]

(나일론 그물이 오십 년대에는 없었지. 나일론 없을 때는, 그때는 나일론 그물이 아니고 면사실. 그때는 주낙이 면사실이었지, 옛날은. 그런데 나일론 줄 생기기 시작하니까 다 나일론으로, 질기니까 다 나일론으로 주낙도 그물도 다 하고 하지. 면사실로, 조기 그물도 원래는 면사실로 했었지. 나일론 그물이 생기기 전에는. (그럼 힘센 물고기는 끊고 도망가 버리겠네요?) 굵었지, 그 대신. 이제 이렇게 가늘게 할 것을 그때 아주 굵게 했지. '모도리' 주낙쯤은 아주 굵게 만들었어. '모도리'는 미끼도 고등어 딱딱 끊어서, 고등어 세 토막으로 잘라서 낚시도 이만큼 하지. '모도리'는 상어니까 소소한 것으로는 안 되거든.)

49)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지금은 대부분 나일론으로 그물을 만드는데, 나일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면사를 이용해서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물뿐만 아니라 주낙 줄도 모두 면사를 이용했다. 물고기 종류에 따라 실의 굵기가 달랐는데, 상어의 한 종류인 돌묵상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주낙 줄은 아주 굵었다고 한다.

"배 허는 사름덜 바쁘난 메 달렌 헤 가지고 메는 거. 저거 만들아 잇는 거. 밑에는 뽕돌, 우에는 버국 뜨는 거. 저거 잡어, 잡고기덜 잡는 거." [50]

(배 하는 사람들 바쁘니까 매 달라고 해 가지고 매는 거. 저거 만들어 있는 거. 밑에는 봉돌, 위에는 부표 뜨는 거. 저거 잡어, 잡고기들 잡는 거.)



<사진 57> 그물을 엮을 나일론 줄



<사진 58> 그물을 엮는 작업을 하는 곳



<사진 59> 고운중 씨가 엮은 '그물'



<사진 60> 잡어를 낚는 용도의 '그물'

<사진 57>에서 <사진 60>은 옹포리 고운중 씨(1948년생)가 그물을 엮을 나일론 줄과 다 엮어 완성한 그물을 쌓아 놓은 모습이다. 고 씨는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아 그물을 엮고 있다. 잡어를 낚을 때 사용할 그물이라고 한다.

50) 옹포리 고운중 씨 구술.

(4) 구덕

‘구덕’은 대오리 따위를 결어 만든, 물건을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 사용하는 바구니다.

“(무사 그물로 감싸수꽈?) 헐지 말렌게. 그거 대구덕은 대구덕인디 바당에 갈 때 쓰는 거.”[51]
((왜 그물로 감쌌습니까?) 헐지 말라고. 그거 ‘대구덕’은 ‘대구덕’인데 바다에 갈 때 쓰는 거.)

“엿날에 물에 들 때 테왁 놓고 무신것덜 놩 지연에 영 바닷가에 뎅겨난 구덕. 이거 멧 년 난 거. 구덕 대신에. 저 모살에 강 숨부기엔 헌 거 영 걷어당 그거 준 거. 물에 뎅길 때 그레 테왁 놓고 호미덜 놓고 저 바닷가에 졍 뎅겨난 구덕.”[52]
(옛날에 물에 들 때 ‘테왁’ 놓고 무엇 넣어서 지고 이렇게 바닷가에 다녔던 구덕. 이거 몇 년 된 거. 구덕 대신에. 저 모래에 가서 순비기나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걷어다가 그거 결은 거. 물에 다닐 때 그리 ‘테왁’ 놓고 낫들 놓고 저 바닷가에 지고 다녔던 바구니.)


<사진 61> 김인선 씨 소장 ‘대구덕’


<사진 62> 양의운 씨 소장 ‘구덕’

<사진 61>은 옹포리 김인선 씨가 사용하고 있는 ‘대구덕’이다. ‘구덕’은 사용 용도나 재료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데, 대나무를 엮어 만들었다고 해서 ‘대구덕’이라고 불렀다. 젖은 물건들을 담았을 때 ‘대구덕’이 젖거나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에 비닐을 깔아 두었다. 바깥으로는 ‘구덕’이 빨리 헐지 않도록 그물 망사리를 둘러 사용하고 있다. <사진 62>는 금능리 양의운 씨(1927년생)의 ‘구덕’이다. 해변의 모래땅에 자라는 순비기나무의 줄기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양 씨는 물질 다닐 때 여기에 물질 도구를 넣고 다녔다고 한다.

51) 옹포리 김인선 씨 구술.
52) 금능리 양의운 씨 구술.

(5) 손질 도구

채취해 온 생선이나 해산물을 손질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주로 칼을 이용했는데, 비닐을 벗기는 칼이나 성게 까는 가위 등 용도에 맞추어 다양한 도구가 쓰이고 있다.



<사진 63> 성게 손질하는 모습



<사진 64> 김인선 씨 소장 성게 손질용 칼

<사진 63>은 옹포리 김인선 씨 집 마당에서 김 씨 남편이 성게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정가위 모양의 가위로 성게를 까고 있다. <사진 64>는 김 씨가 성게를 손질할 때 사용하고 있는 칼이다. 성게에 칼끝을 찔러 넣은 후, 벌리듯 쪼개기 쉽도록 날이 짧다.

"주로 옥돔 비닐 벗겨."[53]
(주로 옥돔 비늘 벗겨.)

"아귀 니빨 그치는 거. 동태 토막 헐 때도 써."[54]
(아귀 이빨 자르는 거. 동태 토막 할 때도 써.)

"동태 머리빡 짤라낫지. 이젠 동태 잘 먹지 안허난 안 허여."[55]
(동태 머리 잘랐었지. 이젠 동태 잘 먹지 않으니까 안 해.)

53) 한림리 문순선 씨 구술.
54) 한림리 문순선 씨 구술.
55) 한림리 문순선 씨 구술.



<사진 65> 생선 손질하는 모습



<사진 66> 비늘 제거하는 칼



<사진 67> 생선 손질용 칼



<사진 68> 문순선 씨 소장 '나대'



<사진 69> 손질된 고등어



<사진 70> 옥돔을 말리고 있는 모습

<사진 65>는 한림리 문순선 씨(1945년생)가 갈치를 손질하는 모습이다. <사진 66>은 생선의 비늘을 제거할 때 쓰는 도구로, 문 씨는 주로 옥돔을 손질할 때 사용한다고 한다. 생선의 비늘을 한번에 긁어낼 수 있도록 톱 모양의 날이 여러 개 달려 있다. <사진 67>은 생선을 토막 낼 때 사용하는 칼인데, 주로 아귀나 동태를 자를 때 쓰는 것이다. 큰 생선의 두툼한 몸체를 토막 내기 좋게 날의 면적도 넓다. <사진 68>의 '나대'는 나무를 자

를 때만이 아니라 생선을 손질할 때도 쓰이고 있다. 문 씨는 예전에 동태를 자를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이 '나대'로 내리쳐 생선을 토막 냈다. <사진 69>는 문 씨가 손질한 고등어를 바구니에 담아 놓은 모습이고, <사진 70>은 옥돔을 널어 말리고 있는 모습이다.

(6) 깔꾸리

'깔꾸리'는 끝이 뾰족하고 구부러진 것으로, 흔히 쇠로 만들어 물건을 걸고 끌어당기는 데 쓰는 물건이다. 표준어의 '갈고리'를 말하는데 제보자에 따라 '까꾸리'라고도 했다.

"주낫 통을 당길 때 쓰는 깔꾸리."[56]
(주낙 통을 당길 때 쓰는 갈고리.)



<사진 71> 옹포 포구에 보관되어 있는 '깔꾸리'



<사진 72> '깔꾸리'로 주낙 통을 끄는 모습

<사진 71>은 옹포 포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깔꾸리'다. 이것으로 물건을 잡아끌 때는 <사진 72>에서처럼 물체 어딘가에 '깔꾸리'의 갈고리를 건 후 잡아당긴다.

"올라온 고기 영, 영 헹 고기 찔러 불기도 허고, 상저 같은 거 줍아뎅기기도 허고. 거 까꾸리, 까꾸리."[57]
(올라온 고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기 찔러 버리기도 하고, 상자 같은 거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거 갈고리, 갈고리.)

56) 옹포리 백창홍 씨 구술.
57)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사진 73> 김중관 씨 소장 '까꾸리'

<사진 73>은 한림리 김중관 씨가 보관하고 있는 '까꾸리'다. 생선을 찍어 올릴 때도 사용하고 생선을 넣은 상자를 끌어당길 때도 사용한다고 한다.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들은 물의 무게까지 더해져 무겁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잡아 올리기 어려운 것을 끌거나 당길 때 유용한 도구가 '까꾸리'다.

(7) 방석

'방석'은 사람이 바닥에 앉을 때 엉덩이 밑에 두고 깔아 앉는 깔개를 말한다.

"이거 작업헐 때 쓰는 방석게." [58]
(이거 작업할 때 쓰는 방석.)



<사진 74> 옹포 포구에 놓여 있는 방석

<사진 74>는 옹포 포구에서 찍은 작업용 '방석'이다. 배가 고기잡이를 나가기 전에 낚시에 사용할 미끼를 장만하거나 작업 도구를 손질하게 되는데, 앉아서 작업할 때 사진의 방석을 이용한다. 깔개 부분이 물에 젖지 않도록 나일론 줄을 교차하여 망처럼 만들어 끼웠다.

(8) 갈치 상자

'갈치 상자'는 나무 널판을 이어 붙여 만든 함으로, 이것에 갈치 생물을 담아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 쓴다. 뚜껑은 따로 없다.

58) 옹포리 백창홍 씨 구술.

"이거 갈치 상자. 갈치, 아덜네 큰 배 헴주게, 한림서." [59]
(이거 갈치 상자. 갈치, 아들네 큰 배 하고 있어, 한림에서.)



<사진 75> 고옥생 씨 소장 '갈치 상자'

<사진 75>는 월령리 고옥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갈치 상자'다. 고 씨의 아들은 한림에서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나가는 일을 하는데 갈치를 잡아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 사용하는 나무 상자다.

(9) 전구

'전구'는 전류를 통하여 빛을 내는 기구로, 유리알 모양으로 둥글다.

"배 작업허는디 전깃불 쌍. 저 오징어 나끌 때. 지금도 한림 부두가에 가면 싹 이런 거 싸가지고 허는 배덜 봐지메." [60]
(배 작업하는데 전깃불을 켜서. 저 오징어 낚을 때. 지금도 한림 부두가에 가면 싹 이런 거 켜서 하는 배들 볼 수 있어.)



<사진 76> 고옥생 씨 소장 '전구'

<사진 76>은 월림리 고옥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배에 사용하는 '전구'다. 고기잡이를 할 때, 오징어와 같이 야간에 불을 밝혀 작업해야 하는 어종이 있다. 그때 사용하는 전구다.

59)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60) 월령리 고옥생 씨 구술.

(10) 종

'종(鐘)'은 시각을 알리거나 신호를 보낼 때 치거나 흔들어 소리를 내는 금속 기구다. 금속을 때려서 울리는 방식으로 소리를 만든다.

"건 이제 필요 없는디 옛날은 배에, 배에 이제는 전부 전기주만은, 옛날에는 이걸. 이건 종이주게. 이거 종이니까 영 헤서 일로 헤서 줍아뎅기게 뒛거든. 선장이, 선장실에서 땅 땅 허믄, 가다근에서라 허믄 이거 한 번 빡 치고, 또 뒤로 빠꾸 허게 뒈민 이거 세 번 치곡 이추룩 헤난 거주게, 이거. 이건 기관빵에 장치허고 일론 줄로 헤근에 선장실에서 줍아뎅겨낫어. 옛날에 그추룩 헤난 건디 이제 소용 엇어." [61]

(그것은 이제 필요 없는데 옛날은 배에, 배에 이제는 전부 전기지만, 옛날에는 이걸. 이건 종이지. 이거 종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로 해서 잡아당기게 됐거든. 선장이, 선장실에서 땅 땅 하면, 가다가 서라 하면 이거 한 번 빡 치고, 또 뒤로 백 하게 되면 이거 세 번 치고 이렇게 했던 거지, 이거. 이건 기관실에 장치하고 이리로 줄로 해서 선장실에서 잡아당겼었어. 옛날에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제 소용 없어.)



<사진 77> 김중관 씨 소장 '종'

<사진 77>은 한림리 김중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배의 '종'이다. 김 씨의 구술에 의하면 선장실에서 갑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거나, 무언가를 알릴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좌측에 보이는 방아쇠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그릇을 엎어놓은 듯한 모양의 금속 몸체를 세게 때리면서 종소리가 난다.

5.6. 어업 관련 근대 산업 시설 [62]

한림읍 지역은 일찍부터 한림항을 중심으로 항만 시설을 갖추어 무역항의 기능을 하였다. 한림항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해양 전진기지로, 또는 제주의 수산물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활동의 근거지로 이용되었다. 그러면서 한림항을 중심으로 일본인이

61)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62) 「한림읍지」(1999)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제주 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2013) 등을 참고하였다.

들어와 살기 시작하고, 산업 시설들이 들어섰다.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제주 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에서 제시한 제주의 역사 문화시설 64곳 중, 16곳이 한림읍 지역에 집중해 있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각각 11곳보다 많은 것으로, 근대 산업 시설 등의 흔적이 남아 있는 한림읍 지역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다.

1) 옹포리 통조림 공장(옹포리 295번지 일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竹中伸太郎)이 창업한 통조림공장으로, 일제강점기에는 고등어통조림 공장으로 운영되다가, 광복 후에 제주 사람이 인수하여 '대동식품공업사'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 1970년대에 폐업하였다.

"옹포, 옹포는 이제 통조림 공장이 잇엇는디 그 내창, 내창 ᄌᆞ끗디 통조림공장이 잇엇주게. 연기통이 하나 큰 거 있었어이, 연기통."[63]

(옹포, 옹포는 이제 통조림 공장이 있었는데 그 내, 내 근처에 통조림 공장이 있었지. 연기통이 하나 큰 거 있었어, 연기통.)



<사진 78> 통조림공장 옛터에 세워져 있는 표지석

<사진 78>은 옹포 통조림공장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져 있는 표지석으로, 옹포리 295번지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다케나카(竹中) 통조림 공장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림리 김중관 씨의 구술에서처럼 공장의 굴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사라지고 <사진 78>의 표지석만 남아 그 자리에 공장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63)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2) 옹포리 감태 공장(옹포리 386)

옹포리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운영하는 감태 공장이 있었다. 제주 바다에서 채취하는 감태를 원료로 염산가리와 옥도(沃度)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해방 이후 한국인이 운영권을 받아 '협신제약'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을 이어간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옥도와 염산가리를 생산하는 제약회사였다. 1956년에는 '협신식품공업사'로 명칭을 바꿔 통조림을 생산했는데 1970년대에 문을 닫았다.

"바닷가에는 감태 공장. 감태 공장이라고 감태 바다에서 헤 오면은 건 옥도정기. 그 일본에서 감태 헤 가지고 옥도정기 만든다고 허대. 그 공장이 잇엇주. 그 터는 이제도 잇저. 건 창고도 있어. 감태공장은 그건 역사가 깊어."[64]

(바닷가에는 감태 공장. 감태 공장이라고 감태 바다에서 해 오면은 그건 '옥도정기'. 그 일본에서 감태 해 가지고 '옥도정기' 만든다고 하대. 그 공장이 있었지. 그 터는 이제도 있어. 그건 창고도 있어. 감태공장은 그건 역사가 깊어.)



<사진 79> 옹포리 옛 감태 공장

<사진 79>는 옹포리 감태공장 있었던 터에 아직 남아 있는 건물이다. 감태공장의 이름은 우에무라(植村)제약주식회사로, 옛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감태 공장은 한림공업고등학교의 발상지로, 1953년 이 공장에서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고 문을 열었다.



<사진 80> 옹포리 옛 감태 공장



<사진 81> 한림고등학교 발상지 표지석

64)

<사진 80>은 옹포리 감태 공장이 있었던 자리고, <사진 81>은 이 터가 한림고등학교 발상지임을 알리는 표지석이다.

"그디 가면은 표시가 세워 잇는데, 집도 옛날집 그대로에 쓰레트로 더껀 잇는데 아래는 옛날집 그대로 있어. 일제시대 감태공장인데 한림공고, 나가 한림공고 출신인데 한림공고의 발상지야, 여기가. 그때 공고가 없으니까, 집 엇일 때난에 이디 간에, 그땐 공장이 두 개 있었어. 견디 이건 사무실이라고, 교원덜 사무실이라고 이디 집이 그냥 있어. 이 창고도 그냥 있는디 이거 뭣사 헴신디. 게난 이디 강 보면 비석이 세워 있어이." [65]

(거기 가면 표시가 세워 있는데, 집도 옛날집 그대로에 슬레이트로 덮어서 있는데 아래는 옛날집 그대로 있어. 일제시대 감태공장인데 한림공고, 내가 한림공고 출신인데 한림공고의 발상지야, 여기가. 그때 공고가 없으니까, 집 없을 때니까 여기 가서, 그때는 공장이 두 개 있었어. 그런데 이건 사무실이라고, 교원들 사무실이라고 여기 집이 그냥 있어. 이 창고도 그냥 있는데 이거 뭘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비석이 세워 있어.)

옹포리 감태 공장은 한림고등학교의 발상지이다. 한림고등학교 출신인 한림리 김중관 씨에 의하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앞의 <사진 79>은 교원들 사무실로 이용하였고, 슬레이트 지붕 등으로 단장한 <사진 80>의 건물 자리에 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터에는 지금 남아 있는 건물 외에도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태 공장은 해방 후에도 얼마간 이어가다가 이후 통조림공장으로 바뀐다. 이 통조림공장은 1970년대까지 운영되었는데, 옹포리 정일봉 씨는 1960년대에 몇 년간 통조림공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사진 82> 건물 안에 남아 있는 깡통



<사진 83> 건물 안에 남아 있는 서류 용지

65)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사진 82>와 <사진 83>은 현재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 안에서 발견한 통조림공장의 흔적이다. <사진 82>는 통조림용 깡통으로 건물 안 한쪽에 놓여 있는 부대에 들어 있었다. 깡통들은 모두 녹이 슬어 있었고, 부대는 삭아 있었다. <사진 83>은 공장 건물 안에 놓여 있는 서류로, '협신식품공업사'의 출금 전표다. 폐허인 건물 안에 별다른 물품은 놓여 있지 않았지만 위 사진과 같은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

"저 통조림공장, 소라덜 전복 같은 거 헤 가지고, 통조림 공장 잇엇거든. 처음에는 감태 공장. (공장이 삼촌 멧 살까지 잇어난마씨?) 그때가 한 서른 살, 서른 살 뒈까? 게난 우리가 한 스물 멧 살까지 이거 공장에 일 다녓지." [66]

(저 통조림공장, 소라들 전복 같은 거 해 가지고, 통조림 공장 있었거든. 처음에는 감태 공장. (공장이 삼촌 몇 살까지 있었어요?) 그때가 한 서른 살, 서른 살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스물 몇 살까지 이거 공장에 일 다녔지.)

"나 그디 흔 삼 년 일헷지. 간즈메공장만. 우리가 육공 년도 군인 가시난이, 만 삼 년 오 개월 살앗어, 군인 간. 경헤연 오란 거기에 들어간 일헷지." [67]

(나 거기 한 삼 년 일했지. 통조림공장만. 우리가 육십 년도 군인 갔으니까, 만 삼 년 오 개월 살았어, 군인 가서. 그래서 와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했지.)

한림리 장길자 씨(1945년생)는 이십 대에 통조림공장에 다녔었다고 한다. 옹포리 정일봉 씨(1939년생)도 1960년도에 군대에 가서 제대한 후, 한 삼년 통조림공장에서 일했었다고 한다.

"소라이 차로 고산끼지 강, 고산 용수 신창 위로 쭉 받아. 이디 막 받아낫주기. 게믄 귀덕끼지, 귀덕이 한림 지경이난. 게난 귀덕도 이제 시꺼 와. 경헹 받앙 소라 이제 솖앙 이제 여자분덜, 여공덜도 빌엉 그디 왕 이제 소라 열앙, 코콜 다듬앙 이제 도로무깡 이제 고운 걸로 이제 그레 비왕 발로, 장화 신엉 막 시쳥, 헤영케 곤물 나오게. 경허연 그걸로 이젠 양념 노콕 오복간장 노콕 무시거 헤여놘 이제 깡에 질멍 딱딱딱 헹 이젠 이런 디 영. 이제 거 무시가마라, 거. 무시가마에 들여놔근에 시간 봥 쳥 내치곡." [68]

66) 한림리 장길자 씨 구술.
67)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68)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소라 차로 고산까지 가서, 고산 용수 신창 위로 쭉 받아. 여기 많이 받았었지. 그럼 귀덕까지, 귀덕이 한림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귀덕도 이제 싣고 와. 그래서 받아서 소라 이제 삶아서 이제 여자분들, 여공들 빌려서 거기 와서 이제 소라 열어서, 깨끗이 다듬어서 이제 드럼통 이제 깨끗한 것으로 이제 그리 부어서 발로, 장화 신고 마구 씻어, 하얗게 깨끗한 물 나오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양념 넣고 오복간장 넣고 무엇 해서 이제 깡통에 담으면서 딱딱딱 해서 이제 이런 데 이렇게. 이제 그거 찜솥이야, 그거. 찜솥에 들여놓아서 시간 보고 쪄서 내놓고.)

"(거기 일허는 사름은 멧 사름 정도?) 지금 남자만이, 이제 인부덜 이제 무시가마 뭣 허곡 허는 사름덜이영 다 헤영, 우리 소나이허고 무시가마 서이, 요거 혼 하르방은 조끼 감독이라, 총 책임. 남자가 혼 십 명. 여자는 그디 허는 거 담고 허는 것이 막 헷자 오 명. 오 명도 안 써. 거 소라 헹 깡에 담으멍 그자 양념만 놩 허는 거난. (소라 삶앙 열젠 허민 사름 잇어야 헐 거 아니마씨, 까는 거?) 거 우리대로 다 까. 남자들도. 남자가 씨치고." [69]

((거기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 정도?) 지금 남자만, 이제 인부들 이제 찜솥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이랑 다 해서, 우리 남자들하고 찜솥 셋, 요 한 할아버지는 기계 감독이야, 총 책임. 남자가 한 십 명. 여자는 거기 하는 거 담고 하는 것이 많이 해도 오 명. 오 명도 안 써. 그거 소라 해서 깡통에 담으면서 그저 양념만 놔서 하는 거니까. (소라 삶아서 열려고 하면 사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까는 거?) 그거 우리대로 다 까. 남자들도. 남자가 씻기고.)

정 씨가 공장에서 하는 일은 도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소라를 구입해 오고, 소라를 삶아서 까고 씻고 양념한 소라를 통에 넣어 밀봉하는 일까지 전반적인 일을 했었다고 한다. 정 씨가 일했던 1960년대 중반, 통조림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책임자를 포함해 남자가 십여 명 있었고, 삶은 소라의 껍질을 까는 여자 다섯 명 정도의 일꾼이 있었다고 한다.

"이제 간즈메, 소라도 아니 먹어 부니까 사장이 그만두라 경허연 다음은 우리 다마사탕 거기서 다마사탕을 만들안. 그 어른덜 다 돌아갓주만은 옹포 살멍 경 허연 다마사탕 만들앙 고산, 신창, 애월까지 강 풀안. 우리가 풀고." [70]

(이제 통조림, 소라도 안 먹으니까 사장이 그만두라 그래서 다음은 우리 사탕, 거기서 알사탕 만들었어. 그 어른들 다 돌아가셨지만 옹포 살면서 그렇게 해서 알사탕 만들어서 고산, 신창, 애월까지 가서 팔았어. 우리가 팔고.)

정 씨에 구술에 의하면 감태 공장은 이후 통조림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사탕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 씨를 비롯한 동네사람들이 그 사탕을 받아 도내의 여러

69)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70)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마을에 사탕을 팔러 다녔다. 옹포리 감태 공장은, 감태 공장에서 학교, 통조림 공장, 사탕 공장 등으로의 변모를 보였던 곳이다.

3) 옹포 단추 공장(한림읍 한림상로 15-7)

한림읍에는 소라나 전복 등의 껍질을 이용하여 단추를 만들었던 공장도 남아 있다. 이 공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운영하다가 해방 후 옹포 사람이 인수하여 1950년대까지 운영되었다.


<사진 84> 옹포리 옛 단추공장 입구


<사진 85> 옹포리 옛 단추공장 측면

<사진 84>와 <사진 85>는 옹포리에 남아 있는 옛 단추공장의 모습이다.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건물 위로 덩굴이 덮어 건물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또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태다.

"(단추공장도 삼촌네 어릴 때 헤난마씨?) 헤난, 단추공장. 언제 헌 건 우리 몰라. 이제 단추공장 허는 것이 뭣으로 헷냐면은 전복껍쭉, 소라껍쭉 큰 거. 그거 기계 데연 보록보록 돌랏지. 그냥 도라. 기계 헤영 영 들어가게 헤영. 그 전복껍죽 뭐여 허믄 문화재거든. 저 거세기 상에도 거이 엿날 그 상에 놩, 무늬 놩 빈직빈직허게 허잖아. 거 전복, 전복껍쭉."[71]

((단추공장도 삼촌네 어릴 때 했었어요?) 했었어, 단추공장. 언제 한 거는 우리 몰라. 이제 단추공장 하는 것이 뭐로 했느냐면은 전복갑, 소라딱지 큰 거. 그거 기계에 대서 '보록보록' 도렸지. 그냥 도려. 기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그 전복갑 뭐냐 하면 문화재거든. 저 거시기 상에도 그거 옛날 그 상에 놓아서, 무늬 놓아서 번들번들하게 하잖아. 그거 전복, 전복갑.)

71)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옹포리 정일봉 씨는 단추공장에서 소라딱지나 전복갑 등을 깎아 단추나 자개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운영되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정 씨는 그 공장에서 전복갑을 이용하여 자개장을 만들었었다고 한다.

4) 물탱크

'물탱크'는 물을 저장해 두는 시설인 '저수조'를 말한다. 한림항 근처에는 일제강점기에 수산업과 관련해 일본인 회사에서 만들어 사용했던 물탱크가 남아 있다.

"저 물탱크가, 이 회사에서도 다행히 저거는 유물로산디 저건 뜯지 안허고 있어. 그거는 이거 생길 때 일본놈덜이 왕 헌 거니까 우리 낳기도 전에. 저것이 한, 저 축항 헐 때가 우리가 낳기 전에 한 칠팔 년 전이라고 허니까 축항 헐 때가 그니까 일본 놈덜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헌 거난 이 물땡크도 그때 헌 걸 거여. 삼십 년대주." [72]

(저 물탱크가, 이 회사에서도 다행히 저거는 유물로인지 저건 뜯지 않고 있어. 그거는 이거 생길 때 일본 놈들이 와서 한 거니까 우리 낳기도 전에. 저것이 한, 저 항구 할 때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한 칠팔 년 전이라고 하니까 항구 할 때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한 거니까 이 물탱크도 그때 한 걸 거야. 삼십 년대지.)



<사진 86> 이시돌목장 사료 공장 안의 '물탱크'



<사진 87> 이시돌목장 사료 공장 밖에서 본 '물탱크'

<사진 86>과 <사진 87>은 한림 이시돌목장 사료 공장 안에 세워져 있는 물탱크다. <

72)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사진 86>은 공장 안에서 찍은 사진이고, <사진 87>은 외부 도로변에서 찍은 모습이다. 한림리 김중관 씨의 설명에 따르면 '물탱크'가 세워진 것은 일제강점기 때라고 한다. 한림항에 여러 공사를 할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탱크'는 팔각형 모양으로 건물 2층 정도의 높이다. '물탱크' 좌측을 보면 중간 높이에 수도관이 보인다.

"일본놈덜이 수도를 사용허는디 저 물을, 저건 물땡크거든. 게난 그 옆이 가믄 물통, 저 옆이 길 건너가면은 옛날 바닷가에 물통 크게 울타리 둘러 잇는 데가 잇주. 그디 강 보믄 비석도 세와 잇어이. 알로, 알로 나는물인디 이제도 물이 나지. 이젯 사름덜은 그 물 잘 안 사용허지만은 옛날엔 그 물로 강 거려당 먹고, 그 물로 빨래도 허고 목욕도 허고 허엿거든." [73]

(일본놈들이 수도를 사용하는데 저 물을, 저건 물탱크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 가면 물통, 저 옆에 길 건너가면 옛날 바닷가에 물통 크게 울타리 둘러 있는 데가 있지. 거기 가서 보면 비석도 세워 있어. 아래로, 아래로 '나는물'인데 이제도 물이 나지. 이제 사람들은 그 물 잘 안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그 물로 가서 떠다가 먹고, 그 물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했거든.)

"물 그디서 뽑아다가, 그때는 물이 없으니까 그디서 뽑아서 물탱크에 채웟단 말이야. 그니까 물땡크 저쪽에 가 보면은 저쪽으로 빠이프가 잇어. 빠이프가 그대로 끼워 잇는 것이 잇어. 경허난 글로 헤서 일로 길 건너가지고, 이추룩 요만큼 건너가지고, 그때는 길만 건너가는 것만 땅속더레 묻으민 뒈난 그 알로 헤서 저 물꺼지 가서, 그 물 나오는 우쪽으로 간 그걸 헷주게. 게난 물은 물든 때는 짜. 게난 물싼 때, 물 나간 때 일본 놈덜이 기계로 이걸 올린다 말이야, 기계로. 그 기계는 물땡크 옆이 기곗집이 있었어. 발동기. 겐 통통통통 헤근에 물 올려근에 그디 놧당." [74]

(물 거기서 뽑아다가, 그때는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뽑아서 물탱크에 채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탱크 저쪽에 가 보면 파이프가 있어. 파이프가 그대로 끼워 있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로 해서 이리로 길 건너서, 이처럼 요만큼 건너서, 그때는 길만 건너가는 것만 땅속으로 묻으면 되니까 그 아래로 해서 저 물까지 가서, 그 물 나오는 위쪽으로 가서 그걸 했지. 그러니까 물은 밀물 때는 짜. 그러니까 썰물 때, 물 나간 때 일본 놈들이 기계로 이걸 올린단 말이야, 기계로. 그 기계는 물탱크 옆에 기곗집이 있었어. 발동기. 그래서 통통통통 해서 물 올려서 거기 놨다가.)

물탱크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림리 '비구물'이 있다. '비구물'은 용천수로, 대부분의 바닷가에 있는 용천수들이 그러하듯이 바닷물이 들고 나는 정도에 따라 물맛이 다르다. 밀물 때는 물이 짜서 마시지 못한다. '비구물'에서 물탱크까지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단물이 나올 때 발동기를 작동하여 '비구물'에서 나는 물을 물탱크로 끌어올렸다. 그렇게 물통에 물을 채워 놓고 생활용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73)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74) 한림리 김중관 씨 구술.



<사진 88> 대림리 비구물



<사진 89> 대림리 비구물에 세워져 있는 비

<사진 88>은 앞선 <사진 86>의 물탱크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대림리 '비구물'의 현재의 모습이다. 이제는 이곳의 물을 이용하지 않지만, 상수도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곳의 물을 '허벅'에 질어다가 먹었다. <사진 89>는 '비구물'에 세워져 있는 비로, '비구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등이 적혀 있다.

6. 목축 관련

전통 농촌사회에서 마소는 중요한 재산이자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축이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소를 기르며 밭일을 하는 데에 활용했다.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고, 그 배설물을 거름으로 이용했다. 또 송아지를 낳게 하고 그 송아지를 키워 팔아 소득을 얻기도 했다. 산업의 발달로 농업 분야도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농가의 마소들은 사라졌다. 하지만 한림읍 지역으로 금악리를 비롯한 상대리, 상명리, 명월리 등에서는 지금도 여러 농가에서 가축을 기르며 축산업에 관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목축 관련 도구를 마소 관련 도구와 돼지 관련 도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6.1. 마소 관련

농경 사회에서 마소를 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소를 이용해 밭을 갈았고, 그 소의 배설물은 거름이 되었다. 또 소를 기르며 새끼를 낳게 하여 소득을 얻기도 했다.

"부룽이는 이제 농사용, 요즘 ᄀᆞ트민 트럭 차나 다름엇은 거라. 걸로 이제 모든 걸 다 헤. 밧 갈고 뭐 섬비 끗곡, 구루마 끗곡 다 그 용으로 이제 부룽이 하나는 웬만한 집은 다 잇엇곡. 또 쪼끔 산덴 헌 집은 이제 암쉐덜, 암놈 이제 뭐 설남은 개도 키우고." [1)]

(부룩소는 이제 농사용, 요즘 같으면 트럭 차나 다름없는 거야.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해. 밭 갈고 뭐 '섬비' 끌고, 마차 끌고 다 그 용으로 이제 부룩소 하나는 웬만한 집은 다 있었고. 또 조금 산다고 하는 집은 이제 암소들, 암놈 이제 뭐 서른 마리 남짓도 키우고.)

1)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밧갈쉐엔 허민 부룽인디, 숫손디 겐디 실제는 암쉐도 밧을 갈아. 나도 많이 갈아십주게. 견디 한 동안 그 옛날에는 그 부룽이, 그 숫소는 주로 영 허다가 숫소는 이제 비육시키면은 돈이 많이 나거든예. 그니까 그 후에는 돈 값어치를 위해서 암쉐를 주로 써십주. 우리 동네에는 부룽이 밧 가는 사람이 별로 엇엇어. 나도 처음에는 부룽이 그리쳔에 밧 갈멍 허단예 나중에는 딱 흔 번 비육시켱 풀아 부난 암쉐로, 거의가 암쉐로." [2]

('밧갈쉐'라고 하면 부룩소인데, 수소인데 그런데 실제는 암소도 밭을 갈아. 나도 많이 갈아십죠. 그런데 한동안 그 옛날에는 그 부룩소, 이 수소는 주로 이렇게 하다가 수소는 이제 비육시키면 돈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돈 값어치를 위해서 암소를 주로 써십죠. 우리 동네에는 부룩소 밭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나도 처음에는 부룩소 가르쳐서 밭 갈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딱 한 번 비육시켜서 팔아 버리니까 암소로, 거의 암소로.)

"겨난양 구루마 허는 건 물도 구루마질 허고 쉐도 구루마질 허는 거. 경헌디 보통 이제 밧 가는 건예 딴 동네 어디 동촌더레 가면은 물이 밧을 가는데 여기는 물보다 쉐를 갈아수다게. 겐디 웨 그런고 허면은 여기는 그 토질이 저쪽더레 가면은 화산토가 뒈 가지고 흑이 좀 부삭진 땅이니까 별 힘이 안 드는디 여기는양 아주 자갈밧이고 질밧이고 허난 물을 씨면은 감당을 못해. 그니까 쉐로 밧을 갈아십주게." [3]

(그러니까 달구지 하는 건 말도 달구지질 하고 소도 달구지질 하는 거. 그런데 보통 이제 밭 가는 건 다른 동네 어디 동촌으로 가면 말이 밭을 가는데 여기는 말보다 소로 갈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그 토질이 저쪽으로 가면 화산토가 돼 가지고 흙이 좀 푸석한 땅이니까 별 힘이 안 드는데 여기는 아주 자갈밭이고 '질밭'이고 하니까 말을 쓰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소로 밭을 갈았지요.)

금악리 양원석 씨(1939년생)의 구술처럼 소는 요즘 같으면 밭을 가는 데 쓰는 트랙터나 짐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밭을 고르고 마차를 끌었다. 또 새끼를 낳게 하여 팔기 위해 암소를 기르기도 했다. 암소는 밭을 가는 데도 요긴하게 쓰였다. 밭을 가는 데 부리는 '밧갈쉐'는 수소를 가리키는데 실질적으로 금악리에서는 암소로 밭을 많이 갈았다. 수소는 값을 잘 쳐주었기에 송아지를 잘 길러 가계 수입원으로 삼았다.

밭을 갈 때는 소뿐만 아니라 말도 이용하는데 금악리 박원순 씨(1942년생)에 의하면, 한림읍 지역은 돌이 많고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밭이 많아 말보다는 소를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화산회토인 지역은 땅이 단단하게 굳지 않아 부드럽기 때문에 말로도 충분히 밭을 갈 수 있지만, 금악리는 '돌밧', '질밧'이어서 그러하지 못했다.

2)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3)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농사하면 영 밧 불리는 거. 밧을 불리는 거는 거의가, 저 우리가 소개 내려가기 전에는 물로 다 불렷고 그 이제 소개 내려강 올라온 이후제는 쉐들로 거의 불렷지. 물이 엇어지니까. 물들 전부 다 들에 그냥 내불어 뒨 그냥 몸덩어리만 한림으로 다 내려가 버리니까, 쉐이곡 뭐이곡 다 데꼉 내버리니까 뭐 산에 사는 사람들 배고프니까 다 잡아먹언 치와 분 거주." [4]

(농사하면 이렇게 밭을 밟게 하는 거. (밭을) 밟게 하는 것은 거의가, 저 우리가 소개(疏開) 내려가기 전에는 말로 다 밟게 했고 그 이제 소개 내려가서 올라온 이후에는 소들로 거의 밟게 했지. 말이 없어지니까. 말들 전부 다 들에 그냥 놔두고 그냥 몸만 한림으로 다 내려가 버리니까, 소고 뭐고 다 던져 내버리니까 뭐 산에 사는 사람들 배고프니까 다 잡아먹고 치워 버린 거지.)

"보리 전부 다 홀탕, 옛날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는 좀 많이 헐 때에 물로 불려낫어. 홀타 놩 도리께질 안 허영 그냥 물 잡아 돌려 댐을 허민 물발에 보리가 전부 다 부서정 경허면 이제 불리민 뒈여." [5]

(보리 전부 다 훑아서, 옛날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는 좀 많이 할 때에 말로 밟았었어. 훑아 놓고 도리깨질 안 하고 그냥 말 잡고 돌려 대면 말발에 보리가 전부 다 부서져서 그러면 이제 불리면 돼.)

한편, 마소는 씨를 파종한 밭의 흙을 고르는 데도 쓰인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던 시절에는 파종 후 마소를 이용해 종자가 잘 묻히도록 땅을 밟아 주어야 했다. 금악리 양원석 씨에 의하면 4·3사건 이전에는 말을 많이 키웠었기에 파종한 땅을 밟을 때는 말을 이용했었는데, 그 이후는 말을 키우는 농가가 줄면서 주로 소를 이용했다. 또 마소는 농작물을 타작할 때도 이용했다. 수확한 농작물을 쌓아 놓고 마소에게 그것을 밟게 하여 곡물의 알갱이를 털어냈다.

"요즘에는 이제 부룽이들이 보통 십 개월 미만에서 다 거셀 허거든. 옛날에는 쉐가 일고여덟 설나도록도 거세를 안 헷어. (무사 거세를 허는 거꽈?) 고기 맛 좋으렌. 이젠 전부 다 어쨋든 쉐는 무조건 다 고기용이잖아. 육지서 간혹 이제 쟁기질허는 거 소 뭐 일 년에 혼두 번 보긴 봐지는데 이제는 무조건 소는 고기용이여." [6]

(요즘에는 이제 부룩소들 보통 십 개월 미만에서 다 거세를 하거든. 옛날에는 소가 일고여덟 살 되도록도 거세를 안 했어. (왜 거세를 하는 겁니까?) 고기 맛 좋게. 이제는 전부 다 어쨌든 소는 무조건 다 고기용이잖아. 육지에서 간혹 이제 쟁기질하는 거 소 뭐 일 년에 한두 번 보기는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무조건 소는 고기용이야.)

4)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5)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6)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한림읍의 중산간 마을은 지금도 목축업이 주민의 주요 소득원이다. 이는 고기나 우유를 얻기 위한 것으로, 산업화 이후 마소가 농사나 일상에 쓰이지 않게 된 것은 한림읍 지역도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다. 지금은 농가에서 마소가 사라졌지만 전통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1) 쉐막

'쉐막'은 소를 가두어 기르는 곳이다. '외양간'을 말하는데, 제보자에 따라 '오양간'이라고도 한다.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제주에서는 대부분의 농가에 '쉐막'을 두고 소를 키웠다.

"저거 오양간이라고 소 메난 디." [7]
(저거 외양간이라고 소 맸던 데.)


<사진 1> 양원석 씨 집의 '쉐막'


<사진 2> 강병출 씨 집의 '오양간'

<사진 1>은 금악리 양원석 씨 집의 '쉐막'이다. 양 씨는 지금은 현대식 축사를 갖추고 십여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다. 사진의 '쉐막'은 예전에 사용했던 곳으로 지금은 헛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진 2>는 명월리 강병출 씨(1926년생) 집의 외양간으로, 강 씨는 이를 '오양간'이라고 했다. 시멘트를 발라 만든 소 먹이통 위로 소를 매어 두는 데 이용하는 '메낭'이 보인다.

7) 명월리 강병출 씨 구술.

"이거 쉐막, 쉐 두 ᄆᆞ리 메난. 원래부터 이디 쉐막이라난."[8]
(이거 외양간, 소 두 마리 맸었어. 원래부터 여기 외양간이었어.)


<사진 3> 강술생 씨 집 '쉐막'의 '먹이통'


<사진 4> 양인희 씨 집 '쉐막'의 '먹이통'

<사진 3>은 강구리 강술생 씨(1942년생) 집 '쉐막'의 소 먹이통이다. 지금은 먹이통에 잡동사니를 보관하고 있지만, 창고로 이용하는 외양간에 소 두 마리를 매어 길렀다고 한다. <사진 4>는 강구리 양인희 씨(1924년생) 집 '쉐막' 안의 모습이다. 길게 '먹이통'을 만들어 놓아 여러 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맬 수 있게 하였다.

"이거 쉐 질롸난 디. 이디 쉐 무끄곡 이디서 촐 주고 쉐 질롸난 디. 다 쉐막이라난디 저딘 말쩨엔 방 멘들아 불엇주게. (촐은 어떵 줜?) 그땐 절로 들어완 줫지."[9]
(이거 소 길렀던 데. 여기 소 묶고 여기서 꼴 주고 소 길렀던 데. 다 외양간이었는데 저기는 나중에는 방 만들어 버렸지. (꼴은 어떻게 줬어?) 그때는 저리로 들어와서 줬지.)

"우리 거세기 헌 때 두 ᄆᆞ리도 메나고 세 ᄆᆞ리도 메나고."[10]
(우리 거시기 할 때 두 마리도 맸었고 세 마리도 맸었고.)

8) 강구리 강술생 씨 구술.
9)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10)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사진 5> 박영자 씨 집 '쉐막' 먹이통의 고리



<사진 6> 고갑년 씨 집 '쉐막' 먹이통의 고리

<사진 5>는 월림리 박영자 씨(1930년생) 집 '쉐막' 먹이통에 달아 놓은 고리다. 소들을 외양간에 가두어 둘 때는 줄을 매어 두는데, 먹이통에 사진과 같은 고리를 만들어 거기에 묶어 두었다. 고리가 보이는 쪽으로 소를 매어 두고 먹이를 줄 때는 먹이통을 사이에 두고 소를 묶은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소꼴 따위의 먹이를 먹이통에 넣었다. <사진 6>은 월림리 고갑년 씨(1934년생) 집 '쉐막'의 먹이통에 달려 있는 소를 묶어 두는 고리다. 고 씨도 외양간 한쪽으로 먹이통을 만들어 사용했다. 고 씨는 두세 마리의 소를 키웠었다고 한다.

"먹이통 따로 안 헤연. 저 옛날에는 뚜로 안 허연, 먹이통. 그 통 만듦 시작헌 지가 혼 육칠십 년대 이후부터주. 그전엔 그냥 앞더레 그냥 줭 내불민 먹당 남은 거 끌앙 눅고 허믄 거 검질이영 똥이영 서꺼진 거 통시레 곳다 놩 이제 불렷당 그거 이제 보리 갈젠 허민 거 또 끗어내영, 쉐로 그거 불령. 돗걸름이엔 헤 가지고, 그게 돗걸름이렌 헤 가지고 쉐거름 통시레 담아 놩 뒈지 헹 불린 거거든."[11]

(먹이통 따로 안 했어. 저 옛날에는 따로 안 했어, 먹이통. 그 통 만들기 시작한 지가 한 육칠십 년대 이후부터지. 그전에는 그냥 앞으로 그냥 줘서 내버리면 먹다가 남은 것 깔아서 눕고 하면 그거 검불이랑 똥이랑 섞인 거 돼지우리로 가져다 놓고 이제 밟게 했다가 그거 보리 갈려고 하면 그거 또 끌어내서, 소로 그거 밟게 해서. 돼지거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돼지거름이라고 해 가지고 쇠두엄을 돼지우리에 담아 놓고 돼지 해서 밟게 한 거거든.)

금악리 양원석 씨는 예전에는 먹이통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앞의 사진에서 본 외양간의 먹이통은 6, 70년대 이후에 시멘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소의 머리 쪽 바닥에 그냥 먹이를 던져 주었다. 소가 먹이를 먹다가 남은 것들은 외양간에 깔아 두면 소가 그 위에 똥을 싸기도 하고 밟기도 하여

11)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거름이 되었다.

소는 봄에서 늦가을까지는 들판에 놓아 기르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를 가두어 기르는 것은 일 년 중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소를 방목하는 동안 외양간은 농기구 등을 펼쳐 놓거나 농작물을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한다. 소를 매어 두는 기간에도 외양간의 한쪽은 헛간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거 무신 어지러운 거 놓는 거주. 옛날 거트민 기구덜, 거세기 헌 것덜 톡톡 놓는 거." [12]
(그거 무엇 어지러운 거 놓는 거지. 옛날 같으면 기구들, 거시기 한 것들 톡톡 놓는 거.)


<사진 7> 고갑년 씨 집 '쉐막'의 선반

<사진 7>은 월림리 고갑년 씨 집 '헛간'의 벽면을 찍은 것이다. 예전에 '쉐막'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지금은 헛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장 아래쪽 벽면에 'ㄱ'자 모양의 쇠 두 개를 시멘트벽에 단단히 고정한 후, 그 위에 나무 널빤지로 선반을 만들어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외양간 옆에는 겨울철 소 먹이인 꼴을 쌓아둔 가리가 있다. 꼴에 물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을 높여 놓았다. 이것을 '눌굽'이라고 부른다. 즉 '눌굽'은 꼴을 가릴 수 있게 바닥에 돌 따위를 깔아서 놓은 바닥을 말한다.

"옛날에 그거 눌굽이라고 그 밑에 돌 쭉 깔아 가지고 굽을 만들엉 잇어낫어. (무사 굽을 만든 거꽈?) 물 안 들게게. 땅에 허민, 밑에 땅에 물이 올라 불민 밑에 거는 못 쓰잖아. 경허난 이제 밑에 항상 이제 그 촐눌굽이라고 헤 가지고 촐 누는 데는 눌굽을 만들엉 놔뒁거든." [13]
(옛날에 그거 '눌굽'이라고 그 밑에 돌을 쭉 깔아 가지고 굽을 만들어서 있었어. (왜 굽을 만든 겁니까?) 물 안 들게. 땅에 하면, 밑에 땅에 물이 올라 버리면 밑의 거는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밑에 항상 이제 그 '촐눌굽'이라고 해 가지고 꼴 가리는 데는 '눌굽'을 만들어서 놔뒀거든.)

12)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13)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여기 옛날에 촐눌, 촐 쌓아난 딘데, 이렇게 헤서 흙 깔고 이렇게 심었어요. 눌굽 헤난 디." [14]
(여기 옛날에 '촐눌', 꼴 쌓았던 데인데, 이렇게 해서 흙 깔고 이렇게 심었어요. '눌굽' 했던 데.)

금악리 양원석 씨는 집 한쪽에 항상 돌을 깔아 '눌굽'을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눌굽' 위에 꼴을 쌓아 보관했다. 강구리 고년희 씨(1944년생) 집에도 '눌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흙을 깔아 텃밭으로 쓰고 있다.

"이거 쉐 촐 누는 디. 일로 물 ᄂᆞ려가게." [15]
(이거 소 꼴 가리는 데. 이리로 물 내려가게.)


<사진 8> 양명부 씨 집의 '눌굽'


<사진 9> 박영자 씨 집의 '눌굽'

<사진 8>은 월림리 양명부 씨(1944년생)의 집 뒤쪽에 남아 있는 '눌굽' 터이다. 둥글게 돌을 둘러 주변 땅보다 높이 올렸다. <사진 9>는 월림리 박영자 씨 외양간 옆쪽에 있는 '눌굽'이다. 돌을 높이 쌓아 평평하게 깔아 가리를 쌓을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소를 기르지 않은 지 오래지만 예전에 이용했던 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한림읍 지역에는 지금도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있다. '쉐막'이라고 부르는 외양간 대신 여러 마리의 소를 가둘 수 있는 축사를 갖추고 건초와 사료를 먹이는 방식으로 고기소를 사육하고 있다.

14) 강구리 고년희 씨 구술.
15) 월림리 양명부 씨 구술.

"(지금도 질럼덴 헴신디 지금 멧 ᄆᆞ리나 질럼수꽈?) 지금 인제 한 열 마리. 아까 세 ᄆᆞ리 강 팔아 와 불고. 오늘 쉐 시장이난 세 마리 강 팔아 와 불고." [16]

((지금도 기른다고 하는데 지금 몇 마리나 기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 열 마리. 아까 세 마리 가서 팔고 와 버리고. 오늘 소 시장이니까 세 마리 가서 팔고 와 버리고.)



<사진 10> 양원석 씨의 축사



<사진 11> 양원석 씨의 축사 안의 모습

<사진 10>은 금악리 양원석 씨의 축사로, <사진 11>은 축사 안의 모습이다. 양 씨는 현재 십여 마리를 소를 이 축사에서 키우고 있다. 송아지를 비롯하여 먹이를 먹고 있는 소들의 모습이 보인다.

(2) 쉐석과 쉐줄

'쉐석'은 소의 머리를 걸려 잡아매서 끄는 줄로, 표준어로는 '쇠고삐'를 말한다. '쉐줄'은 소를 들판에 가서 먹이를 먹게 할 때에 고삐에 연결하는 줄이다. '쉐석'이 소를 끌고 다니거나 묶어 둘 때 사용하는 것이라면, '쉐줄'을 '쉐석'에 연결하여 줄을 길에 하여 소를 매어 둘 때 사용한다. 이 '쉐석'과 '쉐줄'을 그냥 '석'과 '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 걸리는 녹대, 쉐 걸리는 건 석 경헙주게. 쉐는 뿔이 잇수궤. 뿔이 잇으니까 걸림만 허민 뒈는 거고 물은 뿔이 엇으니까 씌워야 허는 거고. 물은 무조건 녹대, 쉐는 석." [17]

(말 걸리는 녹대, 소 걸리는 건 '석' 그러지요. 소는 뿔이 있지요. 뿔이 있으니까 걸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말은 뿔이 없으니까 씌워야 하는 것이고. 말은 무조건 녹대, 소는 '석'.)

16) 금악리 양원석 · 강정자 씨 구술.
17)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마소를 매어 둘 때 줄을 이용하는데, 소는 뿔이 있어서 그 뿔에 줄을 걸기만 하면 되는데, 말은 뿔이 없으니 얼굴에 줄을 씌운다. 이것은 녹대라고 한다.

"쉐 하나 질루나 두 개나 질루나 헤여난 거. 쉐 뿔 나기 전이 이거로. 아방 오십도 나기 전이, 마흔 ᄋᆞ덥에 죽어 부난 그루후젠 쉐 아이 질롸서."[18]

(소 하나 기르거나 두 개 기르거나 했었던 거. 소 뿔 나기 전에 이것으로. 아버지(남편) 오십도 되기 전에, 마흔여덟에 죽어 버리니까 그 후에는 소 안 길렀어.)



<사진 12> 고갑년 씨 소장 '녹대'

<사진 12>는 월림리 고갑년 씨 집에서 사용했던 소에 매는 '녹대'다. 고 씨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 한두 마리의 소를 길렀었는데, 뿔이 나기 전의 소를 묶어 둘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쉐석'이나 '쉐줄' 등의 바는 지금은 대부분 나일론을 사용하지만 나일론이 보급되기 전에는 모두 식물의 줄기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 사용했다. 뉴질랜드삼이나 칡은 바를 만드는 좋은 재료였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소한 바들은 뉴질랜드삼, 칡을 사용해 만들었다. 볏짚이나 밭볏짚을 꼬아 바를 만들기도 했다.

"그거 옛날에는, 것도 난 종류지 신사라이엔 헌 거 잇어. 외도 가민 그 질 에염에도 잇드라, 이제. 영 올라가는 거, 신사라 그거 보통 허여. 신사라도 허고, 끅도 허고, 찍도 허고."[19]

(그거 옛날에는, 그것도 난 종류지 뉴질랜드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외도 가면 그 길가에도 있더라,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뉴질랜드삼 그거 보통 해. 뉴질랜드삼도 하고, 칡도 하고, 짚도 하고.)

덩굴식물인 칡도 바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금악리 양원석 씨에게서 칡을 이용해서 바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18) 월림리 고갑년 씨 구술.
19)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끅 이제 줄 벋은 거 헤여다근에 저 물령, 물렷당 이제 물에 컹 뽈아. 이제 저 두드령, 덩드렁마께로 걸로 이제 둑둑둑둑 두드령 물에 뽈민 헤양게, 이제 그 껍데긴 베껴지고 여물만 나와. 경허민 그거 이제 치져. 물에 담갓당 걸 두드리면은 그 껍데기 다 베껴져 불민 안에 것만 헤영케 나와. 경허면은 그거 이제 깨여, 헌 세 개에고 네 개에고 깨영 그걸로 이제 배 꼬앙. 이제, 아까 말대로 줄호롱이로 돌려근에. (그거 할 때는 줄호롱이 써도 뒙니까?) 으, 그거 헤도 충분히 뒈여. 솔지지 아니헌 거난. 경헹 이제 드려, 이제." [20]

(칡 이제 줄 뻗은 것을 해다가 저 말려서, 말렸다가 이제 물에 담가서 빨아. 이제 저 두드려서, '덩드렁마께'로 그걸로 이제 둑둑둑둑 두드려서 물에 빨면 하얗게, 이제 그 껍데기는 벗겨지고 여물만 나와. 그러면 그거 이제 찢어. 물에 담갔다가 그걸 두드리면 그 껍데기 다 벗겨져 버리면 안의 것만 하얗게 나와. 그러면 그거 이제 깨어, 한 세 개고 네 개고 깨서 그걸로 이제 바 꼬아. 이제 아까 말대로 '줄호롱이'로 돌려서. (그거 할 때는 '줄호롱이' 써도 됩니까?) 으, 그거 해도 충분히 돼. 굵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드려, 이제.)

"세 가닥 만들젠 허민 줄호롱이로 데왕. 한쪽 끄트머리 이제 차세 헤여근에 요만한 것에 이제 감아, 이걸. 한쪽 지럭, 쉐석 지럭시만이 이제 꾸부령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꼬아 가. 꼬앙 다시 혼 가닥 더 부쩡, 다시 삼각 드림 허면 쉐석 ᄒᆞ나가 나와. 차세는 이제 지럭, 요만한 막가지." [21]

(세 가닥 만들려고 하면 '줄호롱이'로 꼬아서. 한쪽 끝 이제 '차세' 해서 요만한 것에 이제 감아, 이걸. 한쪽 길이, '쉐석' 길이만큼 이제 굽혀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꼬아 가. 꼬아서 다시 한 가닥 더 붙여서, 다시 삼각 드림을 하면 '쉐석' 하나가 나와. '차세'는 이제 길이, 요만한 막가지.)

칡으로 바를 만들 때는 칡을 걷어다가 잘 말린다. 그것을 물에 담갔다가 두드려서 껍질을 벗겨낸다. 하얀 속 줄기를 가늘게 깨어서는 그것을 꼰다. 줄을 꼴 때는 '줄호렝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줄호렝이'는 초가지붕을 이는 새끼줄 따위를 꼴 때 쓰는 도구다. 한 번 꼰 줄을 원하는 길이만큼 겹치게 구부려서 그 줄을 다시 드린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넣어서 세 겹으로 줄을 드리면 '쉐석'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때 한 번 꼰 줄을 다시 꼬는 것을 '드리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짧은 나무 막대기인 '차세'를 줄 끝에 감아 줄을 돌린다.

"차세엔 헌 건 그냥 꾸짝헌 거 이추룩 헌 거 그냥 저 동글락헌 거 영 영 저 연줄 감듯. 제주도 그 육지추룩 얼레가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그냥 영 헹 차세에 감앗거든. 영 영 헹. 감앙 이제 그 지럭시끄지 가면은 이걸로 이제 데와 가는 거라. 드령 경헹 저기서 다시 꼬부령 이레 오믄 삼각 드려지면 쉐석 ᄒᆞ나가 나와." [22]

20)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1)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2)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차세'라고 하는 건 그냥 길쭉한 거 이런 거 이처럼 한 거 그냥 저 동그란 거 이렇게 이렇게 저 연줄 감듯. 제주도 그 육지처럼 얼레가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차세'에 감았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아서 이제 그 길이까지 가면 이걸로 이제 꼬아 가는 거야. 드려서 그래서 저기서 구부려서 이리 오면 삼각 드려지면 '쉐석' 하나가 나와.)

"쉐줄이고 물줄이고 그건 (길이) 한정 없는 거. 그거는 뭐 오 메다도 뒈고, 십 메다도 뒈고. 줄 멘 드는 건 쉐석이나 마찬가지." [23]

('쉐줄'이고 '물줄'이고 그건 (길이) 한정 없는 거. 그거는 뭐 오 미터도 되고, 십 미터도 되고. 줄 만드는 건 '쉐석'이나 마찬가지.)

줄을 꼴 때 쓰는 '줄호렝이'로 먼저 새끼를 꼰 다음 그 줄을 드릴 때는 짤막한 막대기인 '차세'를 이용한다. 일정한 길이로 두 줄을 겹치게 하여, 줄을 접은 부분에 '차세'를 끼워 줄을 돌린다. 끝까지 다 드리면 끝에서 다시 줄을 접어 한 번 더 드리면 세 겹으로 드린 '쉐줄'이 완성된다. 소를 맬 때 사용하는 '쉐줄'이나 말에 사용하는 '물줄'이나 원하는 길이만큼 줄을 만들어 사용했다.

(3) 말목

'말목'은 소나 말이 일정한 자리에서 풀을 뜯을 수 있게 줄을 길게 하여 묶어 둘 때, 땅에 박아 고정시키는 도구다. '말목'은 표준어 '말뚝'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나무를 깎아 만들어 쓰다가 쇠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말목 그 옛날에는 낭 가깡 만들엇어. 낭 헤영 이런 이만이 솔지게 헤영, 배 들아가는 디 영 턱 멘 들앙. 이 지럭시 헤영 영 밑에로 ᄀᆞ늘게 가깡 말목 만들엉. 거면은 이제 야속헌 사람은 망치 들렁 뎅기멍 썻주만은 이제 거 잊어불어 뒁 가민 이제 어디 가근에 돌멩이 봉가당 이제 둑둑 박아 뒁 와 불거든. 경헹 빨 때에 돌멩이로 그레저레 두드리민 빠지민 또 이거 들렁 왕 뚠 더레 옮기고." [24]

(말뚝 그 옛날에는 나무 깎아서 만들었어. 나무 해서 이런 이만큼 굵게 해서, 바 들어가는 데 이렇게 턱 만들어서. 이 길이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늘게 깎아서 말뚝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좀스러운 사람은 망치 들고 다니면서 썼지만 이제 그거 잊어버려 두고 가면 이제 어디 가서 돌멩이 주워다가 이제 둑둑 박아 두고 와 버리거든. 그래서 뺄 때에 돌멩이로 그리저리 두드리면 빠지면 또 이거 들고 와서 다른 데로 옮기고.)

23)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4)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그거는 보통 이제 요즘 쓰는 말로, 제주도 굿가시낭. 쿳가시낭 질긴 낭이난." [25]
(그거는 보통 이제 요즘 쓰는 말로, 제주도 꾸지뽕나무. 꾸지뽕나무 질긴 나무니까.)

금악리 양원석 씨에 의하면 쇠로 된 말뚝이 나오기 전, 나무로 '말목'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꾸지뽕나무를 이용해 '말목'을 많이 만들었다. 머리 부분에는 바를 묶을 수 있는 턱을 만들어 나무를 깎고, 가늘고 길게 만들어 땅속에 들어가도록 했다.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말목'을 박을 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주변에 놓여 있는 적당한 돌멩이를 주워 망치 대신에 '말목'을 박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4) 질메

'질메'는 짐을 싣기 위하여 소나 말의 등에 안장처럼 얹는 도구로, '길마'를 말한다. 소에 사용하는 것을 '쉐질메', 말에 사용하는 것을 '물질메'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질메엔 허는 거 알건가? 그것에 이제 제주도 말로 혼 바리엔 헌 게 요만썩 무꺼, 요만썩 무끈 거 사십 개를 시꺼. 촐 사십 개 시끄곡, 집 이는 새, 집 이는 새는 여섯 뭇. 한짝에 서 뭇썩." [26]
(길마라고 하는 거 알건가? 그것에 이제 제주도 말로 한 바리라고 하는 게 요만큼씩 묶어, 요만큼씩 묶은 거 사십 개를 실어. 꼴 사십 개 싣고, 집 이는 새, 집 이는 새는 여섯 뭇. 한쪽에 세 뭇씩.)

"양쪽에 하나씩 허영 배로 영 헤근에 그 질메에 걸름착 놔근에 무끕주게. 그 질메는 쉐에도 허고 물에도 허고." [27]
(양쪽에 하나씩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그 길마에 '걸름착' 놔서 묶지요. 그 길마는 소에도 하고 말에도 하고.)

길마는 마소를 이용하여 농작물이나 거름을 운반할 때 필요한 도구다. 꼴을 실어 운반할 때도 유용하게 쓰였다. 꼴을 소에 실어 운반할 때는 길마 양쪽으로 해서 사십 단의 꼴을 실었다. 소에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짐을 세는 단위를 '바리'라고 하는데 꼴은 사십 단이 한 바리이고, 지붕을 일 때 사용하는 띠는 여섯 단이 한 바리다. 거름을 운반할 때는 망태기를 이용했는데 길마 양쪽에 거름을 담은 망태기를 하나씩 매어 운반했다.

25)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6)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7) 금악리 박순원 씨 구술.

"이게 통나무라이, 이렇게 통나무라. 이게 두 개 들어가거든. 앞뒤에 두 개 들어가고 여기 이제 그 두물레엔 헤 가지고 두 개 합친, 조립허는 게 잇어이. 여기 고망 똘랑, 이렇게 고망 똘르민 이디 그 동글란 게 그 막대기가 들어가고. 또 쉐 등뗑이레, 등뗑이레 부뜨는 거. 이제 요 너베기 두물레엔 헤 가지고 요 너베기 헌 게 요렇게 또 들어가. 경헹 그거는 이디 이디 이것들에 턱이, 이 두물레에 이디서 또 턱을 만들어야 뒈. 영허민 요디서 요 두께만이 요디 턱을 지와. 양쪽으로 영허면은 턱이 요디 멘들젠 허민 영헤영 ᄒᆞ꼼 요거를 쫄라근에 요만이 턱이 나오게 헤영 요것들에 톡 부쪄. 톡 부쪙 요디 이제 이런 저 파이프든 동글락 저 막대기가 들어가민 요거를 요 알러레 놔근에 이 동글락헌 저 막대기레 고정을 시켜야 뒈. 경허민 이제 질메가 영 헹 두 개가 영 헹 뒈는 거라." [28]

(이게 통나무야, 이렇게 통나무야. 이게 두 개 들어가거든. 앞뒤에 두 개 들어가고 여기 이제 그 둥우리막대라고 해 가지고 두 개 합친, 조립하는 게 있어. 여기 구멍 뚫어서, 이렇게 구멍 뚫으면 여기 그 동그란 게 그 막대기가 들어가고. 또 소 등때기에, 등때기에 붙이는 거. 이제 요 넓이 둥우리막대라고 해 가지고 요 넓이 한 게 요렇게 또 들어가. 그래서 그거는 여기 여기 이것들에 턱, 이 둥우리막대에 여기서 또 턱을 만들어야 돼. 이러면 여기서 요 두께만큼 여기 턱이 나게 해. 양쪽으로 이러면 턱이 여기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 요거를 잘라서 요만큼 떡이 나오게 해서 요것들에 톡 붙여. 톡 붙여서 여기 이런 저 파이프든 동그란 저 막대기가 들어가면 이것을 이 아래로 놔서 이 동그란 거 저 막대기에 고정을 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길마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이 질메 허는 낭은 주로 어떤 낭 헤수꽈?) 그거는 대중 엇엉게. 모양만 맞으면은 거의 허여."

((이 길마 하는 나무는 주로 어떤 나무 했습니까?) 그거는 대중 없어. 모양만 맞으면 거의 해.)

"(질메에) 그거 동글락헌 나무는 소용, 밑에 건 두물레. 고망에 들어가는 건 소용. 밑에 거는 두물레, 고망에 안 들어가고 요기 그냥 그냥 이 두께만 턱 지왕 이레 허는 거." [29]

((길마에) 그거 동그란 나무는 궁글막대, 밑의 건 둥우리막대. 구멍에 들어가는 건 궁글막대. 밑의 거는 둥우리막대, 구멍에 안 들어가고 여기 그냥 이 두께만 턱이 나게 이리 하는 거.)

전통 사회에서 농기구 등은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쟁기나 소를 맬 때 사용하는 '쉐줄' 뿐만 아니라 '질메'도 마을에서 손재주가 좋은 사람에게 청하여 만들어 사용했다. 금악리 양원석 씨는 이러한 쟁기, 줄, 길마 등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길마는 소의 등에 얹는 것으로, 부메랑 모양으로 휘어진 모양의 나무를 잘 골라서 길마의 앞가지, 뒷가지로 삼고 구멍을 뚫어 '소용'을 끼운다. '소용' 아래쪽에는 '두물레'라는 나뭇가지가 있다. 표준어로 '소용'은 '궁글막대'이고, '두물레'는 '둥우리막대'라고 한다.

28)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29)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도금은 이제 그 뭐냐 옛날에는 그 찍 허영 도금을 여까. 그냥 저 노 놔낭 찍 이만썩 헤여 가지고 이레 여까 오곡 이레 여까 오곡 헤영, 이거추룩 만들어. 이거 ᄯᅩ로ᄯᅩ로라. ᄯᅩ로ᄯᅩ로 이걸 두 갤 멩글아근에. 가운디 이제 이걸 노로 연결을 시켜. 통채로 멘들앙 들이치는 게 아니라. 이짝 이짝 ᄯᅩ로ᄯᅩ로 멘들앙 가운디 이제 노끈으로 연결시켱. 그거 갖당 탁 놔놩 아까 멘든 질메를 갖당 딱 놓게 뒌 거라. 경허면은 그거를 이제 아예 질메에 이 도금을 부착시켜 불어. 경헷당 그냥 질메 이것만 딱 들르민 이 등테도 ᄀᆞ치 부텅 강 탁 놓게 뒌 거라. 경허면은 이제 오량만 딱 줴우민 뒈어. 배떼기로 헤여근에 노끈 헤영." [30]

(떰치는 이제 그 뭐지 옛날에는 그 짚 해서 떰치를 엮어. 그냥 저 노 놓고 짚 이만큼씩 해 가지고 이리 엮어 오고 이리 엮어 오고 해서, 이처럼 만들어. 이거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이걸 두 개를 만들어서. 가운데 이제 이것 노로 연결을 시켜. 통째로 만들어서 놓는 게 아니야. 이쪽 이쪽 따로따로 만들어서 가운데 이제 노끈으로 연결시켜서. 그거 갖다가 탁 놓고 아까 만든 길마를 갖다가 딱 놓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아예 길마에 이 도금을 부착시켜 버려. 그랬다가 그냥 길마 이것만 딱 들면 이 등태도 같이 붙어 가서 탁 놓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뱃대끈만 딱 죄면 돼. 배로 해서 노끈 해서.)

"(도금을) 질메에 부착을 시켜 불어. 경허민 질메만 딱 들르민 도금이 ᄀᆞ치 부텅 따라가가지고 등더레만 올려노민 뒈거든. 경 허영 이제 오량 메고 고들게 끼우면 뒈여. (고들게는 뭐라?) 고들게는 이제 쉐 똥꼬망 꽁지 알로다가 이렇게 나무가 요만헌 게 잇어. 줄 헤영 벗어지지 안허게. 이 질메에 오랑 이게 연결뒈 잇어. 경허면 짐 시끔을 허면은 밑으로 내려갈 때엔 이 고들게로 이 여기서 뗑겨주니까 앞으로 안 넘어가잖아. 앞쪽에는 오량 메 주니까 또 뒤터레 안 넘어가고." [31]

((떰치를) 길마에 부착을 시켜 버려. 그러면 길마만 딱 들면 떰치가 같이 붙어서 따라가서 등에만 올려놓으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뱃대끈 매고 껑거리막대를 끼우면 돼. (껑거리막대는 뭐예요?) 껑거리막대는 이제 소 똥구멍 꼬리 아래로 이렇게 나무가 요만한 게 있어. 줄 해서 벗어지지 않게. 이 길마에 뱃대끈 이게 연결돼 있어. 그러면 짐을 실으면 밑으로 내려갈 때엔 이 껑거리막대로 이 여기서 당겨 주니까 앞으로 안 넘어가잖아. 앞쪽에는 뱃대끈 매 주니까 또 뒤로 안 넘어가고.)

"물도 고들게 잇고 질메만, 질메 쓰는 것에는 고들게가 다 따라가. 물에 멍에가 잇는 거는 구루마. 마차 끗을 때에 멍에가 잇어." [32]

(말도 껑거리막대 있고 길마만, 길마 쓰는 것에는 껑거리막대가 다 따라가. 말에 멍에가 있는 거는 수레. 마차 끌 때에 멍에가 있어.)

마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길마 밑에는 짚방석을 까는데 그것을 제주어로는 '도금'이라고 한다. '도금'은 마소에 짐을 실었을 때 마소의 등이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길마 아래쪽 마소의 등이 닿는 부분에 부착시킨다. 길마를 마소의 등에 얹으면 그것

30)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31)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32)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에 '오랑'을 묶어준다. '오랑'은 표준어의 '뱃대끈'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마소 등에 안장이나 길마를 고정시키기 위해 마소 배를 휘감아 묶는 줄을 말한다. 또 제주어로 '고들게'라 부르는 '껑거리막대'를 줄에 연결하여 마소의 꼬리 쪽에 가도록 한다. '오랑'이나 '껑거리막대'는 짐을 얹은 길마가 마소의 등에서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저거는 질메. 질멜 거라. (질메는 뭐 헐 때 쓰는 것과?) 짐 시끌 때 소 등어리에 영 놔근에 허는 거."[33)]
(저거는 길마. 길마일 거야. (길마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짐 실을 때 소 등에 이렇게 놓고 하는 거.)


<사진 13>고기순 씨 소장 '질메'

<사진 13>은 한수리 고기순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길마다. 고 씨의 이문간 천정에 걸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소의 등에 올렸을 때 짐을 걸 수 있는 쇠로 된 고리가 보인다.

(5) 신돌

'신돌'은 낫이나 칼 따위 연장의 날을 세우기 위해 갈 때 사용하는 도구로, '숫돌'을 말한다. 낫 따위를 갈기 편하도록 숫돌 아래에 나무나 쇠를 받히는 도구를 '신돌받침'이라고 한다.

"(촐 비레 갈 때 뭐 가정 갈 거꽈?) 호미하고 신돌. (박세긴?) 건 따라가는 거난. (그민 촐 비멍 호미는 멧 번이나 골아 줄 거라?) 호미는 ᄒᆞ룰 ᄒᆞᆫ 네 번 골아진 거 닮은디. 아침이 집이서 골앙 가근에 그 오전에 두 번쯤. ᄒᆞᆫ 번 골앙 허는 사람도 싯구. 쒜에 따라 가지고 쒜가 좋은 거는 오래가거든. 놀이 오래가고. 이게 또 쒜가 뜬 거는 빨리 못헤 부난 빨리 골아야 뒈고. 그거는 대중이 엇고."[34)]

33) 한수리 고기순 씨 구술.
34)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꼴 베러 갈 때 뭐 가지고 갈 겁니까?) 낫하고 숫돌. (바가지는?) 그건 따라가는 거니까. (그럼 꼴 베면서 낫은 몇 번이나 갈아 줄 거야?) 낫은 하루에 한 네 번 간 거 같은데. 아침에 집에서 갈고 가서 그 오전에 두 번 쯤. 한 번 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쇠에 따라 가지고 쇠가 좋은 것은 오래가거든. 날이 오래가고. 이게 또 쇠가 뜬 것은 빨리 못해 버리니까 빨리 갈아야 되고. 그것은 대중이 없고.)

'신돌'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을 갈 때도 사용하지만 무엇보다도 농작물을 수확하는 낫 등의 날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도구다. 특히 소의 먹이인 꼴을 벨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낫을 갈아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꼴을 베러 들에 가면서도 '신돌'은 빠뜨리지 말고 챙겨 가야 했다.

"신돌은 이거 골아야지, 누실게 골 때. 그거 대패 날도 골고, 호미도 골고, 칼도 골고." [35]
(숫돌은 이거 갈아야지, 날카롭게 갈 때. 그거 대패 날도 갈고, 낫도 갈고, 칼도 갈고.)

"칼 무끼면 영 미는 거주게. 칼 안 들민 가는 거주게." [36]
(칼 무디면 이렇게 미는 거지. 칼 안 들면 가는 거지.)


<사진 14> 양정아 씨 소장 '신돌'


<사진 15> 한림리 문순선 씨 소장 '신돌'

<사진 14>는 한수리 양정아 씨(193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신돌'로 양 씨는 낫이나 칼뿐만 아니라 대패의 날도 '신돌'로 갈았다고 한다. <사진 15>는 한림리 문순선 씨(1945년생)가 지금도 생선을 손질하는 칼을 갈 때 사용하고 있는 '신돌'이다.

35) 한수리 양정아 씨 구술.
36) 한림리 문순선 씨 구술.



<사진 16> 고운중 씨 소장 '신돌'



<사진 17> 홍춘화 씨 소장 '신돌'



<사진 18> 이연옥 씨 소장 '신돌'



<사진 19> 박영자 씨 소장 '신돌'

<사진 16>은 옹포리 고운중 씨(1948년생), <사진 17>은 대림리 홍춘화 씨(194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신돌'이다. <사진 18>은 대림리 이연옥 씨(1938년생), <사진 19>는 월림리 박영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신돌'이다. <사진 18>과 <사진 19>에는 칼 등을 갈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받침이 부착되어 있다. 도구를 이용하면서 조금 더 능률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모습들이 보인다. 칼날을 기울여 '신돌'에 바짝 갖다댈 수 있도록 받침대의 뒷다리가 높고 길다.

(6) 곰돌

'곰돌'은 소를 훈련시킬 때 쟁기 대신에 소에 묶어서 사용하는 돌을 말한다.

"돌 끗엉 뎅겻어. 곰돌이라고 잇어, 곰돌. 곰돌이렌 헌 거 요 영 뒌 돌이라, 돌이. 거 고망 뚤라지니까 곰돌이지. 건 아무거나 꼽으민 뒈어. 멍에레, 장기 안 씌우고 멍에만 씌왕. 멍에만 씨왕 곰돌 고망 뚤라졋잖여, 이디. 고망 뚤라져시민 그레 이제 뭐냐 쉐줄이라도 헤영. 일단, 베는 디물민 얼마 안 끗엉 다 다영 엇어져 불잖아. 게민 이제 쉐줄이라도 영 꼽아근에. 겡 곰돌도 여러가지로라. 영 땅드레 고망 뚤랑 만든 것도 잇고, 영 이제. 옆으로 뚤랑 헌 거는 베 담앙 헤도 뒈어. 영 알르레 끼운 것만 철사로 허지. 옆으로 허면은 배를 꼽아도 오래가거든. 경헹 허곡 곰돌은 이제 형식이고. 나무 끗어야 뒈, 나무." [37]

(돌 끌고 다녔어. '곰돌'이라고 있어, '곰돌'. '곰돌'이라고 하는 거 요 이렇게 된 돌이야, 돌이. 그거 구멍 뚫리니까 '곰돌'이지. 그건 아무것이나 꼽으면 돼. 멍에에, 쟁기 안 씌우고 멍에만 씌워서. 멍에만 씌워서 '곰돌' 구멍 뚫렸잖아, 여기. 구멍 뚫렸으면 그리 이제 뭐지 '쉐줄'이라도 이렇게 꼽아서. 그런데 '곰돌'도 여러가지로야. 이렇게 땅으로 구멍 뚫어서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옆으로 구멍 뚫어서 하는 것은 바 담고 해도 돼. 이렇게 아래로 끼운 것만 철사로 하지. 옆으로 하면 바를 꼽아도 오래가거든. 그렇게 하고 '곰돌'은 이제 형식이고. 나무 끌어야 돼, 나무.)

소를 밭갈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를 길들여야 한다. 길들일 때는 소에 쟁기 대신 넓적한 돌 따위를 연결하여 소가 곧게 가도록 연습을 시킨다. 그때 돌은 맷돌의 위쪽 돌을 사용하거나 바를 묶을 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는 돌을 이용한다. 이 구멍이 뚫려 있는 돌을 '곰돌'이라고 한다. 금악리 양원석 씨는 돌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곰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돌에 난 구멍의 위치에 따라 연결하는 줄을 달리한다. 구멍이 옆으로 나면 바를 연결해도 되지만 구멍이 위아래로 나서 줄이 바닥에 닿으면 줄이 닳기 때문에 철사 따위로 연결해야 한다. 한 사흘 '곰돌'을 연결하여 밭을 오가며 끄는 연습을 하면 소도 밭을 가는 것을 안다고 한다.

"경헹 그거 많이 이제 혼 사흘 끗음을 허면은 이제, 이제 쉐도 멀쩡이 싯당 이디 끗어 나민 아프잖아게. 사람 식으로. 게민 그거 또 ᄒᆞ끔 저기 뒈곡 허게 헤근에, 새로 헤영 끗으면 이제 아, 이거 ᄃᆞᆼ여사 뒐로구나 헌 거 알 정도고. 곰돌은 이제 이 밧 갓다 왓다 하는 걸 이제 알리는 거라. 똑바로 가는 거, 알리는 거. 영 이제 곰돌 가 나민 그뭇 긋어지잖아게. 겅허민 절로 강 다시 그레 돌아상 또 그 질로 오곡 ᄒᆞ는 거 ᄒᆞ끔 알리고. 겐디 난 것도 안 헤봣어, 벨로. 귀찮여. 무장 멍에 씌왕, 첨 밧에 강 멍에 씌와근에. 쟁기 메왕 쉐 가고 싶은 냥 낮전만 돌아뎅김을 허민은 다음엔 지치민 글렌 허는 데로 가." [38]

37)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38)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그래서 그거 많이 이제 한 사흘 끌면 이제, 이제 소도 멀쩡히 있다가 여기 끌고 나면 아프잖아. 사람 식으로. 그럼 그거 또 조금 저기 되고 하게 해서, 새로 해서 끌면 이제 아, 이거 당겨야 될로구나 하는 거 알 정도이고. '곰돌'은 이제 이 밭 갔다 왔다 하는 걸 이제 알리는 거야. 똑바로 가는 거, 알리는 거. 이렇게 이제 '곰돌' 가고 나면 금 그어지잖아. 그러면 저리로 가서 다시 그리 돌아서서 또 그 길로 오고 하는 거 조금 알리고. 그런데 난 그것도 안 해 봤어, 별로. 귀찮아. 무조건 멍에 씌워서, 첨 밭에 가서 멍에 씌워서. 쟁기 메워서 소가 가고 싶은 대로 오전만 돌아다니면 다음에는 지치면 가자고 하는 대로 가.)

"혼 일 년만 갈아가면은 딱 가근에 쟁기만 이쪽더레 들렁 가느냐 이쪽더레 들렁 가느냐에 따랑 쉐가 알앙 돌아와. 그거는 그 정도만 뒈면 지가, 지가 알앙 돌아와. 게난 밧 가는 사름이 왼쪽더레 들렁 쟁기 돌아가느냐 오른쪽더레 들렁 돌아가느냐 허는 그거에 따랑 쉐가 알앙 돌앙 와." [39]

(한 일 년만 갈아가면 딱 가서 쟁기만 들고 이쪽으로 들고 가느냐 이쪽으로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소가 알아서 돌아와. 그거는 그 정도만 되면 자기가, 자기가 알아서 돌아와. 그러니까 밭 가는 사람이 왼쪽으로 들고 쟁기 돌아가느냐 오른쪽으로 들고 돌아가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소가 알아서 돌아 와.)

그리고 쟁기를 연결하여 소는 한 일 년 정도만 밭을 갈면서 길들이고 나면 소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주인이 쟁기를 어느 쪽으로 돌리는지에 따라 알아서 방향을 돌아간다고 한다.

"이디 영 나무떼기 꼽앙 이디 헤근에 영 헤근에 거세기 헤근에. 이거 소 ᄀᆞ리치는 거, 소 밧 ᄀᆞ리치는 거. 큰 나무떼기로도 허는디 이걸로도 소 ᄀᆞ리쳐. 밧 갈기 위해서. 소가 제대로 가고 안 허는 거, 밧 갈 때 이렇게 똑바로 가도록 연습시키는 거, 밧갈이 연습허는 거." [40]

(여기 이렇게 나무때기 꼽아서 여기 해서 이렇게 해서 거시기 해서. 이거 소 가르치는 거, 소 밭 가르치는 거. 큰 나무때기로도 하는데 이것으로도 소 가르쳐. 밭 갈기 위해서. 소가 제대로 가고 안 허는 거, 밭 갈 때 이렇게 똑바로 가도록 연습시키는 거, 밭갈이 연습하는 거.)



<사진 20> 홍영하 씨 소장 '소 밧 ᄀᆞ리치는 돌'



<사진 21> 홍영하 씨 소장 '소 밧 ᄀᆞ리치는 돌'

39) 금악리 양원석 씨 구술.
40) 상명리 홍영하 씨 구술.

<사진>은 상명리 홍영하 씨(1936년생)가 소에게 밭갈이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돌이다. 홍 씨는 소에게 밭갈이를 가르칠 때 큰 나무를 끌게도 하지만 위 사진과 같은 돌을 연결하여 소가 끌면서 똑바로 걷게 하는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

6.2. 돼지 관련

제주의 농가에서는 돼지우리를 두고 한두 마리의 돼지를 길렀다. 돼지우리에서 농사용 거름을 얻었고 새끼를 낳게 하여 그것을 팔아 소득을 얻었다. 또 고기를 얻기 위해 키우기도 했다.

(1) 통시

'통시'는 돼지를 가두어 기르면서 한쪽에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통시'는 돌담을 쌓아 만든다. 사람이 대소변을 누는 공간이 있고, 돼지가 사는 공간이 있다. 돼지가 사는 곳 역시 지붕을 따로 만들어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었다.



<사진 22> 변춘산 씨 집의 '통시'

<사진 22>는 상명리 변춘산 씨(1933년생) 집에 남아 있는 '통시'의 모습이다. 일부 담이 허물어지기는 했지만,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통시' 가장 안쪽에 돼지가 사는 공간이 보인다.

"이거 칙간인가, 칙간. 도새기 질롸낫주게. 그거 고친 거." [41]
(이거 측간인가, 측간. 돼지 길렀었지. 그거 고친 거.)

41) 강구리 강술생 씨 구술.

"도세기 질롸난 디, 옛날엔이 화장실 허여낫주게. 저쪽엔 도세기 질롸난 디가 맞은디, 처음엔 저런 거 헷당 이젠." [42]

(돼지 길렀던 데, 옛날에는 화장실 했었지. 저쪽에는 돼지 길렀었던 데가 맞는데, 처음에는 저런 거 했다가 이젠.)

각 가정의 '통시'는 주택 개량 사업을 하면서 수세식 화장실로 면모를 바꾸었다. 외부에 있었던 것을 없애고 현대식 주택에서처럼 실내로 옮겨 놓기도 했다. 강구리 강술생 씨나, 월림리 박영자 씨 집에서도 옛날 '통시'를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도세기 어디서 길러수꽈?) 통제. 벤소, 벤소. 야, 통제 강 보라, 경허곡. 네중엔 벤소. 이젠 화장실이렌 허주. 우리 도세기 쭉 질롸낫어. 질루당 추렴으로 잡앙 먹고. 또 돗장사들 오민 소개헤영 담벳값 벌고." [43]

((돼지 어디에서 길렀습니까?) 돼지우리. 변소, 변소. 야, '통제' 가서 봐라, 그러고. 나중에는 변소. 이제는 화장실이라고 하지. 우리 돼지 쭉 길렀었어. 기르다가 '추렴'으로 잡아 먹고. 또 돼지 장수들 오면 소개해서 담뱃값 벌고.)

옹포리 정일봉 씨(1939년생)는 '통시'를 '통제'라고 불렀다. '통제'라고 부르다가 돼지를 기르지 않게 되고, 주택 개량을 하고 그것의 구조가 바뀌면서는 변소, 지금은 화장실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정 씨도 돼지를 계속 길렀었는데 기르다가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그 돼지를 잡아먹기도 했고, 돼지를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를 소개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2) 돗도고리

'돗도고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줄 때 사용하는 도구다. '돗'은 돼지를 의미하고, '도고리'는 함지박과 같이 큰 바가지 모양을 그릇을 나타내는 말이다. '돗도고리'는 돌을 파서 만드는데, 돌로 만들었다고 해서 '돌도고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거 도새기 에미 먹고, 욮이 건 새끼덜 둘아졍 먹고." [44]

(저거 돼지 어미 먹고, 옆의 건 새끼들 매달려서 먹고.)

42) 월림리 박영자 씨 구술.
43)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44) 금악리 강정자 씨 구술.

"(저 돗도고리 큰 건 뒈지 멧 마리 정도 키울 때 쓰단 거?) 몰라. 새끼덜 막 멕여나난. (그 뒤에 작은 거는?) 그건 에미게. 둥그렁허영 영 큰 거는 저 축사에 쉐 멕일 때 헨 송아지 거름에 묻어져부난 못 봐. 그거 저 송아기 사료 주멍 그기 거져가낫주게." [45]

((저 '돗도고리' 큰 것은 돼지 몇 마리 정도 키울 때 쓰던 거?) 몰라. 새끼들 마구 먹였었어. (그 뒤의 작은 것은?) 그건 어미. 둥그래서 이렇게 큰 것은 저 축사에 소 먹일 때 해서 송아지 거름에 묻혀서 못 봐. 그거 저 송아지 사료 주면서 거기 가져갔지.)



<사진 23> 양원석 · 강정자 씨의 '돗도고리'



<사진 24> 양원석 · 강정자 씨의 '돗도고리'

<사진 23>은 금악리 양원석 씨 집에 남아 있는 '돗도고리'다. '통시'에 돼지를 키울 때 사용했던 것을 지금은 개의 먹이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정자 씨(1940년생)는 <사진 23>에서 작은 '돗도고리'는 어미 돼지가 먹이를 먹었던 것이고, 앞쪽의 큰 것은 새끼 돼지들이 먹이를 먹었던 것이라고 한다. 또 둥근 모양이 '도고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축사에서 송아지에게 먹이를 줄 때 사용한다고 한다.

"돗도고리. 돌로 판 거. 돌로 영 널르게 팡 이레 것 줘주기. (삼춘도 팟수과?) 어. 우리 다 이녁대로 파멍 헷저. 이녁대로 판. 돌 납작헌 거 봉가단 문딱 동그록허게. 앚앙 돌끌로 이젠 똥글랑허게 헹 파. 경허믄 크게 파불어사 걸로 하나 주민 하루 먹주기." [46]

('돗도고리'. 돌로 판 거. 돌로 이렇게 넓게 파서 이리 먹이 줬지. (삼촌도 팠습니까?) 어. 우리 다 자기대로 파면서 했어. 자기대로 팠어. 돌 납작한 거 주워다가 모두 동그랗게. 앉아서 끌로 이젠 동그랗게 해서 파. 그러면 크게 파야 그것으로 하나 주면 하루 먹지.)

옹포리 정일봉 씨는 한때 돌을 다듬고 쌓는 일도 했었는데, '돗도고리'도 직접 만들어 사용했었다고 한다. 납작한 돌을 주워다가 돌을 깰 때 사용하는 끌을 이용해서 가운데

45) 금악리 강정자 씨 구술.
46)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를 둥그렇게 파내면 돼지의 먹이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것항

'것항'은 돼지의 먹이를 모아 두는 항이다. '것'은 개나 돼지 등에 주는 먹이고, '항'은 항아리를 말한다. 돼지를 기를 때에는 돼지 먹이를 주기 위해서 돼지우리 앞에 먹이를 넣어두는 항아리를 놓아두었다.

"(것 모아 놓는 항도 잇어나수꽈?) 어게, 것항. 물항 닮은 거 저 ᄑᆞ는 거. 엿날엔 그거 엇인 집이 엇어낫어. 항에 헤근에 영 옆이 놔근에, 통제 옆이. 돗도고리 영 헹 거려 놓고 체 타멍."[47]

(먹이 모아 놓는 항아리도 있었습니까?) 그래, '것항'. 물독 같은 거 저 파는 거. 옛날에는 그거 없는 집이 없었어. 항아리에 해서 이렇게 옆에 놔서, 돼지우리 옆에. '돗도고리' 이렇게 해서 떠 놓고 겨 타면서.)

집에서 기르는 돼지의 먹이는 음식물 찌꺼기나 곡물의 겨 등이다. 옹포리 정일봉 씨는 어느 집에나 돼지우리 옆에 '것항'을 놓아두었다고 한다. 밥풀 등이 남아 있는 국물이나 음식물 찌꺼기 등을 '것항'에 넣어 두었다가 거기에 곡식을 갈 때 나오는 겨 따위를 섞어서 돼지 먹이로 주었다.

"거 거리는 건 박세기로게. 엿날엔 저 ᄏᆞᆯ락이 잇어이, ᄏᆞᆯ락박세기. 거 해녀덜도 ᄏᆞᆯ락 헨에 엿날엔 할망덜 다 걸로 써낫주기. 그거 착 벌렁, 착 벌렁게. 거 안 벌러져, 꽝꽝허게 굳게시리 허영 허민 안 벌러져, 거 ᄏᆞᆯ락박세기덜."[48]

(그거 뜨는 건 바가지로. 옛날에는 저 'ᄏᆞᆯ락'이 있어, 'ᄏᆞᆯ락박세기'. 그거 해녀들도 'ᄏᆞᆯ락' 해서 옛날에는 할머니들 다 그것으로 썼었지. 그거 착 쪼개서. 착 쪼개서. 그거 안 깨져, 딴딴하게 굳게 해서 하면 안 깨져, 그거 'ᄏᆞᆯ락박세기'들.)

항아리에 있는 돼지 먹이를 뜰 때는 박을 쪼개서 만든 바가지를 이용했다. 그 바가지를 옹포리 정일봉 씨는 'ᄏᆞᆯ락', 'ᄏᆞᆯ락박세기'라고 불렀는데, 'ᄏᆞ박세기'라고도 한다. 박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도 이용했지만, 플라스틱 도구가 없었던 시절 집안에서 무언가를 뜨는 바가지의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했다.

돼지우리 앞에는 '것항' 뿐만 아니라, '오줌항'도 놓여 있었다.

47)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48)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오줌항 그거 밧디 졍 강 우녕밧디 시믄 우녕밧디. 오줌 단지 혜영 단지에 쌍, 요디 방안에 놔, 안에. 할망덜은 나오기 실펑. 붉으민 그거 혜영 오줌항에 비왕 놧당 이젠 질엉 강 허벅. 허벅에 물구덕이영 ᄀᆞ치 지어근에 밧디 가근에 뿌리곡 헤나셰. 오줌이 거름." [49]

(오줌 항아리 그거 밭에 지고 가서, 터앝이 있으면 터앝에. 오줌 단지 해서 단지에 싸서, 여기 방안에 놓아, 안에. 할머니들은 나오기 싫어서. 밝으면 그거 해서 오줌 항아리에 부어 놨다가 이젠 긷고 가서 '허벅'. '허벅'에 '물구덕'이랑 같이 지고 밭에 가서 뿌리고 했었어. 오줌이 거름.)

'오줌항'은 거름으로 사용할 오줌을 넣어 두는 항아리다. 지금과 같은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 돼지는 농작물에 사용할 거름은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돼지우리에 깔아 놓은 짚과 돼지의 똥오줌이 섞이면서 거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거름은 농작물을 키우는데 요긴하게 쓰였다. 그런데 마소의 거름만으로 부족했기에 사람의 오줌을 거름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요강에 오줌을 싸면 그것을 '오줌항'에 모아 두었다가 거름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49) 옹포리 정일봉 씨 구술.







III

마무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10, 한림읍 편』은 한림읍 사람들의 옛 생활 도구를 현지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제주시 한림읍을 조사 지점으로 하여 비양도를 제외한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하며 마을 주민을 만나 조사했다.

한림읍 조사는 2022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총 52명의 제보자를 만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전통 생활 도구에 대한 구술을 듣고 실물이 있는 경우 그것의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 책에는 제보자들의 구술 내용을 전사하고 분야별로 정리하여 총 590장의 사진 자료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책은 Ⅰ장 조사 개요, Ⅱ장 조사 내용, Ⅲ장 마무리,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Ⅰ장에는 조사 개요와 조사단 구성,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정리하였고, 조사 지역인 한림읍 지역의 자연환경과 조사 마을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Ⅱ장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목축 관련'의 6개의 절로 나누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 조사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생활 도구에서는 바느질 도구,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옷과 신발로 나누어 도구의 명칭과 쓰임을 정리했다. 먼저 바느질 도구에서는 '미싱'과 바느질에 필요한 '바농', '미싱 지름', '속돌', '실패', 그리고 이를 담아 보관하는 '바농 상지'를 소개했다. 이어서 '안반'과 '다듬이 마께' 등의 손질 도구, 그리고 지금도 제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빨래팡', '빨래마께' 등의 세탁 도구를 사진 자료와 함께 구술을 실었다.

옷 조사에서는 갓난아기에게 입혔던 '봇디창옷'에 대한 자세한 구술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지금은 접하기 어려운 '할망상'에 올렸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제보자를 만난 것은 이번 조사의 행운이었다.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문화 중 하나인, 태어난 아기의 무탈과 안녕을 비는 의례 '할망상'에 대한 구술과 '할망상'에 올렸던 물품을 조사해 이를 정리했다. 이외에 감물 들인 베로 만든 '적삼'과 '조끼', 제보자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용도의 '고무신'과 '페렝이' 등을 의생활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했다.

둘째, 식생활 도구는 식기류와 조리 도구, 저장 도구, 제기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식기류의 경우 '밥사발'과 '국사발', '보시'와 '젭시' 등을 조사하여 그 용도를 설명했다. '구덕'과 '차롱'을 보관하고 있는 제보자들이 많았는데, 용도 설명과 함께 도구에 얽힌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사진 자료와 함께 담았다. 조리 도구에서 다양한 '솟'을 조사할 수 있었다. 제보자들은 조리할 음식의 양 또는 조리 시간에 따라 '솟'을 용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조리에 필요한 '시리', '우금', '남국자' 등도 볼 수 있었다. 이 도구들은 더 편리하고 간편한 식생활 도구의 보급으로 대부분 그 쓰임을 잃고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편 저장 도구로는 여러 종류의 '항'과 '단지', '추니' 등이 있었다. 과거 별다른 보관 용기가 없던 시절 '항'은 매우 요긴한 저장 도구였다. 그러나 다양한 공산품 용기가 보급된 현재, 제보자 대부분은 '항'을 쓰는 일 없이 보관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놋그릇 '반상기' 만나,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등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의 '반상기' 차림을 기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제사에 쓰였던 그릇은 '제기'로 분류하여 제시하며 '상합', '촛대' 등을 함께 실었다. 이외에도 식생활을 꾸리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은 기타 도구로 모아 정리했다.

셋째, 주생활에서는 집, 집 구조, 가재도구, 조명 도구, 난방 도구, 연장류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집과 관련해서는 먼저 한림읍에 남아있는 주거 양식을 조사했다. 한림읍에는 제주 전통 가옥 '초집'이 남아있지 않아 구술을 듣는 데 그쳐야 했지만, 대신 '기와집'을 조사하는 행운이 있었다. 현재 '기와집'에 거주하고 있는 고기순 씨를 만나 집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듣고, 이를 수록한 것은 이번 조사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한림읍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 시설이 다수 남아있어 이를 조사했다. 근대 숙박시설이었던 '한림여관'과 함께 일본식 '근대가옥'을 방문하여 사진 자료와 설명을 함께 실었다.

집 구조에 대한 조사는 밖에서 안으로 공간 이동하는 흐름으로 정리했다. 제주를

대표하는 주거 특징인 '올레'와 '정주석', 그리고 '이문간'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문', '마리와 난간', '안방', '청방' 등을 탐색하는 순으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집과 관련한 시설 '추칫돌과 잇돌', '물팡', '물통', '쉼팡' 등에 대한 구술을 듣고 사진 자료를 함께 실었다. 가재 도구에서는 대표적인 혼수품 '궤'를 시작으로 '살레' 그리고, '책상'을 이어 조명 도구에서는 '각지불'을 시작으로 전기가 보급된 이후의 생활의 변화를 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전기가 처음 보급되었던 때의 시설뿐만 아니라, 백열등에서 형광등으로, 다시 LED(엘이디)등으로 이어지는 조명 도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난방 도구로는 '화리', '굴묵'을 살펴보았다. 또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장인 '톱', '도치', '망치와 못빼기' 등을 해당 구술과 함께 각 사진 자료를 구분하여 제시했다. 이외의 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도구들은 기타로 분류하여 실었다.

넷째,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도구, 건조와 손질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 저장 도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파종 관련 도구로는 '잠대'와 '멍에', '보섭과 벳', '따비'와 '궹이', '쉐스랑' 등이 조사되었고, 김매기와 수확 관련 도구로는 '골겡이'와 '호미', '도께'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림읍 지역에서 밭을 가는 농기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제보자를 만나 '잠대'와 '멍에' 등을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다. 또 쉽게 접하기 어려운 '따비'나 '곰베' 등의 실물을 보고 그 쓰임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건조와 손질 관련해서는 '멍석'과 '솔박', '체', '얼멩이', '푸는체', 'ᄆᆞᆯᄀᆞ레', 'ᄀᆞ레' 등의 도구를 조사하여 구술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다. 이번 한림읍 조사에서는 철사나 나일론 줄이 아닌 대오리를 엮어 만든 '얼멩이'를 조사할 수 있었다. 운반 도구로 '골체'와 '질구덕', 'ᄇᆞ른바구리', '지게' 등, 저장 도구로는 '항'과 '도로무깡' 외에 '두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한림읍 조사에서는 이전 다른 지역 조사에서는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던 '멕'을 직접 보고 조사할 수 있었다.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농기구인 '따비'와 '곰베', 저장 도구인 '두지'와 '멕' 등을 구술로만이 아니라, 실제

도구를 확인하며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번 한림읍 조사에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어업 관련 도구는 해녀들의 물질 도구와 고기잡이 관련 도구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해녀들의 물옷과 물질 도구인 '테왁'과 '망사리', '골겡이', '비창' 등의 쓰임새를 실제 도구와 제보자들의 생생한 구술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바닷일에 사용했던 '춤대', '주낫', '구덕', '그물' 등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이번 한림읍의 어업 관련 조사에서는 한림리와 옹포리를 중심으로 들어섰던 통조림공장 등 근대 산업 시설에 대한 구술을 들을 수 있었다. 아쉽게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도구들이 자취를 감추어 그것의 일부만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조사 자료가 한림읍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목축 관련 도구는 마소와 돼지를 기르는 데 사용했던 도구를 정리하였다. 마소 관련해서는 소를 가둬 길렀던 '쉐막'이 변화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돼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옛 '통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축 관련해서는 실제 남아 있는 도구를 많이 찾아 내지는 못했지만, 제보자들의 생생한 구술을 통해 소와 돼지를 기르는 데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이번 한림읍 조사에서는 소와 관련한 농기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 온 제보자를 만나 봇줄 등을 만드는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는 성과가 있었다.

부록에는 금악리 양원석 씨(1939년생)、강정자 씨(1940년생)의 목축 관련 구술을 실었다. 소와 관련한 전통 도구에 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수리 고기순 씨(1939년생)의 식생활 도구에 관한 구술도 부록에 실었다. 제보자들의 구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주어와 함께 표준어 역을 함께 실었다. 이 구술들은 제주 사람들의 사용했던 전통 목축 도구, 식생활 도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이 집 앞으로 배달되는 신속함이 미덕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한림읍 조사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생활 도구를 직접 만들고, 낡은 것은 고쳐 쓰고, 쓰임이 다한 것은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하며 자연의 속도에 맞춘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은 특별한 가공 없이 자연물 특성에 맞게 도구를 만들고 자연과 융화하며 사는 삶이다. 자연의 속도를 존중하고 따르는 선대들의 삶은 신속함을 쫓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

세월이 더해지고 선대의 손때가 묻은 옛 생활 도구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다. 그 삶의 핵심은 자연의 일부를 빌려 쓰고, 이를 다시 돌려 놓는 느림과 융화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등 자연이 보내는 이상 신호와 마주한 요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답은 선조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술과 도구 사진, 그리고 그 설명이 앞선 시대를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삶을 알고 제주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단행본>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1),『옹포천 주변 마을의 자연과 생활문화』,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14),『한림읍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3),『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Ⅰ-애월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4),『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Ⅱ-조천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5),『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구좌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6),『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Ⅳ-안덕면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7),『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Ⅴ-한경면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8),『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Ⅵ-성산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9),『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Ⅶ-대정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20),『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Ⅷ-남원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21),『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Ⅸ-표선면 편』.

한림읍지편찬위원회(1999),『한림읍지』.

현평효 외(2009),『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보고서, 논문>

김일우(2005),「고려시대 탐라 주민들의 생업활동과 그 유형」,『국사관논총』 제106집, 국사편찬위원회.

문순덕·박찬식(2013),「제주 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방안」, 제주발전연구원.

<누리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두디피아(https://www.doopedia.co.kr/index.do)

디지털제주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jeju)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index.htm)







부록

금악리 양원석 · 강정자 어르신의 목축 도구 이야기

김보향 게난예, 게난 삼춘 우리 옛날에 쉐 질러난 얘기를 ᄒᆞ끔 들으쿠다.(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촌 우리 옛날에 소 길렀던 이야기를 조금 묻겠습니다.)

강정자 들으쿠다.(묻겠습니다.) (웃음)

양원석 거 무시거 들을 거 셔?(그거 무엇 물을 거 있어?)

김보향 들엉 영 글로 영 남길 거.(묻고 이렇게 글로 해서 남길 거.)

강정자 으.(으.)

김보향 예. 게민 삼춘 성함을 먼저 골아 줍서. 일름이?(예. 그럼 삼촌 성함을 먼저 말해 주십시오. 이름이?)

양원석 양원석.(양원석)

김보향 예. 나이가 어떵 됨수꽈?(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강정자 팔순넷.(팔순넷)

양원석 여든넷.(여든넷)

김보향 여든넷. 여든넷이면 지금 무슨 헤친고?(여든넷. 여든넷이면 지금 무슨 띠인가?)

강정자 토끼띠.(토끼띠.)

양원석 토끼.(토끼.)

김보향 토끼띠. 아이고, 같은 토끼띠구나. 삼춘은?(토끼띠. 아이고, 같은 토끼띠구나. 삼촌은?)

강정자 난 싯.(난 셋.)

김보향 으?(으?)

강정자 여든싯.(여든셋.)

김보향 여든싯. 삼춘 성함은?(여든셋. 삼촌 성함은?)

강정자 난 강정자.(난 강정자.)

김보향 강정자예. 무슨 띠?(강정자요. 무슨 띠?)

강정자 용띠.(용띠.)

김보향 용띠. 하나 밑에. 아, 예. 옛날에 쉐를, 지금도 질럼덴 헴신디 지금 멧 ᄆᆞ리나 질럼수꽈?(용띠. 하나 밑에. 아, 예. 옛날에 소를, 지금도 기른다고 하는데 지금 몇 마리나 기르고 있습니까?)

양원석 지금 인제 한 열 마리.(지금 이제 한 열 마리.)

김보향 아, 열 마리.(아, 열 마리.)

강정자 아까 세 ᄆᆞ리 강 팔아 와 불고.(아까 세 마리 가서 팔고 와 버리고.)

박진향 아이고, 경 팔아 불언?(웃음)(아이고, 그렇게 팔아 버렸어?)

강정자 아까 오늘 쉐 시장이난 세 마리 강 팔아 와 불고.(아까 오늘 소 시장이니까 세 마리 가서 팔고 와 버리고.)

김보향 우리 쉐 질르젠 하민예, 지금식 말고 옛날식 한번 헤 보게마씨. 옛날부터 쭉 길러나지 안헨예?(우리 소 기르려고 하면, 지금식 말고 옛날식 한번 해 봅시다. 옛날부터 쭉 길렀었지 않아요?)

강정자 으, 옛날부터게. 옛날 사삼사건 전이부터 소 질랏주게.(으, 옛날부터. 옛날 사삼사전 전에부터 소 길렀지.)

김보향 게민 쉐를 질.(그럼 소를 기를.)

강정자 어머니, 아버지네.(어머니, 아버지네.)

김보향 맞아. 쉐를 질르젠 허민 우리 집에서는 어디 놩 쉐를 질롸수꽈?(맞아. 소를 기르려고 하면 우리 집에서는 어디 놓고 소를 길렀었습니까?)

강정자 쉐막에.(외양간에.)

김보향 쉐막에.(외양간에.)

강정자 으.(으.)

김보향 겅헹 그거 목장에 올리고 목장에서 다시 데려오고 허잖아예?(그래서 그거 목장에 올리고 목장에서 다시 데려오고 하잖아요?)

강정자 으.(으.)

김보향 목장 올리는 건 언제 올려난?(목장 올리는 건 언제 올렸었어?)

양원석 오월달에.(오월달에.)

김보향 오월달에. 으, 음력 오월, 양력 오월?(오월달에. 으, 음력 오월, 양력 오월?)

양원석 양력 오월.(양력 오월.)

김보향 양력 오월. 겅헹 그 쉐막에서 나오렌 헤 가지고 다 목장에 올립니까?(양력 오월. 그래서 그 외양간에서 나오라고 해 가지고 다 목장에 올립니까?)

양원석 아, 게난 옛날에는.(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김보향 쉐 질르는 과정을 쭉 골아 줍서.(소 기르는 과정을 쭉 말해 주세요.)

양원석 게난 옛날에는 목장에 일부 올라가기도 허곡, 옛날엔 이 주위가 전부 쉐 먹는 디주.(그러니까 옛날에는 목장에 일부 올라가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 주위가 전부 소 먹는 데지.)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게난 제주도 말로 내창, 요즘 이제 개울.(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내, 요즘 이제 개울.)

김보향 내창, 예.(내창, 예.)

양원석 내창이 쉐 먹는 장소라.(내가 소 먹는 장소야.)

김보향 예.(예.)

양원석 내창이.(내가.)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게 내창이 이제 존 낭도 이제 싯주만은 존 낭이 크지 못하는 게 해마다 방에, 방아를 놓거든, 불을.(그래 내가 이제 좋은 나무 이제 있지만 좋은 나무가 크지 못하는 게 해마다 방화, 방화를 놓거든, 불을.)

김보향 아, 예. 불. 그 불 놓는 걸 방에 놓는 거예? 무사 불을 놓는 거라?(아, 예. 불. 그 불 놓는 걸 방화 놓는 거요? 왜 불을 놓는 거야?)

강정자 소 먹을 촐 나오게.(소 먹을 꼴 나오게.)

양원석 게, 진드기도 없어지고.(그래, 진드기도 없어지고.)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으, 진드기도 없어지고 이제 새 풀 곱게 나오곡. 또 이제 쉐 먹는 장소에 이제 존 가시도 타 불곡.(으, 진드기도 없어지고 이제 새 풀 곱게 나오고. 또 이제 소 먹는 장소에 이제 잔 가시도 타 버리고.)

김보향 으.(으.)

양원석 영 허기 위헹 이제 허곡. 촐 비어난 밧디도 계속 방아를 놨어. 이제야 이젠 금지헤 부난 못 허주만은. 옛날엔.(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꼴 베었던 밭에도 계속 방화를 놨어. 이제야, 이젠 금지해 버리니까 못 하지만. 옛날에는.)

김보향 옛날엔 다 방에 놘?(옛날에는 다 방화 놨어?)

양원석 으, 옛날에는 계속 이제 촐, 이제 가을에 뒈면은 이제 수세엔 헤 가지고. 그 이제는 수세가 거이가 가 부난 이제 억새풀로 이제 보통 뒈 불엄신디.(으, 옛날에는 계속 이제 꼴, 이제 가을에 되면 이제 '수세'라고 해 가지고. 그 이제 '수세'가 거의가 가 버리니까 이제 억새풀로 이제 보통 돼 버리는데.)

김보향 예.(예.)

양원석 거기를 이제 촐 비어 낭 방에 싹 부쳥 놔두민 내년에 깨끗한 촐이 다시 올라오거든.(거기를 이제 꼴 베어 놓고 방화 싹 붙여서 놔두면 내년에 깨끗한 꼴이 다시 올라오거든.)

김보향 예.(예.)

양원석 경허민 또 가을 들면 비곡, 요즘추룩 목초가 없어.(그러면 또 가을 되면 베고, 요즘처럼 목초가 없어.)

김보향 으.(으.)

양원석 옛날에는. 이 목초 나온 디가 이제 뭐 불과 헌 뭐 헌 사십 년? 경벳긴 안 뒈곡.(옛날에는. 이 목초 나온 지가 이제 뭐 불과 한 뭐 한 사십 년? 그렇게밖에 안 되고.)

김보향 맞수다.(맞습니다.)

양원석 옛날에는 전부 야근초 멕이고 쉘 키왓거든. 사료도 안 멕이곡.(옛날에는 전부 들풀 먹이고 소를 키웠거든. 사료도 안 먹이고.)

김보향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아니?(맞아. 그런데 그게 진짜 아니?)

강정자 그게 진짜.(그게 진짜.)

양원석 사료도 쉐 멕일 걸랑말랑 다른 먹을 것도 엇으난.(사료도 소 먹일 것은 커녕 다른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강정자 (웃음)

김보향 예. 맞수다. 쉐 멕일 거랑 마랑 사람 먹을 것도.(예. 맞습니다. 소 먹일 것은 커녕 사람 먹을 것도.)

양원석 으, 이제 그루후제 이제 허면서 방에 공장이 생겨 가지구, 방에 공장도 이제 허면은 이제 그전에는 보리도 방에 공장이 해변엔 잇어도 웃드렌 방에 공장이 엇엇어. 보리 까끄는. 웃드레서는 뭐냐면 이제 저 남방에라고 헤 가지고.(으, 이제 그후에 이제 하면서 방아 공장이 생겨 가지고, 방아 공장도 이제 하면 이제 그전에는 보리도 방아 공장이 해변에는 있어도 중산간 마을에는 방아 공장이 없었어. 보리

깎는. 중산간 마을에서는 뭐냐면 이제 저 남방아라고 해 가지고.)

김보향 으, 으.(으, 으.)

양원석 이렇게 큰 저기다가, 가운디다가 그 통이 들어잇어, 요만헌 게.(이렇게 큰 저기다가, 가운데에다가, 가운데다가 그 통이 들어있어, 요만한 게.)

김보향 맞수다.(맞습니다.)

양원석 게민 이거 절구를 찧어 가지고 이제 먹엇거든, 그거를.(그럼 이거 절구를 찧어 가지고 이제 먹었거든, 그것을.)

김보향 게난 그거 겅 허고 쉐는 방에 불 놓는 거는 쉐 질를 때, 방에 불 질를 때 그거 몇 월에 헤마씨? 몇 월에 불 놓아?(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고 소는 방화 불 놓는 거는 소 기를 때, 방화 불 지를 때 그거 몇 월에 해요? 몇 월에 불 놓아?)

양원석 어, 십이월달에서 이월까지.(어, 십이월에서 이월까지.)

김보향 이월까지예. 예, 맞수다. 게민 우리 쉐도 질르곡 물도 질러난?(이월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소도 기르고 말도 길렀었어?)

양원석 으, 물도 좀.(으, 말도 조금.)

김보향 질러난?(길렀었어?)

양원석 많인 못 질르곡 한 삼십 두 키왓어.(많인 못 기르고 한 삼십 두 키웠어.)

김보향 아이고, 많이 못 질러신디 삼십 두.(아이고, 많이 못 길렀는데 삼십 두.)

박진향 부자엿구나. 막 부자여신게, 삼십 두나 키워시믄.(부자였구나. 아주 부자였네요, 삼십 두나 키웠었으면.)

양원석 아니, 4·3사건에 우리 한림으로 소개 내려가기 전에는. 그래도 밥은 먹엉 살 정도엿주.(아니, 사삼사건에 우리 한림으로 소개 내려가기 전에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정도였지.)

김보향 맞아예. 우리 여기 목장 지대가 옛날에 공동 목장 할 때 몇 지대, 무슨 지대렌 헤놧수꽈? 이 금악이? 무슨 소장?(맞아요. 우리 여기 목장 지대에 옛날에 공동 목장 할 때 몇 지대, 무슨 지대라고 했었습니까? 이 금악이? 무슨 소장?)

양원석 으?(으?)

김보향 여기 목장으로는 몇 소장? 그건 잘 몰라?(여기 목장으로 몇 소장? 그건 잘 몰라?)

양원석 멧?(몇?)

김보향 공동 목장 부르는 이름이 잇지 않으꽈?(공동 목장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강정자 아아, 당오름[1].(아아, 당오름.)

김보향 당오름?(당오름?)

강정자 으, 당오름.(으, 당오름.)

김보향 당오름? 당오름이 공동 목장이라난?(당오름? 당오름이 공동 목장이었었어?)

강정자 으, 으.(으, 으.)

양원석 당학[2], 당학.(당학, 당학.)

김보향 예. 당학. 우리 그럼 쉐 질를 때예, 쉐는 뭐 할 때 써나수꽈?(예. 당학. 우리 그럼 소 기를 때요, 소는 뭐 할 때 썼었습니까?)

양원석 쉐는 겨난 그 여러 가지주.(소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지.)

김보향 여러 가지주, 예.(여러 가지지, 예.)

양원석 겨난 쉐를 이제 여러 마리 키와도. 여러 마리 이제 키와도. 으, 육지말로 황소. 숫놈, 숫놈은 이제.(그러니까 소를 이제 여러 마리 키워도. 여러 마리 이제 키워도. 으, 육지말로 황소. 수놈, 수놈은 이제.)

김보향 제주도 말로 그거 뭐렌 골을 거라, 숫놈을?(제주도 말로 그거 뭐라고 말할 거야, 수놈을?)

강정자 부룽이.(부룩소)(웃음)

양원석 부룽이.(부룩소.)

김보향 부룽이, 으.(부룩소, 으.)

양원석 부룽이는 이제 농사용. 요즘 ᄀᆞ트민 트럭 차나 다름 엇은 거라. 걸로 이제 모든 걸 다 헤. 밧 갈고 뭐 섬비 끗곡, 구루마 끗곡. 다 그 용으로 이제 부룽이 하나는 웬만한 집은 다 잇엇곡.(부룩소는 이제 농사용. 요즘 같으면 트럭 차나 다름 없는 거야. 그것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해. 밭 갈고 뭐 '섬비' 끌고, 수레 끌고. 다 그 용으로 이제 부룩소 하나는 웬만한 집은 다 있었고.)

김보향 으.(으.)

양원석 또 쪼끔 산덴 헌 집은 이제 암쉐덜. 암놈. 암쉐덜 이제 뭐 설남은 개도 키우고. 또 야우라고 헤 가지고.(또 조금 산다고 하는 집은 이제 암소들. 암놈. 암소들 이제 뭐 서른 남짓 마리도 키우고. 또 야우라고 해 가지고.)

김보향 예. 야우 얘기 많이 나왐저.(예. 야우 이야기 많이 나오네.)

양원석 드르에서 그냥 놩 내불민 집이 안 오는 쉐, 건.(들에서 그냥 놓아 내버리면 집에 안

1) '당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지경에 있는 오름이다.

2) '당학'은 '당오름'을 가리킨다.

오는 소, 그건.)

김보향 야우는 아예 집이 안 오는 쉐?(야우는 아예 집에 안 오는 소?)

양원석 으.(으.)

김보향 게민 그 들에 놩 내불믄 자이는 우리 꺼다 헹 알아집니까?(그럼 그 들에 놓아 내버리면 쟤는 우리 거다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양원석 아, 전부 넥인.(아, 전부 낙인.)

강정자 넥인 찍고. 넥인 다 이 엉덩이에 다 넥인 헤. 강 칩, 뭐 이 칩, 양 칩 전부 다 이제 글자가 다 틀려.(낙인 찍꼬. 낙인 다 이 엉덩이에 다 낙인 해. 강씨 집안, 뭐 이씨 집안, 양씨 집안 전부 이제 글자가 다 달라.)

김보향 으. 게민 삼춘네는 넥인 무슨 글자 써난?(으. 그럼 삼촌네는 낙인 무슨 글자 썼었어?)

양원석 우리는 저 뭐냐, 갑 갑제 최.(우리는 저 뭐지, 갑 갑자 최.)

김보향 최.(최.)

양원석 으, 갑 갑제 최 우리 양 칩이 넥인이고. 강 칩인 내 천제.(으, 갑 갑자 최 우리 양씨 집안 낙인이고. 강씨 집안은 내 천자.)

김보향 예.(예.)

양원석 그런 식으로 이제 넥인을 전부 자기만썩. 물도 마찬가지.(그런 식으로 이제 낙인을 전부 자기만큼씩. 말도 마찬가지.)

김보향 물도 마찬가지, 으.(말도 마찬가지, 으.)

양원석 물도 두 설 나면은 넥인 다 찔러. 소도 마찬가지.(말도 두 살 되면은 낙인 다 찔러. 소도 마찬가지.)

김보향 맞아, 맞아. 게민예, 쉐는예 밧 가는 용으로도 쓰고.(맞아, 맞아. 그럼요, 소는요 밭 가는 용으로도 쓰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또 뭐 헤수꽈?(또 뭐 했습니까?)

강정자 농사하면 영 밧 볼리는 거.(농사하면 이렇게 밭 밟는 거.)

김보향 볼리는 용.(밟는 용.)

양원석 볼리는 거는 거의가 저 우리가 금악 살 때, 소개 내려가기 전에는 물로 다 볼렷고.(밟는 거는 거의가 저 우리가 금악 살 때, 소개 내려가기 전에는 말로 다 밟게 했고.)

박진향 아, 몰로?(아, 말로?)

김보향 예, 예. 불리는 건예?(예, 예. 밟게 하는 건요?)

양원석 으, 그 이제 소개 내려강 올라온 이후제는.(으, 그 이제 소개 내려가서 올라온 후에는.)

강정자 쉐로 불렷지.(소로 밟게 했지.)

양원석 쉐들로 거의 불렷지. 몰이 거기가 엇어지니까.(소들로 거의 밟게 했지. 말이 거기가 없어지니까.)

김보향 그민 소개.(그럼 소개.)

양원석 몰들 전부 다 들에 그냥 내불어 둰 그냥 몸덩어리만 한림으로 다 내려가 버리니까. 쉐곡 뭐이곡 다 데껑 내버리니까 뭐.(말들 전부 다 들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몸덩어리만 한림으로 다 내려가 버리니까. 소고 무엇이고 다 던져 내버리니까 뭐.)

강정자 산엣 사람 다 먹어 버렷지. 산에 사는 사람들 배고프니까 다 잡아먹언 치와 분 거주.(산에 사람 다 먹어 버렸지. 산에 사는 사람들 배고프니까 다 잡아먹고 치워 버린 거지.)

김보향 아, 게난 삼춘네 몰이영 쉐영 하영 질르당 그 사삼에 다 잃어버린 거마씨?(아, 그러니까 삼촌네 말이랑 소랑 많이 기르다가 그 4·3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양원석 사삼에 나 우리도 쉐는 멧 개 안 허연. 쉐는 한 여남은 개, 열 개 정도 내불어 둰 가고, 몰은 한 오십 두 내불어 둬 가고.(사삼에 나 우리도 소는 몇 개 안 했어. 소는 한 여남은 개, 열 개 정도 내버려 두고 가고, 말은 한 오십 두 내버려 두고 가고.)

김보향 아이고, 몰을 하영 헤나신디 다 일러불엇구나.(아이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다 잃어버렸구나.)

강정자 우리 소개 후제 여기 올라와서 몰 질러난.(우리 소개 후에 여기 올라와서 말 길렀었어.)

양원석 경허연 이제 또 여기 올라온 이후제 또 난 몰 시작허연에 흔 마흔 두 멘들안 허단.(그래서 이제 또 여기 올라온 이후에 또 난 말 시작해서 한 마흔 두 만들어서 하다가.)

강정자 영 사고 낭 이추룩 영 다리아울라 일러불곡.(이렇게 사고 나서 이렇게 다리마저 잃어버리고.)

김보향 으. 기구나, 기구나. 게민예 저 쉐는 밧 가는 용으로 쓰고, 밧 불리는 용으로 쓰고, 또 뭐 헤신고, 쉐로?(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요 저 소는 밭 가는 용으로도

쓰고, 밭 밟는 용으로 쓰고, 또 뭐 했나, 소로?)

강정자 짐 시꺼오곡게.(짐 실어오고.)

김보향 짐 시꺼오고. 예, 또?(짐 실어오고. 예, 또?)

양원석 다 그 정도주.(다 그 정도지.)

김보향 예.(예.)

강정자 촐도 하믄, 촐도 하면 쉐에 기냥, 암쉐 암쉐고 부룽이고 영 쉐에 시꺼와낫주. 질멧지왕.(꼴도 많으면, 꼴도 많으면 소에 그냥, 암소 암소며 부룩소며 이렇게 소에 실어왔었지. 길마 지워서.)

양원석 질메엔 허는 거 알건가?(길마라고 하는 거 알까?)

김보향 예.(예.)

양원석 요렇게 뒌 거.(요렇게 된 거.)

김보향 예, 예. 길마예. 예, 등에 얹으는 거예.(예, 예. 길마요. 예, 등에 얹는 거요.)

양원석 그것에 이제 제주도 말로 혼 바리엔 헌 게, 요만썩 무꺼.(그것에 이제 제주도 말로 한 바리라고 하는 게, 요만큼식 묶어.)

김보향 네.(네.)

양원석 요만썩, 요만썩 무끈 거 사십 개를 시꺼.(요만큼씩, 요만큼씩 묶은 거 사십 개를 실어.)

김보향 촐은 사십 개 시끄는 거예?(꼴은 사십 개 싣는 거요?)

양원석 으. 사십 개 시끄곡 집 이는 새.(으. 사십 개 싣고 집 이는 새.)

김보향 으, 알아지쿠다.(으, 알겠습니다.)

양원석 집 이는 새는 여섯 뭇.(집 이는 새는 여섯 뭇.)

강정자 혼짝에 서 뭇썩.(한쪽에 세 뭇씩.)

양원석 한짝에 서 뭇썩. 겐디 것도 틀려.(한쪽에 세 뭇씩. 그런데 그것도 달라.)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우리 이딘 모관[3], 이디 서쪽은 모관이엔 허고 저쪽은 대정[4]이엥 허거든.(우리 여긴 모관, 여기 서쪽은 모관이라고 하고 저쪽은 대정이라고 하거든.)

김보향 맞수다. 예.(맞습니다. 예.)

양원석 겐디 이 모관 쪽에는 새뭇이 이렇게 커. 겅헤 가지고 한짝에 서 뭇씩, 여섯 뭇 시끄곡. 대정더레, 저 동쪽드레 가민 새뭇도 요만씩 허여.(그런데 이 모관 쪽에는

3) '모관'은 제주의 옛 행정구역인 '제주목'을 말한다. 지금의 제주시 지역이다.

4) '대정'은 제주의 옛 행정구역인 '대정현'을 말한다. 지금의 대정읍 안덕면 일대에 해당한다.

띠뭇이 이렇게 커. 그래 가지고 한쪽에 세 뭇씩, 여섯 뭇 싣고. 대정으로, 저 동쪽으로 가면 띠뭇도 요만큼씩 해.)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경허면은 그거 몇 뭇사 시껌신지 건 몰라, 나도.(그러면 그거 몇 뭇을 싣는지 그건 몰라, 나도.)

강정자 (웃음)

김보향 어쨌든 금악, 우리는 금악 걸로 얘기할 거예.(어쨌든 금악, 우리는 금악 걸로 얘기할 거예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금악은 촐은 사십 뭇이 혼 바리.(금악은 꼴은 사십 뭇이 한 바리.)

양원석 으.(으.)

김보향 예.(예.)

양원석 촐은 사십 뭇이 혼 바리. 경허곡 새는 여섯 뭇이 혼 바리.(꼴은 사십 뭇이 한 바리. 그리고 띠는 여섯 뭇이 한 바리.)

김보향 예. 게난 야이는, 쉐는 촐 시끌 때도 썻고 새 시끌 때도 썻구나예?(예. 그러니까 얘는, 소는 꼴 실을 때도 썼고 띠 실을 때도 썼군요?)

양원석 그 모든 것에 다 사용헌 거주. 그 나머지는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이 들면 잡아먹곡.(그 모든 것에 다 사용한 거지. 그 나머지는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이 들면 잡아먹고.)

강정자 (웃음)

양원석 요새엔 늙은 쉐를 안 잡아먹엉 젊은이만 잡아먹거든.(요새에는 늙은 소를 안 잡아먹고 젊은이만 잡아먹거든.)

김보향 으, 부드러우렌.(으, 부드러우라고.)

양원석 으. 돈 안 줘, 요새 늙은 쉐덜.(으. 돈 안 줘, 요새 늙은 소들.)

김보향 늙은 쉐들 돈 안 줘. 으.(늙은 소들 돈 안 줘. 으.)

양원석 요새 보통 이제 제일 값나가는 게 멧 살, 다섯 설 애기 뒐 철인가?(요새 보통 이제 제일 값나가는 게 몇 살, 다섯 살 아기 될 철인가?)

김보향 으.(으.)

양원석 새끼 두 번. 거 이제 보통 이제 이십오 개월 뒈면은 첫 번 새끼 하나 나거든. 게민 그 후에 일 년 후에 또 하나 나거든. 경허면은 삼십오 개월. 게민 삼십오 개월에서 ᄉ

개월 정도 뒈면은 그다음부터는 무장 멕이는 거라. 으, 무장 멕영 이제 고깃소로 나가는 거라.(새끼 두 번. 거 이제 보통 이제 이십오 개월 되면은 첫 번 새끼 하나 낳거든. 그럼 그 후에 일 년 후에 또 하나 낳거든. 그러면 삼십오 개월. 그럼 삼십오 개월에서 사 개월 정도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무장 먹이는 거야. 으, 무장 먹여서 이제 고깃소로 나가는 거야.)

김보향 아, 비육시키는 거.(아, 비육시키는 거.)

양원석 으, 비육시켱.(으, 비육시켜서.)

김보향 으, 무장 멕인다는 건 사료를 하영 멕영 물 하영 멕영.(으, 무장 먹인다는 건 사료를 많이 먹이고 물 많이 먹이고.)

강정자 으, 사료 딴 거, 사료도 딴 거 멕여.(으, 사료 딴 거, 사료도 딴 거 먹여.)

김보향 딴 거 멕여.(딴 거 먹여.)

양원석 비육 사료가 따로 나와.(비육 사료가 따로 나와.)

김보향 게난 그 전에 삼십오 개월 뒈기 전에는 두 번 새끼 내우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그러니까 그 전에 삼십오 개월 되기 전에는 두 번 새끼 낳게 하려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아, 예.(아, 예.)

양원석 경헤영 이제 보통으로 멕이멍 키왕.(그래서 이제 보통으로 먹이면서 키워서.)

김보향 예.(예.)

양원석 새끼, 그니까 새끼를 많이 내어 먹은 소는 지금도 돈을 안 줘, 이제. 옛날에는 송아지 새끼를 보통 헌 열 개, 열다섯 개 이렇게 내왓거든, 소 하나에서.(새끼,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내어 먹은 소들 지금도 돈을 안 줘, 이제. 옛날에는 송아지 새끼를 보통 한 열 개, 열다섯 개 이렇게 낳게 했거든, 소 하나에서.)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으, 나가 알기론 스무 개끄지 내운 소가 금악에 잇엇어.(으, 내가 알기론 스무 개까지 새끼를 낳게 한 소가 금악에 있었어.)

김보향 아이고.(아이고.)

박진향 으, 하영 낫다예.(으, 많이 낳았네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겅 나지는 거라?(그렇게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강정자 (웃음)

양원석 게, 요즘에는 이제, 보통 이제.(그래, 요즘에는 이제, 보통 이제.)

김보향 아니, 쉐는, 삼춘 쉐는 멧 달 이렇게 애기 벵 이십니까, 송아기 베엉 이십니까?(아니, 소는, 삼촌 소는 몇 달 이렇게 새끼 베고 있습니까? 송아기 베고 있습니까?)

양원석 열 달.(열 달.)

김보향 아, 쉐도 똑같이 열 달?(아, 소도 똑같이 열 달?)

강정자 사람이나 마찬가지지.(사람이나 마찬가지지.)

김보향 마찬가지?(마찬가지?)

강정자 으.(으.)

김보향 겅한디도, 겅한디도.(그런데도, 그런데도.)

양원석 딱 열 달.(딱 열 달.)

박진향 겅한디도 스무 개를.(그런데도 스무 개를.)

김보향 스무 개까지?(스무 개까지?)

양원석 으?(으?)

김보향 겅해도 스무 개까지. 가이 이십 년 동안 살아지는 거?(그래도 스무 개까지. 걔 이십 년 동안 살 수 있는 거?)

양원석 으, 으.(으, 으.)

강정자 (웃음)

김보향 아이고, 어떻게 이게.(아이고, 어떻게 이게.)

강정자 (웃음)

김보향 기민예, 삼춘 이번에는예, 쉐 밧 갈젠 허민.(그럼요, 삼촌 이번에는요, 소 밭 갈려고 하면.)

양원석 으.(으.)

김보향 밧 갈젠 허민, 뭐 뭐 잇어야 뒐 거?(밭 갈려고 하며, 뭐 뭐 있어야 될 거?)

강정자 장게.(쟁기)

김보향 뭐 뭐 잇어야 뒈어?(뭐 뭐 있어야 돼?)

강정자 장게.(쟁기)

양원석 뭐 쟁기도 잇어야 뒈곡,(뭐 쟁기도 있어야 되고.)

강정자 쟁기.(쟁기.)

양원석 멍에도 잇어야 뒈곡, 그거주.(멍에도 있어야 되고, 그거지.)

강정자 이 하르방 그런 거 다 멩그는 하르방.(이 할아버지(남편) 그런 거 다 만드는 할아버지.)

김보향 멩그러난?(만들었었어?)

강정자 엿날에 산에 강 나무 헤당 다 멩글안. 잠대 다 멩글앙, 밧 갈앗네.(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다 만들었어. 쟁기 다 만들었어. 쟁기 다 만들어서, 밭 갈았어.)

김보향 삼춘.(삼촌.)

강정자 이 집도 다 하르방 짓은 거.(이 집도 다 할아버지가 지은 거.)

김보향 아이고. 대단한 뭐구나. 삼춘 잠대는 무슨 낭으로 멩글아수꽈?(아이고. 대단한 뭐구나. 삼촌 쟁기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양원석 잠대는?(쟁기는?)

김보향 으.(으.)

양원석 들어봐신가? 솔피낭이엔 헌 거 잇어, 솔피낭. 한라산 가사 잇어.(들어봤는가? 솔비나무라고 하는 거 있어, 솔비나무. 한라산 가야 있어.)

김보향 예, 솔피낭이 무사 좋아? 잠대 만들 때.(예, 솔비나무 왜 좋아? 쟁기 만들 때.)

양원석 질겨.(질겨.)

김보향 질겨.(질겨.)

양원석 으. 솔피낭이.(으, 솔비나무가.)

김보향 예, 예.(예, 예.)

양원석 그게 이제 둥이는 힘에도 질기고, 비에도 질기고.(그게 이제 당기는 힘에도 질기고, 비에도 질기고.)

김보향 그민, 삼춘 잠대 만들어나시난 이거 이름들 다 알아지겠다예?(그럼, 삼촌 쟁기 만들었었으니까 이거 이름들 다 알겠네요?)

강정자 다 알주게.(다 알지.) (웃음)

김보향 잠대 손잡는 건 뭐라?(쟁기 손잡는 건 뭐야?)

양원석 양주머리.(양지머리.)

김보향 양주머리. 죽작헌 이 낭은 뭐렌 허여?(양지머리. 길쭉한 이 나무는 뭐라고 해?)

양원석 건 성에.(그건 성에.)

김보향 성에. 영 굽어진 낭은 뭐렌 헤?(성에. 이렇게 굽은 나무는 뭐라고 해?)

양원석 건 뭉클.(그건 쟁깃술.)

김보향 뭉클.(쟁깃술.)

양원석 으.(으.)

김보향 영 성에랑 뭉클 사이 영 끼우는 건 뭐렌 헤?(이렇게 성에와 쟁깃술 사이 이렇게 끼우는 건 뭐라고 해?)

양원석 설칫.(한마루.)

김보향 설칫. 기민, 자 이 성에가 아까 솔피낭?(한마루. 그럼, 자 이 성에가 아까 솔피나무?)

양원석 성에도 솔피낭. 뭉클도 솔피낭.(성에도 솔비나무. 쟁깃술도 솔비나무.)

김보향 으. 설칫은?(으. 한마루는?)

양원석 설칫도 솔피낭. 근데 양주머리는 아무것도 뒈어.(한마루도 솔비나무. 그런데 양지머리는 아무것도 돼.)

김보향 아무것도 뒈어?(아무것도 돼?)

강정자 영영 손잡앙 꺼식꺼식 허는 건 아무것도 뒈어.(이렇게 이렇게 손잡고 '거식거식' 하는 건 아무것도 돼.)

김보향 건 소낭도 뒈어?(그건 소나무도 돼?)

양원석 으. 건 소낭도 뒈곡, 아무것도 뒈곡.(으. 그건 소나무도 되고, 아무것도 되고.)

김보향 아, 소낭도 뒈고, 예. 기민예, 그 앞에 뭐 끼우는 데 있잖아예. 그거는 뭐 끼우는 거라?(아, 소나무도 되고, 예. 그럼요, 그 앞에 끼우는 데 있잖아요. 그거는 뭐 끼우는 거야?)

양원석 아, 돌벵이뿔.(아, 물추리막대.)

김보향 돌벵이뿔.(물추리막대.)

양원석 으, 으.(으, 으.)

김보향 돌벵이뿔이 어디를 돌벵이뿔이렝 곧는 거꽈? 잠깐만예, 저 그림예, 그림 가정오쿠다, 그림.(물추리막대가 어디를 물추리막대라고 말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저 그림요, 그림 가져오겠습니다, 그림.)

양원석 아, 쟁기 거 여기 싯구나게.(아, 쟁기 그거 여기 있구나.)

김보향 여기 싯구나. 삼춘네집은 쟁기 엇어?(여기 있구나. 삼춘네는 쟁기 없어?)

양원석 쟁기는 읏언게. 어디 데껴 불어젼.(쟁기가 없더라. 어디 던져 버렸어.)

김보향 아이고, 아깝다. 이건 우리 대정 강 찍은 거예.(아이고, 아깝다. 이건 우리 대정 가서 찍은 거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여기가 양주머리라예. 여기 손잡이예.(여기가 양지머리지요. 여기 손잡이요.)

양원석 여기 손잡이가 양주머리.(여기 손잡이가 양지머리.)

김보향 양주머리. 이게?(양지머리. 이게?)

양원석 성에.(성에.)

김보향 성에. 이게?(성에. 이게?)

양원석 뭉클.(쟁깃술.)

김보향 뭉클.(쟁깃술.)

양원석 설칫.(한마루.)

김보향 설칫.(한마루.)

양원석 으.(으.)

김보향 그민 이것만 이시민 뒈? 여기 뭐 꽂으는 거 엇어? 예를 들면, 막 우리 흙 묻어 가지고 긁어낼 때에?(그럼 이것만 있으면 돼? 여기 뭐 꽂는 거 없어? 예를 들면, 아주 우리 흙 묻어 가지고 긁어낼 때에?)

양원석 아, 그거는 뭐 이름이 배수기[5] 렌도 ᄒᆞ곡 허난에 그건.(아, 그것은 뭐 이름이 '배수기'라고도 하고 하니까 그건.)

김보향 예, 엇어도 뒈고?(예, 없어도 되고?)

양원석 으. 엇어도 뒈고. 건 보통 이제 그걸로 안 허고 발로 많이 다깟거든.(으. 없어도 되고. 그건 보통 이제 그것으로 안 하고 발로 많이 닦았거든.)

김보향 아, 발로.(아, 발로.) (웃음)

양원석 으, 이렇게 헤 가지고 발로 슥 밀고.(으, 이렇게 해 가지고 발로 슥 밀고.)

김보향 예, 예.(예, 예.)

양원석 으. 근디 밧이 이제 여기서 ᄀᆞ트민 웃동네라고 헤 가지고 요 우이, 우쪽더레 가면은 땅이 뜬땅이라 가지고, 그 벳에 흙이 많이 부터. 겐디 이 부근더레는 배수기고 발이고 필요엇어. 그냥 민짝 다 넘어가 불엉 벳이 헤얗게 보여.(으. 그런데 밭이 이제 여기서 같으면 윗동네라고 해 가지고 요 위에, 위쪽으로 가면 땅이 '뜬땅'이라 가지고, 그 벼에 흙이 많이 붙어. 그런데 이 부근으로는 '배수기'고 발이고 필요없어. 그냥 남김 없어 다 넘어가 버려서 벼이 하얗게 보여.)

김보향 맞아, 맞아.(맞아, 맞아.)

강정자 자갈 부튼 밧이난.(자갈 붙은 밭이니까.)

김보향 자갈 부튼 밧이난예?(자갈 붙은 밭이니까요?)

---

5) '배수기'는 쟁기의 보습에 붙은 흙을 긁어낼 때 쓰는 나무 조각이다.

양원석 으, 으.(으, 으.)

김보향 그니까 뜬땅이렌 골읍니까?(그니까 '뜬땅'이라고 말합니까?)

양원석 으. 게난 이 우터레는 뜬땅이니까 그기 흙이 덩어리정 부텃어도 안 넘어가 주는데.(으. 그러니까 이 위로는 '뜬땅'이니까 거기 흙이 덩어리져서 붙었어도 안 넘어가 주는데.)

김보향 예, 이, 여긴.(예, 이, 여긴.)

양원석 밑에 쪽으로 이게 좋은 땅에는 그냥 슥 가면은 그냥 이제 민짝 이렇게 넘어불어 가지고.(밑에 쪽으로 이게 좋은 땅에는 그냥 슥 가면 그냥 이제 남김 없이 다 이렇게 넘어버려 가지고.)

김보향 예.(예.)

양원석 벳에 부텅 이실 게 엇어.(벼에 붙어 있을 게 없어.)

김보향 엇어. 그민 발로 따로 필요 없구나. 삼춘 여기 끝에가 아까 뭐라고?(없어. 그럼 발로 따로 필요 없구나. 삼촌 여기 끝이 아까 뭐라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끝에. 성에 끝에를 아까 뭐렌 불러? 성에 끝에 보면 여기 코젱이 영 나온 거 잇잖아?(끝에. 성에 끝에를 아까 뭐라고 불러? 성에 끝에 보면 여기 코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양원석 이디?(여기?)

김보향 예.(예.)

양원석 으. 이거 돌벵이뿔.(으. 이거 물추리막대.)

김보향 돌벵이뿔예. 돌벵이뿔은 무사 필요한 거꽈?(물추리막대요. 물추리막대는 왜 필요한 겁니까?)

양원석 그거는 이제 멍에에서 쉐 이제 멍에 헤영. 쉐 ᄃᆞᆼ여 주젱 허면은 이디 오랑 이 성에에 걸령 이디 무꺼 줘야.(그거는 이제 멍에에서 소 이제 멍에 해서. 소 당겨 주려고 하면 여기 와서 이 성에에 걸려서 여기 묶어 줘야.)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쉐가 ᄃᆞᆼ이민 쟁기가 좇아갈 거 아니?(소가 당기면 쟁기가 좇아갈 거 아니?)

김보향 으. 맞아, 맞아예. 자 요거 이수다예, 요거는 뭐꽈? 쉐 목에 하는 거?(으. 맞아, 맞아요. 자 요거 있지요, 요거는 뭡니까? 소 목에 하는 거?)

양원석 쉐 목에 허는 거 아, 요거벳긴.(소 목에 하는 거 아, 요거밖에는.)

김보향 예, 요거. 요거는 뭐라?(예, 요거. 요거는 뭐야?)

양원석 이거 멍에, 멍에.(이거 멍에, 멍에.)

김보향 멍에예.(멍에요.)

양원석 으. 이거 멍에.(으. 이거 멍에.)

김보향 예, 여기 앞에 뭐가 나왕 잇지예? 목, 요기 목에 오는 거.(예, 여기 앞에 뭐가 나와 있지요? 목, 여기 목에 오는 거.)

양원석 아, 이 목에.(아, 이 목에.)

김보향 여긴 엇어, 사진엔 엇어.(여긴 없어, 사진에는 없어.)

양원석 사진에 엇은게, 엇은디 이게 이제 이게 멍에고. 이거 이제 솜비줄.(사진에 없네, 없는데 이게 이제 이게 멍에고. 이거 이제 봇줄.)

김보향 솜비줄.(봇줄.)

양원석 이거 양쪽으로 이거 간 게 솜비줄.(이거 양쪽으로 이거 간 게 봇줄.)

김보향 이게 솜비줄예?(이게 봇줄요?)

양원석 으. 솜비줄. 요 이제, 요 가운디서, 고망이 이렇게 뚧아져 잇어, 이렇게.(으. 봇줄. 요 이제, 요 가운데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이렇게.)

김보향 두 개예, 두 개.(두 개요, 두개.)

양원석 영 뚧아정 쉐에 강 영 씌움을 허면은 이제 줍게엔 헤 가지고.(이렇게 뚫려서 소에 가서 이렇게 씌우기를 하면 이제 '줍게'라고 해 가지고.)

김보향 줍게.('줍게'.)

양원석 으. 옛날 이제, 윤누리낭. 윤누리낭 말 들어봐신가?(으. 옛날 이제, 윤노리나무. 윤노리나무 말 들어봤는가?)

김보향 예, 예.(예, 예.)

양원석 윤누리낭이 잇어.(윤노리나무가 있어.)

김보향 예, 예. 영 휘어지는 낭.(예, 예. 이렇게 휘어지는 나무.)

양원석 으. 윤누리낭이 그게 아주 질긴 낭이라, 그게. 그게 이제, 이 쉐 줍게도 허곡, 또 저 뭐냐 도께.(으. 윤노리나무가 그게 질긴 나무야, 그게. 그게 이제, 이 소 '줍게'도 하고, 또 저 뭐냐 도리깨.)

김보향 도께.(도리깨.)

양원석 도리께 멘드는 데.(도리깨 만드는 데.)

강정자 영 뚜드리는 거.(이렇게 두드리는 거.)

김보향 도께가 더 좋수다.(도리깨가 더 좋습니다.)

강정자 도께.(도리깨.)

양원석 으, 육지에서는 이제 어시에 그냥 고망 뚤랑 이레 영 데여낭 이리 삐졍 허는데 제주도서는 도리께를 이 윤누리, 윤누리낭을 데와. 불에 구웡. 불에 구웡 딱 데왕 이 두툼헌 더레 놩 이거 확 휘어당, 딱 무끔을 허민 이게, 아덜이 안 빠져.(으, 육지에서는 이제 도리깨장부에 그냥 구멍 뚫어서 이리 이렇게 꼬아 놓고 이리 삐쳐 나오게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도리깨를 이 윤노리, 윤노리나무를 꼬아. 불에 구워서. 불에 구워서 딱 꼬아서 이 두툼한 데로 놔서 이거 확 휘어다가, 딱 묶기를 하면 이게, 도리깻열이 안 빠져.)

김보향 으. 도께어시, 도께아덜.(으. 도리깨장부, 도리깻열.)

양원석 으.(으.)

김보향 (웃음)

양원석 게난, 그 윤누리낭 허영 이거 이제 줍게를 두 개 영 허민. 영 내려왕 허민 요디 오랑 톡.(그러니까, 그 윤노리나무 해서 이거 이제 '줍게'를 두 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하면 여기 와서 톡.)

김보향 무꺼?(묶어?)

양원석 줄로 무꺼. 경허민 이제, 이 모가지 이제 이 멍에를 지탱허영. 둥이민 나가는 거라.(줄로 묶어. 그러면 이제, 이 모가지 이제 이 멍에를 지탱해. 당기면 나가는 거야.)

김보향 으. 삼춘 이 줄이 솜비줄이잖아예?(으. 삼촌 이 줄이 봇줄이잖아요?)

양원석 으, 솜비줄.(으, 봇줄.)

김보향 이제, 그럼 여기 목에 헹 솜비줄 헹, 이 솜비줄 죽 가는 거곡, 이 배 무끄는 줄은 뭐렌 헙니까. 등이나 배에 다는 줄?(이제, 그럼 여기 목에 해서 봇줄 해서, 이 봇줄 쭉 가는 거고, 이 배 묶는 줄은 뭐라고 합니까. 등이나 배에 다는 줄?)

양원석 아, 등은. 등에?(아, 등은. 등에?)

김보향 예.(예.)

양원석 으으, 등테 걸이.(으으, 등태 걸이.)

김보향 등테 걸이. 또 배에 오는 줄은?(등태. 또 배에 오는 줄은?)

양원석 배에는 엇어.(배에는 없어.)

김보향 아, 엇어. 등에만 등테 걸이 줄 하나 잇어예.(아, 없어. 등에만 등태 걸이 줄 하나 있어요.)

양원석 으, 등에만 잡아 줘 있으면은.(으, 등에만 잡아 주고 있으면.)

김보향 으, 딱.(으, 딱.)

양원석 배로는 관계가 없어.(배로는 관계가 없어.)

김보향 나 쉐우다예. 여기 등으로 줄 하나 가고, 엉덩이 쪽으로도 줄 하나 잇지 안허여?(나 소입니다. 여기 등으로 줄 하나 가고, 엉덩이 쪽으로도 줄 하나 있지 않아?)

양원석 아, 엉덩이엔 엇고.(아, 엉덩이에는 없고.)

김보향 엇어? 등에만 잇이민 뒈어?(없어? 등에만 있으면 돼?)

양원석 으.(으.)

김보향 기민예, 그럼, 양주머리에서 요거 잡고, 이어진 줄 영 잡을 거잖아예?(그럼요, 그럼, 양주머리에서 요거 잡고, 이어진 줄 이렇게 잡을 거잖아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왼쪽에도 줄 잇고, 오른쪽에도 줄 잇고.(왼쪽에도 줄 있고, 오른쪽에도 줄 있고.)

양원석 으, 가린석.(으, 고삐.)

김보향 어느 게 가린석이꽈, 둘 다 가린석?(어느 게 고삐입니까, 둘 다 고삐?)

양원석 으. 둘 다 가린석. 가린석이엔 헌 거는, 육진 하나를 잡앙 이라이라 자라자라 허는데, 제주도는 양쪽에 무꺼. 겡 이레 뗑기고 싶으민, 이짝으로 뗑기곡, 이짝으로 뗑기곡 허는 거 이게 가린석이렌 헌 게 잇어, 그거.(으. 둘 다 고삐. 고삐라고 하는 거는, 육지는 하나를 잡고 이라이라 자라자라 하는데, 제주도는 양쪽에 묶어. 그래서 이리 당기고 싶으면,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고 하는 거. 이게 가린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

김보향 삼춘 그럼 여기는 부림패라는 말은 어수꽈?(삼촌 그럼 여기는 '부림패'라는 말은 없습니까?)

양원석 으?(으?)

김보향 부림패.('부림패'.)

양원석 부림패?('부림패'?)

김보향 예.(예.)

양원석 아이, 부림패엔 헌 건, 건 짐 시끌 때 허는 거곡.(아이, '부림패'라고 하는 건, 그건 짐 실을 때 허는 것이고.)

김보향 아아.(아아.)

박진향 아, 구별이 된다, 이제.(아, 구별이 된다, 이제.)

김보향 아니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 예, 기민 이거 왼쪽 것도 가린석, 오른쪽 것도 가린석?(아니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달라. 예, 그럼 이거 왼쪽 것도 고삐, 오른쪽 것도 고삐?)

양원석 으, 거 가린석.(으, 그거 고삐.)

김보향 아, 예.(아, 예.)

양원석 으. 좁아뎅겨 주는 거.(으. 잡아당겨 주는 거.)

김보향 좁아뎅겨 주는 거. 그럼 이제 밧 갈젠 허민, 쟁기랑 멍에에 나오는 일름은 다 나온 거예?(잡아당겨 주는 거. 그럼 이제 밭 갈려고 하면, 쟁기랑 멍에에 나오는 이름은 다 나온 거지요?)

양원석 으. 다 나완.(으. 다 나왔어.)

김보향 그럼 이제 짐 시끌 거우다. 여기에 뭐 얹을 거, 쉐?(그럼 이제 짐 실을 겁니다. 여기에 뭐 얹을 거, 소?)

강정자 질메.(길마.)

김보향 질메예?(길마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기민 질메에도 불르는 일름이 잇지 안허여? 잠깐 아, 아까 다 안 헷수다. 삼춘 아까 다 안헷수다. 자, 아까 쟁기에 요거 끼우는 건 뭐라마씨?(그럼 길마에도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아요? 잠깐 아, 아까 다 안 했습니다. 삼촌 아까 다 안 했습니다. 자, 아까 쟁기에 요거 끼우는 건 뭐예요?)

양원석 뭐 보섭.(뭐 보습.)

김보향 보섭, 예.(보습, 예.)

양원석 으. 보섭 거, 보섭.(으. 보습 그거, 보습.)

강정자 보섭.(보습.)

김보향 이건 어떤 역할 하는 거?(이건 어떤 역할 하는 거?)

강정자 밧 저 가는 거지.(밭 저 가는 거지.)

김보향 가는 거예.(가는 거요.)

양원석 땅 파는 거.(땅 파는 거.)

김보향 예.(예.)

강정자 파는 거.(파는 거.)

김보향 예, 어디 끼울 거?(예, 어디 끼울 거?)

양원석 요 끗 틈에.(요 끝 틈에.)

강정자 질 끝에.(제일 끝에.)

김보향 그니까 요거.(그러니까 요거.)

양원석 으.(으.)

강정자 끝에.(끝에.)

김보향 몽클 맨 끝에 끼울 거.(쟁깃술 맨 끝에 끼울 거.)

양원석 으, 으.(으, 으.)

김보향 예, 예. 몽클 맨 끝에 끼울 거.(예, 예. 쟁깃술 맨 끝에 끼울 거.)

강정자 으.(으.)

김보향 이거는 뭐꽈? 이거.(이거는 뭡니까? 이거.)

강정자 벳 아니?(볏 아니?)

김보향 벳.(볏.)

양원석 벳, 으.(볏, 으.)

강정자 벳, 벳.(볏, 볏.)

김보향 벳은 어디 놓을 거?(볏은 어디 놓을 거?)

강정자 거 우에.(그거 위에.)

양원석 벳은 요 옆에.(볏은 요 옆에.)

강정자 우에.(위에.)

김보향 여기 우에.(여기 위에.)

양원석 이거 영 뒤집은 상태에서. 요게 요거, 요 설칫더레 강 부치면은.(이거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요게 요거, 요 한마루에 가서 붙이면.)

김보향 예.(예.)

양원석 딱 부뜨게 뒈 잇어.(딱 붙게 돼 있어.)

김보향 그럼 이거 기울기 영 높엿당 낮췃당 허는 것도 이수꽈?(그럼 이거 기울기 이렇게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것도 있습니까?)

양원석 아니, 아니.(아니, 아니.)

김보향 그런 거 엇어, 똑같애?(그런 거 없어, 똑같아?)

양원석 으, 으. 이거 그냥 이 보섭 이레 꽂은, 꽂은 냥 이게 벳디, 설칫에 강 딱 댐을 허면은. 요기가 딱 요디허고.(으, 으. 이거 그냥 이 보습 이리 꽂은, 꽂은 채 이게 볏에, 한마루에 가서 딱 대면. 요기가 딱 요기하고.)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딱 맞아.(딱 맞아.)

김보향 딱 맞아.(딱 맞아.)

양원석 으. 게민 이게 높엿다 낮췃다 허는 게 아니.(으. 그럼 이게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게 아니.)

김보향 높엿다 낮췃다, 똑같에예?(높였다 낮췄다, 똑같아요?)

양원석 게믄은 이제 땅에 잘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허젱 허면은 요 설칫 요 우이서, 성에 사이에서 이제 뜸[6] 이라고 헤 가지고.(그럼 이제 땅에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요 한마루 요 위에서, 성에 사이에서 이제 '뜸'이라고 해 가지고.)

김보향 뜸. 오 좋아.('뜸'. 오 좋아.)

양원석 으. 이걸 영 더 놔 불민 이게 좀 덜 들어가. 아가리가 좁아질 거 아니?(으. 이걸 이렇게 더 놔 버리면 이게 좀 덜 들어가. 아가리가 좁아질 거 아니?)

김보향 아아. 이렇게 벌어진 거 뜸을 더 놔불민 영 좁아져?(아아. 이렇게 벌어진 거 '뜸'을 더 놔버리면 이렇게 좁아져?)

양원석 그렇지. 좁아지지. 경헹 덜 들어가고.(그렇지. 좁아지지. 그래서 덜 들어가고.)

김보향 예.(예.)

양원석 걸 앗아 불민 더 들어가고.(그걸 가져 버리면 더 들어가고.)

김보향 아아. 게민, 이렇게 하민 깊이 가는 거고?(아아. 그럼, 이렇게 하면 깊이 가는 거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요렇게 하면은 야트게.(요렇게 하면 얕게.)

양원석 좀 으, 덜 들어가는 거고.(좀 으, 덜 들어가는 거고.)

김보향 오, 선생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웃음)(오, 선생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진향 (웃음)

양원석 그거뿐이라.(그거뿐이야.)

김보향 그거뿐이라예.(그거뿐이지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기민 여기 혹시 그럼, 뜸바데 허는 말은 뭐꽈?(그럼 여기 혹시 그럼, '뜸바데' 하는 말은 뭡니까?)

---

6) '뜸'은 쟁기의 성에에 끼우는 한마루를 조절하는 장치. 쟁깃술의 기울기를 조절하여 땅에 들어가는 보습이 땅에 들어가는 정도를 조절한다.

양원석 뚬바데?('뚬바데'?)

김보향 으. 여기 그런 말 엇어? 뜸바데 하는 말 엇어?(으. 여기 그런 말 없어? '뜸바데' 하는 말 없어?)

양원석 아, 뜸, 뜸바데. 아 그냥 뜸이엔만 허는 거지, 여기.(아, '뜸', '뜸바데'. 아, 그냥 '뜸'이엔만 하는 거지, 여기.)

김보향 여, 여기, 게민 이 설칫에 구멍이 잇엉.(여, 여기, 그럼 이 한마루에 구멍이 있어서.)

양원석 게, 구멍이 잇지.(그래, 구멍이 있지.)

김보향 으.(으.)

양원석 이게 올라가지 못하게 허는 일이 구멍, 설칫에 구멍이 잇지.(이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구멍, 한마루에 구멍이 있지.)

김보향 으.(으.)

양원석 뗑그랑.(동그랑.)

김보향 으. 구멍.(으. 구멍.)

양원석 들어가는 게 잇거든. 경허면은 이게 조금 더 내려와 이레. 내려올 수 잇어. 쭉 올라갈 수도 잇곡.(들어가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내려와 이리. 내려올 수 있어. 쭉 올라갈 수도 있고.)

김보향 으. 그럼 거기 끼우는 게 뜸?(으. 그럼 거기 끼우는 게 '뜸'?)

양원석 뜸이라, 이게 이게.('뜸'이야, 이게 이게.)

김보향 예, 이해헷수다.(예, 이해했습니다.)

양원석 으. 뜸.(으. '뜸'.)

김보향 거기 끼우는 게 이 뜸예, 그럼 설칫에 구멍을 막 여러 개 팡 놔둡니까?(거기 끼우는 게 이 '뜸'요, 그럼 한마루에 구멍을 마구 여러 개 파서 놔둡니까?)

양원석 으? 아니, 아니.(으? 아니, 아니.)

김보향 아, 많이 팡 놔두는 게 아니?(아, 많이 파서 놔두는 게 아니?)

양원석 일정한 간격 내에서.(일정한 간격 내에서.)

김보향 예, 몃 개나 팡 놔둬?(예, 몇 개나 파서 놔둬?)

양원석 일정한 간격 내에서 저 구멍 하나 뚤르면은.(일정한 간격 내에서 저 구멍 하나 뚫으면.)

김보향 으.(으.)

양원석 거기서 뜸을 하나 더 놓고, 하나 덜 놓고 허는, 뜸만 이제 두 갤 놓느냐, 하날 놓느냐

허멍 쓰는 거지. 저 구멍은 일단 하나 뚤르면 더 안 뚤버.(거기서 '뜸'을 하나 더 놓고, 하나 덜 놓고 하는, '뜸'만 이제 두 개를 놓느냐, 하나를 놓느냐 하면서 쓰는 거지. 저 구멍은 일단 하나 뚫으면 더 안 뚫어.)

김보향 아, 아.(아, 아.)

양원석 근데 이게, 이게 약헌 거라, 이게.(그런데 이게, 이게 약한 거야, 이게.)

김보향 설칫이?(한마루가?)

양원석 으, 낭이 질긴 낭으로 허니까 그렇지. 두께가 나 손가락 두께벳긴 안 만들어야 뒈어.(으, 나무가 질긴 나무로 하니까 그렇지. 두께가 내 손가락 두께밖에 안 만들어야 돼.)

김보향 맞아, 맞아.(맞아, 맞아.)

양원석 으. 게 이게 두껍다 허면은 성에 이게 이 모가지가 약해지거든.(으. 그래 이게 두껍다 하면 성에 이게 이 모가지가 약해지거든.)

김보향 맞아, 맞아.(맞아, 맞아.)

양원석 이게.(이게.)

김보향 그니까.(그러니까.)

양원석 게 이거는 쉽게 만들 수 잇는 거주만은, 이 나무허고 이 나무는 귀한 나무라, 이건. 이건 우리가 이거 이제 허레 한라산 올라강, 이제는 못도 뎅기게 허고 허주만은, 한라산 올라가도 이게 이 솔피낭이렌 헌 게 이렇게 구짝 곧은 놈이 이 지럭시 나오는 게 경 쉽질 안헤.(그래 이거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이 나무하고 이 나무는 귀한 나무야, 이건. 이건 우리가 이거 이제 하러 한라산 올라가서, 이제는 못도 다니게 하고 하지만, 한라산 올라가도 이게 솔피나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곧게 곧은 놈이 이 길이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김보향 예.(예.)

양원석 으. 경허면은 이제 산에서 이게 자귀 ᄀᆞ정 강 전부 가까. 어느 정도. 그 정 내려옴에 가붑게 오젱 허민 산에서 밤 자멍, 하나 봉그민 거기서 가까, 어느 정도. 집에 강 약간 다듬앙, 쓸 수 잇게끔 다듬앙 걸머져야 내려오지 이거 통채로 이걸 헤영, 한라산에서 졍 내려오질 못헤여.(으. 그러면 이제 산에서 이게 자귀 가지고 가서 전부 깎아. 어느 정도. 그 져서 내려오는 데에 가볍게 오려고 하면 산에서 밤 자면서, 하나 구하면 거기서 깎아, 어느 정도. 집에 가서 약간 다듬어서, 쓸 수 있게끔 다듬어서 걸머져야 내려오지 이거 통째로 이걸 해서, 한라산에서 지고

내려오지 못해.)

박진향 으, 못 헤.(으, 못 해.)

양원석 보통 우리가 어디꺼지 갓느냐면 저 천백고지 아래 큰 오름.(보통 우리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저 천백고지 아래 큰 오름.)

강정자 우리 하르방 이 잠대 만드는 거 선생.(우리 할아버지(남편) 이 쟁기 만드는 거 선생.)

김보향 그런게.(그러네.)

강정자 으.(으.)

양원석 보통 천백고지 밑에 그 큰 오름 거기꺼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여기 이거 짐 졍 내려오는 거 장난 아니.(보통 천백고지 밑에 그 큰 오름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여기 이거 짐 지고 내려오는 거 장난 아니.)

박진향 게메.(글쎄.)

김보향 아아, 기큰게.(아아, 그러네.)

양원석 으. 게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다 다듬아 둥 집이 오라근에. 어느 정도 다듬아 둥, 대패질 허곡 허는 그런 정도 나무대만 허영 누려오지.(으.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다 다듬어 두고 집에 와서. 어느 정도 담듬어 두고, 대패질 하고 하는 그런 정도 나무대만 해서 내려오지.)

김보향 으. 게난 이 성에랑 몽클이랑 만들젠 허민 공이 더 가는 건 뭐꽈?(으. 그러니까 그 성에와 쟁깃술과 만들려고 하면 공이 더 가는 건 뭡니까?)

양원석 공이 더 가는 거? 공이 더 가는 건 뭉클.(공이 더 가는 거? 공이 더 가는 건 쟁깃술).

김보향 그지예. 이건 앞에 좀 두툼허게 헹 까까야 뒐 거.(그렇지요. 이건 앞에 조금 두툼하게 해서 깎아야 될 거.)

양원석 으. 이거는 그냥 쫙 곧은 거 그졍 이쪽으로 훌트곡, 이쪽으로 훌트곡 허는 것만 허주만은 이거는 여기서 꾸부리는 각도꺼지 다 거의 다 맞춰야 뒈니까. 이거는.(으. 이거는 그냥 쫙 곧은 거 가지고 이쪽으로 훑고, 이쪽으로 훑고 하는 것만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구부리는 각도까지 다 거의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김보향 맞수다.(맞습니다.)

양원석 으.(으.)

김보향 겅헹 이 멍에에도 구멍 내고, 여기 몽클에도 구멍 냉 설칫을 끼우는 거라예?(그래서 이 멍에에도 구멍 내고, 여기 쟁깃술에도 구멍 내서 한마루 끼우는

거지요?)

양원석 그렇지.(그렇지.)

김보향 겅허니까 구멍을 쪼그만하게 내젠 허난 설칫은 ᄀᆞ는 거?(그러니까 구멍을 조그맣게 내려고 하니까 한마루는 가는 거?)

양원석 그렇지.(그렇지)

김보향 예.(예.)

양원석 견디 구멍이 하나토 이 구멍이 바른 구멍이 아니라. 이, 이 구멍도 바른 구멍 아니고. 이 구멍도 바른 구멍이 아니라.(그런데 구멍이 하나도 이 구멍이 바른 구멍이 아니야. 이, 이 구멍도 바른 구멍 아니고. 이 구멍도 바른 구멍이 아니야.)

김보향 무사? 이렇게 곧작허게 내지 안헤여? 영 비틀어지게 내여?(왜? 이렇게 곧게 내지 않아? 이렇게 비틀어지게 내?)

양원석 이기도 굳작허곡, 이기도 굳작허믄, 허민 이거 끼우지 못헤여.(여기도 곧고, 여기도 곧으면, 하면 이거 끼우지 못해.)

김보향 아.(아.)

양원석 다 각도.(다 각도.)

박진향 생각헹은에.(생각해서.)

김보향 영 굳작허게 허민 안 뒈. 영 기울어지게.(이렇게 곧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기울어지게.)

양원석 우이 거 아래 것이 다 구멍이 다 틀령.(위의 거 아래 것이 다 구멍이 다 달려.)

김보향 아.(아.)

양원석 각도가 다 틀리니까. 구멍이 똑바로 그냥 일직선으로 두 개 다 뚤름을 허민, 이거 각도 안 맞앙 이거 끼우지 못헤여.(각도가 다 다르니까. 구멍이 똑바로 그냥 일직선으로 두 개 다 뚫으면, 이거 각도 안 맞아서 이거 끼우지 못해.)

박진향 못헤.(못해.)

김보향 예.(예.)

양원석 으.(으.)

김보향 돌벵이뿔은 뭘로, 무슨 낭으로 헙니까?(물추리막대는 무슨, 무슨 나무로 합니까?)

양원석 건 아무거나 헤도 뒈고. 건 어쨋든 질긴 낭이니까 뭐 윤누리낭이나 그런 건 아무거 영 헹 끼와도 뒈고.(그건 아무거나 해도 되고. 그건 어쨌든 질긴 나무니까 뭐 윤노리나무나 그런 건 아무거 이렇게 해서 끼워도 되고.)

김보향 으. 보난에 벳도 요런 모양도 잇고, 요런 모양도 이십디다예?(으. 보니까 벼도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습니다?)

강정자 요게, 요게.(요게, 요게.)

양원석 요 모양.(요 모양.)

강정자 요게 진짜지.(요게 진짜지.)

양원석 옛날 쓰던 모양이고, 이거.(옛날 쓰던 모양이고, 이거.)

김보향 으. 요거.(으. 요거.)

양원석 이거, 이거. 이거는 옛날 쓰던 모양이고.(이거, 이거. 이거는 옛날 쓰던 모양이고.)

김보향 으, 이거.(으, 이거.)

양원석 이거는, 저 이거는, 이거는 지금 말로 허면은 이거 나온 지는 헌.(이거는, 저 이거는, 이거는 지금 말로 하면 이거 나온 지는 한.)

강정자 이거 경운기에 보섭 닮다.(이거 경운기에 보습 같다.)

양원석 저, 삼사십만.(저, 삼사십만.)

김보향 삼사십 년.(삼사십 년.)

양원석 아, 삼사십 년.(아, 삼사십 년.)

강정자 겨, 경운기.(겨, 경운기.)

양원석 이 저, 경운기 나오멍(이 저, 경운기 나오면서.)

강정자 경운기에.(경운기에.)

양원석 이거 육십 년도.(이거 육십 년도.)

강정자 그거 닮은게.(그거 같네.)

양원석 육십 년도, 나가 군대 갓다 오란에.(육십 년도, 내가 군대 갔다 와서.)

강정자 우리 집 경운기에 보섭 저거 저 닮다.(우리 집 경운기에 보습 저거 저 같다.)

김보향 맞아.(맞아.)

강정자 우리 영 밧 가는 거 저 트럭 저 뭣에 겅 경운기로 가는 거.(우리 이렇게 밭 가는 거 저 트럭 저 뭐에 그렇게 경운기로 가는 거.)

김보향 기민.(그럼.)

양원석 군대 갓다 오랑 대동공업사 진주 교육받으레 갈 때가 그때가 그 육십, 에, 오 년 동안 갓다 왓으니까, 그때 정도 이거 나온 거고.(군대 갔다 와서 대동공업사 진주 교육받으러 갈 때가 그때가 그 육십, 에, 오 년 동안 갔다 왔으니까, 그때 정도 이거 나온 거고.)

김보향 으.(으.)

양원석 이거 중경허는 거.(이거 중경하는 거.)

김보향 중경허는 거 맞수다.(중경하는 거 맞습니다.)

양원석 으. 중경 벳, 이거는.(으. 중경 벗, 이거는)

김보향 감자 헐 때예?(고구마 할 때지요?)

양원석 으. 이거는. 이 저 보통 장게에도 안 메왓고, 경운기 나온 후제.(으, 이거는. 이 저 보통 쟁기에도 안 메웠고 경운기 나온 후에.)

강정자 겨, 경운기.(겨, 경운기.)

김보향 아, 이거 장기엔 안 메와난?(아, 이거 쟁기에는 안 메웠어?)

양원석 으.(으.)

강정자 경운기에, 경운기에.(경운기에, 경운기에.)

양원석 옛날 이거 중경 벳 엇엇어.(옛날 이거 중경 벗 없었어.)

김보향 엇엇어.(없었어.)

양원석 으.(으.)

김보향 장기엔 오로지 이런 거구나예?(쟁기에는 오로지 이런 거군요?)

양원석 으. 이거뿐.(으. 이거뿐.)

김보향 이거, 이거뿐예. 예, 맞수다.(이거, 이거뿐요. 예, 맞습니다.)

양원석 이거, 이거는. 저 주물로, 저 주물, 무쉐로 멘든 거 아니.(이거, 이거는. 저 주물, 무쇠로 만든 거 아니.)

김보향 으. 뭐로 만든 거. 쉐로 만든 거?(으. 뭐로 만든 거. 쇠로 만든 거?)

양원석 이 뭐 스뎅이나 뭐.(이 뭐 스테인리스나 뭐.)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이런 거 허여 가지고, 두드려 패연에, 그냥 아무나 이거 만들엉 쓸 수 잇는 거고, 이거는.(이런 거 해 가지고, 두드려 패서, 그냥 아무나 이거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김보향 으.(으.)

양원석 이거는, 이거는 주물인디, 지금 말하면 주물, 무쉐.(이거는, 이거는 주물인데, 지금 말하면 주물, 무쇠.)

김보향 예, 본 헹예?(예, 본 해서요?)

양원석 으. 본 헤여 가지고. 주물 헤영 비왕 이거 본 헤영 만들어 내는 거. 솟 멘들 듯. 게니까 이게 어디서 만들엇나면 제주도서는이 저 어디고, 세당[7].(으. 본 해 가지고. 주물 해서 부어서 이거 본 해서 만들어 내는 거. 솥 만들듯.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느냐면 제조도에서는 저 어디지, 덕수.)

김보향 으. 세당.(으. 덕수.)

양원석 세당 말 들어봣어? 덕수.(덕수 말 들어봤어? 덕수.)

김보향 예, 세당 덕수 맞수다.(예, 세당 덕수 맞습니다.)

양원석 으.(으.)

김보향 예, 솟 만드는 디예?(예, 솥 만드는 데요?)

양원석 으, 그거. 덕수서 만든 거라, 이거.(으, 그거. 덕수서 만든 거야, 이거.)

김보향 으. 그민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 다 세당에서 만든 거?(으. 그럼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 다 덕수에서 만든 거?)

양원석 으, 세당에서 거의 이거 만든 거.(으, 덕수에서 거의 이거 만든 거.)

김보향 아, 아.(아, 아.)

양원석 나가 알기로는.(내가 알기로는.)

김보향 예. 기민 삼춘네도 세당 거 사당 썻구나.(예. 그럼 삼촌네도 덕수 거 사다가 썼구나.)

양원석 으.(으.)

김보향 세당 거 사당 썬예. 예, 예.(덕수 거 사다가 썼어요. 예, 예.)

양원석 게 이거는, 이거는 한 번 하민 거의 평생 써도 남고 이거는.(그래 이거는, 이거는 한 번 하면 거의 평생 써도 남고 이거는.)

김보향 예, 벳은.(예, 볏은.)

양원석 벳은.(볏은.)

김보향 보섭은.(보습은.)

양원석 이거, 이거는 농사 많이 지는 사람은 일 년에 혼 번썩 교환헤야 뒈고.(이거, 이거는 농사 많이 지는 사람은 일 년에 한 번씩 교환해야 되고.)

김보향 아. 무사꽈, 그거는?(아. 왜입니까, 그거는?)

양원석 아, 자갈밧디.(아, 자갈밭에.)

강정자 다이연.(닳아서.) (웃음)

---

7) '세당'은 안덕면 덕수리의 옛 이름이다.

양원석 혼 일 년 갈아 불믄 허면 이거, 이거 딱 다여 불엉 뭉클락허민 땅속에 안 들어가잖아.(한 일 년 갈면 그러면 이거, 이거 딱 닳아 버려서 몽탕하면 땅속에 안 들어가잖아.)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경헹 쉐도, 쉐도 힘들고.(그래서 소도, 소도 힘들고.)

박진향 으, 쉐도 힘들고.(으, 소도 힘들고.)

김보향 맞아, 맞아.(맞아, 맞아.)

양원석 겡 이거는 일 년에 하나 써야 뒈고. 벳은 이거 ᄒᆞ나민 나 쓰당 우리 아덜꺼지 줘도 뒈고.(그래서 이거는 일 년에 하나 써야 되고. 볏은 이거 하나면 내가 쓰다가 우리 아들까지 줘도 되고.)

김보향 으. 물려도 뒈는 거예. 게민 삼춘.(으. 물려줘도 되는 거요. 그럼 삼촌.)

강정자 우리 이런 거 어디 가수꽈? 이 벳이영.(우리 이런 거 어디 갔습니까? 이 볏이랑.)

김보향 이따가 사진 찍으쿠다. 저기 이시메.(이따가 사진 찍겠습니다. 저기 있을 거예요.)

강정자 문딱.(모두.)

김보향 사진 찍으쿠다예.(사진 찍겠습니다.)

양원석 몰라.(몰라.)

강정자 엇어, 엇어.(없어, 없어.)

김보향 잇어, 엇어?(없어, 없어?)

강정자 으.(으.)

김보향 삼춘 장기는 한 번 만들믄 얼마나 씁니까?(삼춘 쟁기는 한 번 만들면 얼마나 씁니까?)

양원석 그거는 고정 엇어.(그거는 고정 없어.)

김보향 고정 엇어. 그민 물리멍 써지는 거?(고정 없어. 그럼 물리면서 쓸 수 있는 거?)

양원석 아이, 물리멍 쓸 정도 못 써.(아니. 물리면서 쓸 정도 못 써.)

김보향 못 써.(못 써.)

양원석 으.(으.)

김보향 게민 삼춘은 영 이제껏 살아오멍 장기 새 걸로 몃 개나 써수꽈?(그럼 삼촌은 이렇게 이제껏 살아오면서 쟁기 새 걸로 몇 개나 썼습니까?)

양원석 쟁기?(쟁기?)

김보향 삼춘이 만들엉.(삼촌이 만들면서.)

양원석 나도 이제, 이제꾸지 살멍이 아니라 기계 남 시작허난 쟁기 안 쓰난 헌디, 나도 헌 세 개는 읏이뎅겨진 거 닮은게.(나도 이제, 이제까지 살면서가 아니라 기계 나기 시작하니까 쟁기 안 쓰니까 한데, 나도 한 세 개는 없앤 거 같아.)

김보향 세 개는 읏이뎅겨젼?(세 개는 없앤?)

양원석 으.(으.)

김보향 거난 삼춘 멧 살 때부터 밧 갈기 시작헨마씨?(그러니까 삼촌 몇 살부터 밭 갈기 시작했어요?)

강정자 (웃음)

양원석 나, 열여섯 설부터.(나, 열여섯 살부터.)

박진향 아이고야.(아이고야.)

김보향 열여섯 설서부터예. 경헹 경운기 산 게 몇 살에 경운기를 사수꽈?(열여섯 살부터요. 그래서 경운기 산 게 몇 살에 경운기를 샀습니까?)

양원석 경운기는, 그때 나가.(경운기는, 그때 내가.)

김보향 육십오 지낭.(육십오 지나서.)

양원석 육십오 년, 육십오 년도에 간 교육 받앙 오난.(육십오 년, 육십오 년도에 가서 교육 받고 오니까.)

김보향 예.(예.)

양원석 한 칠십 년도?(한 칠십 년도?)

김보향 예, 칠십 년도가 삼춘 멧 살이지? 삼춘 멧, 멧 년생이엿더라?(예, 칠십 년도가 삼촌 몇 살이지? 삼촌 몇, 몇 년생이었더라?)

양원석 삼십구 년생.(삼십구 년생.)

김보향 삼십구 년생예?(삼십구 년생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기민 칠십 년도면, 사십 거의 다 뒛을, 사십에.(그럼 칠십 년도면, 사십 거의 다 됐을, 사십에.)

양원석 으. 거의, 거의.(으. 거의, 거의.)

김보향 으. 사십에 맞아?(으. 사십에 맞아?)

양원석 아니, 사십 안.(아니, 사십 안.)

김보향 삼십에?(삼십에?)

양원석 삼십에지.(삼십에지.)

박진향 열여섯 살에 밧 가난.(열여섯 살에 밭 가니까.)

양원석 이게 칠십오 년도에 짓은 집인디게.(이게 칠십오 년도에 지은 집인데.)

김보향 게난 삼십이, 삼십에 헤시난, 한 십 년 십오 년 사이에, 열다섯 살 때부터 농사지어시민, 잠대 세 개 겅 헹.(그러니까 삼십이, 삽십에 했으니까 한 십 년 십오 년 사이에, 열다섯 살 때부터 농사지었으면, 쟁기 세 개 그렇게 해서.)

양원석 으.(으.)

김보향 장기 세 개를 다 써난예.(쟁기 세 개를 다 썼었지요.)

양원석 겐디 많이 안 허는 사람은 오래 써.(그런데 많이 안 하는 사람을 오래 써.)

김보향 으. 오래 맞아. 물린 거 계속 썬덴 헌 사람도 이십디다.(으. 오래 맞아. 물려받은 거 계속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원석 으, 나는 뭐, 잘못사 살아신디 몰라도, 쉐를 자꾸 가오리 헤노니까.(으, 나는 뭐, 잘못 살았는지 몰라도, 소를 자꾸 바꾸면서 하니까.)

김보향 으.(으.)

양원석 익숙으민 쉐 풀아먹어 뒁, 다시 새 쉐 사당 ᄀᆞ리쳥 밧 갈곡 허당 보민 그냥 잡아 튀민 ᄃᆞᆯ라 가지 못허민 아무 더레라도 강 탁 지펑 들어앚으민 이디, 뭉클도 부러졍 불곡, 성에도 부러져 불곡.(익숙하면 소 팔아먹어 두고, 다시 새 소 사다가 가르쳐서 밭 갈고 하다가 보면 그냥 잡아 뛰면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 데라도 가서 탁 짚고 들어앉으면 여기, 쟁깃술도 부려져 버리고 성에도 부려져 버리고, 성에도 부러져 버리고.)

김보향 으. 기민.(으. 그럼.)

양원석 겅헹 또 멘들곡 허는 거지.(그렇게 또 만들고 하는 거지.)

김보향 기민 삼춘은 쉐 안 ᄀᆞ리쳥 밧 갈아 불언?(그럼 삼촌은 소 안 가르쳐서 밭 갈아 버려?)

강정자 하르방이 쉐 잘 ᄀᆞ리쳐.(할아버지가 소 잘 가르쳐.)

김보향 그니까 쉐 ᄀᆞ리쳐야잖아예. 밧갈쉐 만들젠 허믄예. 어떵 ᄀᆞ리쳇수꽈?(그러니까 소 가르쳐야잖아요. 밭갈고 만드려고 하면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양원석 아니, 하여튼 몰앙 가민 그날 밧 갈아져.(아니, 하여튼 몰고 가면 그 날 밭 갈 수 있어.)

모두 (웃음)

김보향 어디 강 물어보난.(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강정자 으.(으.)

김보향 쟁기 메우는 이거는 고장 나면 안 뒈잖아예. 게난 요거 메우기 전에 미리.(쟁기 메우는 이거는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메우기 전에 미리.)

양원석 돌 끗엉 뎅겻어.(돌 끌고 다녔어.)

김보향 아. 그지.(아, 그렇죠.)

양원석 곰돌[8] 이라고 잇어, 곰돌.('곰돌'이라고 있어, '곰돌'.)

김보향 곰돌. 으.('곰돌'. 으.)

양원석 곰돌. 게난.('곰돌'. 그러니까.)

김보향 어떤 게, 곰돌이 어떤 거꽈?(어떤 게, '곰돌'이 어떤 겁니까?)

양원석 곰돌이렌 헌 거 요 영 뒌 돌이라, 돌이.('곰돌'이라고 하는 게 요 이렇게 된 돌이야, 돌이.)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겐디 벨로 그거 효과를 못 봐.(그런데 별로 그거 효과를 못 봐.)

김보향 아니 곰돌에 고망 뚤라졍 잇어야 뒐 거 아니?(아니 곰돌에 구멍 뚫여 있어야 될 거 아니?)

강정자 으.(으.)

양원석 거 고망 뚤라지니까 곰돌이지.(그거 구멍 뚫리니까 '곰돌'이지.)

김보향 예.(예.)

박진향 아, 아. 그래서.(아, 아. 그래서.)

김보향 그믄 그 고망에 뭘 끼워수꽈?(그럼 그 구멍에 뭘 끼웠습니까?)

양원석 건 아무거나 꼽으믄 뒈어.(그거 아무거나 꼽으면 돼.)

김보향 줄 끼웡 멘 거?(줄 끼워서 맨 거?)

양원석 그 멍에레, 멍에는 장기 안 씌우고, 멍에만 씌왕.(그 멍에에, 멍에는 쟁기 안 씌우고, 멍에만 씌워서.)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멍에만 씨왕 곰돌 고망 뚤라졋잖여, 이디.(멍에만 씌워서 '곰돌' 구멍 뚫렸잖아, 여기.)

김보향 으.(으.)

양원석 고망 뚤라져시믄 그레 이제 뭐냐 쉐줄이라도 헤영. 일단 베는 디물믄 얼마 안 끗엉

8) '곰돌'은 소에게 밭갈이를 훈련시킬 때 쟁기 대신에 묶어서 사용하는 돌을 말한다.

다 다영 엇어져 불잖아.(구멍 뚫렸으면 그리 이제 뭐야 봇줄이라도 해서. 일단 바는 들이밀면 얼마 안 끌고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리잖아.)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게민 이제 쉐줄이라도 영 꼽아근에. 겡 곰돌도 여러 가지로라. 영 땅들에 고망 뚤랑 만든 것도 잇고, 영 이제.(그럼 이제 봇줄이라도 이렇게 꼽아서. 그래서 '곰돌'도 여러 가지로야. 이렇게 땅으로 구멍 뚫어서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김보향 옆으로.(옆으로.)

양원석 옆으로 뚤랑 헌 거는 베 담앙 헤도 뒈어. 영 알르레 끼운 것만 철사로 허지.(옆으로 뚫어서 한 거는 바 담고 해도 돼. 이렇게 아래로 끼운 것만 철사로 하지.)

박진향 으.(으.)

양원석 옆으로 허면은 베를 꼽아도 오래가거든. 경헹 허곡 곰돌은 이제 형식이고.(옆으로 하면 바를 꼽아도 오래 가거든. 그래서 하고 곰돌은 이제 형식이고.)

김보향 예.(예.)

양원석 나무 끗어야 뒈, 나무.(나무 끌어야 돼, 나무.)

김보향 나무.(나무.)

양원석 으.(으.)

김보향 그민 우리 다른 데 가난 끄슬퀴[9]도 끗엇저, 섬피렌 헙니까, 여기는?(그럼 우리 다른 데 가니까 '끄슬퀴'도 끌었어, '섬피'라고 합니까, 여기는?)

강정자 섬피? 건.('섬피'? 그건.)

양원석 섬피? 섬피는 거.('섬피'? '섬피'는 그거.)

강정자 건 밧.(그건 밭.)

양원석 섬피는 그거 이제 밧.('섬피'는 그거 이제 밭.)

강정자 밧 골르는 거.(밭 고르는 거.)

김보향 아.(아.)

양원석 밧, 저.(밭, 저.)

김보향 아, 쉐 길들일 땐 그건 안 써난?(아, 소 길들일 때는 그건 안 썼어요?)

양원석 아니, 아니.(아니, 아니.)

강정자 아니, 아니.(아니, 아니.)

양원석 길들이는 데는 거 안 쓰는 거고.(길들이는 데는 그거 안 쓰는 거고.)

---

9) '끄슬퀴'는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여러 개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섬피'라고도 한다.

강정자 막, 막 펜펜허게.(아주, 아주 편편하게.)

양원석 섬피는 이제 꿰 ᄀᆞ튼 거, 꿰 씨 거튼 거 밧 갈앙 우터레 뿌려 놩 섬피로 쏵 끗으민 씨 묻어지는, 씨 묻는 거거든.('섬피'는 이제 깨 같은 거, 깨 씨 같은 거 밭 갈아서 위로 뿌려 놓고 '섬피'로 싹 끌면 씨 묻히는, 씨 묻는 거거든.)

김보향 으.(으.)

양원석 씨 묻는 거 그건.(씨 묻는 거 그건.)

김보향 기민. 쉐, 쉐는.(그럼. 소, 소는.)

양원석 섬피는 거고. 이제 쉐 ᄀᆞ리치는 거는 거의가 낭을 끗어.('섬피'는 그거고. 이제 소 가르치는 그거는 거의 나무를 끌어.)

김보향 으.(으.)

양원석 이따근헌 낭을 헤영.(이만한 나무를 해서.)

김보향 아아, 큰 낭.(아아, 큰 나무.)

양원석 으.(으.)

양원석 경헹 그거 많이 이제 ᄒᆞᆫ 사흘 끗음을 허면은 이제, 이제도 이제 쉐도.(그래도 그거 많이 이제 한 사흘 끌기만 하면 이제, 이제도 이제 소도.)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멀쩡이 싯당 이디 끗어 나민 아프잖아게.(멀쩡히 있다가 여기 끌고 나면 아프잖아.)

박진향 아파.(아파.)

김보향 으.(으.)

양원석 사람식으로. 게민 그거 또 ᄒᆞ끔 저기 뒈곡 허게 헤근에, 새로 헤영 끗으면. 이제 아 이거 ᄃᆞ여사 뒐로구나 헌 거 알 정도고. 곰돌이렌 헌 거는 거의가 이제 이거 *** 허면은, 곰돌을 이제 이 밧 이걸 갓다 왓다 하는 걸 이제.(사람 식으로. 그럼 그거 또 조금 저기 되고 하게 해서, 새로 해서 끌면. 이제 아 이거 당겨야 될로구나 한 것을 알 정도고. '곰돌'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가 이제 이거 *** 하면, '곰돌'을 이제 이 밧 이걸 갔다 왔다 하는 걸 이제.)

김보향 그지.(그렇죠.)

양원석 이제 알리는 거라.(이제 알리는 거야.)

김보향 똑바로 가는 거예?(똑바로 가는 거요?)

양원석 으, 똑바로 가는 거, 알리는 거.(으, 똑바로 가는 거, 알리는 거.)

김보향 워킹 연습입니다.(워킹 연습입니다.) (웃음)

양원석 영 이제 곰돌 가 나민 그뭇 긋어지잖아게.(이렇게 이제 '곰돌' 가고 나면 금이 그어지잖아.)

박진향 예.(예.)

양원석 겅허민 절로 강 다시 그레 돌아상 또 그 질로 오곡 ᄒᆞ는 거 ᄒᆞ끔 알리고. 겐디 난 것도 안 헤 봣어, 벨로. 귀찮여.(그러면 저리로 가서 다시 그리 돌아서서 또 그 길로 오고 하는 거 조금 알리고. 그런데 난 그것도 안 해 봤어, 별로. 귀찮아.)

김보향 그냥 무장 밧이 강 갈아 불언?(그냥 무작정 밭 가서 갈아 버렸어?)

박진향 거난 장기를 많이 쓰션.(그러니까 쟁기를 많이 쓰셨어.)

양원석 으. 무장, 무장 멍에 씌왕, 첨 밧에 강 멍에 씌와근에.(으. 무작정, 무작정 멍에 씌워서, 첨 밭에 가서 멍에 씌워서.)

김보향 으.(으.)

양원석 쟁기 메왕, 쉐 가고 싶은 냥 낮전만 돌아뎅김을 허민은 다음엔 지치민 글렌 허는 대로 가.(쟁기 메워서, 소 가고 싶은 대로 오전만 돌아다니기를 하면 다음에는 지치면 가자고 하는 대로 가.)

김보향 아. 기민, 삼촌 막 장기 만들엇덴 허는 건 놈이 장기도 만들어 줘난마씨?(아. 그럼 삼촌은 마구 쟁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남의 쟁기도 만들어 줬었어요?)

양원석 우리 동네 꺼 많이 만들어 줫주.(우리 동네 거 많이 만들어 줬지.)

김보향 아, 멧 개나 장기 만들어 본 거, 멧 개나 만들어진 거 같으꽈, 지금껏?(아, 몇 개나 쟁기 만들어 본 거, 몇 개나 만든 거 같습니까, 지금껏?)

양원석 몰라.(몰라.)

김보향 헌 열 개?(한 열 개?)

양원석 헌 쉬남은 개 만들어져신가?(한 쉰 개 남짓 만들었나?)

김보향 우와, 쉬남은 개?(우와, 쉰 개 남짓?)

양원석 으.(으.)

김보향 아아, 겅 동네 사람들 여기 왕 부탁헹 장기 헤 가고. 삼촌 장기 하나 만들민 얼마나 받안마씨?(아아, 그렇게 동네 사람들 여기 와서 부탁해서 쟁기 해 가고. 삼촌 쟁기 하나 만들면 얼마나 받았어요?)

양원석 아이.(아니.)

강정자 아이고, 우리 그때 무슨 돈 받아먹어 가는 게 잇어게?(아이고, 우리 그때 무슨 돈 받아먹어 가는 게 있어?)

김보향 쏠, 쏠 받앗지 안허여?(쌀, 쌀 받지 않았어?)

양원석 아니, 아니.(아니, 아니.)

박진향 떡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안마씨?(떡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요?)

김보향 그냥 만들어 줜?(그냥 만들어 줬어?)

양원석 그냥, 그냥 만들어 주주게. 거 뭐.(그냥, 그냥 만들어 주지. 그거 뭐.)

박진향 아이고야.(아이고야.)

김보향 아이고게, 그거 겅허믄 됩니까게. 솔피낭 겅 애써 겅 헤와신디.(아이고, 그거 그러면 됩니까. 솔비나무 그렇게 애써 그렇게 해서 왔는데.)

양원석 아니.(아니.)

강정자 기에 겅 허믄게.(그래 그렇게 하면.)

양원석 이제야 저 범석 거 요만한 것도 다 돈이주. 그때야 그런 정도야 다 만들어 주멍 서로 살앗주, 무신.(이제야 저 일반 돈 그거 요만한 것도 다 돈이지. 그때야 그런 정도야 다 만들어 주면서 서로 살았지, 무슨.)

김보향 으.(으.)

양원석 그거 허영 돈 받으멍 살아신가?(그거 해서 돈 받으면서 살았는가?)

박진향 으, 아이고 좋은 일 하셔수다.(으, 아이고 좋은 일 하셨습니다.)

강정자 경허믄 일헐 때도 왕 도와도 주고.(그러면 일할 때도 와서 도와도 주고.)

김보향 그지예, 으. 예예 일헐 때 왕 도와도 주고.(그렇지요, 으. 예예 일할 때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박진향 으. 품앗이를 했구나.(으. 품앗이를 했구나.)

김보향 만들어 주민. 으, 게도 영 어디 강 아직까지도 장기 만들엇덴 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헨마씨.(만들어 주면. 으, 그래도 이렇게 어디 가서 아직까지도 쟁기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 보지 못했어요.)

강정자 (웃음)

김보향 기민 멍에도 쉽게, 금방 만들어신게. 멍에도.(그럼 멍에도 쉽게, 금방 만들었네요. 멍에도.)

양원석 멍에도, 멍에는 보통 이제 으, 뭔 낭으로 만드느냐면 머구낭.(멍에도, 멍에는 보통 이제 으, 무슨 나무로 만드는가 하면 머귀나무.)

김보향 으. 머구낭.(으. 머귀나무.)

양원석 머구낭 으. 머구낭이 가벼워.(머귀나무 으. 머귀나무가 가벼워.)

김보향 아, 가벼워.(아, 가벼워.)

양원석 으, 으. 머구낭이 가볍고.(으, 으. 머귀나무가 가볍고.)

김보향 예.(예.)

양원석 저거 그냥 저기 할 때 툭 치민 잘 부러지는 거 닮아도 저거 저.(저거 그냥 저기 할 때 툭 치면 잘 부러지는 거 같아도 저거 저.)

김보향 돈돈해?(단단해?)

양원석 몰라, 몰름을 허면은 꽤 돈돈한 낭이라, 저것도.(말라, 마르면 꽤 단단한 나무야, 저것도.)

김보향 예. 머구낭이예.(예. 머귀나무가요.)

양원석 으, 근디 그 대신에 게벼와.(으, 그런데 그 대신에 가벼워.)

김보향 게벼워, 으.(가벼워, 으.)

양원석 게민 이제 머구낭으로 많이 만들어.(그럼 이제 머귀나무로 많이 만들어.)

김보향 그 멍에도 보민, 머귀낭으로 만드는데, 여자 쉐랑 남자 쉐랑, 부룽이랑 크기가 ᄒᆞ끔 ᄐᆞ날 거 같은데?(그 멍에도 보면, 머귀나무로 만드는데, 여자 소와 남자 소와, 부룩소와 크기가 조금 다를 거 같은데?)

양원석 틀리지.(다르지.)

김보향 틀리지. 예예, 어떵 ᄐᆞ납니까?(다르지. 예예, 어떻게 다릅니까?)

양원석 거 틀리지, 그게.(그거 다르지, 그게.)

김보향 으.(으.)

양원석 그게 틀리는 게, 아까도 얘기헷지만, 좁게[10] 이거.(그게 다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게' 이거.)

김보향 으. 좁게.(으. '좁게'.)

양원석 이 고망이 멀어.(이 구멍이 멀어.)

박진향 멀어.(멀어.)

김보향 뭐가 멀어?(뭐가 멀어?)

박진향 부룽이.(부룩소.)

김보향 부룽이가.(부룩소가.)

양원석 부룽이는 모가지가 이만허잖아?(부룩소는 모가지가 이만하잖아?)

김보향 예.(예.)

10) '좁게'는 멍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를 말한다.

양원석 게민 그거 맞추젠 허면은 이, 이게 영 헤여도 안 뒈는 거고, 부룽이는. 구멍도.(그럼 그거 맞추려고 하면 이,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부룩소는. 구멍도.)

김보향 널르게.(넓게.)

양원석 구멍도 ᄒᆞ꼼 이 벳낏쪽더레 내치주만은.(구멍도 조금 이 바깥쪽으로 내치지만.)

김보향 예.(예.)

양원석 이 옆더레 비끼는 게 더 비껴, 이렇게.(이 옆으로 비끼는 게 더 비껴, 이렇게.)

김보향 아, 아.(아, 아.)

양원석 암쉐는 이만이만 헤도 뒈는데, 부룽이는 이렇게.(암소는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부룩소는 이렇게.)

박진향 아, 각도가 다르구나.(아, 각도가 다르구나.)

양원석 벌어져야 뒈어.(벌어져야 돼.)

김보향 아, 더 각도, 구멍 내는 각도가 이렇게 다르는구나.(아, 더 각도, 구멍 내는 각도가 이렇게 다르구나.)

박진향 달르네. 으.(다르네. 으.)

양원석 구멍 내는 각도가. 아주 더 누워야 뒈어.(구멍 내는 각도가. 아주 더 누워야 돼.)

박진향 으.(으.)

김보향 그니까 암쉐는 그냥 거의 굳작허게 내도 뒈는디, 부룽인 영하게. 이 간격도 다르고예?(그러니까 암소는 그냥 거의 곧게 내도 되는데, 부룩소는 이렇게. 이 간격도 다르고요?)

양원석 으. 간격, 이 간격도 달라.(으. 간격, 이 간격도 달라.)

김보향 달르고, 아.(다르고, 아.)

양원석 이 기럭시도 다르고.(이 길이도 다르고.)

김보향 기럭시도 다르고 맞아. 이 두께는 안 다릅니까?(길이도 다르고 맞아. 이 두께는 안 다릅니까?)

양원석 아니, 두께는 다를 필요 엇고.(아니, 두께는 다를 필요 없고.)

김보향 다를 필요 엇고. 으. 기민, 멍에 만들젠 허민 멍에 굳작허지 안 헤? 얘도 약간 영 휘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 여기 대젠 하민.(다를 필요 없고. 으. 그럼, 멍에 만들려고 하면 멍에 곧게 안 해? 얘도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 여기 대려고 하면.)

양원석 그건 낭 자체를 그런 걸 구해와야 뒈어.(그건 나무 자체를 그런 걸 구해 와야 돼.)

김보향 아. 굳작헌 게 아니고.(아. 곧은 게 아니고.)

양원석 으. 굳작헌 낭이 아니라. 원래 멍에 멘드는 낭은 이렇게, 영 휘아진 낭이라. 이렇게.(으. 곧은 나무가 아니야. 원래 멍에 만드는 나무는 이렇게, 이렇게 휘어진 나무야. 이렇게.)

김보향 예, 예. 맞수다.(예, 예. 맞습니다.)

양원석 영헌 걸로 헤야 뒈어.(이런 걸로 해야 돼.)

김보향 여기 구멍 내수다예, 윤노리낭 영 가까 불민, 굳작허게 가까불민, 영 끼우민 빠져불지 안허여?(여기 구멍 냈습니다, 윤노리나무 이렇게 깎아 버리면, 곧게 깎아 버리면, 이렇게 끼우면 빠져 버리지 않아?)

양원석 아니, 윤누리낭은 아니 게난, 윤누리낭 이 곡지 부튼 걸 짤라와야 뒈어.(아니, 윤노리나무는 아니 그러니까, 윤노리나무 이 꼭지 붙은 걸 잘라 와야 돼.)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원래 낭 몸뗑이에서 그걸 짤를 때에 곡지를 부트게 만들어 와야 뒈어.(원래 나무 몸뚱이에서 그것을 자를 때에 꼭지를 붙게 만들어 와야 돼.)

박진향 으, 걸리게.(으, 걸리게.)

김보향 이 곡지, 이, 여기가 여기가 곡지라예. 이게 마디가 뒈는, 윤노리낭의 마디가 뒈는 거꽈?(이 꼭지, 이, 여기가 여기가 꼭지지요. 이게 마디가 되는, 윤노리나무의 마디가 되는 겁니까?)

양원석 으. 그렇지, 그렇지.(으. 그렇지, 그렇지.)

김보향 겅헹 영 가깡 요기, 여기 걸려지게예?(그래서 이렇게 깎아서 여기, 여기 걸리게요?)

양원석 으. 그렇지.(으. 그렇지.)

김보향 예.(예.)

양원석 경허고 윤노리낭 줍게도 이렇게 휘와야 뒈어.(그리고 윤노리나무 '줍게'도 이렇게 휘어야 돼.)

김보향 휘아.(휘어.)

양원석 으, 불에 구웡.(으, 불에 구워서.)

김보향 으. 불에 궝.(으. 불에 구워서.)

양원석 으.(으.)

김보향 윤노리낭 몰를 때 불에 굽니까? 젖었을 때?(윤노리나무 마를 때 불에 굽니까? 젖었을 때?)

양원석 젖었을 때.(젖었을 때.)

김보향 아, 예. 젖었을 때 불에 궝 휘엉.(아, 예. 젖었을 때 불에 구워서 휘어서.)

양원석 으.(으.)

김보향 또 몰릴 거라예?(또 말릴 거지요?)

양원석 으. 게난 불에 구웡 아예 불에 궝 젖은 때 불에 궝, 딱 휘아근에 그 형태 만들엉 딱 놔둥 몰려야 뒈어. 경헤야, 딱 갖다 놓으민 이거 모가지가 딱 맞아.(으. 그러니까 불에 구워서 아예 불에 구워서 젖었을 때 불에 구워서, 딱 휘어서 그 형태 만들어서 딱 놔두고 말려야 돼. 그래야, 딱 갖다 놓으면 이거 모가지가 딱 맞아.)

김보향 으. 맞아, 맞아. 아이고, 너무 좋다.(으. 맞아, 맞아. 아이고, 너무 좋다.)

양원석 요즘, 요즘에는 이제 부룽이들이 보통 십 개월 미만에서 다 거셀 허거든.(요즘, 요즘에는 이제 부룩소들이 보통 십 개월 미만에서 다 거세를 하거든.)

김보향 으.(으.)

양원석 옛날에는 쉐가 일고여덟 설 나도록도 거세를 안 헷어.(옛날에는 소가 일고여덟 살 되도록도 거세를 안 했어.)

김보향 무사 요새는 거세를 헤부는 거꽈?(왜 요새는 거세를 해 버리는 겁니까?)

양원석 고기 맛 좋으렌.(고기 맛 좋으라고.)

박진향 아, 맛 좋으렌.(아, 맛 좋으라고.)

김보향 아, 경헤 불어야, 고기가.(아, 그래 버려야, 고기가.)

양원석 이젠 전부 다 어쨋든 쉐는 무조건 다 고기용이잖아.(이제는 전부 다 어쨌든 소는 무조건 다 고기용이잖아.)

김보향 으, 맞아.(으, 맞아.)

양원석 육지서 간혹 이제 쟁기질허는 거 소 뭐 일 년에 혼두 번은 보긴 봐지는데. 이제는 어쨌든 무조건 소는 고기용이여.(육지에서 간혹 이제 쟁기질하는 그거 소 뭐 일 년에 한두 번은 보기는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어쨌든 무조건 소는 고기용이야.)

김보향 으, 일허는 소 엇어예?(으, 일하는 소 없어요?)

양원석 으, 일허는 소 없으니까 무조건 고기용이니까 이제 고기 맛 좋게만 만드는 거여.(으, 일하는 소 없으니까 무조건 고기용이니까 이제 고기 맛 좋게만 만드는 거야.)

김보향 삼촌이 먹어 봤을 때 옛날 고기영 지금 고기영 고기 맛이 어느 게 좋은 거 같으꽈?(삼촌이 먹어 봤을 때 옛날 고기랑 지금 고기랑 고기 맛이 어느 게 좋은 거 같습니까?)

양원석 모르크라.(모르겠어.)

김보향 아, 모르크라?(아, 모르겠어?)

양원석 으, 모르크라.(으, 모르겠어.)

김보향 예. 삼촌 그렇게 질메나, 아니 저기 뭐냐, 멍에나 장기나 낭 허당 허잖아. 근데 거기에 줄도 끼워야 뒈잖아예?(예. 삼촌 그렇게 길마나, 아니 저기 뭐지, 멍에나 쟁기나 나무 하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줄도 끼워야 되잖아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줄, 줄. 요런 줄. 아까 솜비줄.(줄, 줄. 요런 줄. 아까 봇줄.)

양원석 아, 솜비줄.(아, 봇줄.)

김보향 솜비줄이영 가린석이영 만들젠 허민, 그 줄은 어떵 헤수꽈?(봇줄과 고삐 만들려고 하면, 그 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원석 줄은, 으, 옛날에는.(줄은, 으, 옛날에는.)

김보향 으.(으.)

양원석 옛날에는 뭣으로 멘들어신곤 허믄 이제, 저 푸슴[11]이엔 헌 거 잇어.(옛날에는 뭣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이제, 저 '푸슴'이라고 하는 게 있어.)

김보향 으. 푸슴.(으. '푸슴'.)

양원석 푸슴.('푸슴'.)

김보향 으, 푸슴 줄 이름? 풀 이름?(으, 남오미자 줄 이름? 풀 이름?)

양원석 으, 풀 이름. 줄기.(으, 풀 이름. 줄기.)

김보향 으, 줄기, 예.(으, 줄기, 예.)

양원석 그거 허영 이제.(그거 해서 이제.)

김보향 푸슴.(남오미자.)

양원석 만들기도 허엿고, 또 글후제는 뭘로 만들어신고 허면은 소리낭. 즉 말하면 요 도토리낭 비스름헌 건디, 소리낭이라고 잇어.(만들기도 했고, 또 그 후에 뭐로 만들었는가 하면 소리나무. 즉 말하면 이 도토리나무 비슷한 건데, 소리나무라고 있어.)

김보향 소리낭.(소리나무.)

김보향 푸슴, 소리낭.(남오미자, 소리나무.)

양원석 으. 소리낭을 그거를 이제 얼마 늙지 아닌 거. 이제 요 둘렌 헌 거.(으. 소리나무를

11) '푸슴'은 덩굴식물로 표준어로는 '남오미자'라고 한다.

그거를 이제 얼마 늙지 않은 거. 이제 이 둘레는 하는 거.)

김보향 으.(으.)

양원석 이걸 중간으로 찍으멍 이제 납작허게 톡 찍엉 영 ᄃᆞᆼ이곡 헤영.(이걸 중간으로 찍으면서 이제 납작하게 톡 찍어서 이렇게 당기고 해서.)

박진향 으. 껍데기를 베끼는 거꽈?(으. 껍데기를 벗기는 겁니까?)

양원석 껍데기 말고 낭 솔이라, 그게.(껍데기 말고 나무 살이야, 그게.)

김보향 아. 이거 우리 살 튿어내듯이 영 베끼는 거?(아. 이거 우리 살 뜯어내듯이 이렇게 벗기는 거?)

양원석 으. 그거를 베껴근에 그걸로 꼬아 밸.(으. 그것을 벗겨서 그걸로 꼬아 바를.)

박진향 꼬아.(꼬아.)

양원석 그, 그걸.(그, 그것을.)

김보향 낭 아까 어느 만큼씩 그차?(나무 아까 어느 만큼씩 잘라?)

양원석 요만한 솔진 것에서.(요만한 굵은 것에서.)

박진향 솔진 거.(굵은 거.)

양원석 이제 낭 산 채로 그거, 그냥 헤영 오면은.(이제 나무 산 채로 그거, 그냥 해서 오면은.)

김보향 아.(아.)

양원석 그거 벌러 내지 못헤여. 낭 산 채에서.(그거 깨 내지 못해. 나무 살아 있는 채에서.)

김보향 심거진 낭?(심어진 나무?)

양원석 으, 심거진 낭 크는 디서 존동으로 허영 베껴, 그걸.(으, 심어진 나무 크는 데서 원줄기로 해서 벗겨, 그것을.)

김보향 아.(아.)

양원석 낭 솔을.(나무 살을.)

김보향 예.(예.)

양원석 경허영 이제 실 사리만썩 그걸 전부 다 찢어.(그래서 이제 실 사리만큼씩 그것을 전부 다 찢어.)

김보향 예.(예.)

양원석 찢엉 그걸로 꼬와, 이제.(찢어서 그것으로 꼬아, 이제.)

박진향 꼬와.(꼬아.)

양원석 그걸로 꼬왕 그걸 영 이 손가락 세 개 합친 것만썩 헤영 꼬아.(그것으로 꼬아서

그걸 이렇게 이 손가락 세 개 합친 것만큼씩 해서 꼬아.)

김보향 으.(으.)

양원석 꽈 놩 이제 그걸 다시 세 곱으로 또 줄을 또 만들어.(꼬아 놔서 이제 그것을 다시 세 곱으로 또 줄을 또 만들어.)

김보향 예.(예.)

양원석 경허면은 이만이 솔지게 나와 그게.(그러면 이만큼 굵게 나와 그것이.)

김보향 아니, 그거 줄 꼬울 때 그거 물 멕영 몰리고 하는 작업 안 헤?(아니, 그거 줄 꼴 때 그거 물 먹여서 말리고 하는 작업 안 해?)

양원석 아니 안 헤. 건 그냥 저 그거 헤다근에.(아니 안 해. 그건 그냥 저 그거 해다가.)

김보향 예.(예.)

양원석 바로 허면은 저기 허곡 몰렷당 허젠 허민은 물을 좀 축축허게 쳐 줘야 이제 꼬아지거든.(바로 하면 저기 하고 말렸다가 하려고 하면 물을 좀 축축하게 쳐 줘야 이제 꼬을 수 있거든.)

김보향 맞아 맞아.(맞아 맞아.)

양원석 으. 경헤영 이제 이 줄 멘들 때에는 이제 사람 손으로 안 뒈어 이제, 뭐.(으. 그래서 이제 이 줄 만들 때에는 이제 사람 손으로 안 돼 이제, 뭐.)

김보향 뭐렌 부릅니꽈, 그거.(뭐라고 부릅니까, 그거.)

양원석 낭, 뭐 이런 차세[12]라도 영 부쪄놩 이걸로 데와사 그거 데와지지. 사람 힘으로 못 데와.(나무, 뭐 이런 '차세'라도 이렇게 붙여 놓고 이것으로 틀어야 그거 틀 수 있지. 사람 힘으로 못 틀어.)

김보향 게난 옛날 초가지붕 할 때 줄 허는 이 기계가 이수꽈?(그러니까 옛날 초가지붕 할 때 줄 하는 이 기계가 있습니까?)

양원석 아, 이 호롱이[13] 가졍은 이거, 이거는 데우질 못 헤여.(아, 이 '호롱이' 가지고는 이거, 이거는 꼬지 못해.)

강정자 줄 허는 건 호롱이.(줄 하는 건 '호롱이'.)

김보향 게민, 줄 헐 때는 호롱이로 안 써?(그럼, 줄 할 때는 '호롱이' 안 써?)

양원석 으, 호롱이 필요 엇이 그냥 막대기 요만이 진 거 허영.(으, '호롱이' 필요 없이 그냥 막대기 요만큼 긴 거 해서.)

김보향 으, 끼웡.(으, 끼워서.)

---

12) '차세'는 짚이나 띠 따위를 꼬아 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짧은 막대를 말한다.

13) '호롱이'는 줄 참바 따위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제보자는 이것을 '줄호롱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양원석 으, 이레 꼽아서.(으, 이리 꼽아서.)

김보향 끼웡, 이거 영영 돌령.(끼워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양원석 으, 영영 사람 손으로 힘들게 헤야 뒈어.(으, 이렇게 이렇게 사람 손으로 힘들게 해야 돼.)

김보향 아, 예.(아, 예.)

양원석 게믄 이게, 바짝 이거 헤지민 세 가닥을 합쳥 배 하날 또 만드는 거라.(그럼 이게, 바짝 이게 하면 세 가닥을 합쳐서 배 하나를 또 만드는 거야.)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겅 헹 이거 솜비줄 뜨는 거.(그렇게 해서 이거 봇줄 뜨는 거.)

김보향 아.(아.)

양원석 경허곡 이제는 이제 글후제는 이제 보니까는 이 나일론 줄들이 나오기 시작허잖아서게.(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보니까 이 나일론 줄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게난 이제 글후제는 이제 나일론 줄 ᄀᆞ정 그냥 뭐 그거 못 견디게 무사 헤여. 나일론 줄 그거 이신디게.(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나일론 줄 가져서 그냥 뭐 그거 못 견디게 왜 해. 나일론 줄 그거 있는데.)

김보향 맞아, 맞아예. 강 사 오민 뒐 건디예.(맞아, 맞아요. 가서 사 오면 될 건데요.)

양원석 그거 툭 잘라내민 뒈고.(그거 툭 잘라내면 되고.)

김보향 맞아. 게난 나일론 줄 나오난 얼마나 편헷수꽈예? 아까 소리낭이라예, 낭영 심거진 냥 이 가지들 그찬에.(맞아. 그러니까 나일론 줄 나오니까 얼마나 편했습니까? 아까 소리나무이지요, 나무 이렇게 심은 대로 이 가지들 끊어서.)

양원석 가, 가지 말고 그냥 쭉 올라간.(가, 가지 말고 그냥 쭉 올라가서.)

김보향 그니까 그니까. 아니 여기 가지들 이시민 그거 그차뒁 데껴베 뒁.(그니까 그니까. 아니 여기 가지들 있으면 그거 끊어 두고 던져버려 두고.)

양원석 아니, 아니.(아니, 아니.)

강정자 가지 엇인 거.(가지 없는 거.)

양원석 그냥 죽지 안허여.(그냥 죽지 않아.)

박진향 살아 있는 채.(살아 있는 채.)

양원석 살아 있는 채. 헌 삼 분의 일 정도만 영 베끼면은 ᄒᆞ나씩 나와.(살아 있는 채. 한 삼

분의 일 정도만 이렇게 벗기면 하나씩 나와.)

김보향 아, 영 살아 잇는 거 여기 위에 이파리들도 다 이신디.(아, 이렇게 살아 있는 거 여기 위에 잎들도 다 있는데.)

양원석 아, 다 이신 냥.(아, 다 있는 대로.)

김보향 요기 영 벗겨 내는 거?(요기 이렇게 벗겨 내는 거?)

양원석 영 우이서 ᄒᆞ꼼 ᄌᆞᆯ랑 영 쭉 ᄃᆞᆼ임을 허민 밑에ᄁᆞ지 쭉 내려와 그 줄이.(이렇게 위에서 조금 잘라서 이렇게 쭉 당기면 밑에까지 쭉 내려와 그 줄이.)

김보향 예.(예.)

양원석 게민 그거 톡 그차 앗고 다시 강 똑 집엉 또 그추룩 헤영 그차 앗곡 헤영. 집이 ᄀᆞ져오랑 이젠 영.(그럼 그거 톡 끊고 다시 가서 꼭 집고 또 그처럼 해서 끊어 가지고 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는 이렇게.)

김보향 깨어.(깨)

박진향 찢어.(찢어.)

양원석 막 좀질게 깨여.(아주 잘게 깨.)

김보향 예.(예.)

양원석 게민 그걸로 이제 또 밸 멘드는 거라.(그럼 그걸로 이제 바를 만드는 거야.)

김보향 아, 좀질게 끄치민 그게 실 크기, 실 줄기만큼 나옵니까?(아, 잘게 끊으면 그게 실 크기, 실 줄기만큼 나옵니까?)

양원석 으, 그렇지.(으, 그렇지.)

김보향 그민 그거 영 손으로 따와예?(그럼 그거 이렇게 손으로 따아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겅 그거 따온 거 다시 세 개 가졍 아까 여꺼?(그렇게 그거 따온 거 다시 세 개 가지고 아까 엮어?)

양원석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김보향 그럼 솜비줄 두께가 어느만큼 헙니까? 야이 손 야이.(그럼 봇줄 두께가 어느만큼 합니까? 얘 손 얘.)

양원석 두께가 두께가, 삼십 미리. 삼십 미리 관.(두께가 두께가, 삼십 미리. 삼십 미리 관.)

김보향 삼십 미리 관은 어만이 헐 건고? 야이보단 두꺼울 건가?(삼십 미리 관은 어느 만큼 할 건가? 얘보다는 두꺼운 건가?)

양원석 아, 홈치 두껍주게.(아, 더 두껍지.)

김보향 홈치 두껍주게. 홈치 두껍.(더 두껍지. 더 두껍.)

박진향 요거 요거 자루만 헐 건가?(요거 요거 자루만 할 건가?)

김보향 아니.(아니.)

양원석 그보단 으.(그보다는 으.)

김보향 요거 어떵헤여?(요거 어떡해요?)

양원석 으. 그만허주, 그만허주.(으. 그만하지, 그만하지.)

김보향 아.(아.)

양원석 으. 그 삼십 미리 관.(으. 그 삼십 미리 관.)

강정자 요거 너무 이건 너무 솔지지 않으꽈?(요거 너무 이건 너무 굵지 않습니까?)

김보향 너무 솔지지 않이허여?(너무 굵지 않아?)

양원석 이만, 이만이.(이만, 이만큼.)

김보향 이만이 허여? 잘도 솔지다.(이만큼 해? 정말 굵네.)

양원석 으.(으.)

강정자 (웃음)

김보향 이만이 허덴. 이만이 허덴. 기억하십쇼.(이만큼 하대. 이만큼 하대. 기억하십시오.)

박진향 네.(네.)

김보향 삼십 미리 관 허민 이해할 거 같애요.(삼십 미리 관 하면 이해할 거 같아요.)

박진향 삼십 미리 관.(삼십 미리 관.)

김보향 삼 센치.(삼 센치.)

양원석 으, 삼십 미리 관.(으, 삼십 미리 관.)

김보향 게믄 삼십 미리 관이 삼 센치라는 얘기잖아.(그럼 삼십 미리 관이 삼 센티미터라는 얘기잖아.)

양원석 으, 그렇지.(으, 그렇지.)

김보향 지름이 삼 센치라는 얘기니까. 아 예, 예, 그럼 가린석도 그만큼 두꺼웁니까?(지름이 삼 센티미터라는 얘기니까. 아 예, 예. 그럼 고삐도 그만큼 두껍습니까?)

양원석 아니, 아니.(아니, 아니)

김보향 가린석은 얼마니. 이만이민 뒈?(고삐는 어느만큼. 이만이면 돼?)

양원석 아니 가린석도 그보다는 솔져.(아니 고삐도 그보다는 굵어.)

박진향 솔져.(굵어.)

김보향 야이, 야이만큼 하겟다.(얘, 얘만큼 하겠다.)

양원석 아, 그보다는 ᄀᆞ늘고.(아, 그보다는 가늘고.)

박진향 ᄀᆞ늘고.(가늘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일 센치, 십 미리 관?(일 센티미터, 십 미리 관?)

양원석 십, 으. 십 미리.(십, 으. 십 미리.)

김보향 으. 십 미리 관.(으. 십 미리 관.)

양원석 아, 십오 미리.(아, 십오 미리.)

김보향 십오 미리.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예, 이거 가린석이우다예, 가린석에도 손잡이에 나무가 들어가지 아니허여?(십오 미리.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거 고삐이예요, 고삐에도 손잡이에 나무가 들어가지 않아?)

강정자 그지 동글락동글락허게.(그지 동글동글하게.)

김보향 그거는 뭘로 해? 그것도 윤노리낭이겟다. 휘어지젠 허민.(그거는 뭐로 해? 그것도 윤노리나무겠다. 휘어지려고 하면.)

양원석 으. 윤노리낭.(으. 윤노리나무.)

김보향 윤노리낭.(윤노리나무.)

양원석 윤노리낭 헤영 휘앙, 영 동글락허게 영 만들아.(윤노리나무 해서 휘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김보향 아. 좋수다.(아. 좋습니다.)

양원석 게 ᄒᆞᆫ착 손은, 왼쪽에 거는 항상 이디.(그래 한쪽 손은, 왼쪽의 거는 항상 여기.)

강정자 홀목에 영 다 끼와.(손목에 이렇게 다 끼워.)

김보향 으. 홀목에 끼와. 으, 홀목 들었죠?(으. 손목에 끼워. 으, '홀목' 들었죠?)

강정자 홀목에 끼와.(손목에 끼워.)

양원석 왼착 손은 홀목에 끼고, 오른착 손은 돌벵이뿔에 영 ᄀᆞ치 잡고.(왼쪽 손은 손목에 끼고, 오른쪽 손은 물추리막대에 이렇게 같이 잡고.)

김보향 ᄀᆞ치 잡고.(같이 잡고.)

강정자 으.(으.)

김보향 돌벵이뿔에 ᄀᆞ치 잡고?(물추리막대에 같이 잡고?)

양원석 아, 저 양주머리에 ᄀᆞ치 잡고.(아, 저 양지머리에 같이 잡고.)

김보향 양주머리에 ᄀᆞ치 잡고.(양지머리에 같이 잡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이거는 끼고. 오른쪽으로, 기민 쉐 우리 밧 갈 때 오른쪽으로 돕니까, 왼쪽으로 돕니까?(이거는 끼고. 오른쪽으로, 그럼 소 우리 밭 갈 때 오른쪽으로 돕니까, 왼쪽으로 돕니까?)

양원석 그거 앞이 장소에 따라.(그거 앞의 장소에 따라.)

김보향 아, 예.(아, 예.)

강정자 으, 오른쪽으로 돌렌 허민.(으, 오른쪽으로 돌라고 하면.)

김보향 오른쪽으로 돌아도 뒈고, 왼쪽으로 돌아도 뒈고예?(오른쪽으로 돌아도 되고, 왼쪽으로 돌아도 되고요?)

양원석 으. 그거는 아무 딜로도 돌아도 뒈는데.(으. 그거는 아무 데로도 돌아도 되는데.)

김보향 예.(예.)

양원석 가 가지고. 밧 가는 사람이 돌아가기 펜한 쪽으로.(가 가지고. 밭 가는 사람이 돌아가기 편한 쪽으로.)

김보향 으. 돌아오기 편한 쪽으로. 오른쪽으로 헤도 뒈고, 왼쪽으로 헤도 뒈고.(으. 돌아오기 편한 쪽으로. 오른쪽으로 해도 되고, 왼쪽으로 해도 되고.)

양원석 으. 게난 이게 이쪽이 영 갈아 가민 이쪽이 즉앙 이디 돌아가기 힘들 거 가트민 이쪽 너른 쪽으로 사람이 가.(으.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이렇게 갈아 가면 이쪽이 작아서 여기 돌아가기 힘들 거 같으면 이쪽 넓은 쪽으로 사람이 가.)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게믄 쉐가 영 돌아와.(그럼 소가 이렇게 돌아와.)

김보향 으. 돌아와예. 예. 이걸 오른쪽으로 돌라 허민 오른쪽으로 뎅기믄 뒈지예.(으. 돌아와요. 예. 이걸 오른쪽으로 돌아라 하면 오른쪽으로 다니면 되지요.)

양원석 뎅기나 마나 가이가.(다니거나 마나 걔가.)

김보향 가이가 알앙 돌아?(걔가 알아서 돌아?)

양원석 가이가 알앙 돌아.(걔가 알아서 돌아.)

모두 (웃음)

김보향 착헴신게. 질들인 거 잘 들인 거예.(착하네요. 길들인 거 잘 들인 거네요.)

양원석 그, 그게 이제 처음에 허주. 한 일 년만 갈아가면은 딱 가근에 쟁기만 이쪽더레 들렁 가느냐 이쪽더레 들렁 가느냐에 따랑 쉐가 알앙 돌아와.(그, 그게 이제 처음에 하지. 한 일 년만 갈아가면은 딱 가서 쟁기만 이쪽으로 들고 가느냐 이쪽으로 들고 가느냐에 따라 소가 알아서 돌아와.)

김보향 알앙 가. 훈 멧 번 갈아나민.(알아서 가. 한 몇 번 갈고 나면.)

양원석 으. 그거는 그 정도만 뒈면 지가, 지가 알앙 돌아와.(으. 그거는 그 정도만 되면 자기가, 자기가 알아서 돌아와.)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게난 밧 가는 사름이 왼쪽더레 들렁 쟁기 돌아가느냐 오른쪽더레 들렁 돌아가느냐 허는 그거에 따랑 쉐가 알앙 돌앙 와.(그러니까 밭 가는 사람이 왼쪽으로 들고 쟁기 돌아가느냐 오른쪽으로 들고 돌아가느냐 하는 그거에 따라서 소가 알아서 돌고 와.)

김보향 으. 삼춘 아까예. 장기 만드는 솔피낭은 한라산 저디까지 가야 잇어낫잖아예?(으. 삼춘 아까요. 쟁기 만드는 솔피나무는 한라산 저기까지 가야 있었잖아요?)

강정자 으. 한라산 가야.(으. 한라산 가야.)

김보향 그민 소리낭은 가까운, 가차운 데도 잇어나수꽈?(그럼 소리나무는 가까운, 가까운 데도 있었습니까?)

양원석 엇어.(없어.)

김보향 소리낭은 어디 강 헤 와? 그것도 한라산?(소리나무는 어디 가서 하고 와? 그것도 한라산?)

양원석 한라산 가야 뒈.(한라산 가야 돼.)

김보향 아, 한라산 가야 뒈?(아, 한라산 가야 돼?)

양원석 으.(으.)

김보향 아, 그것도 귀한 거엿구나예?(아, 그것도 귀한 거였군요?)

양원석 으. 저기 가니까 잇드라. 저 어디고, 옛날 옛날 농고[14] 앞이 그디가 뭐렌 하냐?(으. 저기 가니까 있더라. 저 있더라. 저 어디지, 옛날 옛날 농고 앞에 거기가 뭐라고 하냐?)

김보향 농고 앞이?(농고 앞에?)

양원석 옛날 농고 앞이 거.(옛날 농고 앞에 그거.)

김보향 제주고, 제주고.(제주고, 제주고.)

박진향 노형?(노형?)

김보향 노형에.(노형에.)

양원석 으, 노형에 그 저 무슨.(으, 노형에 그 저 무슨.)

14) '농고'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의 전신인 '제주농업고등학교'를 말한다.

박진향 한라수목원?(한라수목원?)

양원석 아, 한라수목원.(아, 한라수목원.)

박진향 예, 거기 가난.(예, 거기 가니까.)

양원석 거기 가니까 잇드라.(거기 가니까 있더라.)

박진향 그게 무슨 낭이꽈? 솔피낭?(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솔피나무?)

양원석 솔피낭.(솔피나무.)

박진향 그냥 이름이 솔피낭.(그냥 이름이 솔피나무.)

양원석 거기 가니까 잇드라.(거기 가니까 있더라.)

김보향 예예. 그 그믄 머귀낭 같은 거는 흔헷수꽈? 멍에 만드는 머귀낭. 그거는 많이 사난예.(예예. 그럼 머귀나무 같은 거는 흔했습니까? 멍에 만드는 머귀나무. 그것은 많이 사니까요.)

양원석 으. 머기낭은 흔허고.(으. 머귀나무는 흔하고.)

김보향 예, 머귀낭은 우리 이거 방장대 만들 때도 들어나수다.(예, 머귀나무는 우리 이거 상장 만들 때도 들었었습니다.)

강정자 상제질 헐 때.(상제질 할 때.)

김보향 으, 상제질 헐 때. 으. 머귀낭.(으, 상제질 할 때. 으. 머귀나무.)

양원석 아, 상제질 헐 때 거 어멍 죽으민 머귀낭으로 허곡.(아, 상제질 할 때 그거 어머니 죽으면 머귀나무로 하고.)

강정자 거 가시, 가시 한 거. 아버지 죽으면 대막뎅이.(거 가시, 가시 한 거. 아버지 죽으면 대막대기.)

김보향 예, 예. 대막뎅이. 으. 드문드문 생각나게.(예, 예. 대막대기, 으. 드문드문 생각나게.

강정자 저 왕대 막뎅이.(저 왕대 막대기.)

김보향 예, 왕대예. 예, 삼춘 아까 소리낭도 베 만들 때 썻주만은 푸슴은 뭐꽈? 푸슴 아까 푸슴으로도.(예, 왕대요. 예, 삼촌 아까 소리나무도 바 만들 때 썼지만 '푸슴'은 뭡니까? '푸슴' 아까 '푸슴'으로도.)

양원석 아, 푸슴이라는 것은 줄거리라.(아, 남오미자라는 것은 줄기야.)

김보향 줄거리.(줄기.)

양원석 으.(으.)

김보향 그거는.(그거는.)

박진향 푸슨?('푸슨'?)

김보향 푸슴, 푸슴.(남오미자, 남오미자)

박진향 슴.(슴.)

김보향 으, 푸슴.(으, 남오미자.)

양원석 푸슴.(남오미자)

김보향 그것도 한라산에 가야 이신 거?(그것도 한라산에 가야 있는 거?)

양원석 아니, 아래도 잇어.(아니, 아래도 있어.)

강정자 무슨 졸겡이 줄 닮은 거.(무슨 으름 줄 같은 거.)

양원석 으, 졸겡이 줄 닮은 거.(으, 으름 줄 같은 거.)

김보향 졸겡이 줄 닮은 거예. 졸겡이는 알아집니다. ᄋᆞ름 타 먹는 거예?(으름 줄 같은 거요. 으름은 알 수 있습니다. 으름 따 먹는 거요?)

강정자 (웃음)

김보향 ᄋᆞ름 타 먹는 거예. 예.(으름 따 먹는 거요. 예.)

양원석 으.(으.)

김보향 그 푸슴은, 푸슴으로 만든 게 좋아, 소리낭으로 만든 게 좋아?(그 남오미자는, 남오미자로 만든 게 좋아, 소리나무로 만든 게 좋아?)

양원석 소리낭으로 만든 게 더 질겨.(소리나무로 만든 게 더 질겨.)

김보향 더 질겨.(더 질겨.)

양원석 으.(으.)

김보향 게민 삼춘 우리 쉐에 영 메는 줄 쉐석, 쉐석도 멘들아야 뒐 거 아니? 쉐줄. 여기.(그럼 삼촌 우리 소에 이렇게 매는 줄 소고삐, 소고삐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 소고삐 여기.)

강정자 아. 쉐석.(아. 소고삐.)

김보향 으, 쉐석. 여기 쉐석이렌 안 허여? 쉐 멜 때 쓰는 줄.(으, 소고삐. 여기 '쉐석'이라고 안 해? 소 맬 때 쓰는 줄.)

강정자 쉐석은 엿날 저.(소고삐는 옛날 저.)

양원석 아, 쉐석 맞아.(아, 소고삐 맞아.)

김보향 쉐석은 뭐로 멘들어수꽈?(소고삐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강정자 옛날엔.(옛날에는.)

양원석 그거 옛날에는.(그거 옛날에는.)

강정자 신사라, 신사라를 꼬앙.(뉴질랜드삼, 뉴질랜드삼을 꼬아서.)

양원석 것도 난 종류지, 신사라이엔 헌 거 잇어.(그것도 난 종류지, '신사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강정자 으, 신사라.(으, 뉴질랜드삼.)

김보향 예, 신사라.(예, 뉴질랜드삼.)

양원석 외도 가민 그 질에염에도 잇드라, 이제.(외도 가면 그 길옆에도 있더라, 이제.)

김보향 영 헹 아일랜드 줄예. 영 헹 그 예, 맞수다.(이렇게 해서 아일랜드 줄요. 이렇게 해서 그 예, 맞습니다.)

양원석 영 올라가는 거.(이렇게 올라가는 거.)

김보향 예, 신사라.(예, 뉴질랜드삼.)

양원석 으, 신사라 그거 보통 허여.(으, 뉴질랜드삼 그거 보통 해.)

김보향 그걸로 헨? 또 다른 건 안 헤난마씨?(그걸로 했어? 또 다른 건 안 했었어요?)

강정자 또 그거 헤영 꼬앙.(또 그거 해서 꼬아서.)

김보향 꼬앙.(꼬아서.)

양원석 아이, 그건.(아이, 그건.)

김보향 신사라 만드는 줄은.(뉴질랜드삼 만드는 줄은.)

양원석 그거는 아무것도 뒈어.(그거는 아무것도 돼.)

김보향 아무것도 뒈어. 신사라도 허곡.(아무것도 돼. 뉴질랜드삼도 하고.)

양원석 으. 신사라도 허고, 끅도 허고.(으. 뉴질랜드삼도 하고, 칡도 하고.)

김보향 끅도 허고, 으.(칡도 하고, 으.)

양원석 찍도 허고.(칡도 하고.)

김보향 끅이 칡 아니?('끅'이 칡 아니?)

양원석 으?(으?)

김보향 끅이 칡 아니라?('끅'이 칡 아니?)

양원석 아니, 아니.(아니, 아니.)

김보향 그건 뭐마씨?(그건 뭐요?)

양원석 찍, 찍.(짚, 짚.)

김보향 아, 저기 저기 산디찍.(아, 저기 저기 밭볏짚.)

양원석 나룩찍.(볏짚.)

김보향 나룩찍. (웃음) 나룩찍도 뒈곡 끅도 뒈고.(볏짚. 볏짚도 되고 칡도 되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예, 예. 옛날에 그 종려나무는 안헤낫수꽈?(예, 예. 옛날에 그 종려나무는 안했습니까?)

양원석 으?(으?)

김보향 종려나무, 종려나무.(종려나무, 종려나무.)

양원석 종려나무?(종려나무?)

김보향 으, 그거 안 헤난?(으, 그거 안 했었어?)

양원석 들어본 디 엇인 말인디?(들어본 적 없는 말인데?)

김보향 알앗수다, 예. 그건 아무거나 헤도 뒈?(알겠습니다, 예. 그건 아무거나 해도 돼?)

양원석 으. 그거 그거 얼마 지럭시 질게도 안 들곡게. 허는 거난. 자꾸 그차지민 새로 허는 거난 허고.(으. 그거 그거 얼마 길이 길데고 안 들고. 하는 거니까. 자꾸 끊기면 새로 하는 거니까 하고.)

김보향 게민 그걸로 줄 만들어 봅서. 끅으로 한 번 줄 만들어 봅서.(그럼 그걸로 줄 만들어 보세요. 칡으로 한 번 줄 만들어 보세요.)

양원석 끅으로?(칡으로?)

김보향 예, 어떵 헤야 뒈?(예, 어떻게 해야 돼?)

양원석 아, 끅 끅 이제 줄 벋은 거 헤여다근에. 저 몰령, 몰렷당 이제 물에 컹 뿔아. 이제 저.(아, 칡 칡 이제 줄 뻗는 거 해다가. 저 말려서, 말렸다가 이제 물에 담가서 빨아. 이제 저.)

김보향 두드려?(두드려?)

양원석 으, 두드려.(으, 두드려.)

김보향 뭐로?(뭐로?)

양원석 두드령.(두드려서.)

김보향 뭐로 두드려?(뭐로 두드려?)

양원석 덩드렁마께[15]로.('덩드렁마께'로.)

김보향 덩드렁[16], 돌에 덩드렁마께로.('덩드렁', 돌에 '덩드렁마께'로.)

양원석 으. 걸로 이제 둑둑둑둑 두드령 물에 뿔민 헤양게 이제 그 껍데긴 베껴지고 여물만 나와.(으. 걸로 이제 둑둑둑둑 두드려서 물에 빨면 하얗게 이제 그 껍데기는 벗겨지고 여물만 나와.)

김보향 예.(예.)

양원석 겅허민 그거 이제 치져.(그러면 그거 이제 찢어.)

---

15)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16) '덩드렁'은 짚 따위를 두드리는 딴딴하고 미끄한, 둥글넓적한 돌을 말한다.

김보향 아, 기민 물에 ᄃᆞᆷ그는 건. ᄒᆞᆫ 번만 허민 뒈어?(아, 그럼 물에 담그는 건. 한 번만 하면 돼?)

양원석 으, ᄒᆞᆫ 번만 허민 뒈어.(으, 한 번만 하면 돼.)

김보향 아, 물에 담갓당 그걸 두드리는 거라?(아, 물에 담갔다가 그걸 두드리는 거야?)

양원석 으. 물에 담갓당 걸 두드리면은 그 껍데기 다 베껴져 불민 안에 것만 헤영케 나와.(으. 물에 담갔다가 그걸 두드리면 그 껍데기 다 벗겨져 버리면 안의 것만 하얗게 나와.)

김보향 예.(예.)

양원석 겅허면은 그거 이제 깨여. 헌 세 개에고 네 개에고 깨영.(그려면 그거 이제 깨. 한 세 개로고 네 개로 깨서.)

김보향 예.(예.)

양원석 그걸로 이제 배 꼬앙.(그걸로 이제 바 꼬아서.)

김보향 배 꼬앙.(배 꼬아서.)

양원석 으, 이제, 아까 말대로 줄호롱이로 돌려근에.(으, 이제, 아까 말대로 '줄호롱이'로 돌려서.)

김보향 아, 그거 할 때는 줄호롱이 써도 뒙니까?(아, 그거 할 때는 '줄호롱이' 써도 됩니까?)

양원석 으, 그거 헤도 충분히 뒈어.(으, 그거 해도 충분해 돼.)

김보향 예.(예.)

양원석 솔지지 아니헌 거난.(굵지 않은 거니까.)

김보향 예, 예.(예, 예.)

양원석 경헹 이제 드려, 이제.(그래서 이제 드려, 이제.)

강정자 아, 가린석 헐 때?(아, 고삐 할 때?)

양원석 으. 아니, 아니.(으. 아니, 아니.)

김보향 아니, 아니, 배 만들 때.(아니, 아니, 바 만들 때.)

강정자 아.(아.)

김보향 끅으로 배 만들 때.(칡으로 바 만들 때.)

강정자 으.(으.)

김보향 기민예, 그 배로 영 처음에 꼬울 때는 손으로 영 꼬은 거라예?(그럼요, 그 바로 이렇게 처음에 꼴 때는 손으로 이렇게 꼰 거지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그것도 세 줄, 세 가닥 놩.(그것도 세 줄, 세 가닥 놔서.)

양원석 세 가닥 만들젠 허민 줄호롱이로 데왕.(세 가닥 만들려고 하면 '줄호롱이'로 틀어서.)

김보향 데왕.(틀어서.)

양원석 으, 한쪽 끄트머리 이제 차세 헤여근에 요만한 것에 이제 감아, 이걸.(으, 한쪽 끄트머리 이제 '차세' 해서 요만한 것에 이제 감아, 이걸.)

김보향 으, 차세가.(으, '차세'가.)

양원석 한쪽 지럭, 쉐석 지럭시만이 이제 꾸부령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꼬아 가, 이제.(한쪽 길이, 쇠고삐 길이만큼 이제 구부려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꼬아 가, 이제.)

김보향 으.(으.)

양원석 꼬앙 다시 혼 가닥 더 부쩡, 다시 삼각 드림 허면 쉐석 ᄒᆞ나가 나와.(꼬아서 다시 한 가닥 더 붙여서, 다시 세 겹으로 드리면 쇠고삐 하나가 나와.)

김보향 그거 차세는 뭐꽈?(그거 '차세'는 뭡니까?)

양원석 아, 차세는 이제 지럭, 요만한 막가지.(아, '차세'는 이제 길이, 요만한 막대기.)

김보향 예, 막가지. 그 호렝이질 할 때, 요렇게 길쭉하게 생경 여기 고망 난 거 그거가 차세엔 골읍니까?(예, 막대기. 그 '호렝이'로 감을 때, 요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여기 구멍 난 거 그것을 '차세'라고 말합니까?)

양원석 아니, 아니.(아니, 아니.)

김보향 아니.(아니.)

양원석 건 아니고.(그건 아니고.)

김보향 그건 아니고.(그건 아니고.)

양원석 차세엔 헌 건 그냥 꾸짝헌 거 이런 거 이추룩헌 거 그냥 헤영 이데 이데 영 영 저 연줄 감듯. 제주도 그 육지추룩 얼레가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그냥 영 헹 차세에 감앗거든 영 영 헹.('차세'라고 하는 건 그냥 곧은 거 이런 거 이러한 거 그냥 해서 이디 이디 이렇게 이렇게 저 연줄 감듯이. 제주도 그 육지처럼 얼레가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그냥 이런 '차세'에 감았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김보향 아, 이렇게 이렇게 감안?(아, 이렇게 이렇게 감았어?)

양원석 으.(으.)

김보향 아, 줄 헹 영 영 감앙.(아, 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양원석 으, 감앙 이제 그 지럭시끄지 가면은 이걸로 이제 데와 가는 거라.(으, 감아서 이제 그 길이까지 가면 이걸로 이제 틀어 가는 거야.)

김보향 데와 가는 거, 예.(틀어 가는 거, 예.)

양원석 드령 경 헹 저기서 다시 꼬부령 이레 오믄 삼각 드려지면 쉐석 ᄒᆞ나가 나와.(드려서 그렇게 해서 저기서 다시 꼬부려서 이리 오면 세 겹으로 드리면 쇠고삐 하나가 나와.)

김보향 예. 쉐석은 지레기가 좀 족아예?(예. 쇠고삐는 길이가 좀 작아요?)

양원석 아, 그거는 뭐 그 **에 따라 가지고. 보통 쉐석은 쉐, 쉐 지럭시에서 쉐 지럭시에서 약 ᄒᆞᆫ 일 메다만 더 질면은 쉐석이 나와.(아, 그거는 뭐 그 **에 따라 가지고. 보통 쇠고삐는 소, 소 길이에 소 길이에서 약 한 일 미터만 더 길면은 소고삐가 나와.)

김보향 쉐석이 나와. 쉐석은 지레기가 그 정도인데 우리 웨 드르에 강 ᄆᆞᆯ 같은 거 줄 멩 멕이젠 허민, 그 줄은 좀 길지 않으꽈?(쇠고삐가 나와. 쇠고삐는 길이가 그 정도인데 우리 왜 들에 가서 말 같은 거 줄 매서 먹이려고 하면, 그 줄은 좀 길지 않습니까?)

양원석 그거 그것도 한정 없는 거.(그거 그것도 한정 없는 거.)

김보향 그것도 한정 없는 거?(그것도 한정 없는 거?)

양원석 으, 그것도 한정 엇는 거. 쉐줄[17]은 쉐줄이고 ᄆᆞᆯ줄[18]이고 그건 한정 없는 거. 그거는 뭐 오 메다도 뒈고, 십 메다도 뒈고.(으, 그것도 한정 없는 거. '쉐줄'은 '쉐줄'이고 '말줄'이고 그건 한정 없는 거. 그거는 뭐 오 미터도 되고, 십 미터도 되고.)

김보향 예. 게난 멘들 때, 줄 꼬을 때, 쉐석.(예. 그러니까 만들 때, 줄 꼴 때, 쇠고삐.)

양원석 그것도 마찬가지.(그것도 마찬가지.)

김보향 마찬가지.(마찬가지.)

양원석 으.(으.)

김보향 질게 허젠 허민 더 힘들 거 아니? 괜찮아?(길게 하려고 하면 더 힘들 거 아니? 괜찮아?)

양원석 아니, 건 힘든 건 엇고 마찬가지 것도.(아니, 그건 힘든 건 없고 마찬가지 그것도.)

김보향 힘든 건 엇고예. 자, 거기까지 줄이고예. 하나 더 물으쿠다. 쉐에 짐 지우젠 허민 그 등에 하는 질메가 잇어야 뒈어예?(힘든 건 없고요. 자, 거기까지 줄이고요. 하나 더

17) '쉐줄'은 들판에 가서 소에게 먹이를 먹게 할 때 고삐에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18) '말줄'은 들판에 가서 말에게 먹이를 먹게 할 때 고삐에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묻겠습니다. 소에 짐 지게 하려면 그 등에 하는 길마가 있어야 돼요?)

양원석 으, 질메.(으, 길마.)

김보향 질메도 쉐, 쉐 저기 남자 송아지랑, 남자 쉐랑 여자 쉐랑 크기가 ᄐᆞ납니까?(길마도 소, 소 저기 남자 송아지와, 남자 소와 여자 소와 크기가 다릅니까?)

양원석 아, ᄐᆞ나야지.(아, 달라야지.)

김보향 ᄐᆞ나야지. 어떵 ᄐᆞ나야 뒈어? 잠깐만예 야이 어디가신고, 질메 안 나와신가?(달라야지. 어떻게 달라야 돼? 잠깐만요 얘 어디갔지, 길마 안 나왔나?)

양원석 그거 나오고 안 나오고.(그거 나오고 안 나오고.)

김보향 예, 나오고 안 나오고.(예, 나오고 안 나오고.)

양원석 나오고 안 나오고.(나오고 안 나오고.)

박진향 여기다가 허쿠과?(여기다가 하겠습니까?)

양원석 이기다 낙서헤도 뒐 건가?(여기다 낙서해도 될 건가?)

김보향 예, 헤도 뒐 거, 예.(예, 해도 될 거, 예.)

양원석 이게 에, 지금 말로 불르면은 그 이게 통나무라이.(이게 에, 지금 말로 부르면 그 이게 통나무야.)

김보향 으, 통나무.(으, 통나무.)

양원석 이게. 이렇게 통나무라 이게.(이게. 이렇게 통나무야 이게.)

김보향 예, 예.(예, 예.)

양원석 이게 두 개 들어가거든. 앞뒤에 두 개 들어가고 여기 이제 그 두물레엔 헤 가지고 두 개 합친, 조립허는 게 잇어이.(이게 두 개 들어가거든. 앞뒤에 두 개 들어가고 여기 이제 그 둥우리막대라고 해 가지고 두 개 합친, 조립하는 게 있어.)

김보향 예.(예.)

양원석 여기 고망 뚤랑, 이렇게 고망 뚤르민 이디 그 동글란 게 그 막대기가 들어가고.(여기 구멍 뚫어서, 이렇게 구멍 뚫으면 여기 그 동그란 게 그 막대기가 들어가고.)

김보향 예.(예.)

양원석 또 쉐 등뗑이레 등뗑이레 부뜨는 거 이제 요 너베기 두물레엔 헤 가지고 요 너베기 헌 게 요렇게 또 들어가.(또 소 등때기에 붙는 거 이제 요 넓이 둥우리막대라고 해 가지고 요 넓이 한 게 요렇게 또 들어가.)

김보향 예.(예.)

양원석 경 헹 그거는 이디 이디 이것들에 턱이 이 두물레에 이디서 또 ᄐᆞᆨ을 만들어야

뒈.(그렇게 해서 그거는 여기 여기 이것들에 턱이 이 둥우리막대에 여기서 또 턱을 만들어야 돼.)

김보향 으.(으.)

양원석 영 허민, 영 허민 요디서 요, 요, 이제 그 두께만이 요디 턱을 지와. 양쪽으로 영 허면은 턱이 요디 멘들젠 허민 영헤영 요기 어디 ᄒᆞ꼼 요거를 이제 좀 쫄라근에 요만이 턱이 나오게 헤영 요것드레 톡 부쪄.(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요, 요, 이제 그 두께만큼 여기 턱을 지워.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턱 여기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요기 어디 조금 요것을 이제 좀 잘라서 요만큼 턱이 나오게 해서 요것에 톡 붙여.)

김보향 으.(으.)

양원석 톡 부쪙 요디 이제 이런 저 파이프든 동글락 저 막대기가 들어가민 요거를 요 알러레 놔근에 이 동글락헌 저 막대기레 고정을 시켜야 뒈.(톡 붙여서 여기 이제 이런 저 파이프든 동그란 저 막대기가 들어가면 요거를 요 아래로 놔서 이 동그란 저 막대기에 고정을 시켜야 돼.)

김보향 으. 고정을 시켜야 뒈. 예.(으. 고정을 시켜야 돼. 예.)

양원석 경허민 이제 질메가 영 헹 두 개가 영 헹 뒈는 거라.(그러면 이제 길마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김보향 예. 자 다시 여쭈쿠다예. 이거 영 휘여진 거우다예. 영 생각허면 이거 하나 잇고 앞에 들어가는 낭가제기 하나 잇고.(예. 자 다시 여쭈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휘어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 있고 앞에 들어가는 나뭇가지가 하나 있고.)

양원석 뒤에 가는 거.(뒤에 가는 거.)

김보향 뒤에 가는 거 하나 잇고.(뒤에 가는 거 하나 있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요거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거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그지, 그지예. 여기에 구멍 뚤르고 여기에 구멍 뚤르면 겅헹 여기 톡 잇게 헹 톡 찔르고. 여기 톡 찔르고.(그지, 그렇지요. 여기에 구멍 뚫고 여기에 구멍 뚫으면 그래서 여기 톡 이어지게 해서 톡 찌르고. 여기 톡 찌르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게민 자 이게 앞에 쪽 이게 뒤에 쪽이라예?(그럼 자 이게 앞의 쪽 이게 뒤의 쪽이지요?)

양원석 으, 뒤에 쪽이 널러야 뒈.(으, 뒤의 쪽이 넓어야 돼.)

김보향 뒤에 쪽이 널러야 뒈. 예.(뒤의 쪽이 넓어야 돼. 예.)

강정자 (웃음)

김보향 그민 이거 두께는, 낭 두께는 앞에랑 뒤에랑 상관 엇어?(그럼 이 두께는, 나무 두께는 앞과 뒤와 상관 없어?)

양원석 아, 두께는 상관 엇어.(아, 두께는 상관 없어.)

김보향 두께는 상관 엇어.(두께는 상관 없어.)

양원석 두께는 상관 엇는데 이 꼬부라진 게 뒤에 것이 넓어야 뒈어.(두께는 상관 없는데 이 꼬부라진 게 뒤의 것이 넓어야 돼.)

김보향 뒤에 것이 널버야 뒈. 예, 알쿠다.(뒤의 것이 넓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양원석 으. 뒤에 것이.(으. 뒤의 것이.)

김보향 자, 이거 이렇게 휘어진 낭은 이거 원래 가끄는 거꽈? 이렇게 휘어지게 멩그는 거꽈?(자, 이거 이렇게 휘어진 나무는 이거 원래 깎는 겁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만드는 겁니까?)

양원석 휘어진 나무 그냥 낭이 영 영 휘어진 건 거의 힘들어이.(휘어진 나무 그냥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휘어진 것은 거의 힘들어.)

김보향 예, 맞아.(예, 맞아.)

양원석 거의 힘드니까 가젱이, 크멍 이제 가젱이 벌리잖아.(거의 힘드니까 가지, 크면서 가지 벌리잖아.)

김보향 예. 가젱이 벌려.(예. 가지 벌려.)

양원석 가젱이 벌린 거를 이제 영 쫄라근에 만들어.(가지 벌린 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

김보향 아, 기민예 낭이 야이는 몸통이라예, 야이가 가젱이가 영 나왕 잇어. 그민 어 야이 흠직허다 허민 요렇게 잘랑 오는 거?(아, 그럼요 나무가 얘는 몸통이지요, 얘가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어 얘 할만하다 하면 요렇게 잘라 오는 거?)

양원석 으.(으.)

김보향 잘르민 이걸 이용헹 요기를 이용할 거.(자르면 이걸 이용해서 요기를 이용할 거.)

양원석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김보향 아, 요기를 이용할 거.(아, 요기를 이용할 거.)

양원석 으, 거기에 이용허는 거.(으, 거기에 이용하는 거.)

김보향 기민 낭을 잘 골라야 뒈는 거구나?(그럼 나무를 잘 골라야 되는 거구나?)

양원석 낭이 경 쉽질 안허여.(나무가 그렇게 쉽지 않아.)

김보향 쉽질 안허여. 그민 이 질메 허는 낭은 주로 어떤 낭 헤수꽈?(쉽지 않아. 그럼 이 길마 하는 나무는 주로 어떤 나무 했습니까?)

양원석 으?(으?)

김보향 주로 어떤 낭을 헤수꽈?(주로 어떤 나무를 했습니까?)

양원석 그거는 대중엇엉게.(그거는 대중없어.)

김보향 요 모양 보멍, 골르는 거?(요 모양 보면서, 고르는 거?)

양원석 으, 모양만 맞으면은 거의 허여.(으, 모양만 맞으면은 거의 해.)

김보향 기민예, 아까 질메에예. 요건 앞이라, 요건 뒤라예?(그렇지요, 아까 길마에요. 요건 앞이야, 요건 뒤지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뒤에 게 길덴 헷어예, 널게 헌덴 헷어예?(뒤의 게 길다고 했지요, 넓게 한다고 했지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그럼 이거 앞에 거 불르는 일름이 잇우꽈?(그럼 이거 앞의 거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양원석 으?(으?)

김보향 앞에 이거 이 낭을 불르는 일름. 뭐 앞까젱이, 뒤까젱이.(앞의 이거 이 나무 부르는 이름. 뭐 앞가지, 뒷가지.)

양원석 아이, 아이.(아니, 아니.)

김보향 그런 거 엇어? 그럼 이 사이에 끼우는 이거 불르는 일름 잇어마씨?(그런 거 없어? 그럼 이 사이에 끼우는 이거 부르는 이름 있어요?)

양원석 으. 그거, 그거는 소용이렌 허곡 그거 동글락헌 나무는.(으. 그거, 그거는 궁글막대라고 하고 그거 동그란 나무는.)

김보향 이게 소용.(이게 궁글막대.)

양원석 으, 소용. 밑에 건 두물레.(으, 소용. 밑에 건 둥우리막대.)

김보향 잠깐만.(잠깐만.)

양원석 으.(으.)

김보향 우에 자.(위에 자.)

양원석 우에 거는 소용.(위의 거는 궁글막대)

김보향 소용.(궁글막대.)

양원석 고망에 들어가는 건.(구멍에 들어가는 건.)

김보향 고망에 들어가는 건.(구멍에 들어가는 건.)

양원석 소용.(궁글막대.)

김보향 소용.(궁글막대.)

양원석 밑에 거는 두물레.(밑에 거는 둥우리막대.)

김보향 두물레는 고망에 안 들어가는 거?(둥우리막대는 구멍에 안 들어가는 거?)

양원석 고망에 안 들어가고 요기 그냥 그냥 이 두께만 툭 지왕 이레 허는 거.(구멍에 안 들어가고 요기 그냥 그냥 이 두께만 탁 가게 해서 이리 하는 거.)

김보향 소용 잇고 두물레 잇고예? 나 잘 몰라부난 이건 공부헹 왕 물어봐야 뒈쿠다. 예. 기민 영 들어가는 낭까지, 이 소용은 멧 개나 잇어야 뒈어?(궁글막대 있고 둥우리막대 있고요? 나 잘 모르니까 이건 공부해서 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나뭇가지, 이 궁글막대는 몇 개나 있어야 돼?)

양원석 두 개, 두 개.(두 개, 두 개.)

김보향 영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이렇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원석 아니, 아니. 네 개, 네 개.(아니, 아니. 네 개, 네 개.)

김보향 네 개.(네 개.)

양원석 으.(으.)

김보향 기민 두 개, 두 개.(그럼 두 개, 두 개.)

양원석 으.(으.)

김보향 아까 두물레는 멧 개나 잇어야 뒈어?(아까 둥우리막대는 몇 개나 있어야 돼?)

양원석 것도 두 개.(그것도 두 개.)

김보향 두 개.(두 개.)

양원석 것도 네 개.(그것도 네 개.)

김보향 네 개. 기민 소용 네 개, 두물레 네 개.(네 개. 그럼 궁글막대 네 개, 둥우리막대 네 개.)

양원석 으.(으.)

김보향 예. 자 질메 놩 헹 다 헤수다. 쉐에 씌우젠 허난 쉐 등아리 아프카 부덴.(예. 자 길마 놓고 해서 다 했습니다. 소에 씌우려고 하니까 소 등 아플까 봐.)

양원석 으.(으.)

김보향 밑에 뭐 깔지 안허여?(밑에 뭐 깔지 않아?

강정자 으. 등테.(으. 등태.)

양원석 으. 도금.(으. 떰치.)

강정자 도금.(떰치.)

김보향 도금, 예. 도금 깔아예?(떰치, 예. 떰치 깔아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몰에도 깝니까?(말에도 깝니까?)

양원석 아니, 아니.(아니, 아니.)

김보향 예. 쉐에만 도금 까는 거?(예, 소에만 떰치 까는 거?)

양원석 도금은 이제 그 뭐냐 옛날에는 그 찍.(도금은 이제 그 뭐지 옛날에는 그 짚.)

강정자 찍 헤영 영 여꺼진 거란게.(짚 해서 이렇게 엮어진 거더라.)

양원석 찍 허영 그거 도금을.(짚 해서 그거 떰치를.)

강정자 멘들아.(만들어.)

양원석 여까.(엮어.)

김보향 어떵 멘들아? 어떵 여까?(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엮어?)

양원석 그냥 저 노 놔낭 찍 이만썩 헤여 가지고 이레 여까 오곡 이레 여까 오곡 헤영. 이거추룩 만들어.(그냥 저 노 놓고 짚 이만큼 해 가지고 이리 엮어 오고 이리 엮어 오고 해서. 이거처럼 만들어.)

김보향 이렇게 노 놔낭 왓다 갓다 왓다 갓다?(이렇게 노 놨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양원석 으, 이거 뚜로뚜로라.(으, 이거 따로따로야.)

김보향 뚜로뚜로. 예.(따로따로. 예.)

양원석 뚜로뚜로 이걸 두 갤 멩글아근에.(따로따로 이걸 두 개를 만들어서.)

김보향 으.(으.)

양원석 가운디 이제 이걸 노로 연결을 시켜.(가운데 이제 이걸 노로 연결을 시켜.)

김보향 으.(으.)

양원석 통채로 멘들앙 들이치는 게 아니라.(통째로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야.)

김보향 예.(예.)

양원석 이짝 이짝 뚜로뚜로 멘들앙 가운디 이제 노끈으로 연결시켱.(이쪽 이쪽 따로따로 만들어서 가운데 이제 노끈으로 연결시켜서.)

김보향 예.(예.)

양원석 그거 갖당 탁 놔낭 아까 멘든 질메를 갖당 딱 놓게 뒌 거라.(그거 가져다 탁 놓고 나서 아까 만든 길마를 갖다가 딱 놓게 된 거야.)

김보향 아.(아.)

양원석 경허면은 그거를 이제 아예 질메에 이 도금을 부착시켜 불어.(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예 길마에 이 떰치를 부착시켜 버려.)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으, 경헷당 그냥 질메 이것만 딱 들르민 이 등테도 ᄀᆞ치 부텅 강 탁 놓게 뒌 거라.(으, 그랬다가 그냥 길마 그것만 탁 들면 이 등태도 같이 붙어서 가서 탁 놓게 된 거야.)

김보향 아, 게난, 으.(아, 그러니까, 으.)

양원석 경허면은 이제 오량만 딱 줴우민 뒈어. 배떼기로 헤여근에 노끈 헤영.(그러면 이제 뱃대끈만 딱 죄면 돼. 배때기로 해서 노끈 해서.)

김보향 아, 기민 이 질메 영 씌와낭 여기 무끄는 배를 오량이렌 부를 거예?(아, 그럼 이 길마 이렇게 씌워 놓고 여기 묶는 배를 뱃대끈이라고 부를 거요?)

양원석 으, 오량.(으, 뱃대끈.)

김보향 아, 삼춘.(아, 삼촌.)

양원석 몰라 오량, 제주도 말로 오량이엔 허난 오량.(몰라 '오량'. 제주도 말로 '오량'이라고 하니까 '오량'.)

김보향 그게 정답. 삼춘이 곧는 말이 정답.(그게 정답. 삼촌이 하는 말이 정답.)

양원석 오량이고 이제 또 뭐냐, 아이고 곧젠 허난 잊어불엄저.(뱃대끈이고 이제 도 뭐지, 아이고 말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려서.)

김보향 나 나중에 또 와사쿠다, 여기.(나 나중에 또 와야겠습니다, 여기.)

강정자 (웃음)

김보향 나 여기 정리 허당 몰르민 또 왕 물어봐야 뒈크라, 선생님한테.(나 여기 정리하다가 모르면 또 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강정자 으.(으.)

김보향 자 봅서예.(자 보세요.)

양원석 오량.(뱃대끈.)

김보향 나는 어떵 생각헷나면 이렇게 질메를 먼저 만들어지민 이 앞에예 따로따로 도금을 붙이는 줄 알안마씨. 근데 삼춘 말로는 도금을 짜 놓는 거라예?(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렇게 길마를 먼저 만들면 이 앞에요 따로따로 떰치를 붙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촌 말로는 떰치를 짜 놓는 거지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양착에, 양쪽에 도금을 짜 놩 질메 만들어진 거를 여기 그냥 갖다 놓으민 뒌다.(양쪽에, 양쪽에 떰치를 짜 놓고 길마 만든 거를 여기 그냥 갖다 놓으면 된다.)

양원석 으, 그렇지.(으, 그렇지.)

김보향 예.(예.)

양원석 게난 이거 등테 뚜로뚜로 놔도 뒈고.(그러니까 이거 등테 따로다로 놔도 되고.)

김보향 연결시켜도 뒈고.(연결시켜도 되고.)

양원석 질메에 연결 시켜불어도 뒈고 그러니깐.(길마에 연결시켜 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김보향 예.(예.)

양원석 보통은 그게 번잡허니까는 질메에 부착을 시켜 불어.(보통은 그게 번잡하니까 길마에 부착을 시켜 버려.)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경허민 질메만 딱 들르민 도금이 ᄀᆞ치 부텅 따라 가가지고 등더레만 올려노민 뒈거든.(그러면 길마만 딱 들면 도금이 같이 붙어서 따라 가지고 등에만 올려놓으면 되거든.)

김보향 으.(으.)

양원석 으, 게난 경허영 이제 오량 메고 고들게 끼우면 뒈어.(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뱃대끈 매고 껑거리막대 끼우면 돼.)

김보향 고들게는 뭐라?(껑거리막대는 뭐야?)

양원석 고들게는 이제.(껑거리막대는 이제.)

강정자 똥꼬망에.(엉덩이에.)

양원석 쉐 똥꼬망 꽁지 알로다가 이렇게 나무가 요만헌 게 잇어.(소 엉덩이 꽁지 아래로 이렇게 나무가 요만한 게 있어.)

김보향 이거 이거. 영 헹 줄 끼웡.(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줄 끼워서.)

양원석 으, 줄 헤영.(으, 줄 해서.)

강정자 벗어지지 안허게.(벗겨지지 않게.)

김보향 벗어지지 안허게.(벗겨지지 않게.)

양원석 이 질메에 오랑 이게 연결뒈 잇어.(이 길마에 와서 이게 연결돼 있어.)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경허면 짐 시끔을 허면은 밑으로 내려갈 때엔 이 고들게로 이 여기서 뗑겨주니까 앞으로 안 넘어가잖아.(그러면 짐 실으면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 껑거리막대로 이 여기서 당겨주니까 앞으로 안 넘어가잖아.)

김보향 으, 아니.(으, 아니.)

양원석 으, 앞쪽에는 오량 메 주니까 또 뒤터레 안 넘어가고.(으, 앞쪽에는 뱃대줄 매 주니까 또 뒤로 안 넘어가고.)

김보향 으, 삼춘 그 쉐 질메 지울 때는 고들게 잇어?(으, 삼촌 그 소 길마 지울 때는 껑거리막대 있어?)

양원석 으, 고들게. 그니까(으, 껑거리막대. 그러니까.)

김보향 그 멍에 잇어?(그 멍에 있어?)

양원석 멍에는 엇어.(멍에는 없어.)

김보향 엇어.(없어.)

양원석 으.(으.)

김보향 게민 물 질메 지울 때는 멍에 잇어?(그럼 말 길마 지울 때는 멍에 있어?)

양원석 물은 멍에 잇어.(말은 멍에 있어.)

김보향 멍에 잇어.(멍에 있어.)

양원석 아, 물도 질메 지울, 저 질메 헐 때는 멍에 엇어.(아, 말도 길마 지울, 저 길마 할 때는 멍에 없어.)

김보향 고들게만 헙니까?(껑거리막대만 합니까?)

양원석 으?(으?)

김보향 고들게 잇어? 물에.(껑거리막대 있어? 말에.)

강정자 물.(말.)

양원석 으, 물도 고들게 잇어.(으, 말도 껑거리막대 있어.)

강정자 꽁지 베낏더레 영 꽁지.(꽁지 밖으로 이렇게 꽁지.)

김보향 으.(으.)

양원석 물도 고들게 잇고 질메만, 질메 쓰는 것에는 고들게가 다 따라가.(말도 껑거리 있고

길마만, 길마 쓰는 것에는 껑거리막대가 다 따라가.)

김보향 아.(아.)

양원석 따라 가고. 물에 멍에가 잇는 거는 구루마.(따라 가고. 말에 멍에가 있는 거는 수레.)

김보향 예(예.)

양원석 마차 끗을 때에 멍에가 잇어.(마차 끌 때에 멍에가 있어.)

김보향 예. 멍에에 질메에 짐만 지울 때는 이 멍에 엇어도 뒈는구나.(예. 멍에에 길마에 짐만 지울 때는 이 멍에 없어도 되는구나.)

양원석 멍에 없는 거.(멍에 없는 거.)

김보향 아, 예. 완전히 이해헨마씨.(아, 예. 완전히 이해했어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완전히 이해헨. (웃음) 짐만 지우는 건 고들게만 잇이민 뒈는 거예?(완전히 이해했어. 짐만 지우는 건 껑거리막대만 있으면 되는 거요?)

양원석 으. 고들게만 잇이민 뒈는 거.(으. 껑거리막대만 있으면 되는 거.)

김보향 다른 데 가난예 이 물은 이 물에는 질메만 지웡 짐을 잘 안 시꺼십디다.(다른 데 가니까요 이 말은 이 말에는 길마만 지워서 짐을 잘 안 실었습디다.)

양원석 아니, 아니.(아니, 아니.)

김보향 아니, 아니. 맞아, 삼춘 말이 정답.(아니, 아니. 맞아. 삼춘 말이 정답.)

양원석 멍에 없어.(멍에 없어.)

김보향 멍에 없어예?(멍에 없어요?)

양원석 멍에는 어쨋든 저 물에 멍에 필요할 거는 마차 끗을 때 쓰는 거여, 그게.(멍에는 어쨌든 저 말에 멍에 필요한 거는 마차 끌 때 쓰는 거야, 그게.)

김보향 맞아, 마차 끗을 때 물이.(맞아, 마차 끌 때 말이.)

양원석 물에 이제 그 마차 끗을 때에는 질메도 틀려.(말에 이제 그 마차 끌 때에는 길마도 달라.)

김보향 틀려.(달라.)

양원석 으, 질메도.(으, 길마도.)

김보향 좁아.(좁아.)

양원석 아니, 이게 좁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민 뒈어.(아니,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면 돼.)

김보향 아, 예.(아, 예.)

양원석 이거 하나에다가 이제 그 이 차경이, 저 마차에 차경이라고 잇어. 영.(이거 하나에다가 이제 그 이 채, 저 마차에 채라고 있어. 이렇게.)

김보향 예, 고리.(예, 고리.)

양원석 쭉 끈 거. 거기다 고리 잇어.(쭉 끄는 거. 거기다 고리 있어.)

김보향 고리, 고리 예.(고리, 고리 예.)

양원석 경허면은 그 질메에다가 그 고리 탁 걸어.(그러면 그 길마에다가 그 고리 탁 걸어.)

김보향 예.(예.)

양원석 고리 탁 걸고 걸엉 아까 존등 메면은 이제 이걸 끗어 줘야 뒐 거 아니라.(고리 탁 걸고 걸어서 아까 등 매면 이제 이걸 끌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김보향 예.(예.)

양원석 끗어 주젠 험을 허면은 이 물에도 멍에가 잇어야 끗는 거라.(끌어 주려고 하면 이 말에도 멍에가 있어야 끄는 거야.)

김보향 예, 그 어짼든 질메 지울 때는 여기 베 무꺼지는 오랑끈은 계속 잇어야 뒈는 거?(예, 그 어짼든 길마 지울 때는 여기 배 묶이는 뱃대끈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양원석 으, 계속 잇어야 뒈는 거.(으, 계속 있어야 되는 거.)

김보향 마차 끗을 때는 이 고들게는 엇어도 뒈는 거?(마차 끌 때는 이 껑거리막대는 없어도 되는 거?)

양원석 으. 건 고들게 엇어도 뒈고.(으. 그건 껑거리막대 없어도 되고.)

김보향 예. 기민 우리 쉐랑 물에 짐 시끌 때 질메 쉐 거영 물 거영도 ᄐᆞ납니까?(예. 그럼 우리 소랑 말에 짐 실을 때 길마 소 거랑 말 거랑도 다릅니까?)

양원석 아, 형태는 똑같아.(아, 형태는 똑같아.)

김보향 형태는 똑같아. 예, 이름도 다 똑같아.(형태는 똑같아. 예, 이름도 다 똑같아.)

양원석 으, 이름도 다 똑같아.(으, 이름도 다 똑같아.)

김보향 크기만 좀 ᄐᆞ난 거?(크기만 조 다른 거?)

양원석 크기만 물엔 적어.(크기만 말에는 작아.)

김보향 물이 족아?(말이 작아?)

양원석 으.(으.)

김보향 쉐보다?(소보다?)

양원석 으.(으.)

김보향 이 등이 물이 족읍니까?(이 등이 말이 작습니까?)

양원석 으, 족아.(으, 작아.)

김보향 아.(아.)

양원석 ᄉᆞ뭇 족아.(사뭇 작아.)

김보향 아, ᄉᆞ뭇 족아. 기민 아까 쉐도 남자랑 여자랑 암쉐랑 부룽이랑 틀려서예?(아, 사뭇 작아. 그럼 아까 소도 남자와 여자와 암소와 부룩소랑 달랐지요?)

양원석 틀리고.(다르고.)

김보향 암쉐가 족읍니까? 부룽이가 족읍니까?(암소가 작습니까? 부룩소가 작습니까?)

양원석 암쉐가 족지게.(암소가 작지.)

김보향 암쉐가 족지게.(암소가 작지.)

양원석 으.(으.)

김보향 기민 암쉐 거랑 ᄆᆞᆯ 거랑 비교허면.(그럼 암소 거랑 말 거랑 비교하면.)

양원석 ᄆᆞᆯ 거랑 허민 ᄆᆞᆯ이 족고.(말 거랑 하면 말이 작고.)

김보향 ᄆᆞᆯ 것이 족고.(말 것이 작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예. 우리 ᄆᆞᆯ예, 밖에 강 영 멜 때 큰 줄 헤가지고 이거 박잖아예?(예. 우리 말요, 밖에 가서 이렇게 맬 때 큰 줄 해 가지고 이거 박잖아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이 박는 건 뭐렌 골아?(이 박는 건 뭐라고 말해?)

강정자 말목, 말목?(말뚝, 말뚝?)

양원석 말목.(말뚝.)

김보향 말목. 예, 삼춘 지금은 다 쉐로 헤나서예, 최근에는예.(말뚝. 예, 삼촌 지금은 다 소로 했었어요, 최근에는요.)

양원석 그 옛날에는 낭 가깡 만들엇어.(그 옛날에는 나무 깎아서 만들었어.)

김보향 낭 가깡 만들엇어. 그 얘길 듣고 싶어.(나무 깎아서 만들었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강정자 낭 헤영 이런 영 이만이 솔지게 헤영.(나무 해서 이런 이렇게 이만큼 굵게 해서.)

양원석 배 돌아가는디 영 ᄐᆞᆨ 멘들앙.(배 돌아가는데 이렇게 탁 만들어서.)

김보향 예.(예.)

양원석 그디 대 끼우곡게 이 지럭시 헤영 영 밑에로 ᄀᆞ늘게 가깡 말목 만들엉. 거면은 이제 야속한 사람은 망치 들렁 뎅기멍 썻주만은.(거기 대 끼우고 그래 이 길이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늘게 깎아서 말뚝 만들어서. 그럼 이제 야속한 사람은 망치 들고

다니면서 썼지만.)

김보향 으.(으.)

양원석 이제 거 잊어불어 뒁 가민 이제 어디 가근에 돌멩이 봉가당 이제 둑둑 박아 뒁 와 불거든.(이제 그거 잊어버려 두고 가면 이제 어디 가서 돌멩이 주워다가 이제 둑둑 박아 두고 와 버리거든.)

김보향 맞아, 예.(맞아, 예.)

양원석 겅헹 빨 때에 돌멩이로 그레저레 두드리민 빠지민 또 이거 들렁 왕 뚠더레 옮기고.(그래서 뺄 때에 돌멩이로 그리저리 두드리면 빠지면 또 이거 들고 와서 다른 데로 옮기고.)

김보향 으. 그민 그 말목 허는 낭도 아무 낭이나 안 될 거 닮수다.(으. 그럼 이 말뚝 하는 나무도 아무 나무나 안 될 거 같습니다.)

양원석 그거는 보통 이제 요즘 쓰는 말로 제주도 굿가시낭.(그거는 보통 이제 요즘 쓰는 말로 제주도 꾸지뽕나무.)

강정자 쿳낭.(꾸지뽕나무.)

김보향 쿳낭.(꾸지뽕나무.)

양원석 으, 쿳가시낭.(으, 꾸지뽕나무.)

김보향 으, 쿳가시낭. 무사 그거 써신고?(으, 꾸지뽕나무. 왜 그거 썼지?)

양원석 질긴 낭이난.(질긴 나무니까.)

김보향 질긴 낭게. 기민 그것도 질기덴 헷고 윤노리낭도 질기덴 헷어예?(질긴 나무. 그럼 그것도 질기다고 했고 윤노리나무도 질기다고 했어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윤노리낭이영 쿳가시낭이영 무사 저기.(윤노리나무랑 꾸지뽕나무랑 왜 저기.)

양원석 거의 비슷헤여.(거의 비슷해.)

김보향 거의 비슷헤. 게민 이거 좁게 헐 때, 윤노리낭 엇이민 쿳가시낭 헤도 뒈어?(거의 비슷해. 그럼 이거 '좁게' 할 때, 윤노리나무 없으면 꾸지뽕나무 해도 돼?)

양원석 쿳가시낭으로 헤도 뒈. 뒈는디 쿳가시낭은 그렇게 미러운 게 엇어.(꾸지뽕나무로 해도 돼. 되는데 꾸지뽕나무는 그렇게 미끈한 게 없어.)

김보향 아, 영 굳작허고 여기 들어갈 만헌 게 엇어.(아, 이렇게 곧고 여기 들어갈 만한 게 없어.)

양원석 으.(으.)

김보향 쿳가시낭은 영 굵으꽈?(꾸지뽕나무는 이렇게 굵습니까?)

양원석 으.(으.)

강정자 으.(으.)

김보향 예. 완전히 완전히 이해헷수다.(예. 완전히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양원석 으, 쿳가시낭은 그 가시 돋으멍 들싹들싹헤[19] 부니까, 윤노리낭은 매끈허잖아. (으, 꾸지뽕나무는 그 가지 돋으면서 울퉁불퉁해 버리니까, 윤노리나무는 매끈 하잖아.)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이디 자꾸 뭉개지니까 조금이라도 허물 잇는 거는 베껴지거든, 소가.(여기 자꾸 뭉개지니까 조금이라도 허물 있는 거는 벗겨지거든, 소가.)

김보향 소가 베껴져.(소가 벗겨져.)

양원석 으. 게니까는 거의가 다 윤노리낭. 윤노리낭 아니면은 뭔 낭을 쓰는가 허민 들어봐신가 삼동낭.(으. 그러니까 거의가 다 윤노리나무. 윤노리나무 아니면은 무슨 나무를 쓰는가 하면 들어봤는가 상동나무.)

김보향 나 완전 좋아해. 따 먹어난.(나 완전 좋아해. 따 먹었었어.)

박진향 삼동.(상동.)

양원석 삼동낭.(상동나무.)

박진향 꺼멍헌 열매 여는 거예?(검은 열매 여는 거요?)

강정자 윤노리낭 굳작허영 건 훼초리.(윤노리나무 곧은 건 회초리.)

김보향 훼초리 맞아.(회초리 맞아.)

강정자 저 쉐 몰앙 뎅길 때 허야허야 허멍 때리는 거.(저 소 몰고 다닐 때 허야허야 하면서 때는 거.)

김보향 예.(예.)

양원석 삼동, 삼동 이제 익게 뒛구나.(상동, 상동 이제 익게 됐구나.)

김보향 으, 이제 따 먹을 때.(으, 이제 따 먹을 때.)

강정자 으.(으.)

양원석 으, 이제 ᄉᆞ월 초파일.(으, 이제 사월 초파일.)

김보향 ᄒᆞ끔 이시민 사월 초파일.(조금 있으면 사월 초파일.)

강정자 우리 삼동낭엔 아직 꽃도 안 피엇어라. 막 줄만 벋어졍.(우리 상동나무에는 아직 꽃도 안 피었더라. 아주 줄만 뻗어서.)

19) 여기서 '들싹들싹허다'은 모양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양원석 이제 안 열아.(이제 안 열어.)

김보향 그 삼동 줄로 옛날 바닷가 동네는.(그 상동나무 줄로 옛날 바닷가 동네는.)

강정자 으.(으.)

김보향 이거 뭐 만들어십디다. 어음.[20](이거 뭐 만들었습디다. '어음'.)

양원석 아, 저 바닷가 동네 아니, 이 웃드르[21]도 옛날 구덕 짓는 사람들 그거 바윗대[22].(아, 저 바닷가 동네 아니, 이 '웃드르'도 옛날 바구니 겯은 사람들 그거 '바윗대'.)

강정자 애기.(아기.)

김보향 예, 바윗대.(예, '바윗대'.)

양원석 바윗대 그걸로도 허곡 것도 쓰곡, 애기구덕 짓는 디도 쓰곡.('바윗대' 그것으로도 하고 그것도 쓰고, '애기구덕' 겯는 데도 쓰고.)

김보향 예.(예.)

양원석 바위 멘들 때 많이 써, 삼동낭.(가장자리 만들 때 많이 써, 상동나무.)

김보향 아, 바위 만들 때.(아, 가장자리 만들 때.)

강정자 으, 바구리.(으, 바구니.)

양원석 삼동낭 이제 길주게.(상동나무 이제 길지.)

김보향 맞아.(맞아.)

강정자 대바구리, 대바구리 헐 때 영 바우.(대바구니, 대바구니 할 때 이렇게 가장자리.)

김보향 바우. 그 바우를 어음이렌 골읍니까? 안 골아? 그냥 바우렌 골아?(가장자리. 그 가장자리를 '어음'이라고 말합니까? 안 말해? 그냥 '바우'라고 말해?)

양원석 으, 으.(으, 으.)

김보향 아, 바우 헐 때 그거 많이 썻구나.(아, 가장자리 할 때 그거 많이 썼구나.)

강정자 으.(으.)

김보향 예. 삼춘네 집에 겅 물 질를 때, 쉐 질를 때 써난 넥인이나.(예. 삼촌네 집에 그렇게 말 기를 때, 소 기를 때 썼던 낙인이나.)

강정자 아무것도 엇어. 아무것도.(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김보향 줄이나?(줄이나?)

양원석 엇어, 엇어.(없어, 없어.)

강정자 아무것도 엇어, 이제.(아무것도 없어, 이제.)

---

20) '어음'은 망사리에 그물을 끼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나 대로 만든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21) '웃드르'는 한라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들이나 마을을 말한다.

22) '바윗대'는 바구니의 가장자리를 감는 대오리를 말한다.

김보향 엇어?(없어?)

강정자 으.(으.)

김보향 무사 다 데껴 불어수꽈?(왜 다 던져 버렸습니까?)

양원석 다 데껴 불언.(다 던져 버렸어.)

김보향 다 데껴 불언? 우리 밖에서 사진 ᄒᆞ꼼 찍엉 가쿠다.(다 던져 버렸어? 우리 밖에서 사진 조금 찍고 가겠습니다.)

강정자 무슨 사진?(무슨 사진?)

김보향 농사 지어난 거.(농사 지었던 거.)

강정자 무슨거 지어난 거 엇어, 아무것도.(무엇 지었던 거 없어, 아무것도.)

김보향 체도 어수꽈?(체도 없습니까?)

강정자 으?(으?)

김보향 체도 엇우꽈?(체도 없습니까?)

강정자 아, 체. 체사 어디 체사 싯주만은.(아, 체. 체야 어디 체야 있지만.)

김보향 체사 싯주만은.(체야 있지만.)

박진향 영 영 한 번 찾아볼게마씨.(이렇게 이렇게 한 번 찾아볼게요.)

김보향 으. 찾아보쿠다. 요 문도 먼저 찍어주세요.(으. 찾아보겠습니다. 요 문도 먼저 찍어주세요.)

박진향 찍었어요.(찍었어요.)

김보향 이 집, 이 집 칠십오 년도에 지은 거라?(이 집, 이 집 칠십오 년도에 지은 거야?)

강정자 으.(으.)

김보향 삼춘.(삼촌.)

양원석 으.(으.)

김보향 옛날에는 쉐 멕일 때 집에서 쉐막 메면 쉐막 들어가면 쉐 머리를, 쉐막에다 쉐 멧 마리나 메놧수꽈? 삼촌네 집에는.(옛날에는 소 먹일 때 집에서 외양간에 매면 외양간 들어가면 소 머리를, 외양간에 소 몇 마리나 맸었습니까? 삼촌네 집에는.)

양원석 우리 집에 쉐막 튿어 부난 이제 허나 더 멜라져 부난. 요 이제 이 쉐막에.(우리 집에 외양간 뜯어 버리니까 이제 하나 더 무너져 버리니까. 요 이제 이 외양간에.)

김보향 쉐막 멧 개라난마씨?(외양간 몇 개였어요?)

양원석 쉐막 여섯 개 들어가고. 저쪽에 지은 디 헌 열두 마리 쉐막에 들어가낫거든.(외양간 여섯 개 들어가고. 저쪽에 지은 데 한 열두 마리 외양간에 들어갔었거든.)

김보향 열두 마리 쉐막에 들어가난?(열두 마리 외양간에 들어갔었어?)

박진향 나 찾아보카?(내가 찾아볼까?)

강정자 거 다 튿어 부난.(그거 다 뜯어 버리니까.)

박진향 제가 찾아볼게요.(제가 찾아볼게요.)

김보향 자, 열두 마리 쉐막에 이게 쉐막이우다예. 영 네모난거잖아, 쉐막이. 여기가 도라예?(자, 열두 마리 외양간에 이게 외양간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거잖아, 외양간이. 여기가 입구지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쉐를 어떵 멧수꽈? 이거 도. 쉐를 어떵 멘마씨? 영 머리를 이거 다 벽이라예, 벽예. 쉐를 머리를 어디로 헙니까?(소를 어떻게 맸습니까? 이거 입구. 소를 어떻게 맸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거 다 벽이었지요, 벽요. 소를 머리를 어디로 합니까?)

양원석 그거야 쉐막 짓은 형태에서 허주.(그거야 외양간 지은 형태에서 하지.)

김보향 삼춘네는 어떵 메난마씨?(삼촌네는 어떻게 맸어요?)

양원석 우리는 저거 이제 저거 다 멜라졈구나만은 이쪽더레 이 마당쪽더레 마당쪽더레 오게. 게난 쉐막이 영 니귀반듯허지 안잖아. ᄒᆞ꼼 소롬허잖아?(우리는 저거 이제 저거 다 무너지고 있지만 이쪽으로 이 마당 쪽으로 마당 쪽으로 오도록. 그러니까 외양간에 이렇게 네모반듯하지 않잖아. 조금 갸름하잖아?)

김보향 맞아, 영 소롬허게.(맞아, 이렇게 갸름하게.)

양원석 이렇게 메면은 쉐가 많이 들어가잖아.(이렇게 매면 소가 많이 들어가잖아.)

김보향 예.(예.)

양원석 그런 식으로 메는 거.(그런 식으로 매는 거.)

김보향 그럼 가운데 낭 세웡 여기도 메고 여기도 메젠 허난 칸을 갈란예?(그럼 가운데 나무 세워서 여기도 매고 여기도 매려고 하니까 칸을 갈랐지요?)

양원석 옛날엔 그런 거는 거의가 없어.(옛날에는 그런 거는 거의가 없어.)

김보향 그런 거는 엇어?(그런 거는 없어?)

양원석 양쪽으로 메게는 이제야 새로 짓는 축사들이 그렇게들 헹 짓엄지, 옛날에는 거의가 다 ᄒᆞᆫ쪽으로.(양쪽으로 매도록은 이제야 새로 짓는 축사들이 그렇게들 해서 짓고 있지, 옛날에는 거의가 다 한쪽으로.)

김보향 게민 쉐 이렇게 쉐석 하게 뒈면 이 쉐석을 어디에 무꺼야 뒈잖아, 쉐막 안에서.(그럼 소 이렇게 쇠고삐 하게 되면 이 쇠고삐를 어디에 묶어야 되잖아, 외양간 안에서.)

양원석 으.(으.)

김보향 무끄젠 허민 그거 낭에 무껏수꽈? 돌에 무껏수꽈?(묶으려고 하면 그거 나무에 묶었습니까, 돌에 묶었습니까?)

양원석 낭에, 낭에.(나무에, 나무에.)

김보향 낭에. 그 낭을 뭐렌 불러난?(나무에. 그 나무를 뭐라고 불렀었어?)

양원석 몰라. 그거는, 그거는 난 일름 몰르크라.(몰라. 그거는, 그거는 난 이름 모르겠어.)

김보향 메낭 허는 말 안 써난?('메낭' 하는 말 안 썼었어?)

양원석 으, 아니.(으, 아니.)

김보향 안 써난예.(안 썼었어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기민 이 벽으로 낭이 잇어. 낭이 잇엉, 거기에 낭에 무꺼난예?(그럼 이 벽으로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어. 거기에 나무에 묶었었어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예, 예. 일름은 몰르크라?(예, 예. 이름은 모르겠어?)

양원석 으. 일름은 몰르크라.(으. 이름은 모르겠어.)

김보향 일름은 몰르크라, 예. 삼춘네는 쉐막에 먹이 주젠 허면은 먹이통은 따로 안 헤낫수꽈?(이름은 모르겠어, 예. 삼촌네는 외양간에 먹이 주려고 하면 먹이통은 따로 안 했었습니까?)

양원석 먹이통 따로 안 헤연. 이 저 옛날에는 뚜로 안 허연, 먹이통.(먹이통 따로 안 했어. 이 저 옛날에는 따로 안 했어, 먹이통.)

김보향 먹이통 안 헤난예?(먹이통 안 했었어요?)

양원석 으, 그렇지.(으, 그렇지.)

김보향 일후제 시멘트로 만들어낫구나.(그 후에 시멘트로 만들었었구나.)

양원석 거난.(그러니까.)

김보향 구시통, 구유통.(구유통, 구유통.)

양원석 그 통 만듦 시작헌 지가 혼 육십년도 이후부터주.(그 통 만들기 시작한 지가 한 육십 년도 이후부터지.)

김보향 아, 육십년대 이후라. 그 전엔 뭐 안 헤난?(아, 육십년대 이후야. 그전에는 뭐 안 했어요?)

양원석 그전엔 그냥 앞더레 그냥 줭 내불민.(그전에는 그냥 앞으로 그냥 주고 내버리면.)

김보향 으.(으.)

양원석 먹당 남은 거 끌앙 눅고 허믄 거 검질이영 똥이영 서꺼진 거 통시레 긋다 놩 이제 불렷당.(먹다가 남은 거 깔아서 눕고 하면 그거 검불이랑 똥이랑 섞인 거 돼지우리에 가져다 놓고 이제 밟았다가.)

김보향 거름 쓰고.(거름 쓰고.)

양원석 그거 이제 보리 갈젠 허민 거 또 끗어내영.(그거 이제 보리 갈려고 하면 그거 또 끌어내서.)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쉐로 그거 불령.(소로 그거 밟아서.)

김보향 맞아, 맞아. 돗걸름 헹예?(맞아, 맞아. 돼지거름 해서요?)

양원석 으. 돗걸름이엔 헤 가지고, 그게 돗걸름이렌 헤 가지고 쉐거름 통시레 담아 놩 뒈지 헹 불린 거거든.(으. 돼지거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돼지거름이라고 해 가지고, 쇠두엄 돼지우리에 담아 놓고 돼지 해서 밟게 한 거거든.)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게믄 그거 마당더레 끗어내영 그디 이제 보리씨 뿌리멍 쉐로 불령 경 허면은 그거 이제 걸름착[23]이엔 헤 가지고 찍으로 만든 거 요만썩헌 것에 담으멍 쉐에 질메에 시끄멍.(그럼 그거 마당으로 끌어내서 거기 이제 보리씨 뿌리면서 소로 밟아서 그렇게 하면 그거 이제 '걸름착'이라고 해 가지고 짚으로 만든 거 요만한 것에 담으면서 소에 길마에 실으면서.)

김보향 두 개씩 걸름착 양착에 시껑, 으.(두 개씩 '걸름착' 양쪽에 실어서, 으.)

양원석 그거 밧에 시꺼다당 그거 요만썩 이제 여자덜은 이제 요만썩 툭 툭 떼멍 밧디 고루고루 뿌려 놓민 갈앙 보리 헤 먹엇거든, 옛날에. 비료 없으니까.(그거 밭에 실어다가 그거 요만큼씩 이제 여자들은 이제 요만큼씩 툭 툭 떼면서 밭에 고루고루 뿌려 놓으면 갈아서 보리 해 먹었거든, 옛날에. 비료 없으니까.)

김보향 비료 없으니까.(비료 없으니까.)

양원석 경허니까 수확이 얼마 나나게?(그러니까 수확이 얼마 나겠니?)

김보향 맞아, 맞아. 우리 쉐 집에 메면 쉐 촐 줘야 뒈잖아예?(맞아, 맞아. 우리 소 집에 매면 소 꼴 줘야 되잖아요?)

양원석 으?(으?)

23) '걸름착'은 퇴비 따위의 거름을 담아서 나르는 망태기를 말한다.

김보향 쉐 촐, 촐.(소 꼴, 꼴.)

양원석 으.(으.)

김보향 멜 때예. 촐 ᄒᆞ루에 멧 번이나 줍니까?(맬 때요. 꼴 하루에 몇 번이나 줍니까?)

양원석 촐 옛날에는 ᄒᆞᆫ 네 번 줘진 거 닮다.(꼴 옛날에는 한 네 번 준 거 같다.)

김보향 네 번 줘진 거. 삼촌 촐만 줫수꽈? 다른 것도 줫수꽈?(네 번 준 거. 삼촌 꼴만 줬습니까? 다른 것도 줬습니까?)

양원석 다른 거는 없어.(다른 거는 없어.)

김보향 엇어예?(없어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감잣줄 ᄀᆞ튼 거.(고구마 덩굴 같은 거.)

양원석 감잣줄이사게 건 촐이난게.(고구마 덩굴이야 그건 꼴이니까.)

김보향 예, 예. 그니까 우리 그 촐 말고 감자줄도 주고, 콩, 콩찍.(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꼴 말고 고구마 덩굴도 주고 콩, 콩짚.)

양원석 그렇지.(그렇지.)

김보향 그것도 주고예.(그것도 주고요.)

양원석 으, 콩. 조찍.(으, 콩. 조짚.)

김보향 조찍, 조찍.(조짚, 조짚.)

양원석 으.(으.)

김보향 콩찍.(콩짚.)

양원석 으. 콩찍, 팟찍.(으. 콩짚, 팥짚.)

김보향 예.(예.)

양원석 ᄆᆞ물.(메밀.)

김보향 예, ᄆᆞ물.(예, 메밀.)

양원석 ᄆᆞ물낭.(메밀짚.)

김보향 ᄆᆞ물낭도 쉐 먹읍니까?(메밀짚도 소 먹습니까?)

양원석 으, 먹어.(으, 먹어.)

김보향 아, 기?(아, 그래요?)

양원석 게. 밧데서 나온 곡식 헤난 건 전부 다 이제 부순물은 전부 소 입에 가는 거지.(그래. 밭에서 나온 곡식 했던 건 전부 다 이제 부산물은 전부 소 입에 가는 거지.)

김보향 아.(아.)

양원석 부순물은.(부산물은.)

김보향 ᄆᆞᆯ도 먹는구나.(메밀도 먹는구나.)

양원석 으. ᄆᆞᆯ낭도 먹어.(으. 메밀짚도 먹어.)

김보향 게민 그민 촐이영 이거영 서껑 주는 거라? 촐 한 번 주민 이거 한 번 주고 겅, 그런 거 상관엇어?(그럼 그럼 꼴이랑 이거랑 섞어서 주는 거지? 꼴 한 번 주면 이거 한 번 주고 그렇게, 그런 거 상관없어?)

양원석 아니. 그런 건, 건 상관없는데 거의가 서꺼졋어.(아니. 그런 건, 그건 상관없는데 거의 섞였어.)

김보향 서꺼졋어예?(섞였어요?)

양원석 으. 그 부순물이 떨어질 때ᄁᆞ지.(으. 그 부산물이 떨어질 때까지.)

김보향 으. 서꺼졍예.(으. 섞어서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게민 삼촌 생각헤 봅서. 쉐 한 마리 질르젠 허민 겨울 내낭, 예를 들면 아까 오월에 목장에 올린덴, 그거 집에 들어왕 메는 건 언제라?(그럼 삼촌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 기르려고 하면 겨울 내내, 예를 들면 아까 오월에 목장에 올린다고, 그거 집에 들어와서 매는 건 언제야?)

양원석 집이 들어왕 메는 거 십일월달.(집에 들어와서 매는 거 십일월.)

김보향 십일월달. 게민 십일월 아, 십이월 일월 이월.(십일월. 그럼 십일월 아, 십이월 일월 이월.)

양원석 한 칠 개월.(한 칠 개월.)

김보향 삼월 사월 오월 한 육 개월, 칠 개월예?(삼월 사월 오월 한 육 개월, 칠 개월요?)

양원석 으. 육 개월.(으. 육 개월.)

김보향 육 개월은 집에 멜 거라예?(육 개월은 집에 맬 거지요?)

양원석 으.(으.)

김보향 이 메는 동안 쉐 한 마리가 촐 멧 바리 정도를 먹읍니까?(이 매는 동안 소 한 마리에 꼴 몇 바리 정도를 먹습니까?)

양원석 아, 거 계산 안 헤 보난 거 잘 몰라.(아, 그거 계산 안 해 보니까 그거 잘 몰라.)

김보향 잘 몰라, 예. 기민 촐 헐 때 생각헤 보게마씨. 촐 멧 월에 헐 거?(잘 몰라, 예. 그럼 꼴 할 때 생각해 봅시다. 꼴 몇 월에 할 거?)

양원석 촐?(꼴?)

김보향 촐 멧 월에 빌 거?(꼴 몇 월에 벨 거?)

양원석 그 뭐냐 팔월 추석 넘으민 허난에 구월달인가?(그 뭐냐 팔월 추석 넘으면 하니까 구월인가?)

김보향 구월달.(구월.)

양원석 으.(으.)

김보향 팔월 보름 넘으민, 음력 팔월 보름 넘으민 추석 넘으민 그때서부터 비기 시작헤.(팔월 보름 넘으면, 음력 팔월 보름 넘으면 추석 넘으면 그때서부터 베기 시작해.)

양원석 으.(으.)

김보향 촐 비젠 허민 뭐 가져 강 빕니까?(꼴 베려고 하면 뭐 가지고 가서 벱니까?)

양원석 옛날에는 전부 다 호미주게.(옛날에는 전부 다 낫이지.)

김보향 호미.(낫.)

양원석 으.(으.)

김보향 다 손으로 비엇수꽈?(다 손으로 베었습니까?)

양원석 으.(으.)

김보향 여기는 영 성 영 영 허는 거 엇어난예?(여기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없으니까요?)

양원석 그거는 동더레나 성산포 쪽더레나 셧어.(그거는 동으로나 성산포 쪽으로나 있었어.)

김보향 맞아, 예.(맞아, 예.)

양원석 이디 서촌[24]에는 전부 다 이거.(여기 서촌에는 전부 다 이거.)

김보향 으. 게민 우리 촐 베러 가는 얘기를 골아 줍서. 거 우리 혼자 강 작업할 거 아니잖아예? 멧이나 갈 거라?(으. 그럼 우리 꼴 베러 가는 얘기를 말해 주십시오. 그거 우리 혼자 가서 작업할 거 아니잖아요? 몇이나 갈 거야?)

양원석 그거는 수눌엉 허민 여남은도 가곡 경 아니민 이녁 식구만도 가곡.(그것은 품앗이해서 하면 여남은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식구만도 가고.)

김보향 이녁 식구만 가고.(자기 식구만 가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뭐 뭐 가졍 갈 거과, 촐 비러 갈 때 호미영?(뭐 뭐 가지고 갈 겁니까, 꼴 베러 갈 때 낫이랑?)

24) '서천'은 제주시에서 서쪽 지역을 말한다.

양원석 호미하고 신돌.(낫하고 숫돌.)

김보향 신돌.(숫돌.)

양원석 징심.(점심.)

김보향 으, 징심. 신돌 갈젠 허민 뭐도 가졍 가야 뒐 거 아니? 뭐 박세기라도? 물에, 박세기에?(으, 점심. 숫돌 갈려고 하면 뭐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 뭐 바가지라도? 물에, 바가지에?)

양원석 그거사 따라가는 거난게.(그거야 따라가는 거니까.)

김보향 그거사 따라가는 거난.(그거야 따라가는 거니까.)

양원석 으.(으.)

김보향 그민 촐 비멍 호미는 멧 번이나 골아 줄 거라?(그럼 꼴 베면서 낫은 몇 번이나 갈아 줄 거야?)

양원석 호미는 ᄒᆞ룰 ᄒᆞᆫ 네 번 골아진 거 닮은디.(낫은 하루 한 네 번 간 거 같은데.)

김보향 경 골멍 헤수꽈?(그렇게 갈면서 했습니까?)

양원석 아침이, 아침이 집이서 골앙 가근에.(아침에, 아침에 집에서 갈고 가서.)

김보향 골앙 가근에.(갈고 가서.)

양원석 그 오전에 두 번쯤, ᄒᆞᆫ 번 골앙 허는 사람도 싯구, 쒜에 따라 가지고 쒜가 좋은 거는 오래가거든.(그 오전에 두 번쯤, 한 번 갈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쇠에 따라 가지고 쇠가 좋은 거는 오래가거든.)

김보향 호미, 호미 놀예?(낫, 낫 날요?)

양원석 으, 놀이 오래가고. 이게 또 쒜가 뜬 거는 빨리 못헤 부난 빨리 골아야 뒈고.(으, 날이 오래가고. 이게 또 쇠가 뜬 거는 빨리 못해 버리니까 빨리 갈아야 되고.)

김보향 아, 맞아.(아, 맞아.)

양원석 그거는 대중이 엇고.(그거는 대중이 없고.)

김보향 건 대중이 엇어. 예. 그 촐도 잘 비는 사람이 잇고 못 비는 사람이 이실 거 닮아. 보통 한 사람이 멧 바리 정도 빕니까, ᄒᆞ루에?(그건 대중이 없어. 예. 그 꼴도 잘 베는 사람이 있고 못 베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 보통 한 사람이 몇 바리 정도 벱니까, 하루에?)

양원석 ᄒᆞᆫ 사람이 우리 동네 잘 비는 사람은 ᄒᆞᆫ 사람이 네 바리, 다섯 바리 빈 사람도 잇어.(한 사람이 우리 동네 잘 베는 사람은 한 사람이 네 바리, 다섯 바리 빈 사람도 있어.)

김보향 으. 보통은?(으. 보통은?)

양원석 보통은 두 바리?(보통은 두 바리?)

김보향 아, 배나 차이 남신게.(아, 배나 차이 나네요.)

양원석 으. 배나 차이 나.(으. 배나 차이 나.)

김보향 겅 잘 비어?(그렇게 잘 베어?)

양원석 겅 잘 비는 사람은 옛날 아까 촐은 요만허덴 헷지이.(그렇게 잘 베는 사람은 옛날 아까 꼴은 요만하다고 했지.)

김보향 예, 예.(아, 예.)

양원석 이거 잘 비는 사람은 요거 넉 줌, 넉 줌 노민 혼 뭇 허고. 못 허는 사람은 여섯 줌, 일곱 줌 놔사 혼 뭇허고.(이거 잘 베는 사람은 요거 넉 줌, 넉 줌 놓으면 한 뭇 하고. 못 하는 사람은 여섯 줌, 일곱 줌 놔야 한 뭇 하고.

김보향 맞아, 맞아.(맞아, 맞아.)(웃음)

양원석 그런 차이가 잇어.(그런 차이가 있어.)

김보향 맞아, 맞아.(맞아, 맞아.)

양원석 게난 잘 비는 사람은 이 비멍 이 뭉크령 손에 들어가는 게 다섯 손가락에 이빠이 들어가민 탁 비엉 이레 탁 놈을 허민 이만이 탁 벌겨질 정도로 비어놔.(그러니까 잘 베는 사람은 이 베면서 이 움켜잡아서 손에 들어가는 게 다섯 손가락에 가득 들어가면 탁 베어서 이리 탁 놓으면 이만큼 탁 벌어질 정도로 베어 놔.)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겐디 아이덜, 못 허는 아이덜은 이거 허영 비어 봣자 노민 그거 논 거, 손에 줸 거 그게 그거고 허당 보민.(그런데 아이들, 못 하는 아이들은 이거 해서 베어 놔도 그거 넣은 거, 손에 쥔 거 그게 그거고 하다가 보면.)

김보향 그게 그거. 아, 우리 쉐 촐 겅 헹예, 오늘 촐 비민 바로 오늘 촐 무꺼질 거?(그게 그거. 아, 우리 소 꼴 그렇게 해서요, 오늘 꼴 베면 바로 오늘 꼴 묶을 수 있어?)

양원석 으, 으.(으, 으.)

김보향 어떵 헙니까? 오늘 비어서?(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어서?)

양원석 오늘 빔을 허면은 이제 제주도 말로 하늬보롬 보통 이제 추석 넘어감을 허면은 하늬보롬이 터지거든.(오늘 베기를 하면 이제 제주도 말로 하늬바람 보통 이제 추석 넘어가면 하늬바람이 터지거든.)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게 하늬보롬 잘 터짐을 허면은 이틀.(그래서 하늬바람 잘 터지면 이틀.)

김보향 으. 이틀 몰려?(으. 이틀 말려?)

양원석 으, 한 이틀 사흘.(으, 한 이틀 사흘.)

김보향 으.(으.)

양원석 으. 이틀 사흘 몰령 무끄고.(으. 이틀 사흘 말려서 묶고.)

김보향 이틀 사흘 몰려.(이틀 사흘 말려서.)

양원석 무끄곡. 그게 이제 차차차차 날이 지나가 가면은, 날이 지나가 가면은 이제 이 풀이엔 헌 게 이제 날이 지날수록 이제 숙성이 뒈면은 빨리 몰라, 이제. 게 이제 오늘 빈 건 내일도 무꺼져. 날이 지나가 가면은.(묶고. 그게 이제 차차차차 날이 지나가면, 날이 지나가면 이제 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날이 지날수록 이제 숙성이 되면은 빨리 말라, 이제. 그래 이제 오늘 벤 건 내일도 묶을 수 있어. 날이 지나가면.)

김보향 예, 예.(예, 예.)

양원석 하늬보롭도 더 좋아지곡 벳도 더 좋아지곡. 이제 풀도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엇으니까.(하늬바람도 더 좋아지고 볕도 더 좋아지고. 이제 풀도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니까.)

김보향 몰라 가는 거예?(말라 가는 거요?)

양원석 몰라 가는 거. 자기 몸 자체에서도.(말라 가는 거. 자기 몸 자체에서도.)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벌써 수분이 떨어져 불거든.(벌써 수분이 떨어져 버리거든.)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경허면 오늘 비영 내일도 무꺼져. 경헌디 팔월 추석 넘엉 곧 빈 거는 삼일은 몰라야 뒈.(그러면 오늘 베어서 내일도 묶을 수 있어. 그런데 팔월 추석 넘어서 곧 벤 거는 삼일은 말려야 돼.)

김보향 아, 그거는 약간 생생할 때 빈 거난.(아, 그거는 약간 생생할 때 벤 거니까.)

양원석 으, 으.(으, 으.)

김보향 기민 한 사람 빈 걸 한 사람이 무끕니까? 아니면은.(그럼 한 사람 벤 걸 한 사람이 묶습니까? 아니면.)

양원석 아니.(아니.)

김보향 어떵허여.(어떡해.)

양원석 무끄는 거는.(묶는 거는.)

김보향 쉬워?(쉬워?)

양원석 댓 사람 빈 거.(댓 사람 벤 거.)

김보향 한 사람이?(한 사람이?)

양원석 한 사람 무끄당도 이르주.(한 사람 묶다가도 이르지.)

김보향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양원석 으.(으.)

김보향 기민예 촐 비어서 다 무꺼수다예. 그다음은 어떵헐 거꽈?(그럼요 꼴 베어서 다 묶었습니다. 그다음은 어떡할 겁니까?)

양원석 그다음은 빨리 시꺼와졈직 허면은 그냥 바로 시꺼 오고 빨리 못 시꺼옴직 허믄 밧디 눌어.(그다음은 빨리 실어올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싣고 오고 빨리 못 싣고 올 것 같으면 밭에 가려.)

김보향 눌어.(가려서.)

양원석 으. 겡 눌엇당 이제 촐 다 비어근에 이제 마무리 진 다음에 시꺼 들임 시작허여.(으. 그래서 가렸다가 이제 꼴 다 베어서 이제 마무리 한 다음에 실어 오기 시작해.)

김보향 뭐로 시껑 올 거?(뭐로 실어 올 거?)

양원석 쉐로게.(소로.)

김보향 쉐로. 질메 지엉 시끌 거꽈, 구루마로 시끌 거꽈?(소로. 길마 지워서 실을 겁니까, 달구지로 실을 겁니까?)

양원석 거의가 쉐 등으로 시껏주.(거의가 소 등으로 실었지.)

김보향 등으로 시꺼. 그럼 아까 사십 뭇씩 한 바리씩 시껑 와신게. 예.(등으로 실어. 그럼 아까 사십 뭇씩 한 바리씩 실어 왔네요. 예.)

양원석 겅허면 이제 집에 오랑 이제 ᄋᆞ라 밧디서 요만썩 눌엇당게 집이 오민 전부 한 밧더레 모돠 칠 거 아니라.(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여러 군데서 요만큼식 가렸다가 집에 오면 전부 한 군데로 모아 놓을 거 아니야.)

김보향 으.(으.)

양원석 그럼 옛날에 그거 눌굽이라고 그 밑에 돌 쭉 ᄀᆞᆯ아 가지고 굽을 만들엉 잇어낫어.(그럼 옛날에 그거 눌굽이라고 그 밑에 돌 쭉 깔아 가지고 굽을 만들어 있었어.)

김보향 무사 굽을 만든 거꽈?(왜 굽을 만든 겁니까?)

양원석 물 안 들게게.(물 안 들게.)

김보향 맞아. 물 안 들게.(맞아. 물 안 들게.)

양원석 땅에 허민 밑에, 땅에.(땅에 하면 밑에, 땅에.)

김보향 땅에 허민.(땅에 하면.)

양원석 땅에 눅이 올라 불민 밑에 거는 못쓰잖아.(땅이 축축한 기운이 올라오면 밑의 거는 못 쓰잖아.)

김보향 못 써, 못 써.(못 써, 못 써.)

양원석 으. 경허난 이제 밑에 항상 이제 그 촐눌굽[25] 이라고 헤가지고 촐 누는 데는 눌굽[26]을 만들엉 놔뒁거든.(으. 그러니까 이제 밑에 항상 이제 그 '촐눌굽'이라고 해가지고 꼴 가리는 데는 '눌굽'을 만들어서 놔뒀거든.)

김보향 촐만 눌굽 만들엇수꽈, 보리 놓는 거는 안 헤연?(꼴만 '눌굽' 만들었습니까, 보리 놓는 거는 안 했어?)

양원석 보리는 오래 안 눌엉 잇는 거난.(보리는 오래 안 가리고 있는 거니까.)

김보향 아아, 촐은 그 육 개월 동안 내내 눌엉 이실 거난.(아아, 꼴은 육 개월 동안 내내 가리고 있을 거니까.)

양원석 으.(으.)

김보향 오래 누는 거난.(오래 가리는 거니까.)

양원석 으. 오래 잇는 거난 보리 ᄀᆞ튼 건 헤 봣자 오랑 허민 금방 이제.(으. 오래 있는 거니까 보리 같은 건 해 봐도 와서 하면 금방 이제.)

김보향 으.(으.)

양원석 전부 다 홀탕.(전부 다 홅아서.)

김보향 으, 홀탕 헐 거난예. 으. 맞아, 맞아.(으, 홅아서 할 거니까요. 으. 맞아, 맞아.)

양원석 홀탕 옛날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는 좀 많이 헐 때에 물로 불려낫어.(홅아서 옛날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는 좀 많이 할 때에 말로 밟았었어.)

김보향 물로 불려낫어?(말로 밟았었어?)

양원석 으, 홀타 놩.(으, 홅아 놓고.)

김보향 홀타 놩.(홅아 놓고.)

양원석 도리께질 안 허영 그냥 물 잡아 돌려 댐을 허민 물 발에 보리가 전부 다 부서졍 경허면 이제 불리민 뒈어. 경헌디.(도리깨질 안 하고 그냥 말 잡고 돌려 대기를 하면 말 발에 보리가 전부 다 부서져서 그러면 이제 불리면 돼. 그런데.)

김보향 아, 방앗간 안 가고 물로 불으민 부서져?(아, 방앗단 안 가고 말로 밟으면 부서져?)

---

25) '촐눌굽'은 꼴을 가릴 수 있게 바닥에 둥그렇게 돌 따위를 깔아놓은 바닥을 말한다.

26) '눌굽'은 짚이나 꼴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자리의 밑바닥을 말한다.

양원석 으, 물 발에.(으, 말 발에.)

김보향 쏠이 부서져 불 거 같은디. 껍질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쌀이 부서져 버릴 거 같은데. 껍질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

양원석 아니, 아니.(아니, 아니.)

김보향 안 부서집니까?(안 부서집니까?)

양원석 안 부서져.(안 부서져.)

김보향 아아.(아아.)

양원석 보리 알멩이만 나와.(보리 알맹이만 나와.)

김보향 보리 알멩이만 나와예.(보리 알맹이만 나와요.)

양원석 으. 경허민 이제 그거 불리민 뒈는 거고 경 안허는 데서는 전부 다 도리께로 이제 또 털어야 뒈어.(으. 그러면 이제 그거 불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전부 다 도리깨로 이제 또 털어야 돼.)

김보향 으. 삼춘 여기 그 여기 그 우리 오월달에 내놓으면은 목장에 보내는 거꽈? 아니민 어떵 들에 강 멕일 때 어떵 허는 거꽈?(으. 삼촌 여기 그 여기 그 오월에 내놓으면 목장에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에 가서 먹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원석 목장에 가는 쉐도 싯고 이제 목장에 목장조합 아닌 사름은 그냥 이 아래서 그냥 내창 ᄀᆞ튼 디서 그냥 그럭저럭 키우곡.(목장에 가는 소도 있고 이제 목장에 목장조합 아닌 사람은 그냥 이 아래서 그냥 내 같은 데서 그냥 그럭저럭 키우고.)

김보향 그민 그거 쉐 보러 가기도 헤여?(그럼 그거 소 보러 가기도 해?)

양원석 으?(으?)

김보향 쉐 보러 가고 헤여?(소 보러 가고 해?)

양원석 목장에 올리민?(목장에 올리면?)

김보향 목장에 올리민.(목장에 올리면.)

양원석 으, 가야지. 며칠에 ᄒᆞᆫ 번씩 강 진드기약 헤 주고.(으, 가야지. 며칠에 한 번씩 가서 진드기약 해 주고.)

김보향 아, 진드기약 헤 주고.(아, 진드기약 해 주고.)

양원석 으.(으.)

김보향 동네 사람들이 영 모당 쉐 멕이레 가고도 헙니까?(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소 먹이러 가고도 합니까?)

양원석 아, 옛날에는 경도 헷어.(아,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어.)

김보향 으, 삼춘 어렸을 때 경헐 때.(으, 삼촌 어렸을 때 그럴 때.)

양원석 으, 우리 어렷을 때 이제 멧이 모다근에 이제 ᄀᆞ치 강 멕이고 헷주. 헤신디 이제 목장에 올려 불민 목장에는 이제 목감[27]을 뒀어.(으,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몇이 모여서 이제 같이 가서 먹이고 했지. 했는데 이제 목장에 올려 버리면 목장에는 이제 '목감'을 뒀어.)

김보향 으.(으.)

양원석 그 쉐 봐주는 사람. 돈 얼마씩 줘근에.(그 소 봐주는 사람. 돈 얼마씩 줘서.)

김보향 봐주는 사람.(봐주는 사람.)

양원석 그 목감신디 멧겨근에 필요헐 때만 강 몰아당 부리고 경 안허민 걍 그냥 내불고.(그 '목감'에게 맡겨서 필요할 때만 가서 몰아다가 부리고 그렇게 않으면 그냥 그냥 내버리고.)

김보향 그 목감이 쉐를 멧 마리나 관리헤나신고? 한도 엇수꽈? 정해진 거 엇어?(그 '목감'이 소를 몇 마리나 관리했었나요? 한도 없습니까? 정해진 거 없어?)

양원석 정해진 거 엇어, 건.(정해진 건 없어, 그건.)

김보향 정해진 거 엇어.(정해진 거 없어.)

양원석 으.(으.)

김보향 막 하영 봐도 뒈는구나.(아주 많이 봐도 되는구나.)

양원석 게난 목장에 목장이 멧 두 멕일 게 한정 뒈거든.(그러니까 목장에 목장에 몇 두 먹일 게 한정 되거든.)

김보향 그민 우리 삼춘네는 어느 목장에 올려낫수꽈?(그럼 우리 삼촌네는 어느 목장에 올렸었습니까?)

양원석 우리 당학[28].(우리 당학.)

김보향 당학.(당학.)

양원석 당오름 목장이라고 저 안덕면 지경에 잇어.(당오름 목장이라고 저 안덕면 지경에 있어.)

김보향 그민 여기 여기 사람들은, 금악 사람들은 거의 거기 보내난마씨?(그럼 여기 여기 사람들은, 금악 사람들은 거의 거기 보냈어요?)

양원석 으, 거의 거의. 암놈은 거기 다 올라가고 수놈은 여기 다 금악봉[29].(으, 거의 거의.

27) '목감'은 목장의 소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8) '당학'은 안덕면 동광리 지경에 있는 당오름을 가리킨다.

29) '금악봉'은 한림읍 금악리 지경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금오름', '금악오름'이라고도 부른다.

암놈은 거기 다 올라가고 수놈은 여기 다 금악봉.)

김보향 아니, 암놈이랑 수놈이랑 따로 멕입니까?(아니, 암놈이랑 수놈이랑 따로 먹입니까?

양원석 으, 그렇지.(으, 그렇지.)

김보향 왜?(왜?)

양원석 따로 멕여야지.(따로 먹여야지.)

김보향 아, 따로 멕이는 거?(아, 따로 먹이는 거?)

양원석 으.(으.)

김보향 게민 우리 집이 암놈도 키우고 수놈도 키워.(그럼 우리 집에 암놈도 키우고 수놈도 키워.)

양원석 경허민 이 금악오름에도 올라가곡.(그러면 이 금악오름에도 올라가고.)

김보향 갈랑 보내는 거?(나눠서 보내는 거?)

양원석 으, 갈랑 가야지.(으, 나눠서 가야지.)

김보향 아아.(아아.)

양원석 저 당오름 쪽에는 너르니까 암소들이 많으니까 암소들이 많이 올라가곡.(저 당오름 쪽에는 넓으니까 암소들이 많으니까 암소들이 많이 올라가고.)

김보향 으.(으.)

양원석 부룽이들은 거의가 한 사람에 하나썩이니까 이제 금악오름에 올라가곡.(부룩소들은 거의가 한 사람에 하나씩이니까 이제 금악오름에 올라가고.)

김보향 아. 집이 키우는 게 부룽이는 겅 하지 안헹 하나 정도이고. 암소는 저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아. 집에 키우는 게 부룩소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나 정도이고. 암소는 저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양원석 으. 이제 알곶[30]이엔 헌 디 잇엇어이. 알곶이엔 헌디 이제 이제 무신 골프장?(으. 이제 '알곶'이라고 하는 데 있어. '알곶'이라고 하는 이제 무슨 골프장?)

김보향 으, 골프장 잇수다.(으, 골프장 있습니다.)

양원석 거기 거기도 우리 목장이라나신디, 거기서는 촐을 비어 와낫주. 경허당 거기 목장 풀아 불언. 그때 백억 받안 풀앙 혼 사람이.(거기 거기도 우리 목장이었는데, 거기서는 꼴을 베어 왔었지. 그러다가 거기 목장 팔아 버렸어. 그때 백 억 받고 팔아서 한 사람이.)

김보향 누놧구나.(나눴구나.)

30) '알곶'은 금악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양원석 으. 일 억씩 ᄂᆞ놩 치와 불고.(으. 일 억씩 나눠서 치워 버리고.)

김보향 으.(으.)

양원석 이제 당오름허고 금악오름만 남안.(이제 당오름하고 금악오름만 남았어.)

김보향 지금 삼춘 키우는 거는 축사에서 키우는 거지예?(지금 삼촌 키우는 거는 축사에서 키우는 거지요?)

양원석 우리? 우리 저 아래 저 축사에서. 요샌 거의가 다 축사에서.(우리? 우리 저 아래 저 축사에서. 요새는 거의가 다 축사에서.)

김보향 기지예. 촐도 안 헹오고예, 촐 합니까?(그렇지요. 꼴도 안 해서 오고요, 꼴 합니까?)

양원석 아, 촐 헤야지.(아, 꼴 해야지.)

김보향 기민 지금도 저기 촐 비레 뎅기고 헤여? 아니 지금 하는 사람, 삼춘은 안 가더라도 놉 빌엉이라도.(그럼 지금도 저기 꼴 베러 다니고 해? 아니 지금 하는 사람, 삼촌은 안 가더라도 놉 빌려서라도.)

양원석 아, 이제는 촐 비레 안 뎅겨.(아, 이제는 꼴 베러 안 다녀.)

김보향 기지예.(그렇지요.)

양원석 전부다 기계.(전부다 기계.)

김보향 기계로 헹 예. 기계로 허고 사료로 허고예?(기계로 해서 예. 기계로 하고 사료로 하고요?)

양원석 전부다 기계.(전부다 기계.)

김보향 으.(으.)

양원석 이젠 기계도 기계도 이제 차차차차 개발뒈어 가지고 요 중간에는 ᄉᆞ각벨라라고 헤 가지고 촐 딱 무꺼져 가지고 영 헤영 요만씩허게 나온 것덜 봐나실 거라?(이젠 기계도 기계도 이제 차차차차 개발되어 가지고 요 중간에는 사각벨라라고 해 가지고 꼴 딱 묶여서 이렇게 해서 요만하게 나온 것들 봤었을 거야?)

김보향 예, 예. 쌓아진 것들 이십디다.(예, 예. 쌓인 것들 있습디다.)

양원석 으, 이제 그런 것도 그 시대도 지남서. 이제는 돌아뎅기당 보면은 하양헌 덩어리 봐지지.(으, 이제 그런 것도 그 시대도 지나고 있어. 이제는 돌아다니다가 보면 하얀 덩어리 보이지.)

김보향 맞아.(맞아.)

양원석 이만씩헌 거.(이만한 거.)

김보향 무꺼진 거.(묶은 거.)

양원석 으, 무꺼진 거. 이젠 다 그거라.(으, 묶은 거. 이제는 다 그거야.)

김보향 기민 그건 삼춘 상 오는 거꽈?(그럼 그건 삼촌이 사서 오는 겁니까?)

양원석 으?(으?)

김보향 돈 줭 상 오는 거? 사는 거?(돈 주고 사서 오는 거? 사는 거?)

양원석 뭣을. 촐을?(뭣을. 꼴을?)

김보향 으으.(으으.)

양원석 아, 그 이녁 촐 갈 데 엇고 헌 사람은 사와야 뒈지.(아, 그 자기 꼴 갈 데 없고 한 사람은 사와야 되지.)

김보향 삼춘네는 어떵 허멘?(삼촌네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양원석 아니 난 우리 밧디서 허여 오난. 나 밧들 다 임대줘 둰에 조금 시난에.(아니 난 우리 밭에서 해 오니까. 나 밭은 다 임대줘 두고 조금 있으니까.)

김보향 으. 밧디서 헤 오는 거.(으. 밭에서 해 오는 거.)

양원석 밧디서, 난 기계도 다 싯고 허난.(밭에서, 난 기계도 다 있고 하니까.)

김보향 그거 기계 작동은 누게가 헴서?(그거 기계 작동은 누가 하고 있어?)

양원석 나가.(내가.)

김보향 아, 삼춘이? 아직도?(아, 삼촌이? 아직도?)

양원석 으.(으.)

김보향 아이고 대단허우다.(아이고 대단합니다.)

양원석 그 우리, 우리 저 앞에 동그란 하얀 것들 봐졋지?(그 우리, 우리 저 앞에 동그란 하얀 것들 보였지?)

김보향 예, 예. 봐져수다.(예, 예. 보였습니다.)

양원석 그거 다 나가 헤 온 거.(그거 다 내가 해 온 거.)

김보향 삼춘이 헤 온 거 아이고 대단허우다.(삼촌이 해 온 거 아니고 대단합니다.)

양원석 근디 이제 이젠 저기가 많이 올라불어신게, 비니루영.(그런데 이제 이제는 저기가 많이 올라버렸어, 비닐이랑.)

김보향 으.(으.)

양원석 저거 이제 비어 놩 ᄆᆞ르민 모도는 기계 잇어이.(저거 이제 베어 놓고 마르면 모으는 기계 있어.)

김보향 예, 모도는 기계.(예, 모으는 기계.)

양원석 모도는 기계로 모다 놩.(모으는 기계로 모아 놓고.)

김보향 예.(예.)

양원석 다시 이제 저 무끄는 기계 감는 기계가 잇어이.(다시 이제 저 묶는 기계 감는 기계 있어.)

김보향 그거 다 기계로.(그거 다 기계로.)(웃음)

양원석 으. 게민 그 그거 기계 창 강 돌리면은 이제 그게 기계 속에 들어가멍 들고 감아져, 그게.(으. 그럼 그 그거 기계 차고 가서 돌리면 이제 그게 기계 속에 들어가면서 들고 감겨, 그게.)

김보향 으.(으.)

양원석 들고 감아졍 이빠이[31] 감아짐을 허면은 기계에서 삑 소리 나. 삑 소리 나민 보단[32] 탁 눌름을 허면은 그 우이 그물이 감아져. 이 그 나일론 줄로 멘들아진 베짝헌 그물이 있어. 그 그물이 그게 헌 서너 번 돌아가면은 이제 그 그물 도레기 그차지는 것이 작동허영 탁 치면은 그물이 잘라져.(들고 감겨서 가득 감기면 기계에서 삑 소리 나. 삑 소리 나면 버튼 탁 누르기만 하면 그 위에 그물이 감겨. 이 나일론 줄로 만들어진 질긴 그물이 있어. 그 그물이 그게 한 서너 번 돌아가면은 이제 그 그물 바퀴 잘리는 것이 작동해서 탁 치면 그물이 잘려.)

김보향 으.(으.)

양원석 경허민 요 앞 들름을 허면은 그 기계가 문 똥꾸망으로 들러져. 게민 거 털어져.(그러면 요 앞 들기를 하면 그 기계가 모두 뒤로 들 수 있어. 그럼 그거 떨어져.)

김보향 아, 완전 자동인게. 버튼만 톡톡 눌르민.(아, 완전 자동이네요. 버튼만 톡톡 누르면.

양원석 경헹 털어지면은 이젠 그다음엔 비니루 감는 기계 잇어. 비니루 감는 기계 그정 강 똥꼬망에 대영 요 앞 눌르민 기계 우터레 올라가.(그래서 떨어지면은 이젠 그다음에는 비닐 감는 기계 있어. 비닐 감는 기계 가지고 가서 뒤에 대서 요 앞 누르면 기계 위로 올라가.)

김보향 아.(아.)(웃음)

양원석 경 올라간 다음에 또 보단 눌르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 촐 뭇도 돌고 비니루 감아지는 것도 돌고.(그렇게 올라간 다음에 또 버튼 누르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 꼴 뭇도 돌고 비닐 감기는 것도 돌고.)

김보향 맞아, 맞아.(맞아, 맞아.)

양원석 경허면은 이제 헌 스물네 번 돌면은 네 곱 감아지는 거라, 비니루가.(그러면 이제

31) '이빠이'는 일본어에서 온 말로, '가득'이라는 의미다.

32) '보단'은 일본어에서 온 말로, '버튼'이라는 의미다.

한 스물네 번 돌면은 네 곱 감기는 거야, 비닐이.)

김보향 으.(으.)

양원석 네 곱 다 감아짐을 허면은 이게 딱 정지 뒈어. 게 보단 딱 눌름을 허면 감아진 거 똥꾸망더레 탁 털어져.(네 곱 다 감기면 이게 딱 정지 돼. 그래 버튼 딱 누르면 감긴 거 뒤로 탁 떨어져.)

김보향 맞아, 맞아. 완전 좋수다. 예, 그럼 오늘은 이디까지. 고맙습니다.(맞아, 맞아. 완전 좋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한수리 고기순 어르신의 식생활 도구 이야기

김보향 삼춘 성함이 어떵 됨수꽈?(삼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고기순 고기순.(고기순.)

김보향 예, 몇 년생마씨?(예, 몇 년생입니까?)

고기순 삼십구 년생.(삼십구 년생.)

김보향 우리 그 부엌살림들, 옛날에 밥헤 먹고 헤난 것들 그런 거 물어보젠 영 들엄신디 아까 저기가 정지였잖아예?(우리 그 부엌살림들, 옛날에 밥해 먹고 했던 것들 그런 거 물어보려고 이렇게 묻는데 아까 저기가 부엌이었잖아요?)

고기순 예, 예.(예, 예.)

김보향 정지에 딱 들어오민 정지 안에는 뭐 뭐 잇어나수꽈?(부엌에 딱 들어오면 부엌 안에는 뭐 뭐 있었습니까?)

고기순 으, 저 물항허고. 솟허고.(으, 저 물독하고. 솥하고.)

김보향 으.(으.)

고기순 이제 그 찻장ᄀᆞ추룩 이레 만들아정 그디 낭푼이 ᄀᆞ뜬 거 영. 그릇 ᄀᆞ튼 거 놓는 거 그자. 그런 거.(이제 그 찬장처럼 이리 만들어져서 거기 양푼 같은 거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놓는 거 그저. 그런 거.)

김보향 그 찻장ᄀᆞ추룩 헌 거 옛날에 뭐렌 불러신고예?(그 찬장처럼 한 거 옛날에 뭐라고 불렀나요?)

고기순 (웃음) 거 불르는 거 잘 몰르크라.(그거 부르는 거 잘 모르겠어.)

김보향 생각 안 나? 혹시 살레렌 헤낫수과?(생각 안 나? 혹시 '살레'라고 했었습니까?)

고기순 아, 맞아. 아이고, 잊어불어도 말헤 가믄 알아졈신게. 맞아. 살레, 살레.(아, 맞아. 아이고, 잊어버려도 말해 가면 알겠어. 맞아, 찬장, 찬장.)

김보향 살레예.(찬장요.)

고기순 으. 나무로 영 짜진 살레.(으. 나무로 이렇게 짜인 찬장.)

김보향 맞수다. 우선 솟부터 물어볼게예. 아까 이쪽에 솟이 잇엇덴 헤신디.(맞습니다.

우선 솥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솥이 있었다고 했는데.)

고기순 으.(으.)

김보향 삼춘네는 솟이 멧 개나 잇어나수과?(삼춘네는 솥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고기순 세 개.(세 개.)

김보향 세 개.(세 개.)

고기순 으.(으.)

김보향 으. 하나는 큰, 그니까 크기?(으. 하나는 큰, 그러니까 크기?)

고기순 큰 거, 그다음은 ᄒᆞ나 아래, 또 다음엔 ᄒᆞ꼼, 막 작은 거.(큰 거, 그다음은 하나 아래, 또 다음에는 조금, 아주 작은 거.)

김보향 큰 솟은 얼마나 들어가는 솟이라수꽈?(큰 솥은 얼마나 들어가는 솥이었습니까?)

고기순 우리 벨로 옛날 그 가마솟 ᄀᆞ튼 것도 아니고 이 지끔, 저 중간에 나온 그 아라미솟 그런 거. 게난 우린 그 식구가 막 많아낫주게. 씨아버지, 씨어머니 우리 씨동생이 여섯이라.(우리 별로 옛날 그 가마솥 같은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저 중간에 나온 그 알루미늄 솥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린 그 식구가 아주 많았었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시동생이 여섯이야.)

김보향 으.(으.)

고기순 육 남매.(육 남매.)

김보향 아까 몇 살에 시집왓덴 헷더라?(아까 몇 살에 시집왔다고 했더라?)

고기순 스물다섯에.(스물다섯에.)

김보향 스물다섯에. 예.(스물다섯에. 예.)

고기순 육 남매가 이디 살아나난. 솟은 작진 안허여.(육 남매가 여기 살았었어. 솥은 작지 않아.)

김보향 아, 그믄 삼춘네가 큰아덜이꽈?(아, 그럼 삼촌네가 큰아들입니까?)

고기순 으.(으.)

김보향 큰아덜에 시집온 거?(큰아들에 시집온 거?)

고기순 으.(으.)

김보향 아, 그믄 여기서 다 ᄒᆞᆫ디 산 거?(아, 그럼 여기서 다 같이 산 거?)

고기순 으, 으. 나 시집올 땐 우리 바로 밑에 씨동생 하나만 군인 간 나머진 다 잇어난.(으, 으. 내가 시집올 때는 우리 바로 밑에 시동생 하나만 군인 가서 나머지는 다 있었어.)

김보향 아. 솥에 그때 삼춘 시집완 보난 아르미 솟이꽈, 아니민?(아. 솥에 그때 삼촌 시집와서 보니까 알루미늄 솥입니까, 아니면?)

고기순 아르미 솟.(알루미늄 솥.)

김보향 이미 아르미 솟이 그때 잇어난?(이미 알루미늄 솥이 그때 있었어?)

고기순 으.(으.)

김보향 솟 아까 세 개 잇어나신디.(솥 아까 세 개 있었는데.)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그거 다 아르미 솟?(그거 다 알루미늄 솥?)

고기순 으. 쉐솟은 엇어난.(으. 쇠솥은 없었어.)

김보향 아, 쉐솟 엇어난?(아, 쇠솥은 없었어?)

고기순 으.(으.)

김보향 예. 그민 제일 큰 거에 밥을 헤수꽈, 아니면 중간 거에.(예. 그럼 제일 큰 거에 밥을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 거에.)

고기순 중간에.(중간에.)

김보향 으.(으.)

고기순 으.(으.)

김보향 제일 큰 거는 얼마나 들어가는 솟이라수꽈?(제일 큰 거는 얼마나 들어가는 솥이었습니까?)

고기순 그땐 보리밥 헹 먹을 때주게, 거난 보리쏠 혼 석 뒈나. 우린 식구 하노믄.(그때는 보리밥 해서 먹을 때지, 그러니까 보리쌀 한 석 되나. 우린 식구 많으면.)

김보향 음.(음.)

고기순 밥 한 번 허젠 허믄 보리쏠 한 뒈 더 놘 밥헨난. 뒛박으로 한 뒈 더. (밥 한 번 하려고 하면 보리쌀 한 되 더 넣어서 밥했었어. 되로 한 되 더.)

김보향 음. 뒛박을 한 뒈 더?(음. 되를 한 되 더?)

고기순 으.(으.)

김보향 뒛박이면 우리 쌀.(되면 우리 쌀.)

고기순 한 뒈. 한 뒛박 영헌 거.(한 되. 한 되 이런 거.)

김보향 우리 쏠 뒈는 뒈, 아니면 밥, 우리 부엌에 쓰는 걸로 아니면?(우리 쌀 되는 되. 아니면 밥, 우리 부엌에 쓰는 것으로 아니면?)

고기순 아니.(아니.)

김보향 큰 뒈로?(큰 되로?)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그거 하나?(그거 하나?)

고기순 으.(으.)

김보향 한 번 밥 먹는디?(한 번 밥 먹는데?)

고기순 (웃음)

김보향 (웃음) 식구 잘도 하수다예?(식구 아주 많았네요?)

고기순 상 두 개 페와 노믄 낭, 그때 낭푼이에 퍼당 먹주게. 낭푼이 헤영 한 번에 못 먹어 다. 또 갖다당 먹고 경 헷주기. (상 두 개 펴 놓으면 양, 그때 양푼에 퍼다가 먹지. 양푼 해서 한 번에 못 먹어 다. 또 가져다가 먹고 그렇게 했지.)

박진향 낭푼 하나에 밥 다 서껑 올려놩 먹언마씨? 밥그릇 각자 밥그릇 엇고?(양푼 하나에 밥 다 섞어서 올려놔서 먹었어요? 밥그릇 각자 밥그릇 없고?)

고기순 아니, 아니.(아니, 아니.)

박진향 엇어.(없어.)

김보향 그때는 낭푼 하나에 밥 거령 먹어서예?(그때는 양푼 하나에 밥 떠서 먹었지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맞아.(맞아.)

고기순 겨곡 이디도 고팡이 잇어낫주만은 이제 생각에는 부엌 솟 앚진 바로 옆에 또 하나 잇어낫어.(그리고 여기도 고방이 있었지만 이제 생각에는 부엌 솥 앉힌 바로 옆에 또 하나 있었어.)

김보향 뭐가?(뭐가?)

고기순 고팡이.(고방이.)

김보향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고기순 으.(으.)

김보향 작은 고팡예?(작은 고방요?)

고기순 으. 이디도 잇주만은 이딘 그자 중요헌 것덜 놔난지 몰르지만은 저기는 또 고팡 하난 잇언 이런 문 다, 이런 문 달안에.(으. 여기도 있지만 여긴 그저 중요한 것들 놨었는지 모르지만 저기는 또 고방 하나 있어서 이런 문 다, 이런 문 달아서.)

김보향 으.(으)

고기순 그디 항아리 낭 그 쌀 나둠서 그디서 퍼당 씻엉 밥헤낫주게.(거기 항아리 놔서 그

쌀 놔두고서 거기서 떠다가 씻어서 밥했었지.)

김보향 아, 거기 쌀 보관허는 거?(아, 거기 쌀 보관하는 거?)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막 널르지는 안헷지예? 그 고팡예.(아주 넓지는 않았지요? 그 고방요?)

고기순 예, 예.(예, 예.)

김보향 으, 으. 그믄 거기에 아까 저기 큰 아르미 솟은 석 뒈나 들어가는 거고. 몇 뒈 들어가는 거, 큰 거는?(으, 으. 그럼 거기에 아까 저기 큰 알루미늄 솥은 석 되나 들어가는 것이고. 몇 되 들어가는 거, 큰 것은?)

고기순 석 뒈쯤 들어가긴 헐 거라.(석 되쯤 들어가긴 할 거야.)

김보향 중간 거는?(중간 거는?)

고기순 두 뒈나.(두 되나.)

김보향 두 뒈 들어가는 거.(두 되 들어가는 거.)

고기순 으.(으.)

김보향 족은 거는?(작은 것은?)

고기순 족은 거는 반찬도 헹 먹곡 허난에 벨로 저 한 뒈나. 밥허믄 한 뒈나.(작은 것은 반찬도 해서 먹고 하니까 별로 저 한 되나. 밥하면 한 되나.)

김보향 게믄.(그럼.)

고기순 우리 씨어머니 아프는 땜에 거기서 죽 끓영 먹고. 큰 거는 아니.(우리 시어머니 아프기 때문에 거기서 죽 끓여서 먹고. 큰 것은 아니.)

김보향 으. 큰 건 아니예. 밥헐 때는 아까 중간 거에 헌덴 헨예?(으. 큰 건 아니요. 밥할 때는 아까 중간 것에 한다고 했지요?)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이 큰 솟은 언제 써수꽈?(이 큰 솥은 언제 썼습니까?)

고기순 뭐 허여근에 식구나 더 하곡 뭐 헐 때는 그냥 그디. 벨라 그거는 안 써도 그건 영 앚쳥 놔두곡 경 허연.(뭐 해서 식구가 더 많고 뭐 할 때는 그냥 거기. 별로 그것은 안 써도 그건 이렇게 앉혀 놔두고 그렇게 했어.)

김보향 게믄 삼춘네는 만약 그 뒌장 메주 쒐젠 허면은 메주 쑮을 때 뒌장 일 년에 한 번 담앗잖아예?(그럼 삼촌네는 만약 그 된장 메주 쑨다고 하면 메주 삶을 때 된장 일 년에 한 번 담았잖아요?)

고기순 예.(예.)

김보향 그때는 뭐에 삶아난?(그때는 뭐에 삶았었어?)

고기순 나 온 때는 여기서 뒌장 아니 헤 봔. 나 여기서 우리 일 년 살앗주게, 시집완. 일 년 살안 다른 디 강 살멍 헷주. 여기서는 뒌장 안 꺼네 봔.(내가 왔을 때는 여기서 된장 안 해 봤어. 나 여기서 우리 일 년 살았지, 시집와서. 일년 살고 다른 데 가서 살면서 했지. 여기서는 된장 안 꺼내 봤어.)

김보향 안 헤 봔?(안 해 봤어?)

고기순 으.(으.)

김보향 다른 데서는 어디 살아나수과?(다른 데서는 어디 살아었습니까?)

고기순 우리 아덜 이제 사는 디.(우리 아들 이제 사는 데.)

김보향 아, 거기.(아, 거기.)

고기순 으.(으.)

김보향 게믄 그 집은 정지에 솟이 멧 개라서?(그럼 그 집은 부엌에 솥이 몇 개였어?)

고기순 우리도 그 정지 솟 세 개쯤 앚져져실 거라. 그때는 석유 난로도 잇고.(우리도 그 부엌 솥 세 개쯤 앉혔을 거야. 그때는 석유 난로도 있고.)

김보향 아, 이미?(아, 이미?)

고기순 으.(으.)

김보향 여기 뒈게 빨리 들어왓다예?(여기 되게 빨리 들어왔네요?)

고기순 석유, 석유 난로에 밥허멍 먹어낫어.(석유, 석유 난로에 밥하면서 먹었었어.)

김보향 석유 난로에 밥허멍 먹어난예?(석유 난로에 밥하면서 먹었었어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아, 기라? 빨리 헤신게. 삼춘 시집오기 전에도 무쉐솟 안 써 봅디가?(아, 그래요? 빨리 했네요. 삼촌 시집오기 전에도 무쇠솥 안 써 봤습니까?)

고기순 뭐?(뭐?)

김보향 무쉐솟.(무쇠솥.)

고기순 무쉐솟은 안 써 봔.(무쇠솥은 안 써 봤어.)

김보향 시집오기 전이도?(시집오기 전에도?)

고기순 으.(으.)

김보향 친정에서도?(친정에서도?)

고기순 으. 아, 친정에서는 썻지.(으. 아, 친정에서는 썼지.)

김보향 친정에선 썬예?(친청에서는 썼어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경 여기 왕 보난 다 아르미 솟 놔십디가?(그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알루미늄 솥 놓였습니까?)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아, 삼춘 여기서 왕 떡도 안 헤 봔?(아, 삼촌 여기서 와서 떡도 안 해 봤어?)

고기순 제사 한 번 잇으니깐 떡은 헤 봔.(제사 한 번 있으니까 떡은 해 봤어.)

김보향 떡은 헤 봔. 그때도.(떡은 해 봤어. 그때도.)

고기순 나가 안 혀고 씨어머니가 시리 떡 치는 거.(내가 안 하고 시어머니가 시루 떡 찌는 거.)

김보향 맞아, 맞아, 맞아예.(맞아, 맞아, 맞아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시리떡 치는 거예?(시루떡 찌는 거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잇당 물어보쿠다예. 게믄 아까 솟은 세 개 잇고, 들어왕 이 펜이는 아까 오른펜이는 물항이 잇어서예?(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솥은 세 개 있고, 들어와서 이 편에는 아까 오른편에는 물독이 있었지요?)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물항은 어만이 큰 거라수꽈? 허벅 몇 개 물이 들어간?(물독은 얼만큼 큰 거였습니까? 허벅 몇 개 물이 들어갔어?)

고기순 우리 다섯 개 더 들어가.(우리 다섯 개 더 들어가.)

김보향 다섯 개 더 들어가?(다섯 개 더 들어가?)

고기순 으. 경헤도 물이 작아. 식구 많아 노니까. (웃음) 매일, 매일 물 길어 와야 뒈어.(으. 그래도 물이 적어. 식구 많으니까. 매일, 매일 물 길어 와야 돼.)

김보향 아, 물 길어. 삼춘이 물 길어 완, 시어머니가 물 길어 완마씨?(아, 물 길어. 삼촌이 물 길어 왔어, 시어머니가 물 길어 왔어요?)

고기순 나가.(내가.)

김보향 삼춘이 길어 완마씨?(삼촌이 길어 왔어요?)

고기순 나하고 씨누이 하나 잇이난 씨누니허고 나가 물 길어 완.(나하고 시누이 하나 있으니까 시누이하고 내가 물 길어 왔어.)

김보향 둘이 ᄀᆞ치 간, 물 길러?(둘이 같이 갔어, 물 길러?)

고기순 둘이 ᄀᆞ치도 아니.(둘이 같이도 아니.)

김보향 허벅이 하나 잇엇수과?(허벅이 하나 있었습니까?)

고기순 으.(으.)

김보향 게믄 여기서 물 길레 가젠 허민 어디 가난마씨?(그럼 여기서 물 길러 가려고 하면 어디 갔었어요?)

고기순 요디 바닷가에 물쌀 때. 썰물에만 갓주. 강 길어 와야 뒈주게.(요기 바닷가에 물썰 때. 썰물에만 갔지. 가서 길어 와야 되지.)

김보향 음. 가차우꽈?(음. 가깝습니까?)

고기순 이기 가믄 이디 철공소 잇잖아. 바다에.(여기 가면 여기 철공소 있잖아. 바다에.)

김보향 예.(예.)

고기순 거기.(거기.)

김보향 아, 막 멀지 안허우다예.(아, 아주 멀지 않네요.)

고기순 으, 멀진 안헤여.(으, 멀진 않아.)

김보향 하루에 물을 멧 번이나 질어와수꽈?(하루에 물을 몇 번이나 길어왔습니까?)

고기순 만약에 물 길 때 뒈믄 세 번, 네 번은 길어야주게.(만약에 물 길 때 되면 세 번, 네 번은 길어야지.)

김보향 하루에?(하루에?)

고기순 으.(으.)

김보향 아침에 물 질레 간? 저녁에 물 질레 간? (아침에 물 길러 갔어? 저녁에 물 길러 갔어?)

고기순 물썰, 쌀 때만 가니까 건 아침이도 갈 수 잇고, 저녁에도 갈 수 잇고.(물썰, 썰 때만 가니까 그건 아침에도 갈 수 있고, 저녁에도 갈 수 있고.)

김보향 그 날에 따랑예?(그 날에 따라서요?)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예, 예. 게민 물항은 정지에 멧 개 잇어수꽈?(예, 예. 그럼 물독은 부엌에 몇 개 있었습니까?)

고기순 하나.(하나.)

김보향 하나. 하나. 그거 다섯 뒈 들인 거예?(하나. 하나. 그거 다섯 되 들이인 거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다섯 허벅 드는 정도예?(다섯 허벅 드는 정도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물항 옆이 뭐가 잇어수꽈?(물독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기순 물항 옆이는 뭣 없어.(물독 옆에는 뭐 없어.)

김보향 게믄 살레는 어느 펜이 잇어난 거라?(그럼 찬장은 어느 편에 있었던 거야?)

고기순 살레는 요 안쪽에 잇어난 거 같애. 요 저 찻방[33], 찻방 그 영헌 그디.(찬장은 요 안쪽에 있었던 거 같아. 요 저 '찻방', '찻방' 그 이러한 거기.)

김보향 아, 여기?(아, 여기?)

고기순 으, 찻방이엔 헌 디.(으, '찻방'이라고 하는 데.)

김보향 찻방 신발 벗는 디가 아니고예?('찻방' 신발 벗는 데가 아니고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믄 살레는 뭐로 만들어진 거?(그럼 찬장은 뭐로 만들어진 거?)

고기순 나무로. 나무로 만들아져 잇언. 이런 나무로.(나무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 이런 나무로.)

김보향 어떤 모양이라수꽈? 영 설명헤 봅서.(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고기순 영헤연에 허연 지금 신발장 ᄀᆞ추룩 칸 영 헤진 거.(이렇게 해서 지금 신발장 같이 칸 이렇게 된 거.)

김보향 음. 몇 칸으로 뒈엉 잇어난마씨?(음. 몇 칸으로 되어 있었어요?)

고기순 세 칸인가?(세 칸인가?)

김보향 세 칸 뒈어 잇어난예.(세 칸 되어 있었어요.)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여기 우에 가운데 밑에.(여기 위에 가운데 밑에.)

고기순 으, 중간.(으, 중간.)

김보향 밑에 그믄 거기에 살레에는 뭐 뭐 놔나수꽈?(밑에 그럼 거기에 찬장에는 뭐 뭐 있었습니까?)

고기순 옛날에는 저 뭐옌 허나? 그 우굼. 밥허는 우굼.(옛날에는 저 뭐라고 하지? 그 밥주걱. 밥하는 밥주걱.)

김보향 음.(음.)

고기순 또 국 거리는 그 나무로 만든 거, 그거.(또 국 뜨는 그 나무로 만든 거, 그거.)

33) '찻방'은 마루와 부엌 사이에 있는 작은 방을 말한다.

김보향 국자. 남국자?(국자. 나무 국자?)

고기순 으. 그런 거 이제 수제 ᄀᆞ튼 거 이제 그런 거주게.(으. 그런 거 이제 수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지.)

김보향 수저도 잇고.(수저도 있고.)

고기순 으. 사발 ᄀᆞ튼 것도 영 어펑 놔두고.(으. 사발 같은 것도 이렇게 엎어서 놔두고.)

김보향 사발도예?(사발도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게난 우리 그릇 씻은 거, 정지에서 그릇 씻엉 가졍 왕 여기 영 놔두는 거라?(그러니까 우리 그릇 씻은 거, 부엌에서 그릇 씻어서 가지고 와서 여기 이렇게 놔두는 거야?)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이 그 살레 보난 밑에는, 밑에는 우에는 다 나무로 요론 튼튼헌 나무로 짜졍 잇인디 밑에는 그냥 튼튼헌 낭 아닙디다.(이 그 찬장 보니까 밑에는, 밑에는 위에는 다 나무로 이런 튼튼한 나무로 짜여서 있는데 밑에는 그냥 튼튼한 나무 아닙디다.)

고기순 아니.(아니.)

김보향 뭐로 헨?(뭐로 했어?)

고기순 그냥 나무로 영 헹 세와진 거 같은데?(그냥 나무로 이렇게 세워진 거 같은데?)

김보향 혹시 까는 거 까는 거. 밑에 쪽에 영 까는 거?(혹시 까는 거 까는 거, 밑에 쪽에 이렇게 까는 거?)

고기순 까는 거 없어. 그냥 나무로 영 영 헤엿젠 헨게.(까는 거 없어. 그냥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김보향 거기 대나무로 헹 영 만들어난 건 생각 안 나멘?(거기 대나무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 생각 안 나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모르커라예. 어짯든 세 칸예?(모르겠어요. 어쨌든 세 칸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게믄 그릇도 어퍼 놓고.(그럼 그릇도 엎어 놓고.)

고기순 으.(으.)

김보향 거기에 다른 것도 보관헤 놘, 살레에? 아니마씨?(거기에 다른 것도 보관해 놨어요, 찬장에? 아니요?)

고기순 (웃음)

김보향 (웃음) 그믄 정지에 아까 물항 하나 잇고. 정지에 또 뭐 출레[34] 단지든지 그런 거 엇어나수꽈?(그럼 부엌에 아까 물독 하나 있고. 부엌에 또 뭐 '출레' 단지든지 그런 거 없었습니까?)

고기순 저 솔잎 ᄀᆞ튼 거 헤여 오믄게, 땔감으로 그 옆이 놔둬야주게.(저 솔잎 같은 거 해 오면, 땔감으로 그 옆에 놔둬야지.)

김보향 아, 솔잎 ᄀᆞ튼 거.(아, 솔잎 같은 거.)

고기순 으.(으.)

김보향 단지는마씨?(단지는요?)

고기순 아, 단지 이 안에 단지 엇어나실 거라.(아, 단지 이 안에 단이 없었을 거야.)

김보향 단지 안 놔난마씨?(단지 안 놨어요?)

고기순 으. 단지 생각 안 나.(으. 단지 생각 안 나.)

김보향 게믄 멜첫이나 자리젓 같은 거 담은 거는 어디 보관헤나수꽈?(그럼 멸치젓이나 자리젓 같은 거 담은 거는 어디 보관했었습니까?)

고기순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안 헤 봔. 그런 거 아니.(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안 해 봤어. 그런 거 아니.)

김보향 그런 거 안 헤 봔?(그런 거 안 해 봤어?)

고기순 그런 거 엇어낫어.(그런 거 없었었어.)

김보향 무사 안 담아 먹어나수꽈?(왜 안 담고 먹었습니까?)

고기순 으.(으.)

김보향 어떵?(어떻게?)

고기순 우리 씨어머니가 잘 우리 씨아버지가 바당에 뎅기난. 엿날부터 고기 허여근에 허영 뎅겨나난 그런 거 잘 안 헤난 거 같애. 저 완 보난 항아리에 옛날엔 고등어 대가리. 몸뚱아리는 저 고기 니껍 허젠 다 허여근에 고기 니껍 허곡. 대가리만 막 소곰에 절영 놔뒀당. 그거 꺼내엉, 이제 쌀 씻어난 뜬물에 컷당 반찬으로 지젼 먹어낫주게.(우리 시어머니가 잘 우리 시아버지가 바다에 다니니까. 옛날부터 고기 해서 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 잘 안 했던 거 같아. 저 와서 보니까 항아리에 옛날에는 고등어 대가리. 몸뚱아리는 저 고기 미끼 하려고 다 해서 고기 미끼 하고. 대가리만 마구 소금에 절여서 놔뒀다가. 그거 꺼내서, 이제 쌀 씻었던 뜨물에

34) '출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이나 젓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담갔다가 반찬으로 지져서 먹었었지.)

김보향 오, 고등어 대가리.(오, 고등어 대가리.)

고기순 으. 막 맛 좋아. 게도.(으. 아주 맛 좋아. 그래도.)

고기순 (웃음)

김보향 맛잇어시크라.(맛있었겠네요.)

고기순 그건 헨 먹어난. 그 항아린 잇인 거 같애.(그거 해서 먹었었어. 그 항아리는 있는 것 같아.)

김보향 아. 소금에 담아 논 거예?(아. 소금에 담아 논 거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믄 그 항아리는 어디 보관헤낫어?(그럼 그 항아리는 어디 보관했었어?)

고기순 부엌 안에 그 찻방 옆에 잇어나실 거라, 몰라.(부엌 안에 그 '찻방' 옆에 있었을 거야, 몰라.)

김보향 음. 그믄 장이랑 우리 뒌장이랑 물장, 간장 같은 건 어디 보관헤나수꽈?(음. 그럼 장이랑 우리 된장이랑 간장, 간장 같은 건 어디 보관했었습니까?)

고기순 거 밖에.(그거 밖에.)

김보향 밖에.(밖에.)

고기순 으.(으.)

김보향 거기 보관허는 디를 뭐렌 골아마씨?(거기 보관하는 데를 뭐라고 말해요?)

고기순 장항뒤, 장항. 장항뒤.(장독대, 장독. 장독대.)

김보향 장항뒤. 장항뒤렌 헐 거예?(장독대. 장독대라고 할 거요?)

고기순 으, 장항뒤.(으, 장독대.)

김보향 거기 항은 멧 개나 잇어난 거 닮수과?(거기 항아리는 몇 개나 있었던 거 같습니까?)

고기순 건, 건 몰라.(그건, 그건 몰라.)

김보향 몰라예.(몰라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어쨋든.(어쨌든.)

고기순 딱 시집완 일 년벳기 안 살고 허니까. 일 년 살안에 딴 디 나간 살고 허니까.(딱 시집와서 일 년밖에 안 살고 하니까. 일 년 살아서 딴 데 나가서 살고 하니까.)

김보향 그믄 이 집 아니어도 좋수다. 삼춘 젤 오래 살앗던 게 아까 아들이랑 바꾼 집. 그 집이라예?(그럼 이 집 아니어도 좋습니다. 삼촌 제일 오래 살았던 게 아까 아들이랑

바꾼 집. 그 집이지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여기 일 년 살앙 그냥 거기.(여기 일 년 살고 그냥 거기.)

고기순 아니. 여기 일 년 살안 남의 집 빌언. 일 년 살다가 이젠 우리 아버지네가 집을 짓어주난 글로 간.(아니. 여기 일 년 살고 남의 집 빌렸어. 일 년 살다가 이젠 우리 아버지네가 집을 지어주니까 그리로 갔어.)

김보향 그게 지금 아덜 사는 집?(그게 지금 아들 사는 집?)

고기순 으.(으.)

김보향 으. 거기 생각하면 삼춘 거기에서도 뒌장 간장 안 담아 먹언?(으. 거기 생각하면 삼촌 거기에서도 된장 간장 안 담가 먹었어?)

고기순 거기 살 때는 우리도 우리 신랑이 배 헤나니까.(거기 살 때는 우리도 우리 신랑이 배 했었으니까.)

김보향 아, 삼춘네 배 허는 집?(아, 삼촌네 배 하는 집?)

고기순 으. 배 헤나니까 이제 장은 담앗지.(으. 배 했었으니까 이제 장은 담갔지.)

김보향 그지.(그지.)

고기순 막 큰 항아리 헤근에 항아리 하나씩 콩 다섯 말씩 여섯 말씩. 으, 그추룩 헨 담아난.(아주 큰 항아리 해서 항아리 하나씩 콩 다섯 말씩, 여섯 말씩. 으, 그처럼 해서 담갔었어.)

김보향 그믄 장항뒤 그 항 담은 게 한 멧 개나 잇어나수꽈?(그럼 장독대 그 항아리 담은 게 한 몇 개나 있었습니까?)

고기순 장항뒤 항 막 큰 것이 두 개. 우리 신랑 육지 갓단에 사 온 것이 두 개고, 또 ᄒᆞ꼼썩헌 것이 한 서너니 개 뒈어.(장독대 항아리 아주 큰 것이 두 개. 우리 신랑 육지 갔다가 사 온 것이 두 개고, 또 조그마한 것이 한 서너네 개 돼.)

김보향 아, 저기 육지 강 항을 상 와낫구나.(아, 저기 육지 가서 항아리를 사서 왔었구나.)

고기순 으.(으.)

김보향 배 탕 강 뭐 헐 때.(배 타고 가서 뭐 할 때.)

고기순 으.(으.)

김보향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고기순 고기 허레 갓단에 산 온 거지.(고기 하러 갔다가 사서 온 거지.)

김보향 그 장 담아 먹젠 허민 어떵 헤나수꽈? 장 담는 걸 ᄒᆞ꼼 ᄎᆞᄎᆞᄎᆞ 골아 줍서.(그

장 담가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장 담그는 걸 조금 차차차 말해 주세요.)

고기순 콩 사다근에 메주 삶아. 콩 삶아근에 그때는 막 발로 밟아. (웃음) 발로 발라근에 손으로 만들안. 이제 찝 갈아근에 영 헤영 나뒀다근에 이제 뜨면은 장 담아낫주기.(콩 사다가 메주 삶아. 콩 삶아서 그때는 마구 발로 밟아. 밟아서 손으로 만들어. 이제 짚 깔아서 이렇게 해서 놔뒀다가 이제 뜨면 장 담갔었지.)

김보향 게믄 콩 숢는 거는 언제 콩 숢앗어?(그럼 콩 삶는 것은 언제 콩 삶았어?)

고기순 콩 삶을 때? 아유, 가을에 숢으나, 어느 덜인지 잘 몰라, 나도. 이제 하도 오레노난.(콩 삶을 때? 아휴, 가을에 삶거나, 어느 달인지 잘 몰라, 나도. 이제 너무 오래니까)

김보향 맞아, 맞아예. 그믄예 부엌에 아까 고팡이 잇어낫잖아예. 쏠 보관허는.(맞아, 맞아요. 그럼 부엌에 아까 고방이 있었잖아요. 쌀 보관하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 고팡 문 열어 보난 항이 멧 개 이수꽈?(그 고방 문 열어 보니까 항아리 몇 개 있습니까?)

고기순 항, 도로무깡 한 멧 개허고, 항아리 혼 네 개나 다섯 개쯤.(항아리, 드럼통 한 몇 개하고, 항아리 한 네 개나 다섯 개쯤.)

김보향 허, 거믄 거기에 다 쏠?(허, 그럼 거기에 다 쌀?)

고기순 으, 엿날엔 이디 우리 어머니네도 막 부자옌 소문 나낫주게.(으, 옛날에는 여기 우리 어머니네도 아주 부자라고 소문 났었지.)

김보향 으, 으.(으, 으.)

고기순 경허난.(그러니까.)

김보향 그니까 아까 도루무깡이랑 잇어난 건 이 정지 고팡을 얘기헴지예?(그러니까 아까 드럼통이랑 있었던 거 이 부엌 고방을 얘기허는 거지요?)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그믄 거기에도 경 보관허고.(그럼 거기에도 그렇게 보관하고.)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여기도 막 하신게.(여기도 아주 많았네요.)

고기순 여기는 벨라 막 뭐 보관헌 거는 엇어. 그냥 고팡이엔 말만 헤영 이디 잇어낫주.(여기는 별로 마구 뭐 보관한 거는 없어. 그냥 고방이라고 말만 해서 여기 있었지.)

김보향 아, 게민 아예 쏠 ᄀᆞ튼 거?(아, 그럼 아예 쌀 같은 거?)

고기순 으, 쏠ᄀᆞ튼 건 저기만.(으, 쌀 같은 건 저기만.)

김보향 저기만예?(저기만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예, 예. 도로무깡 두 개에 아까 항 한 네 개정도.(예, 예. 드럼통 두 개에 아까 항아리 한 네 개 정도.)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고팡에 잇어낫고예. 예, 예. 쌀 완전 하영 보관헤나신게.(고방에 있었고요. 예, 예. 쌀 아주 많이 보관했었네요.)

고기순 예.(예.)

김보향 게믄 밥헤 먹젠 허민 그디 들어강 뭐로 쌀 거릴 거꽈?(그럼 밥해 먹으려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뭐로 쌀 뜰 겁니까?)

고기순 뒛박으로.(되로.) (웃음)

김보향 뒛박으로. 그거 뒛박이렌 불런, 뒈왁세기엔 불런?(되로. 그거 '뒛박'이라고 불렀어, '뒈왁세기'라고 불렀어?)

고기순 뒈왁세기[35].('뒈왁세기')

김보향 뒈왁세기예. 쌀 거리젠.(식되요. 쌀 뜨려고.)

고기순 으, 으. 요만한 뒈왁세기.(으, 으. 요만한 식되.)

김보향 뒈왁세기로 쌀 거렷수다예. 뭐에 거릴 거?(식되로 쌀 떴습니다. 뭐에 뜰 거?)

고기순 낭푼이에.(양푼에.)

김보향 낭푼이에.(양푼에.)

고기순 (웃음)

김보향 거령 그믄 어떵 헤야 뒈어?(떠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기순 낭푼이에 씻어근에, 낭푼이체 씻어근에 솟에 놔야주게.(양푼에 씻어서, 양푼째 씻어서 솥에 넣어야지.)

김보향 삼춘 그때는 그 낭푼이가 큰 게 쏠 씻는?(삼촌 그때는 그 양푼이 큰 것이 쌀 씻는?)

고기순 요만헌, 요만이.(요만한, 요만큼.)

김보향 으, 요만이헌 거예?(으, 요만한 거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삼춘은 어릴 때 장테 같은 거에는 안 헤 봐수꽈?(삼촌은 어릴 때 장태 같은 것에는

35) '뒈왁세기'는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작은 그릇을 말한다. 표준어의 '식되'에 대응한다.

안해 봤습니까?)

고기순 뭐?(뭐?)

김보향 장테.(장태.)

고기순 장테?(장태?)

김보향 으.(으.)

고기순 아, 옛날 장테.(아, 옛날 장태.)

김보향 으, 옛날 장테.(으, 옛날 장태.)

고기순 장테엔, 그런 건 안 써 봔.(장태에는, 그런 건 안 써 봤어.)

김보향 안 써 봔.(안 써 봤어.)

고기순 으.(으.)

김보향 장테 뭐 그릇 씻을 때도 장테 안 써 봔?(장태 뭐 그릇 씻을 때도 장태 안 써 봤어?)

고기순 아니, 아니.(아니, 아니.)

김보향 그믄 이미 양푼이가 다 나온 거예?(그럼 이미 양푼이 다 나온 거요?)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그릇 씻을 때는 뭐에 놩 그릇 씻어수꽈?(그릇 씻을 때는 뭐에 놔서 그릇 씻었습니까?)

고기순 것도 낭푼이에.(그것도 양푼에.)

김보향 낭푼이에, 으. 그믄 이젠 이젠 그거에 쏠 씻엉 밥헐 거엿고.(양푼에, 으. 그럼 이젠 이젠 그거에 쌀 씻어서 밥할 거였고.)

고기순 으.(으.)

김보향 이제 밥 다 됀난 밥을 혼 번 추려보쿠다.(이제 밥 다 되니까 밥을 한 번 차려보겠습니다.)

고기순 어이구, 나.(어이쿠, 나.) (웃음)

김보향 (웃음) 밥 한 번 추려보쿠다예. 밥상.(밥 한 번 차려보겠습니다. 밥상.)

고기순 으.(으.)

김보향 밥상 놧지예.(밥상 놨지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밥상 둥근 거랏수꽈, 네모.(밥상 둥근 거였습니까, 네모.)

고기순 네모난 거.(네모난 거.)

김보향 네모난 거. 뭐로 만든 거?(네모난 거. 뭐로 만든 거?)

고기순 나무로 만든 거.(나무로 만든 거.)

김보향 나무로 만든 네모난 상에.(나무로 만든 네모난 상에.)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뭐 뭐 올라가수과, 밥상에?(뭐 뭐 올라갔습니까, 밥상에?)

고기순 밥 낭푼이.(밥 양푼.)

김보향 으.(으.)

고기순 저 국 거린 국사발. 막상 헷자 김치. 여긴 바다에 다니난 고기반찬이나 ᄒᆞᆫ 땐 고기반찬.(저 국 뜬 국사발. 막상 해도 김치. 여기는 바다에 다니니까 고기반찬이나 했을 때는 고기반찬.)

김보향 고기는 생선 얘기허는 거라예?(고기는 생선 얘기하는 거지요?)

고기순 으, 으. 생선 그런 ᄀᆞ뜬 거. 이제 또 우리 씨아버지가 이제 고기 ᄀᆞ튼 거 허민 이제 옛날엔 모도리가 하영 나낫주게.(으, 으. 생선 그런 같은 거. 이제 또 우리 시아버지가 이제 고기 같은 거 하면 이제 옛날에 돌묵상어가 많이 났었지.)

김보향 모도리가 뭐꽈?('모도리'가 뭡니까?)

고기순 상어.(상어.)

김보향 아.(아.)

고기순 어, 그런 거 허여당 사시미 썰엉이나 먹엉. 반찬 경 벨라 엇어. 뒌장이나 헹 놓곡.(어, 그런 거 해다가 회 썰어서 먹고. 반찬 그렇게 별로 없어. 된장이나 해서 놓고.)

김보향 아, 근데 여기는 바다에 갓닥 와시믄 생선은 완전 많이 먹어시큰게.(아, 그런데 여기는 바다에 가서 오면 생선은 많이 먹었겠네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고기는예.(고기는요.)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아. 좋은 거지 반찬. 다른 데는 그것도 없잖아. 그냥 풀때기랑 뒌장밖이.(아. 좋은 거지 반찬. 다른 데는 그것도 없잖아. 그냥 풀때기랑 된장밖에.)

고기순 뒌장허고 김치허곡게. 뒌장국 어떤 땐 고기국. 경 안 허민 뒌장쿡. 이제 낭푼이에 밥 퍼당 우리 식구 하불믄. 아, 국은 무사사 경 많이 먹는디. 씨아주방덜이 국 한 번씩만 먹지 안허영 다 두 번씩.(된장하고 김치하고. 된장국 어떤 때는 고깃국. 그렇지 않으면 된장국. 이제 양푼에 밥 퍼다가 우리 식구 많으면. 아, 국은 왜

그렇게 많이 먹는지. 시아주버니들 국 한 번씩만 먹지 않고 다 두 번씩.) (웃음)

김보향 (웃음) 그믄 아까 밥은 낭푼이에 거려서예?(그럼 아까 밥은 양푼에 떴지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국은?(국은?)

고기순 국은 사발 따로따로 국사발에 헤여근에.(국은 사발 따로따로 국사발에 해서.)

김보향 다 개인이 따로따로.(다 개인이 따로따로.)

고기순 으.(으.)

김보향 예, 예. 게믄 가운디 낭푼이.(예, 예. 그럼 가운데 양푼.)

고기순 밥 낭푼이.(밥 양푼.)

김보향 밥 낭푼 놓고 가운디 또 반찬도 가운디 놔시쿠다예.(밥 양푼 놓고 가운데 또 반찬도 가운데 놨겠네요.)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가운디 놓고 아까 궤기, 국사발 다 따로따로 놓고?(가운데 놓고 아까 고기, 국사발 다 따로따로 놓고?)

고기순 으.(으.)

김보향 숟가락 젓가락은 그냥.(숟가락 젓가락은 그냥.)

고기순 숟가락 젓가락도게 다 따로따로.(숟가락 젓가락도 다 따로따로.)

김보향 으. 게믄 그때 낭푼은 어떤 낭푼이라수꽈?(으. 그럼 그때 양푼은 어떤 양푼이었습니까?)

고기순 꺼멍허여근에 그 스뎅도 아니고.(거메서 그 스테인리스도 아니고.)

김보향 으.(으.)

고기순 뭣도 아닌 낭푼이라, 그땐. 이제 생각허믄.(뭣도 아닌 양푼이야, 그때는. 이제 생각하면.)

김보향 거멍헤?(거메?)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저기 은색 나는 그런 아레미 낭푼이 아니고? 그거 아니?(저기 은색 나는 그런 알루미늄 양푼 아니고? 그거 아니?)

고기순 그거라도 영 우린 줄 긋어진 거 같애. 낭푼이에 이렇게 이렇게.(그거라도 이렇게 우린 줄 그어진 거 같아. 양푼에 이렇게 이렇게.)

김보향 으, 으.(으, 으.)

고기순 아레미 낭푼에 영 영 줄 긋어진 거. 스뎅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알루미늄 양푼에 줄 그어진 거. 스테인리스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김보향 스뎅도 아니고예. 국사발은 어떤 사발이라수꽈?(스테인리스도 아니고요. 국사발은 어떤 사발이었습니까?)

고기순 옛날에 저 사기 사발 영.(옛날에 저기 사기 사발 이렇게.)

김보향 옛날에 그 그 사기 사발 써난?(옛날에 그 그 사기 사발 썼었어?)

고기순 으.(으.)

김보향 아, 그거 써난예?(아, 그거 썼었지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국사발은 그런 거엿고.(국사발은 그런 거였고.)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거 쓰당 밥사발도 그런 사기 사발이 잇지 안허연?(그거 쓰다가 밥사발도 그런 사기 사발이 있지 않아?)

고기순 예, 예. 잇어낫주게.(예, 예. 있었지.)

김보향 잇어난예?(있어지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 밥사발은 안 써 봅니, 안 써 봐수꽈?(그 밥사발은 안 써 봅니, 안 써 봤습니까?)

고기순 쓰단에 다 어떵 우리 버려져실 거라, 어떵.(쓰다가 다 어떻게 우리 버렸을 거야, 어떻게.)

김보향 으.(으.)

고기순 잇어나신디.(있었는데.)

김보향 이젠 엇어예?(이젠 없지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아깝다.(아깝다.)(웃음)

고기순 나 우굼도 하나, 밥 푸는 우굼도 하나 놔둬신디 누게사 가져 가신디 가져가 불언.(나 밥자도 하나, 밥 푸는 밥자도 하나 놔뒀었는데 누구가 가지고 갔는지 가져가 버렸어.)

김보향 놋우금.(놋밥자.)

고기순 으.(으.)

김보향 아이고.(아이고.)

고기순 (웃음)

김보향 아이고. 우리 식게날 ᄀᆞ튼 땐 우리 밥그릇 국그릇은 따로 쓰잖아예?(아이고. 우리 제삿날 같은 때는 우리 밥그릇 국그릇 따로 쓰잖아요?)

고기순 예.(예.)

김보향 올릴 때예.(올릴 때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때 밥그릇, 국그릇은 어떤 거라수꽈?(그때 밥그릇, 국그릇은 어떤 거였습니까?)

고기순 우리 제사 안 헤. 우리 씨어머니네 신 때 제사 안 헤 봔. 우리 씨아버지네가 사형젠디. 우리 씨할아버지도 사형젠디 막둥이라예. 우리 씨할아버지가 막둥이난 옛날엔 큰아덜만 조손이엔 헹.(우리 제사 안 해. 우리 시어머니네 있을 때 제사 안 해 봤어. 우리 시아버지네가 사 형제인데. 우리 시할아버지도 사형제인데 막내예요. 우리 시할아버지가 막내니까 옛날에는 큰아들만 자손이라고 해서.)

김보향 맞아.(맞아.)

고기순 세간 재산도 거기만 주고.(세간 재산도 거기만 주고.)

김보향 맞아.(맞아.)

고기순 거기서만 제사 헤나난. 나 이디 완 이 시집에 완 제사 안 지내 봔.(거기에서만 제사 했었으니까. 나 여기 와서, 이 시집에 와서 제사 안 지내 봤어.)

김보향 안 헤봔예.(안 해 봤어요.)

고기순 음.(음.)

김보향 으, 기구나. 아까 한 번은 헤 봔덴. 떡 헤 봣덴 허멍?(으, 그렇구나. 아까 한 번은 해 봤다고. 떡 해 봤다고 하면서?)

고기순 명질 때. 으, 명질 때.(명절 때. 으, 명절 때.)

김보향 게믄 명질 때도 밥이랑 국은 올릴 거 아니라?(그럼 명절 때도 밥이랑 국은 올릴 거 아니야?)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때는.(그때는.)

고기순 그때도 그 사기 사발에.(그때도 그 사기 사발에.)

김보향 게난 놋그릇 안 쓰는 집은 옛날에는 다 그런 사기 사발에 올렷어예?(그러니까 놋그릇 안 쓰는 집은 예날에는 다 그런 사기 사발에 올렸지요?)

고기순 예, 예, 예. 놋그릇 안 써 봔.(예, 예, 예. 놋그릇 안 써 봤어.)

김보향 아. 사기 사발 밥그릇에 우리 국 떠 먹는.(아. 사기 사발 밥그릇에 우리 국 떠 먹는.)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그런 사기 사발 국그릇에 올렷엇던 거.(그런 사기 사발 국그릇에 올렸었던 거.)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숟가락 젓가락도 놋그릇 엇이 그냥.(숟가락 젓가락도 놋그릇 없이 그냥.)

고기순 숟가락 젓가락은 숟가락은 놋수저 셔나신디 엇어. 것도 다 도망간.(숟가락 젓가락은 숟가락은 놋수저 있었는데 없어. 그것도 다 도망갔어.)

김보향 그건 잇언? 그거는 놋수저로 써나고.(그건 있었어? 그거는 놋수저로 썼었고.)

고기순 으.(으.)

김보향 예, 예. 접시 ᄀᆞ튼 거는 어떤 거?(예, 예. 접시 같은 거는 어떤 거?)

고기순 것도 다 사기 접시.(그것도 다 사기 접시.)

김보향 옛날에 식게 때 올려난 거?(옛날에 제사 때 올렸던 거?)

고기순 으.(으.)

김보향 사기 접시가 그 옛날 모양으로 헹 잇어난 것들?(사기 접시가 그 옛날 모양으로 해서 있었던 것들?)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그런 거 썻던 거예?(그런 거 썼던 거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삼춘 이번엔 한 번 떡을 헤 보쿠다. 떡, 떡 할 때 떡 무슨 떡 그때 시어머니가 헤난 거 같수과?(삼촌 이번에는 한번 떡을 해 보겠습니다. 떡, 떡 할 때 무슨 떡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거 같습니까?)

고기순 우리 저 좁쏠 골아다근에 허곡, 쌀 골아다근에 시리떡 헤여. 풋 삶아근에 방엣간에 강 쌀 골아다근에 그 시리에 놔근에 시리에서 쪄난 거.(우리 저 좁쌀 갈아다가 하고, 쌀 갈아다가 시루떡 해. 팥 삶아서 방앗간에 가서 쌀 갈아다가 그 시루에 놔서 시루에서 쪘던 거.)

김보향 그거 생각나멘?(그거 생각나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시리에서 쪄난 거예?(시루에서 쪘던 거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때 시리는 어떤 시리라신고예?(그때 시루는 어떤 시루였나요?)

고기순 까망헨에 영 둥그렁헹 이만허믄 이만이헌 거.(까매서 이렇게 둥글게 이만하면 이만한 거.)

김보향 까만색이라수꽈?(까만색이었습니까?)

고기순 예. 까망한색.(예. 까만색.)

김보향 그거 지세시리[36]렌 헙디가?(그거 '지세시리'라고 합디까?)

고기순 시리엔 헨게. 무슨 시리산디.(시루라고 하던데. 무슨 시루인지.)

김보향 몰라예.(몰라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어쨋든 색깔은 거멍헷던 거?(어쨌든 색깔은 거멨던 거?)

고기순 으.(으.)

김보향 시리에. 시리 ᄒᆞ꼼 큽디가?(시루에. 시루 조금 큽디까?)

고기순 커 쪼끔. 이만이 이 정도 둥그렁. 이만이 이 정도주.(커 조금. 이만한 이 정도 둥그런. 이만큼 이 정도지.)

김보향 아니면 팔 한 아름 안은 정도.(아니면 팔 한 아름 안은 정도.)

고기순 으. 요만이.(으. 요만큼.)

김보향 이 정도.(이 정도.)

고기순 게난 우리도 잘 못 들어오게 허여. 그거 헐 때는 우리 시어머니가. 사람덜 들어오믄 이제 덧나근에 잘 안 익넨 허멍.(그러니까 우리도 잘 못 들어오게 해. 그거 할 때는 우리 시어머니가. 사람들 들어오면 이제 덧나서 잘 익는다고 하면서.)

김보향 아, 무사 사람들 들어오민 덧난덴?(아, 왜 사람들 들어오면 덧난다고?)

고기순 몰라.(몰라.)(웃음)

김보향 몰라, 게난 그 시리 찔 때 들어오지 말렌 헤?(몰라, 그러니까 그 시루 찔 때 들어오지 말라고 해?)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믄 들어오지 말렌 문 더꺼붑니까?(그럼 들어오지 말라고 문 닫아버립니까?)

고기순 경허믄 절로 문 닫아 불믄 이디만 들어오주게. 부엌에 안 강.(그러면 저리로 문 닫아 버리면 여기만 들어오지. 부엌에 안 가고.)

김보향 부엌에 안 강. 이디 들엉 일로 들어가도 뒈큰게.(부엌에 안 가고. 여기 들어서 이리로 들어가도 되겠네.)

---

36) '지세시리'는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구워서 색깔이 검은 시루를 말한다. '지세시리'의 '지세'는 기와, '시리'는 '시루'의 제주어다.

고기순 게, 못 들어오게 허믄 안 가.(그래, 못 들어오게 하면 안 가.)

김보향 아, 시어머니가 아예 못 들어오게. 부엌에?(아, 시어머니가 아예 못 들어오게. 부엌에?)

고기순 으.(으.)

김보향 아, 기구나. 경헹 그 시리떡 허고예. 시리떡 허젠 허믄 그냥 시리만 잇이민 뒐 거라예?(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시루떡 하고요. 시루떡 하려고 하면 그냥 시루만 있으면 될 거지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다음 다른 떡은 안 헤 봅디가?(그다음 다른 떡은 안 해 봅디까?)

고기순 저 다른 떡 ᄆᆞ믈쏠 ᄆᆞ믈ᄀᆞ루 헤다근에 영 헤영 인절미 영 네모나게.(저 다른 떡 메밀쌀 메밀가루 해다가 이렇게 해서 인절미 이렇게 네모나게.)

김보향 으, 으.(으, 으.)

고기순 그런 거 영 만들안.(그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김보향 으. 그거 만들아난 거예.(으. 그거 만들었던 거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거 만들젠 허민 필요한 거 따로 뭐 엇인가?(그거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거 따로 뭐 없는가?)

고기순 저 옛날에는 영 밀젠 허믄 안반. 빨래 두드리는 안반.(저 옛날에는 이렇게 밀려고 하면 안반. 빨래 두드리는 안반.)

김보향 으.(으.)

고기순 그거 그것에.(그거 그것에.)

김보향 그것에.(그것에.)

고기순 으.(으.)

김보향 밀 때는 뭐에 밀어? 밀 때.(밀 때는 뭐에 밀어? 밀 때.)

고기순 그때.(그때.)

김보향 몰, 반죽헐 때는?(말, 반죽할 때는?)

고기순 반죽은 손으로 허주만은 영.(반죽은 손으로 하지만 이렇게.)

김보향 그릇, 그릇 잇어야 뒐 거 아니?(그릇, 그릇 있어야 될 거 아니?)

고기순 으. 그런 것도 큰 낭푼이에.(으. 그런 것도 큰 양푼에.)

김보향 큰 낭푼이.(큰 양푼.)

고기순 으.(으.)

김보향 예.(예.)

고기순 경헤여근에 밀 때는 병으로 밀언.(그래서 밀 때는 병으로 밀었어.)

김보향 아, 병으로 밀언?(아, 병으로 밀었어?)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 안반이 이거는 그냥 돔베잖아예?(그 안반이 이거는 그냥 도마잖아요?)

고기순 이건 돔베, 이건 안 쓰는 돔벤디 돔베.(이건 도마, 이건 안 쓰는 도만데, 도마.)

박진향 삼춘 그 돔베.(삼촌 그 도마.)

고기순 이거보단 막 크주. 이만이 헌.(이거보다 아주 크지. 이만한.)

김보향 그지예.(그렇지요.)

고기순 일로 이만이, 이 정도는.(이리로 이만은, 이 정도는.)

김보향 막 크지예, 암반예.(아주 크지요, 안반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게민.(그럼.)

고기순 그거 우리 이디 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난 우리 씨동생이 영 거젼가 불엇어.(그거 우리 여기 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우리 시동생이 이렇게 가져가 버렸어.)

김보향 아. 그것도 완전 보물.(아. 그것도 완전 보물.)

고기순 으.(으.)

박진향 삼춘 이거 이거 이 도마는 만든 거 아니예? 이거 마릿널 이런 거로 만든 거 아니믄 사 온 거?(삼촌 이거 이거 이 도마는 만든 거 아니요? 이거 마룻널 이런 것으로 만든 거 아니면 사 온 거?)

고기순 아니, 나 이거 다른 데 시난 가져단 써난.(아니, 나 이거 다른 데 있으니까 가져다가 썼었어.)

박진향 아, 기구나. 난 혹시나 이런 널 가졍.(아, 그렇구나. 난 혹시나 이런 널 가지고.)

고기순 아니, 아니.(아니, 아니.)

김보향 만들아신가?(만들었는가?)

고기순 이 나무는 이런 널 나무는 진짜 백 년 이상.(이 나무는 이런 널 나무는 진짜 백 년 이상.)

김보향 요거는 몰라, 요거는 좀 새 거인 거 같은데 저거랑 요거랑은 좀 다른 거 같에. 이것도 널도 이 널 바꾼 거 아니꽈?(요거는 몰라, 요거는 좀 새 거인 거 같은데

저것이랑 요것이랑은 좀 다른 거 같아. 이것도 널도, 이 널 바꾼 거 아닙니까?)

고기순 아니.(아니.)

김보향 헤난 거꽈?(했었던 겁니까?)

고기순 으.(으.)

김보향 아, 기꽈?(아, 그렇습니까?)

박진향 나는 이거 널처럼 생겨서.(나는 이거 널처럼 생겨서.)

고기순 (웃음)

박진향 삼춘 사 온 거꽈?(삼촌 사 온 겁니까?)

고기순 아니, 사오지 안허연. 나가 어디 잇이난 갖단 써낫주기.(아니, 사 오지 않았어. 내가 어디 있으니까 가져다가 썼었지.)

김보향 게믄 아까 안반은 떡 물 때 그 안반에서 헷잖아예?(그럼 아까 안반은 떡 말 때 그 안반에서 했잖아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믄.(그럼.)

고기순 게믄 빨래 두드릴 때도 그, 그것에서.(그럼 빨래 두드릴 때도 그, 그것에서.)

김보향 똑같은 것에.(똑같은 것에.)

고기순 으.(으.)

김보향 빨래 두드릴 때도 쓰고. 오.(빨래 두드릴 때도 쓰고, 오.)

고기순 영 다까 둰게. 빨래 두드릴 때, 빨래 두드리곡.(이렇게 닦아 두고. 빨래 두드릴 때, 빨래 두드리고.)

김보향 으.(으.)

고기순 이제 일 년에 한 번이나 쓰젠 허믄 그거 따까 낭.(이제 일 년에 한 번이나 쓰려고 하면 그거 닦아 두고.)

김보향 맞아.(맞아.)

고기순 그것에 밀곡 경 허엿주기.(그것에 밀고 그렇게 했지.)

김보향 으, 맞아예.(으, 맞아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 안반에 아까 빨래 두드릴 때 얘기허난에 두드릴 때는 뭐로 두드려수과?(그 안반에 아까 빨래 두드릴 때 얘기하니까 두드릴 때는 뭐로 두드렸습니까?)

고기순 마께.(방망이.)

김보향 마께.(방망이.)

고기순 (웃음)

김보향 마께 긴 거 잇엉 영 영 영.(방망이 긴 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기순 아, 우린 긴 거 엇어.(아, 우린 긴 거 없어.)

김보향 으.(으.)

고기순 영 동글 헤근에 자룩 손잡이만 영 잇인 거. 영 둥글락헨 영 허믄 그것에.(이렇게 동그래서 자루 손잡이만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둥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것에.)

김보향 으. 두드련예?(으. 두드렸지요?)

고기순 (웃음)

김보향 (웃음) 그믄 떡 썰, 물앙 썰 때는 물 때는 떡 ᄆᆞ는 건 따로 엇이난 병으로 헌 거.(그럼 떡 썰, 말아서 썰 때는 말 때는 떡 마는 건 따로 없으니까 병으로 한 거.)

고기순 병으로.(병으로.)

김보향 술벵으로?(술병으로?)

고기순 으.(으.)

김보향 예, 예. 그거고 삼춘네는 혹시 솔벤, 절벤은 안 헷수과?(예, 예. 그것이고 삼촌네는 혹시 솔편, 절편은 안 했습니까?)

고기순 우리 저 솔벤은 안 헤연.(우리 저 솔편은 안 했어.)

김보향 으.(으.)

고기순 옛날에 솔벤은 하르방 이름이 잇어나부난. 우리 송펜은 허는디.(옛날에 솔편은 할아버지 이름이 있었어. 우리 솔편은 하는데.)

김보향 으.(으.)

고기순 지금도 솔벤은 영 좁앙 허는 거.(지금도 솔편은 이렇게 집어서 하는 거.)

김보향 으.(으.)

고기순 그건 안 헤여.(그건 안 해.)

김보향 하르부지 성함 중에.(할아버지 성함 중에.)

고기순 우리 어느 친척 하르부지가 솔벤이엔 헌 이름이 잇어나부난.(우리 어느 친척 할아버지가 '솔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서.)

김보향 아, 재밋다.(아, 재밌다.) (웃음)

고기순 (웃음) 그 우리 김 칩이는 그건 안 헨.(그 우리 김씨 집안은 그건 안 했어.)

김보향 아, 재밋다.(아, 재밌다.)

고기순 (웃음)

박진향 경허믄 안 허는 거구나. 사름이 잇이믄.(그러면 안 하는 거구나. 사람이 있으면.)

김보향 거느리지 말렌 허는 거지.(거느리지 말라고 하는 거지.)

고기순 으.(으.)

김보향 (웃음)

고기순 웃대 할아버지난. 돌아가시고 허난 이름 뭐 허지 말렌 혜영 허는 거 같에. 우리 생각엔.(윗대 할아버지니까.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름 뭐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거 같애. 우리 생각에는.)

김보향 맞수다. 거느리지 말렌 경허는 거.(맞습니다. 거느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

고기순 으, 으.(으, 으.)

김보향 게믄 만약에 그런 떡을 만들어서예.(그럼 만약에 그런 떡을 만들었어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것도 ᄆᆞ는 거는 똑 ᄀᆞ트지만은 이거 뜰 때, 물앙 영 뭐 할 때?(그것도 마는 것은 꼭 같지만 이거 뜰 때, 말아서 이렇게 뭐 할 때?)

고기순 우린 그거 안 혀난. 그냥 송펜만 허난 그냥.(우린 그거 안 했었어. 그냥 송편만 하리까 그냥.)

김보향 아, 송편만 헤난?(아, 송편만 했었어?)

고기순 으.(으.)

김보향 절벤도 안 허고. 솔벤은 아까 안 헷덴 헷주만은.(절편도 안 하고. 솔편은 아까 안 했다고 했지만.)

고기순 으.(으.)

김보향 절벤도.(절편도.)

고기순 저 인절미는 그 밀어근에 칼로 썰엉 허곡. 이제 또 이제 돌 반착짜리.(저 인절미는 그 밀어서 칼로 썰어서 하고. 이제 또 이제 달 반쪽짜리.)

김보향 으.(으.)

고기순 똥글락허는 떡. 그거는 저 주전자, 주전자 뚜껑으로.(동그란 떡. 그거는 저 주전자, 주전자 뚜껑으로.)

김보향 주전자 뚜껑으로 허고. 영 동글랑헤 가지고 여기 문양 들어간 거.(주전자 뚜껑으로 하고.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여기 문양 들어간 거.)

고기순 그거랑 문양 노멍은 안 헤여 봔.(그것이랑 문양 놓으면서는 안 해 봤어.)

김보향 그건 안 헤 봔예.(그건 안 해 봤어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게민 송편 할 때에 송편 영 물앙 영 영 영 만들아수다예.(그럼 송편 할 때는 송편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기순 으.(으.)

김보향 송편에 쉬는 뭐 놔나수과?(송편에 소는 뭐 놨었습니까?)

고기순 팟으로.(팥으로.)

김보향 팟으로 놔난예.(팥으로 놨었지요.)

고기순 그민 그거 솖을 때, 솖안예?(그럼 그거 삶을 때, 삶았어요?)

고기순 솟에서 솖아야주게.(솥에서 삶아야지.)

김보향 찌지 않고 솖앗지예?(찌지 않고 삶아야지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예. 솖앙 영 건질 때.(예. 삶아서 이렇게 뜰 때.)

고기순 건질 때.(뜰 때.)

김보향 건질 때 뭐로 건져난?(뜰 때 뭐로 떴었습니까?)

고기순 저 무신거게. 국자 무신거. 그때 그런 거 나무 국자로 그레 건져 난 물 빠주아근에 헨에.(저 무엇. 국자 무엇. 그때 그런 거 나무 국자로 그리 뜨고 나서 물 빠지게 해서.)

김보향 그민 그 나무 국자 같은 거 여기 구멍 송송송송 난 거.(그럼 그 나무 국자 같은 거 여기 구멍 송송송송 난 거.)

고기순 아니, 엇어 그런 거.(아니, 없어 그런 거.)

김보향 엇어난예?(없었어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예. 그거 봐난 거 알아지쿠과? 곰박이렌 불르는 거?(예. 그거 봤던 거 알겠습니까? '곰박'이라고 부르는 거?)

고기순 아니.(아니.)

김보향 어쨋든 영 헹 국자로 거려 놩.(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자로 떠 놓고.)

고기순 으.(으.)

김보향 물 빠지게 뭐에 놔살 거 아니?(물 빠지게 뭐에 넣어야 할 거 아니?)

고기순 소쿠리에 놔 가지고.(소쿠리에 놔 가지고.)

김보향 소쿠리에 봔예. 예, 예. 그거 헷엇엇고. 그 옛날에 보면은 우리 지금은 적은 다

여자들이, 적을 여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후라이팬에 굽잖아예. 옛날에는 어떵 헤나수과?(소쿠리에 넣었지요. 예, 예. 그거 했었고.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지금 적은 다 여자들이, 적을 여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프라이팬에 굽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고기순 옛날에는 여자덜은 그거 헤영 안 뒌 안 뒌덴 허영 어디 가믄 이제 남자들만 헹, 우리 씨아버지 어디 갓당 왕 거 허믄 적갈 ᄀᆞ튼 거 만들아낫주기.(옛날에는 여자들은 그거 해서 안 된, 안 된다고 해서 어디 가면 이제 남자들만 해서, 우리 시아버지 어디 갔다가 와서 그거 하면 적 같은 거 만들었었지.)

김보향 기지예?(그렇지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그건 남자들이 헤낫어예?(그건 남자들이 했었지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고기를 아까 그 그 안반에 그 고기 썰어나수꽈?(고기를 아까 그 그 안반에 그 고기 썰었었습니까?)

고기순 아니, 아니.(아니, 아니.)

김보향 고기는.(고기는.)

고기순 도마에.(도마에.)

김보향 도마에. 족은 거에.(도마에. 작은 것에.)

고기순 으, 으. 돔베에.(으, 으. 도마에.)

김보향 그믄 그거 영 끼워?(그럼 그거 이렇게 끼워서?)

고기순 으.(으.)

김보향 뭐에 끼워?(뭐에 끼워?)

고기순 적꼬지.(적꼬치.)

김보향 적꼬지에 끼워. 굽는 건 어떵 헤난?(적꼬치에 끼워. 굽는 건 어떻게 했었어?)

고기순 그거 적꼬지에 그냥 그때는 요세 사름덜은 적꼬지에 꽂앙 영 쪼끔 굽주만은 그냥 꿰어근에 그냥 잘만 삶아근에 영 썰엉 꿰엉 그냥 올려낫주게.(그거 적꼬치에 그냥 그때는 요새 사람들은 적꼬치에 꽂아서 이렇게 조금 굽지만 그냥 끼워서 그냥 잘만 삶아서 이렇게 썰어서 끼워서 그냥 올렸었지.)

김보향 아, 삶아진 거 썰엉 구웟구나. 게믄 그거 다시 불에 굽거나.(아, 삶은 거 썰어서 구웠구나. 그럼 그거 다시 불에 굽거나.)

고기순 아니. 아니.(아니. 아니.)

김보향 안 헤나수꽈?(안 했었습니까?)

고기순 으.(으.)

김보향 게믄 삼춘네 집에는 영 고기 적쉐에 놔 가지고 굽는 화리 그런 건 안 써난?(그럼 삼촌네 집에서는 이렇게 고기 석쇠에 놔 가지고 굽는 화로 그런 건 안 썼었어?)

고기순 으, 엇어.(으, 없어.)

김보향 엇어난예? 예, 예. 삼춘 옛날에 요거는, 우리 옛날에 그 떡 헤나민 지금은 플라스틱 소쿠리들이 나와수다만은 그거 나오기 전에 어떤 거 써난?(없었어요? 예, 예. 삼촌 옛날에 요거는, 우리 옛날에 그 떡 하고 나면 지금은 플라스틱 소쿠리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거 나오기 전에 어떤 거 썼었어?)

고기순 대구덕, 대차롱[37].(대바구니, '대차롱'.) (웃음)

김보향 대차롱예. (웃음) 차롱들이 영 잇어난?('대차롱'요. 채롱들이 이렇게 있었어?)

고기순 으, 대차롱.(으, 대채롱.)

김보향 예. 그믄 거기에 떡 놓고 적도 거기에 나둬?(예. 그럼 거기에 떡 넣고 적도 거기에 놔둬?)

고기순 적 지진 건 거기에 놓고 고기는 사라에게.(적 지진 거 거기에 놓고 고기는 접시에.)

김보향 음. 고기는 사라에 놓고.(음. 고기는 접시에 놓고.)

고기순 으.(으.)

김보향 으, 혹시 빙떡 ᄀᆞ뜬 것도 헤 봐수꽈?(으, 혹시 빙떡 같은 것도 해 봤습니까?)

고기순 우리 이디선 빙떡 안 헤여.(우리 여기에선 빙떡 안 해.)

김보향 안 헤봔?(안 해 봤어?)

고기순 으.(으.)

김보향 떡차롱 써낫고 떡차롱 말앙 어디 ᄆᆞ실카젠 허민, 또 식게집에 뭐 지물 가젠 허민.(떡 채롱 썼었고 떡 채롱 말고 어디 'ᄆᆞ실가'려고 하면, 또 제삿집에 뭐 제물 가려고 하면.)

고기순 건 떡구덕[38] 에 영 떡차롱[39]이나 떡구덕에나 영 헤영 가고. 우리 어디 당이나 그런 데는 우리 아니 다녀 봔. (그건 떡 바구니에 이렇게 떡 채롱이나 떡 바구니에나 이렇게 해서 가고. 우리 어디 당이나 그런 데는 우리 안 다녀 봤어.)

---

37) '대차롱'은 대오리로 결어서 만든 채롱을 말한다.

38) '떡구덕'은 주로 떡을 담아 다니는 대오리로 결은 바구니를 말한다.

39) '떡채롱'은 주로 떡을 담아 다니는 대오리로 결은 채롱을 말한다.

김보향 아니 다녀 봔예.(안 다녀 봤어요.)

고기순 우리 어머니네도 그런 딘 안 다년.(우리 어머니네도 그런 데 안 다녔어.)

김보향 으. 삼춘 아까 나가 ᄆᆞ실카다[40]라고 이야기헌.(으. 삼촌 아까 내가 'ᄆᆞ실카다'라고 이야기한.)

고기순 으, ᄆᆞ실가는 건 어디 당이나 어디 가는 것ᄀᆞ라 어디 ᄆᆞ실가는 거.(으, 'ᄆᆞ실가는' 건 어디 당이나 어디 가는 것보고 'ᄆᆞ실가는' 거.)

김보향 으.(으.)

고기순 (웃음)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예, 당에 가는 거 ᄆᆞ실가는 거렌 허는 거.(맞습니다. 맞아요, 당에 가는 거 'ᄆᆞ실가는' 거라고 하는 거.)

고기순 으. 게난 우리 ᄆᆞ실 가는 거 그런 건 우리 김칩인 엇어.(으. 그러니까 우리 'ᄆᆞ실가는' 거 그런 건 우리 김씨 집안에는 없어.)

김보향 으. 어디 식게집 가젠 헤도 뭐 가졍 가살 거 아니? 놈이, 저기 친척 집에 식게집 가젠 허민.(으. 어디 제삿집 가려고 해서 뭐 가지고 가야 할 거 아니? 남의, 저기 친척 집에 제삿집 가려고 하면.)

고기순 친척집이나 어디 가젠 허민 옛날엔게 어디 소주병이나 뒛벵짜리 하나 들렁 가고 경헤낫주기.(제삿집에나 어디 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어디 소주병이나 됫병짜리 하나 들고 가고 그랬었지.)

김보향 으. 거기 쏠 담앙 가진 안헨? 어디 부조하러 갈 때?(으. 거기 쌀 담고 가지는 않았어? 어디 부조하러 갈 때?)

고기순 옛날에는 어디 부조헐 때 어디 잔치집이 갈 때 쏠이나 담앙 가곡 헤낫주. 우리 경, 그런 건 안 헤난.(옛날에는 어디 부조할 때 어디 잔칫집에 갈 때 쌀이나 담아서 가고 했었지. 우리 그렇게, 그런 건 안 했었어.)

김보향 그런 건 안 헤난?(그런 건 안 했었어요?)

고기순 으.(으.)

김보향 네, 네.(네, 네.)

40) 'ᄆᆞ실카다'는 가까운 마을에 가는 것 또는 당에 가는 것을 말한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X 한림읍 편

발 행 인 박찬식(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발 행 일 2022. 12. 28.

총 괄 박용범

담 당 황이새

외부조사원 김보향, 박진향

학예 지원 김완병, 백지현, 김범수, 부슬기든

학예 인턴 이재호, 양은호

디자인인쇄 라임디자인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TEL. (064)710-7698 / FAX. (064)710-7709
http://museum.jeju.go.kr

ISBN 979-11-87075-18-9 [비매품]